

누가복음 강해

The Lessons from the Book of Luke

by

Donald S Fortner

번역

박영호

누가복음 강해

“The Lessons from the Book of Luke”

by

Don Fortner

© Don Fortner 2016.
All rights reserved.

My desire is not to restrict, but to further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is book. Any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 prior permission.

Don Fortner
2734 Old Stanford Road
Danville, KY 40422

목차

- 1 장. 인자이신 그리스도—누가복음 1:1-4
- 2 장.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는 일들—누가복음 1:1-4
- 3 장.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랜 침묵을 깨셨을 때—누가복음 1:5-12
- 4 장.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누가복음 1:13-17
- 5 장. 믿지 아니함—누가복음 1:18-25
- 6 장. 우리 구원자의 위대함—누가복음 1:26-33
- 7 장.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누가복음 1:34-38
- 8 장. 산중에 가서—누가복음 1:39-45
- 9 장. 마리아의 찬양—누가복음 1:46-56
- 10 장.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누가복음 1:57-66
- 11 장. 찬양에 대한 세 가지 큰 이유—누가복음 1:67-80
- 12 장. 우리 구원자의 출생—누가복음 2:1-7
- 13 장. 성육신의 전갈—누가복음 2:8-20
- 14 장. “율법을 따라서”—누가복음 2:21-24
- 15 장. 그리스도 우리의 빛, 우리의 영광, 또 우리의 구원—누가복음 2:25-35
- 16 장.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누가복음 2:36-40
- 17 장. 주의 소년 시절의 공과—누가복음 2:41-52
- 18 장. 선지자 만들기—누가복음 3:1-6
- 19 장. 전파되는 침례—누가복음 3:7-14
- 20 장. 침례자 요한: 충성된 전도자—누가복음 3:15-20
- 21 장. 주의 침례와 계보의 공과—누가복음 3:21-38

- 22 장. 그리스도의 유혹—누가복음 4:1-13
- 23 장. 회당 안의 소동—누가복음 4:14-32
- 24 장. 가버나움의 공과—누가복음 4:31-44
- 25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누가복음 5:1-11
- 26 장. 어떻게 죄인이 긍휼을 얻기 위하여 주께 가는가?—누가복음 5:12-16
- 27 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네 사람—누가복음 5:17-26
- 28 장. “레위라 하는 세리”—누가복음 5:27-32
- 29 장. “묵은 것이 좋다”—누가복음 5:33-39
- 30 장. “첫 번째 이후 두 번째 안식일”—누가복음 6:1-5
- 31 장. “또 다른 안식일에”—누가복음 6:6-11
- 32 장. 기도, 전도, 능력—누가복음 6:12-19
- 33 장. 네 가지 큰 대조—누가복음 6:20-26
- 34 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나?
—누가복음 6:27-38
- 35 장. 세 가지 큰 위험—누가복음 6:39-45
- 36 장. 당신의 기초는 무엇인가?—누가복음 6:46-49
- 37 장. 어떤 백부장—누가복음 7:1-10
- 38 장. 축복 받은 개입—누가복음 7:11-17
- 39 장. 정죄 받은 사람의 관심—누가복음 7:18-22
- 40 장. 우리 위대한 수호자—누가복음 7:24-30
- 41 장. “의롭게 된 지혜”—누가복음 7:31-35
- 42 장. 죄인이었던 여인—누가복음 7:36-50
- 43 장. “왕국 복음”—누가복음 8:1-3
- 44 장. 어떻게 듣는지 유의하라—누가복음 8:4-18

- 45 장. 모두가 알아야 한다—누가복음 8:16-21
- 46 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누가복음 8:16-18
- 47 장. “광풍이 내리치매”—누가복음 8:22-25
- 48 장. 거라사인을 위한 은혜—누가복음 8:26-39
- 49 장. “그들이 간구하더니”—누가복음 8:31-40
- 50 장.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누가복음 8:41-48
- 51 장. “아이야, 일어나라.”—누가복음 8:41-56
- 52 장. 이런 일이 또 있는가?—누가복음 9:1-6
- 53 장. “이 사람이 누구고?”—누가복음 9:7-11
- 54 장.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누가복음 9:7-11
- 55 장. 오병이어와 오천 명의 식사—누가복음 9:12-17
- 56 장. 베드로의 고백—누가복음 9:18-22
- 57 장. 기독교는 무엇인가?—누가복음 9:23-27
- 58 장. 변화 — 영광의 광채—누가복음 9:28-36
- 59 장. 그들이 내려 왔을 때—누가복음 9:37-45
- 60 장. 피해야 할 두 가지 것들—누가복음 9:46-50
- 61 장. “기약이 차가매”—누가복음 9:51-56
- 62 장. 거짓 제자와 두 명의 잘못된 전도자들—누가복음 9:57-62
- 63 장. “친히 가시려는”—누가복음 10:1-7
- 64 장. “이것을 알라”—누가복음 10:8-16
- 65 장. 억제된 기쁨과 격려된 기쁨—누가복음 10:17-20
- 66 장. 우리 구원자의 유일한 기쁨—누가복음 10:21-24
- 67 장. 선한 사마리아인—누가복음 10:25-37
- 68 장. “한 가지 필요한 것”—누가복음 10:38-42
- 69 장.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누가복음 11:1-4

- 70 장. 뻔뻔한 자포자기—누가복음 11:5-13
- 71 장.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하였느니라”—누가복음 11:14-20
- 72 장. 무장한 강한 자 — 묶어 내다 버리다—누가복음 11:21-26
- 73 장. 표적을 기대함—누가복음 11:27-32
- 74 장. 빛인가 흑암인가?—누가복음 11:33-36
- 75 장. 독선주의—누가복음 11:37-54
- 76 장. 주의 친구들을 위한 말씀—누가복음 12:1-7
- 77 장. 두 가지 경고와 하나의 약속—누가복음 12:8-12
- 78 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누가복음 (12:13-21)
- 79 장.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누가복음 12:23-31
- 80 장. 중요한 것을 먼저—누가복음 12:22-31
- 81 장.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 하시느니라”—누가복음 12:32-40
- 82 장. 하나님의 종들—충성된 자와 악한 자—누가복음 12:41-48
- 83 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누가복음 12:49-53
- 84 장. 때를 분별함—누가복음 12:54-59
- 85 장. 인간의 비극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누가복음 13:1-5
- 86 장.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누가복음 13:6-9
- 87 장. 마침내 치유받음!—누가복음 13:10-17
- 88 장. 두 가지 교훈적인 비유—누가복음 13:18-21
- 89 장.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누가복음 13:22-30
- 90 장.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누가복음 13:30-35
- 91 장. 안식일 — 공황의 날—누가복음 14:1-6

- 92 장. “말석에 앉으라”—누가복음 14:7-11
- 93 장. 영원을 위하여 살아감—누가복음 14:12-15
- 94 장. 대만찬—누가복음 14:15-24
- 95 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가지 문제—누가복음 14:25-35
- 96 장. 잃어 버리고 찾음—누가복음 15:1-32
- 97 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누가복음 16:1-13
- 98 장.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누가복음 16:13-18
- 99 장. 너무 늦게 배운 일곱 가지 공과—누가복음 16:19-31
- 100 장. 강력한 교훈—누가복음 17:1-5
- 101 장. “주여,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누가복음 17:5-10
- 102 장. 깨끗함을 받았으나, 치유 받지 않음—누가복음 17:11-19
- 103 장. 하나님의 나라—누가복음 17:20-25
- 104 장. 하나님의 두드러진 은혜—누가복음 17:20-37
- 105 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누가복음 18:1-8
- 106 장. 독선주의—누가복음 18:9-14
- 107 장.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누가복음 18:15-17
- 108 장.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누가복음
18:18-27
- 109 장. 약속, 예언, 그리고 문제—누가복음 18:28-34
- 110 장.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누가복음 18:35-43
- 111 장. 찾아 구원 받은 타락한 죄인—누가복음 19:1-10
- 112 장. 귀인과 그 종들—누가복음 19:11-27
- 113 장. 길들이지 않은 나귀새끼를 타는 왕 예수—누가복음
19:28-40
- 114 장. “성을 보시고 우시며”—누가복음 19:41-44

- 115 장.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심—누가복음 19:45-48
- 116 장.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악함—누가복음 20:1-8
- 117 장. 하나님의 교회 — 그분의 포도원—누가복음 20:9-19
- 118 장.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누가복음 20:19-26
- 119 장. “부활의 자녀”—누가복음 20:27-38
- 120 장.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주—누가복음 20:39-47
- 121 장. 어려운 때를 위한 공과들—누가복음 21:1-24
- 122 장. “실패하게 하는 인간의 마음”—누가복음 21:25-38
- 123 장. 마지막 유월절의 준비—누가복음 22:1-13
- 124 장.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4-20
- 125 장. “누가 가장 크냐?”—누가복음 22:21-30
- 126 장. 베드로의 타락과 회복—누가복음 22:31-34, 54-62
- 127 장. 까부른 밀—누가복음 22:31-32
- 128 장.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누가복음
22:31-38
- 129 장. 겐세마네에서의 고뇌—누가복음 22:39-46
- 130 장. 배반—누가복음 22:3-6
- 131 장. 한 큰 죄인과 그의 큰 구원자—누가복음 22:54-62
- 132 장. 시험 받는 통치자—누가복음 22:63-71
- 133 장.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누가복음 23:1-46
- 134 장. 바라바 — 대속의 그림—누가복음 23:1-33
- 135 장. 갈보리로부터의 공과—누가복음 23:32-43
- 136 장. “이 일을 보니라”—누가복음 23: 24-49
- 137 장. 하나는 택함 받고, 다른 하나는 남겨짐—누가복음
23:39-43

- 138 장. 흑암-갈라진 휘장—누가복음 23:44-45
139 장. 우리 구원자의 죽음—누가복음 23:44-49
140 장. 아리마대의 요셉—누가복음 23:50-56
141 장. 무덤은 비어있지 않았다—누가복음 24:1-12
142 장.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다.”—누가복음 24:13-35
143 장. 필요성—누가복음 24:26
144 장.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누가복음 24:29
145 장. “내 손을 보라”—누가복음 24:36-53
146 장. 다시 사심 —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분—누가복음 24:36-53
147 장. 못 박힌 그분의 손—누가복음 24:50-53

1 장. 인자이신 그리스도—누가복음 1:1-4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1-4)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연구에서 보았듯이, 사복음서의 각각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었으며, 각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를 계시하면서, 각기 성령에 의해서 우리 구원자의 위격과 역사의 특정하고 구별된 방면 네 가지를 제시하려 의도되었다. 복음서 이야기들 중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네 가지 모두 합하면 우리에게 분명하고 충만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것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신지를 보여 준다. — 마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메시아, 구속자—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왕이심을 보여 준다. — 마가는 주 예수를 여호와의 의로운 종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계시를 받았다. — 요한복음은 성삼위의 두 번째 위격,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제시한다. — 누가복음은 우리 구원자의 완전하고 영광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스러운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계획되었고, 기록되었다. 우리 구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누가는 그가 인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인자

누가는 우리 구원자를 “인자”로서 구별되게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자신을 묘사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사용하셨던 직함이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여기서 만나게 되는 한 분은 마태가 묘사한 구속자—왕이시며, 마가가 그런 의로운 종이시고, 요한이 선포한 성육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동일한 분이다. 그러나 누가는 우선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이신 사람으로서 제시하지만, 한편으로 요한은 그분을 또한 사람이신 하나님으로 제시한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보다 더 우리 구원자의 출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시한다. 누가만 우리에게 우리 주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약간 말한다. 그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기도와 그분의 궁핍함과 그분의 사람에 대한 동정심 가운데 우리 구속자께서 그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의 완전한 인성이 그분의 신성만큼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필수적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므로 이것을 행하신다. 한 영광스러운 인격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실 수 없었다. 누가의 의도는 본질적으로 19장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9:10).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는 특별히 그의 복음서를 “데오빌로”라 하는 사람에게 썼다. 이것은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기록되었다 (사도행전 1:1-2). 우리는 누가가 직접 우리에게 말한 것 외에는 그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이 데오빌로는 지위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누가는 그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른다. 많지 않은 귀족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6), 단 몇 사람만 그렇게 부른다. 하나님은 모든 지위 중 몇 사람을 선택하셨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사도행전은, 그가 사도행전 1 장을 시작하는 말에서 가리킨 것처럼, 실제로 누가복음의 연속이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계셨던 동안 그분의 역사들을 서술한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 이야기를 마쳤던 곳부터 다룬다. 오직 사도행전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서술한다.

사도행전 1 장에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기술한다. 비록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사들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25), 누가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성령이 계시하였던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구원과 관련하여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순종, 율법에 대한 그분의 복종, 우리 대속자로서의 그분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하여 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원한 의를 가져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던 것
들이다.

가장 확실하게 믿은 것들

그리고 누가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계명을 성령에 의해서 선택 받은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들에 의해 교회에 주셨다고 말한다. 교회의 모든 교리와 조례, 믿음과 실행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여 있다 (디모데후서 3:16). 사도행전과 여기서, 그의 복음의 바로 그 시작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어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선포가 차례대로 제시”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1:1).

일반적인 의견과는 반대로, 믿는 자들은 어떤 것들, 어떤 특정한 것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믿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확실하게 어떤 특정한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 안에서 계시된 그런 것들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로 된 책 안에서 계시하신 것을 믿는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며, 그가 고백한 것과는 관계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Roger Ellsworth 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진리의 구별된 몸에 압도적인 회오를 고집스럽게 붙잡는 공동체이다.”고 썼다.

그렇다.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어떤 것들이 있다. 누가는 이것에 대하여 어떤 골격도 잡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서 안 된다. 사람들이 우리를 편협한 교조주의자로 고발하게 하고, 종교적인 세상의 나머지와 걸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 나오며, 그들이 선택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어떤 추한 이름이라도 우리 위에 쌓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어떤 것들은 치명적이라고 선포하신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다.

- 누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겨지는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제시하기 위하여”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였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데오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우리 가운데 가장 확하게 믿겨지는 그런 것들을 사랑한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누가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배하는 모든 자에 의해 가장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것들 중 몇 가지를 분명하게 말한다.
- 누가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 가운데 있는 죄인됨을 보여준다. — 범죄와 죄들 가운데 잃어버렸고, 파멸되었으며, 사망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며, 그들의 형편을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동전, 잃은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처럼,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15 장).
- 누가는 또 우리에게 인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안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믿는다 (1:35; 9:20).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모든 믿는 자는 사가랴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을 효험 있게 성취하고 얻으셨다는 것을 사가랴와 함께 기쁘게 고백한다 (1:68). 사가랴가 그리스도의 성취에 관하여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셨음을 말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한다 (1:67-79).
- 그의 피로 인하여, 효험 있는 성취된 구속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얻은 이 구원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운 계획으로, 순수한 은혜에 속한 문제로 온다 (4:25-27).
- 그리고 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풍성하게 대가가 없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죄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9:11).

누가의 특징

우리가 누가 복음을 읽으면, 누가가 다른 감화 받은 저자들 중 누구에 의해서도 언급되지도 않은 많은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한다. — 누가만 우리에게 침례자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며,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 오직 누가만 우리 구원자의 출생에 대하여 마리아에게 하신 천사의 선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 시므온과 안나와 마리아의 찬송에 대하여 읽는 곳은 오직 누가복음 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서만 이다. — 누가만 우리 구속자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정보를 준다. — 다른 어떤 복음 이야기도 사가랴의 회심과 죽어가는 강도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는다. — 오직 누가만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바리새인과 세리, 탕자, 부자와 나사로의 우화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 오직 누가만 주님의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분의 두 제자들과 함께 걸은 주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스런 의사”인 누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

누가 자신

이 사람 누가는 누구였는가? 우리가 보았듯이, 이 복음 이야기와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러나 누가는 누구였는가? 그는 심지어 그가 특출 난 역할을 하였던 사건들에 대하여 그가 기록할 때조차 그 자신의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았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명백히 초대 교회에서 현저하게 쓸모 있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를, “사랑스러운 의사 누가”라고 부른다 (골로새서 4:14). 데오빌로에 대하여 관찰한 바로는, 이 세상의 현자와 귀족들 중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불리지 않고, 약간만 그렇게 부른다. 그리고 누가는 그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바울의 지속적이고 신실한 동역자였다. 그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까지 함께 하였다. 거기서, 주께서 복음 교회를 일으키신 후에, 누가는 뒤에 남았으며, 아마도 하나님께 속한 것들 가운데 빌립보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보살피고 더 가르치기 위하여였음일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칠 년 후,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그와 누가는 빌립보에서 다시 만났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의 길을 갔을 때, 누가는 그와 함께 갔다. 누가는 그들이 로마로 향해하였을 때 바울의 옆에 여전히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건 바다를 통하여 그의 친구와 함께 갔으며 그가 로마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의 옆에 머물렀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로서 그의 생명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11)고 기록하였다.

누가는 그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방인이었으며, 성경 가운데 계시의 책의 한 부분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 선택 받은 유일한 이방인이었다.

인자

누가는 인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보여준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성을 제시하려 기록되었다. 그리고 누가는 그분의 완전한 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특별히 기록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의 삶, 우리의 보증과 대표자와 증보자와 대속자로서 본성과 생각과 말씀과 행위에 있어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자.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다. 따라서, 누가는 실제 사람으로서 우리 구원자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화를 받았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정하거나 거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이 담대함과 용기는 우리 주의 전파하시는 것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진다. 그는 그가 아버지의 종이였음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단호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4 장). 그는 헤롯에게서 도망갈 것을 권고 받았을 때, 그는 “가서 그 늑은 여우에게 나는 여기 와서 해야 할 것을 할 것이며, 그가 나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3:32).

그가 우리의 죄속량의 대속자로 그의 생명을 내려놓기 위한 때가 왔을 때, 우리 구원자는 그분께 보내진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셨다 (9:51). 대담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 구원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한 결의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시려 갈보리 산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패배 가운데가 아니라 승리 가운데, 동정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경배 받으시려, 침착하게 걸어가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큰 온유함과 측은이 여김과 동정의 인자였다. 그는 그분의 바로 첫 번째 설교에서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 먼 자에게 빛을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선포하셨다 (4:18-19). 누가는 측은이 여김이 충만하고, 비통함의 눈물을 닦으며, 버림받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경멸 당하는 세리들과 즐기며, 죄인들을 받고, 치유가 필요한 모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인자로 주 예수를 지속적으로 묘사한다. 주께로부터 모든 사람이 배우도록 하자. — 남자다움, 진정한 남자다움은 용기와 측은히 여김 모두를 포함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더욱이, 완전한 인자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 믿음의 인자였음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분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었다. 그분은 인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인 교통 가운데 사셨다.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헌신과 믿음의 놀라운 본인가! 그분의 아주 처음 기록된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2:49)였다. 그분의 죽으심의 마지막 호흡 전에 하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23:46)이었다. 적어도 다른 여덟 가지 경우에 있어서, 누가는 기도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를 묘사한다.

1. 그분의 침례 때에 (3:21)
2.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후에 (5:16)
3. 그분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6:12)
4. 베드로의 큰 고백 전에 (9:18)
5. 그분의 변화 때에 (9:29)
6.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전에 (11:1)
7. 겟세마네에서 (22:42)
8. 십자가에 매달리셨기에 (23:34)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는 모두 치욕과 비통함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우리가 자주 약하고, 모진 마음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거룩한 구원자이신 인자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서 온전함 — 용기에 있어서 완전함, — 온유, 긍휼, 동정에 있어서 완전함, — 믿음 가운데 완전함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았다! 그러나 그분은 모범적인 사람 그 이상이다...

누가는 이 거룩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제시한다. 그분은 구원을 죄인들에게 가져오셨다. 그분은 그분의 순종으로 그것을 쟁취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피로 그것을 사셨다. 그분은 그분의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그것을 보장하셨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말한다 (2:25-32). 구원은 신조나, 고백이나, 교회나, 체험이 아니다. 구원은 한 위격,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의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흠모한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배 드리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보배이다.” (베드로전서 2:7).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사람,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성취되었고 보장된 구원의 좋은 소식이다. 누가는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과 함께 완전한 조화 가운데 말하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 그분의 역사이고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것은 완성된 역사이다. 그것은 모든 종족, 도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인들을 위하여 성취된 역사이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 오직 하나님 자신께서 주실 수 있는 믿음, 주 이신 그리스도께 기꺼이 엎드릴 수 있는 믿음, 모든 세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게 전해져야 하는 구원을 요구한다.

누가의 목적은 우리 구원자의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의 인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며, 인자로서 그분의 과거의 모든 것과 행하신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가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람이 그 이상 훨씬 더 임을 보여 준다. 그는 이 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분은 만물에 대한 모든 권능을 소유하시며, 모든 때에 그것을 행사하신다.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는 모든 악 위에 완전한 권위를 소유하셨다 (누가복음 4:12, 35, 9:38, 11:14). 그는 사람들이 “본성의 속성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누가복음 8:22-25, 9:12-17, 5:4-11). 그분은 아픔과 질병과 고난 위에 전적인 지배를 소유하셨다 (누가복음 5:12-13, 7:1-10, 4:33-35, 5:18-25, 6:6-10, 18:35-43).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권능을 소유하셨다 (누가복음 5:24, 7:48). 그분은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한 (누가복음 6:20-22), 백성에게 하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한 능력과 권위를 소유하셨다 (누가복음 23:43; 24:50). 모든 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요한복음 17:2).

죄인들을 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가련하고 궁핍하며 길 잃은 죄인들을 위하여 얻은 구속과 이루신 구원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누가의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궁핍한 죄인들을 위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좋은 소식이다.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동정 어린 사랑을 보여 준다. 그는 우리 주의 혈통을 아담까지 돌아가고, 그분을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로써 보여주며, 사람들의 구원자로 보여준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고 가장 낮은 자의 아들 모두이다.

마태처럼,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의 계보를 제시한다 (3:23-38). 그러나 그것은 동일하지 않다. 마태의 계보에 대한 계수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며 요셉에 이르는 구원자의 혈통을 추적한다. 누가는 구원자 그분 자신으로 시작하여 아담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이르는 혈통을 추적한다. 마태는 우리에게 요셉을 통한 우리 구원자의 혈통을 보여주며, 그분을 “(추정되는 것처럼)요셉의 아들”임을 보여 준다 (누가복음 3:23). 누가는 그분의 혈통을 마리아를 통하여 따라간다.

목자들

마기의 방문 대신에, 누가는 구원자의 출생이 모든 백성에게 평강의 기쁜 파도로 선포되었던 보통 양치기에 대하여 말한다.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11).

시므온과 안나

늙은 시므온은 그의 품에 거룩한 아기를 안으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말했다 (누가복음 2:30). 그리고 안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했다.” (누가복음 2:38). 누가는 나인성 과부에 대한 그분의 동정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심을 기록하였고 (7:11-18), 죄인이었던 여인을 향한 온유함과 긍휼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7:36-50). 누가는 우리에게 삭개오의 이야기와 뒤이은 바리새인들의 수군거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데 그가 죄인이었던 사람과 함께 손님이 되려 가셨기 때문이다 (19:1-10).

비유들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비유들은 우리 구속자의 동정심과 그분의 구원하는 능력과 효험 모두를 보여주려 의도되어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원의 긍휼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동정하시는 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자기 의의 종교주의자들에게 대한 우리 구원자의 경멸과 궁핍한 죄인들에게 대한 그분의 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보여 준다. 끈덕진 과부의 비유는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여 구하는 모든 자가 은혜의 보좌에서 그것을 어떻게 찾는지 우리에게 보여 준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찾게 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큰 기쁨을 보여 준다. 큰 잔치의 비유 안에서 (14:16-24; 마태복음 22:1-14) 큰 길과 산 울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이다. 그리고,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라는 말은 이 24 장을 통하여 메아리 치는 듯하다.

누가만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그 성을 보셨을 때, 그분이 그 성을 두고 흐느끼셨다는 것을 말한다 (19:41-44). 겐세마네에서 구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의 피땀을 기술했던 사람도 누가이다 (22:39-46).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가 소유한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분이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고, 죽어가는 강도를 구원하심 안에서 그분의 고통 가운데에서 조차 그분이 속량의 첫 열매들을 모으시며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말한다 (23:39-43).

누가만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 후에 그분의 불안해 하는 제자들 중 두 명과 함께 엠마오 길을 따라 걸으신 이야기를 한다 (24 장). 그것은 아마도, 누군가 제시했던 것처럼, 누가가 그 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그분의 부활 후 조차도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운 고기 한 점과 꿀을 먹는 우리 주에 대하여 말한다. 그렇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인자,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분이 여전히 우리 결함의 느낌과 동정의 충만으로 감동받은 사람이며, 전능한 하나님이며, 필요한 때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마지막 장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누가만 우리에게 주는 장면이다 (24 장). 첫째, 44-47 절에서 구원자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그분의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 그들의 이해력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를 행하기 위한 그분의 영의 능력에 대해 확신시키며, 그분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명령을 발하신다 (48-49). —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50-53 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신 인자께서 하나님-사람으로서 그분의 보좌에 자리 하시려 영광에 오르시고, 그분의 보좌에 오르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 하시더니,” 그 못 박힌 손을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주의 통치를 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을 드린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본다.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분은 영원한 왕, 우리의 전능하고 언제나 탁월한 대언자, 모든 것 위의 하나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충만으로 그곳에 자리하신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 하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그분께 복종하며, 우리 구원자이신 이 인자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기를 언제나 보게 되도록 하자.

2 장.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는 일들—누가복음 1:1-4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1:1-4)

누가의 복음서를 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네 가지 사항이 있다. 그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제시 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소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속으로 태우실 것을 기도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몇 가지 것들

누가복음을 여는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것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는 이것에 대하여 세분화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우리를 편협한 교조주의자로 고소하고, 종교 세상의 나머지와 보조가 맞지 않고, 그들이 선택하는 추한 명칭을 우리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어떤 것들은 중대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선포한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하고 믿겨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 받지 않았다.

누가는 그가 그의 복음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데오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믿는 것들을 사랑한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들을 다섯 가지 명백한 문장으로 제시하겠다.

1.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그들의 상태를 바꿀 능력이 전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범죄와 죄들 가운데 타락과 파멸과 사망으로 빠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다. 우화에서 묘사된 잃어버린 동전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처럼 (누가복음 15 장), 구속의 피와 전능한 은혜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발견하여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 그분께 있게 하신 삼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안에 오셨다 (9:20).
3.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순종과 죽음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효험 있게 구원을 성취하고 얻었다 (1:68).
4. 이 구원은 순수하고, 대가 없으며, 주권적인 은혜인, 그리스도 안의 은혜에 속한 그분 자신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은사로 죄인들에게 온다 (4:25-27).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5.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풍성하게 대가가 없으므로 세상에 있으며 그것이 필요한 모든 죄인이 받는다 (9:11).

증인과 사역자들

여기에서 계시된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서, 오직 직접 체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직접적인 체험으로부터 그들이 알았던 것만을 말한다는 사실이다. 누가는 사도들을 “증인들이고 말씀의 사역자들”이었던 자들로 묘사한다. 나는 이 말씀이 엄격한 해석 안에서 육신 안에 계신 주 예수를 보았으며 그분의 입에서 직접 나온 복음을 배웠던 자들인, 사도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 말의 공식적인 의미 안에서 사도들은 없다. 그것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최초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 복음 전도자들 또한 “증인들이고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1-3)

신실한 사람들은 중고품 취급을 하거나, 의심스러운 논쟁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하여 토론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이 아는 것을 말하며, 그들이 본 것을 보고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르친다. 2 절과 3 절에서 누가가 말한 모든 것이 모든 참 복음 전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할 때 나는 성경으로 인증을 받지 않는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줄 알았노니.” (누가복음 1:2-3)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겪었던 것을 증인으로서 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고, 종들이다 (고린도후서 2:17; 4:7).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완전하고, 포괄적인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자들이다.

누가가 “모든 일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을 말할 때, 그는 절대 옳은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각자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각각의 사람은 성경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갖고 있다. 성경의 말씀을 아직 배우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직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가르칠 가치가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야 하고 가르치기에 적당하지 않다.

“근원부터” (3 절)라는 말은 “위로부터” (요한복음 3:31; 19:11; 야고보서 1:17; 3:15, 17)로 번역 되어야 하고 대부분 그렇게 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역되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깨달음과 그들의 말씀을 위로부터 받은 자들이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은 차례대로, 순서에 입각하여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줄 알았노니.” (3 절). — 셋째, 누가는 여기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며, 하나님의 감화로 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 엄격한 의미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화라는 주장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해석 학자들, 특별히 지적인 것처럼 보이기 좋아하는 현대인들은 누가가 이 근원을 사용하였다고 입증하려 하거나 그의 복음 이야기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서 사용하려 했다고 입증하려 한다. 그런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신성한 감화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음해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은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감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이다.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말로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서 언제나 숭배하도록 하자 (데살로니가전서 2:13; 디모데후서 3:16; 베드로후서 1:2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배움과 경험, 우리의 감정과 전통과 성경에 대한 편견을 포기하면서 성경에 언제나 엮드리자. 만약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성경의 어떤 다른 단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을 본다면, 그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잘것 없는 두뇌에 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드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있어서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여기서 배운다. 디모데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 위에 부여된 은혜가 있는 자는 복되다 (디모데후서 3:15).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3-4 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 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5:10-13).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위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선물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그분이 주신 기록을 믿는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겠는가, 아니면 당신의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우신다.

3 장.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랜 침묵을 깨셨을 때— 누가복음 1:5-12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누가복음 1:5-12)

사백 년 동안 땅 위의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받지 않았다. 사백 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감화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 받지 않았다. 사백 년 동안 어떤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말씀들을 듣고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지지 않았다. 어떤 말씀도 사백 년 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 하셨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희소식을 갖고 그분의 천사를 그에게 보냈다. 아무도 선지자 말라기의 시대로 이래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지명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백 년 동안 하늘로부터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래서 갑자기 주의 천사가 당신에게만 신성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 단락에서 우리 앞에 가진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첫 번째 것은, 사가랴라 하는 이스라엘에 있는 한 평범한 제사장 중 한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천사는 이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였던 그의 아내가 아기를 임신할 나이가 이미 지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들을 가질 것이며, 그의 아들이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의 선주자가 될 것임을 선포하였다.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이 늙은 남자가 믿기에 너무도 좋은 얘기였다. 신실한 사람이므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사람들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앞에 올 것임을 이 일이 있기 전 사백 년 전에 약속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말라기 3:1).

내가 확신 하건대, 2000 년 후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백 년을 앞서서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하늘은 침묵하였다. 다른 어떤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예비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나이든 남자에게 천사가 다니엘의 예언적 주간이 성취될 때 었음을 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도록 보내셨다. — “기름부음을 받은 자(메시아), 곧 왕”이 계시 되려 하였다 (다니엘 9:25).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안에서 세 상의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을 자손이 오려 할 때였다 (창세기 22:18). 배하나님의 집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만국의 보배”가 하늘로부터 곧 계시될 것이다 (학개 2:7).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 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계시의 진동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없지만, 우리 혼을 가르치기 위한 몇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구절 안 에 있다.

하나님의 택정

첫째, 우리 앞에 하나님의 택정의 한 예가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 은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대체사장 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장들에게 그 의 천사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이름은 사가랴라 하는 한 제사장”에게 보냈다. 사람들을 하는 대로 소란 을 일으키고 흥분하게 하라, 하나님의 책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 정하심의 은혜의 교훈을 가르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 든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그분의 뜻의 선하심을 따라서 어떤 자를 선택하고 다른 자들은 지나가신다.

하나님은, 옛 영원 전부터, 어떤 죄인들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선택 하셨으며, 영생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사랑에 속한 약속된 때에, 그가 천사(복음 전도자)를 그들에게 그 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보

내신다.

그분은 은혜의 말씀을 가진 전도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전능한 권능으로 그분의 택한 자의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보내기 위하여 그분의 영을 보내신다 (데살로니가전서 1:4-5; 디모데후서 1:9-10).

하나님께서 행하실 특별한 일이 계실 때, 그분은 특정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특정하고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거의 하찮게 생각했을 사람들이다. 사가랴는 아비아 반열에서 나온, 보통의 매일의 제사장들 중 하나 였다.¹ 그는 아마도 친구들과 가족과 친지의 작은 무리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종들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그들을 어떻게 다루실 줄을 아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때가 왔을 때, 그분은 그들을 그것에 부르시고 그것을 위하여 무장 시키신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둘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 앞에 의인의 성품을 제시한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6 절)라고 듣는다. 그들은 천연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은

¹ 성전이 건설될 때 스물네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다. 아비아 반열은 스물넷 중 여덟 번째였다 (역대상 24:10).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10-12)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칭의 가운데 그들에게 전가 되었으며, 성화 가운데, 새로 태어남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 두 가지 것은 나란히 간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의해 의롭게 되었던 자 말고는 거룩하게 된 자가 없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의롭게 되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약속된 때에 거듭남 안에서 성령으로 성별 되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그들의 의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의 바리새인의 외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열납을 받는 의였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남편과 아내가 의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임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 이 믿는 부부, 이 나이든 남녀는 여기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특징을 보여 준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보이다. 기록되기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고” (요한 일서 3:7). 믿는 자들은 그들의 삶의 습관에서, 그들의 삶의 행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역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행로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사실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우리 안에 새 본성이 “하나님께서로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 (에베소서 4:24; 요한일서 3:9).

여기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질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경배의 규례에 순종하고 지킨다. 이 두 늙은 성도들은 이스라엘에서 거의 하는 사람이 없는 날에 하나님 경배의 규례를 지켰다. 대부분 사람에게, 하나님 경배의 규례는 그들이 받아들일 관심이 없었던 부담이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안에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행한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과 모이며, 주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권속의 달콤한 교제 가운데 함께 구속자를 기억한다.

더욱이,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행동에 흠이 없었다. John Gill 은 “흠이 없는”이라는 말에 이런 의미를 올바르게 부여한다. — “그들은 생활과 행동 안에서 매우 엄격하여 그들의 친지들 중 아무도 그들을 나무랄 어떤 정당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근심거리가 있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7 절에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근심거리가 있음을 본다. 믿는 자의 운은 축복의 운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 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다. 우리는 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불운하고 저주 받고 죄로 저주 받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영생의 은혜를 통하여 기쁜 소망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근심거리가 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 위에 시험을, 때로는 무거운 시험을 두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로써 그분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증거 하기로 결심 하시며, 시험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을 빛나게 만드실 것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그 시험은 엘리사벳의 태의 불임이었다. 7 절을 읽어보자. —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것은 그들의 근심거리였다. 우리는 고대에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시험인지 추측할 수 없다.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남자에게 부끄러운 일이었으며 여자가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쓰라린 슬픔 중 하나였다 (사무엘상 1:10).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 골칫거리와 비통함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신실 하다고 할 지라도, 흠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 하더라도, 우리를 믿음의 시험에서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것을 어떤 이상한 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로써 우리를 단련 시키며, “그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히브리서 12:5-11) 우리 잔의 분깃이다. 우리는 한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험들은 은혜에 속한 큰 축복들이며, 그로써 우리 영원히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 무릎을 꿇게 하시며, 우리를 성경으로 끌어가신다.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1:12; 베드로전서 1:7).

축복의 장소

넷째, 우리는 8-11 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우리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임을 본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서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성례 종교는 완전히 우상숭배이다. 교회 출석이나, 성경 읽기나, 심지어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보통 그분의 백성을 그분이 세우신 예배 장소에서 만나심을 명확하게 말씀한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기념일들을 광야의 성막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처음 그의 예배를 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분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좌에서, 속량의 날에 죄인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셨다 (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애굽기 25:22). 그분은 때때로 다른 장소에서 죄인들을 방문하여 만나셨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다른 어떤 곳에서 인간을 만날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무도 그분을 그외 다른 장소에서 만나기를 기대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에서 유향을 태우는 것은 사가랴의 특권이었고 책무였다 (출애굽기 30:1, 7, 8).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 많은 일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였고, 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그는 그것을 신실하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의미 없는 종교 의식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것을 그의 가장 높은 명예로 여겼다. 그는 그의 의무를, 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 드리는 것을 순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였다.

또 그의 일이 그 어떤 특권이었는지! 그가 낮과 밤으로 계속 태우던 그 유향 제단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를 하기 위하여 사시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치지 않는 중보의 예표였다 (히브리서 7:25).

주 하나님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 우리 구속자이고 구원자이며 왕의 선주자가 될 자가 그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태어날 것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그분의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늙은 이를 만날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주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그렇게 크게 축복하셨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그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다. — 그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 —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신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선을 위하여 행할 특권을 행하고 있었다.

당신과 나는, 만약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예배를 경멸한다면, 우리 위에, 우리 자신의 혼 위에, 혹은 우리 가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사무엘상 2:30; 히브리서 10:23-29).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을 만나고, 말씀하고, 자신을 계시할 것과 그 장소가 그의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모일 것을 약속하신 유일한 장소가 있다 (마태복음 18:20). 이 장소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의 집회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그 곳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집, 그분의 예배,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성도들의 집회를 무시하는 것은 그분을 경멸하는 것이다.

천사의 관심

다섯째,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의 단일한 큰 관심과 염려를 한 번 이상 보게 된다. 수 많은 책들이 천사들에 대하여 쓰여졌다. 그 대부분이 저자의 분명한 무지와 미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천사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없다. 간단한 사실은, 우리는 천사들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계시된 한 가지가 그들에 대하여 썼던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놓치고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직 한 가지 크고, 단순한 관심과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고도 반복하여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사야 6:3)라고 계속하여 외치는 이 거룩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한 가지 위대한 역사를 제외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거룩한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에 깊게, 내주하며, 마음을 다한 관심을 갖는다. 천사들은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좌를 바라보면서 서 있다 (이사야 6). 천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공표 하였으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합창으로 노래하였다. 우리 구원자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께 수종을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를 수종 들기 위하여 보내진 부리는 영들이다 (히브리서 1:14). 하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구속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구속 받은 죄인들로부터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모인다 (에베소서 3:10).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죄인을 구원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땅의 사망에서 택정한 자를 영원한 영광 안으로 모으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이다.

J.C. Ryle 은, “우리가 세상 위에 있는 동안, 그들처럼 되고, 그들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기쁨을 나누도록 애를 쓰자. 이것이 하늘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위한 곡조 안에 있는 길이다. 그곳에 들어갈 자에 대하여 그들이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닮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그분 안에서 죄인들의 구원을 우리 마음과 사람의 온 마음을 빼앗는 관심이 되게 하자.

완전한 거룩과 죄로 충만한 사람

여섯째, 12 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효험 있는 완전한 거룩이 죄로 충만한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본다. —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무서워 넘어지니).” 사가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천연적으로 죄로 충만한 자였으며, 그는 그것을 알았다. 그가 완전히 거룩한 천사 앞에 섰을 때, 그의 혼이 그 안에서 벌벌 떨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보았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떨었다 (출애굽기 3:6).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워 하였다 (사사기 13:20-22). 다니엘은 히데켈이라는 큰 강 가에서 여호와 앞에 섰을 때 벌벌 떨었다 (다니엘 10:4-7). 요한은 밧모 섬에서 그에게 말씀 하던 천사의 면전에 엎드렸다 (계시록 1:17). 그들 모두, 사가랴처럼, 거룩한 전사들을 보고 영원한 것들의 세상에 속한 것들의 환상을 보았을 때, 두려워 떨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이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들의 임재 가운데 떨었다면, 어떻게 당신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무한한 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룩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기를 바라겠는가 (나훔 1:5-6)? 우리가련한 혼을 위하여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뿐이다.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택한 모든 자,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의 장엄한 위엄 앞에 죄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의 흠 없는 의복을 입으니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도다.”

4 장.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누가복음 1:13-17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누가복음 1:13-17).

침례자 요한은 주목할만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태어나기 전에조차 하나님의 손으로 다른 사람과 별개로 구별되었던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1:13-17에서 우리는 천사 가브리엘이 성전에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 모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가지고 오셨던 말씀을 듣기를 허락되었다. 그것은 영정 교훈으로 충만한 말씀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인치시기를 바란다.

전달되기를 의도되었던 이 구절들과 공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게 표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사실은 결코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는 체험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이사야 55:9). Cowper 가 쓴 것처럼,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운행하시니
그의 행하심의 경이로움 들이라.
그의 발걸음을 바다로 떼시기로 하시며,
또 폭풍 위로 걸으시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 단락 안의 첫 번째 공과는 기도에 관한 공과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마음에 둘 것을 소망한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들은 종종 오래,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된다. 때때로, 아마 대부분 종종, 주님은 은혜롭고 지혜롭게 많고 많은 해 동안 우리 기도들에 응답하시는 것을 지연 시키신다. 그것은 확실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해당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그들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주께 자주 기도하였다. 그것이 마치 그들이 헛되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들은 나이든 사람들이었다. 자녀를 갖는다는 생각은 그들의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오래 전에 문제를 주께 언급하기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이 늙은 사람에게 천사의 입에서 나온 바로 첫 마디가 이것이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어떻게 혹은 언제 하실 것을 지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무엇이 최선인지, 가장 최선의 방법 안에 있는지, 또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 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태어날 가장 좋은 때를 아시며, 그들이 거듭나야 할 가장 좋은 때를 아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도가 원하는 방법과 시점에 응답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받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지어서는 결코 안 된다. 당신의 갈망들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지 않으셨다고 해서 주께서 당신의 기원을 무시하신다고 결론짓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종종 우리 요구들을 지연 시키심으로써 우리의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신다.

기도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도는 우리의 갈망으로 하나님을 그저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매우 솔직하여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 의지를 그분의 뜻에 머리 숙이는 것이다. 주께서 때로는 우리 요구들을 지체하실 것이지만, 그분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의도하게 하려고 결정 되셨기 때문이다.

실상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할 기도가 무엇인 모른다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8-10 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체험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우리가 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26).

기도는 우리의 세속적 정욕에 대한 만족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기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의롭고 가장 선한 것을 행하려 하늘의 아버지께 하는 믿는 자의 마음의 외침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분을 진실로 알고 신뢰한다면, 나는 그분이 약속하였던 것을 원한다. 나는 그분께 엎드려 내 의지를 그분의 뜻에, 내 갈망을 그분의 계획에, 나의 기쁨을 그분의 영광에 항복하며, 그분의 뜻이 최선임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무지 가운데), 성령은 우리 기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진실한 탄식을 내어 드린다 (로마서 8:26).

바울은 그가 요구했던 것을 주시기를 주께서 은혜롭게 거절 하셨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했던 것을 그에게 은혜롭게 허락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다. John Gill 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주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백성의 음성을 듣고 조만간에 이런 저런 형태로, 언제나 그들이 갈망하는 방법과 방식은 아니지만, 응답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사도는 그의 요구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사탄이 즉각적으로 그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속되는 한, 그 실행 아래 그를 지탱하게 하는 은혜의 충만에 대하여 확신할 뿐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언제나 우리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항복할 것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육신에 가장 기쁜 것 같아 보이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의 예를 따라야 한다 (요한복음 12:27-28). 반복 하겠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최선이 무엇인지, 혹은 그분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최선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뜻에 지혜롭게 머리 숙이자 (로마서 8:26).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은혜

14 절과 15 절을 보고, 두 번째 것을 배우도록 하라. 여기 모든 부모가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공과가 있다. 은혜가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원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사가랴는 그의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유일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계수될 것임을 확신하였다!²

² 한계가 있는 마음의 포용력으로 자녀를 돌보는 부담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나, 자녀를 유아기에 잃은 모든 자는 이 사실로 격려 받도록 하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부모든 무엇을 더 갈망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믿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들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유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아들이 성령을 충만할 것임을 이 늙은 사람에게 약속하기 바로 직전에, 주의 천사는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하셨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라. 아름다움과 명석함과 부와 명예와, 심지어 건강과 행복은 이것에 비교할 때 아주 하찮은 것이다. 우리 아들 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정직하게 구하고, 또 구하자. 행복한 사람은 실로 아들 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 받고, 그 영으로 거듭난 자녀라는 기쁜 근거 위에 확신하는 아버지이다!

참되게 큰 자

세 번째 공과는 참되게 큰 자에 대한 공과이다. 그것은 15 절에서 보게 된다. 참되게 큰 자는 주가 보시기에 큰 자이다. —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 하나님께서 영광 안에서 구속 받은 자들 가운데 계수될 자녀를 가진 것을 확신 받는 진귀한 특권을 당신에게 수여하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은 언제나 아주 짧은 막대기로 큰 자를 가늠하려 한다. 사람들이 큰 자라 부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정관들과 사장들, 의사들과 변호사들, 철학자들과 정치가들, 예술가들과 저술가들, 운동 선수들과 영화 배우들 — 난장이 같은 바보들이 큰 자라고 부르고 감탄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야 말로 하찮다.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들은, 큰 자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큰 자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큰 자를 가늠하기를 배우도록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잣대로 큰 자를 가늠한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이 참되게 큰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올 세상 가운데 큰 자, 영원히 큰 자에 대하여 찾아보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큰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 은혜에 속한 큰 자.
- 하나님의 인정 받은 큰 자.
- 믿음에 속한 큰 자.
- 믿는 모든 자에 속한 큰 자.
- 그리스도께 속한 큰 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11).

하나님의 주권

15 절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운행에 대한 것을 배우도록 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전적인 주권 가운데 행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은 설명을 불허한다. 여기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그의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 하였음을 듣는다. —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침례자 요한이 그의 모태 안에서 거둬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영아 침례의 근거로 사용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말씀의 증거로서 사용한다.

성경을 정직하게 보자. 어떤 절이나 선포를 붙잡아서, 그 맥락을 걷어내서 무엇이든 원하는 뜻대로 의미하게 만들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거친 상상으로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선포 위에 우리 교리를 세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닌 성령으로 통제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5:18). 성경이 침례자 요한이 그의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 하였다고 말씀할 때, 그것은 예레미야처럼 요한이 그가 모태로부터 나오기 전에 성별 되었고, 분별 되었으며,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가 되도록 정해졌다는 것이다 (예레미야 1:5).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같다 (갈라디아서 1:15-16).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요한이 그의 모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의 그와 같은 영향 아래,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한 마리아의 인사에 떨 듯이 기뻐하였다 (누가복음 1:41, 44). 다윗처럼, 그는, 그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 아래에 있었다 (시편 22:9-10).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가 해야 했던 일을 그에게 예비하기 시작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그가 선택 받은 그 일을 위하여 그를 적합하게 하면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들

16-17 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대한 것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사람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들이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사람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복성을 예비하리라.”

그것은 복음 전도자의 성품이고, 행위이며, 일이고, 유용함의 정확하고 천사 같으며 성경적인 묘사이다.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로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킨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택정한 자의 마음을 돌이킨다. 그는 지식에 무지함에서, 빛에 대한 어둠으로부터, 계시에 대한 미신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의에 대한 죄로부터 그들을 돌이킨다.

분명히 그리스도께 죄인들을 돌이키는 일은 하나님 우리 창조주의 역사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서 그것을 사람의 일로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조력으로, 복음 전도의 조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0:17; 베드로전서 1:23-25; 야고보서 1:18).

은혜의 사자는 주 앞으로 가고, 엘리야의 그 영과 권능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 섬긴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는 사람을 주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이 주께서 나타나실 때 주를 만나도록 예비한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이들은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복되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불러 내신다. 그들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인하여, 그리스도는 높임 받으시며 영화롭게 되신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

5 장. 믿지 아니함—누가복음 1:18-25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병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 보시는 날에 인간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누가복음 1:18-25)

여기 사가랴, 큰 믿음과 신실함의 사람이 그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에게 맞아 말문이 막힌 자이다. 인류의 첫 번째 부패 중 한 가지는 믿지 않는 끔찍한 죄였다. 우리 어미, 뱀에 의해 현혹 되었던 하와가 믿지 않음에 다그쳐졌던 것이 창세기 3 장에 기록된 것이다. 그녀는 마귀의 거짓말을 근거 없이 믿었고, 믿어야 할 모든 이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연적으로 모든 것에 관한 마귀의 거짓말을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한 최소의 정당성도 없이 믿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가 댈 수 있는 어떤 이유든 갖고 있을 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믿지 않음은 모든 사람의 원천적이고 보편적인 타락이다. 그것은 모든 타락의 가장 깊이 자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모든 타락의 가장 최악이며 다른 모든 타락의 조상이다. 만약 교만이 모든 죄의 어미라면, 불신은 그 아비이다.

그렇다, 불신은 타락한 인성의 모든 타락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것임을 말했다. 어떤 것도 그렇게 높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것도 불신처럼 하나님을 야비하게 굴욕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 하지만, 이 범 죄처럼 끔찍한 것은, 우리가 대역자들 가운데 대부분 쉽사리 변명을 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쉽게 정당화하는 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내주하려 하고, 복수심으로 그분을 방해하도록 우리 마음을 감화하는 이 마귀를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1. 믿지 않음은 가장 강하게 믿는 자들이 마음 속에서 발견된다.

사가라는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거의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그 주변의 거의 모든 것이 의식 주의에 전적으로 넘겨졌을 때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하지만, 가브리엘이 그에게 그의 아내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 이 신실한 늙은 이는, “아, 아닙니다. 당신께서 잘못 하셨습니다. 내 아내는 아닙니다. 내가 너무 늙었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고 했다 (18 절).

왜 사가랴가 천사의 전갈을 믿지 않았는가? 그것은 천사의 전갈이 전적으로 인간적 논리와 경험과 학문에 모순 되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기초는 신성한 계시이다. 그러나 불신의 근거는 인간적 논리이다. J.C. Ryle 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난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 잘 교육 받은 제사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에서 읽었다. 그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출생이 있는 하나님의 경이에 대하여 알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인지하고 있었다. 사가랴는 우리보다 모든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전능한 우주의 왕이심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해를 뒤로 십도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이 늙은 여자의 태가 나이 드는 것을 쉽게 역전시킬 수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다.

사가랴의 교훈에는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 문제는 그의 마음에 있었다. 그 자신의 삶과 자신의 체험에 그것이 신성한 진리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으로 되었을 때, 사가랴, 이 큰 믿음의 사람은 믿지 않음을 극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든 사가랴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지 말아야 한다. 그의 실수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실수이다. 이 땅 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의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다. 그것은 잘못이며, 죄이고, 우리 모두 안에 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끔찍한 악이다. 아브라함, 롯, 모세,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뺨짝이는 신호들로 세워져 있고, 우리 모두의 속에 내주하는 이 괴물 같은 마귀를 깨닫게 한다. 기도하자, 정직하고 진심으로, 마가복음 9 장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고 외친, 불쌍하고, 미칠 듯한 심정의 아버지처럼 기도하자.

우리의 믿지 않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에게 충격을 주는지. 490 년 일찍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니엘에게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잘려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의 성취에 대하여 그에게 확신의 말씀을 가져갔던 분은 이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었다 (다니엘 9:26).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바빌론에 한 가닥의 외적 증거 없이 갇힌 자였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나 사실상 성전에서 살았고, 하나님에 의해 행해졌던 기록된 모든 기적이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있었던 사가라는 그 동일한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였을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체험과 배운 판단력으로 향하였다. 따라서, 그는 믿지 않음으로 충만하였다.

비록 천사들이 지나간 날에 종종 공훈의 사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더이상 천사들에 의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1-3). 아직까지, 주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타락한 사람들을 그분의 경이로움 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시편 96:3-4; 105:3-7) 오늘날 천사들을 갖고 계신다 (목사 - 계시록 1-3 장). 그러나 우리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말씀 위에 무겁고, 어두우며, 두꺼운 장막을 덮는다. 믿지 않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요한복음 11:40). 믿지 않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뒤로 붙잡아 버린다 (이사야 48:16-19). 그리고 믿지 않음이 우리 가운데 주의 전능하신 역사를 행하지 못하게 막는다 (마가복음 6:3-6).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방해 받거나 심지어 조금이라도 저지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믿지 않음이 그가 책임져야 할 악임을 분명하게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고 운행이다. 믿지 않음은 우리의 죄이다.

2. 믿지 않음 보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더 지독하고, 껄뻐하며, 치욕스러운 것은 없다.

믿지 않음처럼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어떤 것도 믿지 않음처럼 그분을 진노하고 심판하게 하는 것은 없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사십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히브리서 3:15-4:3)

믿지 않음을 그렇게 비열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믿지 않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함이고,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분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9-11). 믿지 않음으로,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한다!

3. 믿지 않음은, 아마도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교정의 회초리를 사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죄 때문에 그분의 백성을 벌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갈보리에서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 안에서 벌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진실로 사랑의 아버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교정의 회초리로 그분의 자녀들을 벌하신다 (히브리서 12:5-11). 사가랴의 믿지 않음은 아버지의 회초리를 그 위에 심하게 내리게 하였다. 그는 적어도 구 개월 동안 하나님의 손에 맞아 귀가 먹고³

³ 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교통 했던 사실(62 절)은 그가 병어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멍어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징벌이 때로는 길지만, 그러나 언제나 합당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귀들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배울 때까지 괴로워하던 귀머거리이다. 하나님의 찬양을 말하기 거절하였던 혀는 여호와와의 찬양을 말하기를 배울 때까지 묶여 있었다.

4. 믿지 않음은 죄인들을 영원한 파멸로 데려갈 것이다.

“아버지께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 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5-36)

그렇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믿지 않음은 반역자들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과 그분의 아들에 대항한 반역에 대하여 어떤 유죄도 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5. 모든 믿지 않음은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은 곧 모든 사람이 완전히 분명함으로 모든 진리를 보게 하실 것이다. 그 날에, 믿지 않음 안에서 멸망하는 자들은 모든 진리에 대하여 확신하게 될 것이나, 영원한 경멸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 날에, 주께서 나이든 엘리사벳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방문하실 때 (24-25 절), 그분은 우리의 치욕을 영원히 없애 버리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과 영원히 싸우지 않을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크게 모욕을 당하실 이 끔찍한 죄에 대항하여 주시하고 기도하라. 믿지 않음은 우리의 평강을 훔쳐간다. 믿지 않음은 우리의 무릎을 약하게 하고 우리 손을 무겁게 한다. 믿지 않음은 우리 구원에서 기쁨을 가져간다. 믿지 않음은 인내를 파괴한다. 믿지 않음은 안도가 불가능하게 한다. 기록된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9).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은혜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도록 하자. 믿지 않음은 처녀 앞에서 떴다. 믿음은 골리앗을 죽인다. 믿지 않음은 폭풍 속에서 떴다. 믿음은 사자 굴에서 잠자게 한다. 믿지 않음은 마루 바닥을 걷는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음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 믿음은 그분을 존귀하게 한다.

6 장. 우리 구원자의 위대함—누가복음 1:26-33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26-33).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계시된 가장 숭고한 일을 포함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경이와 믿음과 사랑과 찬양으로 채우시고, 여기 우리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찬양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굴욕

우리 구원자의 성육신과 연계된 모든 것은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의 큰 굴욕을 보여 준다.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있는 벽지 마을에 보내졌다. 갈릴리 전체가 유대인들에 의해 경멸스럽게 보여졌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마을은 나사렛이었다. 나사렛에서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그들 사이에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요한복음 1:46). 마리아, 우리 주의 인간의 몸과 본성의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된 여인은 아주 가난한 지역 출신의 매우 가난한 여인이었다. 세상이 선망하거나 위대하다고 생각할만한 것이 그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구원자의 성육신에 포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에 의해 안배되었고 발생하였다. 그분 자신의 주권에 따라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이 세상 속으로 우리 구원자를 보내시려는 그릇이 되도록 한 가난하고 멸시 받는 마을에서 한 가난하고 멸시 받는 여인을 선택하실 것이다.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몸을 낮추셨을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몸을 낮추셨는가!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우리에게 대한 우리 구원자의 큰 사랑, 우리 대속자로서 살고 죽으실 수 있도록 우리 본성을 그분 자신과 연합하도록 하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었다.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도록 하자.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예레미야 45: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5-8). —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5). —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체 말라.” (로마서 12:16).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유익을 위하여 끊임 없이 살도록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자.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두 우리 가난과 함께 구별하셨으니, 만약 주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 속으로 옮기신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가난을 멸시하거나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부유함이 누구도 존귀하게 만들지 않고, 가난이 누구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부와 명예에 비굴한 사람은 두더쥐를 찾아 땅을 파헤치는 개가 생각나게 한다. 더러운 쥐는 땅을 팔 자격이 없을 뿐이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마리아 선택은 궁핍한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의 아름다운 그림으로써 성경 안에 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27-30 절).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중보자나, 혹은 그리스도와 협력 중보자로 만들고, 흠없는 본성과 신성한 능력을 그녀에게 부여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둔다. 이전의 교황이 저격당했을 때, 그는 암살자의 총탄에서 그가 회복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돌렸다. 마리아에 대한 그런 숭배는 철저하게 경멸스러운 우상숭배이다.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있는 것으로 경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우상숭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도이다.

마리아는 결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여인으로 제시되지 않고, 단지 당신과 나처럼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으로 제시된다. 이것을 그녀는 기쁘게 인정하였다. 우리는 누가복음 1:46-47 에서 본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녀가 “동정녀”라고 불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절대 “그 동정녀”라고 지칭되지 않았다. 그녀의 순결성이 성경에서 반복하여 언급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여자의 씨로서, 기적적이고 신성한 개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여야 하듯 그녀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매우 존귀하게 하지 않았다⁴. 우리 구원자의 육신, 마리아의 동정녀 모태 안에 예비된 거룩한 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혼을 위하여 제물로 삼기에 합당한 육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예비하셨다. —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5).

마리아의 이름은 그녀가 누구였는지와 본성적으로 우리 모두가 누구인지를 가리킨다. “마리아”라는 의미는 “적의에 찬 반역자”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과 같으며, 마라 자신에게 적용한 나오미라는 이름과 같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별된 은혜의 대상이었다.

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셨고 우리 구원자의 인성의 어머니가 되는 높은 존귀를 위하여 그녀를 선택하셨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크게 은혜를 받은” (28 절)이란 말은 “은혜롭게 여겨진”이라고 번역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마리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롭게 여겨졌다 (에베소서 1:6).⁵ 주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녀와 함께 계셨다. 그녀를 보호하고, 그

⁴ 순결성은 여인들 사이에서 실로 명예로운 것이다. 정숙함은 언제나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지 않는다.

⁵ 마리아는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똑같이 은혜로 충만하다. 그녀는 은혜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녀는 은혜의 증여자가 아니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녀를 위하여 공급하고, 그녀를 구원하고 그녀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다. — “네가 여인들 가운데 축복을 받았노라!”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의 축복, 은혜로운 구별된 축복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과 정확히 동일한 말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처럼, 영원 가운데 택정의 사랑 안에서 선택 받았던 것에 따라, 그녀는 하늘 처소에서 모든 영적 축복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한 구속과 대가 없는 용서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은혜의 대상으로서, 그녀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받았다.

한 마디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눈에서 은혜를 얻지 않으셨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얻었다. 30 절에 있는 구절은 28 절에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마리아는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서 선택 받은 죄인이며, 모든 은혜로 그분에 의해 축복을 받았다.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땅의 어머니로서 누렸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리아를 이 수준 이상에서 우상 숭배의 선망의 위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까지 높이지 말아야 한다. 그녀의 관계, 섭리 가운데 그녀에게 주어진 관계는 순전히 세속적이고,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관계였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고 영적인 관계이다. 우리는 진실로 구원자의 가족이다 (마가복음 3:15). 마리아의 큰 축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육체적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 관계 안에 있었다. 우리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모태 안에 그를 지냈던 것보다 그분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11:27-28).

그리스도의 위대함

성경의 이 단락 안에 게시된 최우선적인 것은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위대함이다. 가브리엘의 포고는 평범한 출생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람의 출생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한 포고였다! 가브리엘은 하나님 아 들께서 그분 자신과 연합 안으로 인성을 취하려 하였고,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 이 죄로 저주 받은 세상 속으로 오시려 하는 것을 선포하려 보냄 받았다. 31-33 절에서 우리가 듣는 것을 보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의 처녀 모태에서 태어난 아나는 인간의 육신 안에 드러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아들이다 (이사야 9:6). —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디모데전서 3:16). 우리 구원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또 특정한 사명을 띤 언약의 보증으로서 이 세상 속에 오셨다: - 그분의 백성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렸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이 세상에 보내심 받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21). 그리고 그가 보냄 받아 할 일을, 그가 오셔서 할 일을, 그분은 다 이루셨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여호수아께서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셨다. —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1-4)

누가복음 1:32-33 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위대함에 대한 다섯 배 선포를 받는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 “저가 큰 자가 되고.” — 그분의 모든 임무에 있어서 위대하다. — 그분 앞에 갔던 모든 자보다 더 위대하다. — 그리고 그분 뒤에 오는 모든 자보다 더 위대하다.
2.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3.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우주를 통치할 권세를 받으셨다 (시편 2:8; 요한복음 17:2; 로마서 14:9).
4.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 그분은 그분의 육신인 교회의 왕일뿐만 아니라, 머리이시다.
5.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 주 예수께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 덩어리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시온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만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계획되어 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발판으로서만 존재한다. 니느웨, 바벨론, 애굽, 두로, 카르타고, 로마, 소련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제국들은 멸망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홀로 영원히 통치하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 앞에 허리 굽히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9-11; 다니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7:14, 27).

7 장.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누가복음 1:34-38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34-38).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공활을 선포하였다. 천사는 그녀를 통하여 메시아가 세상 속으로 오시고, 그로 인하여 여자의 씨가 오실 것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보내실 그 동정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그녀에게 말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몇 개의 구절들 안에서 우리 복된 구원자의 성육신의 비밀과 관련하여 우리 혼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도록 기록하셨다. 이 구절들 안에서 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첫 가지에 여러분이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믿음의 경이로움

이 장의 앞에서 (18-20 절), 우리는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라고 물었을 때, 그의 질문은 불신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마리아가 사실상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녀의 질문은 믿음의 표현이었다 (45 절).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했던 질문을 물었다. 마리아는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놀라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했던 질문을 하였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 마리아의 말은 감탄의 표현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육신 안에 오실 것과, 메시야는 여자의 씨로서, 아담의 범죄로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에 오셔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처녀의 태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알았으며, 이제 그녀가 그 동정녀임을 알았다!

이 말은 어떻게 주께서 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을 하실지를 알고자 하는 그녀의 갈망을 표현하였다. 그녀는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기를 갈망하였다. 그녀는 주께서 천사가 말한 것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어떻게 그것을 하실지를 알고자 하였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성취될 수 있는가를 상상할 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없었는데, 그녀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녀는 정말 처녀였기 때문이었다. 참된 믿음은 종종 그 스스로를 경이와 놀라움의 말로 나타낸다. 다윗은 그와 그의 집에 하신 하나님님의 약속에 놀랐으나, 그 약속을 믿었다 (사무엘하 7 장). 므비보셋은 다윗이 그런 위대한 왕 앞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죽은 개로 여겼던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말을 믿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종종 질문한다.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주께서 나를 선택하실까?”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것을 믿는다.

성육신의 비밀

마리아의 질문에 답하여, 가브리엘은 절대적인 경의와 함께 우주 가운데 가장 심오한 비밀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가장 단순한 말을 사용하면서 설명하였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5 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과 관련한 절대적인 경의에 대한 이 천사의 예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거룩한 것들에 대한 헛된 의문들, 세상적인 논쟁, 무의미한 추측들은 철저히 버려져야 한다. 신성한 것들은 신성하다. 그것들은 신성한 것으로 대하여야 한다. 여기 경건의 큰 비밀이 있다.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나타나신바 되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16)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매.” (요한복음 1:14). Robert Hawker 가 바로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신격의 모든 위격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형태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영 아래에서 그분의 성육신 전 시대에 말씀되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5). 히브리서 10:5 와 시편 40:6 을 비교하여 보라.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그것에 익숙하셨던 것은 분명한데, 성령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6). 그리고 다시, 그분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히브리서 2:14, 16.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분의 덮어버리는 능력 안에 갖고 계셨던 부분의 놀라운 관계를 본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안에서 우리 구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거룩한 것”이라 부르는 것으로 그분을 위하여 육신이 예비 되었다 (히브리서 10:5). 그분은 우리의 혈과 육을 취하셨다 (히브리서 2:14). 그분은 우리의 모습이 되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드셨고 (히브리서 2:16), 그분의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붙드셨다.

이 위대한 구원자는 “여자에게서 나셨다” (갈라디아서 4:4-6).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만,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스스로 하나님이다 (골로새서 2:9).
더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더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신성한 계시의 이 간단한 천명을 넘어서는 것은 천사들이 밝기를 두려워하는 곳으로 어리석게도 뛰어 들고 알지 못하고 말에 의해 뜻이 어두워지게 된다.

삼일 하나님의 역사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5 절).

성육신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세 위격을 포함한 역사였으며, 우리 혼의 구원은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는 영원 가운데 택정하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선택 받았고, 효험 있는 구속 가운데 하나님 아들에 의해 사신바 되었으며, 주권적인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별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유일한 역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역사를 인식하는 것을 실패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 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육신 안에서 오셨는가? 동정녀의 태 안에 그분을 위하여 육신을 예비하셨던 분은 성령 하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님이였다.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속량이 되심으로 죽으셨는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9:14).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사망에서 다시사셨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디모데전서 3:16)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구속자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3:18). 평강의 왕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에 의해서이다. 그리스도 우리 선지자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가? 그것은 진리의 영에 의해서이다.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구원의 일에 있어서, 삼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은혜의 겸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긍휼이 넘치시므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몸을 낮추신다. 은혜는 우리의 약함과 능력 없음을 미리 아신다. 우리는 36 절에 아름답게 제시된 이것을 본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아무런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다른 기적적인 출생에 대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녀의 믿음을 격려하려 겸손히 말씀하셨다. —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6 절).

마리아가 자신이 아이를 뱀 것을 발견하자 마자 그녀는 사촌 엘리사벳을 보러 떠났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둘 다 당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그들이 함께 있는 동안,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은 서로를 섬겼고 하나님의 경배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축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였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

여기 모든 것 가운데 있는 우리 확신의 기둥과 우리 믿음의 힘과, 우리 혼의 위로가 있다! —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7 절).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강,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은혜에 관련한 우리 확신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전능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확신에 따라 서기도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분의 뜻을 행사하심으로 존재 안으로 우주를 부르셨던 분, 그분의 능력을 감추심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분,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는 그분은 그분의 모든 계획과 그분의 모든 약속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모든 때에 행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이다. 아무것도 주께 너무 어려운 것은 없다! —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27). 37 절의 말씀을 J. C. Ryle 이 그의 Expository Thoughts on the Gospel of Luke 에서 표현했던 것보다 더 낮게 할 수 없다. Ryle 은 이렇게 썼다…

“너무 검고 나빠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너무 모질고 사악하여 변화되지 못하는 마음은 없다. 돌 같은 마음이 육신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음이 될 수 있다. 너무 힘들어서 믿는 자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충분하다. 너무 커서 성취되지 못하는 약속은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결코 지나가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약속 하셨던 것은 그분이 행하실 수 있다. 너무 커서 믿는 자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실 때, 누가 우리에게 대항하겠는가? 산들이 평야처럼 될 것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베푸신 위에 그 머리를 둘 때처럼 결코 조용하고 평화롭게 안식할 수 없다.”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풍성히 초월하여 행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여,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7 절).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을 지키실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빌립보서 1:6; 디모데후서 1:12; 히브리서 7:25).

주는 왕이시네! 그럴진대 누가 감히
그분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그분의 보살피심을 믿지 않을 것이며,
혹은 그분의 지혜로운 뜻에 불평할 것이며,
혹은 그분의 충성된 약속을 의심하리요?
모든 지혜의 하나님께서 잘못 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의 능력이 줄어들고, 그분의 사랑이 저버리면,

그의 자녀들은 노래를 그치지 말아야 하니 -
전능하신 주는 왕이시라!

만약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포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합리적인 것임을 우리 마음 속에 두어야 한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있어서 마리아의 본을 따르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38 절에서, 그녀는 겸손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믿음의 항복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 마리아에게 주어진 큰 특권은, 진실로 큰 모든 특권들처럼, (적어도 현재에 있어서는) 크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을 포함하였다. 비록 그것인 궁극적으로 그녀의 영원한 명예가 되었겠지만, 현재에 있어서, 마리아는 그녀의 명예로운 이름과 명성이, 선하고 귀한 사람에게 한 그녀의 결혼이,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한결 같은 존경을 받은 것이 위험에 처하게 될 큰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 이런 것들은 그녀의 믿음에 있어서 작은 시험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마리아는 기꺼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다. 그녀는 아무런 반대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혜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준비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디라도 기꺼이 가게 되며, 어떤 것이든 견디며, 어떤 것이든 하는 그런 은혜를 내게 기꺼이 주시기를 바란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도록 할 때 가장 고귀하다.

8 장. 산중에 가서—누가복음 1:39-45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라.” (누가복음 1:39-45).

내가 소년이었을 때, 나의 어두운 삶 속에 햇빛의 한 기쁜 광선, 순수한 기쁨과 행복의 계절을 내게 주기에 언제나 확실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다.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나는 내 아버지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하여 산속에 일주일 혹은 그 이상 가곤하였다. 나의 할머니, 큰 고모, 그리고 나의 고모들과 삼촌들이 언제나 주변에 있는 즐거움이 있었다. 나는 꿈을 기억하는데, 즐거운 기대로, Spruce Pine, North Carolina 의 언덕에 가는 것이었다. 내 어린 시절의 가장 기쁜 날들은 그 언덕에서 보내는 것이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마리아와 함께 유다의 산중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데려가신다. 그녀는 나이든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려 그곳에 갔다.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교훈적이며,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방문이었는가.

유익한 교감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39-42 절).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스라엘에 있는 젊은 처녀와 나이든 어미가 즐겁고 복된 교제와 만남 가운데 함께 걷는 것을 본다. 그들은 사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제는 가족의 교제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유익하였다. 서로 함께하는 그들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였다. 그들의 교감은 은혜의 교감이었다.

교제와 교감에 대하여 말할 때, 믿는 자의 교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교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믿는 우리는 “모든 공통된 것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통의 구원, 공통의 택정, 공통의 속량, 공통의 소망, 공통의 권속, 공통의 전쟁, 그리고 공통의 기업이 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 귀한 성도들이 서로 방문하였을 때 상호 유익이 되었고, 영적으로 서로에 의해서 유익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들의 마음은 격려를 받았다. 그들의 생각은 사기가 올랐다. 그들의 혼은 새롭게 되었다. 그들의 영은 향상되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이 방문하여 서로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의 경이로움과 그분의 긍휼과 언약과 약속과 신실하심의 뛰어난 것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께 드리는 새로운 찬양을 노래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특권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에 언제나 유념해야 한다. 슬프게도, J. C. Ryle 이 올바르게 말했다.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생각하지만, 여전히 서로 자주 대화하기를 잊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 (잠언 27:17, 19).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3:16). — 우리의 인생 행로에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고,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어떤 오아시스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제의 시절이 이 혼란한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안식처인가! 이 특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자. —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특별히 동류의 손님!).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1-2).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교제는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늘에 가까이 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것과 같다. 우리는 공예배의 집회 가운데에서 또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교제를 누리는 모든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우리가 특권을 가질 때, 우리 교제가 그리스도 안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으며, 함양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자. 우리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서로에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의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서로에게 말하도록 하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선택 받은 친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둔자로 살고, 사회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경멸스럽게 취급하기를 권하지 않는다. 그것은 끔찍하게 사악한 것이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들의 친구들로서 믿지 않는 자를 결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여가 시간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보내기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염려가 된다. 그런 선택은 당신의 품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선택한 것과 같다. 그것은 당신의 진영에 반역자를 초청하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당신 집에 강도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것에서 아무런 선함이 올 수 없다 (고린도전서 5:6; 15:33-34; 고린도후서 6:14-15).

믿는 자의 고백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3-44 절).

종종, 우리는 지난 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와 관련하여 아주 철저히 무지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처럼, 그들 중 많은 수가 많은 것들에 있어서 약하고 무지하였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비참하게 표현하였다. 그들은 종종 복음에 반대가 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반대가 되는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그들은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2:16). 그녀가 마리아를 “주의 어미”라고 불렀던 43 절에 있는 엘리사벳의 말은 주목할 만한 믿음의 말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고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말처럼 주목할 만한 한 마디 한 마디가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가 엘리사벳의 말에 더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에 관하여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녀는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아이가 오랫동안 기다린 메시아,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임을 인정하였다. 그녀는 마리아가 46-55 절에서 무엇을 노래하였는지 알았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엘리사벳의 고백은 그녀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자원한 행복과 믿음에 대한 인정이었다 (고린도전서 12:3). 이 귀한 옛 성도는 모두가 곧 인정해야 할 것을 배웠고 기쁘게 인정하였다: —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다 (빌립보서 2:9-11).

복된 확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라.” (45 절). — 여기서, 우리는 예전의, 나이든 여인, 허영심과 겉치레의 어리석음을 알았던 여인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축복, 하나님을 믿는 축복에 대하여 흥분된 표현으로 말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로 축복된 일이다. 믿음은 언제나 그로써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얻었던 은혜였다 (히브리서 11:1-16).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이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과거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금도 받는 자들의 이야기이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움을 견디며, 그리스도를 바라고, 유혹을 견디며,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고, 살며, 죽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 안에 엄청난 양의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다. —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엘리사벳의 말을 다시 읽어보라. —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것과 그분이 모든 그분의 약속을 행하실 것과 그분이 그분의 모든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빌립보서 1:6).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에베소서 1:19; 2:8; 골로새서 1:12).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믿게된 죄인은 복이 있다 (빌립보서 1:29). 이 믿음의 귀한 은사에 대하여 어떤 것을 아는가? —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29).

아, 은사 중의 은사! 아, 믿음의 은혜!
나의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는지요
당신께서는 식별된 사랑을 가지신 분께서,
내게 그 은사를 주셨습니까?
아, 은혜로다! 전혀 다른 마음 속에
이를 것은 당신의 자랑이네;
당신의 빛의 영광을 찾음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가정이라.
당신의 선택, (아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애정 어리게 흠모하나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 당신의 은혜를 지키는 은혜를 주소서,
또 은혜가 오래 동안 더욱 더하소서!

9 장. 마리아의 찬양—누가복음 1:46-56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1:46-56).

마리아가 침례자 요한을 임신하지 6 개월이 된 그녀의 사랑하는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려 가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다. 두 여인이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셨던 경이로운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들을 가르쳤다. 둘 다 믿음과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복된 좋은 친구들인가!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는 그런 가족 만남은 기쁘다! 우리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때, 함께 하는 우리 시간이 기쁘고 유익이 되도록 기도하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 영향력 아래로 들어온 자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리아의 성품

마리아, 우리 주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큰 본으로서 하나님의 책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진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주목할 만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유례없는 문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녀의 말을 입증할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고 믿어지는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35). 45 절에서, 엘리사벳의 태 속에서 아기가 기뻐 뿜 후, 마리아의 태 속에 성육신 하나님 때문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에 대하여,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주심 종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자.

마리아는 또한 괄목할 만한 지식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성경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지식과 깨달음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읽으면, 비록 그녀가 단지 젊은 여인이었지만, 그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구약에 대해 이미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옛 역사들을 인용하였고, 레아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을 인용하였고 사무엘하 2장에 있는 한나의 기도의 말의 많은 부분을 반복하면서 시편을 인용하였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공훈의 수혜자가 되었던 모든 사람은 성경에 더욱더 충만하고 더욱더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 —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16).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은 결코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공부 없이 얻어질 수 없다. 그러나 그런 공부의 유익들은 값진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녀가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마리아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 확고하게 잡았고, 이것들이 그녀의 믿음을 강하게 하였다.

마리아가 알았고 믿었던 그것들이 그녀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겸허하게 하였다. 참 믿음과 영적 지식은 결코 마음을 교만으로 부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들로 인하여 주께서 그분 자신의 소유를 산산조각 내고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회개하게 만든 것들이다. J. C. Ryle 은 올바르게 말했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도록 지극히 높은 존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그녀는 자신의 ‘낮은 신분’에 대하여 말하며 구원자에 대한 그녀의 필요를 인정한다. 그녀는 자신을 죄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을 내뱉지 않는다. 반대로, 그녀는 자신의 죄들을 느끼도록 하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님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의 말을 사용하고, 이제 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데서부터, 그녀 자신의 혼을 위한 구원자를 요구한다.”

겸손이 구원의 믿음의 딸인 것처럼, 감사는 겸손의 딸이다.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마리아는 분명히 그런 감사를 보인다. 이 찬송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아마도 다른 모든 것보다도 마리아가 자신을 공홀에 빚진 자로만 여겼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녀는 그분에게서 모든 공홀과 은혜가 솟아나는 주 그녀의 하나님을 확대하기를 추구하였다.

마리아가 그녀의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마리아를 안도로 채웠다. 그녀는 가난한 여자였다. 그녀가 가난으로 고통 받았던 것이 언제 끝났는지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 구원자께서 죽었을 때, 그분의 가난한 어머니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보살핌에 위탁하셨다. 하지만, 마리아는 완전히 평온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이 성경 안에서 그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성령은 결코 그녀 속에 아무런 불만의 암시도 주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으므로, 그녀는 더이상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47 절)이라고 말한다. 56 절에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것을 본다. 비록 그녀가 가장 비범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녀의 수수한 집으로 돌아가서 한 목수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만족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의 복된 영을 주시므로,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11-12)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리아의 찬양

누가복음 1:46-56 에서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만났을 때 마리아가 지었고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배우도록 보존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이고, 믿음과 겸손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Robert Hawker 는 이렇게 기록했다...

“마리아의 찬양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 혼의 호흡의 충만함이다. 그녀가 그녀의 하나님 구원자에 대하여 얼마나 축복되게 말하는지. 분명히 보이는 것은, 그녀가 선지자들이 기적적인 계획에 관하여 가르쳤다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따라서 그 때 그녀의 태 속에 있던 아기가, 한번에 동일한 순간에 그녀의 아들이자 그녀의 구원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집의 일시적인 가난과 영적으로 몰락한 상태 가운데 모두, 죄의 이유로, 아담의 모든 인류에게 낮은 신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가난하고, 어리고, 초라한 동정녀인 그녀에게 주어지는 인격적인 존엄성이 찬양을 받았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49 절). 실로 위대하고, 그 때까지, 결코 전에 들어본 적이 없고, 세상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찬양의 찬송을 교회의 확실한 구원을 노래하는 가운데, 이 놀랄만한 사건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마치는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54 절)가 의미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의 선택 받은 자를 구속하셨다. 그로써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확증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3. 갈라디아서 3:16 과 함께).”

주목하라, 이 달콤한 찬양의 노래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언급된 모든 것은, 비록 아직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지만, 이미 성취된 것으로써 언급되었다. 왜 그런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은 그분이 계획하셨을 때 완료되었다 (로마서 8:29-30).

첫째 마리아는, 그녀의 모태에 있었던, 그녀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분인,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6-47 절).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라면,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 그녀가 그분에 대한 찬양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 척하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달리, 마리아는 큰 존경으로 그녀의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므로,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외쳤다. 따라서, 그녀는 그녀의 주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그녀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분을 위대하다고 함으로써 그분을 확대하였다. 그렇다. 마리아는 그녀의 모태 속에 있는 아기를 그녀의 하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님이요 그녀의 구원자로 불렸다. 우리 구원자의 영원한 신격에 대하여 얼마나 분명한 선포인가!

“확대하다”는 말은 여기서 크게 하고 넓히다 는 뜻이다. 마리아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그녀의 혼의 문을 열어젖혔다! 그녀는 그녀의 주 안에서 기뻐하였다. 그 말은 “춤추었다”를 의미한다. 그녀의 조부 다윗처럼, 마리아는 주 앞에서 춤췄다.

둘째,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경이로운 비밀에 의해 감동받았다. —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전언을 믿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노래하였다 (누가복음 1:30-35).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하게 하라 — 임마누엘이 오셨네, 또 “그가 그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마리아는 특별히 그분의 특별하고, 뛰어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였다. —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 절). 하나님께서 그녀를 우리 구속자의 어미가 되도록 선택하셨다. 그러나 그녀는 주 예수와 육체적 연합에서 보다 더 주 예수와 영적 연합 때문에 훨씬 더 크게 축복받았다.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에베소서 1:3-6).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그녀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은혜와 권능의 불가사의한 역사에 의해 형체를 이루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그녀에게 내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축복받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구별된 은혜의 대상인 자는 모두 그분의 찬양을 노래할 근거가 있다!

넷째, 마리아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거룩 때문에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49 절). 모세와 이사야와 다니엘이 떨도록 하였던 그것이 마리아를 기쁘게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 가운데 거룩한 희생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녀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보여진 거룩은 세상 가운데 가장 위로되고 기쁜 일이다. 속량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노래하게 하자. 우리는 공훈과 진리가 함께 만난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을 보았다!

큰 일들

다섯째, 마리아는 그분이 행하신 큰 일들로 인하여 주께 찬양을 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렸다. —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49 절). 우리 하나님으신 그분은 위대하고 전능하시다. 아무리 작은 것도 그분의 위대한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의 손은 작게 보이는 것을 그분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가운데 크게 되도록 만드신다 (시편 107:31, 43-43). 모든 큰 일들 가운데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며,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하심을 보이시며,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권세를 그분의 진리와 공의와 거룩이 모두 협력하는 방법 안에서 보이신다.

“공홀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0 절). — 우리 하나님의 왕성한 사랑의 친절하심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모든 자에게, 그가 “공홀 가운데 기뻐하시므로,” 그분의 택정한 자들 위에 은혜의 지속적인 행위 가운데 직접 나타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51 절). — 마리아가 삼일 여호와께 드리는 이 찬양의 찬송에서 언급하는 모든 것이 비록 하나님의 모든 경이로운 역사에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라도, 그 찬송은 우리 주 예수의 성육신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라. 성육신의 문제에 있어서, 그녀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우리 혼의 구원을 역사함에 있어서 그분의 전능하신 권능의 팔이라고 노래하였다.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그분이, 그분의 힘의 위대함 가운데 움직이므로, 그분 자신의 팔로 우리 구원을 성취되도록 하셨다 (이사야 63:1-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51 절). —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며, 그들을 혼란 속으로 흠으신다. 그녀의 시대 교만한 유대인들은, John Gill 이 기록했던 것처럼, 이렇게 추정했다. “메시아께서 유대의 부유한 귀족 가정 중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일시적인 왕으로서 나타나실 것이며, 위대한 상태와 장엄 가운데 일시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그들을 자유롭고 번성하는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 대신에, 그분은…갈릴리의 나사렛에 있던…목수의 처녀 약혼자인 가난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야 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2 절). — 전능한 왕들과 전능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리에서 떨어뜨리시고 쓰러뜨리신다. 낮은 자들을 그분은 들어 올리시고 높이신다. 그것은 역사와 섭리에 관련하여 모든 것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든 영적인 것들에 적용하는 것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위대한 것들이 처녀에게 계시되었고, 현자와 신중한 자에게는 감춰져 있다. 그분의 은혜로운 전능한 구원의 운행하심 안에서, 거지들이 더러운 곳에서 올려졌고, 왕들 사이에 앉고, 영광의 보좌를 기업으로 받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린도전서 1:26-30).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53 절). — 모든 궁핍한 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함을 그분께 바라는 모든 죄인은 목말라하는 그분의 의를 받고 충만하게 된다. 그분을 알기를 갈망하는 자들 (빌립보서 3:10), 그분과 함께 하는 교제와 친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사모하는 자, 마음 속으로 그분에 대하여 두근거리는 자는 그분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그분을 구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그들의 구원의 유익에 대한 느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궁핍한 혼은 그 혼의 만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으므로, 그는 야곱과 함께,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창세기 33:11)라고 말할 수 있다. — 부유한 자를 그분은 언제나 빈손으로 보내신다. 자신의 눈에 부유하게 보이는 자는 모두, 그들 자신의 의를 신뢰하므로, 멸망하도록 그분은 버려두신다.

도움과 충성

여섯째, 마리아는 주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도움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54 절). “도우사”라는 말의 의미는 타락하고, 쇠약한 자 아래 그 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발로 서게 세웠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걱정하신 자를 위하여 하신 것이다. 첫째, 그분은 그들을 낮추셨다. 그리고 그들 아래 그분의 손을 넣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신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소유에게 향하는 공홀을 기억하신다. — “내가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편 89:1).

일곱째, 55 절에서 마리아는 그분의 언약의 충성됨에 대하여 주 그녀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밤낮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예레미야 33:30, 25)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 (창세기 3:15; 12:1-3; 22:1-14; 갈라디아서 3:13-14).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 되게 거하시는데 한편,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이유를 갖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23-25).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양의 이 찬송 가운데,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대가 없는 구별된 은혜와 그분의 큰 충성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마리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복되다.

10 장.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누가복음 1:57-66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복음 1:57-66).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약속과 예언의 말씀, 긍휼의 약속과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구원자의 길을 예비할 또다른 엘리야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었다.

“보라, 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5-6).

사백 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제 말라기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우리 구원자의 탄생 6 개월 전에,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엘리사벳의 단힌 태에 생명을 주셨던 분은 “선하신 소견대로 무엇이든”(사무엘상 3:18) 하실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20). 우리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에 모순이 되어 보인다 할 때에도 (특히 그럴 때),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확신을 갖고 신뢰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고,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이 없고 성취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이고 아멘이며 절대로 아니요가 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며, 진실로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에게서 한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책 전체가 종교적 신화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허물어진다.

침례자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큰 긍휼의 유일하고 특별한 행위로서 바라보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58 절). 그녀가 수태하게 하였던 것은 신성한 긍휼의 행위였고, 나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든 여인이 완전한 기간의 임신을 기간을 갖게 했던 것은 특별한 공
홍의 행위였고, 아이를 출산하였던 것은 큰 공홍의 행위였다. 아이
의 출산은 하나님의 큰 공홍의 주목할 만한 실례이다. 그리고 그
공홍과 함께 엄청난 책임이 온다. 기쁨은 이런 일들을 아는 그런
가정이다.

애정의 축복

요한의 출생을 둘러싼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 혼의 교화를
위하여 은혜에 속한 가치 있는 것들을 은혜롭게 흘으셨다. 엘리사
벳의 가족과 친구들의 행동에서 우리 가슴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할 인간의 친절과 사랑과 애정과 보살핌의 그 젓의 예가
우리 앞에 있다. — “함께 즐거워하더라.” (58 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그들의 본을 따른다. 그런 행
위가 그렇게 드문 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악한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인가. 비통한 시간 가운데 동정은 대가를 거의
치르지 않았지만, 큰 가치가 있다. 당신의 차의 엔진에 있는 기름
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엔진의 움직임
에 중요하다. 관심과 동정의 표현은 사소해 보일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은 사소하지 않다. 어둠의 시대에 주는 친절한 말은 거의 잊
혀지지 않는다. 무거운 어깨 위에 격려의 손은 달콤한 원조이다.
적당한 시간에 사려 깊은 제시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 주목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축하의 말은 큰 은혜이다. 감사와
친절과 격려와 사려깊은 말 한 마디는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니다.

목사, 장로, 전도자, 교사, 그리고 집사들은 사려 깊음과 친절과 동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정이 사람의 혼을 섬기는데 있어서 가장 본질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27). 교리에 대한 말과 싸움에 관한 모든 다툼 가운데, “위대한” 신학적 논쟁에 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논쟁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애정과 동정을 주는 것을 절대 간과하거나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2:15; 갈라디아서 6:1-2).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진리를 제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원자의 친절에 대한 큰 계시이기도 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셨고 자신의 희생으로 그것을 공급하셨다 (요한복음 3:14-16; 로마서 5:8; 요한일서 3:16-17; 4:9-11).

우리 구원자의 이름은 여호와이레이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신다. 얼마나 친절할 예를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요한복음 2 장에서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가나에서 있던 혼인 잔치에 가셨다. 그분은 요한복음 11 장에서 친구의 무덤 가에서 가슴이 터지게 흐느끼는 자매들이 있던 베다니로 가셨다. 말씀은 애정의 축복을 필요로 하고 받은 자들의 눈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4:32-5:2).

고통의 유익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가르침과 보호와 공급과 징계가 필요한 자녀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59-64 절에서 사가랴의 행동 안에서 올바른 자녀의 예를 본다.

이 늙고, 늙은 사람은 그의 늙은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 아버지의 회초리가 필요했던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의 믿지 않음 때문에, 사가랴는 아홉 달 내내 귀가 먹고 병어리로 있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달은 쓸모 없는 것이 아니었다. 믿는게 그렇게 느렸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에 믿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역경의 아홉 달은 사가랴에 의해 지혜롭게 지냈다. 모든 있을법한 것들 가운데 그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가 그 자신의 마음의 특성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영광에 대하여 이전의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그가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이 배웠다. 징계가 그에게 교훈을 주었다. 그는 이제 그 자신의 믿지 않음에 대하여 부끄러워 하였다.

오히려, 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욥기 42:5)라고 말할 수 있었다. 헤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야처럼, 주께서 그를 떠나셨을 때, 그는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다 (역대하 32:31).

우리는 결코 이 비탄스러운 세상의 고난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불뚱이 위로 튀는 것처럼 고난 속으로 태어났다 (욥기 5:7).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징계의 회초리로 배우게 될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를 꺾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비통한 어떤 것이나 그리고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의 큰 축복이고 그분의 사랑의 증거이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성별된 고통은 영적 자극이다.”고 하였다. 시험은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그것은 세상에서 나의 기쁨이네
 십자가 없이 살지 않는 것,
그러나 구원자의 능력이 알게 하였으니,
 모든 손실을 만족하는 것이네;
 시험은 분명 있을 거시지만;
그러나 겸손한 믿음이 보게하네
 그 모든 것 위에 새겨진 사랑,
 그것이 내에 기쁨이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시니
 고뇌와 고통과 수고에 속한 것이라;
 싹이 터서 잡초의 숨을 막으니
 그것이 온 땅에 퍼지지 않게 할 것이라:
 시험은 약속을 달콤하게 하니,

시험이 기도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네;
시험이 나를 그분의 발 아래로 이끄니,
나를 낮추게 하고, 그곳에 나를 지키네.

이 세상에서 내가 시험을 만나지 않았나,
그 길에 아무런 징별이 없고,
내가 두려워 할 이유가 없으니
내가 난파된 자임을 증명해야 하는가?
망나니는 회초리를 피하고,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빠지네;
그러나 하나님께로 참되게 난 자녀는
결코 아니요 — 아닐 것이라, 그럴 수 있다면.”

William Cowper

야망의 가장 최선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한 큰 야망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큰 야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너무도 많은 것들을 원하고 찾는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큰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66 절의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나 스스로에게 생각했다. “이것이 모든 야망 가운데 가장 최선이고, 실로,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하여 정마로 좇을 가치가 있는 유일한 야망이다.” —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침례자 요한에게 임하였던 이 큰 축복이 우리 아들들과 딸들을 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하여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것이 “한 가지 필요한 것,” 우리 혼에 유익을 줄 한 가지 일, 결코 잃을 수 없는 한 가지 일, 무덤까지 함께 가져가야 할 한 가지 일이다.

그를 보호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수고를 위하여 예비하고, 그의 수고에서 강하게 하고, 그의 시험 가운데 위로하고, 그가 죽는 시간에 지탱하여 주고, 영광 안으로 그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셨다.” 침례자 요한을 위하여 주의 손이 하였던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행할 수 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구하도록 하자.

11 장. 찬양에 대한 세 가지 큰 이유—누가복음 1:67-80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을 돌아 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별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1:67-80).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가라는 선지자가 아니었으나, 그의 노래는 예언이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주어졌던 가장 교훈적인 예언들 가운데 하나로써 우리 앞에 위치한다. 그는 음악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찬송이었고, 이제까지 쓰여진 가장 위대한 찬송 중 하나였다. 무엇이 그가 이 찬송을 쓰게 하였고 이런 예언을 주는 자격을 부여하였는가? 누가는 67 절에서 우리에게 말한다. —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그 늙은 사람의 믿지 않음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함으로써 비범한 방법으로 그에게 그분의 은혜를 쏟아 부으셨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은 그 영에 의해 통제 받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성령으로 지배 받기를 추구해야 한다 (에베소서 5:18).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 영은 무의미한 종교의 감상적인 열광이 아니다.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 영은 지혜로운 삶이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이다 (에베소서 5:17). 그것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에베소서 5:20). 그리고 그것은 자원한 순종의 삶이고, 나의 뜻과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에베소서 5:21). (역주: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라 번역됨).

그러나 한 남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속에 다른 의미가 있다. 사가라는 특별한 성유, 특별한 기름부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신성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감동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 모두가 원하고 구할 것이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전하기 원하며, —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매인 죄인들에게 하나님만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의하여 직접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에게 매번 당신이 경배 드리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갈 때마다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공훈이다. 누가복음 1 장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에게 우리의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직접 전하는 말씀을 받는다.

이 단락에서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주목할 만큼 교훈적이다. 비록 그가 그런 공훈을 받을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그것을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주께서 은혜롭게 그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 위에 임하였던 고뇌를 제거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서 기다리지 않음을 절대 잊지 말자. 은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온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사랑으로부터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흐른다.

그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늙은 제사장을 아홉 달 동안 귀먹은 병어리로 만드셨다. 이제, 주께서 은혜롭게 그의 치욕을 치우시고, 그의 입을 여셨고, 그의 혀를 푸셨으며, 그의 귀를 뚫으셨다. 이 늙은 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엇에 대하여 말할 것인가? — 기적? 아니다. — 그의 체험? 아니다. — 천사의 방문? 아니다. 사가랴는 사람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했다. 따라서 그는 사람의 귀를 간질이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지나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찬양에 대하여 말했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은 사가랴의 혀를 주께서 푸신 직후에 사가랴가 했던 첫 번째 말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아홉 달 동안 귀먹은 병어리였다. 그러나 이제 그의 아들, 침례자 요한의 출생 후, 하나님의 나이든 좋은 찬양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찬양의 찬송은 그의 새로 태어난 아들과 모든 미래 세대들에게 교훈의 찬송이었다. 더욱이, 그의 찬양과 교훈의 찬송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역사와 침례자 요한의 사역 모두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의 혀가 풀리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나 주께서 그의 마음과 혀가 풀려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하고, 주의 공훈을 선포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 구속의 전체와 모든 부분이 “약속된 공훈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렇다! 주의 그리스도가 “약속된 공훈”이기 때문에, 공훈의 모태에서 처음 난 분, 공훈의 전체이신 분, 그렇다, 충만한 자가운데 그 자체로 충만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공훈이 없기 때문이다. 공훈로 불리는 모든 것은 그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공훈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그 본성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그 달콤함, 그리스도로부터 그 가치,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영존하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속함이다. 그리고 그리고 사가랴가 이 달콤한 선율을 수
금으로 타므로, 약속된 공활을 행하고 여호와와 언약과 맹
세를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 가운데 앞으로 언
제나 충만케 하였다.” (Robert Hawker).

하나님 우리 구원자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이 늙은 이는 세 가지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이 세 가지 것들
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큰 이유를 갖고 있다. 하나님 우
리 구원자 (68 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69-75 절), 그리고 하
나님의 선택 받은 종 (76-80 절).

감사와 찬양에 대한 사가랴의 첫 마디는 하나님 우리 구원자에 대
한 것이다. —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그 백성
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67 절).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우리 구
원자에게 드리는 찬양과 감사에 언제나 익숙하도록 자자. “찬송하리
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분의 축복들에 대하
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위하여 그분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감사하고 찬양
해야 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에베소서
1 장 전체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삼일 하나
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사셨던 하나님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신 성령 하
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의 말을 쓰도록 감동되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편 115:1).
그분이 하나님이니므로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을 드리도록 하자. —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시편 103:1).

하나님의 큰 구원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 후에, 사가라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의 입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69-75 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놀라운 묘사가 여기 있는가! 69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을 본다. 그 말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네 가지 사항을 말해준다. (1.)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이르키셨다. (2.) 그것은 고귀한 구원이다. — “일으키셨다.” (3.) 그것은 권능으로 충만하고, 전능한 구원이다. — 뿔은 권능의 상징이다. (4.) 그것은 풍성한 구원이다. — “구원의 뿔,” 풍요의 뿔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택정한 자, 다윗의 집,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70 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큰 구원이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적 구원임을 본다. —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옛 구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려고 오셨고, 요한이 전하러 왔던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가운데 삼일 하나님에 의해서 언급되었고, 정해졌고, 성취되었다 (로마서 8:29-30; 에베소서 1:3-6; 디모데후서 1:9).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하여 창세 이후로 들어왔다. 아담은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에 대하여 말했다. 에녹은 그것을 공표하였다. 노아는 그것을 전하였다. 욥은 그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 언급되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단 한 가지에 대하여 말해왔다 —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한다.

구원은 모든 우리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영화로운 자유에
로 우리 혼의 완전한 구원이다. —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
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71 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
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
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
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
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3-39).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훈의 행위이고 역사이다. 그것은 “우리 조상을 공훈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의 실행이다 (72-73 절). 구원은 하나님의 공훈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의 실행이다 (히브리서 6:16-20).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은 죄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게 한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견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74-75 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아는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 없이, 진실한 거룩과 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 것이 되게 하셨던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그분의 직접적인 임재 가운데 그분 앞에서 행보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이 어떤 복된 특권인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종

사가라는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76-80 절에서 사가라는 그분의 선택 받은 종의 은사에 대하여 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양과 감사를 표한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분의 은사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살피시고,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향상케 하시고, 격려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것은 선택 받은 이 사람들, 특별히 복음의 일을 위하여 부름 받고 은사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다 (에베소서 4:11-16).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찬양 만을 구하고 갈망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혼에 대한 제사장이나 중보자나 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멸시받지 말아야 하고 쓸모 없는 것들로 취급받지 말아야 한다. 당신 자신의 혼의 안녕과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과 평강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존경에 의해 크게 결정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12-

13).

여기 누가복음 1:76-80 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나이가 든 늙은이가 그 자신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그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하고 있음을 본다. 그 사가랴가 여기서 침례자 요한에 관해 말했던 것은 명확히 말해서 그 큰 사람과 그의 비범한 사역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충성된 복음 전도자의 일에 대한 선포이다.

복음 전도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그의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76 절; 이사야 40:3-4). 하나님의 종들인 그 사람들은 선포할 특정한 말씀을 갖고 보냄 받았으며, 그것으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 (77-79 절). “구원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이 모든 복음 전도자의 일이고 책임이며, 그의 유일한 일이고 책무이다. 그가 구원을 줄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하여 알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떠나서 구원에 대하여 알 수 없다.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소망하는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성취된 “그분의 백성”의 구원이다. 구원이 죄인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로서”이다. 죄의 용서로 인한 이 구원의 원천과 근거는 “우리 하나님의 온화로운 긍휼”이다! 이 구원이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명과 죽으심에 의해서이다. — “이로써 돈을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는” 것은 전도자의 일이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모든 선택 받은 전도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을 약속하셨다 (80 절). 만약 사람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는 그 자신의 깃발을 흔들거나 자신의 나팔을 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은 그가 누구인지 그분의 백성에게 보이실 것이다. —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에스겔 33:33).

12 장. 우리 구원자의 출생—누가복음 2:1-7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누가복음 2:1-7).

여기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자 구속자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하여 말한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 그런 탄생은 결코 없었다. 이것은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 세상이 만들어진 분의 탄생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다 (디모테전서 3:16).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언급하신 자의 탄생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분의 백성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려 갈보리에서 사람으로서 죽으시려고 베들레헴에서 인자로서 출생하였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20:28 에서 말씀하신 것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라디아서 4:4-5 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

우리 구원자의 탄생의 목적

누가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것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육신 안에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이 일이 있기 아홉 달 전에 요셉에게 주어진 천사의 전갈에서 우리 구원자의 탄생의 목적을 우리가 들었다. —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그가 그들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다. 이 백성은 영원 전부터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한 자, 죄인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13-14).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훈의 사명 위에 우리 대속자와 대표자와 언약의 보증으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는 것을 하셨다. 그분은 그의 백성, 그들 모두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히브리서 10:5-14).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만이 실행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세 가지 전능한 행위으로써 그의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다. (1.)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은 피의 구속으로, 효험 있는 속량으로, 신성한 공의의 만족으로,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을 때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2.) 그분은 자신의 피로, 거듭남 가운데 그분의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로 구속 받은 자기 백성, 각각을 구원하신다 (에베소서 2:1-5). (3.) 주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의 부활로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구원자의 출생의 시간

이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놀라운 광경을 본다. 가이사 아구스도, 첫 번째 로마 총독이 “영을 내려 천하가 다 호적하라 (과세하라)”고 했던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특히 알게 된다.

이것은 전체 일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려 오실 때까지 시민 국가를 계속 유지하도록 약속하셨다 (창세기 49:10). 누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야곱의 예언의 정확한 성취에 대하여 말한다.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다. 그들은 한 나라로서 모든 법적, 국민의 권리를 잃었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지배하였고 그들에게서 세금을 요구하였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그들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자신의 정부가 없었다. 아구스도가 세상에 세금을 부과하자마자 곧 메시야가 오셨다! 그것은 “정해진 때” 그리고 “시간의 충만함”이었다.

하나님이 섭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가능한 가장 좋은 때를 이제 안배하셨다. 지혜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는 것을 완전히 입증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21),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알도록 세상 속으로 발을 들여넣으셨다. 종교 의식이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도덕적 파산에 버려 두었다. 철학자들, 시인들, 역사학자들, 건축가들 그리고 모든 이방 세계의 통치자들이 인류를 시간이 갈 수록 오직 더 악화되기만 하는 영적 어둠과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혼란 속에 버려두었다.

하지만, 필요한 이 소중한 시간에, 바벨 탑 이후로 처음으로, 모든 문명 세상은 한 정부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속으로 복음을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전체 세상을 안배하셨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 혼을 위한 위로를 언제나 찾도록 하자. —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 모든 역사, 모든 정부, 모든 시간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31:15). — 그분은 무엇이 최선인지 언제나 아시고 언제나 최선인 것을 행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과정이나 상태에 대하여, 심지어 이처럼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도, 염려하거나 초조해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행한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은 Martin Luther 가 그의 염려하고 초조해 하는 친구인 Philip Malacthon 에게 자주 말하곤 했던 것을 읽었다. “Philip, 세상을 지배하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두게.” 우리는 그 말을 분별할 만큼 지혜로워야 한다. 모든 지혜의 왕 중의 왕이시고 주 중의 주의 충성된 신하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자. 우리 하나님이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며, 모든 것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매우 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헤로우시므로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고, 매우 선하시므로 잘못 할 수 없으며, 매우 강하시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 구원자의 출생 장소

우리 구원자는 마리아와 요셉이 거주하였던 곳인 갈리리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분은 베들레헬에서 나셨다. 선지자 미가는 주 예수께서 베들레헬에서 나시는 것이 일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예언하였고 (미가 5:2), 또 그렇게 일어났다.

다시 한번 더, 선택 받은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섭리 가운데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통치의 놀라운 모습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늘과 땅과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그분이 왕들의 마음을 그가 뜻하시는 어디로든지 향하게 하신다. — “왕의 마음이 여호와 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1). 아구스도가 이 포고령을 만들게 하였고 마리아의 임신이 만삭에 이르렀을 때 정확히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하게 하였던 분은 주 하나님이셨다.

아우스도도 구레뇨도 그들이 무슨 일을 왜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전형적인 정치인들로서, 그들이 단지 원칙없는 정치적 방편주의에 따라서만 행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앗수르의 왕처럼, 그들은 그럴 의도가 없었으며, 그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다만 그들은 주의 역사를 수행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사야 10:5-12).

첫 번째 로마 황제의 이 행위는 그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곧 엎드리고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기초를 놓았던 행위였다.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모든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그분의 뜻의 성취를 위하여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것을 알고 기뻐하라. —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편 76:10).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우주에 대한 섭리의 통치는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 마음을 잠잠케 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일이나, 땅의 통치자의 행위로 크게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탁으로서 모든 정치적 통치자의 각각의 행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어디까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는지 혹은 다윗을 칭찬하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우리가 모든 사람도 그리고 모든 마귀들도 역시, 그분의 계획을 섬기도록 피조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함을 제외하고 생각하거나, 도망치거나, 움직이기 위한 능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여기기를 배우자 (전도서 5:8).

우리 구원자의 탄생 방법

“만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광을 받으셨던 것은 그분 자신의 큰 굴욕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그분의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던 것은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고난당함을 통해서였다 (고린도후서 8:9).

이것을 또한 배우고, 잘 배워라. — 하나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이 사람들의 성격과, 그들의 가난과 부, 외관이나 장소, 혹은 인종이나 지위에 따른 가치에 따라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 구원자의 본을 따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빌립보서 2:1-11). 아 성령이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소서!

13 장. 성육신의 전갈—누가복음 2:8-20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 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8-2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실이다. 트집쟁이 조소 끈들은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라, 그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거의 아무도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성육신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영적 지식은 신성한 계시로 온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가르침을 잘 받았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어떤 영적인 것도 알지도, 분별하지도, 혹은 깨닫지도 못한다 (고린도전서 2:12-14).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언제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책에 계시된 경이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선택 받은 사람들

첫째, 8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왔고, 그들로 인하여 그분의 탄생의 말씀이 처음 선포된 것을 본다. —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선포는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제사장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인들을 지나치셨으며,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몇 명의 약하고, 교육받지 않았고, 하찮고, 가난하며, 멸시 받는 목자들에게 알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의 대한 것들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의 존경을 구하는 분이 아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자를 지나치시고, 가난하고 낮은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그분의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분은 보통 교활하고 빈틈없는 자를 지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치시고, 그들을 상상으로 걸출함의 혼돈 가운데 버려두시며, 아기
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계시하신다.

이것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분은 가장 가망이 없는 그릇들을 공허의 그릇이 되도록 선택하시며, 가장 가망이 없는 도구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경이로운 역사를 실행하시는데 쓰는 도구가 되도록 선택하신다. 가난은 은혜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다. 교육이 부족하거나, 심지어 천부적인 능력조차 부족하여도 유용함을 막는 장벽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신 자 위에 공허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분이 뜻하신 자를 사용하신다 (야고보서 2:5; 고린도전서 1:26-29).

이 사람들은 목자들이었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다. 정직한 수고는 신성한 경배에 장벽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 말에 대해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경건이 집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하며 다른 사람이 그들의 책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다.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더 멀어질 수 없다. 우리 주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미명 안에서 그들의 가족과 책무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부인한 거짓말쟁이와 위선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다.

하나님을 가장 경배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한다. 정직한 수고는 거룩에 장벽이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신성한 가르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선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 양을 치고 있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주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만드셨을 때 들을 일구고 있었다. 사실상, 하나님의 책 안에서 거짓 선지자를 제외하고, 이제까지 누구든 자원하여 선지자가 된다고 한 곳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천사같은 사자들

9-14 절에서 누가는 주의 천사가 우리 구원자의 탄생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수의 천사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용된 말은 하늘의 모든 주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갑자기 번갯불처럼 날아서 성육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하였다고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록되기를,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찌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1:6)라 하였다.

성육신 하나님의 첫 번째 경배자들은 그분이 구원하려 오신 죄인들이 아니었고, 결코 죄를 짓지 않았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여기 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구원자께 경배 드리기를 위하여 땅으로 달려오는 하늘의 전체 주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두 가지 사항이 분명하다. (1.)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을까! 그리고 (2.)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했

을까!

-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받고, 보존된 책정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한다 (히브리서 1:14).
- 그들은 구속 받은 죄인들의 변화에 기뻐한다 (누가복음 15:10).
-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에서 만나며, 그들은 구속의 경이들을 우리에게서 배울 것이다 (에베소서 3:10).
-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택정한 사람들과 택정한 천사들의 총체적인 집회 가운데 함께 모일 것이다 (히브리서 12:22-24).

전갈

셋째, 나는 우리가 10-14 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성육신의 전갈을 보고 깨닫기를 원한다. 10 절에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한다. 성육신의 전갈은 “좋은 소식”의 전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다. 그것은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선한 뜻과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시한다. 은혜로운 좋은 소식은 모든 율법과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한다. 이것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형언할 수 없고 영광으로 찬만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원한 기쁨과 평강의 소식이다.

복음 가운데 선포되는 은혜로운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향한 소식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것”이란 말은 복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복음은 헤롯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인들에게 아무런 기쁨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어떤 자에게는 더 큰 정죄를 가져다 준다. 탕자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열방들에게, 열방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에게, 그리고 도처에 있는 모든 궁핍한 죄인들에게 이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성육신의 전갈은 그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려 오셨던 주권적인 주에 대한 선포이다. — “오늘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 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려 나신 “너희”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 그분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사야 9:6; 히브리서 2:14-16). 천사가 말한 이 한 분은 “구원자”이다. 구원자는 구원하는 분이고, 구원하려 단지 시도하는 분이 아니고, 단지 구원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다. 우리 구원자이신 분,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분은 그분 자신이 주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의 의, 그리고 만물의 주시다. 그분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사야가 말한 주이시고 구원자시다. 누가는 12 절에서 신성한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이사야가 말하였던 (이사야 7:14) 동정녀와 그 아이가 마리아와 주 예수, 동정녀에게서 난 아기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육신의 전갈, 복음의 전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와 선포이다. —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3-14 절). 시편 기자는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크리라고 선포하였고 (시편 21:5), 사실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불린다. 우리는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본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본다. 우리는 본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에 대한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의 대속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종과 죽으심 가운데 계시된 것처럼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분 모두가실 수 있는지 본다 (이사야 45:20; 로마서 3:24-26). 오직 갈보리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의 모든 무한한 온전함을 본다. 우리는 구속의 체계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현명함을 본다. 그분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는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속량의 제물이 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 축복의 구속자의 처형 안에서 그분의 공의와 진리를 본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를 용서함 안에서 그분의 불변한 충성을 보고 안다 (시편 106:8; 에베소서 1:3-14).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영광의 위대함을 보여주실 것이다 (에베소서 2:7).

복음, 성육신에 대한 전갈은 평강의 땅 위에 선포이다 — “땅에는 평강이.” 복음은 아무 곳에서도 어떤 종류의 정치적 평강, 국가적 평강, 가정 평화, 혹은 세상적 평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우리 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34).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 판결자, 우리 중보자, 우리 대속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신 주 하나님과 타락하고 죄 있는 죄인들 사이에 평강을 이루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합법적이고 영원한 평강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평강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빌립보서 4:7).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용서의 평강, 그분의 섭리의 평강, 그분의 임재의 평강을 주신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사람들 사이에 평강을 세우시고 유지하신다 (골로새서 3:10-11).

성육신에 대한 전갈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이다. 성령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추측하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공백을 채워야 하는 책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의한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이다 (요한복음 6:37-40; 에베소서 1:3-12).

순종의 믿음

우리는 15-19 절에 있는 이 목자들 가운데 예증된 믿음의 순종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들의 의무는 분명하였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사자들은 비범하였다. 하나님의 사자는 비범한 방법으로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범한 방법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의심이나 질문의 최소한의 암시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정확히 하였다.

우리의 책무의 경로가 분명할 때,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 알 때, 그분이 우리가 하게 하셨을 것을 알 때, 우리는 혈과 육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순종은 언제나 의롭다.

이 목자들은 자신과 서로에게 멈추지 않고 말한다. “누가 우리 양 떼를 보살필까? 누군가 그들을 늑대로부터 지켜야 한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라고 하였던 분의 보살핌 안에 그들의 양 떼를 남겨 두었다. 우리도 같이 행하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나의 책임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충성되게 섬기려 한다면, 나는 그분의 손에 내 가족을 보살피게 맡겨야 한다. 내 편에서 부족한 어떤 것도 불순종이다. 사실상, 주 하나님은 아무도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결코 손실을 고난 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 (출애굽기 34:23-24).

이 목자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 여정의 마지막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을 통한 우리 여정은, 믿음 가운데 시작했으며, 찬양 가운데 끝날 것이다. —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0 절).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계시록 19:1-6).

14 장. “율법을 따라서”—누가복음 2:21-24

“할례 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누가복음 2:21-24).

우리 구원자께서 하셨던 모든 것은 인자로 하셨고 “율법을 따라서”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하려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기꺼이 자신을 율법 아래 두시고 자원하여 인자로서 모든 것 가운데 율법에 순종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엄격한 공의의 배경 위에서를 제외하고 죄 있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의는 유지되어야 하고 공의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행사 가운데 만족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다 (이사야 45:20). —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잠언 16:6).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율법을 확대하셨고 우리 대속자로서 그것을 존귀하게 만드셨으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달콤한 체험 가운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다” (이사야 42:21; 갈라디아서 4:4-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비록 율법의 멍에가 무거운 멍에였고,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지만, 만약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갖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셔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자원한 대속자이고 보증으로서 그것을 하셨다. 비록 율법의 세속적 계명이 성령께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이라고 부른 것이었으며 (갈라디아서 4:9), 그러나 “세상의 초등 학문” (골로새서 2:8, 20)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율법의 모든 계명과 교훈에 순종하셨고, 그로써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성취하셨으며 율법을 존귀한 끝으로 보내려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사람 신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에 순종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 오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셨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다.

여기 누가복음 2:21-24 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 예수, 우리 구원자이고 중보자이며 보증이시고 대속자이신 분이 그분의 거룩한 사람의 자격의 바로 그 시작부터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충만케 하셨다.

할례 받은 보증인

그분이 단지 아기였을 때, 팔 일이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서 할례를 받으셨다. 할례는 새로 태어남의 상징으로서 율법 아래 가르쳐지고 있었다. 육신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의 불가결한 것임을 보여 주었다 (디도서 3:5-6). 그러나 그리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다. 왜 그분은 할례를 받으셨나? 그 대답은 분명하다. 그분은 우리 보증으로서 할례를 받으셨다.

할례는 그분을 구원하려 오신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로서 그분을 규정하였다 (히브리서 2:16-17). 할례는 피의 흘림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그분은 그분에게 행해진 고통스런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분의 생명의 피를 쏟아 부으심을 미리 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으로, 가능한 가장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몇 방울의 피를 흘리셨다. 이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자원하여 자신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전체를 행할 빛진 자가 되셨다 (갈라디아서 5:3).

할례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법적으로 요구된 서약이었으며, 그로써 그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빛진 자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으심으로” Thomas Goodwin 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그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처럼 하셨다.” 의식 법은 많은 제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이로써 자신을 드려야 했으며,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 자신의 피를 드려야 했다.

그분의 인성의 바로 그 시작 때에 우리 대신 율법 앞에서, 서 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축복된 일인데, 그분 자신을 율법에 빛진 자로 만드시면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며, 그로써 우리는 결코 율법에 빛진 자가 되지 않는다 (로마서 6:14-15; 7:4; 8:1-4; 10:4).

지명 받은 구원자

그분이 할례를 받으셨을 때, 성육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로 명명 되셨다. —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21 절). 이 이름 “예수” 혹은 여호수아는 천사에 의해 하나님의 명시된 명령으로, 요셉과 마리아 모두에게, 그분이 수태되기 전에 우리 주께 주어졌다 (마태복음 1:21; 누가복음 1:31).

“예수”는 고대 시대에 일반적인 이름이었다 (골로새서 4:11).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전혀 구원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라고 불렀다. 우리 주께서 구약 성경 안에서 그분의 두 가지 아주 분명한 형태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이 이름을 받으셨다. 여호수아는 약속된 안식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으며, 그 보좌 위의 제사장인 여호수아는, 그리스도에 의해 죄가 제거된 것을 예표 했고 (스가랴 3:1-5), 그리고 또한 우리 중보자 왕으로서 그분의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였다 (스가랴 6:11-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보내지셨기 때문에 예수라 불리셨다 (마태복음 1:21).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 “그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편 72:17).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달콤하게 들리는지
믿는 자의 귀에!

그의 비통함을 누그러뜨리고, 상처를 치료하며,

또 두려움을 몰아 버린다.

그 이름이 상처 받은 영을 온전하게 하고,
또 혼란한 가슴을 진정케 하니,
끓주린 혼에 만나이니,
지친 자에게 안식이네.

귀한 이름이여! 그 위에 건축할 반석이니,
나의 방패요 숨을 곳이라:
결코 못 채우지 않을 나의 금고,
은혜의 무한한 저장이네!”

처음 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쓴바” 처음 난 자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드러지셨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듯이, 태를 열고 나오는 모든 남자는 주님께 거룩하다고 불릴 것이라.)” (누가복음 2:22-23).

마리아는 “율법에 쓴바,” 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 40 일 동안 의식 정화를 위하여 그녀의 제물들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왔다 (레위기 12:4-6). 분명히, 우리 앞에는 희생의 피를 제외하고는 어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종류의 부정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함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한다면, 피로 말미아마서야 한다.

주 예수께서 말라기에 의해 주어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의 성전에 오셨다 (말라기 3:1). 그리고 우리 구원자,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처음 난 자로서, 하나님의 처음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별 되고 거룩하게 된 자로, 성전에 오셨다 (출애굽기 13:2; 민수기 3:13).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며 (로마서 8:29), 모든 피조물 중 처음 난 자이고 (골로새서 1:15), 죽은 자로부터 처음 사신 분이다 (골로새서 1:18).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심은 양떼와 소떼 중 첫 번째, 처음 난 것, 첫 열매 그리고 첫 수확으로 예표 되었다. 실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그분의 백성의 구원 가운데 모든 것들의 전체이고 실체이신 그분에 대한 것을 예시한다 (누가복음 24:25-27, 44). 하나님의 책 안에는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떻게든 하나님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의 지고와 우월과 영광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데도 이 사실이 처음 난 자에 대하여 다루는 그 단락들보다 더 분명한 곳은 없다.

장자는 아버지의 능력과 힘,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창 49:3)는 것을 상징하였다. 그 놀라운 밤에, 주 하나님께서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집트인들 가운데 사람과 짐승 모두의 장자를 죽이실 때 (출애굽기 12:29), 그분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그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셨으며, 그것들을 그분께 성별 되게 할 것을 요구하셨다 (출애굽기 13:2).

그날 밤에 이집트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 사이에 차이를 둔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 뿐이었다. 양의 피만 파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1:7 에서 분명하게 듣는 것이다.

그것이 심판과 공휼의 그 큰 날 밤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 받은 자의 해도 복수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었다 (이사야 63:3-5).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대속자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모든 복수 갚음을 신성한 공의의 충만한 만족에 이르기까지 짊어지셨으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과 구원을 얻으셨다 (히브리서 9:12). 동시에, 그분은,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 안에 있도다”고 선포하셨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초출 안에 공휼뿐만 아니라, 그분의 대적들의 초출 가운데 심판을 시행하실 때인, 그분에 의해서 지명되고 확정된 날이 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사이에서 장자의 상속권은 가족 안에서 그에게 탁월함을 부여하였다. 그에게 제사장 직분의 권리가 속해 있었다 (민수기 3:12-13; 40-45; 8:15-18). 장자는 그 형제들 가운데 두배가 주어졌다 (신명기 21:17). 그리고 장자에게는,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찌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창세기 49:8)는 약속을 받았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선포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존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첫 태에 처음 난 모든 남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요구로 드러졌던 모든 제물은 우리 주 예수를 가리켰다 (출애굽기 13:2; 34:19-20; 레위기 12:6; 누가복음 2:21-24).

Robert Hawker 는, 성경이 “첫 태에 처음 난 자”에 대하여 언급할 때, 우리 구원자의 동정녀 출생의 예언이었음이 분명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엄밀하고 합당하게 말해서, 주 예수 말고 아무도 태를 연적이 없었다…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세상의 창조로부터, 해부학자가 잘 아는 것처럼, 수태의 때에 성취되었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 “장자”는 마리아의 동정녀 태 안에 성령 하나님의 압도하는 권능으로 잉태되었다. 그분이 마리아의 동정녀 태를 우리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거기로부터 나오실 때 여셨다. 따라서, 레위 시대를 통하여, 사람과 짐승의 장자는 삼일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영원한 탁월함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에게 믿음의 눈을 향하게 하였다.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은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며, 그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와 구속자로서 모든 것 가운데 탁월함을 받으신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구속하고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축복의 주 예수, 맏아들께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고, 그로써 그가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왕국의 불가해한 부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우리는 것을 마리아의 희생에서 본다 (24 절). 율법은 경배자들에게 번제를 위하여 첫 해의 어린 양과 어린 비둘기나 멧비둘기를 만약 아주 가난하지 않다면 속죄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그들이 매우 가난하면, 그들은 두 마리의 어린 비둘기나 두 마리의 멧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이 허락되었고 (레위기 12:6-8),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기 위함이었다.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이었다.

마리아는 “한 쌍의 멧비둘기나, 두 마리의 어린 비둘기”를 드렸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15 장. 그리스도 우리의 빛, 우리의 영광, 또 우리의 구원—누가복음 2:25-3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 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같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누가복음 2:25-35)

여기에 모든 구원 받은 죄인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있다. —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5 절). 이것은 성경에서 시므온의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곳이다. 우리는 이 일곱 구절 안에서 계시된 것을 제외하고 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성격을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으로 확신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곧으며 정직하였다.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께 경배와 섬김과 뜻과 영광에 헌신적이었다. 그는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모든 믿는 자들은 그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여기 계시된 사실이 있다. —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6 절). 물을 필요 없이,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그가 자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임을 특히 초자연적으로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여기 계시된 사실이 있다. —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 가운데 아무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9).

여기 축복의 인도가 있다. —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7 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하게 만난다!

여기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 —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28-33 절).

여기 계시를 받은 자들을 제외하고, 각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 멸시를 받았던 구원자와 복음이 있다. —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4-35 절).

네 가지 간단하지만, 복되고, 영적인 진리, 복음의 진리,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을 이 감동의 구절들이 계시한다.

1. 하나님은 결코 증인이 없이 자신을 두시지 않는다.

가장 최악의 장소에서, 가장 어두운 때에, 주 하나님은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하지 않을 그분의 칠천 명을 갖고 계시다. 각 세대 가운데 대부분은 짐승의 표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그러지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들의 이름이 변하지 않는 은혜의 붓으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 13:8).

하나님의 교회는 큰 음녀인 바벨론 한 가운데에서 작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옥의 문이 결코 그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작은 양 떼가 광야로 내몰리겠지만, 하나님의 목자가 여전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어린 양들을 그분의 가슴에 안고 데려가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먹이신다. 여자가 지옥의 용에 의해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이 그녀의 돕는 자가 되도록 섭리 가운데 만드신다 (계시록 12 장). 하나님은 결코 증인이 없이 자신을 남겨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소돔의 롯, 아합 가족의 오바다, 바벨론의 다니엘, 세데기야 법정의 예레미야, 예루살렘의 시므온, 그리고 배교 시대의 택정한 남은 자를 갖고 계시다.

2.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사망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 두려움 없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사망의 공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히브리서 2:14-15). 많은 사람이 좌절스러운 단념 가운데, 무력하고, 비탄으로부터 평강과 해방에 대한 무기력하고 기초 없는 소망으로 죽는다. 거기서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는” (시편 73:4) 것으로 보인다. 확신에 찬 평강 가운데 죽는 자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는 평강 가운데 죽어야 한다 (로마서 8:31-39; 고린도후서 5:1-9; 출애굽기 15:16-19). 그 죽음이 죽음 중의 죽음이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의 공포와 그에 따르는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많은 것을 이루셨다.

그는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 모두가 사망의 통치 아래에서 혈과 육의 참여자가 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우리 대표자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그가 우리 본성 가운데 살고 죽으시지 않는한 가능하지 않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과 승리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위에 임하는 사탄의 권세와 무덤의 권세를 멸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정복자들 그 이상이다. 왜 그러면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 해야 하는가?

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므로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신다. —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고린도전서 15:56). 사람들을 사망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은 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분의 피로 우리 죄들은 씻음 받았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1-5).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죄를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라, 그리고 더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용서 받고 죽는 것,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은” (에베소서 1:6) 자는 절대 실제로 죽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망과 정죄의 선고에 우리를 묶어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갈라디아서 3:13).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4). 그분은 정죄하기 위한 율법의 권능의 마침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책 안에 어떤 믿는 자 위에 정죄에 대한 아무런 율법적 요구가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는가?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7:4; 8:1-4).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특성을 바꿈으로써 사망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사망은 끔찍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사망에 대하여 적은 것은 공홀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큰 축복이다. John Trapp 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영원한 빛비춤의 일출일 뿐이다. 사망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죄의 마침이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으로 향한 거치른 경로로 영원을 향한 문을 여는 튼튼한 수하물 운반인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들 앞에 있는 넘실대는 요르단 강을 건너기를 두려워 해야 했는가? 사실인즉 다른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26).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은 죄의 벌이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것은 단지 위치의 변화이다. 사악한 자에게 사망은 공의의 처형이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망은 비탄의 시작이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반역자에게, 사망은 감금이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해방이다.

3. 참된 믿음이 발견되는 곳마다, 복음의 지식과 영적 깨달음이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사람, 시므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중요하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복되다 (이사야 54:11-14; 요한복음 6:45).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어둠 속에서 도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한 확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이다.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모든 종족,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택정한 백성을 소유하심을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임을 알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천연적으로 큰 영적 어둠 속에 사로잡혔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품에 안고 있는 바로 그 아기가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삼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영광에 대한 계시임을 알았다 (예레미야 9:23-24; 고린도전서 1:30-31). 시므온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았다. 구원은 교리의 체계나, 종교적 신조나, 생활의 개혁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의 위격이며, 그 위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4. 확실한 것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따라간다.

34 절과 35 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분으로 인하여 넘어지며 많은 사람이 그분으로 인하여 부활할 것임을 듣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이 거치는 돌이고 걸리는 반석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분은 그 위에 우리가 건축되는 확실한 기초이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베드로전서 2:7).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설계에 따른 것이다 (이사야 8:14; 로마서 9:33; 베드로전서 2:8; 유다서 4). 하지만, 고통과 핍박은 그분을 신뢰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그분을 따르는 자 모두의 몫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하나님이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으로 인함이다 (빌립보서 1:29).

16 장.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누가복음 2:36-40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 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 된지 팔십 사 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떨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36-40)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그의 품에 안고 그분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순간, 안나가 성전으로 왔고, 시므온이 하는 말을 듣고는 아기 그리스도 예수를 그녀의 구원자로 경배 드렸으며,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안나가 말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처럼 당신은 구속됨을 바라는가? 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속과 해방과 구원을 바라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이 이 지면을 향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만약 당신이 구속을 바라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라. 그분만이 죄인들의 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속자이며,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을 얻으며, 나아가 죄의 사함도 받는다.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는 경건한 여인, 그 이름이 성경 안에서는 다른 아무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여인에 대하여 본다. 안나는 시므온처럼 누가만 언급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25-35 절에서 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초기의 유아기에 있던 그분께 경배 드리고 간증했던 한 경건한 늙은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한 늙은 여자에 의한 경배와 간증에 대하여 그는 우리에게 말한다.

여선지자 안나

“안나”라는 이름은 여기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같다. 그 이름의 의미는 “은혜,” 혹은 “은혜로운”이라는 뜻이다. 안나는 그녀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녀는 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 그녀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행보하였으며, 그 은혜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여인은 “여선지자”였다. 비록 예언이 사백 년 동안 유대인들 가운데 그쳤지만, 이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부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 시대에, 그 안에서 여인들은 안수 받고 집사로서, 전도자들로서, 선교사들로, 복음 전도자들로, 목사들로, 그리고 신학자들로 거의 모든 종교 교파에 의해 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냄 받는 가운데, 안나가 여선지자였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떤 것을 말해야 하겠다. 여자 전도자들에 대하여 종교적 세상에서 일반적인 혼란을 위함이 아니라면, 거의 언급이 없는 이 말씀을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혼란이 만연하지 않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한다.

성경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후 모두, 여자 선지자들, 여선지자들에 대한 예가 몇이 있다. —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 — 랍비뚱의 아내 드보라, — 살룸의 아내 홀다, — 그리스도의 출생 시, 이 여인 안나가 있다. 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여선지자들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네 딸들에 대하여 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를 집사, 선교사, 전도자, 복음 전도자, 목사들로 안수하는 것이 오늘날 합당하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또 분명하게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금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들은 아주 분명하여 여기에 오류는 허용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34-35; 디모테전서 2:11-12). 이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책무들이다. 이것은 성차별이나, 남성우월주의나, 그런 어떤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의 문제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건한 여자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있어서 합당하고, 기꺼이 살 것이다. 믿는 여인들은 하나님이나, 그분의 명령이나, 그분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다. 남자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들 위에 권위가 주어진 자들 모두에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순종하여야 하는 것처럼, 집사와 장로와 교회가 그들의 목사들에게 순종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처럼, 여인들은 그들의 남편에게 순종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여인들은 남자에게 순종 가운데 섬겨야 한다. 그들은 남자 위에 군림하는 위치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 안에서 “여선지자들”이라고 불린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들을 단지 무시할 것인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매한 말에 우리 교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 숙고함 아래에서 주제가 가르침 받는 곳들 안에서 주어진 성경의 분명한 교훈 위에 우리 교리를 세워야 한다. 구약 성경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서신서들 안에서 여전도자들에게 주어진 금지사항들을 무효화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여자들에 대하여 언급할 때, 그것은 그들이 전도자들이었음을 함축하지 않는다.

“여선지자”라는 말은 다만 아마도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가리키며 처음 나타났던 경우 (출애굽기 15:20)에 보여진 것처럼, 다만 하나님의 경배자인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말은 또한 선지자의 아내를 묘사하려 사용된다 (이사야 8:3). 따라서 그 말이 전도하기 위하여 대중 앞에 선 여자를 가리킨다고 할 필요는 없다. “예언”이라는 말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다,” “예언하다” 혹은 “설교하다”라는 의미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단지 경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고린도전서 11:5, 그리고 14, 15 장을 모두 읽어보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선지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증거하는 여인이었다. 미리암과 관련하여 언급되었던 것처럼, “여선지자”라는 말은 오늘날 “경배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에 사용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 드린다”는 그런 여인들에 대하여 말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예언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일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까지 언급된 유일한 여자 전도자는 두아디라에 있던 스스로를 여선지자라고 불렀지만, 우리 주께서 “이세벨”이라고 부른 그 사악한 여인이었다 (계시록 2:20). 하나님께서 남자들 위에 통치자로서 여자를 세우실 때, 그것은 심판의 행위이지, 은혜의 행위가 아니다 (이사야 3:12).

성격과 행위

이 여인, 안나는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곳에 붙였던 것과 똑같다 (창세기 32:30-31). “바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얼마나 합당한가! 안나, 바누엘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다음으로, 누가는 안나가 “아셀 지파”에 속하였다고 말한다. 아셀 지파는 포로로 잡혀갔던 열 지파들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아셀 지파 가운데에도 은혜의 택정하심에 따른 남은 자가 있었다. 하나님은 도처에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두신다. 그분은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약속된 때에,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유 안으로 노예 상태와 어둠과 정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옮기신다.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 안나는 늙고 늙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84 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그 의미는, 만약 그녀가, 그 당시 유대인 소녀들이 했던 것처럼, 12 살의 나이에 결혼하고 그녀의 남편과 그가 죽기 전까지 7 년 동안 살았다면, 그녀는 적어도 103 세의 나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그분의 왕국과 영광을 섬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었다.

안나가 행하고 말했던 것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36-37 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첫 번째 것은 믿는 자의 특징과 행위에 관한 그림이다. 안나는 나무랄 데 없는 특징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성경이 “참 과부” (디모테전서 4:5)라고 묘사한 자였다. 이 늙은 여인은 우리 앞에 참 경건의 예로써 보여진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 된지 팔십 사 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녀는 천연적으로 경건한 여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그녀는 진지한 훈련으로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위에 임한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되었고 경건하게 되었다. — 체험한 은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게 만든다 (고린도후서 5:17; 디도서 2:11-12; 에베소서 2:8-10). 안나의 성격과 행위는 간단하게 묘사되었지만, 그러나 강력한 말로 묘사되었다. 그녀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그 은혜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결코 체험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믿는 자 안에 있는 괄목할만하고 예외적인 특징으로 바라 본다. 그들은 그것들을 이상적이라 여기지만, 믿는 자의 성경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것도 진리로부터 더 멀어질 수 없다. 이 두 구절에서 묘사된 성격, 이 늙은 성도의 성격은 우리가 쫓아야 할 과녁이 아니라, 모든 참 믿는 자들의 순수한 성격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난 자들, 그 영 안에서 행하는 자들의 성격이다 (갈라디아서 5:16-25). —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9).

안나는 도덕적으로 정숙한 여인이기도 했다. 그녀가 결혼할 때 그녀는 처녀였다. 그녀의 남편은 단지 칠 년 후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사는 동안 정숙하게 남았고 끔찍한 품행과 부도덕의 시대 가운데 정숙하고 고결하게 남았다.

이 늙은 여인은 그녀가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배 가운데 충성되었다. —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그것이 그녀가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녀가 밖에 없었다면, 그 순간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명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확한 선포이다 (히브리서 10:25). 성전의 문이 열릴 때, 안나는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을 그녀의 일로 삼았다.

하나님의 경배를 향한 안나의 서약이 공개적으로 그녀의 개인적인 헌신 앞에 놓여 있음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왜? 왜냐하면, 공개적 경배가 멸시를 받을 때, 개인적인 경배는 없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로부터 떠나는 것, 하나님의 경배로부터 떠나는 것은 모두 주를 포기하는 것이다. 배교의 첫 번째 발걸음은 공개적인 경배를 무시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0:23-29).

안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였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고,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장소로서 바라 보았다. 따라서, 그녀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봉헌하였다. —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의식, 서로에게 그들의 경건함과 헌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의식들을 비우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를 줄였다. 그들은 외적인 껍질이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알곡을 버리고 껍질을 지켰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종교적 사람들에게 있는 방법이다. 그들의 종교는 모두 외적인 것이다. 그것은 모두 외형이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말을 대신한다. 그들은 주기적인 금식으로 마음의 헌신을 대치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그분이 그렇지 않으면 하시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기도를 생각한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은 만약 기도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를 원하고 그분을 쥐어짜면, 금식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금식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한다. 그 둘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마태복음의 6 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비록 금식이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자제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기도는 공예배와 가족 예배 안에서 매우 합당하게 들리며, 우선적으로 금식과 기도가 마음의 문제이다.

금식은 자원, 의도적 자기 부인, 성별, 헌신 등에 대한 동의어이다 (고린도전서 6:19-20).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그분의 뜻과 영광에 대한 믿는 자의 교제이고, 믿음이며, 경배이고, 순종이다.

구속을 바랍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38 절). — 안나는 그녀의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그녀가 시므온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녀도 그녀의 구원자이신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렸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그녀는 “이스라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신뢰하였던 그분을 사랑하였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사랑함은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9).

각 세대 가운데 믿는 자들은 구속을 바라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의 시대로부터, 구약 역사의 모든 날과 해를 통하여, 시므온과 안나의 시대 가운데, 사도들의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에, 이스라엘의 구속,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참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이다. 믿는 자들은 구속자 그리스도, 우리 구속이신 그 한 분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10; 디도서 2:14; 로마서 13:11). 우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28).

그리스도는 우리 구속이시다 (고린도전서 1:30). 우리는 구속을 위하여 그분만을 기대하며 언제나 그분을 기대한다. 주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을 소유하시고, 심지어 안나의 날에 그 사악한 성에서도 소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는 자, 그들이 보는 모든 것들의 면전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과 효험 있는 은혜로 그분의 모든 백성을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구속하실 것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을 믿고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진 모든 자를 소유하셨다.

그리스도의 인성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39-40 절). —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성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몸과 육체적으로 힘과 신장이 자랐다. — “영 안에서 강하게 되고.” 실질적인 인간의 몸 뿐만 아니라 실제 인간의 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 예수는 그 혼 안에서 강하게 자랐다. 그분은 강한 체격과 강한 성격과 강한 의지와 강한 정서로 자랐다.

“지혜가 충족하며” — 우리의 보증으로서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어 졌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구원자께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속에 천연적인 지혜와 영적 지혜를 묘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그분 위에 있었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영의 은사와 은혜, 그 영의 열매가 그분 위에 있었다. J. C. Ryle 은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 주는 죄만을 제외하고 사람의 본성에 속하는 모든 것을 취하셨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갓난아기로 나셨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갓난아기에서 소년으로 성장하였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해마다 소년에서 완전히 성숙하는 그분의 여정 동안 몸의 힘과 정신적 힘이 늘었다. 인간의 몸의 죄 없는 모든 상태에서, 그 첫 번째 연약함, 그 성장 후, 그 성장에 이르는 일반적인 과정들에서, 그분은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참여자였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안식해야 한다. 그 뒤를 캐는 것은 소용 없다.”

왜 영광의 주께서 그렇게 낮게 몸을 낮추셨나? 왜 그분은 그렇게 철저한 노예로 몸을 낮추셨나? 그 대답이 요한복음 3:16-17 에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발견된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7 장. 주의 소년 시절의 공과—누가복음 2:41-52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 두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41-52)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성장했을 때, 우리 구원자에 대한 삶은 어떠했는가? 그분의 시간이 어떤 것이 차지하였는가? 그분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가족이 하루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들은 흥미로운 질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질문이다.

우리 주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성년 시절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이 열두 절, 감동의 역사의 짧은 역사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우리는 그분의 갓난 아기부터 그분이 삼십 세가 되었을 때까지, 이 열두 구절 안에 기록된 것 외에 우리 구원자의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아는 것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혼에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만큼 지혜로 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기로 택하신 것들에 대하여 추측하는 것은 깊이 어리석은 것이며 교만함의 극치이다. 계시된 것을 단순히 믿고 분별하는 것은 지혜와 믿음과 겸손의 행위이다. 여기서, 성령은 우리 주의 소년기 역사를 주신다. 전해지기를 의도한 공과들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유일한 생명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므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본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알겠는가? 구원, 영생, 죄들의 용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영원히 열납되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고 속량의 죽으심이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상환은 우리 빛을 청산하였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다. 그분의 심판은 우리의 심판이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죽으심이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순종, 그분이 고난당했던 모든 고통, 그분이 견디셨던 모든 지옥, 그분이 상환했던 모든 빛은 우리의 보증으로써 었다! 우리 생명은 그분의 피 안에 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5:9).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화목된다 (골로새서 1:20). 우리는 우리 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마신다 (요한복음 6:55).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정화하고 양심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그분의 피이다 (히브리서 9:14). 본성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가깝게 되는 것은 그분의 피이다 (에베소서 2:13).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지성소로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게 하며 시은좌에 뿌려진 피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도록 격려한다 (히브리서 10:19-22). 우리는 그분의 피로 성별되었다 (히브리서 13:12). 그분의 피는 우리 손의 구속을 위하여 지불된 구입 자금이고 속량 대가이다 (사도행전 20:28). 그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인침이다 (히브리서 13:20). 그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요한일서 1:7, 9).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말씀한다 (히브리서 12:24). 그분의 피는 종말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계시록 12:11).

사랑스런, 죽어가는 어린양이여, 당신의 보혈이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으리니
속량 받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더이상 죄에서 구원받지 않을 때까지라.

믿음으로 그 흐름을 본 이후로
당신의 흘러내리는 상처가 공급하고,
구속의 사랑이 나의 주제가 되었으니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있으리라.

이 가련한 짧고 더듬거리는 혀가
무덤 속에 조용히 누울 때,
그러면 고귀하고 달콤한 노래 속에,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리!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 대속자로 죽음에 이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다. 만일 당신 구원받으려면, 당신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스도만 신뢰하여야 한다. 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그분을 신뢰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통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첫 번째 것이며,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둘째 것은 이것이다: — 믿는 자의 생명의 통치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삶을 형성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가 된 본이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우리가 따라야 할 예보다 훨씬 그 이상이다. 그러나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우리 삶이 형성되어야 하는 본이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 (요한복음 13:13-15; 베드로전서 2:21)?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간단히 제시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소년이었을 때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가족 생활에 대한 매우 교훈적인 그림이다.

혼인

이 단락 안에서 내게 충격을 주는 첫 번째 것은 혼인에 대한 공과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다 (41-43 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 두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섬김 가운데 서로를 도와야 한다.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매년, 정해진 때에,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함께 갔다. 모든 신성한 경배에 관한 조례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방법으로 지키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으며, 그분을 함께 존귀하게 여겼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길고, 위험하며, 힘들고, 대가를 치뤄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많이 갖고 있지 않았지만, 나사렛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적어도 일년에 세 번 두 주간씩 뒤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떠났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들 편에서 아주 무책임한 문제였다고 말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이다. 어떻게 그들이, 특별히 그렇게 가난한 부부가 한 번에 두 주씩 그들의 가난함을 무시할 만큼 무책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전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분은 그분께 헌신함으로 입는 어떤 손실로 인한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지 않은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찌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4:23-24).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것을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그들이 행해야 했고 가져야 했던 한 가지 일로써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였다. 나란히 그들은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란히 그들은 기도하였다. 나란히 그들은 여호와와의 찬양을 불렀다. 나란히, 그들은 그분의 말씀 을 들었다.

결혼한 모든 남녀가 이 부부를 보고 배우도록 하자. 결혼을 숙고하는 모든 남녀는 이 것들을 마음에 두도록 하자.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내려야 하는 결정만큼 중요한 결정을 결코 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당신의 혼에 선하든 악하든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결혼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도와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당신을 끌어내릴 것이다. 당신의 결혼 상대가 당신을 천국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들을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간단히 말할 것, 그러나 아주 평범한 말로 해야 할 것을 하겠다. 신성한 인도로 당신의 평생의 동반자를 구하라. 혼인은 영원하다. 주 안에서만 혼인하라.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몇 안되는 문장의 뜻에 분별을 주는 누구도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 이 뜻을 무시했던 사람이 매일 그들의 반역을 애통해하는 많은 사람을 안다.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께 드리는 공예배처럼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편의의 관한 문제로 여긴다. 경고하건데, 그렇게 하면 오직 당신 자신의 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며, 당신 가족의 파멸에 이르게 한다 (히브리서 10:23-25).

추정

44 절에서 우리는 두 번째 공과를 본다. —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⁶.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측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가장 확고한 섬김과 우리의 가장 성실한 수고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임재를 추정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주의 약속들을 알며 (마태복음 18:20; 28:20),

⁶ 정해진 절기를 향하여 여행할 때, 거대한 대열 가운데, 한 무리는 남자들이 함께 걷고 여자들은 다른 무리와 함께 걷는 것이 유대인에게 관습이었다. 따라서, 요셉이 그 아이가 마리아와 여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마리아는 요셉과 남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던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약속들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분의 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받으려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수고 위에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해야 하며 그것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소유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순종

셋째,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예 안에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공과를 받는다 (45-47 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부모들은 자녀가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려 한다. 주체할 수 없고, 불순종하며, 나쁜 태도의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무책임한 부모에 의해 생긴다. 그리고 자녀들은 순종을 배울만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행복과 안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녀가 그들의 부모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1-3). 우리 구원자는 어린 아이로서 조차도 따라야 할 본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그분은 그분의 부모에게 자신을 복종하였다 (51 절). 그리고 그분의 부모께 대한 그 존경의 복종은 인자로서 하나님께 있는 은혜를 얻으므로,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행하셨던 그 순종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52 절).

기독교

넷째, 49 절에서 기독교에 대한 공과를 받는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얼마나 확고한 질문인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하자. 우리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일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18 장. 선지자 만들기—누가복음 3:1-6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는지 열 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3:1-6).

이 말씀은 이 복음 시대의 시작을 묘사한다. 침묵의 사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 침례자 요한이었으며, 전능한 엘리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그로써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셨던 자를 특별히 일으켜졌다.

에베소서 4:11 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천이 사도들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목자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포함하는 그분의 교회에 은사를 주심을 말씀한다. 에베소서 4 장에서 사도는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성취에 대한 예언적 선포인 시편 68 편의 한 부분을 인용하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께 전가된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의 죄가 그분의 희생으로 없어졌다는 것을 선포한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인자는 이제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고 은혜의 은사를 받으셨으며, 그 은사는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교회 위에 매일 부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시편 68:17-20).

그리스도의 이런 승천의 은사들은, 언급했던 바처럼 사도들과 목자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포함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계속되는 사도 혹은 선지자 직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지막 사도는 바울이며, 마지막 사도는 바울이었으며,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자 요한이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된 것처럼, 전도자들은 떠돌아 다니는 전파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금 선교사들, 교회 개척자들이다. 목자들과 교사들은 사역의 일을 위하여, 지방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다. “목자들과 교사들”이라는 말은 좀더 정확히 하면 “목자들/교사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분리된 두 가지 책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일을 가리킨다.

선지자

“선지자”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승천 은사로써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주의 승천 이전에 종결되었다는 책무에 이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시대에 이 사람들의 사역에 대하여 언급되거나 기록된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소용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 말은, 신약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비범한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이고, 성경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소유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 예민한 지각을 갖고 있고 그 시각의 필요를 채우도록 요구된 말씀을 가진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신약 선지자의 책무는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속에 감싸여 있고 흐릿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우리는 옛 정의를 아는데, “예언자라기 보다 오히려 먼저 말하는 자”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자들을 하나님을 위한 대변인으로 그 용어를 적용한다. 그러나 여기에 전도자나 목사에 대한 것과는 구별되게 부르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선지자는 선교사나 목사일 수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선지자는 그 말의 이런 특징적인 의미 안에서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담대함과 권위와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으로 보인다. 분명히, 초대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사도행전 11:27-29; 13:1). 적어도 여섯 명이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서 언급된다. 아가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다.

절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았으며, 적어도 많지 않은 참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나? 우리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외쳐 부른다. 선지자가 없는가? 오늘날 하나님과 사이에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자가 아무도 없나? 오늘날 보다 더 큰 필요와 더 적은 공급이 있었던 적은 없다.

선지자는 광야에서 나는 목소리이다. 나팔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마음과 삶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요구를 선포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는 세부적으로 행하거나 프로그램 세우지 않는다.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을 궁리하거나 무대 연출을 계획하지 않는다. 선지자는 협회나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고독한 혼이며 혼자서 그의 최선의 일을 한다. 그는 앵무새나 꼭두각시나 흥행사가 아니다. 선지자는 결코 단체 활동가가 아니다. 그는 종교적 정치가가 아니다. 그는 한 목소리, 외롭고 독단적인 목소리이다.

그는 선지자일뿐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그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되고자 하거나 하려 한다면, 그는 자신과 그의 주변 모든 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람에게 당혹스러움이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국가 안에서든 혹은 교회 안에서든 정치인들에게 결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성직자들에게서 위협을 받지 않는다. 필요할 때, 그는 헤롯을 여우라 부를 것이며, 그가 알았을 때 조차 그것은 그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선지자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반역자이고, 통제시대 가운데 의외의 사람이다. 이사야가 단순한 종교에 대하여 비난했을 때, 혹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베델에 오라고 외쳤을 때보다 단순한 종교에 대하여 더이상 인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며, 적어도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 그의 책무이다.

정치인은 나라의 안녕 대신 다음 선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두렵건대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선지자보다 더 정치적인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의 홍보보다 당신의 호감에 더 관심이 있다. 그들은 교파적인 승진에, 사다리의 다음 단에, 회당에서 더 높은 자리에, 그리고 랍비라 불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지자는 갈기 위한 도끼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우상의 숲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뿌리에 찍을 성경의 도끼를 놓는다. 그는 “타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지 않는다. 그의 주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신 주의 요구에 철저히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역자들이 항복할 것을 가차없이 요구한다.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3:2) —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사야 40:6) —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보라, 너희 하나님을!” (이사야 35:4)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하나님의 선지자에 관한 한, 다음 초장에서 풀은 더이상 푸르지 않다. 그는 사람의 직무나 지위나 존경을 구하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진리와 왕국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은 학자들, 전문가들, 사교가들, 또 흥행사들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그분의 거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며, 그들 스스로는 자신의 죄로 충만함과 그분의 보좌 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 양을 본 어떤 목격자들, 어떤 선지자들이 필요하다.

선지자는 집을 꾸리지 않으며, 인상적인 통계수치를 산출하지 않는다.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빈약한 반응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듣던지 아니던지,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안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교회에 운집하지 않는다.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종교주의자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마다, 이런 저런 혼란이 분명 따른다. 침례자 요한, 혹은 사도 바울이 마을에 왔을 때마다, 그들이 회당에서 전도했든지 아니든지, 감옥이나 개방된 들판이든지 간에, 회복이나 폭동이 발발했다. 아무도 선지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선지자는 결코 바리새인들과 함께 평판이 좋지 않았고, 그렇게 될 갈망도 없다. 조직된 종교는 선지자를 침묵하게 하려 할 때보다 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코 더 조직적이지 않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주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도행전 7:52).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 되었다.” (마태복음 23:31). 마찬가지로 선지자들 중 가장 큰 자가 그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 아벨에서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께서는, 선지자들이 살아서 돌을 맞았으며 죽어서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죽은 선지자들에게 세웠던 기념비로 아무도 오도되지 않도록 하자. 그것들은 앞선 세대들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한 세대의 표현이고 시도일 뿐이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기가 없다.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의 선포를 본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들의 보상을 받으며, 그들과 친구인 자들 역시 찬물 한 잔일지라도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명하지 않은 종이 고향에서 느끼게 되었을 곳인 “선지자의 방”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엘리아의 외투를 향한 후보자가 많지 않다. 그의 여정은 따라가기 쉽지 않다. 선지자를 제거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는 이 시대에 큰 접시 위에 가져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련된 저항의 시대에 미가야처럼 외로운 반대자를 침묵하게 하는 보다 유연하고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침묵으로 향하게 될 수 있다. 박해가 실패했을 때 성공이 어떤 사람의 입을 막아버렸다.

침례자 요한처럼, 선지자는 높은 곳을 끌어내려 낮은 곳을 세우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록 나와서, 주를 위한 길을 만든다. 성경에 대한 그의 신학적 해석은 조예 깊은 고찰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적인 죄의 자각이다. 그가 전하는 것은 죄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태우고 꿰뚫도록 적용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먼지 속으로 끌어내리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 받을 때 위로를 얻겠지만, 선지자는 안락한 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우리는 지금 한때 전도함으로 행해졌던 활기와 홍보와 선전과 촉진으로 성취하려 하고 있다. 숲은 훈련 받은 종교 요원으로 충만하지만 (그들은 전도자들이라 불린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이 불처럼 타는 사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경고”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인 선지자들을 필요로 한다.

엘리아의 겹옷을 받으려 하는 어떤 젊은 엘리사도 학자의 생각, 아이의 마음, 그리고 코뿔소의 은신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훼방자이지만, 아무도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지키려 하는 자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할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기를!

아마도 그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그 들은 것을 말하게 될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이 잊혀지고 오래 지난 후 이 글을 어떤 사무엘이 읽도록 하였을 것이다. 승급이나 신망 등, 지불해야 할 많은 가망은 없다. 그러나 아합을 증오하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찾게 될 사람이 “여전히 한 사람”이 언제나 있어 왔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누가복음 3:1-6 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자, 선지자를 만드는 자를 서술하고 있다. 선지자들은 그들이 필요한 때와 장소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부름 받으며, 은사를 받고, 세워지며, 보내진다!

절체절명으로 필요했던

하나님은 선지자가 절체절명으로 필요할 때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나이든 여인들과 차를 훌쩍이면서, 구기 종목 팀의 작은 경기를 코치하면서,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엄지손을 비벼서 선지자를 세우셨을 성경 안에서 어떤 시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시간에, 모든 면에서 넘치는 사악함으로 그분의 백성의 울부짖는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일으켜진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분의 선택된 왕을 찾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를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세우셨다.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엘리야를 부르셨으며, 한편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으로 세우려 찾았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사야를 보내셨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백성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세우셨다.

절체절명의 필요한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침례자 요한을, 전능자 엘리야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우셨다. 1 절과 2 절은 침례자 요한이 사회적, 정치적, 영적 사악함이 넘쳐나는 때에 세상 속으로 보내졌음을 말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디베료 가이사,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그 형제 빌립의 시대보다 더 악명 높게 사악한 때를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우리 근대의 워싱턴 군중을 어거스틴 수도승의 무리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침례자 요한이 복음을 전하며 왔을 때, 세상은 사악한 사람의 손에 완전히 넘겨준 것 같았다. 욥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어있고” (욥기 9:24). 이 사람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면, 사람들은 무엇처럼 있어야 했을까?
- 종교적 세상은 바로 정치적 세상처럼 슬픈 상황이었다. 사실상, 종교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조차도 너무도 퇴락하여서 세상의 반영일 뿐이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신에,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 버렸다. 안나와 가이바는 대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분의 대제사장만 있어야 한다고 특별히 천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이상 인기가 없었다. 그 시대의 교회, 제사장, 전도자, 종교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행했고, 모든 것을 평가하였고, 모든 심판을 행했으며, 의견 조사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한 사람들의 의견으로 모든 교리적 선언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관련하여, 어떤 황량한 것들이 나타날지라도, 실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악함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부터 방해하도록 절대로 허용하지 말자. —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전도서 11:4).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분은 다시 하실 수 있다. — 어둠이 넘쳐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실 좋은 배경일 뿐이다.

분명히 부름 받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2 절).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그의 마음 위에 내려왔고, 그의 혼을 짊어 잡았으며,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삶을 장악하였다. 나는 그것에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안다: — 아무도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자가 사역의 일에 참여하는 어떤 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보내심을 받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은 구원할 말씀이 없고, 행할 일이 없으며, 성취할 부여된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해야 할 것을 정확히 안다.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그리고 노새의 고집과 사자의 용기를 갖고 그의 일에 대해 나아간다.

사람이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가슴을 메이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그는 주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안다. 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 일에 그를 두신다. 요한은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광야에 있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들을 귀를 두시고, 그가 그 일에 몰두한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복음의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받은 사람을 구별한다 (로마서 1:1-4).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을 가진 자, 반역자들이 위대한 왕의 보좌에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3 절). “회개의 침례” (믿는 자의 잠김)은 그로써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의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명령 받고 기뻐하게 되는 복음의 조례이다 (사도 행전 2:38; 8:36; 10:48; 22:16). 침례의 조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완성된 역사,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상징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이라는 말은, “죄 사함 때문에”라고 읽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죄들을 경감 받기 위하여 침례 받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들을 없애 버리셨기 때문에 침례 받는다.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하나님께로 믿는 자가 돌이켰다는 믿는 자의 선포이다. 요한은 회개, 구원자에 의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전파하러 왔다. 그 동일한 말씀이 각 세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에 의해 성취된 구속이다 (고린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후서 5:17-21).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는 단지 음성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굳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4-5 절).

모든 복음 전도자는 영원히 매인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 그들에 오며 어떤 경로로 그들이 그분께 갈지를 말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은 당신의 혼에 대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책무이며, 광야에 한 외치는 소리로써, 모든 계곡을 채우고, 모든 장벽을 허무며, 모든 구부러진 것을 곧게하며 모든 거친 것을 부드럽게 하려 당신의 혼과 당신의 하나님 사이에 위치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그의 일에 대하여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일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헛되게 돌아가게 되지 않을 것임을 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분이 보내실 것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일이 완료되었을 때 —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6 절). 당신은 믿는 자로서든지 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니면 반역자로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혼에 대한 구원으로서든지 아니면 당신의 혼의 저주로든지 간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2:14-16). 당신은 회개의 복된 체험 가운데에서든지 아니면 영원한 고통의 끔찍한 체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분의 귀한 아들의 피 안에서 씻음을 받았는가? 당신은 그분의 의를 입었는가? 당신은 그분의 은혜의 혼례복을 입었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9 장. 전파되는 침례—누가복음 3:7-14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정치 말라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 3:7-14)

침례자 요한은 “평범”이라는 말의 어떤 의미에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고, 주목할 만한 믿는 자였으며, 예외적인 전도자였다. 그를 무시하거나, 그가 주변에 없었던 것처럼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 거의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자는 모두 그들이 들었던 것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

마태복음의 11 장에서 우리 주께서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그분 자신의 생각을 주셨다. 이 범상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 그분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보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7-11).

그런 특징과 영향을 가진 전도자는 모든 전도자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는 전도자이다. 그는 전도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행해지는지에 대한 전형을 제시한다. 침례자의 사역의 인도적 특성이 무엇들이었나? 그의 전도에 있어서 우선적인 특징들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서 누가에 의해 주어진 감동의 기록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도자로서 침례자 요한의 일은, 모든 전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의 일이 판단 받는 것처럼, 그의 인간적인 특질과 웅변력과 사회적 품위와 신학적 통찰력이 아니라, 그의 전하는 말로, 그가 전한 것들로 판단 받아야 한다.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한 감동의 기록 가운데 다섯 가지 사항들이 침례자의 전도에 있어서 분명한 특징들으로써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피에 의한 구속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첫 번째 침례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의 구속과 용서를 전파하였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죄들에 대한 용서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전하러 왔다 (3 절). 그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했으며,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를 것을 호소한다. 그가 투옥되었을 때 조차도, 그의 충성심으로 희생되게 되었는데, 그는 그의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보내서 구원자께서 직접 그들을 구원자의 위격과 역사를 확증하도록 하였다 (마태복음 11:2-6). 요한복음 1 장에서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과 그의 전도에 대하여 극찬의 말을 한다 (요한복음 1:15-30, 34-37).

그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의 시간과 그의 기회를 영원히 숙박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하여 말하는 그 사람은 복되다.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은 복되다 (이사야 52:7).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는 그분의 보혈을 지극히 높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보혈을 전한다 (베드로전서 1:18-20). 그의 피는 그것이 그분의 피, 성육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다 (사도행전 20:28). 그것은 죄 속량의 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다 (로마서 3:24; 5:11). 우리 구원자의 피는 영원히 효험 있는 피이다 (히브리서 9:12; 에베소서 1:7). 그것은 신성하게 정해진 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흘려진 피이다 (사도행전 2:23).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하는 피이기 때문에 보배롭다 (갈라디아서 3:13-14).

“믿음으로 그 흐름을 보았던 이후로
너의 피 흐르는 상처가 치유되니,
구속의 사랑이 나의 주제가 되었으니
또 내가 죽을 때까지라!”

침례자의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한 피 속량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의 좌우명은 그의 좌우명이었다.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모든 전도자의 좌우명이다. —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2).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역주: KJV-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에 영광돌릴 것을 금하셨나니.)” (갈라디아서 6:14).

거룩한 담대함

둘째, 침례자 요한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말했던 것을 알았으며,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담대함과 격려를 그에게 주었던 확신을 전하였다. 침례자 요한은 남자였으며, 계집애나 겁쟁이가 아니라 남자였다. 그는 인기 있는 말의 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바람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그를 애지중지 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히 상하게 하지 않는 제멋대로인 목자가 아니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가 전할 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7-8 절).

그는 자신의 주변에 종교 세상의 부패와 위선을 보았으며, 그것을 날카롭게 비난하였다. 그의 머리는 평판으로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기호에 비위를 맞추지 않았고 사람의 화난 기색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전하는 말로 상처받을까를 관심하지 않았다.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 질병은 절망적이었다. 그는 극단적인 방책을 요구하는 절망적 질병을 알았다. 침례자 요한은 절망적인 때에 살았고, 우리 자신과 아주 비슷하다. 그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절대적으로 평범한 연설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날 이 첫 번째 침례 전도자 같은 사람이 거의 없음이 얼마나 슬픈가! 오늘날 전도의 첫 번째, 최우선의 법칙은 — “거슬리게 하지 말라!”이다. 전도자들은 직접적이고, 솔직하고, 분명한 전도로 마음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거세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혼에 충성되려면, 그는 당신을 우쭐하게 할 수 없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잘 하려 한다면, 그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가장 깊은 부패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주장을 요구하고 압박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당신에게 강요할 것이다. 만약 전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의 목적이 당신의 혼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섬기기 보다 오히려 당신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누가복음 6:26; 갈라디아서 1:10).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세 가지 사항,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이며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것들이다. (1.) 그들이 탐욕스러웠던 것 만큼 속임수가 가득한 독사의 세대였다. (2.)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였다. 그리고 (3.)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취하시거나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요한은 아브라함의 이 교만한 자손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3:8; 마태복음 3:9).

침례자 요한은 그가 침례를 주었던 자들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였다. “를 맺다”라고 번역된 말은, 요한일서 3:4와 7 절에서, 그가 “죄를 범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없으며, “의를 행하는” 자들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때, 사도가 바로 그 동일한 말을 사용한 것이다. 그 말은 행위가 아닌 실행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순수하여야 하는 회개가 믿는 자 안에서 산출되고 형성되는 “그 영의 열매”임을 보여주는 열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고, 믿는 자의 삶의 실행 가운데 반영되는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22-23). 어떤 사람의 참 특성은 고립된 행위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의 삶의 습관 안에서 보인다.

영원한 지옥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영원한 저주에 대하여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는 “임할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유익하지 않은 나무를 자르시고 “불에 던지신다”는 것을 충성되게 경고하였다.

신성한 공의와 심판과 진노의 대상들과 지옥의 불 안에 저주 받은 자의 영원한 고통은 언제나 인간 본성에 걸린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 혹은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제안하거나, 덜 분명하게 선포하지 말라. 재난과 위험과 심판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들을 듣기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말해주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돈을 기꺼이 지불한다 (이사야 30:10).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책에 충성되고, 당신의 혼에 충성된 사람은 침례자 요한처럼, 그리스도 그분 자신처럼, 예전의 모든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모든 사도들처럼 당신에게 그 자신의 혼 안의 동정으로 “임할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경고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옥에 대한 공포가 회개와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최우선적인 동기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두려워 하기 전까지 천국을 결코 찾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구하지 않을 것이다. 공의의 원수 갚는 자가 바로 뒤에 따를 때까지, 결코 죄인의 유일한 피난 성이신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은 실제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벌할 실 것이다. “죄 짓는 혼은 죽을 것이다.”고 맹세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셨으며, 그분의 진노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위에 불과 유황을 내리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의 아들을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못 박으셨으며,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모든 지옥의 불을 그에게 퍼부으셨던 분이 그 하나님이다.

뿌리를 짝은 도끼

그의 전도의 말 안에서 침례자는 모든 열매 없는 나무의 뿌리에 도끼를 놓았다. 진정과 확신을 갖고 그는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는 모든 거짓된 피난처를 파멸하려 애를 썼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9 절).

많은 수의 종교적 사람들, 그 삶이 분명하게 사악한 자들이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위선자들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그들의 얼굴에 대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우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고 말하는 것은, 만약 우리 행위 가운데 그분을 부인한다면, 헛되다. 그것은 헛된 것보다 더 나쁘다. 그런 위선은 점차적으로 마음을 굳게 할 것이며 양심을 말라 죽일 것이다. 믿음의 성별 없는 믿음의 고백은 위선이다. 그리스도 안의 사망과 부활이 없는 침례는 치욕이다.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먹는 것은, 만약 내가 구속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면, 내 자신에게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감동의 말씀을 사용하여,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은 마귀의 믿음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야고보서 2:14-26).

요한은 언약을 받은 가족의 구원이라는데 대한 일반적으로 붙들고 있는 관념을 비난하였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다. 요한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계는 은혜에 대한 어떤 주장도 없음을 말했다 (8 절). 구원의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은 가족 세습이 아니다 (요한복음 1:12-13).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고 말했다 때, 그는 “만약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혹은 누구든) 구원하실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네 가족이 믿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었다.

의롭게 행함

침례자 요한은 복음을 가능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의 말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듣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집으로 가져갔다 (누가복음 3:10-14). 사람들이 그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믿는 자의 침례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 각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고백에 따라 살 것을 말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더이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만족 안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친절과 관용과 관대 가운데 살 것을 말했다. 그것이 11 절의 분명한 의미가 아닌가? —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침례자는 회개한 세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정직할 것을 말했으며, 특별히 세리들은 부정직하고 가혹하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누징치 말라하고.” (12-13 절).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던 그 군병들에게 그들의 권력 아래 사람들에게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것을 조심하며, 하나님의 공급으로 채워질 것을 말했다. —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14 절).

요한이 세금을 지불하거나 징세하는 것에 대하여, 혹은 군병으로 복무하는데 대하여 어떤 불법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기억하라, 이 세리들과 군병들은 로마 제국에 고용된 사람들이며, 도덕적으로 가장 부패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이고, 세상이 이제까지 알았던 정부의 우상적인 체계이다. 우리의 일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관계 없고, 세상의 왕과 관계 있다. 우리의 관심은 왕국과 나라의 건설이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 사항들이 침례자의 전도를 특징지었다.

1. 그리스도에 의한 피의 구속의 전파.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용기와 대담함.
3.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분명한 경고들.
4.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피난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발언.
5. 경건한 태도.

아, 하나님께서 이 어둡고,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택정한 자들의 영원한 선을 위한 그와 같은 전도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시기를!

20 장. 침례자 요한: 충성된 전도자—누가복음 3:15-20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누가복음 3:15-20).

영원의 이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큰 축복은 그들 한 가운데 충성된 복음 전도자의 은사이다 (이사야 52:7-8). 하나님께서 당신의 뒷마당에 충성된 목자가 있는 복음 교회를 심으시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영원의 이편에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심각한 심판은 그들에게서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성된 전파와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내리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로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 10:17).

이 성경 구절 안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침례자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한 그의 마지막 말을 준다. 이 장의 처음 스무 절 안에서 성령께서, 복음 사역의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가 따라야 할 하나의 본으로서 우리 앞에 그를 제시하면서, 복음 전도자인 침례자 요한의 충성됨을 보여주도록 누가의 붓을 지휘하셨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 안에서 이제 누가는 충성된 전도자의 다섯 가지 분명한 특징들을 보여주려 요한의 예를 사용한다.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전도자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당신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라, 성경이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역시 모든 충성된 사람들에게 요구된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한 가지 사항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1-2).

내가 끊임 없이 매일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시리라는 것이다. 나 자신의 마음의 변덕스러움에 대하여 알기 때문에, 만약 내 안에서 충성됨이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안다. 주께서 내게 이 문제를 사십 년 이상 동안 지속적인 기도 할 문제로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더욱더 들어 갈수록, 하나님과 내 자신의 본성에 대한 것들을 더 알수록, 이 세상의 근심의 능력과 속임수를 보면 볼수록, 나의 하나님께 대하여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가지를 더욱더 진심으로 요구하게 된다. 아, 나의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충성되게 될 은혜를 위하여! 이 충성됨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 적어도 이 다섯 가지들이다.

1. 충성된 사역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참 전도는 혼란스럽게 하며, 가슴을 찌르고, 생각을 분개하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을, 특별히 종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누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다고 추측하였던 사람들)이 침례자가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였다.

“의논하였다”는 말은 따지고, 생각하고, 비교 검토하였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요한이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의 사려 깊은 생각에 자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깨달음으로 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떤 사람이 올 때, 그는 간단히 무시될 수 없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비교 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언제나 소망스런 표시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숙고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기쁘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나는 기뻐한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숙고하는 것이 회심은 아니다. 그러나 소망스런 표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정직한 시험으로 확증받는다. 진리는 절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신성한 진리를 숙고하지 않는다 (시편 10:4; 이사야 1:3). 만약 당신이 너무 커서 서둘러 지옥에 가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이 책과 함께만 지내도록 지혜롭게 되고, 단지 세 가지 사항을 숙고하라.

- 잠시 멈춰서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숙고하라.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숙고할 약간의 시간을 가져라. —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 “죄인들의 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 잠시 멈춰서 당신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겠는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궤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16-

23).

하나님의 종들은 시험을 피하도록 애쓰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초래한다. 내가 알기로,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의 모든 필요와 양심의 모든 요구에 응답할 것이다.

2. 충성된 전도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인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크고 높은 명예를 주고자 하여 왔을 때, 그는 그들의 생각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돌렸다.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고,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29-30). — 충성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일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4:1-5; 고린도후서 4:1-5).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

님께서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1-5).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중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1-5).

이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사역이 판단 받아야 한다. 그가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그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가? 그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확대하며, 찬송하고, 존귀하게 하는가? —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 주 우리의 의로서? — 효험 있는 구속자로서? — 주권적인 구원자로서? 우주의 군주로서?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학위를 땀는가,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가, 혹은 얼마나 잘 말하는 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말하는가?

이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교리, 모든 종교 활동, 그리고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판단하라. — 그것이 당신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 생각하게 만들며,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아니면 당신을 당신에게 향하게 하고, 당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고,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교회에, 그리고 목사에게 기대하게 하는가?

3. 충성된 전도자는 그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알고 언제나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임을 추정할 때, 그는 서둘러 그가 그리스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그들의 혼을 위하여 어떤 것도 할 능력이 철저히 없음을 지적하였다. —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6 절).

그것이 정확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1-3 장에 있는 것을 다루어야 했던 것이다. 복음의 권능과 효험은 전도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전서 3:5). —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믿게 할 수 없다. —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 어떤 사람이 당신을 물 속에 침례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넣을 수는 없다. —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주의 만찬의 떡과 잔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게 할 수 없다. —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그 길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을 그 길에 둘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 본질적으로, 요한은 여기서 세 가지 사항을 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언제나 예민하고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들이다.

- 나는 당신을 구원할 수도 저주할 수도 없다. — 나는 당신의 구원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다. — 당신은 내게서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혹 내게 어떤 것도 고백하지 말아야 한다.
- 나는 당신에게서 존중이나, 존경이나, 아니면 칭송을 받을 가치가 추호도 없다. — 나는 내 주의 신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만약 그가 내게 그분의 신을 벗기게만 이라도 허락한다면, 나는 상상을 초월하게 영예로운 것이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 그분은 당신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이 당신을 그분의 전능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분께 엎드리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을 심판의 날에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지혜로워라. 당신의 혼 안에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역사보다 못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은 어떤 데라도 안주하지 말라. 당신이 물 속에 잠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였는가? 당신의 이름이 교회의 역할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 주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먹지만,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종교의 외적 껍질에 만족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당신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하라. 곧, 그분의 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크고 끔찍한 날이 당신에게 임할 것인가?

4. 충성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원에 매인 죄인들을 사망과 심판과 영원을 향하게 한다.

요한은 주 예수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17 절) 그 분으로 말했다.

결산의 날이 있다. 어느 날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모두 설 것이다. 그 큰 날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씨로 가득한 들판이다. 교회는 양과 염소들의 우리이다. 모든 복음 교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도들과 위선자들, 은혜를 가진 자와 자칭 은혜 받은 자들의 혼합된 집합체이다.

아무도, 어떤 사람들 무리도 서로를 구별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성도와 위선자를 구별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쉽게 속는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함께 자라도 록 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불결한 것

과 보배로운 것을 구별하실 장래의 날이 있다. 당신의 부름과 택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5. 충성된 사람들은 죽기까지 충성되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와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18-20 절).

시간은 위대한 폭로자이다. 때가 되면 가운데 당신과 나는 우리의 모든 패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에게 알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은 계속하여 믿음 안에 있다.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충성되다.

충성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충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했다. 그들은 그 길을 계속 간다. 그들이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을 때까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따른다. 그리고 충성된 전도자들은 침례자 요한처럼 죽기까지 충성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만드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보이도록 하자.

21 장. 주의 침례와 계보의 공과—누가복음 3:21-38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 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맛닷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맛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낙개요, 그 이상은 마앗이요, 그 이상은 맛다디아요, 그 이상은 서머인이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아난이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앳디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맛닷이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시므온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맛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새요, 그 이상은 오벳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투이요, 그 이상은 르우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버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썸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벡이요, 그 이상은 므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8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야답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지니라.”
(누가복음 3:21-38)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십대와 처음 성년 때에 대하여 사실상 아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가 베들레헬에서 나섰고, 요셉과 마리아가 두 살 때 그와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였던 것과 그가 열두 살이었을 때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발견되었던 것을 안다. 우리는 그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우리 주의 땅에서의 존재에 대하여 그 외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세 권의 모든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가 똑같은 방법으로 인자로서—그분의 침례 때 우리 주의 삶과 사역을 서술하기 시작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분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

침례와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침례와 믿음은 언제나 함께 한다 (사도행전 8:36-38). 침례는 신약 성경의 분명한 규례이다. 그것은 분명한 복음의 규례이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와 같은 것은 없었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도 없었다.

많은 사람이 요한의 침례가 어떤 면에서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의해 실행된 침례와 다르다는 관념을 갖고 있다. 우리 주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요한에 의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요한의 침례는 우리처럼 죄의 용서이므로 회개의 침례였다 (3 절).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우리처럼 의의 상징적 충만이었다 (마태복음 3:13-17). 그것은 구속의 그림이었고, 복음의 그림이었다. 그것은 생명의 은사에 의한 씻음의 그림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한 속량의 그림이었으며,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 대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한 구속의 그림이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3-17)

요한의 침례는 우리처럼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포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하는 행위였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복음의 복된 규례를 가장 높이 평가할 사항으로 여기셨으며, 큰 존귀를 주며 큰 중요성을 두셨다. 그분은 침례자 요한에 의해 잠겨지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요르단 강까지 모든 길을 걸어가셨다.

침례는 결코 사소한 점으로나, 약간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규례이며, 신성한 경배의 규례이고, 주께서 우리가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 특히 천명된 것보다 복음의 이 복된 규례에 대하여 이 공과에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켜야 할 교리도 없고, 받들어야 할 교과도 없으며, 유지해야 할 전통도 없다. 나는 성경을 믿음의 고백에 짜 맞추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실행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가르치고 우리 구원자의 본 안에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 다섯 가지 사항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사항들은 너무도 명백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 의도적으로 눈을 가린 자들을 제외하고, 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무도 그것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것들을 못 보거나 할 수 없다.

1. 침례는 경배의 규례이지, 성례가 아니다. 그 구별은 중요하다. 규례는 법이나 명령이다. 성례는 내적 은혜의 외적 표적이거나, 그로써 은혜가 주어지는 수단이다. 우리 주의 침례는 그분에게 아무런 은혜를 전해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분에게서 아무런 죄도 씻어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내적인 표적이 아니었다. 그것이 죽으심에 까지 이른 그분의 순종으로 모든 의의 성취를 상징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행해야 하셨던 것이었다.
2. 침례는 잠김이다. 잠김은 어떤 방식, 혹은 심지어 침례의 방법조차도 아니다. 잠김이 침례이다. 그것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다. 잠김이 없이는, 침례가 없다. 뿌림은 잠김이 아니다. 그것을 뿌리는 것이다. 붓는 것이 잠김은 아니다. 그것은 붓는 것이다. 침례는 잠김이다.
3. 침례는 오직 성인만을 위함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오셨을 때 서른 살이었다.
4. 침례는 믿는 자들만을 위함이다. 침례에 필수적인 선제조건은 믿음이다 (사도행전 8:36-38). 우리 구원자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특별히 들었다. 유아에게 뿌림이나 물을 붓는 실행, “침례” 의식이라 부르는 것은 목주 구슬처럼 성경에는 낯설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하고, 혹은 그분의 규례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5.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침례는 우리 주의 침례에 대한 반영이다 (로마서 6:3-6). 경배의 이복된 규례 안에서 믿는 자들은 물 속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게 되며 무덤으로부터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우리의 침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 전체를 위하여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심에 까지 하신 그분의 순종을 신뢰하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음을 세상에 고백한다.

삼일성과 구속

우리 주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신격 안에 있는 모든 세 분 위격이 우리 구속의 일에 관련한 체현을 보이셨다. 아들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라는 공개적으로 계시된 육체적인 형태 안에서 그분 위에 강림하셨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셨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삼이일 여호와께 경배 드린다. —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이라: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7 *역주:영문 KJV 참조).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삼위의 사실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신성한 위격의 모든 세 분의 개입을 본다. 믿는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19) 침례를 받은 침례의 요구 안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도, 또 교회 위에 내리는 삼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축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13:14), 우리는 신격의 세 분이 선택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개입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에베소서 1:3-14, 데살로니가 후서 2:13-14, 그리고 베드로전서 1:2 에서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네
전능하신 삼이일,
혹 사람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네,
삼일 하나님께서 하셨네.
확신으로 자랑하니
천연적으로 결코 배우지 않았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염려하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네.

아버지의 사랑, 너무도 광대하니,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셨네!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려놓으셨네.
그 영께서 은혜를 베푸시네.
삼일을 찬양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으로 인하여.
감사와 사랑으로 찬양하네
우리 음성으로 그를 찬양하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들을 죽게 보내신 분께,

영광을, 또 그분으로 인하여 아들께서
너무도 기꺼이 따르셨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네,
예수 안에 계시되니
타락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
또 그의 구원으로 인치시네!

은혜와 중재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우리 주의 언약의 책무에 대한 놀라운 나타남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늘로부터 왔던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거나, 하실 유일한 방법은 중보자를 통해서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중보자시다 (디모데전서 2:5).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자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심이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 중보자이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 분명하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우리 구속자의 거룩하고 무한히 칭찬 받으실 만한 본성에 매우 기뻐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하신 우리 대표자의 완전한 순종의 거룩한 삶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공의에 완전하게 만족하시고,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서 대신하여 하신 그분 자신의 희생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우리 대속자의 죽으심에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

주 하나님은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심에 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 무한한 공로에 매우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한 상태가 여기 있다. 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 단지 그분의 아들에게가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기뻐하셨음을 선포하셨다. —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매우 기뻐하신다! 성경을 읽고 기뻐하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당신과 함께 매우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1:3-6; 민수기 23:21; 시편 32:1-2; 로마서 4:8; 예레미야 50:20; 전도서 9:7).

“담대하게 내가 그 큰 날 가운데 서리니,
아마도 나의 죄를 짊어지신 뿐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죄의 무서운 저주와 책망으로부터라!”

인성과 사망

23-38 절에서 우리는 긴 이름들의 목록을 본다. 여기에 75 명의 이름이 주어진다. 그들의 이름이 이 계보 기록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면⁷, 대부분의 이름은 오래 전에 잊혀져 버렸을 것이다.

⁷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모두 우리 주의 계보의 기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마태의 이야기와 누가의 이야기를 비교한다면, 다윗과 요셉 사이에 제시되어 기록된 이름들 가운데 분명한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윗과 아브라함 사이에,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은 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누가 그들을 기억하겠는가?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소유했었는지 누가 관심하겠는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얼마나 덧없이, 죽어가는 피조물이 아닌가! 우리처럼, 이들은 모두 한 때 땅 위에 살았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동일한 기쁨을 가졌고, 동일한 슬픔도, 동일한 비탄도, 그리고 동일한 고난들을 가졌다. 우리가 곧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은 죽고 땅 속에 장사되었다. 각자가 우리도 곧 가야 할 그 자신의 처소로 이제 가버렸다.

그렇다, 우리도 역시 사라져 버릴 것이며 곧 가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께 이 죽어가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구원자를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 드리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 연합하는 것을 우리의 한 가지 큰 관심으로 삼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영원을 위하여 사는 죽어가는 사람들로 이 시간과 고난의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 주시기를 바란다.

치한다. 그러나 다윗과 요셉 사이에는 두 가지 다른 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든 가능성이 있다. 누가는 우리 주의 어머니의 계보를 주께 감동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그분의 아버지의 계보를 제시한다.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는 혼인으로 그의 아버지가 된, 요셉의 장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가족의 모계 안에서 그렇게 등재되었을 것이다.

22 장. 그리스도의 유혹—누가복음 4:1-13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라,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 4:1-13)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를 우리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를 사람으로 낮추셨다. 우리가 그분의 치욕의 깊이를 짚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동일하게 확신한다. 사실상, 우리 주의 치욕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진 것을 들었거나 읽었으며, 비록 그분을 존귀히 여기기를 갈망하면서 행해졌지만, 가장 신성한 것에 대한 신성모독이라고 내게는 보였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려 애쓰는 대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단순히 엎드리고, 그가 부유하였지만,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그 한 분께 경배를 드리자.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가운데 사셔야 했으며, 죄의 모든 결과를 견디시는 한편으로,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셔야 했으며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고난 당하셔야 했으며, 그로써 인자로서 영원한 의를 가져오셔야 했다.

우리 주의 순종의 한 큰 부분은 인자로서 모든 점 가운데 있는 그분의 유혹과 그분의 유혹을 이기심과, 유혹 가운데 사탄에 승리하심이었고, 그로써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관련한 것들 가운데 공홀이 풍성하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 이것이 누가복음 4:1-13 안에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유혹

그분이 침례 받으신 직후,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으로 시달리셨다. —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2:18, 4:15).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류의 유혹들의 시도를 받고 시험 당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으며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다.

사탄은 그분을 유혹하였으나, 어떤 타락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의 속에 어떤 욕정을 자극함으로써 가 아니라, 우리를 악하게 유혹할 때 하는 것처럼 하였다. 다윗은 우리가 받은 유혹의 그 길의 예이다. 그는 사탄이 교만의 정욕과 사람들을 계수하려는 그의 속에 있었던 공허함을 불러일으켰을 때, 우리처럼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회저어진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런 죄도, 아무런 타락은 없었다. 옛 뱀은 그의 속에서 역사하려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았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의 주를 배반하도록 사악함을 넣었고, 성령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속에 사악함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 주께서 그분 속으로 어떤 악을 넣으려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지 않았다.

그리고 사탄은, 그가 우리에게 종종 하는 것처럼, 그의 유혹의 어떤 것으로도 주 예수에 대해 아무런 우세를 점하지 않았다. 아, 아니다! 우리 구원자께서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의 대적과 우리의 대적에 대해 승리하셨다. 마귀는 광야에서 이런 유혹들 이후에, 겐세마네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를 떠나도록 강요되었다. 그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마침내, 우리 위대한 구속자께서 갈보리에서 완전한 승리 가운데 뱀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으며, 지옥의 용을 그분의 전능의 사슬로 묶으셨으며, 그래서 그가 더이상 나라들을 속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유혹자, 우리의 적수, 우리의 고소자이며, 훨씬 더 교활하고 강력한 우리에게 대한 대적인 그가 우리 구원자에 의해 묶여버렸다. 우리의 적 마귀는 여전히 으르렁 거리는 사자처럼 세상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게걸스럽게 먹을 상대를 찾으려 간다. 그러나 그는 매인 사자이다. 그의 독니빨과 발톱은 제거되었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염려되는 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으르렁거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2:31-33; 계시록 12:10; 20:1-3).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이 유혹들이 실제였음을 기억하기를 실패하면 안 된다.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았다. 눈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생의 교만은 (요한일서 2:16), 그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 그것으로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속이고 굴복시키고 있으며, 우리 주께 대항하여 사탄이 사용했던 바로 그 무기들이다.

순종하였지만, 하지만 유혹 받음

주 예수께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을 때” 유혹을 받으셨다 (1 절). 누가는 우리 주께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가 유혹의 광야 안으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간을 채우기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리가 배우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믿는 자를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 아무것도 우리를 유혹에서 막을 수 없을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은 막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유혹하는 자를 멀리 지킬 수 없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무리 열심이더라도,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아무리 완전하게 행보할 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 영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순종한다 할 지라도, 우리는 악을 행하는 마귀의 유혹을 여전히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마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다른 말로, 우리가 복종하게 되는 유혹들은, 믿는 자의 삶의 모든 다른 방면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선을 위하여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다. 우리 주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들에 의한 순종을 배우며, 심지어 우리 적수 마귀의 손으로부터 배운다.

우리 주의 유혹들은 광야 안에서 왔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우리에게 유혹들이 광야 안에서 일어났으며, 그곳은 아무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를 지원하지 않는 곳이다 고 한다. 마태와 누가는 우리에게 그분의 유혹들은 40 일 간 밤낮으로 금식하는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지탱되고 난 후 왔다고 한다.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 우리 주의 유혹들은 그분이 육체적으로 약하고 굶주렸을 때 왔다. 사탄은 교활하고, 약삭빠른 적이다. 그분은 그분의 유혹들을 우리의 본성의 조성파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발견되는 상황에 맞추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구원자께서는 그분의 침례 바로 직후에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은 확고한 경배와 의도적이고, 성별 된 순종의 시간에서 막 나오셨다. 그분은 이제 막 침례를 받으셨으며, 의를 충만케 하려고 (상징적으로),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심에 까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그분의 결정의 서약으로서 었다. 우리 주는 이제 막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높이, 공개적으로 존귀함을 받으셨으며, 그분 안에서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어떤 자연적인 방법이 없이 삶 가운데 그분을 지탱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이제 막 체험하셨다. 그분은 떡에 의해서 지탱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뜻)으로 지탱되었다.

큰 특권들과 축복들에서 큰 시험과 고난들로 가는 데는 종종 오직 한 단계만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가장 확고한 틀 안에서와 우리가 가장 크게 소용되는 때조차도, 우리는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종종 그의 지체들과 있다. 그가 그의 침례 후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 위에 내려오신 후에,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된 후에, 또 그분의 신성한 아들의 명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온 놀라운 증거를 받은 후에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도 규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그분의 사랑의 인치심의 증거들을 받은 후에도 유혹에 빠지며, 그것들로 인하여 넘어진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찬 후에, 유혹 받은 자들이 유혹을 받았을 때,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고 하나는 그분을 부인하였다.” (John Gill).

세 가지 큰 악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고난들, 우리의 모든 시험들, 우리의 모든 유혹들, 우리의 모든 반역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는 모든 비참한 것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가져온 모든 비통함 들은 요한이 서술한 것처럼, 세 가지 큰 악의 결과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16). 이것들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파멸이며, 에덴 동산에 있는 우리 종족의 파멸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 안에서 우리 주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던 영역들이다. 그것들은 믿지 않음과 세상적임과 뻔뻔함과 관련이 있다.

세 번 우리 구원자께서, 거짓되면서 정중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교활하게 시도했듯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지옥의 마귀에 의해 공격을 받은 것을 본다. 각 공격은 거짓의 주인 자의 역사였다. 우리가 뱀의 교활함과 우리 구원자의 지혜 모두를 이 유혹들 각각 가운데에서 조심스럽게 주시하도록 지혜롭게 될 것이다.

안목의 정욕

첫째, 사탄은 주 예수를 믿지 않음에, 안목의 정욕에 유혹하였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3-4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사탄은 주 예수를 그분의 아버지의 보살핌, 음식도 없이 40 일 낮밤 동안 그를 지탱하였던 그분의 보살핌을 방해하였다. 우리 구원자는 굶주렸고 약하였다. 그러나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소유하셨다는 공개적인 선포를 그분이 이제 막 받으셨다. 따라서 헛소리를 내는 뱀이 그분에게 매우 “친절하고, 의미심장한” 제안을 한다. 그 의미는 이것이다: — 마귀가 돌을 주어 들어 가리키면서 말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배가 고프니, 이 돌을 떡 덩어리로 변케하여 한 입 먹지 않겠는가?”

왜 그분이 기다려야 했나? 왜 만물의 창조주께서 여전히 앉아서 굶주리셔야 했는가? 왜 돌을 떡이 되도록 명령하지 않으셨나? 어떤 가능한 사악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우리 주의 대답에서 발견된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계셨으므로, 주께서 사탄을 거절하셨고 그 덫을 신명기 8:3 에서 인용하심으로 탈출하셨다. —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는 세속적인 논리로 살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바꾸기를 거절하셨다. 그분은 보이는 것으로 행보하시기를 거절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⁸을 신뢰하므로, 믿음으로 살기로 정해지셨다. 돌이 떡으로 변하는 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으므로 그분은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셨다.

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기 신명기의 문맥 안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과 계획과 뜻을 가리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비록 우리 주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단 한 번도 절대 행하지 않았다.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 보다는 굶주림에 남는 것을 택하셨다. 40 일의 밤낮을 음식이 없이 지내시는 굶주림의 고통과 육체적 약함으로 주 예수께서 구약의 율처럼 효과적으로 사탄에게 말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욥기 13:15).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한다. 육신의 팔을 의지하기 보다 그분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행보하며, 그분을 언제나 신뢰하기를 택하자. 우리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최고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길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행보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왜 그분이 돌을 떡으로 만들기를 거절하셨던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분은 이 땅 위에 우리 대표자와 대속자로서, 인간으로서 사셨고, 당신과 나는 돌을 떡 덩어리로 바꿀 수 없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고 죽으시려면, 그분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살고 죽으셔야 했다. 만약 그분이 우리의 약한 점들에 대한 느낌에 마음이 움직이시려면, 동일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셔야 했다.

비록 그분이 끔찍하게 굶주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분은 지옥의 마귀를 조롱하고 희롱하기를 거절하셨다.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그분 자신이나 마귀에 대하여 입증할 것이 없었다. 그분은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아셨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이제 막 그것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어둠의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이심으로써 입증할 기회를 자랑스럽게 하셨을지라도, 우리 주께서 그를 기쁘게 하기를 거절하셨다.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은 이것이다. —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지혜와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지 않도록 시도하고 있었다. 아볼루온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보다, 보이는 대로 행하고, 안목의 정욕으로 행하도록 시도할 때, 우리는 그의 술수에 희생자로 타락해 버렸다.

육신의 정욕

둘째, 사탄은 거룩한 분을 광야에서 육신의 정욕으로 죄 안으로 유혹하려 하였다.⁹ 그는 주 예수를 타협을 통하여 세상 권세를 잡도록 하려 하였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5-8 절).

⁹ 이것은 마태복음 4 장에서 주어진 순서에 따르면 실제로 세 번째 유혹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 성령은 누가에게 이 유혹을 두 번째에 놓도록 감동을 주셨다. 아마도 깡통을 염소가 씹도록 주어졌을 것이다. 분명히,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귀는 주 예수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높은 산들 가운데 한 정상으로 그의 특별한 조치로 데리고 갔고, 만약 그분이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한다면,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주겠다고 하였다.

사악한 자의 뻔뻔함을 느껴보도록 하라. 그가 자신에 찬 미소를 띄우고, 눈 앞에 불쾌하고 거짓된 것들을 제시하면서 손을 흔들었으며, 세상 전체가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할” 것임을 약속하며 그분을 유혹하면서, 주 예수께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사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약속한다는 것은 매우 뻔뻔하였다. 온 세상은 이미 그분의 소유였다! 땅이 그분의 소유이고, 그것의 충만인 세상이 그분의 소유였으며, 그 안에 거하는 것들도 그분의 소유였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사람 중보자이신 우리 주께 드려졌다. 사탄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그가 주려는 것 이었고, 그가 내키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처리할 그의 권세 안에 있다고 하는 척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오만이었다.

이것을 깨달으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지 않는 한, 사탄에게 속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우주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며, 그가 권세를 부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욕기에서 보았지만, 이는 동일한 마귀이며,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가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것에 대한 책임을 주기를 움츠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옳을
향하여 그 손가락을 흔들 수 없는 자이다. 왜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면, 돼지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을까. 사탄이 그리스도께 앞드려 그에게 경배하도록 제안한 것은 오만함과 무례함의 극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본성이다. 우리는 사탄이나 그가 이끄는 대로 춤추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마귀의 원죄는, 신격의 가장이었으며,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지위를 강탈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무지한 부분을 어떤 곳에서 그에게 경배하도록 설득했다. 그리고 실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마귀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아들로부터 경배받으려 하였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무례하고 불손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노와 질색을 하며 그의 유혹을 거절하셨다.” (John Gill).

마귀는 여기서 주께 십자가의 비통함과 고통을 지나가라고 청한다. 그분은 죽으심에 이르는 그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 우주 왕국의 보좌를 우리의 죄속량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심에 대한 것으로 받게 약속되셨다. 사탄은 그것 모두를 얻기 위한 좀더 쉬운 길을 그분께 제시하고 있었다. 그가 요구한 모든 것은 작은 양보인듯 보이는 것이었다. 사탄은 주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그만두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그를 경배한다거나, 아니면 그를 영원히 경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분이 옆드려서 자신에게 경배하고, 자신을 숭배하며, 자신을 단 한번 은밀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양보는 작은 듯이 보였다. 약속은 컸다. 길은 쉬웠다. 왜 그분이 쉬운 길을 취하지 않으셨나? 왜 그분은 그런 엄청난 상을 거머쥐면 안 되셨나? 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가? 그 답은 우리 주께서 신명기 6:13 을 인용하신 것 안에서 찾아진다. 우리는 하나님 만을 경배해야 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지배적 관심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것을 기쁘게 희생하여야 한다.

세상적 —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언제나 주의하자 (요한일서 2:15-17; 마태복음 6:31-33). 탐심을 주의하라, 그것은 우상이다 (누가복음 12:15).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 멸망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골로새서 3:1-5).

이생의 자랑

셋째, 사탄은 대담한 추정으로 행할 것을 그에게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였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9-13 절).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다 (시편 91:11). 사실, 사탄이 좋아하는 무기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다. 그는 감동의 성경을 취하여 그것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악용하며, 오용하고, 모욕한다. 다시 주 예수께서 신명기 6 장을 마귀에게 인용하셨다. 이번에는 16 절을 인용하셨다. —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 것이라.”

만약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분이 안착하시도록 하므로, 주 예수께서 그 높고, 높은 성전의 벽에서,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뛰어내리셨다면, 그분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얼마나 놀랍고 공개적이며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시편 91 편의 분명한 성취이었겠는가. 결국, 이것은 시편의 약속이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을 이 때 정하시지 않았으므로, 그분은 벽에서 뛰어내리므로 죽으실 없었다. 그럴 수 있으셨는가? 그분에게 있어서 사탄의 미끼를 분별하셨던 것은 그의 선함을 추정하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완전히 무책임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찬양과 교만의 행위였을 것이다. 우리 구원자는 양보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은 그분에게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인정이나 박수보다 더 중요하였다. 동일한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진리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18).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4-16).

광야에서 그가 사탄을 격퇴하고 갈보리에서 그 머리를 으깨셨으므로, 그분은 당신과 나를 우리 유혹에서 어떻게 건지실지 아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실 것이다! —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아멘.” (로마서 16:20).

23 장. 회당 안의 소동—누가복음 4:14-32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누가복음 4:14-32)

어떤 작은 마을의 소년이 성장하고, 나가서 그 이름을 알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인이 그를 칭찬하고, 아이들이 그를 우상화한다. 그가 마을의 입이 된다. 지역의 주간 혹은 격주간 신문은 전면에서 그에 대하여, 큰 사진들과 함께 보도된다. 소년은 아무도 몰랐거나 주목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마을은 무대를 찾고, 그들이 세상에 그를 자랑할 수 있게 된다. 마을이 더 가난하고 더 멸시 받을 수록, 영웅은 더욱 더 커진다.

그것이 누가복음 4:14 에서 우리 앞에 보이는 바로 그 그림이다. 주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보통 말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6). 그러나 여기 고향 마을 소년이 있었고, 나사렛에 관한 한, 모든 사람이 틀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음을 입증했던 한 토박이 소년이 있었다. —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14-15 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주의 가르침과 전도하심이 그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분의 기적들은 도처에서 회자되었다. 이제 그분이 고향으로 오셨다.

공개적인 경배

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나 지금도 모든 참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인자로서 이 세상에 사셨던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께서 충성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앞에 따라야 할 하나의 본을 제시하셨다.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6-17 절).

그분은 우리가 신성한 예배로부터 얻게 되는 축복들 중 아무것도 필요 없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공예배에 언제나 충성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집에 오셨다. 그분은 성도들의 집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모든 약속된 시간에 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경배 드리는 모습으로 보이셨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자기 규례대로”라고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예를 따를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마태복음 18:20; 히브리서 10:23-26).

성경을 읽음

공예배의 가장 축복된 방면들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들이 가장 타락한 때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존경을 유지하였고 보여주었다. 성경을 읽는 것에 큰 강조를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읽는 것을 우리 시대의 대부분 교회들이 있다 해도, 아주 조금만 강조하는 것은 슬픈 사실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예배의 어떤 부분도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직접적이고, 구두로 한 감동의 가르침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특별한 위치를 주지 않는 공예배를 결코 진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의도도 결코 없다. 나는 그것이 기도와 찬양과 설교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서 두드러진 위치는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 것에 주어졌다 (누가복음 4:16; 사도행전 13:15). 사도 바울은 젊은 목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을 것과 성도들에게 권할 것과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고 하였다 (디모데전서 4:13). 그것이 전도자들이 공예배의 봉사를 행하기로 되어 있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방법이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서 읽혀지도록 기록되었고, 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우리 주의 편지들(계시록 2-3 장)은 교회들에게 읽혀지도록 하였다.

이런 실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모든 지역 교회 안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거나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며, 너무도 빈약하게 읽어서 올바르게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성과 상식이 성경을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읽어주는 것의 유용성을 가르쳐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배하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설교자의 해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감동되고 권위가 있다 (디모데후서 3:16-17). 따라서, 교회의 모든 집회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에 모든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Hezekiah Harvey 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것을 생략하는 것은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함축할 것이다. 성경이 모든 교훈의 샘과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표준으로서 강단에서 크게 공경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회중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목사의 책임이다. 그렇게 할 때, 그는 그 시간을 위한 그의 설교와 관련한 단락을 선택할 수 있고, 그가 읽을 때 간단한 해설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설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준비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가 본문에 어떤 왜곡도 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언급은 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정확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끔찍할 정도로 부족한 것을 보여준다.

목사는 교회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주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하기를 요구 받는다면, 그는 그 일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읽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읽도록 선택된 부분과 그가 그것을 읽는 방법은 전체 예배를 위한 음색이 될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여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임 받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다.

-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될 성경의 분깃을 기도의 단락으로 선택하라. 짧은 단락을 선택하라. 일반적으로, 한 단락만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단락을 선택하라.
- 당신이 읽기로 계획한 단락에 스스로 숙지하라. 집에서 그것을 주의 깊게, 기도로 충만하여, 신중하게 읽어라. 본문의 구두점을 유의하면서, 몇 번이고 읽어라. 교회에서 읽을 성경의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라. 만약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읽을 다른 부분을 선택하라.
- 주의 깊고 명료하게 그 단락을 읽어라. 혼자만을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회중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큰 소리로 읽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음성을 똑똑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라! 대중 앞에서 읽는 것에 익숙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지 않다면, 집에서 큰 소리로 그 단락을 읽어라. 들을 수 없게 읽는 것을 따라가려는 것은 실망스럽게 한다.

- 해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그 일을 맡겨라. 성경이 읽혀질 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사야의 예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8-19 절).

우리 구원자께서 이 경우 읽었던 성경의 부분은 이사야 61 장으로, 메시아의 일과 그분이 성취하실 구원의 일을 묘사하는 많은 단락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주는 아마도 전체 단락을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는 1 절과 2 절만 간단히 인용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일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그분의 백성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려 오셨을 때 선포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이 하신 것과 하고 계신 것이다.

“주 여호와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1-2).

우리 주는 인자로서, 그분의 아버지에 의한 역사를 위하여 기름부음 받은 전도자이고, 그의 영의 특별한 은사로 그 역사를 위하여 예비되셨다. 전도, 참 전도는 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1.) 하나님의 영, (2.) 하나님의 기름부으심, 그리고 (3.)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전도자 그 이상이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것을 전한다. 그분은 자신이 행한 것을 전하셨다! 그분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 현대 전도는 사망한 죄인들이 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죄인들에게 주는 충고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가련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쁜 소식의 선포이다.

우리 구원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의문의 여지 없이, 그분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가련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로부터 그분이 받을 것을 산출할 능력이 없는, 굴종적이고, 가련한 자들, “굴종적인 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가련하고, 굴종적이며, 죄와 죄의식의 무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 앞에서 낮아지고 부서졌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감싸신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은 장님을 보게 하시고, 상처받은 혼들에게 위로와 자유함을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감옥 문을 여시며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 모든 은혜를 그분은 죄인들에게 피의 속량에 의해 만족된 공의의 기초 위에 부어주시며, 주의 만족스러운 해, 하나님의 의로운 복수와 공의가 갈보리에서 만족된 날을 선포한다.

성취된 성경

“책을 덮어 그 말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0-21 절).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이다! 그는 이 단락의 성취였다 (이사야 61 장); 그리고 그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구약 성경의 성취이다.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예표들, 모든 시편들, 모든 잠언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며 그분 안에서 그것들의 성취를 발견한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27).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

가복음 24:44-45).

이것은 현재 신학적 이해에서 유추된 허구나 결론이 아니다. 고대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경이 그들의 오실 구속자에 대하여 말씀하였음을 알았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과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 받은 것과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구원 받았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갖고 계시다. 그 방법은, 아는 것처럼, 은혜로만에 의한, 믿음만을 통한 그리스도 뿐이다. 그리스도는 오늘날처럼 똑같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참 믿음의 대상이다.

그 구약 성경 믿는 자들이 가졌던 지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아주 초기의 성도들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우둔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안다.

- 하와는 구속자가 여자의 자손의 남자일 것이라는 약속을 깨달았다 (창세기 3:15).
- 아벨은 피의 속량에 대하여 알았다 (창세기 4 장).
- 아브라함은 구속자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실 것을 알았다 (창세기 22:8).
- 다윗은 사함이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자의 피의 속량을 통하여 분명히 있을 것을 명백히 깨달았다 (시편 22; 32, 51).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예녹 조차도 주의 재림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했다 (유다서 14).
- 욥도, 감동의 책에 기록된 첫 번째 책인 그 안에서 우리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하여 언급한다 (욥기 19:25-27).
- 이사야는 죄인의 대속자가 한 분 위격 안에 계신 하나님이고 사람이며, 그분의 구속과 은혜의 역사는 선택 받은 죄인들의 구원에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이사야 7:14; 9:6-9; 52:13-53:1-12).

수 많은 다른 참조들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참으로 몇 가지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생각나는 대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나의 요점을 논쟁의 여지가 없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구약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효험 있고, 전능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보좌에 앉은 구원자로서 알고 있고 신뢰하였다. 성경을 무심코 읽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모세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기뻐하였음은 역시 분명하다.

- 하나님의 주권 (시편 115:3; 135:6; 다니엘 4:35-37; 이사야 46:9-11)
- 철저한 타락 (시편 14)
- 무조건적 택정 (시편 65:4; 사무엘하 23:5)

- 한정된 속량 (이사야 53:8-11)
- 거절 못할 은혜 (시편 65:4; 110:3)
- 성도들의 인내 (시편 23:6)

한 마디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불가사의한 계시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 또 선택 받은 죄인들 가운데 구약 성경 안에서 그분의 선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셨다.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모세의 시대 가운데처럼 욥의 시대에 충만하지 않았고, 말라기의 시대에서처럼 모세의 시대에 충만하지 않았으며, 침례자 요한의 시대에서처럼 말라기의 시대에 충만하지 않았고, 바울의 시대에서처럼 침례자 요한의 시대에서 충만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시는 분명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은 본보기가 되었다 (히브리서 11 장).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데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보여주었던, 혹은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을 다룸에 있어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믿음의 수준을 체험하는 것을 결코 시작하지 않았음을 개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경들이 언급하신 그분을 알았고, 경배 드렸으며, 신뢰하였다 (요한복음 5:39).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피로 성취하신 구속에 관한 모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모든 자는 그분의 전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크게 감동을 받았다.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그들은 그분이 전하셨던 것으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전하시는 방법에 감동받았다. 얼마나 위험한가! —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느니,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2 절). —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가복음 8:18). 그들은 기뻐서 들었지만, 유익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엎드리지 않았다.

이 멋진, 교회 출석하고, 성경 낭독하며, 찬송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그분의 불가사의한 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23 절과 24 절을 읽어보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27 절에서 주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를 행사하심에 있어서 주권적이심을 이들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다. 달리 말하면, 그분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훈히 여길 자에게 공훈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19)라고 하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렘다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25-27 절).

회당 소동

이 신성한 주권에 속한 말씀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많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28-29 절).

우리 주께서 하신 어떤 말씀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분이 가득하게 하였을까? 그분은 아무런 외설스러운 것을 쓰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을 조롱하지도 않았고, 얕잡아 보지도 않았으며,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구원이 주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구원의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권적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빛진 분이 아니며,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우리 주께서 이 분이 가득한 폭도들에게 반응하셨나? 그분은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일에 대하여 똑바로 행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 어떤 본인가!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30-32 절).

이 분노의 이유는 무엇이었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이 전도자였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을 언제나 분노하게 했고, 언제나 분노할 것이 확실하고 분노하게 될 그 가르침을 전하셨다. 신성한 주권의 달콤한 복음의 가르침 (마태복음 11:25-26; 요한복음 17:2-3, 9; 로마서 9:6-33)은 타락한 종교인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불쾌하고 기분 상한다. 주권적인 하나님, 특히 그분의 구원의 공훈의 실행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은 의지 숭배자와 그의 우상인 자유 의지에 대한 교만, 행위 종교에 눈부시게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다. 복음의 전도는 그런 반역자들 사이에 언제나 혹독한 적개심을 즉시 일으킨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아야 한다. — 영원을 향한 눈으로 수고하라. 땅을 팔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으며, 씨를 심을 때가 있고 추수를 거둘 때가 있고, 허물을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 하나님만 그 때를 정하신다! 우리 일은 그분을 인내하는 충성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종들에게서 충성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요구하시는 것은 없다. 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충성심을 주시기를 바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4 장. 가버나움의 공과—누가복음 4:31-44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 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데도 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 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줄 앎 이러라.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4:31-44)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그분을 그들의 회당에서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였을 때, 우리 주께서 다른 갈릴리 성인 가버나움으로 내려 가셨다.

정해진 방법

이 단락에서 명백히 하는 첫 번째 사항은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성경의 이 부분은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대한 말로 시작하고 끝난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 이러라.” (31-32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43-44 절).

우리 구원자께서 복음 전도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두셨다. 사실, 그분은,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하셨다. 전도는 그분의 일이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종교적 세상에 의해 복음이 과소평가 받고, 제외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전도가 부적절하다고 이미 인정하면서도, 복음 전도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복음 전도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면이다.

복음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 말씀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언제나 경계하라. 교회는 결코 그 강단보다 더 강하지 않다. 교회는 강단이 강할 때 강하다. 교회는 강단이 부적절할 때 부적절하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르치시며,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9, 11-16)

누가가 우리 주의 복음 전도에 대하여 누가복음 4:31-32, 43-44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라. 우리 구원자께서 가르침의 전도자셨다. 그분의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였다. 그분의 말씀은 권세를 갖고 사람들의 마음 위에 떨어졌다. 그분의 말씀 때 한 마디가 의도적이고, 무게가 있으며, 강력하였다. 그분의 복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하여” 왔다. 모든 전도자가 주를 닮기 위한 지혜와 은혜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도록 하자.

악령

이 단락에서 분명히 하고 깨닫게 될 필요가 있는 또다른 것은 사탄과 지옥과 악령은 실재라는 사실이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데도 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33-37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없다. 그러나 깨닫기를 원한다. 귀신숭배는 가지고 놀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다. 지옥은 악몽이 아니다. 그것은 실재이다. 사탄은 원시인이 아니라, 어둠의 왕이다. 악령은 상상 속의 괴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다. 사탄, 지옥, 지옥의 악령은 우리 혼의 파괴와 우리 하나님의 모욕에 열중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이나, 언제나 통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시하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리고 그분은 누가복음의 4 장에서 지옥에 대하여 그분의 능력을 보이신다. 이 단락이 마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 마귀는 더러운 영이다. 이 더러운 영은 사람의 혼 안에서 악하게 역사하며, 마치 그가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사역의 날 동안 그들의 몸 안에서 행했던 것과 같다. — 사탄의 가장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집에서 종종 발견된다. — 마귀들, 지옥의 악령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34 절). —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1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마귀를 그분의 통제 아래 두신다 (35-36 절). 그분이 지옥에 대하여, “잠잠하라” (요기 33:31, 33) 고 말씀하실 때, 모든 지옥은 침묵을 지킨다! 권세와 능력으로, 그분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신다.

지식과 구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옥의 악령들조차도 믿음을 갖고 있고, 교리적으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침례교인들보다 나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믿고 떴다!) 그러나 구원의 믿음은 없다. 성별 되지 않은 지식을 경계하라.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파멸되는 위험한 덫이다. 지식은 구원이 아니다. 머리의 지식, 마음의 체험이 없는 것은 뚜렷한 저주이다.

영적 지식, 복음 지식,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은 소망을 일게 하고 사랑을 산출하는 믿음이 동반되는 지식이다.

성경 사실들, 성경 역사, 성경의 “사소한 일”이나 심지어 성경 교리를 아는 것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 안에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여기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질문이 있다: — 죄에 대한 나의 지식이 내가 그것을 싫어하게 만드는가? —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지식이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가? —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지식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를 추구하도록 하는가? — 은혜에 대한 나의 지식이 나를 은혜롭게 만드는가? 만약 내가 가진 지식이 내 마음을 하늘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게 보배롭게 만들지 않는다면, 나의 지식은 지옥에서 나의 정죄에 더할 뿐인 쓸모 없는 지식이다.

전능하신 구원자

이것을 알고 기뻐하라 —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구원자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 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히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 인줄 앎이러라.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38-42 절).

귀신들과 질병은 마찬가지로 그분의 능력의 말씀 앞에 도망간다. 그분이 손을 대심으로 열이 없어지고 실신한 몸이 강해진다. J. C. Ryle 이 말했다...

“질병과 귀신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은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것들을 갖고 있던 불행한 사람들로부터 빠져 나온다. 그분은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분의 손을 병자에게 얹으시니, 즉시 그들의 질병이 떠나고, 아픈 자가 치유되었다.

사복음서 안에서 많은 유사한 경우들을 관찰하기를 실패하면 안 된다. 그 일들은 너무도 자주 발생하여 생각 없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흘려 읽기 쉬우며, 각각이 전달하려는 의미에 대한 강력한 공과를 잇기 쉽다. 그 일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죄가 세상 속으로 가져온 모든 사악함에 대한 약속된 치료자시라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단단히 붙잡아 두려고 의도되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인류 위에 역사했던 모든 혼을 망치는 해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이고 치료이다. 그리스도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만일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치료 받아야 할 우주의 의사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건강이 있고, 자유가 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궁핍의 모든 기적이 가르치도록 정해지고 약속된 장엄한 교훈이다. 각각은 그 강력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며, 그것이 복음의 그 기초에 놓여 있다. 인간 본성의 모든 궁극적 필요에 공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독교의 바룩 모퉁이 돌이다. 그리스도는 한 마디로 ‘모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옛 뱀의 독에 대한 해독제이다. 그분은 우리가 입은 손상을 치료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 병든 혼을 위한 의사이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건강이며, 우리의 자유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고, 전능하고 전능한 구원자이다. —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25).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여전히 강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묶고, 던져 버리고, 그 집을 차지하신다. 그분의 손을 얹은 모든 자, 구원의 능력으로 말씀하신 모든 자가 그분으로 인하여 즉시 치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받은 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된 모든
자는 기쁘게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섬긴다 (39 절).

은혜의 날이 구속 받은 죄인들 위에 임할 때, 그분의 구원의 능력
을 알았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았고, 그분의 긍휼을 체험하였던 모
든 자는 여전히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있으며, 그분과 언제
나 함께 거하도록 그분께 간청한다 (42 절).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 그분과 함께 “머물도록” 하시며, 그로써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게 될 것이다!

25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누가복음 5:1-11

“우리가 웅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에 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써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누가복음 5:1-11)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의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의 첫 번째 세 제자들을 부르신 기록을 주신다.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보다 사역의 일에 그들을 부르신 보다 자세한 이야기 이다.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하려 의도된 공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이 열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 안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야 한다.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거나 성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곳에 구원과 성화도 없다. 믿음이 올 때, 순종이 따른다.

용위하여 들을째

누가는 주 예수를 “우리가 용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째”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갈망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임을 배워라.

“우리가 용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1-3 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구원자를 재촉하고 있는 영원히 매인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얼마나 복된 재촉인가! 마리아처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의 발 아래 앉았다.

베드로가 여기서 본 것은, 그가 나중에 가이사랴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었다 (사도행전 10:33). 베드로가 전도하기 위하여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나님의 집에 오는 자들은 복되다. 먹을 것을 받으려 오는 자들은 먹게 될 것이다. 가르침을 받으려 오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위로를 구하러 오는 자들은 위로를 찾게 될 것이다. 은혜를 구하며 오는 자들은 은혜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구하며 오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라. —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이사야 45:19).

인간 도구

4 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고 경이로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인간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본다. —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끌어 올려 잡은 것은 기적적이었다. 그러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부들은 단순한 어부들이었다. 그 배는 단순한 배였다. 그물은 단순한 그물이었다. — 그러나 그들은 어부이고, 배였고, 그물이었으나,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셨다.

성경의 이 분명한 계시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도움을 주는 것을 두려워 한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제자들이 떡덩어리와 물고기를 많아지게 하지 않았다. 주 예수께서 그것을 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 축복 받은 사람들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나사로를 사망에서 살리셨던 그분께서 돌을 무덤 입구에서 쉽게 옮기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을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리도록 사용하실 것을 택하셨다. 그래서 역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구를 사용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어 역사하신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21).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그들의 일에 대하여 그 자체로는 철저하게 쓸모 없고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한다. —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왜 이것이 그런가? 바다에 물고기 없어서였기 때문이었나? 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일에서 미숙련되었나? 분명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정통한 어부들이었다. 왜,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않았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도구들인 그들 자신은 가치가 없고 쓸데 없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어떤 비밀스러운 능력으로 배의 키를 잡으실 때, 물고기 떼가 그물 속으로 들어간다.

주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일을 가장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행하신다. 우리 주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은혜의 대상으로 가장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종이 되기에 가장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에 가장 생각지도 않은 곳을 선택하신다.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것을 명하셨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면, 깊은 물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믿음과 순종

믿음은 그리스도께 순종적이다. —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5 절). 사람들이 할 말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26)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렇다. 사람들이 감히 불순종을 정당화 하려 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적이다. 믿는 자들은 반역자들이 아니라, 자원한 종들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 이것은 논리에 모순되고 경험에 모순된 명령이었다.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명령하셨던 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은 즉각적이고, 의문하지 않고, 이기심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복종을 요구한다. —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5).

“신뢰하고 순종하라, 신뢰하고 순종하라,
다른 길은 없기 때문이라
예수 안에서 행복함은,
다만 신뢰하고 순종함이네.”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6-9 절).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닌 베드로의 기도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베드로가 여기서 표현한 것은 정확히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느끼는 것이다.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권세와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의 임재 앞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설 가치가 없음을 인하여 압도된다.

우리 구원자에 의해 행해진 이 기적이 베드로가 구원자의 신격에 대한 느낌으로 뒤덮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외치며 주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그는 주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하셨던 것을 갑자기 기억했던 것처럼 보인다. —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20). 생각해 보면, 거룩한 사람이 고대에 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즉사를 의미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것이 분명하게 마노아가 생각했던것, 주의 천사(성육신 전 그리스도)가 그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사사기 13:22).

갑자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죄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주께서 그에게서 떠나시기를 간청하였다. 전능한 능력이 없이는 그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낳을 수 없을 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즉각적인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의 느낌으로 갑자기 사로 잡혔다.

존귀를 위한 존귀

하나님은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분의 심판의 말씀 안에서 엘리에게 그분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30).

순종적 믿음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없다. — “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상 15:22).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내렸을 때, 그는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작은 일들에 순종은 언제나 더 큰 것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10 절에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본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스도께 순종하였던 어부들인 이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도록 되었다!

세 가지 요구

마태복음 4:19 와 누가복음 5:11 을 함께 읽어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산출함을 보게 될 것이다. —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19). —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누가복음 5:11).

주께서 그분의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을 사역의 일로 부르실 때, 그분은 그들에게서 세 가지 사항, 오직 그분만이 산출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신다.

1. 믿음 —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 한다면, 우리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2. 버림 —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3. 따름 —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따라야 한다.

비유

이 역사적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건들처럼, 비유적인 의미가 있다. 전체 사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와 그 일에 대한 주목할 만한 그림과 예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바다를 가로지르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태우고 가는 배들은 복음적인 교회들을 상징한다. 어부들은 복음 전도자들과 그들의 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며,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바닷가는 영원을 상징한다. 물고기를 잡고 바닷가로 가져가는 기적적인 그림은 주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에 합당한 우리 수고의 성공을 상징한다.

26 장. 어떻게 죄인이 공활을 얻기 위하여 주께 가는가?—누가복음 5:12-16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대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12-16)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의 이야기들을 함께 합하면, 이 사건은 우리 주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직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28-29).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큰 군중이 그분 뒤를 따라갔다. 그리고 문둥병으로 가득한 이 한 사람이 군중을 가로질러 갔다. 그는 “불결하다, 불결하다.”고 외치면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통하여 왔다. 그가 구원자께 이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렸을 때,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 드리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기 한 불결한 문둥병자가 그리스도의 손길에서 긍휼을 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찾던 긍휼을 얻었다. 주께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셨다.

이 문둥병자와 그가 주 예수로부터 얻었던 긍휼에 대하여 읽을 때, 스스로에게 생각한다. “만약 한 사람이 온전하여 질 때, 왜 다른 사람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면, 왜 내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롭게 하실 때, 왜 나는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받으실 때, 왜 나는 받으시지 않겠는가? 죄인들을 위하여 주께 긍휼이 있다면, 왜 나를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러면 왜 나를 위해서는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구원하신다면,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만약 우리가 긍휼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불쌍한 문둥병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긍휼을 구해야 한다.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그가 다시 읽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견줄 데 없고, 대가 없으며,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주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게 하라. 모든 가련하고, 타락한 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불결함이 그가 그리스도만 주실 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있는 씻음을 갈망하게 하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 보게 하라.

필요에 대한 깊은 느낌

이 가련하게 비참한 사람은 그의 필요에 대한 깊은 느낌을 갖고 주 예수께 왔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하여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전혀 보지 못한다.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혹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그가 우리 앞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제시된 것 같으며, 그것은 죄인이 만약 공활을 얻고자 한다면, 주 예수께 어떻게 와야 하는 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첫 번째 사항은 이것이다: —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공활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께 나와야 한다. 어떤 죄인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필요의 느낌을 창조하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공활을 필요로 할 때까지 공활을 구하는 자는 없다.

문둥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안다. 문둥병은 메스꺼운 질병이었고,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사역의 시대 동안 일반적이었다. 그것으로 고통 받고 있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함의 표시로 언제나 생각되는 특이한 질병이었다 (민수기 12:10; 열왕기하 5:27; 역대하 26:19). 그들은 의례적으로 불결하였으므로,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문둥병은 아담의 자손들이 앓았던 죄의 질병을 상징한다. 그것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죄가 혼에 대한 것처럼 몸에 대한 것이다. W. M. Thomson 이 그의 유명한 저서인, “The Land and the Book”에서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머리카락이 머리와 눈썹에서 흘러 내린다. 손톱은 빠지고, 썩고, 떨어졌다. 손가락과 발가락의 관절 관절마다 오그라 들고 천천히 떨어져 나간다. 잇몸이 함몰되고 이가 사라진다. 코, 눈, 혀, 구개가 천천히 함몰된다.”

문둥병자는 메스껍고, 끔찍하며, 버림받은 피조물이었다. 그는 걸어가는 시체였다. 문둥병은 죄처럼 메스껍고 불결한 질병이었다. 문둥병은 죄처럼 (인간적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다. 문둥병은 죄처럼 소멸시키는 질병이었다. 문둥병은 죄처럼 사망의 확실한 전조였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앞에 여기 잡혀 있는 사람은 그의 절망적인 필요에 대한 예민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뒤덮여 있던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질병이 언제나 그 앞에 있었다. 그것을 숨길 것이 없었다. 그의 몸은 구역질 나는 냄새가 나는 진물이 흘러나오는 궤양으로 뒤덮였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몹시 괴로웠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가 “온 몸에 문둥병” 들렸다고 말한다. 그가 도움이 필요했던 것을 알았다. 그는 초자연적이고 공허이 넘치는 신성한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없이는 그가 분명 죽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못하는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그들은 어떤 필요한 느낌도 없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질병이 그 자신의 혼을 열로 태우려 할 때, 죄인들은 그가 길을 잃었고, 무기력하며, 불결하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며, 그리스도가 없이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 때, 그는 그분을 찾는다.

치료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혼을 치료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다.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의식법 안에서 그려져 있다 (레위기 14 장); 그러나 그것은 치유를 계시하는 복음이다. 은혜의 씻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에스겔 36:25; 요한일서 7-9). 그분의 피만 문둥병 걸린 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분의 공혈만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 깨끗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게 만들 수 있다.

공혈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아는 자들은 곧 공혈을 얻을 것이다.

“그가 요구하는 모든 적법한 것은
그분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Robert Hawker 는, “이 가련한 피조물, 예수께 온 이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죄의 문둥병에 대하여 확신했을 때, 모든 가련한 죄인의 상징이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

게 된다.” Joseph Hart 가 우리에게 그의 위대한 찬송 안에서 동일한 것을 제시한다…

“어떤 위로를 구원자께서 가져오실 수 있는지
그들의 고뇌를 결코 느끼지 않았던 자들에게?

죄인은 거룩한 것이네;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네.

그분에게서 새 생명을 받아야 하네,

죄로 인하여 당연히 슬퍼하기 전에.

이 충성된 말씀을 갖도록 하라,

믿을만한 가치가 있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으로 내려 오셨고,

죄인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 받음이라.

죄인들이 그분을 높이 존경하네.”

철저한 굴욕

이 문둥병자는 철저한 굴욕 가운데 주 예수께 왔다. 마태는 그가 “경배 드리려” 왔다고 말한다. 누가는, “예수를 보고, 땅에 엎드렸다.”고 한다. 마가는 그가 “무릎을 꿇고” 왔다고 한다. 무릎 꿇고 그분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경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구원자께 와야 하는 방법이다! 죄인은 그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의 독선을 내려놓고, 그의 자족을 내려놓고 나와야 한다! 그는 자신의 눈을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모두 낮추고 와야 한다 (누가복음 18:9-14).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이전에 보았다면, 우리는 낮아질 것이다. 당신과 나는 가련한 아담의 아들딸들이고, 불결함으로 충만하고, 저주 받았고, 정죄 받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아주 조금의 주목도 받기에는 완전하게 무가치하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보았다라면, 우리는 낮아질 것이다.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참되시다. 그분은 공회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구원하실 능력과 뜻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샘이다. 그분은 그 영광이 죄를 용서하기 위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의 발 아래로 어떻게 데려올지 아신다. 시편 107 편은 그분의 경이로운 섭리의 역사를 위하여, 선택 받은 죄인들을 데리고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이다. 그러나 섭리만으로 죄인들이 주를 구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의 거룩한 율법이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들의 죄를 노출하며, 그들의 불결함을 천명하고, 그들의 죄를 선포함으로써 끌어내리신다 (로마서 7:9).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시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끌어내리신다 (스가랴 12:10; 갈라디아서 1:15-16).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는가?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부서지고 낮아졌는가? 당신은 읊처럼 달콤하게 외칠 수 밖에 없게 되었는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5-6).

크고 약한 믿음

이 가련한 문둥병자는 아주 약한 믿음으로, 그러나 큰 은혜를 얻었던 믿음으로 주 예수께 왔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약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든다 (히브리서 11:6). 나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모른다. 아마도 그는 우리 주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구약 선지자들에게 익숙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우리 주의 명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 그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셨는지 알았다. 그는 그분의 주장들을 믿었다. 그리고 그는 믿음 안에서 구원자에게 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8; 골로새서 1:12).

문둥병자는 스스로 주께 왔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 되었지만, 이 사람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은 선택되어 주께 데려왔지만, 문둥병자는 그렇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올 수 없었고 데려 올 수 없었던 사람은 주님 자신의 방문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이 문둥병자는 그렇지 않았다. 모두가 이 가련한 사람을 소망 없는 경우로 포기 하였다. 그는 외로웠고, 고립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의 혼을 관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구원자에게로 데려 올 수도 없었고 데려 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망 없고, 무기력 하고, 무친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주의 기쁨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문둥병자는 많은 장애를 거슬러 주 예수께 왔다. 그는 따라갈 아무런 선례가 없었다. 그 사람 이전에 어떤 문둥병자도 구원자에게 온 사람은 없었다. 그는 치료의 약속도 없었다. 그는 오기로 초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올 법적 권리도 없었다. 하지만, 문둥병자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왔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으로 경배 드렸다. 그는 그분이 구약 시대에 것처럼 다른 사람이 치유 받게 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의 주로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 드렸다. 그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 안의 그의 믿음을 고백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분께서 말씀 하시도록 했던 기도를 단순히 반복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은 크고 주목할만한 것으로 보인다. 실로 그랬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큰 약함을 보였다. 비록 그가 주 예수께서 그를 치료하실 수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분이 자신을 치료하실지를 의심하였다. 그는 주 예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고 말하였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주 예수께 그런 믿음의 약함을 갖고 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안다. 필요할 때 공홀과 은혜를 구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홀과 은혜를 주실지 매우 크게 의심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지 않았던 구원 받은 죄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지 않음을 용서하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가련한 문둥병자가 구원자에게 왔던 것은 그런 믿음의 약함 가운데에서 였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약함이 그분의 은혜의 품을 거절하지 않으심이 우리 구원자의 은혜의 위대함이며, “공홀 가운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다! 주 예수께서 이 가련한 혼을 향한 동정심으로 감동하셨다 (마가복음 1:41).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13 절).

완전한 항복

이 문둥병자는 그분에 대한 그의 필요를 알면서 크게 부끄러워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 그리고 그는 구원자에게 완전히 항복하여 왔다. 그는 전체 결과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외쳤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특권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 우리 하나님, 공홀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공홀을 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만 구원할 권리와 구원할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문제는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른다 (로마서 9:16, 18). 그리스도의 권세의 주권과 그분의 뜻의 주권을 인정하며, 문둥병자는 기쁜 소망으로 주께 항복하였다. 그는 다만 자신을 그리스도께 던졌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것을 해야 한다. — “주여,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

하지만, 그는 소망을 가졌다. 주께서 이전에 그런 요청을 거절하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적이 결코 없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결코 구하고, 믿으며, 순종하는 죄인에게 결코 등을 돌리신 적이 없다. 그것은 따라서 그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등을 돌리지 않으실 것 처럼 보인다.

“아마 그가 나의 간청을 받으실 것이니,
아마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니;
그러나 내가 사라진다면, 나는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 사라질 것이다.

내가 간다면 나는 단지 사라질 수 밖에 없으니,
내가 애쓰기로 결심하였네;
내가 만약 멀리 있다면 내가 알므로,
나는 영원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찾았던 공황을 받고 죽는다면,
나 왕이 시험하였을 때;
이는 죽어야 하는 것이었으니 (기쁜 생각!)
죄인은 결코 죽지 않았음이라.”

그 문둥병자는 그가 거절당했을 지라도 더 나쁘게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공황을 구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에게 손실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얻은 공황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이 가련한 문둥병자는 그가 절대적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필요했던 공활을 얻었다. —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주 예수께서 그를 향한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다. 그리고 그를 향한 동정심으로 마음이 움직이시므로, 그분께서 즉시 그를 완전히 치료하셨다.

하지만, 더 있다. 주 예수께서 이 가련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치료하셨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무한하게 흠 없는 순수함이 철저한 부패에 이르렀고 만졌다! 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자신과 우리 본성의 연합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우리 가련하고 문둥병의 죄인들을 우리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희생으로 깨끗하게 하시려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셨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21). 완전히 거룩하고 순수하며, 깨끗하며 의로우신 그가, 암소를 그 분노와 함께 태웠던 제사장이 민수기 19:7에서 요구된 제물로 불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분 자신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불결하게 되셨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으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다. 그분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었으며,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공과

14 절과 15 절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주께서 가르치시는 매우 중요한 공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14-15 절).

구원자의 분명한 명령에 대한 이 치유 받은 문둥병자의 불순종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신성한 감동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다. 성령은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말해야 할 때 뿐만 아니라, 침묵하여야 할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도서 3:7). 우리 구원자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6)라고 하신다.

나는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더 낮게 섬긴다.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섬겨질 수 없을 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교리를 그것에 반대하는 자들의 목구멍 아래로 쭈셔 넣으려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섬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하시기 위하여 문을 여실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쁜 소식을 듣는데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에 트집을 잡고 비웃기만 할 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하기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분명 최선이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님의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고용주가 어떤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가 체험하였던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실하게 그 일을 널리 퍼뜨렸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하셨다.” (마가복음 1:45).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닌” (로마서 10:2) 열심이 있다. 그런 열심은 많은 해를 야기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널리 퍼뜨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떤 것도 규정하려 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보다 침묵 하므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구원자와 그분의 왕국의 이익을 섬길 때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단락을 해설함에 있어서, J. C. Ryle 은 경고한다...

“이 주제는 의심할 바 없이, 미묘하고 어려운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영광스러운 주를 고백하기보다 침묵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 — 그리고 격려만큼 굴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일들을 위한 때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때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큰 목표이어야 한다. 때를 아는 것은 분별력보다 열정이 더 많고, 심지어 때를 그르친 행동과 말로 진리의 대적을 돕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섬길 수 있고 방해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뜻으로 우리 구원자를 섬길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 혹은 침례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헤롯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돼지들 앞에 그분의 은혜의 진주를 던져서 모욕되게 그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아직, 더 있다. 구원자께서 이 치료 받은 문둥병자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하셨다. 그분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특별히 “저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을 보이라고 하셨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증거로써, 제사장이 그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심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들을 향하여 영원한 산 증거가 되도록 말씀하셨다.

분명히 이 명령 속에 더 많은 것이 있다. 모든 은혜와 공훈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이고 전능한 구원자시며,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증여자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야 한다.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대하여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께 대하여 살도록 하자.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말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10).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7 장.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네 사람—누가복음 5:17-26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누가복음 5:17-26)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네 사람을 우리 앞에 두고 있다. 내가 아는 한, 그들 가운데 아무도 전도자가 아니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감동의 말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네 사람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하찮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네 사람의 이름과 나이와 출생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은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 올랐는데, 이 네 사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양 가운데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려왔던 도구들이었다. 이 네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었던 친구가 있었고, 그들이 그들의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 왔으며, 주 예수께서 그들의 친구를 치료도 하셨으며 그의 죄도 사하셨다. 그들의 주목할만한 믿음과 열심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세상 전체에서 어떤 사람도 이 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수고 때문에, 한 죄인이 구원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5:17-26 에서 우리 앞에 있는 장면의 그림을 당신의 마음 속에 그리도록 해보라. 그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이야기이다. 이 네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의 은혜로운 능력을 알았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가 필요했던 한 사람을 알았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어디에서 찾을지를 알았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구원자에게 데려올 것을 함께 결심하였다. 그리고 사려 깊은 계획과 수고와 인내로 이 네 사람은 그들의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데 성공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진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구를 구원하실 능력을 갖고 계셨던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친구가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였던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들의 길에 아무것도 막지 않도록 정해졌다.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도록 정해졌다. 그들은 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혼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실지 않을지 몰랐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그리스도께 데려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정해졌다. 그리고 그들의 성실한 수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한 죄인이 구원 받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더 중요할 수 없었다. 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 그분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네 사람을 우리 앞에 우리가 따라야 할 예로써 세우신다. 그들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음전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보여 준다.

다섯 가지 사실

우리는 “구원은 주께 속하였다”는 것을 안다.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회개와 믿음을 줄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 —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섯 가지 사실들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1.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으며, 무기력하게 길을 잃었고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아무도 절대로 그 자신에 의해서, 그 자신의 자유 의지로, 주를 찾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3:10-12).
2.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그분 자신을 위하여 택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신 택정한 사람을 갖고 계시다 (로마서 8:29-30).
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보혈로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들을 구속하셨으며, 그분의 피의 공로와 효험에 의해 그들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사야 53:9-11).
4.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선택 받고 아들 하나님에 의해 구속 받은 그 모든 자들을,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부르심으로, 효험 있게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시편 65:4; 110:3).
5.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에 이르시도록 사람을 사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21).

그분이 히브리인이 나아만을 확신하게 만들도록 사용하셨고, 베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를 찾기 위하여 안드레를 사용하셨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사용하셨으며,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르시기 위하여 빌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서는 선택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그분의 전
능한 역사들 가운데 여전히 구원 받은 죄인들을 사용하신다.

죄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죄로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다. 그분은 천
사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
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
택하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특권인가 (고린도후
서 4:7).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아무런 한계가 없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
한 경이이다 (고린도전서 1:26-29).

다섯 가지 질문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 오는 일에 우리 자신을 열심으로 드리
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불을 붙이시고 우리를 감동
하시기를 기도한다.¹⁰

1.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을 아는가?

내가 당신이 종교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당신이 교리적 믿음이나, 교리에 따른 소속이나, 도덕적 행위

¹⁰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대한 나의 해설 안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자
세한 공과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한 가지를 묻고 있다: —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가 당신의 마음 속에 계시 되었는가?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을 따라갔는가? 만약 당신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참으로 연합 되었다면, 당신이 그분을 사랑한다면, 분명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로마서 10:1).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아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대속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는가? (요한복음 3:14-16; 로마서 3:24-26).

성경의 일반적인 증언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5). 구원은 은혜로 인함인데, 죄인들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2:1-4). 철저히 타락하였고,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그들의 혼의 구원에 도움을 줄 능력이 전혀 없다. 은혜로 인한 구원은 사람 편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을 제외한다 (에베소서 2:8-9; 고린도전서 4:7). —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9:16). 은혜로 인한 구원은 삼일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드린다 (에베소서 1:6, 12, 14). 택정과 예정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속과 사함에 대하여 하나님 아들에게, 거듭남과 보존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받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셨다면, 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무도 구원 받을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전체가 은혜로 인함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어떤 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 은혜로 인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마태복음 1:21). 은혜는 우리를 죄에 대한 벌과 죄의 통치로부터 구원한다. 은혜는 죄인들을 의의 종으로 만든다. 그러나 어떻게 은혜가 구원하는가?

은혜가 우리 죄들을 관대해 바라보고 그 죄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에스겔 18:20),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함으로 (갈라디아서 3:21), 혹은 지켜야 할 종교적 의식 (갈라디아서 5:2)과 행할 선한 일들 (디모데후서 1:9)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은혜는 대속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죄들을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그분을 우리 대속자로서 대신하여 벌주심으로 구원한다 (로마서 3:24;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에베소서 1:7; 베드로전서 2:24). 대속의 구속은 하나님의 공의를 떠 받치며 만족케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 죄들이 정당하게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 탓으로 될 수 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다 되셨을 때, 주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분의 거룩한 율법과 범해진 공의의 모든 분노를 부으셨다. 그분이 우리 대속자, 주 예수 위에 그분의 진노를 소진 하셨으며, 주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모든 자에게, “나는 노함이 없나니” (이사야 27:4)라고 선포하신다. 그분은 모든 믿는 죄인에게 “공의의 하나님이며 구원자” 모두이시다 (이사야 45:20-22).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고 (고린도후서 5:21),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우리를 거듭남 가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듭으로 (베드로후서 1:4),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줌으로써 (골로새서 2:12) 우리를 구원한다. 은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죄속량의 죽으심을 우리 마음에 보배롭게 함으로써 구원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이 복음을 믿을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유익하지 않다.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27). —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18).

은혜는 영원한 영광 안에 지키고 보존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한다 (베드로전서 1:5).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29). 은혜가 시작하는 그것을, 은혜가 완성할 것이다 (빌립보서 1:6). 은혜는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은혜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을 고백해야 한다.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말해야 한다. 구원자께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의 증인들이다”고 말씀하신다 (누가복음 24:48; 사도행전 5:32; 10:39; 디모데후서 2:2).

2. 죄인들이 복음을 들을 어떤 곳,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어떤 곳을 알고 있는가?

사람들의 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 하는 곳에 대하여 아는가? 모든 복음적 교회가 그런 곳이다. 그리스도의 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회는 복음을 위한 소리 나는 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한 가지 목적,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모든 목자, 모든 복음 전도자는 그것을 그의 일로 만들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영원히 매인 죄인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2:2; 9:16). 전도자는 삶에 있어서 한 가지 실질적인 야망 외에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야망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들을 그분께 향하게 하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해야 한다. 그분만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자이다. 그분만이 사람들의 구원자이다. 그분 안에 죄인들을 위한 소망이 있다. 그분 안에 구속이 있다. 그분 안에 의가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 그분 안에 안전이 있다.

복음 전도는 구원으로 향한 하나님의 권능이다 (로마서 1:16; 고린도전서 1:18, 24; 2:2-5). 당신과 함께 죄인들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라 (누가복음 5:17).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 곳에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동일한 것을 하실 것이다.

3.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혼을 위한 사랑과 염려를 갖고 있는가?

당신은 누구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아는가? 나는 이것을 안다: — 우리가 참으로 염려하는 그것,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것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정직하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J. C. Ryle

은 이렇게 기록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종교 안에서 아무런 고통을 취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듣는 것을 위한 시간을 결코 찾을 수 없을까? 무엇이 은혜로운 방법을 무시하려는 그들의 연쇄적인 변명의 비밀인가? 어떻게 돈과 일과 쾌락과 정치에 대하여 열심으로 충만한 그 똑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혼에 대하여 아무런 고난을 취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짧고 단순하다.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정직함 속에 있지 않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광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그리스도의 경배는 당신에게 중요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의 자녀들의 혼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의 혼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보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다.

이 세상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지옥이 실제이고, 천국이 실제이며, 영원한 죽음이 실제이며, 영원한 생명이 실제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4. 무엇이 우리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모두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모두 성경 교사들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의 일상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이 광채 나게 할 수 있다 (디도서 2:10). 우리가 고백한 것에 따라 사는 은혜를 구하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려 하는 것이 누구에게든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의 고백과 당신의 실행이 동의 가운데 있음을 보라.

우리는 모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충성된 증인은 진실임을 알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보배로움을 아는가? 말해보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아는가? 말해보라. 구원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인함임을 아는가? 말해보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일로 만들어라.

우리는 모두 복음의 글을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도록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따뜻함과 친근함으로 경배의 집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진정되게 기도할 수 있다.

5. 왜 우리는 모두 이 일에 우리 자신을 열심히 드려야 하는가?

나는 복음의 확장과 죄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고 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야 하는 것을 천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분명하였으며 그것을 지적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 속에 가져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려는 끔찍한 경향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 우리 마음을 휘젓고 우리 혼을 감화하도록 마지막 한 번의 노력을 하자.

우리는 복음의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음과 죄 가운데 멸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도록 강요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변화를 위하여 정하셨던 방법이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일은 영광스럽고 혼을 격려하는 일이다 (야고보서 5:20).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하자.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자신을 전념하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련되는 모든 것에 충성되자. 복음 전도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당신의 일로 만들어라. 당신의 가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선교사가 되라.

28 장. “레위라 하는 세리”—누가복음 5:27-32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좃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좃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27-32)

우리 앞에 불멸의 혼에 대한 이야기, 상당한 정도의 부, 직권 남용으로 (모두 그런 것처럼) 얻은 부, 그럼에도 부를 축적하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속이 공허하였다. 그는 혼 안에서 고난을 받았다. 그의 부가 그에게 평강을 사주거나 그의 양심을 침묵하게 할 수 없었다. 비록 그가 그것을 몰랐으나, 이 사람은 은혜로 선택 받은 대상이었으며, 긍휼로 지명된 그릇이었으며, 그를 위한 사랑의 때가 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방문하여 거절할 수 없는 권능과 은혜로 부르셨던 것을 본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영원한 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큰 유익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다. 이 구절들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레위 (마태)의 변화를 서술한다.

레위처럼, 당신과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진로에 따라 살았으며,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고,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 “공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4-5).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께 결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결코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돌이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혼이 돌이키는 것이다. 변화는 죄인들을 구원자께로 돌이키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다. 그분은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불신에서 믿음으로, 반역에서 항복으로, 대적에서 사랑으로, 죄에서 의로, 자기 의에서 그리스도로 바꾸신다. 당신은 변화 되었는가?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돌이키고 계신가? 우리가 변화 되었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 이 은혜의 역사는 그것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믿는 죄인들은 계속하여 변화시키는 은혜를 위하여 주께 울부짖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시편 85:10; 예레미야 31:18-19; 예레미야애가 5:21).

여기 누가의 복음서 안에서 신성한 감동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존되어 있으므로, 레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변화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체험을 레위의 체험과 정직하게 비교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가 변화 되었다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였던 그 변화들이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레위의 변화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27-28 절). — 여기서 우리는 효험 있는 부르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능력을 본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부름 받은 세리가 있었다. 그가 부름을 받자 마자, 그는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레위는 마태라 불렸으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약 전체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은혜로운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려졌다. 그는 이제 구원하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 드려진다 (요한복음 6:37-45). 그리고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사인 그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한다.

레위는 세리, 세금 징세관이었다. 그는 그의 좋은 직업에 철저하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열중하였다. 그는 돈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모을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더 모을까 만을 생각했다. 그는 주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의 혼 안의 필요에 대하여 어떤 의식도 갖고 있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구원자의 부르심을 앞서갈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레위는 깊은 죄의 느낌을 처음 체험 하였거나, 비탄과 후회의 많은 시간을 체험 하였거나, 혹은 많은 지식을 얻지도 않았다. 구원자께서 부르셨고, 그리고 구원자의 부르심의 결과로, 레위는 그분을 따랐다. 여기 얼마나 놀랍고, 전능하고, 대가 없는 은혜가 있는가! “나는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사야 65:1)라고 말했던 그가, 레위를 찾았으며, 레위가 그를 그의 전능한 공훈에 속한 효험 있고, 구별된 부르심으로 그를 찾도록 하였다.

레위가 은혜가 그를 압도하고 정복했을 그 날에 얼마나 아주 놀랐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그 체험 가운데 놀라운 것이다. 여기 은혜의 복되고 주권적인 개입이 있다. 주 예수께서 지나가셨다. 그분이 레위를 보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부르셨다. 그것이 오늘날 그분이 여전히 행하시는 방법이다.

여기 믿음의 복된 선택과 결정이 있다. —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좃으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이 무가치하고, 쓸모 없고, 혐오스런 사람이 사람들의 혼에 형언할 수 없는 유익을 주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효험 있는 은혜는 언제나 구원 받은 죄인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산출한다. 레위 (마태)는 세상에 알려진 네 권의 감동 받은 복음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기록하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그는 수 백만의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이름을 남겼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이었다. 구원자께서 부르시자 마자, 그는 순종하였다. 주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그분을 영접하도록 열자마자 레위는 그의 집을 구원자에게 열어드렸다. 그리고 이 세리, 주께로부터 공활을 얻은 자가 다른 세리들이 와서 역시 공활을 찾도록 초대하였다. 그리스도는 만유이다. 그리고 모두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있다.

우리는 누구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보았다면, 대부분의 사람, 전부가 아니라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고 말할 것이며, 그가 결코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지나쳤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오만한 어리석음에서 지키시기를 바란다.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 받지 못할 만큼 사악하고, 모질며, 세상적이고, 타락한 사람은 없다. 어떤 죄들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나쁘고, 지독하며, 많지 않다. 어떤 마음도 아주 사망하고, 부패하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유대 족속의 사자에 의해 정복되지 못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미치지 않는 자는 없다. — “대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37)

당신은 변화 되었는가? 주께서 당신을 파멸에서 건지셨고, 부패의 구덩이에서 당신을 올리셨고, 사망에서 당신을 살리셨는가?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갔는가?” 나는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께 오기를 촉구한다. 레위를 불렀던 그분이 여전히 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인들을 부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여전히 속량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여전히 의가 있다. 하나님께 여전히 사함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별거벗고, 궁핍한 죄인들을 구원의 옷으로 여전히 입히신다.

레위의 축하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29 절). — 이것은 기쁨과 축하를 위한 잔치였다 (전도서 10:19). 레위는 그의 변화를 큰 기쁜 일로 여겼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겪었던 것을 그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가 알았던 은혜, 그가 알았던 그리스도, 그가 알았던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 의심할 바 없이, 그의 많은 친구들이 그의 변화를 동정 받을 일로 바라보았지만, 레위는 그가 축하할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았다.

은혜의 날보다 더 높은 날, 더 축하해야 할 날, 더 기억되어야 할 날은 없다. 졸업, 결혼, 자녀의 출산, 모든 울타리가 여기에 비교되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잃어버린 혼이 그리스도께 회개 하였을 때, 그것은 혼의 출생, 죄인의 구원, 정죄 받은 죄인의 용서, 옥문의 개방, 왕의 대관식, 제사장 만들기, 아들의 입양, 모든 죄의 용서, 의의 부여 그리고 죄인의 용인이다.

레위의 염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구원 받은 이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혼을 염려하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은혜로 변화되고 구원 받기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원했다. 따라서 그가 이 잔치를 열었을 때,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큰 무리가 오도록 초대하였다. 그는 그들의 혼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J. C. Ryle 이 바로 보았다...

“자신의 동료들의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안에 아무런 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주장되는 것이 지장 없을 것이다. 성령으로 정말 가르침을 받은 마음은 언제나 사랑과 관대와 동정으로 충만하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름을 받았던 혼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부르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갈망할 것이다.”

그리스도 구원자와 함께 임재 가운데 그의 길 잃은 친구들을 얻기 위하여 큰 비용과 어려움을 겪었다. 구원 받은 죄인들은 결코 천국에 가는 것 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엄청난 수의 손님을 위하여 그렇게 크고 후한 잔치를 제공하는 비용은 (“잔치”라는 말이 내포한 것처럼) 엄청났다. 레위는 죄인들을 구원자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비용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상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불멸의 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처소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소유를 사용하기 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공활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활과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그리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기 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모세가 호باط에게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민수기 10:29)라고 말할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성의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29)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말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1:41)고 말할 수 있다.

레위의 비판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0 절). — 그들은 언급할 가치가 거의 없지만, 누가에 의해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나도 역시 그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사람들의 혼을 섬긴다면, 당신이 하는 것에서 잘 못을 찾으려하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레위가 했던 방법으로 비방을 다룰 것을 권고했다. — 그들을 다루지 말라. 그들을 주 예수께서 뜻하시는 대로 다루시도록 그분께 맡겨 두라.

레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1-32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식탁에 둘러 앉았 있던 위대한 구속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광경인가! 바리새인들의 불평은 다만 기대했던 것과 같으며, 그런 것은 모든 세대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두드러졌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런 비난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응답을 주셨는지.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성품은, 혼의 의사로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질병의 소굴로 그를 당연히 인도하였다. 그리고 선지서 가운데 그 기억할 만한 단락을 그들에게 인용하셨다 (호세아 6:6). 예수께서 여호와라파로서 그 자신의 책무에 대한 확증 가운데 그분 자신에게 적용할만한 말씀을 택하셨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26).” (Robert Hawker)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려 오셨다. 죄인들 말고 아무도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죄인은 그분이 받으신다. —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유일한 길은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로서 이다 (골로새서 2:6).

29 장. “묵은 것이 좋다”—누가복음 5:33-39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5:33-39).

주 예수께서 이제 막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레위 (마태)라 부르는 늙은 세리인 택정한 죄인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하심을 체험하였으므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 죄인은 기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따르기를 원했다. 그는 다른 죄인들이 그가 이제 알았던 은혜를 알기를 원했다. 그는 다른 죄의 병에 걸리 혼들이 주의 손길의 치유하심을 알기 원했다. 따라서 그는 풍성한 저녁 잔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존귀 가운데 열었다. 사람들의 무리가 왔다. — 세금 징세관들 — 로마인들 — 유대인 서기관들 — 바리새인들 —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 주의 제자들 — 하나님의 아들 자신 — 무수한 죄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찮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주 예수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눈썹을 치켜들며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0 절)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1-32 절).

그가 말한 것이 완전히 무시당했고, 그들이 병자도 아니고 죄인들도 아니라고 (적어도 그들 자신의 생각에서) 알았으므로, 그들은 구원자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이 지켰던 것과 동일한 외적인 종교적 관습과 의식 (말하자면 공개적 기도와 금식, 등)을 지키는 것을 보았고, 주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보았으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일으키려고 기회를 감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침례자 요한과 하나님의 어린 양 사이에, 이 극명한 차이점들을 지적함으로써, 췌기를 박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자주 흔들림

참 믿는 자들은 때때로 나약한 믿는 자들이 된다. 그리고 나약한 믿는 자들은 특별히 종교적 실행과 사람들의 관습에 의해서 종종 흔들리고 쉽게 탈선한다. —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33 절). 마태복음 9:14 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관습에 강하게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주신다.

요한의 제자들은, 비록 진실한 제자들이었지만, 공개적인 기도와 금식의 모습과 식전에 허세를 부리며 손을 씻는 모습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외적 모습에 크게 인상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양 떼는 낮은 자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한 분에게서 유약을 받으며 복음에 관련하여 속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욕과 혈에 속하여 다만 연약하고 변하기 쉽고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때때로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넘어지며, 그들이 선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이 생각하기에 충성스럽다는 사람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무의미한 문제로 탈선하게 된다.

그것이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다. 그들은 종교적 실행과 의례적인 금식을 함께 했었던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야 했다. 구속과 은혜와 사함에 대한 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문제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바리새인들과 합류 하였으며, 주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을 공개적인 금식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보이는데 합류하지 않았다고 해서 트집을 잡고 비방하였다.

만약 마태의 이야기 (마태복음 9:14)를 보게 된다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함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세속적인 종교적 문제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탈선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할 것이다 (에베소서 4:1-6).

신부와 신랑

34 절과 35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그분과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영광스러운 사실을 가르치신다. — 모든 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분은 우리 신랑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복음 시대는 우리의 혼인 잔치의 시간이다. 은혜의 연회 식탁에서 잔치를 할 때이고, 축하와 기쁨을 위한 때이지, 애도와 금식의 시간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 금식은 회개와 애痛的 상징이었다. 어떤 금식은 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법 아래에서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공개적 치욕의 때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외적 의식을 상징하고 이용하였던 영적 일들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금식일들을 지키기를 강력히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더하였다. 그들의 겸손한 모습과 관련하여, 이 교만한 위선자들은 특정한 기도의 때, 헌신의 공개적 모습을 그들 주변의 세상과 서로에게 얼마나 거룩하고 겸손하며, 헌신적이고 근면하고, 선하고 경건한 가를 입증할 수 있던 것으로써 더하였다! —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행위와 무관하였다. — 우리도 무관해야 한다!

금식과 관련하여, 우리 주의 교훈은 분명하다. 그분의 임재와 은혜는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금식을 상징하는) 슬픔과 비통에 대한 모든 필요를 제거한다. 그분은, “신랑이 빼앗길 때, 그러면 신부가 슬퍼하고 비통할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신부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으니,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될 때 였다. 그러나 우리 주의 부활과 함께, 그분의 높여지심과 보좌에 앉으심과 또 은혜에 속한 그 영의 부어주심과 함께, 우리는 순수한 기쁨으로 이제 기뻐한다. 신부의 금식의 날은 끝났다! 우리 죄들은 없어졌다! 은혜와 의와 영생이 우리 소유다! 그리스도, 우리 충성된 구원자, 우리 거룩한 신랑은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우리가 금식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자신을 신랑으로,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그의 신부로 비유하셨다 (에베소서 5:25-30).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친히 결혼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셔서 그분 자신의 피로 씻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젖어 들었으며, 그분이 예비하신 혼례 복을 입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 우리는 그분의 부드러운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연합을 누릴 특권을 받았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소유이다. —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쥘니라!” (마가복음 10:9) — “그가 이혼하였다!” (말라기 2:16). 우리 혼의 신랑이신 그분은 어느 날 그분의 아버지와 모든 우주 앞에서 우리를 그분의 정숙한 처녀로, 흠없고, 거룩하고, 나무라 데 없는 자로 제시하실 것이다!

혼합되지 않음

36-38 절에서 주 예수께서 영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섞으려는 시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 구원자께서 이 비유를 금식에 대하여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면서 전하셨다. 바리새인들에게 금식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일상적이고,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의식이 되었다. 그것은 거룩과 경건과 헌신에 대하여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요한의 제자들 역시 이 종교 관습을 크게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언제나 그것을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셨으며 금식과 기도와 베푸는 가운데 있는 그것을 주장하셨으며 (마태복음 6:16-18), 사실상 어떤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종교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신랑의 친구와 그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것이 합당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것을 요구함은 현 천에 새 천 조각을 깎거나, 새 포도주를 낚은 병이나 부대에 담는 것처럼 어리석었다.

사실상 여기서 주어진 비유는 많은 일들에 적용될 수 있을 분명한 격언의 말씀이었다.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분명히 이것이다: —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할 것을 쉬으려 결코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많은 큰 악한 일들은 이 비유의 공과가 분명하게 유의되었다면 피할 수도 있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많은 악행은 이 공과를 따른다면 고쳐질 수 있었다.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들과 혼합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모세 율법 하에서처럼 인견과 양모를 혼합하는 것과 황소와 당나귀로 쟁기질 하는 것은 금지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율법과 은혜, 육신과 영, 그리스도와 세상, 혹은 세속적인 계명을 영적 경배와 혼합할 수 없고 절대로 혼합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갈라디아에 있는 문제는 유대교인들이 목은 포도주인 모세 율법과 의식을 은혜의 새 병 속에 넣으려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려 하였다. 그들은 율법과 복음 모두를 붙잡고자 하였다. 그들은 모세와 그리스도 모두를 원했다. 그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영적 할례와 섞으려 하였다. 그런 혼합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자유 하여야 한다. 두 가지 모두일 수 없다 (갈라디아서 5:1-4).

초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이교도 세상의 철학과 종교적 관습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혼합하려 하였다. 아무것도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 초기에, 사도들 이후,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이 살고 있었을 동안에도 이교도의 종교적 관습과 전통과 사상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혼합하므로써 복음을 세상의 입맛에 맞추려 하였던 자들이 있었다. 결과는 재앙적이었으며, 그리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 시대에 타협이 로마로 가는 길을 텅 텅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능한 속히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길을 포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데 있어서 육체와 영이나 행위와 은혜를 결코 혼합 하려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빌립보서 3:3).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있어서 십자가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는 그림이나, 형상이나, 천사들의 그림이나, 종교 유적과 상징이나, 율법적 규범이나, 안식일 준수나, 의식주의나, 십자가를 긋는 것이나, 무릎을 꿇는 것이나, 우리 주께서 정하시지 않았고 신약 성경 안에서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행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위한 자리는 절대 없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꺾매려 한다. 하나님과 물질을 모두 섬기려 하는 자들이, 우리 주께서 틀렸다고 증명하려 결정 했던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신앙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지지만, 세상을 섬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즐기고 싶어하지만, 세상의 낡은 병에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한다. 그들은 제자 직분의 새 옷을 철저하게 떨시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대가나 십자가 없이 그것을 원한다. 따라서 그들은 세상에 대한 쾌락과 갈망과 사랑의 낡은 옷에 그것을 꺾매려 한다. 그들은 어느 날 그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시도 했음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낡은 병에 넣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율법과 은혜, 육신과 영, 세상과 그리스도는 분명히 혼합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은 증오해야 한다.

39 절에서 우리 주께서 “묵은 것이 더 좋다”는, 언제나 더 낫다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 안에서 자주 포도주와 비교된다. 포도주는 주의 만찬에서 구원자의 피를 상징한다. 복음은 그 달콤함과 그 살리는 특성과 그 조용한 효과 때문에 포도주에 비교된다. 만약 당신이 전에 복음의 묵은 포도주, 대가 없는 은혜의 묵은 포도주를 맛본다면, 이 배교 시대의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미야 6:16).

30 장. “첫 번째 이후 두 번째 안식일”—누가복음 6:1-5

“(첫 번째 후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밧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1-5).

성경 내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 6 장을 여는 구절들 안에 사용되고 있다. 수 백 년 동안 아무 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던 단락이다. 그 구절은 — “첫 번째 이후 두 번째 안식일”이다.

과거 위대한 신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단락이 유대인의 유월절 주간 동안에 추수의 첫 다발을 자르고 난 이후의 안식일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 단락이 유대인이 매년 지키는 세 번의 큰 안식일 (유월절 절기 — 오순절 절기 — 성막 절기)과 이 안식일은 오순절 절기 동안 지켜지는 안식일이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물을 필요 없이,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그 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후 두 번째 안식일”이거나 (보다 축어적으로) “두 번째 첫 안식일”로 알려진 안식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누가 관심할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 왜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가 이런 특정한 말을 여기에 기록하도록 감동하시고 지시 하셨을까? 그것이 내가 알기를 관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 안식일의 주는 율법의 첫 번째, 세속적이고, 의례적인 안식일을 성취하고 영원히 폐지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로써 그분께서 복음의 복된 두 번째 안식일을 성취 하시게 되었으며, 그분이 영원히 그분의 백성의 안식일의 안식이 되시려 하는 것이었다. — 그리스도는 우리 안식일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

첫째, 하나님의 영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의 극명한 예를 제시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이 어떤 안식일에 옥수수 밭을 통하여 걸었다는 것을 듣게 된다. 그들이 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배가 고팠으므로 알곡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 한 입에 털어 넣었다.

즉시,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을 그들이 생각 하였던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를 씌웠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네 번째 계명을 어겼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여기서 드러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제자들의 행위 안에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행위에서 보인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것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 의의 죄이다. 우리 주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복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를 경고하신다. 그것이 닿는 것마다 부패하게 하고 파괴하는 누룩은 자기 의(독선)와 위선이다. 독선과 위선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들인 종교에서 외적인 것들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마음의 경배를 무시한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에 까다로운 사람들이지만, 탐심으로 악명 높다 (누가복음 16:14). 그들은 어떤 것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의례적 종교적 잔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을 트집잡았고,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 타조를 삼켰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검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급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영을 싫어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의를 미워하신다. 아무것도 자기 의의 짐새보다 그분께 더 질색인 것은 없다 (이사야 65:1-5; 누가복음 18:9-14; 미가 6:6-8; 마태복음 23:23).

그리고 아무것도 자기 의보다 더 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가로막는 것 같은 것은 없다 (로마서 9:30-10:4).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종교의 모든 행위, 실행, 고백, 허세는 당신의 혼에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 주의 몸을 분별하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구원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단락 안에서 지키는 구원자로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자 마자 곧 주 예수께서 그들의 주장을 보시고 제자들을 그들을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지키셨다. 그분께서 그들의 대적들의 트집잡는 것에 대답하셨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직접 대답하거나 방어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그분이 그들 대신 대답하셨고 그들을 지키셨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격려함이 있으며, 기쁜 그림으로 우리를 대신한 우리 구원자의 끊임 없는 역사가 아닌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불리던 자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 안에서 읽었다 (계시록 12:10). 그는 사탄이며, 어둠의 왕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그의 참소를 위한 많은 터를 제공하면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를 용납하는지! 얼마나 많은 혐의를 그가 정당하게 우리에게 두게 하는지! 그러나 우리 구원자이신 그가 언제나 우리 주장을 하늘에서와 땅에서 탄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방어, 우리의 방어자이다 (요한일서 2:1-2; 로마서 8:28-35).

나의 적, 마귀가 나를 땅에서 사람의 입으로 어떤 악행에 대하여 참소 할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대답하시게 하라.”고 대답한다. 지옥의 마귀가 종종 했던 것처럼, 나를 내 자신의 생각과 양심 속에서 끔찍하게 악한 것들로 나를 참소 할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대답하시게 하라.”고 대답한다. 심판의 날에 그 사악한 자가 나타나서, 참소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나를 향하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의 범죄로 혐의를 씌우려 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대답하시게 하라.”고 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

셋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로 향하게 한다. 나는 이 단락에 대하여 한 해설자의 설명을 읽었으며, 그가 기록한 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가 율법 존중을 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가 기록한 것으로 놀랐다. 그가 안식일 준수를 지키도록 시도하면서, 그는, “우리는 이 단락에 있는 주의 말씀을 네 번째 계명이 더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묶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엄격하게 율법의 노예 상태로 묶어두려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은 안식일의 주이시고 우리의 안식일이다 (누가복음 6:5).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4)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16-17)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안식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을 세우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안식일이 세워진 이유이다. 그분이 바로 안식일이 가리키는 분이며, 안식일로 예표 된 분이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충만케 하신 분이다. 안식일을 충만케 하심으로, 그분은 그것을 영원히 폐지하셨다 (로마서 10:4; 골로새서 2:16-17).

우리는 믿음에 속한 복음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과시적인 실행은 골로새서 2:16 에서 확실하게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후 두 번째 안식일”이라 하는, 그리스도 안의 안식인 복된 안식일을 지킨다. 그분께 나오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그치고 그분 안에 안식한다 (마태복음 11:28-30; 히브리서 4:9-11).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벌은 사망, 영원한 사망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요한복음 3:36).

예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으니,
“내게로 와서 쉬라;
누워라, 네 지친 몸을 뉘어라,
네 머리를 나의 가슴 위에 기대라.”

내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왔으니,
지치고, 야위었고, 슬프도다;
그분 안에서 안식할 처소를 찾았고,
또 그가 나를 기쁘게 하셨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31 장. “또 다른 안식일에”—누가복음 6:6-11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 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 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누가복음 6:6-11).

왜 주 예수께서 그분의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를 그토록 많이 안식일에 하셨는가? 왜 그가 아셨음에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었을 것을 말하고 행하려고 그분의 가시던 길에서 자주 벗어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반역자 죄인들을 어떻게 만나시나? 안식일의 본성과 목적이 무엇이었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이 모독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단지 사람이었나, 아니면 한 영광스럽고 땀 수 없는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고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되는가? 주의 부르심 안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으로 부르시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로운 권능이 사람들 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모든 질문들은 누가복음 6:6-11 에서 성령께서 분명하고 결정적으로 대답하신 것들이다. 여기서 누가는 우리에게 아주 짧지만,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치료에 대한 매우 교훈적인 이야기를 주고 있다. 우리 주의 모든 기적들처럼, 이 기적적인 치료는 선택 받은 죄인들 가운데 그 위에 임한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의 그림이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교훈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행해졌다.

의도적인 대립

이 단락에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것은 우리 주의 바리새인과 의도적인 대립이다 (6,7, 9 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빙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복음 전도는 언제나 대립적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대적들에게 보내지며 그들과 대적하도록 보내지시, 그들을 잘 돌봐주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을 애지중지하고, 그들과 거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대사들로서 주권적인 주의 주장으로 그들과 대립하기 위해서 이다. 주이신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을 별개로 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 같은 것은 없다 (누가복음 14:25-33).

이 단락에서 우리 구원자에 의해 분명하게 예증된 이 대립을 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로서 모두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였다. 그분은 언제나 그러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죄인들과 그들의 반역의 지점에서 대립하시며 그들의 주이신 그분께 항복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이 그분께서 부자 청년 관원(누가복음 18 장)과 사마리아 여인(요한복음 4 장)을 다루신 방법이다. 이것은 또한 이 단락에서 우리가 본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우리 주께서 이들 자기 의와 종교적 위선자와 안식일에 대립하신 많은 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안식일에 얼마나 자주 그분의 기적같은 역사들을 행하셨는지 알아차렸는가? 그분이 왜 그분의 전능한 공훈을 이렇게 많은 경우에 보이려 안식일을 선택하셨는지 의아스러운 적이 있는가? 그분이 이 사람의 손마른 팔을 치료하셨던 것은 안식일이였다. 그분이 회당에서 귀신들린 자를 치유하신 것은 안식일이였다 (마가복음 1:21-28). 십팔 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 받았던 여인이 안식일에 그분의 공훈로 치유 받았다 (누가복음 13:10-18). 주 예수께서 고창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신 때가 안식일이였다 (누가복음 14:1-6). 벧세다 못 가에서 절름발이 남자를 치료하셨던 것이 안식일이였다 (요한복음 5:16). 그리고 소경으로 난 자를 치료하였던 것이 안식일이였다 (요한복음 9:1-12).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일들은 우연히 안식일에 행해지지 않았다. 그 일들은, 안식일에 대한 것일지라도, 주로서 모든 것에 대한 통치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한 우리 주의 계산된 계획을 위하여 안식일에 행해졌다 (5절).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켰던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다. 안식일의 율법을 주었던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다. 인자로서,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시게 되었다. 하지만, 그분은 율법의 주이시다. 그런 것처럼 그분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므로, 그분은 율법의 멍에와 속박 아래 계실 수 없다. 율법은 왕을 다스리지 않는다. 왕이 율법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왕이다.

주 예수께서 종교적 율법주의 자들의 위선과 비열한 전통을 드러내고 정죄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이 가련하고 궁핍한 혼 위에 공황을 베푸는 역사를 수행하시기로 택하셨다. 우리 주의 날에 있었으므로, 우리의 날에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적 율법주의 자들이 사람들에게 안식일 율법을 강요하고 억지로 행하게 하려는 노력보다 더 위선적이고, 사람들의 종교적 관습과 전통에 더 속박되고, 더 비열한 것은 없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우리 주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으려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의도는 주를 고소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그분이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거절하셨다면, 그를 치료하기에 약하고 능력 없거나, 그를 치료하지 않은 잔혹함으로 그들은 그분을 고소하기를 원했다. 그들이 하려 했던 어떤 대답도 그들을 드러내게 되었을 것이다. 이 종교적 위선자들은 그가 치료 받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을 보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불구의 팔로 떠나는 것을 선호했을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덜어주기 보다 율법의 엄격함(그들의 율법 해석)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비열함에 대해서 변명하였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참 본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일에 공휴에 속한 이 기적을 행하기로 선택하였다. 안식일은, 다른 율법, 모세 율법의 모든 계명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묘사하기 위하여 계획되었고 가르쳐졌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 숙박의 날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안식을 묘사하는 날이라는 것이 의도되었다. 안식일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선, 영원한 선을 행하시며, 누가 해악을 받을만한지를 그리스도 안에 죄인들이 안식하게 하므로 써 보여주려 계획되었다 (마태복음 11:28-30).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생명을 구원할 지를 계획하셨는지를 보여주려 지정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료된 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안식에 대한 그림이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행위를 그치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안식일의 율법을 성취하고 영원히 끝내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하여 안식일에 이 기적을 행하기로 선택하셨다 (9 절). 그렇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로마서 10:4).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성취하셨으며, 끝내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16-17).

하나님의 속성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사항은 하나님의 속성의 나타남이다. —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8 절). 주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셨다.” 이것은 그로써 성령께서 우리 구원자의 영원한 신격에 대한 사실을 선포하는 신약 안에서 주어진 많고 많은 거의 우연하고 무심한 언급 가운데 또 다른 것이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 그 이상이다. 이 사람은 전지하며,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4:13).

우리 구원자이신 그가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고 분명히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실로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분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신격을 타협하려는 사람들의 모든 시도는 복음의 부인이자 신성모독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며, 무소부재하며, 불변하고, 영원하며,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이단들이다. 스스로 하나님이신 유일한 한 분이 사람들의 생각을 보고 들으신다.

어떤 것도 우리 복된 구원자의 전지하심 보다 더 겸손하고, 동시에 믿는 마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없다. 종교적 위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에게 이것은 끔찍한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것은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안팎으로 알고 계시다는 사실로 겸손하도록 하자. 아무것도 그분에게서 숨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아신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그의 끔찍한 죄 이후 주어진 위로였다는 것이다. 그는 주 예수께 말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15, 16, 17). 우리 위대한 구속자의 이름은 여호와이레—“주께서 감찰하시리니.”—“주께서 예비하시리라.”—“주께서 보이실 것이리라.”이다.

효험 있는 명령

이 단락에서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사항은 효험 있는 명령이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다.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무리를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8, 10 절).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오순절파들의 거짓 기적들과는 달리, 우리 주의 기적적인 역사들은 밝은 대낮에 행해졌고, 모든 사람이 현재 알고 있던 무력한 사람들 위에 행해졌고, 가능한 가장 공개적인 방법으로 행해졌다. 그분은 치료자인 척 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분은 치료자이다. 그러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마른 손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마른 손의 치료는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전능한 공효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택 받은 죄인들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게 행하신 훨씬 더 큰 은혜로운 기적을 묘사하기 위하여 우리 주에 의해 행해진 기적이었다! 이 사람의 치유는, 그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전능하고 효험 있는 부르심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가장 교훈적인 그림이다. 그것을 보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여기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부름이 있다. 기록되기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리니라.” (요한복음 10:3). 이것은 또한 구별되고 특정한 부름이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혹은 그들이 어떤 필요에 이르렀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누가는 이 경우에 있어서 주께서 이 사람 외에 아무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고 구별된 은혜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지 (시편 65:4; 마태복음 22:14; 고린도전서 4:7).

“내가 당신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네,
주께서는 그럴 수 없었네.
이 마음이 아직도 당신을 거절하였으리니,
당신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다음으로,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이 절대 할 능력이 없던 것을 하라고 하셨다. 주께서 불가능한 명령을 발하셨다. 그분은 말라버리고, 쇠약해지고, 마비된 팔을 가진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하셨다. 만약 그가 그의 손을 내밀을 수 있었다면, 그는 거기 있지 않았을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만약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능력이 없다면, 그는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려는 그런 시도는 물을 잡지 못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그의 마른 손을 뺨을 것을 명령하셨다.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대답을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이 사망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로 피신 하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단지 그의 의지의 실행으로 그의 손을 뺨지 않았다. 그가 단지 그의 손을 뺨을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가 단지 그의 손을 뺨기 위하여 그 스스로 안에서 힘을 모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손을 뺨었다. 어떻게? 그 대답이 누가복음 18:26-27 에서 발견된다. 명령을 발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을 주셨다.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을 뺨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이 사망에서 일어나도록 명령 받았고, 그들의 마른 손을 내밀도록 명령을 받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복음에 순종하는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를 미든 어떤 죄인도, 영적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께 오는 어떤 죄인도 즉시 온전해지며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어떤 죄인도 그것을 할 수 없다. 기억하라. 죄인은 죽었다! 그는 팔을 앞으로 뺨을 능력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께 올 능력이 없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께서 그분의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생명 주는 능력으로 사망한 죄인을 부르실 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죄인은 사망에서 살아나고, 그 마른 손을 뻗으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하게 된다.

전도자들에게는 능력이 없다. 어떤 사람이 들은 모든 것이 전도자의 음성일 때, 그는 죽은 채 남아 있다. 전도자의 음성에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름 안에 능력과 생명 주는 부활 능력이 있다 (요한복음 5:25; 데살로니가전서 1:4-5; 계시록 20:6).

우리는 또한 이 사람이 그 손을 뻗을 때까지는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주의 명령이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이 가련한 사람은 그의 손을 뻗었다. 그는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하여, 주께서 그것을 정하셨는지 아닌지, 혹은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될지 안될지에 대하여 언쟁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그의 손을 뻗었다. 그가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손은 온전해졌다.

나누는 구원자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11 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로운 기적들은 언제나 사람을 나눈다. 우리 주께서, “나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34)고 하셨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를 행하실 때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분열이 만들어진다. 복음은 사람들과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분리한다. 그것은 어둠과 빛을 나눈다. 그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한다. 그것은 염소들과 양 떼를 나눈다. 그것은 어떤 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에게 생명을 이르는 생명의 향기이며, 다른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다 (고린도후서 2:14-17). 이 경우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격분하였고, 손 마른 사람은 온전하게 되었고 주의 제자들은 믿음이 더했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격려를 받았다.

32 장. 기도, 전도, 능력—누가복음 6:12-19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 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누가복음 6:12-19)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우리 주의 열 두 제자들에 대한 우리 주의 부르심과 안수에 대하여 성령께서 설명하신다. 비록 사도 책무가 사도 시대에 그쳤지만, 이 사람들의 부르심은 여전히 매우 교훈적이다. 이 단락은 우리에게 복음 사역에 대한 축복 받은 일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친다.

첫 번째 안수 예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열두 사람들은 이 복음 시대에 그리스도에 의해 분별된 첫 번째 사람들이었으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종종 “그리스도인 사역”이라 부르는 것의 시작이었다. 물을 필요 없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이 전했던 것과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 침례자 요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그 동일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종들의 단일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Scott Richardson 이 한 번은, “그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어떤 설교도 그 착상에 있어서 실수이며 그 실행에 있어서 범죄이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안수 예배였다. 복음의 일에 대한 어떤 사람의 안수는 주 하나님 자신의 일임을 보도록 하자.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그분의 안수이다. 우리의 공개적인 안수 예배들은 단지 지역 교회에 의한 사람의 은사의 공개적 인정일 뿐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자로 만들 능력이 없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역에 안수함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그를 천거함으로써, 그의 은사에 대한 우리의 인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 자신을 공개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신약의 본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퇴보 하였던가! 이 퇴보는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이 첫 번째 안수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인다. 오늘날 “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그 이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내에서만 비슷하다. 우리 주께서 열둘을 안수하셨을 때, 그 전체적인 일은 단순하고 확고하였다.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한 모든 것 안에서처럼, 복음 사역의 일과 관련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좌우되고 결정된다.

기도

주 예수께서 이들 첫 번째 열두 전도자들에게 안수하셨을 때, 그분은 많은 기도 후에 그렇게 하셨다. —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며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13 절).

이 사실이 신성한 예배의 모든 방면들 안에 있는 기도의 큰 장소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언제나 그분의 백성의 뜨거운 기도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다.

목사를 구할 때 회중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마음을 따라 목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라 (예레미야 3:15). 어떤 사람이 복음 사역의 일을 짊어지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다. — 출애굽기 33 장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실 것을 기도하라. —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13, 1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혹은 받지 않았는지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면 그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주께서 그 일을 위하여 충분한 은사와 그 일을 위하여 부담을 그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일에 두실 것이다. 만약 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 안으로 두신다면, 그분은 그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사랑을 주실 것이며, 그 일 안에서 성공을 주실 것이다.

자기도취는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다. 아무도 그 혼 가운데 불타는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달려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전도자들은 복음의 일에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

그리스도의 뜻을 돕고자 하였다면, 그분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2-13).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1-2).

만약 당신의 목사가 하나님의 손에 유용하려면, 그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는 기도 가운데, 공부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훈 가운데, 행동 가운데 충성되어야 한다. 그는 중의 말씀의 부담을 져야 한다. 책임은 엄청나다. 당신의 목사는 그가 만약 충성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영원히 속박된 죄인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혹은 정죄의 말씀의 무게를 짊어진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찮고, 약하여 죄로 충만하고, 쓸모 없는 벌레 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혜, “지식과 깨달음”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다.

전도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16).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만 사람을 죽하게 하는 일이다. —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14-16 절).

이 열두 명을 보라. 그들 중 넷은 어부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세리였다. 그들은, 대개는 적어도 갈릴리인들이었다. 그들 중 아무도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세상의 판단으로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사도행전 4:13). 이 사실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가?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었는가?

1. 하나님이 교회와 왕국은 전적으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하나님의 교회는 힘으로나, 권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건축된다 (스가랴 4:6; 고린도전서 1:26-31).
2.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세속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고린도후서 10:3-5; 로마서 1:15-17).

첫 열두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 마귀이고 배신자였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게 할 것이다. 나는 종종 왜 주 예수께서 유다를 열두 가운데 두셨는지 이상하게 여겼다. 당신은 어떤가? 주께서는 유다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위선자였음을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를 사도들 가운데 두셨고, 그와 함께 전도하셨으며, 주의 만찬에서 함께 앉으셨다. 왜?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여야 할 이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 주께서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자기 시험의 필요성을 가르치려 하셨을 것이다.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2). 하나님의 종들은 우상화 되면 안 된다. 그들을 높이 존중하라. 그들을 위하여 충성되게 기도하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본을 따르라.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21). 어떤 충성된 사람도 지나친 찬사나 맹목적인 충성을 바라지 말라 (고린도전서 3:5-9; 고린도후서 4:1-7).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선한 것과 섞인 나쁜 것,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양 떼 가운데 염소를, 충성된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를 찾아내기를 기대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타락한 자와 보배로운 자를 가르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 만약 사람의 말이 거짓 복음이라면, 그는 분명히 자신을 거짓 선지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마음의 진의를 읽을 수 있다고 감히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 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능력

복음 전도의 능력과 효험에 대한 큰 비밀은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 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17-19 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려 오셨다. —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서셨다.” 복음을 들으려 왔던 사람들은 많은 필요를 갖고 왔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왔다. 그들은 치료를 받을 갈망으로 큰 필요를 갖고 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만지려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성령 하나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큰 필요를 우리에게 언제나 보여주
시고 알게 만드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므로, 우리 하
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구원자의 말씀을 듣기를 구하고, 그분을 만
지기를 구하고 그분에게 감동을 받도록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매
번 모이게 하시고, 우리 혼에 그분에게서 능력이 흘러 들어 오기를
바란다!

33 장. 네 가지 큰 대조—누가복음 6:20-26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찐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찐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찐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20-26)

이 몇 개의 감동의 구절들 안에서 계시된 것들은 오직 강한 자만 먹을 수 있는 말씀의 중심이다.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속한 신성한 주권, 영원한 예정하심, 대가 없는 택정하심, 특별히 효험 있는 구속,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영원한 보증에 속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교훈은 아기 젖이고 아기 음식이다. 택정하심과 예정하심의 젖으로 먹이기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여기서 우리 주의 교훈 가운데 계시된 것들을 질식시킨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속한 것을 선포한다. 이것들은 우리 육신에 쓴 영적 진리들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누가가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것들을 볼 눈과, 들을 귀와, 분별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란다.

분명한 차이점들

여기서 시작한 설교가 이 장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동안, 산 위에서 우리 주의 설교를 여러 가지로 답았는데 (마태복음 5-7 에 기록됨), 그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많은 수의 대다수 좋은 해설은 그 둘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게 된다. 비록 유사성이 있지만, 차이점들이 분명하다.

한 가지를 들면, 마태가 기록한 설교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당하게 부르는데, 산 기슭에서 전해진 설교였기 때문이다. 여기의 설교는 평원에서 전해졌다 (17 절).

산상수훈은 우리 주께서 그분의 열두 사도들의 이름을 짓기 전에 전해졌다. 이 설교는 그분이 그들의 이름을 지은 후 즉시 전해졌다.

두 설교가 그 길이에 있어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 마태가 기록하도록 감동을 받은 것보다 더 동일한 말씀을 짧게 종합하여 제시하도록 누가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훨씬 더 긴 산상수훈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이 설교 안에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발견된다. 만약 이것이 단지 동일한 설교의 축약판이었다면, 우리는 생략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더 긴 설교에서 생략되었던 것이 여기서 포함되었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서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정말로 그분의 제자들이었으며 명목상으로만 그분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다. 이 일곱 절의 짧은 구절 안에서 그분은 나무 뿌리에 도끼를 대고 참된 믿는 자들과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 참 믿는 자들과 거짓 고백자들 사이의 네 가지 큰 확연한 대비로 구별하신다. 첫째, 그분은 네 가지 지복을 주시며, 그것들은 참 믿는 자들을 특징 짓는다. 그리고 네 가지 고통을 주시는데, 그것들은 거짓 고백자들을 특징 짓는다.

네 가지 지복

20-23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그로써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이 특징지어지는 축복의 네 가지 말씀, 네 가지 지복, 네 가지 참 축복과 기쁨의 조건들을 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 열거한 것들은 주목할 만 하고 충격적이다. 그것은 세상의 생각과는 철저히 다르게 동조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비통하며, 증오 받은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축복 되라고 하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각각의 지복을 보고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21 절). — 그분은, 가난한 자(the poor)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가난한 자들(YOU POOR)이 복이 있다.”고 하셨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1)고 하셨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마음의 철저한 타락과 부패와 죄로 충만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달은 자들이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함을 찾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자는 영 안에서 가난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는 그 외 것을 말씀하신다.

여기서, 주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께서 여기서 물질적인 가난을 영적 축복으로 만들고 땅의 가난의 기초 위에 하늘 영광에 대한 청구권을 주고 계시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육체적, 세상적, 물질적 가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은혜가 수반되는 가난이다.

주 예수께서 열두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세상을 복음화 하려 그들을 보내셨다. 그분은 적대적인 세상 속으로 세상의 지지를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이 그들을 내보내셨다. 그분이 하실 때,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러 가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말도록 분명하게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사람들의 무리에게서 미움을 받고, 박해 받고, 쫓겨날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종류든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복음화 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난 그 자체는 고결한 것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다. 사실상, 가난은 종종 신성한 심판의 결과이다. 우리 본문에서 주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자진한 가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은 은둔자나 수도사의 자진한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왕국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므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들 자신 위에 사람들이 가져오는 가난이다.

이것은 게으름의 결과로 초래된 가난이 아닌 것은 어떤 사람은 일하기에 너무 영적인 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치르고 포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는 그런 가난이다. 기독교 초기에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였고, 종종 생명 자체도 포기하였던 것은 그분 안의 그들의 믿음과 그분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

비록 우리 환경이 다소간 오늘날 달랐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모든 참 믿는 자들은 정확히 우리 주께서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하라고 요구하셨던 것을 한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을 따른다.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21 절). — 마태복음 5:6 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라고 하셨다.

거기서 우리 주는 하나님께 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모두라고 선포 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갈망하며, 의와 참 거룩 가운데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위로 받기를 갈망한다 (빌립보서 3:7-15). 이 의 이후로 진실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모두 그것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배불리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 주는 복음을 위하여 굶주린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합법적으로 누릴 것들을 스스로 기꺼이 빼앗긴 자들이다. 그들은 기꺼이 덜 소유하므로, 더 많이 줄 수 있다. 그들은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 풍부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없는 것을 더 좋아하므로 복음의 확대를 위하여 주어야 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은 육신이 갈망하는 것들은 오직 일시적이며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들은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우리는 만족을 구하며, 다른 세상에서 배부르기를 구한다.

이런 것들은 모든 참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고 그들 안에서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특징지어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특징짓는 문제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에 분별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복음으로 자신을 풍요롭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삶의 안락과 풍요를 희생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소유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혼을 구한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21 절) — 슬픔은 그 자체가 유익하거나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 주는 여기서 그분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믿는 자들은, 이 비통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끝없는 흐느낌과 눈물의 밤을 보낸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우리는 질병과 고통과 사별과 가정 파괴와 제멋대로인 자녀와 세상 고난을 겪는다.

세상의 슬픔에 더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은 그들을 슬프게 하는 다른 짐을 진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끊임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진다. 우리는 사람의 혼을 보살필 짐을 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과 영광에 대한 염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하지만, 눈물 가운데 심은 자들은 기쁨 가운데 수확할 것이다. —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5). 웃을 시간이 곧 올 것이다. 우리는 마침내 위로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곧 끝없고, 방해 받지 않으며, 영원할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의, 완전한 평강, 완전한 깨달음 그리고 완전한 만족의 기쁨이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2-23 절).

우리 주는 여기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할 박해, 종교적 박해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여기서 사용된 말씀은 성직자의 책망과 훈계에 관련하여 특별히 사용된다. 우리 주께서 복음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 위에 임하는 사람들의 분노의 더미를 묘사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말씀을 사용하실 수 없었다.

중요, 핍박, 비난, 질책은 사탄의 도구들이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의 도구들이 아니다. 사람들의 분노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분노가 우리에게 매우 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상황이 곧 뒤집어 질 것이다.

네 가지 화

“그러나 화 있을찐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찐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찐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4-26 절).

신약 성경 안에서 이 말씀보다 더 강하고, 더 날카로우며, 정죄하는 문장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한 부의 소유가 저주라고 상상하지 말아야 한다. 옴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큰 부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었다. 단지 웃음과 기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윗은 종종 웃음에 대하여 말했고 찬송과 춤에서 모두 그것을 나타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랐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명성을 갖는 것이 혼탁한 마음의 표시라고 상상해서는 분명 안 된다.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명성이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주께서 “화 있을찢저”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언급하신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에 비하여 세상을 좋아한 사람들이며, 그분의 은혜의 풍요에 비하여 세상의 부를 좋아한 사람들이고, 거룩의 기쁨에 비하여 정욕의 웃음을 좋아한 사람들이고, 경건에서보다 이득에 더 기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 사람들에게 대한 칭송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 주는 처음부터 자칭 교회 안에 많이 있었으며, 모든 세대 안에 그분의 제자임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아셨으며,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그것을 사랑할 것을 고백하였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음을 아셨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화 있을찢저!”라고 하신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선포하시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라. 이것이 이 단락의 교훈이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기로 택하였으므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소유자들이다. 부자가 되기로 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택하고 추구하고 얻은 자들은 그들의 종이 먹는 보화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질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두꺼운 진흙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반역에 배부르기 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므로 굶주리기를 선호하는 자들은 영원히 배부를 것이다. 그들의 배와 정욕을 채우려 사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굶주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슬픈 길을 택한 자들, 그들 마음 위에 무거운 문제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들은 천국에서 완전한 만족의 웃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비탄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호의와 칭송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을 선호하는 자들은 영존하는 칭찬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계수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에 비하여 사람들의 호의와 칭송을 더 선호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영원히 영존하는 위로의 대상이 될 것이다!

34 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나?—누가복음 6:27-38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 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27-38)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믿는 자라면, 매일 매일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종종 처할 때 나오는 질문임을 확신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존귀를 위하여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주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가? 이 곳에서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언제나 옳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을 포함하는 우리 이웃들은, 우리의 가장 무자비한 대적들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 단락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교훈이다. 그분께서 은혜롭게 그분의 교훈을 그분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적용하시기를 바란다.

여기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선포하신다. 사랑은 참 기독교의 큰 구별되는 표시이다. 사랑은 평강의 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콤한 매임이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이다. 사랑은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사랑은 먼저 그 영의 열매로 구별되는 달콤한 은혜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며 이 구절들에서 가르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열심히 실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기조차 할 것이다.

호소의 근거

이 글을 읽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전형적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당신의 형제 자매들과 당신의 이웃들을 사랑할 것을 호소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본으로 삼을 수 있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 사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엉덩퀴 사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 뿌리가 없는 곳에서 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나무가 없는 곳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하고,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며, 그분의 은혜로 성화되지 않으면 그 영의 열매를 얻기란 불가능 하다. 하나님께서 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증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내 호소의 근거는 이것이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였다면, 그와 동일한 공훈과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4:32-5:2).

그 영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 영의 열매를 소유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희생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큰 고통을 겪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경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쌓여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8:1-2 와 요한복음 9 장에 있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보여진 사랑의 위선적 속임수만 있을 뿐이다.

J. C. Ryle 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은, 정말 순수하며 자기 부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믿음 말고는,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 말고는 결코 어떤 곳에도 뿌리를 두고 자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할 수 없다. 다른 어떤 원칙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헛된 수고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며 알 수도 없다. 그들 가운데 내주하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였는가? 그분의 영으로 거듭났는가?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았는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의로 옷 입었는가? 당신은 구원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사함 받았고, 하늘로 난 혼인가? 만약 그렇다면, 내 호소의 근거는 우리가 체험한 공훈과 사랑과 은혜이다. 나는 구원 받은 죄인들이 그들의 구원자처럼 행할 것을 호소하겠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로워야 하고, 또 그러하다. 공훈을 체험한 사람은 자비로워야 하며, 또 그러하다. 사함을 받은 자는 용서하여야 하며, 또 그러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한다.

사랑의 특징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랑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다. 참 사랑의 본성과 특징은 그분의 사랑의 본성과 특징이다. 얼마나 자주 당신은, “그들은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가? 참나 그들의 방법이란다. 만약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다.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은,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누가복음 10:29)라고 묻는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7-28 절).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우리 구속자의 사랑과 같아야 한다. 이타적이고, 사심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사랑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가 없이 사랑하자. 그분이 사랑하시는 죄인들 가운데 그분 자신을 위한 사랑을 직접 창조하시지 않는 한, 그분은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진노를 제외하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사랑이 대상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며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35 절).

우리를 경멸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런 하나님을 증오하고, 자기분위 사회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혼인 상담가,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을 무시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29-30 절을 읽으면 보게 될 것이다.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 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여기서 철저한 소극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빼앗고, 우리 가정을 취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허락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여기서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사소한 것들을 사소한 것들로 취급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얼마나 기도하는지!

사랑은 행복하는 것이다. 사랑은 많이 포기한다. 사랑은 많이 인내한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다툼을 피하려 애쓴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하여 개인적인 권리와 욕망을 희생하며, 심지어 평강을 위하여 사악함에도 복종한다. 사랑은, 우리 혼의 큰 사랑하는 자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낮으며, 오래참고, 평온하고 친절하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사랑의 특징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로마서 12:9-21; 14:19; 고린도전서 13:1-13).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서로에게, 우리 주변의 세상에게 그것을 예증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거룩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지배되고, 통치 받으며, 자극을 받는가?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 안에 생산하신 종류의 사랑을 갖고 있는가? 나는? 사랑은 참 경건에 있어서 절대 필연적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모든 다른 것들을 갖고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의 부재는 치명적이다. 이 공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신이 그 단락들을 읽으면서, 당신 자신에게, “사랑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매우 큰 미덕이고, 가장 훌륭하고 유용하다.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매우 큰 일이 될 것이다.” 아,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모든 자를 특징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타락한 사람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사실이다. 이 사랑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채워지는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한 분명한 결과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다른 모든 영적 은사와 은혜보다 더 크다. 사랑이 없이는, 다른 모든 은사와 은혜는 의미가 없고 쓸모 없다 (고린도전서 13:1-3). 이 한 가지, 사랑은 하나님은 율법의 성취이다 (마태복음 22:36-40; 로마서 13:8-10). 그리고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의 연합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표시이고 증거이다. 그분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고 하셨다.

이 사랑이 부재한 곳에, 은혜는 없다. 아무도 삶의 통제 원칙으로서 그 마음 속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없다 (요한일서 2:9-11; 3:14, 23; 4:7, 8, 16, 20; 5:1).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는지는 쉽게 구별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신학의 요지가 아니다. 그것은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쓸모 없고, 감정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성한 은혜의 선물이며,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삶 가운데 보여진다 (고린도전서 13:4-7). 이 사랑은 사람을 친절하고, 인내하고, 만족하고, 점잖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관대하며, 정직하고, 진실되고, 참을성 있고, 용서하게 한다.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보다 좋으며 다른 은혜들 보다 더 큰데,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3:8-13). 다른 모든 은사는 종말에 이를 것이다. 다른 모든 은혜는 그쳐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될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믿었던 그분을 볼 때,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은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소유할 때,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도, 계속될 것이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사랑은 앞으로 올 세상 속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 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천국은 사랑과 온전함과 그치지 않고 영화로운 그리스도 같은 사랑의 세상이다. 아무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평강의 그 성과 사랑의 세상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축복 받은 통치

우리 사랑의 구원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살아야 할 매우 단순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축복된 통치, 사랑의 통치를 주신다. —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1 절). —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7 절).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 사이의 선이, 이웃과 친구들, 가족과 적을 대하는데 있어서 종종 매우 막연한 것임을 아셨다. 개인적인 느낌과 사적인 이익은 종종 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흐리게 하며 우리의 심판에 구름이 끼게 한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지침을 주셨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대하게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악에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되돌려 주는 것은 짐승 같은 것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우리 주의 발걸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를 가능한 관대하게 판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위와 말에 대하여 가장 좋은 해석을 하도록 언제나 노력하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매우 천천히 하고 용서하기를 빠르게 하자.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모든 잘못을 가혹한 편이 아니라, 관대함의 편에 있게 하자. 모든 것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하지 말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덜 표현하도록 하라. —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간단히 이해할 수 없는 원칙으로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의 본으로 산다 (요한복음 13:15; 고린도후서 5:14).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32-35 절).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므로,” 우리도 그렇도록 하자. 그분이 용서하시므로, 우리도 용서하자. 그분의 사랑의 친절이 남아지지 않으므로, 우리도 그러하자. 그분의 긍휼이 무한하므로, 우리도 그러하자. 그분의 동정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동정 또한 동정을 부어준 자들에게서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학대를 받음으로 변하게 하지 않게 하자.

사랑의 보상

35-38 절에서, 만약 그것을 이미 알지 않았다면, 그 사랑이 그 자체의 보상이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경 전체를 여기서 부정하지 않는다. 그분은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지, 혹은 천국에서 한 자리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절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사랑 안에서 행하며,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자녀들을 갖고 계시다. 모든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아들딸들을 갖고 계시다. 죄를 사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가족을 갖고 계시다. 사람들에게 관대하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대할 것이다. 사람들을 용서하면, 당신이 사람들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 주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줄 것이다. 관대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기란 쉽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기로 매우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관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7-11).

35 장. 세 가지 큰 위험—누가복음 6:39-45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39-45).

이 일곱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정신이 들게 하고, 교훈적인 비유, 세 가지 큰 위험에 대하여 귀가 있는 자는 모두 듣도록 경고하였던 비유를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피하도록 분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세 가지 크고, 영적인 위험들이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위험.
2. 독선과 위선의 위험.
3. 기만 당한 마음의 위험.

이 세 가지 위험한 덫으로, 사탄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계수되지 않도록 하자.

거짓 선지자들을 따름

첫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큰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39-40 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39-40 절).

이 두 구절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 주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지옥에서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만약 당신이 소경을 따른다면, 당신은 빛 가운데 걸을 수 없으며, 둘 다 지옥에 빠질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온전하신 그 분이 당신의 주시라면, 그 분과 함께 마침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 분이 땅 위를 행보하였을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에 대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자주 그 큰 위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들은 매춘 알선업자, 마약 밀매업자, 그리고 외설문화 (그런 것들만큼 끔찍한 것들)가 아니다. 아, 그렇지 않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이다. 만약 세상의 악한 자들이 수천 명을 살육하였고, 거짓 종교의 걸치레 선행은 수만 명을 살육하였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이 두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갈 것이다. 만약 당신의 선생이 오류 가운데 있다면, 당신은 오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을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이라면, 당신은 소경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소경 안내자를 따른다면, 그가 구덩이에 빠질 때, 당신도 빠질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들을 피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하나님보다 더 친절하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척하므로, 사람들이 자유의지의 체단에서 경배하고 여전히 대가 없는 은혜를 믿으며, 그들이 소경 인도자들을 따를 것이며, 비록 그들 스스로 보지만, 그들이 거짓 종교의 실행 속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참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확신하도록 노력 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단순히 그럴 수 없다.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한다. 그리스도의 양 떼는 낮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7:13-15; 고린도후서 11:2-3; 데살로니가전서 5:21-22; 요한일서 4:1-3).

그리스도는 문이다. 다른 모든 문은 파멸로 향한 문이다. 그리스도는 길이다. 다른 모든 길은 지옥으로 향한 문이다. 그리스도는 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이다. 다른 모든 것은 사탄의 거짓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다른 모든 것은 사망이다. 그리스도는 제단이다. 다른 모든 제단은 우상이다. 그리스도는 속량이다. 하나님으로 치장하려고 시도하는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의 속량에 대한 부인이다. 그리스도는 구원(지혜, 의, 성화, 구속)이다. 그분께 더해진 모든 것은 저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만약 당신의 혼을 염려한다면, 당신의 아들딸들의 혼을 염려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지옥까지 따라갈 것이다 (계시록 18:4).

독선과 위선

둘째, 41 절과 42 절에서 우리 주께서 독선과 위선의 큰 위험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독선과 위선은 언제나 함께 간다. 다른 하나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독선과 위선보다 사람에게 더 자연스럽거나 하나님께 더 불쾌한 것은 없다 (이사야 65:3-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심판의 날에 독선의 범죄보다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독선적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 —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 독선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들을 찾으며 그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무시한다. —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은 그들 자신 눈에 있는 들보로 지속적으로 허우적 거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없다. 독선적 위선자들은 그들의 조예에 대하여 자랑한다. — 믿는 죄인들은 그들의 실패에 대하여 비통해 한다. 독선적 위선자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 하나님의 성도들은 스스로가 그들의 형제에 비하여 약하고 못하다고 생각한다. 독선적인 사람들, 위선자들은 의를 성취하려고 한다. — 믿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로마서 10:1-4).

기만 당한 마음

43-45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만 당한 마음의 큰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지 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종교가 겉으로 얼마나 좋아 보이는 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당신이 말하고 행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당신 자신을 얼마나 감동하게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 당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건전한 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 당신이 계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키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 당신이 얼마나 많이 돈을 주고, 얼마나 많은 장들을 열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자주 교회에 출석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신다. 문제의 뿌리는 당신의 마음이다. 그분께서,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시편 23:26). 만약 마음이 의롭다면, 열매는 선하며,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쁘게 보이는 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마음이 악하면, 열매는 악하며,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하게 보이는 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마 우리가 여기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비유를 듣는 것이다 (누가복음 18:9-14).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9-14).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라. 독선과 위선을 경계하라. 기만 당한 마음을 경계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가지 큰 위험들로부터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36 장. 당신의 기초는 무엇인가?—누가복음 6:46-49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46-49).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가 없는 은혜로 만으로 구원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뜻한 것이나,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 받지 않았다. 택정은 은혜로만 있다.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역사이다. 거듭남은 대가 없는 은혜로 만의 역사이다. 우리는 은혜로만 은혜 안에서 지켜지고 보존된다. 성경의 교훈은 아주 분명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 2:9).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은 나사르가 사망에서 부활한 것과는 달리 더 이상 새로 태어남의 역사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들이 은혜의 체험에 있어서 수동적이라는 뜻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두드리고 그가 가고자 하든 안하든 천국으로 끌고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권능의 날에 자원하게 만드시며, 그분의 선택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가원하여 오도록 은혜롭게 강권하신다 (시편 65:4; 110:3).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두 무리의 듣는 자들, 두 종류의 종교적 사람들을 묘사 하신다. 구원 받은 자들과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참 믿는 자들, 은혜로 지혜롭게 된 자들은 어떤 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분의 은혜로 살아났으므로, 그분의 영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사랑의 매는 줄로 이끌렸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구한다. 따라서, 그들은 기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분의 명령을 행한다. 깊이 파서 그들은 기초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기초 위에 건축하였다. 그리고 기초 위에 건축 했으므로, 그들은 선다.

주 예수께서 또 이 단락 안에서 종교적 어리석은 자들을 묘사하신다. 종교적 어리석은 자 (마태복음 7:26)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지하게 취하지 않는 자이다. 그는 복음을 마치 현자가 말하는 것처럼 듣고 있으나,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거품이고 우둔함이다. 그의 종교는 표면적이고, 피상적이며, 거짓된 것 위의 모든 것이다. 그와 함께, 파는 것도 없고, 건축도 없으며, 세워진 것도 없다.

종교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거짓을 그의 피난처로 삼는 자이다 (이사야 28:14). 그들은 피난처를 갖고 있지만, 단단한 기초도 없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집이며,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행위와 개인적 선이라는 흐르는 모래 위에 지어진 거짓의 도피처이다. 당신의 기초는 무엇인가? 당신의 혼이 땅과 모래의 기초 위에 지어졌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지어졌는가? 구원 받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놓으신 기초인, 그리스도 예수 위에 건축되고 건축되었다 (이사야 28:16).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다. 가시적인 교회는 언제나 혼합된 군중이었다. 가라지는 알곡이 심겨진 곳마다 자란다. 염소는 양 떼와 함께 같은 들에서 풀을 뜯는다. 금을 발견하는 곳마다, 분명 황철광도 발견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행하고 전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자신은 말씀 안에서만 그들의 제자였던 많은 추종자들을 갖고 있었고, 그분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척하였지만 여전히 반역자들이었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던 많은 자들도 있었다.

이것은 46 절에서 우리 주께서 드러내셨던 악이다. —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것은 교회사를 통하여 언제나 고통스러운 사실이었으며, 그분을 모르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다. 그분을 따르지 않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입고 사용한다 (이사야 29:13; 에스겔 33:31; 마태복음 15:8-9; 야고보서 1:22).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보다 더 혼을 마비하고, 당신의 혼에 더 위협하며, 더 저주하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당신이 그분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분을 소유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현혹하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와 당신을 갈라 놓는 것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경건의 모양에 불과한 것보다 더 당신의 혼에 배신적인 것은 없다. 아무것도 거짓의 피난처보다 더 당신이 피난처를 찾는 것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없다 (이사야 28:14-20).

참 믿음

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정직한 마음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필요를 알며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추구한다 (예레미야 29:12-13; 빌립보서 3:7-14). 죄인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필요를 알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려 할 때, 그 자신 앞에서 지옥의 벌어진 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하시므로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될 때, 그는 진심 되게 된다. 그분에 대하여 냉담하거나, 하찮거나, 무관심한 것은 없다.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7 절). — 믿는 자들은 그들의 제사장이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께 열납 받기 위하여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오는 죄인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선지자로, 그들의 교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주와 주인으로서 그리스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믿는 자들을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로 묘사하신다. —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48 절). 그는 반석을 믿는다. 그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인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기초 위에 짓기를 거절하면서 깊이 판다 (이사야 28:16; 로마서 9:33; 10:11; 베드로전서 2:6).

“내 소망은 아무것 위에도 짓는 것이 아니니
예수의 피와 의 뿐이네.
가장 달콤한 틀을 감히 신뢰하지 않으니,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에 기댈 뿐이네.”

그리스도 예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안정되고 안전하다. 이단의 홍수, 역경의 시내, 고난의 바람, 유혹과 시험들이 집을 맹렬히 때리지만, 그 집을 흔들 수 없다! 그 집은 그리스도 예수, 반석 위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서 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파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시편 62:6-8).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2).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은 깊이가 없고, 피상적이며, 불안정 하다. —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49 절). John Gill 은 이렇게 썼다…

“그런 건축자들, 그런 건물은 사탄의 유혹의 폭우나, 세상의 박해의 홍수나, 그들 자신의 마음 속 정욕의 시내와 급류나, 혹은 이단과 거짓 교리의 광풍, 그리고 신성한 진노와 복수의 폭풍보다 훨씬 덜한 것에 버티고 서 있지 못하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자신을 지탱할 수 없다. 그들은 넘어지고, 그들이 넘어지는 것이 엄청날 것이며, 그들의 멸망은 불가피하고, 그들의 파멸은 회복 불가능 하다.”

주 예수께서 여기서 단순히 고백하였지만 믿음은 없는 자의 종교를 묘사하신다. 그의 종교는 세상의 종잡을 수 없는 상황 위에 지어진 집이다. 그의 희망은 그의 가련한 감정, 그의 흥분된 체험, 그의 종교적 배움과 지식, 교회 전통, 그의 자유 의지 결정, 그의 독선적 행동이나 감상 위에 건축되어 있다.

거짓 피난처는 빨리 지어진 집이다. 아주 인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단의 홍수, 역경의 급류, 고난과 시험과 유혹의 바람이 그 집을 칠 때, 무너진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무익한 청중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합되지 않고, 마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모래 기초 위에 있는 것처럼 느슨하게 되어, 곳은 날씨에 기초 공사 옆으로 미끄러진다. 접목 가지처럼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말뚝으로 땅에 박혀 있을 뿐이고, 쉽게 뽑히게 된다. 참 그리스도인은 생생한 믿음의 결속력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짜여져 있다. 산 돌로서, 영적 집에 건축되고 (베드로전서 2:5), 풍성한 달콤함과 평정을 갖고 비밀스러운 몸 안에서 자라며, 마치 성전 전체(솔로몬의 성전처럼)가 하나의 전체적인 돌이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17).” — John Trapp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이다. 당신이 그분 위에서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그분 위에 건축할 것인가? 하나님께 당신이 그분 위에서 건축하는 것을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과 협력하여 그분 위에 건축하시기를 바란다 (고린도전서 1:30-31).

37 장. 어떤 백부장—누가복음 7:1-10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좃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누가복음 7:1-10).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백부장과 그의 주목할만한 성격,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의 큰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만으로 인한 그의 몸종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다. 이 로마 병사는 주 예수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라고 말했다.

불일치 없음

이 동일한 기적에 대한 마태의 축약된 이야기를 읽는다면, 마태는 백부장과 주 예수 사이에 개인적으로 있었던 대화의 사건으로 묘사하였던 것을 볼 것이다. 여기서, 누가의 이야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대화는 백부장의 친구들과 주 사이였지, 백부장과 주 사이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아무런 불일치나 모순은 없다. 아마도, 마태가 백부장 대리의 말을 백부장 자신의 말로 만들었으며, (대리자의 말이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 합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백부장이 먼저 주께 사자를 보냈고, 후에 주 예수께 직접 왔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마태와 누가는 모두 이 대화를 정직한 목격자로서 기록하였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그대로 기록하였다.

백부장의 종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1 절). — 누가는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마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할 때, 그분이 전도를 막 마치셨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설교를 인용하고 있다 (누가복음 6:20-49). 그 설교에서 우리 주의 말씀은 네 가지 중점이 있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롭게 배우고 기억하여야 할 세 가지 큰 진리를 가르치셨다.

1. 복음을 위하여 고난 당할 특권을 가진 자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 6:20-26).
2.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사람들이 사랑, 즉 친절하고, 관대하며, 용서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한다 (누가복음 6:27-38).
3.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거짓 종교처럼 우리 혼에 위협한 것은 없다 (누가복음 6:39-40). 만약 우리가 영적 문제들에 있어서 소경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4. 모든 영적 일들에 있어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마음이다. — 나무가 썩는다면, 아무리 사람에게 좋아 보인다고 해도 열매는 썩는다. — 만약 나무가 좋으면, 아무리 사람에게 썩어 보인다고 해도 열매는 좋다. 우리 혼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은 분명히 무너진다.

우리 주께서 이 설교 전하기를 마치셨을 때, 그분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은 권위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이 가버나움에 그분의 은혜의 효험을 보이려 오신다.

가버나움은 주 예수께서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가버나움에서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기적적인 역사를 더 많이 행 하셨던 덕택에, 칭송 받았고, 높여졌으며, 다른 모든 곳보다 축복 받았다 (마태복음 11:23). 그분은 이미 그곳에서 고관의 아들을 치료하셨다 (요한복음 4 장). 모든 가능성 가운데, 백부장은 그 위대한 역사에 대하여 들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목격 하였을 것이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2 절). — 여기 한 백부장이 있는데, 로마 군병이고, 그는 그의 휘하에 백 명의 부하를 맘대로 하였던 자였다. 그는 이방인이었다. 그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믿는 자였다. John Bunyan 은, “로마 병사는 이방인 세상의 첫 번째 열매였다.”고 하였다. 여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백부장의 종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한다.

1. 이 종은 그의 주인에게 (큰 존귀와 보배로움 가운데 있던) 사랑스러웠다. — 그런 주인을 가진 종은 복되다! 이 백부장의 종의 체험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며, 당신의 혼의 영원한 선을 구하는 자의 가정 안에서 사는 큰 유익과 복된 특권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만큼 아주 강력하게 말할 수 없다.
2. 이 사람의 종은 병들었고, 매우 심하게 아팠다.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처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동일한 상태에 있는지. 전염병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죽음의 전염병이 있다. 혼 안에 영적 마비가 있다 (이사야 1:5-6; 열왕기상 8:38).
3. 백부장의 종은 “죽게 되었더니,” 바로 죽기 직전이였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죽지 않을 혼, 얼마나 끔찍한 장면인가! 매번 우리가 아픈 사람을 보거나 죽어가는 사람을 방문할 때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덧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와 영원 위에 두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시편 90:12-16; 골로새서 3:1-3).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3 절). — 우리는 어떻게 가 아니라 어쨌든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만 들었다! 아마도 그는 6 장에 기록된 설교를 듣는 그곳에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가 어떻게 들었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에게 보내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을 귀와 볼 눈과 믿을 마음을 주셨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에 대하여 알 길이 없다. 그것은 모두 사소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알았던 분이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 안에 계신 한 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요한복음 17:3).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났다. 어떤 죄인이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다 (요한복음 17:3).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다 (마태복음 11:27). 그리고 어떤 죄인이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분을 믿는 유일한 길은 복음의 전도에 의함이다 (로마서 1:16; 10:17).

백부장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3-5 절).

백부장은 주목할만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는 은혜롭고, 호의적이고, 관대한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이었다. 그것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서 5:6)이었다. 그는 흠 없는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가 요구했던 것을 그에게 주실만한 가치가 있다고 유대인들이 (비록 그들 자신의 무지를 배반하였지만) 밝히기를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들 보기에 매우 큰 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종을 사랑하였다. 다른 사람을 위한 공활을 구하며 주 예수께 많은 사람이 왔다. 어떤 사람은 아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딸을 위하여, 그리고 한 번은 친구를 위하여 네 사람이 왔다. 그러나 종을 위한 공활을 구하려 하나님의 아들에게 왔던 이 백부장 말고 누구에 대해서도 어떤 애기도 들은 것이 없다. 그가 그의 종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이웃들도 사랑하였다. —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경배와 섬김에 헌신하였다. 그는 가버나움에 경배의 집인 회당을 지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고 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때,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비용으로, 자기 힘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으며 우리에게 주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를 위한 장소를 주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교리와 고백과 의식 그 이상이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았다. 그의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위의 사랑이었다.

호의는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감사하는 어떤 것이다. 호의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훈을 돋보이게 하고 천거한다. 호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한다. 호의는 이 세상에서 작은 기쁨을 확산하는 한 방법이다. 이 사악한 유대인 장로들(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음모를 곧 꾸밌을 자들)이라 할 지라도 이 사람의 호의에 감동 받았다. 그의 종이 그 병으로 죽었다면, 그는 집 안에서 인정 많은 친구의 부드러운 보살핌 아래에서 죽을 특권을 누렸을 것이다. —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4:32-5:1).

“예수께서 함께 사실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6-7 절).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은혜로 겸손하였으므로, 그는 주 예수께 사자들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못하겠나이다!”고 말했다. 하나님께로 난 모든 자는, 모든 참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가치 없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한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고 그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다른 빛 가운데 자신을 본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주목할만한 표현이 있다. —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그의 시대에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어떤 시대에서도 거의 깨닫는 사람이 없던 것을 그는 시인하였다: — 나사렛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없다 (시편 33:6, 9; 148:5). 그러나 그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격에 대한 단순한 인정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며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8 조). — 이 백부장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절대적인 확신을 선포하고, 그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진흙에 지나지 않은 그 한 분, 우주의 전능하신 왕으로서 그분의 명령이 하늘과 땅과 지옥을 통치하며, 모든 것의 군주로서 그분 앞에서 모든 것 (병자와 건강한 자, 산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하여) 단지 순종적 종들인 분으로서, 그분 안의 믿음을 고백한다. 그는 하나님이신 주의 전지하고 무소부재하고 전능하심을 고백하면서, 주 예수께 확신을 갖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가버나움의 모래밭에서 계신 그 인자께서 하늘과 땅의 주권적인 주이심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믿었다!

기이히 여기신 예수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좃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9 절). — 주 예수께서 어떤 것을 기이히 여기신 것을 본 것은 단 두 번이다. 마가복음 6:6 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친척의 믿지 않음을 기이히 여기셨던 것을 들었다. 여기서, 그분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이히 여기셨다는 사실보다 더 기이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마가복음 6:6 에서 “이상히 여기셨다(marvelled)”는 말은 놀라운 슬픔을 내포한다. 여기서, 동일한 말은 큰 감탄을 내포한다. 우리 주께서 하셨던 곳에, 사람들이 찾는 세상의 쾌락 위가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감탄하는 것을 배우자. 우리 주 예수께서는 사람의 소유나 지위나 권력, 토지, 배움이나 생활, 명성이나 가족에 의해 결코 인상을 받으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믿음을 칭찬하셨다. 그분 안에서 이것이 보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 그분은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주신 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칭찬하신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10 절). — 이보다 더 큰 치료의 기적은 성경 안에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백부장의 종을 보지 않고서, 그분의 손길이 닿거나 그분의 눈 조차도 보지 않고서도, 우리 주께서 죽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는 사람에게 건강의 완전한 활기를 회복시키셨다! 그분이 그것을 뜻하셨고, 질병이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처럼, 그분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이 백부장처럼, 그분에게 은혜를 아주 조금이라도 받기에 철저히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므로,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38 장. 축복 받은 개입—누가복음 7:11-17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복음 7:11-17)

세 가지 별개의 경우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사람들을 그분의 위대한 전능과 은혜로 사망에서 살리셨다. 요한복음 11 장에서 그분은 나흘 동안 죽어 있었던 자인 나사로를 사망에서 살리셨다. 누가복음의 8 장에서 우리 구원자는 관원의 딸을 살리셨다. 그러나 사망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능력을 처음 보이신 것은 누가복음 7:11-17 여기에서 나타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앞에 큰 슬픈 장면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분의 제자들, 그분을 따르는 군중이 나인 성에 왔을 때, 그들은 장례 행렬에 뛰어들었다. 한 과부가 그녀의 유일한 아들을 묘지로 데리고 가고 있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비통한 장면에 오셨을 때, 과부가 가장 큰 슬플 때 그녀의 삶 속으로 발을 내디디셨다. 낮선 자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셨다. 그분은 아무도 멈추게 하지 말아야 할 때 멈추게 하셨다. 그분은 장례식을 방해하셨다.

아, 하나님 아들에게 이 단락 안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은혜로운 개입을 하신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과 마법과 화려함에 의해, 자신들의 타락하고 파멸된 상황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고, 느낌도 없이, 생명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 속으로 발을 들이시고, 그들의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때까지 그들의 무덤으로 신속히 옮겨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마다, 그분의 개입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분 앞에서 존경의 두려움 속에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물을 필요 없이, 우리 주의 기적은 그분의 영원한 신격과 전능한 권능에 대한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 사건들은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대가 없이 부어지고 역사한 그분의 은혜와 구원의 그림으로 모두 계획되었다. 이 나인 성의 장례식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죄의 결과

첫째, 우리 앞에 있는 장면은 우리 죄의 결과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 준다. —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 이 세상에서 사망을 앞서는 모든 것은 그것의 선주자에 불과하다. 모든 장례식은 슬프다. 그러나 여기 기쁨의 어떤 혼합이 없는 슬픈 그림이 있다. 여기 과부가 있고, 그녀의 젊은 아들을 매장하고 있으며, 그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께서 받을 들여놓으시기 전까지 끔찍하고, 슬프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는 경우이다. 부패와 타락과 경쟁의 죄는 우리 것이 병들고, 죽어가고,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분명하다. 우리는 죄의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질병과 슬픔, 고역과 사망, 사악함과 고통, 불행과 죽을 운명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세상은 눈물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웠을 것이다. 그것이 죄 때문이라면, 질병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법정도 없고, 감옥도 없고, 파산한 가정도 없고, 상한 인생도 없고, 장의사도 없고, 장례식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은 세상에 걸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현재 상태를 그린다. 죄가 어떤 강도이고, 얼마나 불쾌한 존재이며, 얼마나 엄청난 살인자인가 (로마서 5:12).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것들은 변한다! 주 예수께서 죄인의 고통스런 세상 속으로 들어 오실 때, 이전에 슬펐던 모든 것이 공황로 보인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며, 죄의 모든 악한 결과를 그분의 창조에서 제거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실 것이다 (계시록 21:1-7).

우리 구원자의 동정심

둘째,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의 동정에 관한 아름다운 모습을 제시하신다. —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3 절). 아, 우리 구원자의 마음의 동정심이 얼마나 깊은가! 우리 중 아무도 얼마나 우리 주 예수께서 부드럽고 동정심이 있으신지 상상하지 못했다. 그분은 실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그들의 형제의 무덤에서 흐느끼셨던 그분이 여전히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히브리서 4:15).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슬픈 행렬을 만나신다.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는지 그분이 보시고, 그분의 마음이 이 가련한 여인에게 향하였다. 그분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바로 걸어가서, 주권적인 공훈 안에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와 비교가 될 만한 친구나 위로자가 없다. 아마도 이 여인에게 그 두 마디는 이상하게 들렸고, 심지어 잔인하게 들렸을 것이다. 분명히, 이 행렬 가운데 있던 아무도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실 때, 그분은 울음의 이유를 가져 가신다! 흑암의 모든 우리 날들 가운데 그분은 우리 빛이다. 그분은 아직도 의의 태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3:8). 그분은 쇠하실 수 없다. 그분은 실망시키실 수 없다. 그분은 변하실 수 없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사랑스런 구속자, 신음하는 과부의 마음을 기쁨으로 뛰게 만드시는 분께서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며 당신의 신음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분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친구이다. 그분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망가진 인생을 바로잡고, 당신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살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주권자의 특징

셋째, 이 이야기는 우리 주권자의 특징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개입하시고 떠맡으셨다. 아 축복된 개입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점잖은 분이다. 그분은 결코 초대받지 않고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허튼소리를 하는 자들은 모독적일 만큼 무지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결코 개입하기 위하여 허락을 기다리시지 않는다. 그분은 은혜롭기 위한 초대를 결코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 오실 때, 그분은 주권적인 공훈 가운데 오신다. 우리의 주권적인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을 취하신다. 그분은 선포하신다. —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로마서 10:20; 에스겔 16:6-8).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이 하였던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미,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6:6-8).

구원의 조건들

넷째,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흠모할만하고 선하신 섭리로 우리 구원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일어나도록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죄인이 영원한 구원 가운데 하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만족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1. **하나님의 뜻** —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뜻하심이 없이 결코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뜻은 철저히 사소하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문제다 (요한복음 1:11-13; 로마서 9:11-18; 요한복음 5:21).
2.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은 복음 전파로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정하셨다. 이 청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3. **하나님의 역사** — 구원은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완전한 구속(해방)이 성취되게 하는 전능하고 효험 있는 공훈의 세 가지 강력한 역사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혜의 초자연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역사이다 (고린도전서 1:30-31).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 모두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 받아야 한다. 그것이 갈보리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3:13-14; 베드로전서 1:18-20). 그러나 피의 속량 만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 모든 속량 받은 죄인은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죄의 감옥과 무덤으로부터 구출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5:25). 아무도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지 않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3:5-7). 아무도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까지 어떤 영광의 소망도 소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혼의 속량처럼 필요하며 새로 태어남 만큼 필요한 것처럼 다른 일이 있다. 모든 선택 받고, 피로 샀으며, 하늘로 난 혼은 부활 영광 가운데 그의 구원자의 바로 그 형상 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5:28-29; 고린도전서 15:18-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39 장. 정죄 받은 사람의 관심—누가복음 7:18-22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18-22)

분열된 가족을 보는 것은 끔찍하게 슬픈 일이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의 분열된 형제들인 사람들을 보는 것은 더 슬프다. 가족들에게 있어서, 추정컨대, 분열은 어떤 환경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구원 받은 죄인들 사이의 다툼과 질투와 분열에 대한 절대 어떤 정당성도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분열된다는 슬프고, 부끄러운 사실이 종종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비록 그의 형제들이었지만, 가짜라고 생각되었고, 그의 속박에 고통을 더하려 하였고, 질투와 다툼에 분명히 기인되었던 자들에 대하여 그가 언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빌립보서 1;12-18).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냈을 때 다툼과 분열의 끔찍한 상태 속에 있었다. 사실상, 그 책의 처음 세 장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형제들이었다.

우리 주의 세상 사역의 시대 동안에 조차도 동일한 일이 사실이다. 우리 주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클까에 관한 문제로 한 때 분열되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 주의 제자들 사이에 슬프지만, 분명한 질투가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앞에 있는 단락의 여는 말에서 본다. 우리 주께서 주목할만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리고 그의 명성이 목전에 있었다. 16 절에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는 것을 본다. 그리고, 18 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라는 것을 본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친애하는 지도자가 명성과 영향력을 잃을까 염려하였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늘어가는 명성으로 약간 제외되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참으로 통이 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람들의 혼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충성되었다. 그는 여기서 그의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행위 가운데 우리가 따를 본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충성된 파수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18-20 절).

요한이 주 예수께 보낸 전갈은 그의 편에서 의심이나 불신에 대하여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람은 그의 성년의 삶을 통하여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였던 사람이며,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을 그가 벗겨드리는 것을 할 가치도 없었던 자이다. 그는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요한이 주께 보냈던 전갈은 그의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고 그가 따랐던 분인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주 예수께서 아주 많은 주목을 얻을 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였던 바로 그 제자들인 그의 제자들의 마음을 구원자에게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그가 정죄 받은 사람이었음을 알았다. 헤롯이 그를 감옥에 던져 넣었다. 그의 목숨은 마지막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뜻을 섬길 그의 기회가 이제 끝나게 되었다. 그의 수고의 날이 끝났다. 그 앞에 있는 예상은 분명하였다. 하지만, 그의 난폭한 죽음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의 하나님께 충성되고, 그의 구원자에게 충성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임무에 충성되었으며, 그의 신뢰에 위임된 혼들에 충성되었다. 이 충성된 사람은 그의 제자들을 주 예수께 보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들 스스로 보게 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그가 정죄 받은 사람이었을 때조차도 그의 마음의 관심사였다.

이것이 단지 죽음에 대한 예견 가운데 있던 요한의 관심사 만은 아니었다. 그는 그의 마지막 날에 과거 불일치를 치장하려고 하지 않았다. 전혀 안했다. 이것은 요한의 지속적인 관심이었다 (요한복음 1:19-29, 35-37; 3:22-36).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하는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도록 촉구하는 것은 언제나 충성된 사람들의 관심이다.

그를 따르는 바울처럼,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마음을 말씀에 들었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향하게 함으로써 하나로 묶으려 하였다. 큰 지혜와 선견으로, 그는 그의 제자들을 주 예수께 바로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나이까? 우리가 다른이를 기다리오리이까?”라고 묻도록 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종종 사람들을 분열하게 하는 사소한 다툼으로 험사리 휩쓸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다. 그는 그가 친구들을 떠나기 전에 목이 잘릴 수 있었던 일을 하였다. 그의 주처럼, 그는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요한의 행동이 얼마나 교훈적인 예인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목사, 모든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것을 그들의 인생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마음의 관심이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위에 놓는 것이 되도록 하자 (로마서 9:1-3; 10:1).

당신의 영향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르치는 고통을 아끼지 말라. 그들을 구원자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들에게 자주 그들의 죄와 그분의 희생, 그들의 혼과 그분의 구원, 그들의 죄와 그분의 은혜, 그들의 파멸과 그분의 구속에 대하여 일깨워 주도록 하라! 죽어가는 침상 위에서 그들이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진노에 대하여 너에게 경고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에게 말했다. 네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그리로 가도록 못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어머니와 아버지, 목사와 장로들은 복되다.

강력한 증인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1-22 절).

얼마나 주목할만한 대답을 우리 주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셨는가. 그분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어떻게 확신시켰을까? 그분은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말했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순히 그들을 사실로 향하게 하셨다. — 그들이 보았던 역사와 그들이 들었던 가르침 이다.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이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이사야 35:4-6).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마다 소경이 보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받는다.

우리가 우리 주의 본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다면 지혜로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의 사역을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야 할까? 논쟁과 토론과 해명은 쓸모 없다. 신조와 고백과 역사적 위치는 의미 없다. 단지 당신이 보았고 들은 것, 당신이 직접 체험했고, 보았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요한일서 1:1-3).

솔직한 경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23 절). 요한의 제자들은 그 외모에서 그들처럼 가난하고, 인상을 주지 않고, 궁핍한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추종자들은 어부들의 오합지졸이었다. 그들 가운데 유일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산가들은 세리들이었고, 악명 높게 나쁜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아 보였다. 많은 사람이 그를 범죄자로 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고린도전서 1:18-31). 당신도 그럴 것인가?

십자가에 대한 범죄는 그치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5:11). 세상이 있는 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것이다. 가련하고, 타락하고, 죄 있고, 정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 우리가 철저히 무기력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 교만함에 걸림이 된다. 다른 사람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었고, 대속자의 피로 씻음 받으며, 대가 없는 은혜로만 구원 받아야 한다고 듣게 되는 것은 독선적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세리와 매춘부와 죄인들과 함께 나란히 들어가야 한다고 듣는 것은 존엄과 우월한 우리 느낌에 걸림이 된다. 구원,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적으로 신성한 계시로 사람에게 온다고 듣는 것은 개인적 지력에 대한 우리의 느낌에 걸림이 된다.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이지 우리 자신의 의지 의해서 있지 않음을 듣는 것은 우리의 자결권에 대한 느낌에 걸림이 된다. 우리의 의로운 주권자이고, 주이고, 왕이신 분으로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에 머리 숙여야 한다고 듣는 것은 우리의 반역적인 마음에 걸림이 된다.

언급되지 않은 수천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으며, 복음을 경멸하였다. 그들은 “큰 문으로 들어가려” 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굵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려 굵히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7:13).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멸시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금 이 시간 지옥에 있으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 괴로워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안다 —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7:23; 마태복음 11:6).

40 장. 우리 위대한 수호자—누가복음 7:24-30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복음 7:24-30).

성경이 얼마나 자주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요 수호자로 묘사하는지 알았는가? 특별히 시편에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위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본다. 피난처로 그분 안에 숨고, 방패로서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 뒤에서 보호를 구하며 지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라 그분께 달아나는 사람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가치 있고, 혼을 격려하는 믿음을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시편 119:114; 144:1-2; 잠언 18:10; 30:5). 우리 방패이시고 피난처인 그분은 우리 수호자이다. 시편 기자는 기뻐 찬송하였다. —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시편 7:10; 31:2; 89:18; 94:22).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께서 우리 혼의 위대한 수호자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램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62:1-8).

그리스도 우리 수호자(산성)

우리 앞의 단락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분 자신의 한 사람을 지키시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교훈적인 예를 보여 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다. 그것은 24-28 절에서 보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요한의 제자들과 하신 대화를 들은 자들이, 죄로 충만한 자들이 하기 쉬운 것처럼, 그들이 들었던 것에 나쁜 해석을 하려는 자들을 의미하신 것 같다. 그분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읽으셨던 것 같고, 그분이 읽으신 것은 선하지 않았다. 아마도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이 그를 의심스럽게 보게 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그가 그의 제자들을 보내 물었던 질문이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요한을 약하고, 변동이 심하고, 불안정한 사람으로, 그 믿음이 쇠퇴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보게 하였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분명히 부당한 불친절하고 거슬리고 사악한 생각을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갖고 있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즉시 요한의 뜻을 이어 받았다.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충성된 친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충성된 종의 방어를 스스로 취하신다. 여기에서 배울 것이 많다. 그들의 친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복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로서 그의 본을 따르는 자들은 복되다 (잠언 17:17; 18:24).

주 예수께서 요한의 뜻을 정직하게, 충성스럽고 성실한 친구의 강하고, 확고하며, 질문의 여지가 없는 언어로 탄원하셨다. 그분은 요한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의심스러운 생각과 의심을 잠잠케 하려고 스스로 그것을 책임 지셨다. 요한이 단 순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불안정하고, 갈팡질팡하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였다. 요한은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특히 권력 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사람들의 선호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하셨다. 그는 왕궁 주변을 왕의 미소를 위하여 굽실거리면서 배회하지 않았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동했다.

실로, 침례자 요한은 선지자 그 이상이었다. 그는 선지자 말라기가 기록했던 선지자였다 (말라기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왔던 엘리야 였으며,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이키게 함으로써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려 오셨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이가 없도다.”고 하셨다.

우리 앞에 얼마나 복된 그림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표현할 수 없는 달콤함이 있고, 감동과 교훈이 있음을 발견한다. 불과 몇 년 전에, 요한은 잘 알려졌고, 가장 유명했으며, 그 땅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전도자였다.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가 그의 말에 매달렸을 때가 있었다. 그들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그를 따라갔고, 단지 그의 전하는 것을 들으려고 한 번에 수 마일을 걸었다. 모든 사람이 그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마태복음 3:5). 그러나 이제 침례자 요한은 헤롯의 손에 있는 죄수였으며, 모두에게 의해서 버림 받았고, 몇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에 의해 경멸을 받았으며, 친구도 없는 혼자만이 되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처형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그 한분에 의해 버림 받지 않았다. 요한은 그를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그분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예수여! 죄인을 위한 어떤 친구인지! 예수여! 내 혼의 사랑이여!
친구들이 나를 쇠하게 하고, 대적이 나를 공격할 지라도, 나의 구
원자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네.

예수여! 약함 가운데 강한자여! 나를 그분 안에 숨기게 하소서;
유혹과 시험과 쇠하게 하는 것, 나의 힘이신 그가 내게 승리를 주
시네.

예수여! 슬픔 가운데 어떤 도움인가! 큰 소용돌이가 내 위로 구르
는 동안;
나의 마음이 부서질때라도, 나의 위로이신 그가 내 혼을 도우시네!

예수여! 어떤 인도자요 수호자인가! 폭풍우가 여전히 높을 때;
내게 폭풍이 치고, 밤이 나를 덮치니, 나의 조종사이신 그가 내 외
침을 들으시네!

예수여! 내가 이제 그분께 피하노라! 그 어느것 보다 그분 안에서
찾네;
그나 내게 사함을 주셨네. — 나는 그의 소유 또 그는 나의 소유!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자여!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자여!
구원과 도우심과 지키심과 사랑하심으로, 그가 종말까지 나와 함
께 하시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결코 그를 쇠하게 하지 않고
결코 그를 버리지 않은 친구를 가졌다. 그분은 그분의 야곱의 모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친구이다. “나 여호와와는 번역지 아니하나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
라.” (말라기 3:6; 히브리서 13:5).

이 모든 것 안에 당신을 위하여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 의혹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비방당하
고, 거짓 고소 당하며, 당신의 이름이 나쁘게 언급되고, 당신의 성
품이 비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노아의 아들 함은 그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려 하였다. 모세는 바로의 집에서 많은 중상의 대상이었지
만, 이스라엘인의 집에서 그 중상은 더 쓰라렸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의혹은 심지어 더 심했다. 요셉이 형제들은 그에 대하
여 나쁘게 말했다. 다윗은 사울에게 욕을 먹었으며, 아히도벨에 의
해 배신당했고, 시므온에 의해 저주 받았다. 예레미야는 그가 수고
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부담을 전해주었던 자들에 의해 거짓
고소를 당했다. 침례자 요한은 한 때 위대한 선지자로 칭송을 받았
고 다음에는 마귀에게 점령되었다고 고소를 당했다. 우리 주 자신
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중상을
받고, 욕을 먹고, 거짓 고소를 당했으며, 배신 당했고, 혐오스럽고,
괘씸한 사람으로, 대식가이고, 술취한 자이고, 항상 죄인들의 친구
로 보여졌다. 구원자께 기름을 붓던 여인들은 심지어 그들의 동료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동기를 의심받았고 중상을 받았다. 바울
은 자기 잇속만 차리는 거짓 선지자로, 음탕함을 조장하는 자로,
또 사악한 사람으로 비방을 받았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참기에 쉽지 않다. 사실상, 견디기 더 어려운 시험들이 약간은 있다. 지옥의 마귀는 “형제를 참소하는 자” (적어도 부분적으로)라고 불리는 것은, 거짓 참소가 우리 혼을 공격하는 무기로 그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의 성격이 그가 가장 쉽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영원히 상처 줄 수 있는 점임을 안다. 사탄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존귀한 이름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흠 없이 살기를 추구하는 것에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사탄은 우리를 그런 것에서 가장 흔히 공격한다.

J.C. Ryle 은, “중상은 쉽게 불러낼 수 있고, 탐욕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전파되며, 거의 완전히 침묵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거짓말과 거짓 참소는 마귀가 선택한 무기이며, 그것으로 주의 백성에게 상처를 입히려 하며, 사람의 쓸모를 파괴하고 우리 평강을 방해하려 한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이것보다 더 위로를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은 없다: —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는 그 어루만지는 대변자가 있다. 이 유대 군중 이전에 침례자 요한의 뜻을 받으셨던 그 동일한 대변자께서 오늘날 우리의 대변자이다. 하님의 아들은 결코 그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이름은 진흙 속에 던져지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나쁘게 말해질지 모른다. 세상이 우리에게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뜻을 떠맡으셨다. 그분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어느날 곧, 그분은 전 세상 앞에서 우리 뜻을 탄원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4:3-5).

특별한 축복

28 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가 특별한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씀하신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구절의 마지막 문장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되었다. —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물을 필요 없이, 그 말씀은 우리 주 자신에게 적용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비록 모든 것보다 더 큰 분이지만, 사람들 사이에 가장 작게 되셨으며,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가장 작게 되셨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빌립보서 2:5-11). 모든 것 위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축복받으신 분이 사람이 되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분이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 우리 주이고 주인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거룩하고, 해가 없고, 순결하고 죄와는 분별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고,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생명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과 창피한 죽음을 죽으셨으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여기서 이 복음 시대에 그분의 제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이 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것인 특별하고 구별된 특권에 대한 말씀이다. —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한다면, 이 복음 시대의 믿는 자들은 엄청난 우위와 우월한 위치를 누린다. 요한의 은사와 은혜를 묘사하고 높이 천거한 후, 구원자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하신다.

그분은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이 은사와 믿음과 충성심에 있어서 구약 시대의 믿는 자보다 뛰어나다고 제시하지 않으신다. 만약 우리가 히브리서 11 장 말고 우리를 확신시키기 위한 다른 단락이 없다면, 히브리서 11 장은 우리 주께서 이 시대 믿는 자들이 구약의 믿는 자들에 비하여 은사와 믿음과 충성됨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 이 복음 시대에 믿는 자들은 뛰어난 빛과 계시를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충만하고, 최종적이며,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다 (히브리서 1:1-3; 디모데후서 3:16-17; 베드로후서 1:19-21).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부활의 이쪽 편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자 요한과 예표와 그림과 예언의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자들보다 설명할 수 없이 더 큰 빛의 위치 가운데 산다.

내가 구약의 믿는 자들이 우리보다 동일한 복음을 모르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대부분 확실히 그랬다. 그러나 그들은 어두운 유리를 통한 것 같이 그것들을 보았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계시 가운데 갖고 있는 복음 진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세밀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그런 계시를 받지 않았다. — 그들은 샘을 보았다. 우리는 열린 샘을 본다. — 그들은 휘장을 보았다. 우리는 둘로 갈라진 휘장과 완전히 열린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본다. — 브리실라와 아퀼라는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와서 보다 완벽하게 주의 방법으로 그 위대한 웅변가를 가르쳤다.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이다. — “저희가 다 나를 앎이니라…어린 아이에게 끌릴 것이라!” (히브리서 8:11; 이사야 11:6). 영적 지식이 관심 갖게 되는 한에 있어서, 분명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하기 위하여, 이 복음 시대에 새로 태어난 아기는 십자가의 경이로운 교훈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침례자 요한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영적 지식을 갖는다. 구약 시대는 유아와 어린 아이의 교회 시대였다. 이 시대는 교회의 성숙의 시대이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이르는 우리의 몽학선생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더이상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 (에베소서 3:1-11; 골로새서 1:25-27; 베드로전서 1:10-17).

중대한 공과

29-30 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앞에 매우 중대한 공과를 제시하신다. — 복음을 들을 특권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든지 아니면 그 자신에 불리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저버리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에 의해 생명과 구원의 달콤한 향기가 된다. 그 영으로 났으므로, 우리가 죄 있음과 죄에 대하여 확신하여, 모든 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한다 (시편 51:1-5). 독선적인 반역자들은 그들 자신에게 불리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멸시하며 던져 버린다 (잠언 1:23-33; 이사야 65:1-5; 66:1-2).

41 장. “의롭게 된 지혜”—누가복음 7:31-35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7:31-35)

이 세대

첫째로 우리 주께서 “이 세대”라고 불려진 사람들의 집단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처음 보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때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만약 당신이 성경 전체를 본다면, 매번 이 말이 함께 사용될 때마다, 그 말은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은 언제나 우리 주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당원들처럼 타락한 종교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세대"라고 불린 그 사람들은 언제나 적대적이고, 박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 주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33)고 말씀하실 때 특정하여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이 세대"라는 말은 각 세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혼의 대적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시편 12:1-8; 71:12-18; 마태복음 12:41-42; 23:29-38).

누가복음 7:31-34 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종교주의자들은, 세속적인 생각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반대하고, 그 잘못을 찾으며, 조급하게 비방하려는 자들 임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려 깊고, 조심하려 애써야 한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라.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노력하라. 그렇게 하도록 희생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이웃들 앞에서 흠이 없게 살도록 노력하라.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트집잡기로 스스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대편에 있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려 노력하므로, 그들이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의 기호에 비위를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의 화난 기색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세대"는 가혹하고, 무자비하며, 제멋대로이고, 나약한 세대이며, 결코 그리스도 뜻에 친숙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나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었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이 세대”를 어린 아이로 묘사하는 우리 주의 비유로 배우게 되는 공과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작은 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해가 되지 않고, 신뢰하도록 되어야 한다. 하지만, 타락한 종교주의자들 또한 어린 아이들처럼 사랑스럽고, 달콤한 아이들이 아니라, 제멋대로인 귀찮은 존재들이다. 우리 주께서 “이 세대”를 어떤 것으로도 결코 기뻐하지 못하는 다루기 어려운 반항아들에 비유하신다. 아무 것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아무 것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들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은 잘못을 찾아낸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자기 부인의 엄격하고, 금욕적이고, 분별된 삶을 선포하므로, 그들이, “그가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다. 그를 이어서, 주 예수께서 좀더 사교적인 사람, 사람들과 섞이는 사람의 성향을 채용하고 오셨다. 그리고 “이 세대”의 바로 그 동일한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적개심은 실질적으로 요한이나 사람으로서 혹은 전도자로서의 나사렛 예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말씀, 그들이 가르쳤던 교훈, 그들이 상징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실질적인 전도자인지 전혀 관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도자의 종류가 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든지 그들이 만들 수 있다고 안다.

침례자 요한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히 동일한 것을 전했다. 둘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향한 회개를 전했다. 그러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아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대가 없는 은혜로 만의 구원을 구하지 않기로 정해졌다. 그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전혀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오직 은혜 자체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대한 이 세대의 거짓 반대들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증오를 덮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사람은 누구든지 요한의 입에서도 기꺼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사람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쁘게 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어떤 전도자에게 맹목적이 되는 종교인들을 보는가! 그들은 전도자를 통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목소리를 따른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 그리고 반역자들은 언제나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변명을 찾을 것이다. 세속적인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그 증오심을 덮고 그 불신을 정당화하려 애쓸 것이다.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전도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대가 없는 은혜는 너무 쉽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너무 단순하고, 대속은 너무 위험하다.

이것도 역시 주목하라. — 불신적인 종교 세상을 분열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완전히 사소하고 무의미한 문제들이다. 이 사람들이 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요한의 말을 듣지 못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게 하고 다른 사람은 주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며 그들 모두가 양쪽 모두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 침례자 요한은 엄격한 정교 분리주의자인 나시르 인이었다. — 주 예수는 그분의 행동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웠다.

우리는 떼쓰고, 어리석은 아이처럼 행동하지 말자. 오히려, 언제나 성숙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자.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중요하게 만들 권리가 없다. 하나님의 책이 침묵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을 배우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짐 지우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위에 법을 떠맡길 권한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본질적인 문제들을 감히 사소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 그리스도의 복음, 믿는 자의 잠김, 주의 만찬을 지키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다. 복음의 교훈(그리스도의 순종에 의한 의, 그분의 효험 있는 피 속량의 구속, 은혜에 속한 거절할 수 없는 은사와 역사에 의한 구원)은 타협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포고들이 지켜질 때, 복음의 상징적인 포고 안에서 영구히 언급되고 있다.

이 세대는 사악하고 빼돌어진 세대이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또한 말씀하신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있는데, “그분의 세대,” “너희 자손의 세대,” “고결한 자의 세대,” 그리고 “선택 받은 세대”라 불린다. 35 절을 보라. 여기서 우리 주께서 “이 세대”와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들 사이에 직접적이고 선명한 대조를 끌어내신다. —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너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분명히 우리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적어도 있다 (고린도전서 1:30).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분은 말씀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 하나님을 알게된 그 한 분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지혜 가운데 사셨고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보여 주신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분의 위원회 안에서 우리 지혜로서 서 계셨다. 그분은 언약의 지혜를 성취하셨다. 그분은 믿는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 많은 교활한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필요하므로 지혜를 주신다.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그분의 모든 위격과 역사 안에서 그분을 공의롭게 한다. —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 지혜로서 난 자는 모두 그분 앞에서 회개하며 따라서 하나님을 공의롭게 한다 (시편 51:4). 회개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편을 취하며, 하나님과 동의에 이르고,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의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있다. 믿는 자들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의롭게 하며 그로써 그들 자신이 정말로 지혜롭다는 것을 입증한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한다 (디모데후서 3:15).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안에서 지혜와 계시와 은혜의 영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역사 안에서 그분의 모든 방법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공명정대를 가르침 받고 볼 수 있다 (시편 36:6; 48:11; 97:8;
119:75; 이사야 26:8-9; 계시록 19:1-6).

위대한 구원자!

심지어 그분이 조롱 가운데 언급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위대한 구원자임을 입증하신다. 그분의 대적들은 그분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조롱하였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사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유일한 친구이며, 우리가 가진 유일한 친구이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다 (마태복음 9:12-13; 마가복음 2:17; 누가복음 5:31-32).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꺼이 은혜로우신지!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병과 질환과 결점으로 얼마나 자주 언급하셨는지 이전에 알았는가? 그런 한 가지 이유가 이것이다: —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죄들을서심판을 바라는 범죄로서거 아니라 동정을 호소하는 병으로서 바라보신다!

오라, 너희 죄인들아, 가련하고 궁핍하고, 약하고 상처 입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아.

오라, 너희 지치고, 무거운 짐 지고, 길을 잃고, 타락으로 파멸한 자들아.

오라, 너희 죄인들아, 오라 환영하니, 하나님의 대가 없는 풍성이 영화롭게 하리니!

참 믿음과 참 회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는 모든 은혜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42 장. 죄인이었던 여인—누가복음 7:36-50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말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36-50)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이었던 이 여인보다 서로에게 더 완전히 상반된 두 사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물을 필요 없이, 성경의 이 단락에서 취할 수 있는 많은 선하고, 유익이 되는 공과가 있다. 그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단락의 공과를 기록하시기를 바란다.

경건의 모양

이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많은 사람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 시몬은 주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에 대한 많은 외적인 존경심을 표했다. 무엇이 더 존경스러울 수 있을까? 그는 우리 구원자에 대한 존귀의 표시로 크고 사치스런 저녁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철저히 무지하였다. 그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능력과 은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악명 높은 죄인이었고, 그의 집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기꺼이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이름 없는 여인의 모습으로 인하여 불쾌하게 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종교인들처럼, 은혜와 용서에 대하여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코 경험하지 않았다. 이 교만한 바리새인은 그가 이 사악한 죄인과 같은 근거로 나란히 하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종교적이었지만, 그러나 타락하였다. 그는 그분의 가르침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다. 그는 존경을 받았지만, 관대하지 않았다. 종교에 만족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

빛을 진 죄

이것을 또한 배워라. 죄가 우리 모두를 빛진 자,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빛을 지는 자로 만들었다. 우리 죄를 이유로, 우리는 모두 거꾸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에 빛을 지게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서 우리 빛에 개입하셨고, 그것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빛을 대가 없이 완전히 용서하셨다! 죄에 대한 용서는 엄격하고 확고한 공의의 행위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서,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의 문제이고, 은혜롭고, 순전하며,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행위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빛을 갚으셨다. 그리고 만족된 공의를 근거로, 우리는 모든 우리 죄를 대가 없이 용서 받았다.

우리의 동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의 이 부분에서 분명한 세 번째 공과는 그리스도께 대한 섬김의 큰 동력이면서 추진력은 큰 용서의 느낌에서 생기는 사랑과 감사라는 사실이다.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게 하려는 모든 자의 마음에 이 점을 심어주고 싶은지. 참 기독교의 원동력과 추진력,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헌신과 섬김을 위한 동기와 감동,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 살도록 만들고 강요하는 것은 은혜의 체험이며, 용서를 아는 것이고, 사람의 그 혼 안에서 느끼는 것이며, 우리 구원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에서 생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다. — 믿는 자들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자극을 받지, 율법의 협박이나, 보상의 약속, 인정 받는 희망으로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5:14-15; 8:9).

이 여인은 누구였나?

이 여인은,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책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만큼 존귀하게 여길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본으로써 우리 앞에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혜롭고 은혜롭게도, 성령께서 이것 말고는 이 여인에 대하여 전혀 아무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 그녀는 죄인이었다. — 그녀는 그리스도를 신뢰했던 죄인이었다. — 그녀는 용서 받은 죄인, 그녀의 모든 죄가 용서 받은 죄인이었다. — 그녀는 고마워하는 죄인이었다. — 그녀는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했던 죄인이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7-38 절).

이 구원 받은 죄인은 구원자께서 어디 계신지 알았고 그곳에 계신 그분께 왔던 것을 그녀의 일로 삼았다.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녀는 믿음의 제물을 갖고, 그녀의 구속자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을 가지고 왔다. 그녀는 구원자의 뒤에서 발 옆에 겸손하게 섰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주 예수께서 그녀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슬픔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울었다. 그녀는 그녀의 혼에 대한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사랑의 감사로 울었다. 그녀는 그녀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었고 그녀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사랑과 헌신과 경배의 입술로 구원자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녀는 그분의 발을 믿음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기름 부었다. 한 마디로, 주 예수께서 직접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마가복음 14:3-9).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녀의 동기가 무엇이었나?

왜 이 여인은 그녀가 했던 것을 하였나? 어떻게 그런 행동이 설명될 수 있나? 무엇이 한 가련한 사람을 그렇게 크게 사치스런 (사람들의 눈에) 희생을 하도록 감동하였을까? 그녀는 많이 가졌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녀는 많이 용서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많이 사랑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여인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그녀의 헌신과 섬김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그녀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조롱 당했고, 유다에게 비웃음 받았으며, 그녀의 동료 제자들에게서 오해를 받았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전심을 다한 헌신을 이해한 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존경을 받으려 시몬의 집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구원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려 그곳에 왔고, 그분을 존귀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그분에 의해 존귀함을 받았다 (사무엘상 2:30).

그녀의 주를 존귀하게 여겼던 이 사람은 그녀의 주에 의해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그녀가 비웃음 받고 조롱 당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녀의 방패로 오셨다 (47 절). 그분은, “가만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6). 주께서 그녀의 재판관들과 고소자들 앞에서,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그녀를 용서하셨다. —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48 절). 그리고 그녀의 구원자께서 그녀의 믿음에 대하여 보증하셨고, 그녀의 마음에 평강을 말씀하셨다 (50 절).

그리스도께 대한 희생과 헌신에 감화를 주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증진시키는 유일한 길은 대가 없는 은혜를 전하는 것이다 (디도서 3:4-9). 구속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혼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관한 지식으로 감동된다. —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라.” (요한일서 4:19).

성경의 이 부분을 읽는 모든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원자시며, 긍휼과 은혜와 동정심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바로 죄인의 죄수를 구원할 준비가 되셨음을 도처에서 죄인들에게 일깨우고 말하라.

“죄인들을 예수께서 받으실 것이라! —
이 은혜의 말씀을 모두에게 소리 내라,
하늘의 길을 떠나신 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모든 자에게 타락한 모든 자에게!

오라, 그가 네게 안식을 주실 것이니;
그를 신뢰하라, 그의 말씀은 분명하니라;
그가 최악의 죄인을 취할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죄로 충만한 자들을 받으시니라.

이내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니,
율법 앞에 순전하게 내가 서 있네;
모든 흠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가,
그 마지막 요구를 만족하게 하셨네.

그리스도께서 죄로 충만한 자들을 받으시니,
내 모든 죄와 함께 나까지도;
모든 흠과 얼룩을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늘에 그와 함께 내가 들어가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43 장. “왕국 복음” — 누가복음 8:1-3

“이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누가복음 8:1-3)

“이후에” — 우리 주께서 백부장의 종을 가버나움에서 치료하고 난 후, 나인에서 과부의 아들을 사망에서 살리시고 난 후,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난 후, 그들 앞에서 요한을 변론하고 그들을 요한에게 되돌려 보내신 후,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사함 받은 죄인의 믿음으로 존귀하게 되시고 그녀를 존귀하게 하신 후,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본다.

우리 주

첫째,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주, 주 예수께 주목하게 하신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앞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호와와의 의로운 종으로서 열심과 충성됨의 놀라운 본을 제시하신다.

인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의 순종,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분의 순종,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 까지 이른 순종은 대속의 순종일 뿐만 아니라, 예시적인 순종이도 하였던 것을 결코 잊지 말자.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보여 주셨다 (요한복음 13:13-15; 베드로전서 2:21-25).

우리 주는 그분의 수고에 있어서 피곤함이 없으셨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지치지 않으셨으며,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진 시간을 구속 하심에 있어서 지속적이었다. 사람의 불신은 그분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분의 대적들의 조롱도, 그분에게 쌓이는 비난도, 종교적인 세상의 경멸도, 그분을 비판하는 자들의 비웃음도 그분의 수고에 어떤 방법으로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이 누구신지, 왜 이 세상에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시는지를 아셨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아버지의 일에 대한 것이었다. 그분의 세상 사역은 오직 삼 년이라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삼 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많은 것을 하였고, 더 많이 전하셨으며, 어떤 누구도 그 이전이나 이후에 평생 했던 것보다 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사역하셨다.

그분의 본을 따르자. 물을 필요 없이, 우리는 그 표시를 바랄 것이고 우리가 그 표시를 잃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깨달을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본을 따르고 그분의 발길을 따라 걷자. —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데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요한 일서 2:6). 우리가 찾기보다는 세상의 우리 작은 구석을 떠나려 시도하는 편이 더 낫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 삶의 일로 삼아야 한다. 내 자신의 갈망과, 쾌락과 열정과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열정을 내려 놓고, 내가 접촉하는 자들의 삶에 선한 것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시간은 짧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이 행해질 수 있다. 우리 일을 지혜롭게 안배하도록 하면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행해질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시간을 잡고 나태와 경솔함을 피한다면, 여덟 시간, 열 시간, 혹은 열두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취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을 구속”하도록 하자.

그렇다, 시간을 짧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도록 주신 그 일을 하여야 할 유일한 시간이 지금이다. 그렇다, 우리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그분을 완전히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세상 안에는 씻을 말이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무지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배고프고 급식이 필요한 자가 없고, 아프고 방문이 필요한 자는 없다. — 신음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는 없다. — 혼자 있어 친구가 필요한 자는 없다. — 빛 비춤이 필요한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자는 없다. — 두려워서 확신이 필요한 자는 없다. — 고뇌 속에 있어 안도가 필요한 자는 없다. 우리가 하는 이런 종류의 일어 무엇이든지 간에 무덤의 이편에서 행해져야 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책무를 깨닫도록 깨어 있다. 혼들이 멸망해가며 시간은 날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도록 결심하자.

누가는 우리 주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 사람들을 위하여 행해져야 할 많은 선하고 귀한 일들이 많고, 많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혼에 더 높은 봉사를 하고 있는 척 하면서,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섬기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변명하는 것을 결코 찾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동안, 우리가 그들의 혼을 위하여 행하는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중요한 봉사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자. 우리 주처럼, 삶 가운데 우리의 최우선 일, 지역 교회로서 우리의 최우선 기능, 우리 존재의 최우선 목적이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보이며 도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가르치면서 사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해를 입힌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로 사람들을 인도함이 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한다면, 좋은 것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는다. 만약 이웃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들을 먹인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역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누가가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반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시며 도처에 다니셨다는 것을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을 추측해서는 안 된다. 그 문맥이 말해 준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5-18 절), 바다의 잠잠한 안에서 (19-25 절), 거라사인의 구원 안에서 (26-40 절), 혈루증 있는 여인의 치료 안에서 (41-49 절), 우리 주 예수는 왕국의 기쁜 소식을 보이셨으며 또 선포하셨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분은 믿음이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 구원은 신성한 계시에 의해 온다. — 죄인은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은혜로 새 마음이 주어져야 한다. 폭풍을 잠잠케 함에서 우리 주께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며, 그분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와 믿음 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라사인의 치유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인간 사회에 맞지 않은 사람의 삶 속에 구원의 체험을 기적적으로 보여 주신다. 혈루증이 있는 여인의 치료에서 우리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믿음뿐만 아니라, 절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보여 주신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새로 태어남의 기쁜 소식을 보여 주신다. — 그것은 사망한 죄인 안에서 그를 위하여 그 위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것이 누가가 우리 주를 묘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감동 받았는가이다.

그분의 제자들

다음으로, 누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무언가 말한다. —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 사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의 일로 삼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 삼년 반 동안,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그분을 따랐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그분을 수반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지켜 보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 함께 행하였다. 왜? 그들은 그분을 그들이 필요 하였거나 필요했던 것 모두임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했다. 그들은 그분께 배우기를 원했다. 따라서, “열 두 제자가 함께 하였다.” —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 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 14:4).

어떤 여인

다음으로,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였던 어떤 여인들에 대하여 말하도록 감동을 받았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2-3 절).

이 여인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공훈과 은혜를 체험한 여인들이었다. 주께서 악귀와 큰 병이 있는 그들을 치료하셨다. 그들은 7 장의 마지막에서 언급된 자처럼, 여인들이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찬만하였다.

어떤 특정한 고초와 시험들이 주를 위하여 이 여인들이 견디고 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 시대에 여인들은 집에 머물렀고, 그들의 입을 다물었으며, 오직 그들의 남편과 함께만 그들의 남편이 허용된다고 할 때,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혼자만 사적으로 남아 공개적으로 다른 남자와 동반한 것이 보인 여인들은 의심을 갖고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평범한 여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받았고 체험하였던 공훈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여인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따르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처해질 어떤 고난도 기쁘게 감내하였다. 그분의 은혜의 권능으로 강해졌으므로, 그들은 그분에게 끝까지 붙어 있었다.

그분을 배반하였던 것은 여인의 입맞춤이 아니었다. 동산에서 그분을 포기하였던 사람은 이 여인들이 아니었다. 그분을 부인하였던 사람은 이 여인 중 하나가 아니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끌려 가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자와 함께 머물렀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고난 당하는 어린 양 옆에 서 있던 사람은 남들이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이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있던 첫 번째 사람들이었고 부활 아침에 영광의 주를 본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이 여인들은 누구였는가? 그들 가운데 단 세 명만 이름이 불렸다. 첫 번째 이름이 불린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주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 내셨던 자들 중에서 였다 (마가복음 16:9). 두 번째는 “혜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이다.

요안나 자매에 대한 그 설명을 읽을 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는가?” 이 여인의 남편은 평범한 남자가 아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었다. 누가가 그가 “헤롯의 청지기”였다고 우리에게 말할 때, “청지기”라는 그 말은 “하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사람 구사가 분봉왕 헤롯이 그의 집 전체의 관리를 맡겼던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구사는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많지 않은 권력자, 많지 않은 귀족, 많지 않은 부자가 부름을 받고, 약간만 받았음은 사실이다. —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다. — 아마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섭리 가운데, 침례자 요한이 투옥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 우리 자매 요안나의 구원을 위함이었을 것이다.

은혜 가운데 있던 이 자매들 중 세 번째 사람은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다. 수산나는 하나님의 책 다른 아무 곳에서 언급되지 않고, 역사 가운데 다른 아무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다는 것이,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사항만 이 귀한 여인의 세상 삶에 대하여 안다. — 그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였다! 얼마나 장엄하고, 고귀하며, 고상하게 하는 일대기인가!

이 여인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3 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라. —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공훈이 넘치는 우리 구원자인가! 천 개의 언덕에 가축을 가지신 분이 이 여인들이 그분을 섬길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이 하도록 허락하셨다! 떡과 물고기를 몇 배로 만드셨던 그분은 누군가 그분께 음식을 공급하게 할 필요 없으셨지만, 그분은 그들이 하도록 하셨다! 그렇게 하심 가운데, 우리 주께서 그분을 사랑했던 자들이 그들의 사랑의 진실됨을 입증하도록 은혜롭게 허락하셨다 (고린도후서 8:7-9).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은혜로운 세 사람의 사랑스런 여인들은 그들의 소유로 주 예수를 섬겼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였던 것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그들이 사랑했던 구원자를 섬겼다. 본문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고 하며, 그것은 제자들의 동행을 위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그들의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취하여 그리스도께 행해진 섬김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로마서 16:1-2).

하나님, 사람들의 혼과 나의 하나님의 영광에 지지 않고 헌신하며 섬기는 나의 주의 본을 따르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제자들처럼 언제나 그분과 함께 발견되기를 허락하소서. — 이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나의 소유로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제게 은혜로이 가르치시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행할 의지를 내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3:5-10).

44 장. 어떻게 듣는지 유의하라—누가복음 8:4-18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썩어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4-18)

이 비유에서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은 면밀하며 확고하다. — 이 비유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들은 자들의 대다수는, 그 복음을 듣고 난 후 그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대다수라 할 지라도, 거듭나지 않고, 길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 하에 멸망한다. —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하라.”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복음 전도자들은 알곡을 심는 농부들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 위에 흩뿌리며, 영원히 묶인 사람들의 마음 위에 흩뿌린다. 이것은 부주의하고, 생각 없는 과정이 아니다. 전도자는, 만약 그가 진실로 충성된 복음 전도자라면, 그의 마음은 그의 일에 있다. 그는 그가 전하는 자들에게 무관심 하지 않으며, 혹은 그들의 반응에 무관심 하지 않다. 아,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혼에 깊이 관심한다. 그들은 수확의 소망 가운데 심는다 (시편 126:5; 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서 11:1; 고린도전서 15:58). —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며, 큰 수확의 소망 가운데 복음의 씨를 충성되게 심는 복음 전도자이다.

씨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1 절). —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 안에서 깨닫고, 전하고, 그리고 기뻐한다.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전함에 있어서, 특별히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 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21).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용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신다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하나님은 성경의 충성된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만, 혹은 그것으로 선택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되게 해석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성되게 해석되고 전도될 때만 전해진다. Rolland Hill 이, “‘세 R’ (타락으로 인한 파멸 (Ruin), 피에 의한 구속 (Redemption), 성령에 의한 거듭남 (Regeneration)) 을 포함하지 않은 어떤 설교도 전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말은 정확히 옳다. 하나님의 종들은 단순한 전도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이다. 그들은 단지 전도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

씨 뿌리는 자는 복음 전도자이다. 뿌려지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결과

복음 전도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에 정확히 따른다. 우리 말을 들을 모든 자에게 복음 무작위로 전한다. 그러나 결과는 무작위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내 보내실 때,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그분의 계획을 성취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법적 눈 멀과 경직을 산출한다. 사람의 불신은 어찌 되었든, 혹은 아주 적은 정도 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탕자의 의도적인 불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한다 (로마서 3:3-4; 고린도전서 2:14-16).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 절). —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높이 들려지시고,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를 보았을 때, 이 말씀은 구원자로부터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에서 취해진다 (이사야 6:9-10).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보는 눈, 듣는 귀, 믿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음은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믿음은 사람들 속으로부터 소집된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은사와 역사이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게 하심이라” 때문이다 (빌립보서 1:29; 에베소서 2:8-9; 골로새서 2:12).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눈이 멀게 하고 묶어 버리고 있다. 아무도 보지 않을 자들처럼 눈이 멀지 않았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경멸할 때, 그들이 전해지는 말씀에 그들 스스로를 단호히 모질게 할 때, 그들이 경멸한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이 영원한 심판에 묶어 버릴 도구가 되며, 그들 자신의 방법의 열매를 먹게 된다 (잠언 1:23-33).

길 가의 듣는 자들

복음을 듣는 어떤 사람은 길 가에 뿌려진 씨처럼 그것을 받는다. —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2 절). 어떤 사람은 그들의 혼과는 무관하게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에 대하여 무관하게 듣는다. 그들은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존경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나 그들은 실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 그들의 최선을 다하거나, 적어도 그가 하는 말로 괴롭힘을 받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다른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려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그들을 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여 어떤 것을 하시지 않는 한, 그들이 듣는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문을 나서기 전에 지옥의 늪은 검은 까마귀가 그들의 경직된 마음에서 씨를 낚아채간다.

돌 밭의 듣는 자들

다른 사람들은 돌 밭의 듣는 자들로 묘사된다. —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들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3 절). 많은 돌 밭의 듣는 자들이 있다. 복음 전도는 매우 빠르게, 그들에게 일시적인 인상만을 줄 뿐이다. 불 속에서 불타는 가시나무처럼, 그들은 소리를 내고 튈 것이며, 많은 소음을 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열심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선한 경기를 말한다. 그들은 때로는 눈물로 감동 받는다. 그들은 심지어 내적 갈등과 소망과 갈망과 분투와 두려움에 대하여 말할지 모른다. 그들은 뿌리가 없다. 문제의 뿌리는 그들 안에 없다. 경작되지 않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납득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성령 확신이 없다. 돌아서지 않으므로, 그들은 회개할 수도 없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다.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믿음이 없다!

이 돌 밭의 듣는 자들은 한 동안은 견딘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종교는 요나의 호리병 같다. 그것은 밤에 튀어 나왔다가 밤에 사라진다. 그들은 잘려진 꽃들 같다. 그들은 한 동안 보기 예쁘고 냄새가 좋지만, 곧 시들어 죽는다. 그들은 뿌리가 없다.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없다. 약간의 시련이나 재난이나 유혹이 돌 발의 듣는 자가 견디기에 너무 크게 될 것이다. 어떤 박해나 반대, 복음의 거치는 것 때문에 그들을 파멸케 할 것이다.

가시떨기 땅의 듣는 자들

다른 사람들은 가시떨기 땅의 듣는 자들로 이 비유에서 제시된다. —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들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4 절). 길 가의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덜 관심한다. 돌 발의 듣는 자는 어떤 정도는 인상을 받는다. 그는 크게 튀게 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가시떨기 땅의 듣는 자는 약간 다르다.

가시떨기 땅의 듣는 자는 복음에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복음으로 감동 받는다. 그는 좋은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 안에서 오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많이 느끼고, 많이 체험하며, 진실로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많이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며, 기저에 깔린 문제를 갖고 있다. 표면 아래 깔려 있고, 하나님의 눈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의 눈에 감춰진 문제이다. 심지어 그 자신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국적으로 그를 파멸할 것이다. 문제는 세상적임이다. 세상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한다.

아, 그리스도 없는 종교를 조심하라! 당신은 아마도, “모든 것이 내 혼에 좋다. 아무도 내가 느낀 것을 결코 느낄 수 없고 내가 체험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만 여전히 길을 잃었던 것을 결코 체험할 수 없다.” 당신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거짓 믿음은 강한 기만이고, 이 비유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 넷 중 하나는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게 되는 기만이다! — 거짓 믿음은 복음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고 박식할 수 있다 (히브리서 6:4). — 거짓 믿음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적 생명을 크게 개혁할지도 모른다. — 거짓 믿음은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잘 말할지 모른다. — 거짓 믿음은 사울처럼, 개인적인 죄들을 고백할지 모른다. — 거짓 믿음은 아합과 함께 비탄에 잠겨서 스스로를 낮출지 모른다. — 거짓 믿음은 에서와 유다와 함께 눈물 속에 회개할지 모른다. — 거짓 믿음은 유대인과 함께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행할지 모른다. — 거짓 믿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매우 인심이 좋고 관대할지 모른다. — 거짓 믿음은 벨릭스와 함께 말씀 하에 떨고 있을지 모른다. — 거짓 믿음은 종교 안에서 큰 일들을 체험할지 모른다 (히브리서 6:1-4). — 거짓 믿음은 롯의 아내와 함께 큰 종교적 특권을 누릴지 모른다. — 거짓 믿음은 우리 주께서 언급하셨던 자들처럼, 전도하고, 기적을 행하며, 마귀를 쫓아낼지도 모른다. — 거짓 믿음은 디오드레베처럼, 교회 안에서 높은 직책을 얻을지도 모른다. — 거짓 믿음은 데마처럼, 큰 전도자들과 함께 행할지도 모른다. — 거짓 믿음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심지어 평화롭고 욕욕적으로 안정될지도 모른다.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15). 조만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슬픈 사실은 비록 그들이 의도적으로 세상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릴지라도, 그들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들 자신의 생각 속에 너무도 철저하게 의롭다 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옥에서 깨어날 때까지 결코 그들이 그것을 행했다고 깨닫기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가지떨기 땅의 듣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주 예수께서 이들 세 가지 사항 중 하나가 궁극적으로 당신의 혼을 파멸할 것임을 당신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다: — “이 세상의 염려” — “부의 기만” — “이 생의 쾌락.”

좋은 땅의 듣는 자들

참된 믿는 자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복음을 받는 자들이다. —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15 절). 좋은 땅은 거듭난 마음이며, 은혜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마음이다. 마음의 개간하지 않은 땅은 율법의 깊이 자르는, 날카로운 쟁기로 부서져 버렸다. 단단한 흙덩어리는 확신의 무거운 씨레로 부서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우레가 일어날 것 같은 비로 산산조각 나고, 마침내 천국의 달콤한 이슬로 부드럽게 되었다.

거듭난 마음, 그것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예비된 마음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열매를 맺는다. 어떤 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다. 그들이 맺은 열매는 그 영의 열매이다 (갈라디아서 5:22-23).

이제, 이 다음 세 구절을 이런 문맥 안에서 주어진 대로 읽고 주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경고를 들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16-18).

당신이 듣는 것을 분별하라. 당신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자유 의지의 어떤 거짓 복음,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 복음을 주기적으로 듣는 것을 당신의 일로 삼으라.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들을지 주의하라. 성령 하나님께 당신이 순종의 믿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요구하라.

45 장. 모두가 알아야 한다—누가복음 8:16-21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흠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16-21).

내가 소년 시절에 주일 학교에 출석했을 때, 아이들이 자주 불렀다
...

“모두가 알아야 하네,
모두가 알아야 하네,
모두가 알아야 해
예수가 누구신지!
그는 계곡의 백합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는 밝은 아침 별!
그는 만 명 중 가장 공정한 분!
모두가 알아야 해!”

그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누가복음 8:16-21 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이다. 만약 우리가 이 구절들을 타당하게 해석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문맥 가운데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 주께서 방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고 해설하셨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 비유의 아주 실질적인 응용을 하고 계신다. 우리 배움과 훈계를 위하여 여기 기록된 일들은 이 강력한 공과를 우리 마음 안에 못 박고 고정하려는 의도이다. —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성경이 이 짧고, 단순한 구절들 안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크고, 무게 있으며,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 말씀을 우리 앞에 갖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 마음 위에 이것들을 기록하시기를 바란다.

우리 책임

첫째, 우리 주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신성한 계시로 우리가 배웠던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고 가르치신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6-17 절).

아무도 등불을 숨기려 켜지 않는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빛을 확산하기 위하여 내 비추려 하는 것이다. 우리 주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셨다.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러나 그분은 복음을 어떤 신뢰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우리 손에 신성한 진리의 빛을 두셨던 것은 우리는 그것을 들고 다른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어둠의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앙망하고, 그것을 토론하는 것보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복음은 우리 손에 위탁되고 우리가 위임 받은 달란트이고 보화이다. 그 위탁은 그것과 함께 큰 책임감을 수반한다. 믿는 각자가, 지역 교회 각각이, 그리고 복음 전도자 각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그 책임이다 (마태복음 28:18-20; 고린도전서 9:16; 에베소서 3:8).

우리 사랑의 구원자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16-17 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 주변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 사회와, 나라 주변과 세상 주변의 많은 사람이 지식을 원함으로 인하여 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망하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라. 그들을 당신의 마음 속에 확정하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며, 소망이 없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실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열정과 진정과 열심을 갖고 비추어야 한다 (로마서 9:1-3; 10:1; 고린도후서 5:10-14). 나는 J. C. Ryle 이 쓴 글에 완전히 동의한다. “이기심의 최고의 모습은 혼자만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가장 참된 관대함은 우리 자신이 소유한 모든 종교적 (복음) 빛의 불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 애쓰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등불을 비추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타는 등불을 켜지 않으신다!

17 절에서 우리 주께서 복음은 모든 세상에 전해져야 하고 전해질 것임을 선포한다. 전후 배경을 기억하라. 비록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빛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이 하신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실 뜻으로 행해질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우리 모두의 가장 깊숙한 비밀스런 생각들을 보여 주실 것을 선포함이 아니다. 우리 주께서는 비유 안에서 숨겨지고 언급되는 것들이 이 복음의 날에 그들에 의해서, 그분의 교회에 의해서, 모든 뒤이은 세대 가운데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선포될 것임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4:14).

말씀을 들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우리 주께서 18 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유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내가 이 훈계를 앞 장에서 광범위하게 다뤘다. 따라서 여기서 충분히 말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가르침의 이 말씀을 유의하는 것을 실패해서는 안 된다. 말씀의 사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유익의 단계는 그것을 듣는 방법에 크게 좌우된다. 교회를 가고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가 바로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좋은 것이 못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들을 때 이 네 가지 단순한 법칙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

1. 당신이 듣는 것이 복음임을 확신하라. — 베레안 귀족들처럼, 성경을 찾고, 강단에서 당신이 듣는 것과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된 것들은 동일함을 당신 자신을 위하여 보라.
2. 존경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3.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간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을 것을 확실히 하라 (히브리서 4:1-2).
4. 당신 자신의 혼에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당신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기도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가족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19-21 절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 만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배워야 한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특권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음의 부름을 듣고 그리스도 오는 죄인이다. 주께서, “나를 믿어라”고 하시고, 우리는 믿는다. 그분은, “회개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회개한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우리는 따른다. 의문의 여지 없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을 큰 고난으로 데려갈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군대에 입대하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전투에 참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권은 훨씬 더 중대하며, 무한하게 중대하며, 대가가 있다 (로마서 8:17-18; 고린도후서 4:16-5:1; 디모데후서 2:11-13; 베드로전서 1:3-9).

우리 일이 이 우리 시대에서 복음의 확대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되게 하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큰 특권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 앞에 언제나 갖도록 하자.

46 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누가복음 8:16-18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16-18)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도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분명하고, 단순하며, 성경적인 가르침을 위한 많은 필요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1-2).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

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17-22).

누가복음 8:18 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참된 제자들인 자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렇다고 고백한 자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큰 수의 사람들이 모든 성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다는 것을 알고, 그들 중 대부분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단지 듣기만 할 것임을 아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비유로써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의 씨를 뿌리려 나갔던 농부의 비유를 사용하셨다 (4-16 절). 그 비유에서 구원자께서 듣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도에서 어떤 구원의 유익도 받을 자가 거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세 가지 사항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분명하다...

1. 복음 전도는 생명의 씨 뿌림이다.
2.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의 권능과 은혜로 선하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된 자만이 그들의 혼의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받는다. 그리고
...

3. 일단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의 선한 씨를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것의 숨을 조이거나 그 영향을 파멸할 것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18 절에서 주 예수께서 전파되는 복음을 들은 모든 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복음의 전도에서 영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들을까 유의해야 한다. 우리가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전도를 듣기를 확실히 하여, 우리가 듣는 것에 유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전도되는 복음을 어떻게 들을까를 유의하도록 하자.

모든 기회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라. 만약 지혜롭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공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기회에 이르도록 당신 자신을 도울 것이다. 나는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 모두를 교회라 불리는 그런 종교 곡예단에 결코 참석하지 촉구한다. 그 곳에서 그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숨도 못쉬게 한다. 그들은 그 주간 모든 밤에 그리고 대부분의 날에 무언가를 하도록 해서 바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게 만든다. 나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종교 활동을 추구하며 우리 자신을 즐겨야 한다고 제안하지 않겠다. 그것은 당신의 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염려하게 하는 많은 곳이 있는 것이 오늘날의 경향이다. 많은 곳에서의 경향,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의 경향은 더욱더 덜 전하고, 더욱더 덜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단 두 번만 집회를 하는 많은 곳을 알고 있고, 다른 곳에선 오직 한 주에 한 번만 예배를 가지며, 또 다른 곳에선 심지어 더 적게 집회를 갖는다. 여기에 많은 이유가 주어진다. 아마도 그것이 정당화 되는데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주 배고프다. 당신은 아닌가?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내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보다 더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한다. — 당신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함께 모여야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하여 어떤 규칙도 만들어선 안 된다. 그리고 성경이 침묵하는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실행들을 부과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생활에 편안하게 맞출 수 있을만큼 아주 조금 하나님의 집에 우리 시간을 쪼개는 것에 대한 어떤 끔찍하고, 위험하며, 건강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 것도 복음의 영향의 숨통을 조이지 않음을 유의하라.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하고, 그리스도의 찬양을 말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므비보셋처럼, 왕의 만찬에 앉아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마리아처럼, 그분의 발아래 앉아 있는 것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복음과 복음 전도

들을 때 당신이 복음을 듣고 있음을 확실히 하라. 종교는 선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당신 자신을 절대 기만하지 말라. 오직 복음 종교만이 선하다. 다른 모든 종교는 죽었고 파멸적이다. 우리 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종교적 잡담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이고,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위대함이고, 그분의 선이며,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의 경이로운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위에 축복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연합체에서 이다 (시편 133:3). 공예배의 축복에 대하여 다윗이 했던 것처럼 노래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시편 122:1-9; 84:10). 복음을 듣는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여 우리 부활하신 구원자께서 그분의 최고의 승천 은사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분의 교회에 복음의 사역을 특별히 주셨다 (시편 68:18-19; 에베소서 4:11-12).

하나님은 그 큰 일에 특별하게 부르셨던 사람들의 혼을 섬기기 위하여, 사역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 받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사를 주셨다. 유다는 우리에게,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혹은 전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 1:14)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의를 전하는 자였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런 아주 초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때에 조차도, 증인 없이 자신을 홀로 남겨두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때에,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쓰신 후에 열조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을 주신 후, 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분명한 질서를 그분 자신에게 분별하셨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다. 비록 유대인들이 종종 잡혀갔었지만,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열방들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하지만 에스겔과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회개로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고 은혜롭게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의 나머지를 지키셨다.

그 날들처럼 크고, 더 나은 날 가운데, 더 나은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그분의 백성의 죄들을 위한 충만하고, 완전하며, 충분하고, 효험 있는 제물과 만족으로서 그분 자신을 영원한 영을 통하여 드렸을 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모두 그분께 모든 권능을 위임하고 난 후, 그분은 그분의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 안에서 모든 이어지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고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다)” (마태복음 28:20) 것을 약속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책무이고,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책무이며 (고린도전서 9:16),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보내시는 그분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신의 책무이다. 하나님께서 허공을 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지 않는다.

이 형언 할 수 없는 은사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이 얼마나 자각하지 못하는지! 그들은 의도적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참석하기를 거절하면서, 은혜의 영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공개적인 치욕을 그분께 가한다! 그런 사람의 종말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빛이 세상 가운데 와야 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에게 의해 멸시 받으려고만 어떤 곳에 그토록 자주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복음의 영적 만나, 이 천사의 음식은 무가치한 것으로 멸시 당한다. 우리 주께서 두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가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보다 더 견딜 만할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마태복음 11:20-24).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듣고 난 후 (혹은 들을 기회를 멸시해 버리고 난 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는 구원하는 은혜에 속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 하나님의 대사로서 임용된 자들의 사역에 유의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George Whitefield 가 다음에서 말할 때, 우리 구원자의 교훈을 정확히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도, 비록 떨어졌지만, 예언의 영이 없이, 그런 사람들의 비통한 상태를 예언 한다. 그들이 눈을 들어,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으며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라. 얼마나 자주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우리를 모았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모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 그 우리의 날에 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가 알았던 것은, 우리의 영원한 평강에 속하였던 것들이
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영원히 우리 눈에서 감춰어졌다.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자들
이 아주 하찮게 될 것이며, 복음의 공개 전도를 조롱을 할
것이다.”

들을을 위한 제안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영적 유익이 있는 복음을 듣도록 당신
을 도울 제안들이 몇 가지 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구원과 그분의 왕국을 사람들 사이에
건축하시려 직접 지정하신 방법이다. 이것은 그로써 성령 하나님
께서 사람들의 혼 안에서 그분의 역사를 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네 가지 훈계가 당신을 질책하고 그 질책이
고통스러울 지라도 기쁘게 유의 할 것이다.

1. 당신의 종교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하나님의 집에 절대 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려 오도록
하자. 그것은 존경스러운 일이 아니라, 둘러 앉아서 아무 것도 아
닌 것에 대한 끝없는 의문들을 토론하기 위한 한심한 일이며, 언제
나 배우지만 결코 진리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디모데후서
3:5-7). 도망쳐라, 당신이 전염병에서 도망가려 한다면, 종교적 호
기심에서 도망쳐라! 당신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점목된 말씀을 온
유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오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 주의하고, 배려 깊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보내셔서 당신의 혼에 가져다 주도록 하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진지하게 유의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셔야 한 것을 듣도록 큰 주의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그분의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장엄 가운데 내려 오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앉아서 그의 종 모세에게 주의를 기울였다. 만약 그들이 우레소리, 율법의 우레소리와 공포를 들을만큼 진지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는 은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므로, 얼마나 기꺼이 죄인들이 앉아서 걱정스럽게 복음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복음 전도자도 도덕적 철학이나, 법적 의무나, 종교적 역사나, 혹은 교리적 정확성 위에 건조하고, 진부한 강의를 전하려 보내진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매인 죄인들 앞에 경건의 큰 비밀과 그분의 은혜의 왕국의 비밀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해, 그분과 함께 있는 구속과 용서와 구원과 평강과 관용과 대가 없는 칭의와 영생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신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열 때, 그는 당신에게 싸구려 잡화점 같은 것을 읽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 우리가 모두 지혜롭게 유의해야 할 충고의 세 번째 말씀이 있다.

3. 사탄을 허용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를 섬기는 자는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당신의 생각에 편견을 갖게 한다.

성령께서 당신을 감독하게 만든 자들의 어떤 비선호를 즐기는 것을 유의하고 경계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충성되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를, 그들을 부패시킨 유대교인들 앞에서 바울이 받았던 갈라디아인들처럼 하나님의 천사로서 받아들여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2-13).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어다.” (고린도전서 4:1).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17)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 52:7)

4.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전도자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거나,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

이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도구이며, 더도 덜도 아닌, 그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3:5-9, 21-23). 그들의 수고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당신의 혼에 유익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의 혼에 하나님의 사자인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혼을 위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전달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라. 그리고 주께서 은혜롭게 당신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실 것을 기도하라.

5. 언제나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삶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라.

언제나 말씀이 생각 안에 당신과 함께 예비되었고, 당신에게만 말씀된다고 여겨라.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처리하기 보다, 방을 가로질러 바라보며 우리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는 끔찍한 경향이 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합당하게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라.

6. 만약 당신이 주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 한다면, 전해지는 그분의 복음을 들을 때, 설교 전에, 설교하는 동안, 그리고 설교 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

설교 전에, 당신의 삶 속에 순서를 정하여 하나님의 집에 깨어서 경각심을 갖고 오도록 해라. 전도자와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당신과 함께 그 복음을 함께 듣는 당신의 형제 자매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과 길 잃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무시하지 말라.

설교 동안, 주의 깊게 듣고,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죄를 당신에게 드러내고 확신시키고, 당신을 바로 잡으며, 당신의 혼을 위로하고, 당신의 마음에 활력을 주고, 당신에게 주 예수에 대한 신선한 관점을 주기를 계속 기도하라. 다시, 당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동일한 것을 구하라.

설교 후에, 서로와 또 가족과 함께 그 말씀을 주고 받아라.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겨진 씨를 단단히 세우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라.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후서 3:1).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서 6:18-19).

만약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유의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아직, 다시는, 번개처럼 사탄이 던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죄인들이 변화된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양날 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전해진 말씀
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통하여 마귀의 강한 손아귀를 끌어 당
기는 힘을 찾지 못했다!

성령은 여전히 우리 집회 위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임했다! 하나님이 복음이 다시 빠르게 달리고, 잘 달리는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유로운 진행을 갖는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다. 한 장소에서 어느 날 교회에 삼천을 더하셨던 그분은 오늘날 다시 동일한 것을 행하실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히브리서 13:8). —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심지어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을 약속 하셨다. 나는 우리가 주의 임재로부터 더 큰 축복들을 받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전능하신 구속자의 손이 줄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확신한다 (시편 81:13-14; 이사야 48:17-19).

그렇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대가 없는 은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분을 찾지 않았던 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악명 높은 죄인들은 때때로 불에서 햇불로 강제로 잡아 뽑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통상적인 행동 방법이 아니다. 보통, 그분은 그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길을 알기를 구하며 어떻게 들을지 겸손하게 유의하는 자를 그분의 영의 권능을 갖고 방문하시고, 부주의한 자를 공허와 냉혹한 곳으로 보낸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를 유의하라. 기억하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고린도후서 5:10). 어떻게 그들이 분노하고, 죄의 복수를 하는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들이 경멸하였던 수 많은 말씀들과, 그들의 죽지 않을 혼의 구원을 위하여 한 때 갈망하고 수고하였고, 그들에 대한 기민한 증인들로서 나타났던 그 많은 전도자들을 보게 될 것인지! 그러나 온유함으로 접목된 말씀을 받은 자인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목자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기쁨의 관이 될 것이다. 그 날에 그는 우리 공통의 구속자 그리스도께, “여호와여,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를 보소서!” 라고 말하며, 순전한 처녀처럼 거룩한 승리와 흠 없고 결백함 가운데 당신을 드러릴 것이다.

47 장. “광풍이 내리치매”—누가복음 8:22-25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아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누가복음 8:22-25).

마태와 마가에 의해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의 제자들의 삶에 있었던 이 사건의 이야기를 읽어 보기를 격려한다 (마태복음 8:23-27; 마가복음 4:35-41). 이것은 크게 중요한 사건이다. 그 이야기 자체는 물론 이 복음 이야기 각각에서 있는 변동은 신성한 계획과 확신할 수 있는 감동으로 성경의 지면 위에 모두 보존되어 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배움과 교훈을 위하여 있는 그대로 기록되고 기록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분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셨을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우리 주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으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폭풍이 몰아쳤다.” 제자들은 그들의 두려움으로 공포에 휩싸여 불신으로 가득하였다. 그들이 외쳤을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마태는 기록한다. 마가는 그들의 외침을,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누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쳤다고 말한다. 나는 이 열두 명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한 척의 작은 폭풍에 던져진 작은 배 안에서 이 세 마디 말고 더 외치지 않았을까 의심된다. 그러나 이 세 마디는 이 가련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웠을 공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기록되어 있다.

주 예수께서 일어나셨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으며, 그분의 간단한 말씀의 능력으로 바다와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다.

우리 주의 기적들 가운데, 혹 있다 해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신성한 전능에 대한 그런 잇을 수 없고 확신에 찬 모습을 남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적어도 이들 가운데 넷은 전문적인 어부이고, 숙련된 뱃사람 들이었다. 심중팔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 매우 익숙하였다. 그들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그 파멸적이고 종종 치명적인 폭풍 들에 노출되어 왔을 것이다. 결코, 우리 주의 다른 기적들 중 가장 위대한 것에서조차도 여기서 그가 보여 주었던 것처럼 강력한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단 한 마디로, 우리 구원자께서 폭풍을 멈추셨다!

공과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구절들 안에서 가르치는 많은 중요한 공과들이 있다. 우리는 종종 그것들에 대하여 우리를 일깨우도록 하나님의 영계 요구할 만큼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1.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직면하는 폭풍에서 예외가 되게 하지 않는다.
2. 우리 주께서 지치고 잠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분이 진짜 사람이셨음을 보여 준다.
3. 바람과 바다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구속자의 완전한 신성을 보여 주었다. 이 인자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바람과 바다는 그들의 창조주의 음성을 알았다! —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유일한 그 한 분이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구속하고 구원하실 수 있다.
4.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들은 여전히 죄인들이다. 그리고 가장 강령한 믿는 자들은 때로는 불신으로 충만하다.
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화하며, 동정심 있는, 용서의 구원자이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을 질책하심에 있어서도 친절하며, 점잖고, 은혜로우시다. —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40)
6.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이유는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원이다. 그분은 건너편에 거칠고, 타락한 거라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의 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충만이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7. 그리스도께 있는 은혜라는 좋은 배에 있는 모든 자는 이 세상의 폭풍치는 바다를 그들이 통과하는 것처럼 완전히 안전하다.

생명의 비유

그 일곱 공과들은 자주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공과들이다. 그것들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자주 일깨울 필요가 있는 공과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모든 믿는 자의 삶을 그가 이 세상을 지나는 그의 여정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리는 비유를 본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주권적이고 구원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선택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실 때,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안으로 데려가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함께 은혜와 구원의 배 안으로 데려가신다.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생명의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시간의 물을 가로질러 그의 눈과 우리 눈길을 돌리게 하시며, 우리 본문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다. 시편 107:23-31 을 읽으면 당신은 내가 이 비유를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삶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기 위한 좋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
의 생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지,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 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찌로다!” (시편 107:23-31).

항해

모든 믿는 자의 삶이 항해이다. 그것은 건너편에 있는 우리의 “갈망하는 항구”로 가는 험난한 바다를 가로지르는 항해이다. 우리가 이 항해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은혜라는 은혜라는 좋은 배 안으로 우리를 태우시고 말씀하신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사망은 종종 시적으로 건너다, 바다나 강을 건너다로 언급된다. 우리가 노래한다.

그가 우리를 지키시리니 강이
내 발에 물을 칠 때까지,
그리고 그가 나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실 것이니,
그곳에서 나의 구원자를 만날 것이네.

그러나, 이렇게 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 건너게 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건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므로, 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는 시간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다.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의 계곡을 통하여 걷고 있다.

바다는 우리 인생을 위한 알맞은 상징이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 무쌍한 환경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바다를 건너는가. —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14). — “나의 날은 벼들의 복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기 7:6). — “나의 날이 채부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기 9:25-26).

나는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아 왔다. 영원히 묶인 죄인들의 얼굴을 매일 매일 바라볼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내 자신에게 생각한다. “배가 간다. 칠하지 않은 배가 칠해진 바다 위를, 그러나 떨하지 않는 흔들이, 시간의 큰 파도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씩 하나씩 영원에 이르는 시간의 수평선 위로 사라지고 있다.” 곧, 우리는 모두 그 수평선 너머로 지나야 한다.

아마도, 수평선은 당신에게 아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어리석지 말라. 곧, 당신은 시간의 이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상 속으로 통과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변한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 날에 당신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요르단 강의 상승은 당신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폭풍우 바다를 건너는 항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항해에만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바다를 건너는 항해이다. —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3 절). 우리는 종종 비통과 고통과 역경과 비탄의 폭풍우 속으로 항해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에게 그 폭풍이 무엇이든지 간에 안전에 대한 확신을 준다.

이 제자들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배 안으로 주를 따라갔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순종이 종종 고난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충성의 과정은 언제나 폭풍의 눈을 바로 통한다.

비록 우리의 폭풍이 많고 변화되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들이 두 가지 근원에서 일어난다: (1.) 밖에서 부는 우리 환경의 역풍, (2.) 안에서 이는 죄와 불신의 파도 (로마서 7:14-24; 시편 73:1-3, 21-28).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항해

셋째,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항해이다. 항해, 그렇다. 폭풍우 바다를 통과하는 항해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의 동행과 지속적인 임재와 보호와 염려 안의 항해이다.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건너편으로 건너 오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분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셨다. 그리고 비록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대한지라” 우리는 주 예수께서 “배의 곁물에 계셨다.” (마가복음 4:38). 그분은 침묵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거기 계셨다. 우리가 멸망하든 말든 그분이 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약하고 죄로 충만한 마음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그분을 믿도록 당신을 가르치실지를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 구원자께서, “주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가,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히브리서 13:5)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기적으로 점철된 항해

넷째,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점철된 항해이다. —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39). 은사주의자들은 기적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한다. 그들은 엉터리 같은 멍청한 짓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의 일대기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의 역사들이다. 우리 혼의 구속은 우리 본성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죄가 되시며,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보증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하나님 아들의 기적에 의해 성취된다. 새로 태어남은, 그의 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사망한 혼을 친히 점령하고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거처를 삼으심으로 성취된 기적 같은 은혜의 경이로움이다.

“세상을 제자리에 두기 위하여 기적을 택했네.

별을 우주에 걸어두려 기적을 택했네.

허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구원하셨을 때,

나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의 기적을 취했네!”

그리고, 곧,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부활이라 부르는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5:51-58)

여전히,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이신 것은 우리의 큰 고난들을 배경으로 한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의 보존하는 능력을 아는 것은 역경의 용광로 안에서 이다. 우리가 사자에 대한 주의 지배를 보는 것은 오직 사자 우리 안에서 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실로 하나님이다!

두려움 없는 항해

다섯째,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폭풍치는 바다를 건너는 우리 항해는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항해이다. 우리가 하는 항해는 완전하게 안전한 항해이다. —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 절). —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40).

제자들의 공포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서 일어났다. 공포는 불신의 흠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자연의 우거지 잡초이다. 이 불쌍한 제자들은 우리와 너무도 많이 같다. 그들은 주의 일에 있었다. 그들은 주의 임재 안에 있었다. 그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들은 끔찍한 폭풍을 보았고, 그들 자신의 연약함과 그들의 배가 분명하게 덧없음을 보았다.

주의 부드러운 질책을 개인적으로 받도록 하자. 나는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을 당신이 할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들, 우리의 가장 큰 유혹들, 우리의 가장 큰 타락은 언제나 믿지 않음의 결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편에 있는 불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합리한 일이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것인가?” 우리 구원자는 섭리와 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혜와 선과 전능의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그분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만큼 지혜로우시고, 잘못을 행하지 않을 만큼 선하시며, 쇠하지 않을 만큼 강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배 안에 계시다.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작은 배 안에 계시다 (골로새서 1:27; 요한일서 4:4).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의 배 안에 계시다 (신명기 23:14; 시편 46:5; 계시록 2:1).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는 안전하다. 그 교회는 이 바다를 넘어 갈 것이다. 그 교회는 그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건너편에 도착할 것이다. 은혜라는 좋은 배 위의 승객 한 사람도 바다에서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배 안에 계시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안에 정박해 있다. 결코 난파될 수 없다. 의사 과학의 모든 속임수 바람과 학자적이지 않은 비평의 파도는 그 선박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의 트집잡는 것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한다. 그들의 웃음이 눈물로 바뀌고 그들의 비평이 그들의 혼 안에서 불처럼 타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늘에 영원히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의 배 안에 계시다. 그분은 배 안에 계시지만 아니라, 키를 잡고 계시다. 우리는 섭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또 섭리를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신론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경배하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섭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를 기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분의 손 안에 세상 전체를 소유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 위에 주어졌다. 그분은 우주 통치의 고삐를 쥐고 계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확신의 말씀으로 그분 위에 우리 염려를 던지게 하신다.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7).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36).

믿음에 부름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깊은 물로 데려가시고 당신의 혼의 고난의 이유로 물에 빠진 사람처럼 당신을 이리 저리로 빙빙돌리기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당신의 작은 배를 치고 계신가? 하나님의 영께서 이 비유를 당신의 혼에 믿음의 부르심으로 만드시기를 바란다. 당신의 혼으로부터 그리스도, 주께 외쳐라. 그분의 큰 동정에 호소하라. —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일어서서 당신의 고난 당하는 마음에 평강을 말씀하시기를 바란다. 만약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말씀하신다면, 은혜로운 그분의 말씀은 큰 평정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당신이 소원의 항구로 데려가실 것이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와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
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
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저희가 이리 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 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시편 107:23-31, 42-43).

그분을 믿어라, 오직 그분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1:40).

48 장. 거라사인을 위한 은혜—누가복음 8:26-39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 하니라.”
(누가복음 8:26-39).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인 약속된 시간이 있다. 그 때는 “생명의 때” 그리고 “사랑의 때”라고 불린다. 비록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영원 전부터 변하지 않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다. 비록 우리가 저돌적으로 파멸로 달려갔지만, 주 하나님은 옛 영원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갈 것이나 더이상은 아니라.”고 하셨다. 사탄은 우리를 대항하여 으르렁거렸지만, 지옥의 군대가 우리를 파괴하려 하였지만, 우리 마음이 지옥 그 자체와 동맹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라사의 가련한 미치광이로 인하여, 사랑의 때가 왔을 때, 주 예수께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전능한 운행 하심과 함께 그에게 오셨다.

그것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의해 언급된 이야기이다. 모든 이들 세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건을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마가는 우리에게 거라사 땅에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가장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러나 세 복음서 모두 이 이야기를 우리 앞에 궁핍한 죄인들에 대한 우리 주의 큰 은혜와 지옥의 마귀들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모두에 대한 주목할만한 나타냄으로써 제시한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천 년 전에 거라사에 있는 이 가련한 미치광이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지옥을 퇴치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지옥 그 자체를 퇴치하신다.

죄인들의 구원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매” (26 절). 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의 다른 편에서 거라사 해변에 이제 막 도착하셨다. 그분이 거라사로 향해하실 때, 그분은 폭풍 속을 통하여 향해하게 될 것을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의도적으로 향해하기로 하셨다. 그분은 고통을 덜어주는 향해 위에 계셨다. 그분은 한 선택 받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라사로 가고 계셨는데, 그의 사랑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주 예수께서 폭풍을 통하여, 바다를 건너, 그 선택 받은 죄인을 구원하려는 의도적인 마음으로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오셨다. 그분의 은혜의 대상을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그가 오셨던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셨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 구속자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였던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우뚝 솟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시간과 도덕의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끔찍한 폭풍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선택 받은 자가 구원 받아야 하는 그 전능한 역사를 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분 자신의 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생으로 우리 죄를 없애실 때), 그분은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가셨다 (마태복음 1:21; 누가복음 19:10; 디모데전서 1:15; 로마서 5:8; 요한일서 3:5; 히브리서 10:10-14).

야만인이고, 미치광이이며,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된 자인 거라사인들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 오셨다. 사실, 마귀의 군대가 그의 가련한 혼 안에 거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앞으로 올 시대 가운데 있는 많은 다른 사람에게 가져오시려 그를 공황의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6-29).

하나님의 아들은 거라사에 사탄에 사로잡힌 자에게서 사탄을 내쫓고, 강한 자를 묶고, 그 집을 취하여, 그 소유에 속한 자를 손상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하실 일을 마치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의 구원자시다.

비참하게 불쌍한 자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며, 그 맨 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27-30 절).

마태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거라사 바닷가에서 주를 만난 두 사람의 미친, 마귀에 소유 당한 거라사인들이 있었음을 이야기 해 준다.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가리키고 말하는데, “거기서, 보는 것은 성경이 모순으로 가득하다.”고 한다. 나는 그들의 뛰어난 점을 보지 못했다. 만약 우리가 둘이라면, 하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마태가 그 둘에 대하여 설명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에 대하여 썼다. 분명히, 누가가 묘사했던 사람은 그 둘 중에 더 악명 높게 사악한 자였다. 성령께서 이 죄인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라. 얼마나 슬프고 슬픈 그림이 아닌가.

이 불쌍한 거라사인은 비참하게 불쌍한 자였다. 그 묘사가 그 그림으로 묘사된 것에 훨씬 부족하지만, 그 가련한 귀신들린 자의 고통스런 상황은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의 끔찍한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타락 가운데 우리 인류의 철저한 파멸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천연적으로 더러운 영의 완전한 지배와 영향 하에 있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우리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과 의지로 지배되고 있으며, 자의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로마서 3:10-19; 요한일서 3:8; 디모데후서 2:26). Robert Hawker 가 바로 보았다. “은혜를 억제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죄인은 완전히 무의식 상태이며, 얼마나 큰 악이 만 곱하기만의 경우에 있어서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본성의 타락과 사탄의 정복 때문에, 그 모든 끔찍한 결과로 죄에 묶여 있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정욕의 육신, 거짓이 있는 세상, 도구를 가진 사탄이 절대적인 지배권으로 아담의 타락한 아들들을 지배한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영원한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우리 자신의 양심의 고소로 공의롭게 정죄 받는다. 이것은 아담의 모든 타락한 아들딸의 상태와 상황이며, 그것은 사망의 두려움 안에서 그들의 모든 인생의 때를 살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2:14-15).

부정한 영

이 가련한 거라사인들처럼,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부정한 영을 갖고 있다. 그렇다, 이 사람은 마귀에게 점령되었다. 그러나 천연적으로 부정하지 않다면 마귀는 그를 결코 소유할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는 그들을 반대하며, 이 날 “스스로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디모데후서 2:26). 이 사야는 우리가 모두 부정한 것들이라고 선포한다.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을 속이며 절대적으로 사악하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모든 가증스러운 사악함은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 아,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의 사악함을 알기만 했다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악함의 충격적인 공포가 우리를 인간의 어떤 비열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말하는 것을 막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

이 가련하고, 미치고, 타락한 혼은 죽은 자들 사이에 살았다. 마가는 그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사망한 죄인들, 범죄와 죄들 가운데 사망하였고, 죽은 죄인들 사이에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처럼 살고 있다. 그것이 당신의 경우인가? 그리스도 없이 사는 당신은, 당신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서 산다.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편안하다. 그곳이 주께서 나를 찾으셨을 때 내가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그곳이 천연적으로 당신이 있는 곳이다 (에베소서 2:1-4).

묶일 수 없었다

이 가련한 거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매는 족쇄와 사슬로 묶일 수 없었다. 사회, 사회에 받아 들여짐, 동료의 인정, 사회적 우위, 가족 압박, 명성,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염려의 족쇄, 대부분 사람들을 묶는 그런 것들과 그들을 외적으로 고상한 모습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영향이 없다. 그들은 그 능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그것에 의해 묶일 수 없다. 밤낮으로 그들은 불가피하게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게 될 미친 행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에 따른 은혜를 제외하고, 파멸로 달려간다.

나는 그것을 내 부끄러움으로 말하겠지만, 그것은 나의 상태였다. 거라사의 미치광이처럼, 사회 족쇄가 그를 묶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종교의 족쇄와 사슬은 더이상 효과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공포에 대하여 무언가를 알았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지옥과 끝없는 사망의 공포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고, 때로는 그칠 때까지 수 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그와 같은 공포는 때때로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족쇄들은 또한 쉽게 벗겨졌다. 지옥의 두려움은 결코 죄인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한다.

길들여 질 수 없음

아무도 이 미치광이를 길들일 수 없었다. 사회가 그 사슬과 족쇄가 사람을 묶을 없고 더 낮게 만들 수 없음을 볼 때, 사회는 순화와 교육과 보상과 부드러운 설득으로 그를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로 길들이려 한다. 주 예수께서는 묶거나 길들이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파쇄해 버린다! 그리고 마치셨을 때, 부서진 죄인은 부서짐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가련한 미치광이는 나처럼,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처럼, 그 자신의 혼의 파멸로 치달는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특히 밤에 지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했을 두려움을 상상해 보라.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라. 당신은 당신의 창과 문 주변에 쇠창살을 달 것이고, 매일 밤 침대 밑에 총을 두고 잘 것이다. 그 사람이 길을 내려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화를 초래하지 않게 하려고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급히 피하여 당신 가족을 그의 광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의 사악함은 그 자신의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혼의 비참함을 또한 안다. 나는 무덤 사이 그곳에서, 흐느끼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자신을 해치면서 언제나 사망과 장난치며 있어왔지만, 언제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독과 고립을 경멸하였고, 언제나 나를 더 큰 고독과 고립으로 끌고 갈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행하고 있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이 가련한 비참한 사람 같은가? 당신은 한때 그 사람 같았는가? 만약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전능한 공훈과 무한한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당신이 한때 그런 공훈과 은혜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았던 것을 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다면, 비록 당신의 타락하고 파멸된 상황에 대하여 완전히 의식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다.

경배하는 마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28 절). — 여기 귀신의 고백이 있다. 나는 귀신들과 귀신 숭배에 대하여 많이 모르고, 많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 귀신은 실재이다! 초자연적인 것과 심령술과 마법과 사탄숭배는 할 수 있는 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현명할 것이다.

여기서 마귀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처럼 한다. 마귀는 그의 목적을 다하려 할 때, 빛의 천사의 특징을 입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일하는 데서 마귀를 종종 보았다. 마귀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는 아무런 경배가 없지만, 하나님의 경배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 대적인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경배자인 것처럼 할 때 마귀를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 입 밖으로 하는 경배는 경배가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많은 사람이 마귀에 대한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 대하여 마음의 헌신이 없다. John Owen 은 한 번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독 중에서, 복음의 비밀로부터 그들을 부패하게 하는 것은, 이 한 가지 어긋난 상상보다 더 파멸적인 부분은 없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을 믿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달려감

하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우리에게 이 거라사인에게서 그리스도께 오는 가련하고 타락한 죄인의 그림을 보여 준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서 공활을 구하려 거라사인을 그분께 데려오도록 그를 파멸했을 바로 그 귀신들을 주권적이고도 은혜롭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지나칠 수 없다!

이 사람을 보라. 그는 “멀리 떨어져서!” 그것이 천연적으로 우리 위치이다.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 예수께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셨다. 성격상 그는 멀리 떨어졌다. 이 사람과 하나님-사람은 공통된 것이 없었다. 지식에 있어서 떨어져 있었다. 그 미치광이는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알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다. 소유에 있어서 그는 멀리 떨어졌다. 이 사람은 아무 것도 그리스도께 드릴 것이 없었고, 아무런 좋은 느낌도, 아무런 회개도, 아무런 선한 생각도, 아무런 거룩한 갈망도 없었다. 그는 외쳤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가련한 미치광이는 철저히 무기력했고 소망이 없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의 절대 절명의 필요에 대한 그림을 칠할 아무런 말이 있을 수 없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분께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고 그가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알았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이 가련한 죄인은 그에게 오시는 그 한 분에 대하여 약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알았는지 의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구원의 공훈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을 공훈이 나오는 공훈의 하나님과 구원자로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임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임을 보았다. 그는 인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들 하나님이심을 보았다. 그는, 심지어 그를 소유한 귀신들조차도, 이 위대한 구원자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주권적인 권능을 가지심을 알았다. 그리고 그런 그분이라면, 귀신들과 자신에게서부터 그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그분께 달려와 절하였다.” (마가복음 5:6) — 이 가련한 혼은 끔찍하게 엉망인 상태에 있었다. 그는 강력한 영향으로 뜯겨졌다. 여기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를 파괴로 몰아갔던 군대 귀신이 있다. 그는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사악한 자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증오하도록 성장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을 했다. 처절한 절망 속에 그는 그를 도울 수 있었던 유일한 그 분께 달려 왔고, 그분의 주권적인 권능 앞에 자신을 엎드렸으며, 그분께 경배하였다. C. H. Spurgeon 은 이

렇게 말했다...

“일단 자석이 바늘 가까이로 움직이면 바늘은 자석을 향하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은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선하신 뜻이 그 위에 작용할 때 구원과 거룩을 향하여 달콤한 자진한 마음을 나타낸다. 모든 달음박질이 우리 것인양 우리는 예수께 달려간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진리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 오신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그 일의 중심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가 필요한가? 그리스도께 달려가라! 당신 안에 죄 외에 아무것도 없이, 당신에게서 도망할 시간으로, 당신을 재촉하는 영원과 함께, 당신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과 함께, 당신 위에 있는 하늘과 함께, 아 죄인아, 달려라, 그리스도께 달려가라! 만약 당신이 사함과 평강과 용서와 영생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 달려가라! 나는 이것을 안다 —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께서 공훈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당신에게 달려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죄인들이 공훈이 필요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 달리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달려 오신다!

누가복음 15:20 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하여 얼마나 복된 그림을 받는지. 가련한 탕자가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그가 대항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갖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려 하였기에, 우리는 이 말을 듣는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가! 성경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서두르셨다는 것에 대한 어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표시가 유일하게 있다면, 여기서이고, 그의 귀하고 선택된 탕자를 집으로 급히 환영하는 모습이다! 400 년 전에 Tobias Crisp 가 전했던 설교 안에서 누가복음 15:20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용이 길지만, 그러나 너무나 보배롭고 절실하여 생략하거나 편집할 수 없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본다. 그는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를 훑쳐본다. 아버지는 한 죄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속히 그의 마음은 오직 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가까이 이끄실 그분은 그분께 가까이 이끄실 그들을 분명히 가까이 이끄실 것이다 (예레미야 31:18).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겼다.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속은 아들을 붙잡히 여긴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러 달려 간다. 그분은 속히 죄인을 앞서간다. 공황은 걷는 속도가 아니라 달려 온다. 날개를 달고 온다. 다윗은,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신, 그 발 아래는 어둑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시편 18:9-10). … 아들의 발걸음은 느리다. 그는 일어나서 왔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빠르다. 그는 달려왔다. 비록 아들이 가장 달려갈 필요가 있었고, 공황을 갖고 움직이는 속이 초췌해진 속을 압도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황을 받는 것보다, 공황을 보여 주시는 것을 더 서두르게 하신다. 비참은 걷지만, 공황은 날아간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에 매달려, 그를 껴안고 포옹한다.

아! 은혜의 깊음이여! 키우던 돼지 냄새가 나는데, 그를 만

지거나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 코를 막지 않고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속에 있는 것을 거의 모두 토해내지 않겠는가? 하지만, 보라, 죄인들의 아버지는 그런 더러운 비참한 자들의 목을 껴안는다! 공홀과 은혜는 점잔을 빼지 않는다. 탕자는 부랑자처럼 온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신부처럼 포옹한다. 그 입술이 최근에 돼지 여물통을 핥았고 추한 매춘부와 입을 맞추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입맞춤을 퍼붓는다. 그는 자신에게 입 맞추기는커녕 자신을 오히려 차버려야 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목과 은혜의 이 상징을 아버지는 그의 동정심을 확인하는 인 증으로 아들에게 준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옷을 가져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 아들의 바람은 고용된 종으로서만이었지만, 아,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잔치상을 받는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그가 상상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가 요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모두 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가난과 별 거벗음과 공허한 것이 당신의 방탕 때문에 얼마나 당신을 괴롭히겠나? 당신의 아버지 집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를 따라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수 있는가? 공홀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당신을 대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치 없는 것을 반대하라. 그런 아들처럼 더 가치 없는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겠는데, 공홀을 찾아 그리스도께 달려가라. 그러면 공홀과 무한하고, 압도적이고, 구원의 공홀과 함께 당신에게 달려오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하늘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다. 아! 그 모든 가련한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주셨으며, 그의 구속을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보혈로 사셨고, 이 거라사인 미치광이가 구원 받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인도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주시라

28-36 절을 다시 읽어보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들렸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의 어떻게 구원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 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 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 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절대적 군주시다. 이 귀신들, 군대 귀신은 채찍 맞는 개가 그 주인의 발에 엎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발에 엎드려야 했다. 그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 구원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 주께서 그 귀신들 돼지 떼 안으로 들어가 죽도록 허락하실 두 가지 좋은 이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1.) 그것이 그분의 신성한 구원의 개입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이 지옥의 귀신들이 그에게 했을 것을 이 가련한 거라사인이 알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2.) 그분은 그 성의 사람들이 주목하기를 원하셨다.

우리 주의 은혜로운 계획은 거라사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 사랑의 때가 곧 이를 자들을 향하는 것이었다. 그들을 위하여 저장하고 계셨던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분의 경이롭고, 주권적인 권능을 지옥의 마귀들과 그분의 손에 있는 피조물들 위에와, 그분의 경이롭고, 구원하는 은혜를 한 때 그 성의 공포가 되었던 이 사람 안에서 모두 보이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 우리 구원자께서 이 질문을 하셨으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귀신들이 그분이 들을 수 있게 대답하게 하셨으며, 그분 자신이 알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고, 그 때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과 마지막 때까지 그분의 제자가 될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우리 혼의 대적은 실로 군대이다. 그의 군대의 많은 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 육신의 정욕 안에 거하며, 그의 명령 안에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분이 그분 자신 안에서 정복자 이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의 위대함이고 (로마서 8:37), 그분의 구속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다. “지령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1:14; 43:1).

하늘로 난 죄인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35 절). —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변화였다. 이 공포의 사람이 거듭 났다. 귀신을 갖고 있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소유 당했다. 전에 통제할 수 없이 거칠고 사악했던 그가 그의 주 앞에 앉아 있다. 한 때 반쯤 벌거벗고, 혹은 완전히 벗고 돌아다녔던 그가 옷을 입었다

우리는 천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그 의로 옷 입혀졌다.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족의 옷을 입히셨으며, 영원한 언약의 사랑의 가족의 반지를 끼우시고, 복음의 평강의 가족의 신을 신기고,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가족 만찬에서 우리를 먹이신다.

미치광이 앞에 있던 그는 이제 올바른 정신에 있었다.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갖기 전에는 정신이 나가 있다.”

그러나 일어났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한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두려워하며, 특히 구원 받은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더하다. 이 가련한 혼들은 절대적인 은혜와 전능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 떨고 있었다. 왜?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살았다. 그들과 미치광이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족쇄와 사슬로 묶여 있고, 사회에 의해 길들여 졌다. 그들은 의 대신 족쇄를 그리고 선 대신 그들의 길들여짐을 잘못 택했다.

혹자가 물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이 돼지를 차지하게 허락하셨을까?” 그분은 귀신들을 단지 만족시키려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귀신들이 돼지 떼를 소유하도록 허락하셨다. 사탄이 욕을 유혹하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택한 자의 선과 그분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사탄의 혼란을 위하여 이 돼지 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멸망하도록 허락하셨다. 욕의 시험이 큰 유익과 기쁨을 가져왔고 사탄의 혼란을 가져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이 세상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모든 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욥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 1:8-12; 로마서 8:28-30).

멀시 받으시는 그리스도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36-37 절).

나는 이것보다 더 슬픈 말을 읽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영원히 노예 상태의 죄인들의 회중 한 가운데 세상의 구원자께서 계시다. 그분이 이제 막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 주셨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서 그분이 그들의 삶에 대한 대가를 부가할까 두려워 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한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이상한 기도였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바랐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셨다! 마태는 우리에게 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떠나기를 촉구하는데 하나가 되었다 (마태복음 8:34). 이 가련한 거라사인이 귀신의 소유가 되어 있는 한, 그는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귀신이 그들 사이에서 미친 듯이 날뛰게 하기를 선호했고,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게 하기를 좋아했다!

우리가 매일 매일 동일한 행동을 관찰하지 않는가? 이 거라사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한다.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한때, 우리는 똑같은 것을 했다. 우리는 지금 구원자의 발에 앉아 있고, 옷 입고 우리의 바른 생각 가운데 있는가? 언제나 기도하자. “축복의 구원자여,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나로 당신에게서 절대 떠나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않게 하소서.”

거절된 요구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38-39 절).

이 젊은 개심자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역에 부름을 위하여 전도자가 되기를 잘못 갈망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 주 예수께서 그를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그들에게 전할 말씀과 함께 보내셨다.

주께서는 그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어했던 것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좋은 것, 하기에 훨씬 더 유용한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신의 지역에서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제, 그가 전도자이다! 주께서 그가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말할 것을 그에게 정확히 말씀하셨다. 그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를 위하여 주께서 하셨던 큰 일과 얼마나 그분이 그를 동정하셨는지를 말하도록 보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이 죄인은 주께서 그가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을 했다. —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서의 말을 주목하라.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고하라고 들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말했다. 그는 인자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았다. 그는 그것을 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체험으로 배웠다.

주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선을 위하여 데가볼리에서 이 사람을 은혜롭게 사용하셨다. 구원자께서 그 지역에 오신 다음에, 그는 영접될 준비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왔다. 많은 사람이 그분에 의해 치유 받았다. 다수가 그분의 손을 먹을 것을 공급 받았다 (마가복음 7:31-8:1). 공황이 많은 사람에게 왔는데, 은혜로 구원 받은 한 죄인이 충성스럽게 다른 죄인들에게 주께서 그를 위하여 하셨던 큰 일들에 대하여 말했다!

더 나은 것

은혜가 그 거라사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역사하였는지! 미친 사람이었던 그가, 귀신에 점령 당했던 그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즉시 변화되었으며 그로써 그는 그의 주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갈망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되고 죄와 사망의 잔혹한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질 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지 않겠는가? 일단 우리가 주께서 은혜로우심을 맛보면, 우리는 “몸으로부터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갈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은 즉시 해당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육신 안에 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구원 받은 죄인들은 그들의 타락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를 어둠에서 그분의 경이로운 빛 안으로 불러내신 그분에 대한 찬양”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땅 위에 있는 그분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다. 이런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영원 가운데 노예가 된 죄인들을 우리를 집으로 데려갈 그분이 약속하신 때가 올 때까지 섬겨야 한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약속된 때를 넘어서 여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된 때는 만약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선택하신 자의 안녕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실 것이라면,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없다. Hawker 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변화가 올 때까지, 우리의 약속된 시간의 모든 날’을 기다리며 기뻐하도록 만들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일로 만드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말을 들을 모든 사람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하셨으며, 우리를 축은히 여기셨는지.”를 듣게 하자.

49 장. “그들이 간구하더니”—누가복음 8:31-40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 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누가복음 8:31-40).

어떻게 기도할지 알기를 매우 많이 원하지만, 기도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척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안다. — 기도는 경배와 어떤 관련 있는 것이 있다. 기도는 감사와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관련을 갖고 있다. 기도는 우선적으로 마음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허리를 굽히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의 번영과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관련 있는 것이 있다.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들 대부분이 기도이고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하고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누가복음 8 장을 읽어라.”고 말하겠다. 응답 받은 기도가 구원의 은혜의 증거라고 헛되이 상상하는 그런 많은 사람에게 나는, “누가복음 8 장을 읽어라.”고 하겠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군대 귀신, 주께서 즉시 허락하실 것을 요구하는 군대 귀신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들의 해안에서 떠나실 것을 간청하는 전체 성, 주 예수께 즉시 허락하실 것을 요구한 성이 있다. 여기 구원 받은 죄인, 그 마음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불탔고, 주께서 은혜롭게 그 동료들과 머물도록 허락 하시기를 기도하던 자가 있고, 그 요구를 주 예수께서 부인하셨던 정직한 혼의 기도가 있다.

이런 일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왜 그 일들이 여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는가? 이 것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귀신들

첫째, 31-33 절에서 우리는 귀신이 기도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군대 귀신의 요구를 허락하신다. 주 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시면서 들어주셨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옥의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으로 떨고 있었을 때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전혀 기도가 아니다. 지옥의 그 마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 하에 있으며, 전적으로 그분에 의해 통제 받고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알고 인정하지만, 그런 인정은 참 경배가 아니다.

돼지 떼가 가련한 거라사인을 점유하고 있던 귀신들인 그 귀신들의 영향으로 파멸로 처박힌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점유하고 있는 지옥의 영향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그들의 혼을 파멸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탕자

둘째, 37 절에서 우리는 타락하고, 방탕한 죄인들이 있는 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을 간청하고 그분이 떠나셨던 것을 본다. 주 예수께서는 거라사인을 점령했던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하심으로써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
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광경이 아닌지! 이 사람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 세상의 구원자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
셨다!”

그런 요구를 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하였나? 그들은 주께서
하셨던 것을 정확히 알았다. 그들은 그분의 권능을 알았다. 그들은
그들 앞에 앉아계신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와 구원의 권세의 증거
를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떠날 것을 간청하였다! —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께서 그들의 성을 떠날 것을
간청하였다. 그들은 귀신들의 몰수자가 그들을 떠날 것을 애걸하
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혼의 치유자가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
의 자녀들을 떠날 것을 원했다.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을을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자께서 그들을
내버려두고 떠날 것을 간청하였다. — 왜?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그들의 해안에서 떠날 것을 간청했을까?
거라사인들이 거칠고, 하나님의 아들보다 마귀에 점유된 사람이
그들의 거리를 떠돌아 다시는 것을 더 선호했을까? 분명히 그
들은 그랬다. 그러나 왜? 나는 이 짧은 문장으로 그 대답하겠다.
—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그것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만약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 가운데 머물렀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들 자신의 판단 속에 확신하였다. 따라서, 대가를 계산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소서! 만약 당신께서 하셔야 한다면, 우리에게 지옥의 귀신을 주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고 떠나소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그분이 하셨던 것이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 거라사인들과 정확히 똑같다. 우리는 모두 격렬하고, 제멋대로이고, 통제되지 않은 우리 마음의 정욕과 사탄의 끔찍한 통치와 지옥의 흑암의 영향과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달콤한 통치와 그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보다 더 선호한다. John Trapp 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돼지들이 익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가기를 간청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만약 멸시 받는다면 진노의 날, 주께로부터 방문을 받는 때가 있는데, 만약 멸시된다면 진노와 복수와 영원한 파멸의 날이 될 것이다. 멸시 받은 빛은 흑암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거절 받은 긍휼은 영원한 슬픔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가 거라사인의 죄를 짓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자 (욥기 21:14; 호세아 4:17; 잠언 1:23-33; 29:1).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끊임 없는 기도가 되게 하자. — “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남겨두지 마소서!”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조차, 나는 우리 혼에 대한 하나님의 큰 긍휼을 상기한다. 당신은 아닌가? 우리를 떠나시려 했을 하나님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들을 우리도 역시 찾던 때가 오래 전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우리 마음의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거절하셨다. 그가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를 거절하셨다. 그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남겨두시기를 거절하셨다. 그가 우리를 포기하기를 거절하셨다. 그가 우리에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호세아 11:8) 라고 외치셨다.

그야말로 은혜로운 기적이고, 주권적인 공훈의 개입이며,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전능한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격렬하게 멸시하였던 그분인 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찾게 할 수 있다.

거절된 요구

셋째, 38 절과 39 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다른 높은 가르침의 그림을 주신다. 여기 주 예수께서 그 요구를 은혜롭게 거절하셨던 주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거하도록 허락하실 것을 기도하는 구원 받은 죄인이 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참 믿는 자이다. 그는 하늘로서 태어난 혼이다. 그에게서 귀신들이 내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사람 안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를 그려볼 수 있겠는가? 그곳에 그가 구원자의 발 아래 앉아 있고, 감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되었고, 찬양으로 가득하다. 그는, 그의 생애 있어서 처음으로, 온전한 정신 가운데 있다. 이 새로 거듭나고, 하늘로서 난 혼이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열심으로 충만하였다.

우리 주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충격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전에 인지했는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은 그의 가족과 고향을 포기할 것을 허락하기를 거절하셨다. 그분은 젊은 부자 관원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다. 치유된 문둥병자는 주께서 그를 위하여 하셨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 받았다. 다른 사람은 심지어 집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낼 것조차도 허락 받지 않았다. 우리 구원자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분은 그분 앞에 있는 각각의 경우가 요구하였던 것을 정확히 아셨고, 각각을 그들의 상황의 필요 따라 다루셨다.

왜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의 진정한 요구를 거절하셨을까? 그것은, 물을 필요 없이, 정직하고, 사랑스러우며, 은혜롭고, 찬양하는 마음의 기도였다. 그 안에 아무런 이기심이나 이기주의가 없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사람이 선한 이유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을 아신다. 이것이 거라사인에게 큰 긍휼의 행위였다. 이것은 이 사람의 가족에게 선의 기적적인 표시였다. 한마디로,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요구를 허락하시기를 거절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그에게 그분의 마음의 요구를 주실 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있었다 (로마서 8:26; 마태복음 6:9-13).

이 구원 받은 죄인이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기를 거절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그의 가장 좋은 곳과 환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임을 확신시키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보할 것을 은혜롭게 명령하셨다 (잠언 3:5-6). 주께서 그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은혜롭게 사용하셨다. 주 예수께서 그가 유혹 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그를 은혜롭게 구원하셨다.

이 젊은 회심자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가서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사역으로의 부름을 위한 전도자가 되려는 갈망을 가진 잘못을 저지른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 주 예수께서 그를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할 말씀을 갖고 집으로 보내셨다.

주께서 그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하시거나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좋은 것, 하기에 훨씬 더 유용한 것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신의 동네에서 증인이 되게 하셨다. 자, 그것이 전도자이다! 주께서 그에게 그가 증인이 될 자들에게 할 말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 그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께서 그를 위하여 하셨던 큰 일들과 그를 얼마나 축은히 여기셨는지를 말하도록 보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이 죄인은 주께서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했다. —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더라.” (마가복음 5:20). 여기 말을 주목하라. 그는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전파하라고 들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했다. 그는 예수께서 주이심을 알았다. 그는 체험으로 주님 자신에게서 그것을 알았다.

주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선을 위하여 데가볼리에서 이 사람을 은혜롭게 사용하셨다. 구원자께서 그 지역으로 오신 다음에, 그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왔다. 많은 사람이 그분으로 치유를 받았다. 다수가 그분의 손으로 먹게 되었다 (마가복음 7:31-8:1). 공홀이 많은 사람에게 왔는데, 은혜로 구원 받은 한 죄인이 충성되게 다른 죄인들에게 주께서 그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말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거라사인에게 역사하였는지! 미치광이였고, 귀신에게 소유되었던 그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즉시 변화되어 그의 주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 받고 죄와 사망의 끔찍한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 질 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경우가 아닌가? 일단 우리가 주께서 은혜로우심을 맞보면, 우리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갈망할 수 밖에 없다 (고린도후서 5:8). 그러나 이것이 즉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육신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빌립보서 1:24). 구원 받은 죄인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선포해야 한다. “우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야 한다 (베드로전서 2:9).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땅 위의 그분의 교회의 지체들로 삼으셨다. 이런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묶인 죄인들의 혼을 그분이 약속하신 때가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섬겨야 한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약속된 시간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된 시간은,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선택 하신 자들의 안녕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게 된다면, 아주 오래지 않을 것이다. Hawker 는, “이것이 우리를 ‘우리의 변화가 올 때까지, 우리의 약속된 시간의 모든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쁘게 만들도록 하자.” 고 썼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일을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해주는 것과 우리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지 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심”에 대하여 듣게 될 것을 우리의 인생의 일로 만들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50 장.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누가복음 8:41-48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대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41-48).

우리 주 예수께서 죽게 되었던 딸에게 공훈의 기적을 베푸시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구원자께서 거라사에서 행하셨던 것에 대하여 신속하게 주변에 말이 퍼졌다. 따라서, 야이로는 주께 달려와서, 그분의 발에 엎드려서, 그의 집으로 오셔서 그의 딸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이 따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면서, 군중이 모이기 시작했다. 당신은 그 야단 법석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누가복음 8:41-42).

흥분이 공중에 가득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분이였다. 모두가 그의 주장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시작했고 다른 아무도 가능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함으로써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다. 거라사에서 귀신들 자신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셨던 그들의 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그가 어린 소녀, 그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매우 저명한 시민이었던 사람의 딸을 치료하려 가고 계시다. 이 어린 소녀는 죽음 직전에 있었다. 모두가 그 기적을 보기를 원했다. 그들은 그분이 걸어가시는 것을 따라서 몰려들어 가능한 가까이 주를 따라갔다. 모두가 흥분하였다. 모두가 알고 싶어했다. 모두가 기대로 충만했다.

그들이 따라 갈 때, 한 가난하고, 구부정하고, 빈혈이 있는 여인, 열두 해의 오랜 고통의 시간 동안 혈루증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군중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그 여인을 거의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게 하려 했을 것이다. 그녀는 불결하다. 그녀는 거리에서 조차 있지 못할 정도로 법적 권리가 없다. 그러나,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녀는 죽어가고 있다. 그녀는 주 예수에 대하여 들었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녀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사렛 예수께서 실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그녀는, “만약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확신하건데, 그가 나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녀는 군중을 뚫고 가까이에 갈 때까지 기어들어 갔다. 그리고, 약하게 떨면서 믿음으로 손을 뻗었고 주 예수를 만졌다.

그녀가 그분을 만지자 마자, 주 예수께서 그분이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셨다. 그분은 덕과 능력과 효험이 그분에게서 나가는 것을 느끼셨다. 따라서, 그분은 뒤로 돌아서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말했다. “농담하시는군요.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으로, 당신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고 하셨다.

이 가련한 여인이 주 예수를 만졌을 때 그녀의 질병을 치료 받은 것처럼, 죄인들이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자 마자, 그들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 받고, 율법의 저주와 죄의 유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마가가 우리에게 이 사건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주고 있고, 우리는 마가복음 5 장에서 그가 기록한 자세한 것들을 집어낼 것이다.

저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3 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가복음 5:25-26).

우리 모두가 질병을 초래하고, 아프고 죽는다는 사실보다 모든 인간의 완전한 타락에 대한 더 큰 증거는 없다. 모든 질병과 병과 사망은 죄의 결과와 죄 때문에 인류 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이다.

이 여인의 질병은 천연적으로 우리 모두 위에 임한 죄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의 특별한 예였다. 그녀의 질병, 그녀의 끊임 없는 혈루증은 그녀의 의례적으로 불결하게 만든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있다. 우리는 죄로 괴롭힘을 당했다. 죄의 질병은 우리를 불결하게 만든다. 불결하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차단 당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라.

그녀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있었다.” 그녀는 그녀를 죽이고 있었던 불구로 만드는 질병 때문에 의식적으로 불결하였다 (레위기 15:25). 이 불쌍한 혼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마가복음 5:26). 그녀는 돌팔이 의사와 사기꾼과 뱀 기름 약 초상과 신앙 치료자들을 포함하여 마을의 모든 의원들에게 갔다. 그곳에는 사람들의 혼에 무수히 “쓸데 없는 의원들”이 있었다 (욥기 13:4). 결정 박사가 죄인들이 예수에 대한 그들이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선행라 박사는 삶을 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혁할 것을 죄인에게 강력하게 권고한다. 자유의지 박사는 죄인에게 스스로 생명 안으로 의지를 스스로 갖도록 권고한다. 의식 박사는 가련한 혼에게 그가 필요한 은혜를 얻으려면 종교적 의식과 성찬식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바른 교회 박사는 가련한 혼에게 올바른 교회에 들어간다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흥분 박사는 죄로 병든 혼에게 그분을 구원할 하나님을 얻을 때까지 기적을 찾고, 방언을 말하며,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것을 촉구한다. 감정 박사는 사망한 죄인들에게 회개의 느낌과 그리스도에 대한 비통함과 동경을 위하여, 그로써 그들이 구원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바라보기를 촉구하면서, 내성적 경향을 규정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가련하게 죽어가는 여인이 “이편 것을 모두 허비하였다”는 말을 듣는다. 이사야 46:6 에 묘사된 것처럼 우상의 도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비록 그녀가 “쓸데 없는 의원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허비하였으나, 그녀는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길 잃은 죄인들에게 쓸데 없다. 그것은 결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죄인들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 뿐이다. 그리스도 없는 종교적 실행은 저주를 먹고 마심이다 (고린도전서 11:29). 아, 죄로 불구가 되었으며, “쓸데 없는 의원들”을 찾는 대신에, 눈물과 이 여인처럼 그들 자신의 힘 가운데 개혁하려 시도하는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데려가게 될 것이다!

군중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45 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가복음 5:24-27).

주 예수를 밀치던 군중들처럼,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많은 이유로 그분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흥분으로 끓어올라서 오며, 군중을 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압박으로 고백하게 된다. 많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다.

군중들은 우리 주께 쇠도하였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이 어떤 유익을 얻었다. 오직 한 사람이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만졌다. 이 큰 군중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그분을 필요로 하였다. 오직 한 사람이 주 예수께서 실제로 그녀의 병을 치유할 수 있었음을 믿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만졌다. 지혜롭게 되어 그녀의 예를 따라라.

“손을 뺀어 주를 만져라, 그가 지나가신다.

그가 당신의 마음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음을 알 것이다.

이 순간 그가 지나가신다,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그가 지나가시니 손을 뻗어 주를 만져라!”

치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45-46 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명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 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찌어다.” (마가복음 5:27-30, 34).

여기 몇 가지 사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 주목을 끈다. 이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이 그 가장 중요한 방면들을 놓친다. 그것들이 그 여인 위에 모든 강조점을 두고 있다. 감동이 공홀의 수혜자이고 은혜의 후원자로서만 그 여인에게 강조를 한다. 그러나, 공홀의 행위와 은혜의 역사가 얽려되고 있는 한, 그 강조는 구원자 위에 두어야 한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죄인이 온전

하게 된 것과 아주 동일한 방법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섯 가지 역사로 온전하게 되었다.

1. **섭리의 역사** — 그녀의 질병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그리스도께 데려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다른 사람의 파멸과 사망이었던 그것이 그녀에게 공훈의 도구였다. 그분의 지혜롭고 은혜로우며 선하신 섭리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선택 받은 죄인을 사랑의 때에 약속의 구원자와 함께 데려 오셨다.
2. **말씀의 역사** — 그녀는 “예수에 대하여 들었을 때”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오셨다 (마가복음 5:27).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지 않고, 복음에 대하여 듣지 않고 구원 받은 적이 없다 (로마서 10:17;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하나님은 결코 은혜로운 약속된 방법을 지나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3. **은혜의 역사** — 하나님의 은혜는 본문에서 말로 언급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하여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은혜는 “어떤 여인”을 선택 하였다. 은혜는 주 예수께서 그녀를 지나가게 하였다. 은혜가 그녀가 그분에 대하여 듣게 하였다. 그리고 은혜가 그녀의 믿음을 주었고 그녀 안에 믿음을 역사하게 하였다 (에베소서 1:19; 2:8; 빌립보서 1:29; 골로새서 2:12).
4. **믿음의 역사** — 이 여인의 믿음은, 모든 참 믿음처럼, 하나님의 은사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오기로 선택하였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로 선택하였다. 그녀는 그분의 권능의 날에 기꺼이 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기꺼이 하였다. 그녀는 은혜의 달콤한 강제함으로써 오게 되었지만, 그녀는 왔다.

5. **전능의 역사** —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능하며, 거절할 수 없는 권능의 품이 이 일이 이 선택 받은 죄인을 향하여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일어나게 하셨다. 이 여인에게 구원자로부터 나갔던 능력은 그분 자신의 전능한 은혜였다.

고백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47 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마가복음 5:30-33).

우리 구원자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것은,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필요를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입으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10). 이 여인은 구원자에게 와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녀는 그녀의 질병에 대하여, 그녀가 겪었던 그분의 은혜로운 권능과 그분의 전능한 공효이 가져왔던 치유에 대하여 주 예수께 모두 말했다.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비밀한 곳에서 뿐만 아니라, 엄청난 군중 안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두에게 약속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우리는 결코 주 예수께서 이 경우, 이 가련한 여인에게 나타내셨던 풍성한 온화하심을 충분히 감탄할 수 없다. 그녀는 비밀스럽게 치유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아니다! 예수께서 그분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공개하셨을 것이다. 가련한 죄인들에게 대한 그분의 은혜는 그렇게 선포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끝없는 세대를 통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빛나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 하는데 듣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우리 자신을 공개적으로 구별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여인의 고백이 믿는 자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구원 받게 한 것 이상으로 그녀가 치유 받도록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우리 고백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구원에 의하여 하게 된 고백이다. 우리 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구원에 관하여 고백한다.

칭찬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8 절). —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위로의 원천을 선포하신다. 그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다. 그분은 또한 그분 자신이 그 대상이고 창시자이신 은혜의 큰 역사인 믿음을 칭찬하신다.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처럼 그리스도께 그런 영광을 가져오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처럼 우리 혼에 쓸모 있는 것은 없다.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삶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 안에 서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 안에서 죽는다. 아무것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한 복음 9:35)

하지만, 이 기적의 최우선적인 대상은 그 여인의 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축복된 구원자의 큰 은혜이다. 비록 그녀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때, 그녀가 갖고 있던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녀에게 주어진 믿음이고 그분의 영으로 그녀 안에서 역사한 믿음이다 (골로새서 2:12). 분명히, 가련한 혼은 모든 주목에서 피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분을 만지자 마자, 주께서 그녀의 필요를 알았고 그녀를 치유를 행하셨다는 것 모두를 그녀에게 알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개인적인 자기시험이 되게 하자. 나의 믿음이 실재인가?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나님의 이 은사가 나의 것인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51 장. “아이야, 일어나라.”—누가복음 8:41-56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이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 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8:41-56).

이 단락에 기록된 그 두 가지 기적들은 우리의 배움과 위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함께 섞여 있다. 주 예수께서 그 여인에 의해 멈춰진 것을 본 야이로의 믿음에 얼마나 큰 시험인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일어났을지! 그의 필요는 급하였다. 그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완전히 동요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그의 죽어가는 딸에게 가기 전에 한 가련한 여인을 치유하기 위하여 멈추셨다. 종종, 그것이 주 예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과 일치한다. 그분은 우리 기도에 거의 즉시 대답하시지 않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대답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가장 최선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신다. 야이로가 바로 그렇게 했다. 어떤 동정심을 그분이 보이셨는지! 어떤 인내를 그분이 행하셨는지! 어떤 자기 부인을 그분이 예시하셨는지! 어떤 믿음을 그분이 실행하셨는지!

43-48 절에 기록된 그 사건은 모든 때 지속되고 있었고, 야이로가 그의 죽어가는 아이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딸을 향하여 마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움직였던 그분이 그의 때에 그의 딸을 치료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 예수 앞에서 그는 다만 인내를 갖고 기다렸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야이로는 주 예수를 기다리기를 계속하였다. 주께서 그를 믿는 이 갈급한 혼을 위하여 행하신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기적이 얼마나 큰가! 그의 사망한 딸이 구원자의 말씀의 권능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였다. 사망은, “공포의 왕이라 불린다. 그러나 여기 그 공포의 왕보다 더 강력한 한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손에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사망과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셨다. 곧, 그가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실 것이다” (이사야 25:8). 그리고 이 어린 소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모든 무리를 부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과 무덤에서 살리실 것이다.

헛됨

이 단락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첫 번째 것은 모든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들의 철저한 헛됨이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 그 말은 좌절하고, 기분이 언짢은 늙은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표면을 행보하였던 사람에게 불과한, 가장 지혜로운 자의 말이다. 솔로몬이 사람이 시공간의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형국에서, 그는 모든 땅엿 것과 물질적인 것은 철저하게 헛되고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야이로는 십중팔구 엄청난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회당의 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딸, 그의 유일한 딸은 죽어가며 누워 있었다.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마음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열두 살 밖에 안 되었다. 가서 야이로에게 물어 보라.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권력과 영향력과 명성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 세상이 달라고 하면 거저 당신의 것이라며, 지금 무엇을 원할 것인가?” 그는 아마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나는 한 가지만 요구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한다. 나는 그분이 내 집에 오시기를 원하며, 나의 가족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나의 유일한 사랑스러운 죽어가는 딸에게 공황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어떤 가치나, 중대성이나, 중요성에 대하여 실제로 없다는 것을 배울지 의심스럽다. “보이는 것은 잠간이니.” (고린도후서 4:18).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라! 이 세상에 있는 아무것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치를 둘 것보다 더 높이 가치를 두지 말자.

사망

이 단락은 또한 슬픔과 질병과 사망의 확실성과 보편성을 보여준다. 야이로의 딸은 단지 열두 살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프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죽어가고 있었다. 질병과 슬픔과 사망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공통된 것들이다. 야이로는 믿는 자였다. 하지만, 그의 어리고 사랑하는 딸이 그가 주의 도움을 찾아 집을 떠났을 때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리스도께서만 줄 수 있었던 그 도움을 찾고 있는 동안 주었다.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 각자는 곧 죽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방법으로, 약속된 장소에서 죽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축복 받은 안식이다. 우리 주께서, 야이로의 딸과 관련하여,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다 (52 절). 그것은 나사로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다. 실제로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26)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잠든다. 그들의 육신은 땅 속에서 잠든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영원한 슬픔과 고통의 시작이다.

기도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1 절). — 나는 기도에 대하여 아주 많이 아는 척 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참 기도가 있는 곳 마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안다.

1.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생긴다. — 마가는

우리에게 야이로가 “그분을 보았다!”고 말한다.

2. 기도는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드린다. —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3. 참 기도는 끈기 있게 하고 절박한 것이다. — 우리는 야이로가 “그분께 간구하였다!”
4. 참 기도는 언제나 절박하고 끈기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으로 느끼는 절박한 필요에게서 생기기 때문이다. —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5. 참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안의 믿음의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나는 이것 또한 안다. —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우리가 마땅히 벨바”를 아는 사람이 없다 (로마서 8:26). 우리는 결코 무엇이 최선인지 모른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혼의 선,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자가 없다.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기도는 우리 세속적 정욕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주께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기도,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포함한다. 그것은 옳고 최선인 것을 하기 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향한 믿는 자의 울부짖음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약 실로 내가 그분을 알고 신뢰한다면, 나는 그분이 계획하셨던 것을 원한다. 나의 뜻을 그분의 뜻에, 나의 갈망을 그분의 계획에, 나의 기쁨을 그분의 영광에 넘겨드리며, 그분의 뜻이 최선임을 앎으로, 그분께 엎드린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지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우리 마음의 참 신임을 보여 주신다 (로마서 8:26).

야이로는 이 단락 안에서 이 영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딸이 죽지 않기를 구하면서 주 예수께 왔다. 그가 딸이 죽었다고 들었을 때, 그는 계속하여 구원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요구

49 절과 50 절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믿음이다. 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역사임을 전적으로 깨닫는다. 하지만, 믿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오직 믿기만을” 요구하신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께서,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려 한다면, 그분의 명령은 “오직 믿기만 하라.”이다. 만약 우리가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 한다면, 그분은,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믿기만 해야 한다.” 요한복음 11:40 에서 우리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본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실행 가운데, 주께서 기도에 아무런 은혜로운 응답을 주시 않으시는 것 같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가져 오실 때, 우리 마음이 차갑고 죽어 있으며 우리 영이 쇠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야이로를 기억하고 우리 축복의 구원자를 여전히 바라보자. 일들이 소망스럽게 보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것은 한 가지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소망이 없게 보일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기력, 우리 마음의 부패, 우리 혼의 타락을 대부분 느끼고 알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사망했음을 느낄 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고린도후서 1:9) 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25-26)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기를 기뻐하자.

전능한 그리스도

나는 성령이 누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만 “사망에서 피함이 속한” (시편 68:20)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이 사건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셨음을 확신한다. —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54-56 절).

이 영광스러운 기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망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것과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지를 한 번 더 본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분이 죄인을 영적 사망에서 생명과 믿음으로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의 권능으로 부르실 때, 그분은 비밀스럽고, 주권적으로 사망한 혼을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공훈의 손으로 만지신다.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선택 받은 죄인을 부르신다. 사망한 자는 전능함으로 부름 받으면서 그리스도께 살아서 온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자는 놀란다. 살아 있는 죄인이 놀란다. 지각 있는 성도들이 놀란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종교주의자들이 놀란다.

그리스도의 공급

43 절에서 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그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에게 먹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유지시키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하신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자녀의 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위한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계속 공급하신다. 이 종말에 그분은 그분의 교회에 그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목사들을 주셨으며, 그분의 영으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으며, 지식과 깨달음과 함께 복음의 전도로 그분의 백성을 먹이시려 하였다 (예레미야 3:15; 에베소서 4:8-16).

부활

야이로의 딸의 부활은 하나님의 책 안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 자신의 부활의 예외적인 약속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오시고 그분의 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곧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영광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1-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52 장. 이런 일이 또 있는가?—누가복음 9:1-6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9:1-6).

전도자, 그리고 목자/교사의 사역을 따라서, 신약은 선지자와 사도의 사역에 대하여 말한다. 선지자 책무는 침례자 요한과 함께 끝났으며, 사도 책무는 사도들과 함께 끝났다. 오늘날에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초자연적 은사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그와 반대로 주장한다 할 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고 더 충만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오늘날 아무도 없다.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거나 혹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사도들이 주를 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자들로서 선택 받고, 가르침 받고, 보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에서 모든 참 복음 전도자들은 사도들이고, 사람들의 혼에 보내진 사자들이다.

선지자의 사역은 붙잡기에 더욱 어렵다. 선지자의 일과 사역에 대하여 듣거나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오늘날 듣거나 읽을만한 어떤 것도 찾기 매우 어렵다. 선지자의 사역은 그 음성을 들은 모든 자에 의해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사역은 아무도 규정할만한 말을 갖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종종 “오늘날 선지자는 예언자라기 보다 앞서 말하는 자이다.”고 천명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말을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로 적용한다. 그러나 에베소서 4 장은 선지자에 대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특정한 은사로 말한다. 목사는 그가 섬기는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교사이며, 그 집회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이다. 충성스러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일을 행하며, 도처에 있는 사람들의 혼의 구원을 구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복음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한다.

절대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다. 오늘날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내 시대에 두세 명의 그런 사람들을 알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행보하는 특권을 가졌었다.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때 이런 선지자를 묘사하였다.

“선지자는 광야에서 나는 음성이다. 나팔을 불고, 이상을 선포하며, 세부적인 것에 애쓰거나 프로그램을 계획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는 방법과 수단을 고안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노선을 따라 은사를 받았다. 그는 이사회나 위원회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고독한 혼이며 혼자 그의 최선의 일을 한다. 그는 앵무새나, 애완동물이나, 흥생사가 아니다. 그는 선지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다른 어떤 것이 되려 한다면, 그는 자신과 다른 모두에게 낭패가 된다. 그는 국가에서나 교회에서 모두 정치가에게 인기가 없다. 그는 성직자들로 둘러 쌓여 있지 않고, 기회가 요구한다면 해롯을 여우라고 부를 것이다. 그는 머리를 개조할 수 없는 반역자이고, 획일화 시대에 있어서 독불장군이다. 그는 이사야가 큰 소리를 냈을 때 가졌던 것보다 혹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이 베델에 오도록 외쳤을 때 가졌던 때보다 단순한 종교에 대해 더이상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거나 적어도 하지 않을 말을 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정치인은 나라의 안녕 대신 다음 선거에 그의 눈길을 둔다. 전도자가 승진과 사다리 다음 단,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랍비라 불리는 것에 그의 생각을 갖는 것이 가능하다. 선지자는 분쇄기 축이 없다. 그에게 옆 목장의 풀은 더 푸르지 않거나, 어떤 사람의 일을 찾지도 않는다.

우리는 학자들, 전문가들, 사회활동가들, 연예인들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거룩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들의 죄 충만 가운데 자신들과 그 불결함 가운데 있는 땅을 보았던 목격자들이 필요하다. 선지자들은 이삿짐을 싸거나, 인상적인 통계를 산출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초라한 응답

을 받거나, 그들이 들었든지 아니든지, 그 청취자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운집하지 않는다. 귀가 간지러운 세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는 바리새인들에게 유명하지 않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따라서 선지자들 중 가장 큰 자가 그분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다.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그는 선지자들은 살아서 돌을 맞았고 죽어서 존귀하게 되었다. 기념물로 잘못 인도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범 죄를 덮기 위하여 한 세대의 표시가 될 것이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기가 없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우리 주의 선언을 본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3:57). 어떤 현대 선지자가 그의 후보다 더 낮게 살아가게 되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그들의 보상을 받으며, 냉수 한 잔이라도 할 지라도, 그들을 조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인기 없는 종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던, ‘선지자실’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엘리야의 계승자를 위한 많은 후보자들이 없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다.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는

이 시대에 큰 접시 위에 가져가지 않는다. 미가 같이 이 시대에 고독한 반대자를 입다물게 하는 더 유연하고 더 기민한 방법들이 있다. 혹자는 심지어 침묵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성공은 박해가 실패할 때 어떤 사람들의 입을 막았다.

침례자 요한처럼 선지자는 그 높은 위치를 꺾고, 낮은 위치를 세우며, 주를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왔다. 그는 겨자나무 위에서 강연하고, 겨자 찜질 약을 만들고, 그것을 탈난 곳에 부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때 위로를 받겠지만, 그는 편안한 것을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때 전도로 행해진 활력과 홍보와 선전과 촉진으로 성취하려고 한다. 숲은 훈련된 요원들로 가득하나, 이런 것들 중 어떤 것도 선지자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엘리야의 계승자를 위한 선상에 있는 어떤 젊은 엘리샤도 학자의 생각과 어린 아이의 마음과 코뿔소의 가중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는 상태 인용을 유지하기 좋아하는 자들을 안달 나게 할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방해자 이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신성한 경륜 가운데 그의 지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불해야 할 것으로 많은 가망성이나, 촉진이나, 명성은 없다. 그러나 아함의 증오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려 하는 “아직 한 사람”이 언제나 있어 왔다.”

그와 같은 선지자들의 필요가 더 컸던 적은 없었고 우리 시대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공급이 더 적다. 여기 누가복음 9:1-6 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열두 제자들, 열두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자들로 영원히 매회인 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 그분은 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다. 이 열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자로 이 복음 시대에 보내진 첫 번째 사람들이었다. 우리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지침은 사역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두신 어떤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 기대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여섯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보내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다.

신성한 권위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1 절). 하나님의 사자들이 부여 받은 권능과 권세는 지어낸 권세와 능력, 악선전이나 종교적 보여줌이 아니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사자들에게 권능과 권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사탄, 지옥의 영향, 죄의 황폐를 능가하는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 무엇이 이 권능과 권세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대답을 준다.

1.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들에게 주신 권능과 권세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권능과 권세이다 (테살로니가전서 1:2-5; 로마서 1:15-16; 히브리서 4:12; 요한복음 12:32).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사용하는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부음과 성유의 권능과 권세이다 (고린도전서 2:1-5).
3. 하나님의 성도들이 전하기 위한 권능과 권세는 확신 있는 믿음에서 일어난 권능과 권세이다 (갈라디아서 1:11-12; 디모데후서 1:9-12).
4.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이 권능과 권세는 참 순종의 권능과 권세이다 (디모데후서 2:25).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이 부름 받은 일을 하기 위한 권능과 권세를 주는 순종은 사람들이 보이는 뻔뻔하게 칭찬하는 거짓 순종이 아니라, 자신 세대에서의 노아의 순종이고, 바로 앞에서 모세의 순종이며,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순종이고, 헤롯 앞에서 침례자 요한의 순종이며, 종교회의 앞에서 베드로의 순종이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순종이다. 순종은 약함과 굴욕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속하고 섬기는 겸손한 자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요구를 받았다는 겸손한 자각이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권능과 권세를 준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있는 것이다.

선지자의 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일을 알고 그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다. —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2 절). 나는 전도자이고, 그 외 아무 것도 아니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만 전도자일 뿐이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의 일에 대하여 어떤 것도 절대 아는 척 하지 않겠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나, 신학자 혹은 역사학자라는 어떤 주장을 하거나 그런 척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부르셨던 것을 정확히 안다. 나는 내 일과 책임이 복사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임을 정확히 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디모데전서 1:11). 내가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한 위임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아무 것도 아무도 나를 이 위대한 일에서 제쳐 놓지 않도록 정해졌다. 그것은 극단적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일이다.

1. **학습 - 끊임 없는 학습!** — 학습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 스스로를 전도자라 부르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성경 공부에 스스로를 몰두하게 하라.
2. **기도 - 열렬한 기도!** — 전도자들, 참 전도자들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들은 기도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 않는데, 그들이 이 분야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경건하게 말하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할 지 가르치시기를 언제나 간청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의 백성을 섬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철저한 의존에 대하여 끊임 없이 아는 가운데 산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3. **전도 - 복음 전도!** — 전도자들은 전도한다. 이것이 걸리게 할 것임을 알지만, 말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전도자들이며, 사회 복지사가 아니고, 조언자가 아니며, 후원자가 아니고, 연예인이 아니라, 다만 전도자들이다! 슬프게도, 전도자인척 하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성직자 이길 원한다. 따라서 그들의 많은 시간을 방문과 상담하는 것으로 보낸다. 그들의 사무실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고 참회의 행위를 처방하는 큰 고해 성사 실이다. 그것이 사람들이 “목회자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목회자 일은 학습과 기도와 전도이다. 주께서 그분의 교회에 세속적 일들을 보살피기 위하여 집사를 주신 바로 그 이유는 전도자들이 그들 자신을 냉혹할 정도로 학습과 기도와 전도에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목회자의 관심

복음 전도의 큰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이다. 이 열두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면서 사람들의 몸과 혼 모두를 섬기는 것에 열중하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자를 대신하여 상처 입는다. 그들은 슬퍼하는 자를 대신하여 슬퍼한다. 그들은 그들이 전도한 자에게 지워진 부담을 그들의 마음에 짊어졌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사람들의 혼에게 하나님의 사자라면, 나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필요를, 영적 필요와 세상적 필요 모두를 관심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 (로마서 9:1-3; 10:1; 16:1-27).

복음으로 살아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사를 받았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복음에 의해 살아야 한다. —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3 절). 우리 주께서는 여기서 특별히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한 생계를 예비하는 것을 금하신다 (고린도전서 9:7-14). 하나님의 책 안에서 복음 사역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물질적 결핍은 없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반복하여 나타나는 주제이다.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이다.

구약의 모세 경륜 하에서 신성한 예배의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사역을 하였던 사람들은 성전의 것들로 살았다. 제단을 섬겼던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였다 (고린도전서 9:13).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 제사장, 레위의 자손은 회중의 성막 안에서의 그들의 섬김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소유의 십 분의 일, 그들의 돈과 재산과 곡식과 가축의 십 분의 일을 받아야 했다. 유대인들은 레위 제사장의 사역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되기 위하여 십일조를 지불할 것이 요구 되었다 (민수기 18:21). 어떤 이유에서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에게서 흠치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말라기 3:8-9).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보다 이 복음의 시대에 있어서 십일조를 낼 것을 더이상 요구 받지 않는다 (골로새서 2:16-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3).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다. A. D. Muse, Louisville, Kentucky 에 있는 Hearts Harbor Tabernacle 의 전 목사는, “만약 당신이 십일조를 지킨다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다. 만약 당신이 십일조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무법자이다.”고 하곤 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십일조를 단지 내는 사람은 명백한 율법주의자 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반율법주의자 이다. 누구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인색한 구두쇠임에 대한 변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그가 가진 수단을 제공하기를 이기적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자는, 두렵건대,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준다. 그들은 관대하게 주며, 기뻐하며 준다.

신약에서 복음 사역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주어진 가르침은 틀림없이 명백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관대하게 지원할 것이 기대 되었다. 이것이 기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실행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색하고, 자기 중심적인 속물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그들의 손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0:9-10; 누가복음 10:4-7; 디모데전서 5:17-18).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자들은 그들이 말씀 안에서 수고하는 대상인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원 받고 유지 되어야 한다. 충성된 선교사들은 그들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지역 교회의 목자로서 보낸 교회에 의해 충분하고 관대하게 지원 받아야 한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그들 자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막을 제작할 것이 요구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명예로운 일이었다. 바울은 그의 목표가 자신을 부유하게 하려 이 아니라, 어린 교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데살로니가전서 2:9), 어리고, 약한 믿는 자들에게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고린도전서 9:15-19)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시간과 노력을 천막을 만드는데 보냈다는 사실은 교회들에게 치욕적으로 다가갔다. 복음 안에서 세워졌던 그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곳 저속을 여행하였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필요를 공급할 책임을 확실히 했어야 한다. 신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 각 지역 교회의 책임으로 만든다.

하나님께 분별됨

하나님의 사자들은 세상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분별되었고 복음에 분별되어 있다. —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4 절). 그들은 복음에 분별되어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아무 것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예배처도, 개인적인 재산도, 유명한 위치도, 인정과 명성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인정도, 세상의 부도 구하지 않는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곳마다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눔을 기꺼이 섬겨야 한다. 그는 인정 받음 없이 기꺼이 살고 수고해야 한다. 선지자는 짧은 시간 동안에만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지나가며 살아야 한다 (빌립보서 4:12-13).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선지자들은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밭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5 절).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한다. 만약 그들의 일이 헛된 것으로 보이면, 그들은 계속하고,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58). 그들은 좋은 씨를 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는 대로 심고 물을 주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한다. 그들은 정해진 때 돌아올 것임을 알면서, 그들의 떡을 물에 던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헛되게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므로, 충성되게 복음을 전한다 (이사야 55:11).

하나님께 쓰여짐

진정으로 단 두 가지 종류의 전도자들만 있다. 사용하는 자들과 사용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하는 전도자들이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는 전도자들이다. —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6 절).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도처에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을 병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치유하도록 보내셨고 그들을 치료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열두 사람을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교회에 보내시기를 바란다 (고린도후서 4:1-7).

53 장. “이 사람이 누군고?”—누가복음 9:7-11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9:7-11)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큰 역사에 대하여 들었을 때, 헤롯은,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라고 물었다. 모든 믿는 자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시라는 사실 위에 그들의 불멸의 혼에 대한 소망을 둔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요한일서 5:1). 그분은 우리가 영생의 우리 소망을 건축 했던 기초이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모든 구약 선지자들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되었던 분임을 믿는다.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는 전체 그리스도인 세상, 하나님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이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순종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은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고 우리는 아직 우리 죄 가운데 있다. 만약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교활하고, 가장 빗나간 사기꾼이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요한복음 6:69) 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신은 실제로 확신하는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많은 자들이 있어 왔다. 아마도 침례자 요한이 그에 대하여 물었던 것을 우리가 주 예수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좋을듯 하다 —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마태복음 11:3). 헤롯이 물었다. — “이 사람이 누구고?”

당신이 유대인에게 증언하고 있었고 그가 당신에게, “당신이 경배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구약 성경에서 내게 보여달라.”고 한다고 가정하라.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당신에게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이천 년도 더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실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 주기 원한다.

헤롯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시편 40:6-8 을 보라. —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때에 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메시아 말고 어느 누구에게 적용하기란 솔직히 불가능하다. 실로, 고대로부터 유대인 해설자들이 이 시편은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물론, 사도는 히브리서 (10:5-10)에서 이 예언이 나사렛 예수의 위격과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선포한다. 이 세 구절 안에서 선지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참 메시아를 구별하게 될 네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이 네 가지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만 그것들의 성취를 찾는다. 여기 다윗은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

1. 율법 경배의 제물과 의식이 그치게 될 것이다.
2. 그는 여호와와의 자원한 종이 될 것이다.
3. 성경 예언의 본체가 성취될 것이다.
4.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할 것이다.

성경을 찾아보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구약 성경의 예표와 약속과 예언들이 오직 한 사람에게 맞도록 만든 맞춤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라.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구원자, 주 예수이다.

율법의 마침

첫째, 다윗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율법 경배의 모든 제물과 제사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쳐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 하시며.” (시편 40:6). 모세 경륜의 제물과 제사와 율법은 결코 구원의 수단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런 것들은 죄를 없앨 수 없고, 공의를 만족하게 할 수 없었으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 없었다 (히브리서 10:1-10). 율법의 제물과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본성과 필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유용할 뿐이었다. 일단 그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그쳐져야 하며, 그것들로 다른 예배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모세에 의해 주어진 율법은 죄를 구별하고 드러내며, 불법한 행위에서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고, 대속의 필요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었다. 일단 율법이 그 계획을 행했을 때,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른 필요가 없으며 사람에 대한 권세를 갖는 것이 그쳐졌다 (로마서 10:4).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물과 제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분 안의 믿음으로 지켜졌던 것으로서 제외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으심을 일깨우셨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22).

“내 백성아, 들을 찌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

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제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 50:7-13).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16-17).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그릇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

1:11-14).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9:27).

구약 성경의 이 다섯 단락을 해설 없이 읽으면, 율법 경배의 제물과 제사가 결코 영구하게 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들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일시적인 그림들이다. 모세 언약 조차도, “십계명”이라 보통 부르는 것 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오직 일시적인 언약으로 계획되었을 뿐이다 (예레미야 31:31-34; 참조: 히브리서 8:7-13).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의 통치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에 대한 계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계획되었고, 그분에 의해 그것이 성취된다 (해갈라디아서 3:24-25).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구약의 제물과 제사는 지키는 것이 끝났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적어도 천 년 전에,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제물도, 제사도, 혹은 율법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실 것이었다 (구속, 칭의, 의, 용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물과 제사는 오직 발판이 되는 것이었고, 그분의 왕국의 건축을 위한 일시적인 필요였지만, 이제 제거되었다. 모든 유대의 제물과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의미를 갖도록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주의를 A.D. 70 년에 파괴하셨을 때 모든 것의 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제가 끝났다. 제사장 직분이 끝났다. 성전이 끝났다. 제물이 끝났다. 열방이 끝났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야라는 첫 번째 증거가 여기 있다. 그분이 그분의 일을 마치셨을 때, 율법 경배의 제물과 제사들이 그쳐졌다.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성전의 성막이 둘로 갈라졌다. —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51). 비록 유대인이 장래의 메시야를 기다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그들이 헛된 것만큼 어리석다. — 이 예언이 어떻게 다시 성취될 수 있겠는가?

여호와와 종

둘째, 다윗은 메시야,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와 자원한 종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 준다 (출애굽기 21:1-6).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의 자원한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의 일을 행하셨다 (이사야 42:1-4; 50:5-7; 히브리서 10:5-7; 요한복음 10:16-18; 누가복음 12:50).

여호와와 자원한 종이신 그가 여호와와 동등하다! 모든 천사와 사람들과 피조물들과 마귀들과 행사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한다. 모든 이성적 존재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풍성 위에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자원하여 섬기려 오셨다. 그분은 아무 것도 빚지신 것이 없었고 얻어야 할 것이 없었는데, 그분 자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이신 그 인자는 스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45:6-7).

여호와와 그의 종은 성취하기 위한 특정한 사명을 갖고 세상에 왔다 (마태복음 1:21).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는 그분의 타락한 백성을 그들의 죄를 없앴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을 그 한 분으로 약속되었고, 기다려졌으며, 신뢰 받았다 (이사야 61:1-3; 누가복음 4:18).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효험 있게 구속하고 구원하였든지, 아니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르메니아 주의와 자유 의지 종교의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분임을 아는데, 메시아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이 그분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의 성공에 의존하며 좌우되기 때문이다 (시편 2:7-8; 65:4; 110:3). 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하신 분이 그분의 의로운 종이심을, “그는 쇠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4)라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쇠하지 않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6:37-40; 10:16; 히브리서 10:10).

성취된 예언

셋째, 선지자 다윗은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성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시편 40:7; 히브리서 10:7). 이 말,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비밀하고, 영원한 계명의 책을 가리킨다 (계시록 5:1; 10:2).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히 구약 성경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를 가리킨다.

구약 선지자들의 기록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 가운데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창세기 22:18). 야곱이 유다 족속을 축복하였을 때, 그는 사람들이 모일 실로에 대하여 말했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분, 하나님의 백성이 들었을 분인 그 선지자에 대하여 말했다. 시편과 선지자들 가운데 메시아는 여러 가지 호칭이 주어진다.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떠받치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지,” “주 우리의 의,” “언약의 사자.”

이 모든 이름과 호칭은 메시아에 속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나?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자를 찾아야 한다. 구약의 예언들은 메시아를 특징지을 여덟 가지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 이 여덟 가지 것들로, 그리스도가 규정된다. 그리고 이 여덟 가지 것들은, 실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를 제외하고, 정직하게 역사 가운데 과거나 미래의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1. 메시아가 오시는 시간은 예언 안에 분명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날과 시를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역사 가운데 그 시간을 규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되돌아 보는 자들은 그것을 실수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의 오심은 매우 특정한 시간의 틀 속에 맞춰져야 한다. 그것은 유다 안에서 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간 정부의 파괴 전에 있어야 했지만 (창세기 49:10), 그러나 한편으로 성전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서 있었다 (학개 2:6-9). 메시아는 다니엘의 칠십 이레의 중간 쯤에 나타나야 했고 (다니엘 9:24-27), 그것은 예루살렘에 성전의 재건 이후 453-457 년이 될 것이며 (A.D. 33), 그리스께서 죽으셨던 해였다 (다니엘 9:24-27). 37 년 후 (A.D. 70)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께서 땅 위에 사셨을 동안 세상에 오셔야 했다. 그분은 다른 어느 때에 오실 수 없었다.

2. 메시아께서 태어나셔야 했을 장소는 분명하게 예견되었다. —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 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미가 5:2).
3. 메시아가 오셔야 했던 가족은 다윗의 가계였다 (시편 132:11; 이사야 11:1). 유대인들은 많은 것에 대하여 논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 예수의 계보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
4. 그리고 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 (이사야 29:18; 35:5-6; 42:6-7; 마태복음 11:2-4).
5. 메시아는 굴욕과 순종과 고독으로 구별되는 왕으로서 오신 분이어야 한다 (스가랴 9:9; 마태복음 21:1-9).
6. 메시아는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했다고 예언되었다. — “메시아가 끊어져야 할 것이나, 스스로를 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함이 아니라” (다니엘 9:26; 이사야 53:1-12). 우리 주를 괴롭힌 자들은 바로 그 말씀을 이용했고 그분의 선지자에 의해 예언하셨던 바로 그 행위를 행하셨다 (시편 22 편을 보라).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과 치욕과 십자가형과 죽음을 묘사하는 그 말씀은 나사렛 예수의 죽음 가운데에서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7. 성경은 메시아께서 그의 육신이 찌기 시작하기 전에 사망에서 살아나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시편 16:9-11; 이사야 53:10-12).
8. 그리고 선지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그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으심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질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였다 (이사야 49:5-6; 요엘 2:28-32; 갈라디아서 3:13-14).

다윗에 의해 주어지고 나사렛 예수에 의해 성취된 예언들이 있으며, 그 예언들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확신하게 된다:

1. 그분이 그것들을 성취함으로 율법 경배의 제물과 제사에 종말을 고하셨다.
2. 그분은 여호와의 자원한 종으로서 세상에 오셨다.
3. 그분은 기록된 구약의 두루마리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행해진 하나님이 뜻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것을 저장해 두었다. 여기 우리가 가진 가장 크고, 가장 복된 확신이 있다. 이것으로써, 다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예수 우리 구원자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 다윗은 그리스도, 메시야가 누구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8).

주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기쁨을 갖고 오셨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던 것을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마음에 있었으며, 그로써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순결하였고, 죄와 구별되었다. — 그는 죄를 알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데, 그분의 율법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의 모든 가르침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 그분은 영원한 의를 가져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의 뜻의 모든 행하심에 자신을 대가 없이 던지셨다. 그분의 삶은 그분이 겿세마네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결의를 보여 주셨다. —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되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완전한 만족과 속죄를 하나님의 공의에 이루셨고, 율법의 징벌을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다 (히브리서 10:5-14).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열납하셨기 때문에 안다 (로마서 1:9-10; 8:32-34; 요한일서 5:1).

“이 사람이 누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메시야가 할 것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므로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안다. — 그분은 자명한 구원자로서 오셨다. — 그분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셨다. 믿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영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계시 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과 구세주이심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권능이심을 입증한다. —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 —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요한복음 6:69).

54 장.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누가복음 9:7-11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벧새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9:7-11).

죄책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7 절). —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것은 힘들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한다. “궤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잠언 13:15). 세상에 아무 것도 죄책감보다 사람에게 더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없다. 이것이 헤롯이 발견했던 것이다.

헤롯은 강력하고,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보여주셨던 우리 주의 사역의 소식과 하나님의 큰 권능은 그 “큰” 사람을 아이처럼 떨게 하였다. 그의 죄책감이 그에게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상상하게 하였다. 그의 수 많은 호위병과 요새 같은 왕궁도 고통스럽게 하는 양심으로 그의 혼 가운데 일어나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를 안심하게 할 수 없었다.

비록 그가 삶을 편하고 즐겁게 만들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둘러 쌓여 있었지만, 헤롯은 비참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전도자의 보고가 그에게 그 큰 선지자의 선주자에 대하여 상기시키고 그를 공포로 가득하게 하였다. 침례자 요한을 죽인 그의 죄에 대한 기억은 그가 떨쳐 버릴 수 없는 그의 혼 안의 타는 불이었다. 그는 밤낮으로 쟁반 위에 있는 침례자의 머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의 시야에서 없앨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그의 생각에서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헤롯의 죄가 그를 알게 하였다. 감옥과 검이 침례자의 혀를 침묵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의 음성을 침묵하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혼 전체에 울려 퍼지고 그의 양심 속에서 소리치면서 헤롯의 귀 속에서 계속 울렸다. 바로 이 시간에, 지옥에서 헤롯은 그가 듣기를 거절 하였고, 그가 머리를 잘랐던 그 의의 전도자의 기억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여기 성경의 바로 이 한 구절로부터 배울 세 가지 강력하고, 교훈적인 공과가 있다.

1.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묶이거나 침묵할 수 없다.

복음 전도는 당신의 혼 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든지, 아니면 당신의 혼에 영원히 지옥의 불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게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든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향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게 못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2:14-16).

2. 당신의 양심은 당신의 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영원한 메아리이다.

감히 할 수 있다면 조롱하고 비웃어라, 그러나 당신은 그것이 진리임을 안다. 당신은 영원의 이 편에서 그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 사실에 의문조차 갖지 않는다. 당신은 그렇다는 것을 안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의 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영원한 메아리이다.

만약 내가 틀리지 않다면, 양심은 도덕적 피조물들로써 우리 조상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부분이다. 양심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양심은 누구도 그리스도께 결코 데려갈 수 없다. 각 사람의 양심은, 죄로 인하여, 앞을 못보고, 무지하며, 잘못 인도 된다. 하지만, 양심은 죄에 대항하여 혼 안에서 큰 목소리의 증언과 시위를 일으킨다. 그것은 죄책감 있는 혼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것은 범법자를 떨게 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사망과 심판과 영원을 두려워하게 하는 죄의식과 죄의 양심이다.

혜롯의 체험이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말하지 않은 수백 만이 증언할 것이다. 그들의 양심은 자신의 무덤에서 그들의 옛 죄들을 불러낼 것이며, 그 죄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행진할 것이며, 그들의 혼 안에서 꺼지지 않은 불이 불타게 할 것이며, 영원한 죽음이 그들의 마음 위로 파고 들면서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3. 죄의식의 양심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 치유만 있다: — 그리스도의 피이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내 양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피의 속량 말고는 아무 것도 내 비명 지르는 양심을 잠잠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피가 내 죄의식의 양심의 비명을 만족하게 하고 침묵하게 한다. 실로, 그분의 피가 내 양심이 나를 의롭다 선포하도록 한다 (히브리서 9:11-14).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8 절). —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말라기는 수백 년 동안 모두 죽어 있었다. 그러나 죽어 있는 그들이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음성은 침묵할 수 없었다. 비록 헤롯이 이교도이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믿지 않았으며, 이방인들이 철저한 멸시 가운데 사로 잡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자들로서 살았던 자들을 괴롭혔다.

그 늙은 이교도 헤롯은, 그의 호위병이 쓰러졌을 때, 사실상 그가 죽은 자의 부활과 그 혼의 영원히 죽지 않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은 모든 혼 위에 새겨진 일들이다. 당신은 그것이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죄의식이 당신의 혼 안에서 일어나고 당신의 양심이 사망의 예측으로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이 하든 애쓰면서, 영원이 신화라고 당신 자신을 결코 확신시킬 수 없을 것이다.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9 절). —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했던 그분이 이제 자신을 성육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선지자가 언급하였던 분으로 알도록 만드시기 시작했다. 주 예수께서 요한의 사역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셔서 헤롯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기적들과 그의 신성한 권위에 대하여 들었을 때 떨게 되었다.

책임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10 절). — 주께서 복음을 전할 이 사람들을 내 보내셨다. 그들의 일이 완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께 돌아와서 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드렸다. 그들이 전한 가르침, 그들이 채용한 방법들, 그들의 말을 받은 사람들과 그들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 곧, 우리는 동일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왕국 안에서 섬기고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 분께 돌아갈 때가 오고 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데리시고 따로 벳새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10 절). — 여기서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을 배우도록 하자.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왕국의 유익, 그분의 복음과 사람들의 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영적 건강과 안녕에 있어서 본질적이다. 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약 우리 우리 자신의 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곧 쓰디 쓴 슬픔을 갖고 울게 될 것이다.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가 1:6).

게으름은 가증스러운 것이다. 자신의 삶을 게으름과 쾌락 속에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비난 받아야 한다. 복음 전도자는 특별히 스스로를 사역의 일에, 학습에, 기도에, 전도에, 복음의 확대에 헌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된 방법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즉, 공예배, 복음 전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학습하기, 개인적인 묵상, 기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등이다.

때때로, 나는 내 책과 연필을 내려 놓고, 내 책상에서 물러나서, 운전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루 이틀 동안 일에서 멀어지기조차 하고, 내 마음의 정직한 물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 “네가 어디 있느냐?” —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 “네가 왜 이것을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밀하게 황무지로” 데려가셔서, 그들의 혼의 필요를 보살피시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11 절). — 이 세상 가운데 행보하셨던 분으로써 얼마나 온화하고 은혜로운 우리 구원자 인자였는지. 그분은 피곤하셨다. 그분은 열기에 차게 수고하셨다. 그분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휴식을 필요로 하여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따라 오셨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필요를 쏟아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따라 왔을 때,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주를 따라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 만약 당신이 사복음서를 다시 통독하면서 관심을 갖고 읽는다면, 당신은 이것이 언제나 우리 주의 공개적이고 비밀한 사역의 주제였음을 볼 수 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 본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성립인 구원을 선언하셨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주와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자원하여 항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께 향한 우리 생명에 대한 자원한 포기이다 (누가 복음 9:24).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은혜롭게,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는 것을 읽게 된다. 그것은 사실이며,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뿐더러,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은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 나는 그것이 이걸 의미한다고 하겠다: —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에게 은혜롭게 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모두 치료하시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경우에 있어서, 그분에게 치료 받지 않았던 자에게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그 치료가 필요했던 단 한 사람의 혼도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 극단적인 경우가 그분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았다. 곤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은혜의 공급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돕기 위하여 그들의 약함과 무능이 치료 받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 뜻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라: —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를 위한 치료가 여전히 있다!

“죽어가는 사랑의 어린 양이여, 당신의 보혈이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량 받은 교회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 구원자의 이름은 여호와라파이다 -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분 안에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 전능자께 능력을 원하심은 없다. 당신의 혼이 치료되어야 하는가? 당신 같은 많은 사람이 주 예수에 의해 치료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딘가에 당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치료 받았던 다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크게 끔찍할 정도로 약함으로 충만한가? 주 예수께서 막달라인에게서 일곱 귀신을 내쫓지 않으셨던가? 아마도 당신의 약함은 일곱 귀신들조차 보다는도 더 크게 보일 것이다. 그분이 거라사의 미치광이에게서 군대 귀신 전체를 몰아내지 않으셨는가?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음을 보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분은 멍청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치료하셨다. 당신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완고하고 무감각한가? 그가 병어리 귀신을 내쫓으셨다. 암도 당신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믿을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한다. 역시 말라버린 팔을 가지 사람이 그의 팔을 뻗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였다. 그분은 당신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다. 비록 당신 죄 가운데 사망하여도, 주 예수께서 여전히 고치실 수 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 당신의 경우는 그분의 은혜에 견줄 수 없다. 주 예수께서 이전에 그런 것을 많은 때 정복하셨다.

나는 주 예수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아는데, 세상의 모든 역사 안에 고침 받지 않았던 자가 고침 받으려 그분께 왔던 고독한 혼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다. —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그분이 당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이 인자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마음이 부서진 자를 특별히 묶으시려 여기 오셨다. — 잠시 멈춰서 죄인들의 치료를 위하여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생각해보라. 그분은 그분의 중보자적인 성취로 전능한 은혜를 실행하시는 권세를 받으셨다 (요한복음 17:2).

나는 주 예수께서 당신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데, 그분이 나를 치료하셨고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답이 필요한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 당신은 치료 받을 필요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치료가 필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다면, 당신을 그분이 치료하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허이 필요하다면, 그분이 그것을 내려 주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것들을 틀림 없이 깨달으려면, 이 큰 차이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자가 죄인들이나, 그들 자신 속으로 그런 자는 거의 없다.

이런 자들에게 주께서 보내지신 것처럼; 그들은 오직 회개하는 죄인들이다.

구원자께서 결코 비통하게 느끼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오실 수 있는가?

죄인은 거룩하게 된 존재다;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죄 때문에 분명히 슬퍼하기 전에, 그분에게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 충성된 말씀을 소유하자,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 오심은, 죄인들이 그로써 구원받기 위함이다.

죄인들이 그분의 높으심 안에서 높으니, 죄인들이 그분을 높이 여긴다.”

Joseph Hart

주 예수께서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모든 자를 치료하신다. 만약 당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의 그분 안의 믿음은 당신에게 또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은사이다. 그분은 당신의 혼의 질병을 치료하셨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다. 당신은 멸망할 수 없다.

한번은 스페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1869년 9월의 첫 주에 그는 총살형 집행대 앞에 섰다. 그를 대신한 모든 탄원이 거부되었다. 미국 정부가 스페인 법정이 그를 처형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를 재판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은 그들의 판결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가 죽어야 했던 그 날, 미국의 대사가 사형수와 그의 처형자 사이의 들판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사형수를 미국 국기로 감쌌고 저격수에게 말했다. “감히 쏠 수 있으면 쏘라. 저 국기가 상징하는 나라를 무시한다면, 당신에게 미합중국의 모든 분노와 능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거기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앞에 죽음의 집행자가 있었다. 단 한 발이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조기로 쌓여 있으니, 그는 마치 그가 강철 옷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완전히 손상될 수 없었다.

모든 믿는 자도 마찬가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갈보리의 핏빛 붉은 깃발로 감싸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그 깃발을 뚫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 피가 무효이고 헛되다고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치료가 필요한 모든 자를 위한 치료가 있다.

55 장. 오병이어와 오천 명의 식사—누가복음 9:12-17

“날이 저물어가매, 열 두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삽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 두 바구니를 거두니라.” (누가복음 9:12-17).

이 단락은 우리에게 다섯 덩어리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오천 명을 먹인 우리 주의 큰 기적에 대하여 누가가 감동 받은 이야기를 제시한다. 이 기적은 우리 주의 다른 기적들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그리고 요한은 모두 그것을 기록하도록 감동 받았다. 분명하게, 성령은 우리가 그 이야기에 특별한 주목을 하도록 의도하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성령은 모든 복음 기자들에게 땅 위의 사람들을 우리 주께서 다루시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감동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종종 읽고, 주의 깊게 학습하고, 계속하여 그 이야기에서 배우도록 하셨다. 그분의 기적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들은 아직 이해되고 있지 않았다. 엘리야의 종이 보았던 구름처럼 (열왕기상 18:44), 이 복음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마다 더욱더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과부의 음식을 담은 통처럼, 이 성경 안에는 영적 가르침의 무한한 충만이 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었다. 대부분은 한 두 번 주의 깊게 읽으면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면 읽을 수록, 더욱더 그것의 부요와 충만과 신선함 속에 길을 잃는다.

내가 이 공과를 끝냈을 때, 언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더욱더 많을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말했다. 이 깊고, 깊은 광산의 표면을 긁기만 할 것이다. 이 풍성한 광산의 길을 긁으므로 해서, 당신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네 가지, 선택된 덩어리를 찾았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

첫째, 이 단락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는 아무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아, 내가 얼마나 이것을 배울 수 있고, 정말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지. 하나님께 아무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뜻을 단지 행사하십시오. 인하여, 그분은 다섯 덩어리의 떡과 두 마리 작은 물고기로

오천 명을 먹이셨다.

이것은 우화도 아니고, 혹은 심지어 비유도 아니며, 혹은 풍유도 아니다. 이 큰 기적은 수천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행되었다. 태초에 무에서 만물을 창조 하였던 그 동일한 신성한 능력이, 여기서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만들었다.

이것은 어떤 뱀 기름 행상의 속임수도 아니었고, 어떤 사람의 일도 기적의 일꾼을 믿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외하고 아무 것도 이 큰 일을 설명할 수 없다. 5000 명의 배고픈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배가 고팠다면 그들이 배불렀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 중 누구라고 배고픈 채 남았다면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가 남지 않았을 것이다.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으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던 바로 그 동일한 손이 여기서 5000 명을 먹이려고 작은 떡 다섯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늘렸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피조물의 왕, 섭리의 왕, 은혜의 왕이시다.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다.” (로마서 4:17).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분이 어떤 것을 뜻하실 때,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분이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 그것은 행해진다. 그분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약함 가운데 강함을 가져오신다. 그분은 비통함을 웃음으로, 눈물을 노래로, 마음의 신음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그리고 그분은 무에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놓여진 그 일에 관련하여, 우리가 잘 실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하신 분의 종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삶의 부패를 보고 그들의 마음의 타락을 알 때, 그들의 마음의 완강한 모질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불신이 너무도 확고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워진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이 한 가지 사항 때문이 아니었다면 철저한 절망 속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분의 은혜가 속박되어 있지 않다. 그분의 팔은 전능하다. 선지자가 물어볼 것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 37:3) —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살 수 있다! 그 가련한 혼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면, 그는 하실 수 있다! 이 반역의 아들이 변화될 수 있는가? —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신다면, 그분은 사할 수 있다! 이 부도덕한 딸이 이길 수 있나? — 만약 하나님께서 그녀가 이기도록 하신다면, 그녀는 이길 수 있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한복음 17:2). 우리 앞에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자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메시아가 여자에게서 난 인자이심과 동시에 (이사야 7:14)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것은 이사야에 의해 약속되었다 (이사야 9:6). 여기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전능하신 모습이 있다. — 떡 다섯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로, 주 예수께서 여자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5000 명의 남자를 먹이셨다. 그 일은 홀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홀로 “모든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인 (시편 136:5) 하나님 자신이 아니 다른 사람은 불가능함을 보
여 주었다.

모든 믿는 자는 이 복된 사실을 그 마음 속에 보물로 삼도록 하자.
우리 구원자, 우리를 향하여 동정심이 충만한 분은 스스로가 “전
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지자이며, 아무 것도 그
분께 어렵지 않다!

믿음

둘째, 이 기적은 믿음에 대한 공과를 우리에게 주려 의도 되었다.
제자들은 “무수히 보내지기를” 원했다. 그들은 거룩한 분을 한정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
엘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라
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무능함으로 주
예수의 능력을 측량하려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수리아 인
들의 눈으로 나아만이 요르단 강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바라 보았
다!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경계하도록 하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하갈을 내리고 사라를 올려야
하며, 인간의 논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 행하
여야 한다. 믿음은 증거 없이 믿고, 심지어 증거에 모순되더라도
믿고,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27)는 것을 믿는다. 이 구절에 있는 두 문장은 영적
교훈으로 터진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 두 마디를 듣고,
은혜로 그분을 신뢰할 것을 요청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 마태는 우리에게 그가 이 달콤한 확신, “갈것 없다” (마태복음 14:16)는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셨다고 말한다. — 은혜와 확신에 대한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 만약 이 배고픈 혼들이 먹을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날 필요가 없었다면, 당신과 내가 그분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분의 사랑의 깃발 아래 어슬렁거릴 필요가 없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언제나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갈것 없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과 타협하는 것에 결코 변명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것에는 결코 이유가 없다. 그리스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무시하는 것에는 결코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거나 우리를 위하여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히브리서 4:16; 잠언 3:5-6).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16 절). — 당신의 어떠한 모든 것과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갖고 와라. 그분은 저주를 없애고, 그분의 축복을 더하시며, 우리의 하찮은 떡과 물고기를 그분의 왕국 안에 있는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큰 효용성과 영적 유익의 도구로 만드신다. 작은 것이 주의 손 안에서 많은 것이 된다! 사람들이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이 되어 왔다. — 그분은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하기 위하여 아기의 울음도 사용하셨다. — 그분은 목자의 지팡이를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다. — 그분은 골리앗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쓰러뜨리기 위하여 한 소년과 한 밭을 사용하셨다. — 그분은 그분의 선자를 먹이시기 위하여 가난에 찌든 과부를 사용하셨다. — 그분은 나아만을 엘리샤에게 이끌기 위하여 작은 소녀를 사용하셨다. — 그분은 밭람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당나귀를 사용하셨다. — 그분은 천 명의 블레셋 인을 죽이기 위하여 당나귀의 턱뼈를 사용하셨다. — 그분은 그분의 제자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려 작은 아이를 사용하셨다. — 그분은 이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기 위하여 한 소년의 점심을 사용하셨다. — 그리고 그분은 그들 자신 속에서 쓸모 없는 죄인들인 사람들을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사용하신다 (고린도전서 1:26-29; 고린도후서 4:7).

복음

셋째,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아름답고 분명한 비유로서 제공된다. 우리는 절대로 비유를 성령께서 만들지 않는 곳에서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절대로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율법과 은혜 사이의 구별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서 바울이 사라와 하갈을 사용하였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4),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기록된 기적들을 주심은 영적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사막 같은 곳에 있던 이 배고픈 군중은 이 세상에 있는 길 잃은 인류의 좋은 상징이다. 아담의 모든 자손은 멸망하는 혼들, 길 잃고, 소망 없고, 굶주리고, 영원한 멸망의 가장자리 위에 있고, 그리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의 복음이 없는 자들의 집합체이다. 그들과 영원한 멸망 사이에 단 한 번의 숨 밖에 없다.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로마서 1:15-16).

떡과 물고기는, 그렇게 많은 필요를 채우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쉽사리 멸시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하여 정하셨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 대한 전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잘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린도 전서 1:21-23; 요한복음 6:33). 이 단락에 있는 떡과 물고기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도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모든 영적 필요를 채운다.

인간 조력

넷째,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자신을 낮춰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 조력을 사용하신다. 아니, 천 번이라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이 군중을 먹이셨던 그분은 그분의 가련하고, 약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쉽게 하실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계획은 아니었다. 그분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할 없는 것으로 하라고 명령하셨다. —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쥐라.”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손에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저들의 빈 손인 사람들이 오천 명을 먹이셨다! 이 전체 사건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림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안배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배고픈 군중은 인간에 대한 생생한 상징이다. — 이 큰 광야,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막”에 있는 죄인들은 공허한 혼들, 빵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목자 없는 양 떼이며, 떡이 없이 굶주린 혼들의 한 가운데 있는 공허한 혼의 무리이다. 그러나 우리 축복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동정심 있는 구원자이다. — 마가와 누가는 모두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그분 앞에 있는 군중을 보셨을 때 “측은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 안에서 인간의 혼의 모든 필요를 채워 줄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은 하늘의 떡이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제자들,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큰 특권을 가졌던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전도자들의 상징이다. — 우리는 떡이 없다. 그러나 그는 갖고 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일은 간단하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다. 그분의 제자들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를 받지 않았다면, 이 군중은 배고픈 채 가버려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충성된 목자에 의해 먹도록 순종할 자들은 떡이 없이 남아 있을 것이다 (로마서 10:17; 히브리서 13:7, 17). 복음 전도는 당신의 혼의 안녕에 중요하다 (에베소서 4:8-12).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보라.

모두 배불렀다

다섯째, 우리는 17 절에서 먹은 자 모두가 배가 불렀다는 것을 본다. 모든 군중의 만족과 남은 것으로 채워진 바구니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충만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으로 내게 보인다. 당신은 그분의 식탁에서 배고픈 채 결코 떠나지 않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이다. 그분이 먹이시는 자들을 그분이 채우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먹은 모든 자들은 배가 부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분 안에 충분히 있고 각자를 위하여 그분 안에 충분히 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모두에게 거저 주신다. 그분께 오는 모든 자는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므로, 우리 혼을 위한 만족을 찾는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므로, 우리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다. 하지만, 은혜의 창고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분이 모든 배고픈 혼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집의 선함으로 그것을 풍성히 만족하게 하신다. 모은 조각으로 찬 열 두 바구니가 있고,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떡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다 (시편 34:7-10; 37:23-26; 107:9; 23:1-6).

우리 구원자의 이름은 여호와이레 이다.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주이다.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그분에 대한 그들의 섬김 때문에 결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22:35).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그분을 섬겨야 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빌립보서 4:19).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 빈 알곡통을 넘치게 하실 수 있고 기름이 계속하여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손에 그분이 주신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 더 많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공급하신다. 옛 격언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실 때 조금이 많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축복하심은 아주 조금 가는 것을 멀리 가게 만드실 것이다. 기록되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채소를 먹는 것이 살진 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 (시편 37:15; 잠언 15:17).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56 장. 베드로의 고백—누가복음 9:18-22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 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9:18-22).

처음 볼 때, 부주의한 독자는 아마도 이 말씀 속에 아무런 특이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나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큰 무지에서 일어난다. 베드로의 여기 고백은 참으로 주목할만한 하다. 그것을 공부하면 할 수록, 더 주목할만한 하고 복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라.

이 고백은 세상의 나머지와 함께 베드로를 이상하게 만든다. 그 시대에 거의 아무도 그리스도와 같이 있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항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을 고백하였다. 그 자신의 나라의 통치자들과 그가 알았던 모든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과 사람들, 그리스도에 모든 사람이 반대하였을 때, 베드로는 그분을 고백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분이 선지자,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부활한 선지자라고 기꺼이 인정하려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

이 믿음의 고백은 엄청난 믿음과 특질과 헌신과 열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왔다. 베드로에 대하여 의도하는 것을 말하라. 내가 알기로, 그는 흠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과소평가 하지 말라.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 은혜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 베드로는 참된 마음, 열심이고, 신실한 우리 하나님의 종이였다.

마태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조금 더 완전한 기록을 제공한다. 사람의 아들의 얼굴을 바라 보면서, 베드로는 그 인자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6). 베드로는 인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 안에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 그는 멸시 받는 나사렛 사람이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 모든 선지자가 말하던 그 한 분이심을 고백하였다. 한 마디로, 그는 인자,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 (마태복음 1:21). 베드로가 알았고 몰랐던 것을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을 고백하였다. 당신은?

홀로 기도하심

우리 앞에 있는 첫 번째 분명한 공과는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말은 자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 —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8 절). 우리 주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은 결코 없었다. 우리 구원자처럼 사람들의 혼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전도자는 결코 없었다. 기억하라, 이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하나님 자신이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혹은 그분의 형제들 가운데 몇몇 하고만 기도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서 읽는지.

선구적인 선교사, William Carey 가 한번은 말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들을 기대하라.” Carey 는 이것을 첨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들을 시도하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들을 기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만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모든 영적 노력 가운데 기도는 유용함에 있어서 비밀이다. 우리 주의 예를 따르도록 하자. 기도하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 수고 위의 그분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 사역에 출석하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라.

종교적 잡담

둘째, 19 절을 읽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말과 사색이 사탄이 많은 사람을 파멸하는 덧임을 배워라. —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끝 없는 잡담과 사색과 논쟁으로 들어야 할 때 말하고, 배워야 할 때 가르치려 하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 것에 대하여 독선적인 의견을 제시 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덮으려 시도한다.

우리 주의 땅의 사역의 시대 동안, 길을 막고 나사렛 예수를 언급했다면, 그분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을 분명히 듣게 되었을 것이다. 많은 의견을 도처에서 들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 사망에서 살아났다고 아주 확신하였다. —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세상에 돌아왔다고 동일하게 확신하였다. —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고 절대적으로 인정하였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 주께서 다른 전도자들과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같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였다. 아무도 그분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으로 결코 오해하지 않았다! 그분의 가르침이 그분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였다. 복음 이야기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통독하라. 태반이, 종교적이고 또 다른 자들은 우리 주의 기적들과 그분의 가르침과 혹은 심지어 그분의 하나님의 권위 조차도 절대 부인하지 않았거나 혹은 심지어 도전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 혹은 구원자로 인정하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 주의 시대의 사람들을 방해하고 오늘날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배타성이었다. 우리 주께서 직접 선포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그분만이 “그리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 “길,” “진리,” “생명,” “문,” “구원자,” “선한 목자,” “왕,” “구속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다.

도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매우 강하고, 과장된 생각, 지옥이 천국에 대한 것처럼 성경에 관계없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절대 놀라거나 전혀 혼돈되지 말아야 한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을 혼돈케 한다. 아무도 복음의 사역 하에 자리할 수 없고 그것으로 영향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복음이 명백한 표현으로 분명하게 전파된다면,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머리 숙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반역과 불신에 대한 논리를 세울 것이고, 그들 자신의 교리적 이론을 날조할 것이고, 옳다고 그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추측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언제나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허비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을 만난다.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듣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그것에 사로 잡혀, 이리 저리 휘 져고, 그것이 용두사미로 끝날 때까지 싸구려 탄산수를 권 어린 아이처럼 흥분하여 그것을 갖고 도처로 달려간다.

다수는 종교적 추문으로 그들이 알았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 모른다. 그들은 그들이 듣거나 읽은 모든 것을 시험하고 비판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만족한다. — “Mahan 형제는 조금 약해지고 있다.” — “Nibert 형제는 너무 강하다.” — “Bell 형제는 너무 감정적이다.” — “Fortner 형제는 너무 독선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다.” — “Harding 형제는 타협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저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사람은 건전 하다거나, 저 사람은 건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진실한 것과 진실하지 않은 것,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먹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황폐함을 퍼붓고, 혼란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어디에도 기여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이곳 저곳으로 달려 간다.

해가 거듭되면서, 그들은 동일한 상태에 있고, 언제나처럼 혼란되고, 마치 독선적인 것처럼, 말하고, 비판하고, 잘못을 찾고, 억측을 하고, 물어뜯지만, 결코 기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 주변을 나방처럼 맴돌지만, 그것들을 먹는 벌처럼 안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얼굴을 하늘로 향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아니다. —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주어진 경고를 읽고 분별하도록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디모테전서 6:3-5, 11-12, 20-21; 디모테후서 2:16-18, 21-23; 3:1-9; 디도서 3:9).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품으며, 개인적으로 느끼고, 개인적으로 알며, 개인적으로 소인하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인들처럼 커피를 마시고 도우넛을 먹으며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추측이나 이론보다 훨씬 더 많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 복음 7:17).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믿는 그것이다 (요한일서 3:23).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배운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자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관련하여 아는 것을 확신 하는데,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믿음의 고백

셋째, 참되며, 구원하는 믿음은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한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 니이다 하니.” (20 절). 베드로는 한때 잘못하였고 불안 하였으며,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무지하고 믿지 않았으며, 너무도 교만하고 너무도 급하게 행동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말해지고 이뤄졌을 때, 베드로는 주목할만한 사람이 되었다. 믿지 않는 종교주의자들 한 가운데서, 종교적 의견의 압도적인 물결이 다른 길을 달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의 구원자를 믿었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확신에 찼고, 충성되고, 기꺼이 홀로 담대히 섰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선포 했을 때, 그는 그 사람이 과거에도 지금도 성육신 하나님,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주, 구원자, 성경이 언급한 그 한 분임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침묵을 위한 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넷째, 21 절에서 우리는 말할 때뿐만 아니라 침묵할 때가 있음을 배운다. —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들이 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하고, 그들의 손에 소책자를 밀어 넣어야 하며,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상상하며,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피로 깨끗하게 됨으로써 스스로 만족한다. 그러나 말할 때뿐만 아니라 조용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알게 하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 주께서 그분 자신을 몇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자신을 군중으로부터 숨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그분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 아직 그분의 계획이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보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보내시기를 거절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대로, 그분은 어떤 사람은 부르시지만, 다른 사람은 부르시지 않는다.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과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한 때와 침묵하기 위한 때가 있다. 당신이 충성된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므로 이것을 기억해라. 언제나 준비하고 대가나 결과에 무관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말하도록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라. 만약 그분이 당신에게 그분을 위하여 한 마디 하도록 하실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길을 여실 것이고 분명하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 말이 시기에 적절하게 하는 말이 되도록 하자.

죽기로 정해짐

다섯째,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난 받고 죽기로 한 우리 위대한 구원자의 사랑스런 결정을 본다. —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22 절). 나는 내가 아직 붙잡은 것보다 더욱 더 많은 것이 이 구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항은 분명하고 중요하다.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한 보증으로서 죽으셨다.

그분은 죽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자유하고 자원한 뜻으로 죽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환경의 무기력한 희생자로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분 자신의 마음의 사랑의 결정으로 죽으셨다. —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 그것을 상상해 보라!

2. 우리 구원자의 죽으심에 대한 필요가 있었다. —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다.

구약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했다. 그분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구원은 반드시 얻어져야 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영광의 구속자께서 선포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라!”

57 장. 기독교는 무엇인가?—누가복음 9:23-27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23-27).

이 성경의 다섯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확고하고 무게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더러운 자와 보배로운 자를 구별한다. 그 말씀은 겨와 밀을 구별해내는 주의 손 안에 있는 키질하는 부채이다. 이 말씀은 자주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계속하여 묵상해야 할 말씀이다. 이 몇 마디 말씀은 사람들이 쓴 신학과 비유에 관한 모든 책보다 더 명확하게 참 기독교를 규정한다. Robert Hawker 는 말했다...

“한 사람의 혼이 전체 세상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분명한 이유 때문이다: 전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과

괴될 때가 오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개인의 혼은 기쁨 가운데 아니면 비탄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독자여, 그 주제에 잠시 머물고, 가능하다면 개개인의 혼의 가치를 계산하라. 그 창조가 신격의 전체 위격의 뜻을 불러냈다. 그것의 구속이 그리스도께 그의 피 값을 치르게 한다. 그것의 거듭남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천사와 사람들의 섬김을 계속하여 약속한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모든 죄인의 회복을 기뻐한다. 지옥이 그들의 구원의 사건에 분노한다. 그러니 그런 본질의 존재가, 또 그렇게 형성된 존재가 영원한 파멸에 드러나야 할 것이 어떤 손실이며, 얼마나 셀 수 없이 큰 것인지.”

그리스도께 나옴

성경 통하여 믿음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로 묘사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그분께 나오는 것이다. 그분께 나오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그들의 주를 따른 것처럼 그분을 따라 감으로써 그분께 나온다. 우리 모든 영과의 그리스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23 절)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 나옴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그것은 의지의 행위이다. 우리 주께서, “아무든지 하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말자. 나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임을 안다. 아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효험 있게 그들이 오도록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절대 오지 않을 것임을 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하지만, 그분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이 그분을 원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분께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머리를 두드려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 끌고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생명 그 자체보다 그리스도를 더 원하도록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강제 징병의 일이 아니라, 자원한 행위이다.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 있는 병사들은 징집되고, 강제로 모인 병사들이 아니라, 지원병들이다. 기록되기를,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니” (시편 110:3). —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4).

그리스도께 나옴은 마음의 행동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아무도 교회 회당을 걷고, 제단에 무릎을 꿇고, 누군가 반복하라고 가르쳤던 기도를 읊조리고, 결정 카드에 서명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결코 나오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오려 한다면, 당신은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한다. 당신은 그분께 당신의 마음 속에서 나와야 한다. 믿음은 마음의 일이다 (로마서 10:8-10). 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기꺼이, 의도적으로, 자원한 마음의 확신이다. 그것은 그분의 피와 의의 중보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일한 열납으로써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나의 주로서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의 기꺼운 향복을 포함한다. 그것은 나의 주로서 그분께 대한 나의 마음의 앞드림과 순종이다 (누가복음 14:25-33).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계속적인 일이다. 우리 구원자는 한 번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일로서, 한 번의 행위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되며, 평생의 일로서 그분께 나오는 것으로 말씀하신다. —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베드로전서 2:3-4).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오도록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올 것을 명령 받았다 (요한일서 3:23). 믿음의 보장은 내 느낌도, 내 감정도, 미리 작성된 상황에 따른 나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그분께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께 나올 수 있다!

모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 나올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께 나올 것이다. 우리 주께서 일반적인 적용을 하는 그 복된 세상을 사용하시고 자주 사용하신다. — “아무든지”. 나는 “만약 Don Fortner 가 나오려면”이란 말보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아무든지 나오려면”이란 말씀에 너무 감사한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분이 다른 Don Fortner 를 의미 하셨음이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든지”가 나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22:17).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짐

믿음의 첫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다. 둘째는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께서 만약 우리가 그분을 따를 것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 되려 한다면, 우리가 구원 받고자 한다면, 자기 부인이 절대적 필요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23 절).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개인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짐은 인내를 갖고 섭리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속에 고난이 놓여 있기 때문에, 당신 위에 있는 고난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만,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으로 인하여 구원 받았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 받았다 (에베소서 2:8-10).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려면, 우리는 많은 환란을 뚫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여야 한다. J. C. Ryle 이 이렇게 쓴 것은 맞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은 종교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것은 지금의 삶 가운데 아무런 선한 것을 우리에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올 삶 가운데 어떤 구원에도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주를 따른다. 나는 그분의 가르침의 십자가와 그분의 뜻의 십자가와 그분의 존귀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 구원자의 말씀은 여기에서 한 낮의 태양처럼 분명하다. 만약 내가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기를 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늘에서 그분의 왕관을 결코 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참되고, 구원하는 믿음은 의도적이고 인내하는 자기 부인과 희생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Matthew Henry 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첫 수업은 자기 부인이다.”고 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자신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은혜는 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값싸지 않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분께 대하여, 나의 주와 구원자이고 나의 제사장이며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대하여 내 자신의 완전한 행복을 포함한다. 그것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다.

기독교, 참 기독교, 참 구원의 믿음은 주이신 그리스도께 철저한 행복을 포함한다. 자원하여 그분의 주장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왕 예수의 통치 아래에서 종이 되든지, 아니면 당신은 지옥에 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행복은, 생명 그 자체를 내려 놓는 것까지 모든 것을 실제로 포기한 것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 실제적이고 완전한 것처럼 되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께 철저하고 솔직한 행복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의 주가 되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전혀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주인가? 그분이 정말로 당신의 주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은혜의 초기 체험과 믿음의 초기 행위에 있어서 만으로 다뤄질 문제라고 절대 상상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오래 동안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이 된 자들에게 하신다. 얼마나 은혜롭게 그분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뜻에 대항하는 반역으로 향하는 우리의 죄로 충만한 육신의 끔찍한 경향에 대하여 보호하시려 가르치시는지. 우리 세속적 오해로 우리 자신 위에 얼마나 많은 사악함을 가져오게 될지!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같아서 (33 절; 마가복음 8:33), 우리의 감정과 개인적인 갈망과 세속적 논리로 사물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머리 숙이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아,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향기롭게 하시는 은혜를 위하라!

그리스도께 헌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4-25 절).

믿음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 헌신을 지고 나온다. 만일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그것을 버려야 한다. 내가 나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 구원은 더도 덜도 말고 나의 주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에 항복하는 것이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시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25-33).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당신의 생명의 통치를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큰 희생이 아니다. —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질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너무도 자주 반복되어서 아무도 마음 속에 받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무시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 귀에 나팔 소리처럼 들여야 한다. 우리 각자는 멸하지 않는 혼, 영원히 살게 될 혼을,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에서나 영원한 죽음의 고통 속에 갖고 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없으며,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며, 우리 혼과 비교하여 불려질 것은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일시적인 세상에 산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영원히 떠나야 할 때 떠나게 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이 세상에서 생각하지 말자!

당신이 혼을 잃어버리는 것은 매우 쉽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달리는 것으로 당신은 당신의 혼을 죽일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혼을 치명적인 거짓의 포도주로, 자유 의지의 행위의 종교로 독을 주입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로운 방법을 무시하고, 복음의 전도로, 생명의 떡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기도에 대한 무지로, 경배에 대한 무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굶주리게 할 수 있다. 지옥으로 가는 많은 길이 있다. 당신이 선택하는 그 길은 당신 자신만 책임지는 문제이다 (잠언 16:25).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리스도가 그 길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함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26-27 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사람들의 아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에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그분을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아담의 아들딸 각자는 스스로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을 구하기를 거절하는 자를, 그분만을 구원자와 주로 신뢰하면서 자신을 보여 준다.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보혈에 하나님께 열납 받기 위하여 더하기를 피하는 모든 자는 스스로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자로 입증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을 부끄러워 하는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끄러워 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부끄러워 한다 (로마서 1:16-17).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부끄러워 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부끄러워 한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부끄러워 하고, 당신 자신을 그들과 함께 동일시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부끄러워 한다. 만약 당신이 이 부정하고 죄로 충만한 세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 한다면,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당신을 부끄러워 하실 것이다.

“예수여! 그리고 언제나 그러할 것인지
당신을 부끄러워 할 죽을 사람인가?
당신을 부끄러워 하니, 천사들이 찬양할 자라,
누구의 영광이 끝 없는 날까지 빛나리?”

예수를 부끄러워 하는가? 머지 않아 곧
저녁 노을이 별을 품게 하라.
그가 거룩한 빛의 광선을 비추니
이 무지한 내 혼 위에.

예수를 부끄러워 하는가? 이제 곧
자정이 정오를 부끄러워 하게 하라.
내 혼과 함께 자정이니 그분이,
아침 별을 밝히시고, 어둠을 쫓으실 때까지.

예수를 부끄러워 하니, 사랑스런 친구여
그에게 내 하늘의 소망을 의지하라?
아니라; 내가 부끄러울 때, 이는 내 부끄러움이 되니,
더이상 그분의 이름을 우러르지 않네.

예수를 부끄러워 하는가? 그렇다, 나는 아마도
내가 씻어 버릴 죄의식이 없을 때,
땀아 낼 눈물도 없고, 갈망할 기쁨도 없고,
누그러뜨릴 두려움도 없고, 구원할 혼도 없네.

그 때까지, 자랑할 헛된 것도 없고,
죽임 당한 구원자를 자랑할 그 때까지,
그리고, 아, 이것이 나의 분깃이니,
그리스도가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58 장. 변화 — 영광의 광채—누가복음 9:28-36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 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28-36).

우리는 보통 이 구절 안에 기록된 것을 “변화”로 가리킨다. 그것은 우리 주의 땅의 사역의 역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사건들 가운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데 하나이다. 여기서 성령께서 앞으로 올 세상 위에 아직 걸린 장막의 구석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의 광채를 제시하신다.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천사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했다. 그는 그가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적으로 그분 자신에게 가까이 들어 올리시고, 요한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분 자신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의 그런 위대한 나타나심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가 아직 땅 위에 있었지만, 한동안 그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도록 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변화산에 올 때 우리가 처한 위치이다. 성경의 이 경이롭고 엄청난 단락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너의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버리고, 잠깐 동안 세상을 잊어라는 말씀을 듣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불렀고, 보았고, 알았으며, 그 날에 선택 받은 그 제자들이 했던 체험처럼, “거룩한 산”을 오르도록 은혜롭게 허락 하시기를 바란다. 그때처럼, 비스가 산을 올라가 우리를 기다리는 약속의 땅의 광경을 보도록 하자.

눈으로 보지 않았고, 귀로 듣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여기 땅 위에서 조차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크고 선한 것들, 하물며 올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준비해 두셨던 무한히 더 크고 더 영광스럽게 선한 것들을 상상하는 어느 누구의 마음 속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들어가게도 하지 않았던 것은 실로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 있는 그분의 왕국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광의 희미한 어떤 생각을 형성하도록 이 장엄한 광경의 기록을 기쁘게 남겨두셨다.

연결

27 절과 28 절 사이에 분명하고 의도적인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늘 영광의 광채를 주도록 기록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27 절에서 주 예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28 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는 기록을 본다.

28 절에서 일어났던 그것은 우리 주께서 27 절에서 팔 일 전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 때 그분 앞에서 있는 몇 사람이 사망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셨을 때 우리 주께서 마음 속에 가지셨던 것이었다. 그분은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의 제자들은 자신의 연합함 가운데, “이것은 사실 이라기에는 너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므로, 주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 가운데 몇 명(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영광의 광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선택 받은 세 사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큰 사건에 대하여 주어진 세 이야기 모두가 우리에게 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분과 함께 데리고 그분의 변화를 보이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왜 그분이 함께 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가? 왜 단 세 사람인가? 왜 이 세 사람인가? 주께서 세 사람을 데려가시는 것이 좋았고 더 이상 그분의 주권을 보여 주시지 않으려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 그분이 모든 것 가운데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다는 사실을 유지하신다. 그분은 구원에 이르는 어떤 자들의 택정함 가운데 주권적이고 (에베소서 1:3-6), 그분의 영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한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부르심 가운데 주권적이시며 (시편 63:5; 110:3), 그분의 은혜의 계시 가운데 주권적이시고 (갈라디아서 1:15-16), 그분의 은혜의 축복과 은사를 부여주심 가운데 주권적이시며 (고린도전서 4:7), 그리고 그분의 달콤한 공훈의 방문 가운데 주권적이시다 (로마서 9:16).

우리 주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던 것은 세 사람이 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고린도후서 13:1). 세 사람이면 충분하였기 때문에, 세 사람 이상은 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 사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후에 동산에서 괴로워하고, 땅에 떨어지는 많은 피땀을 흘리는 그분을 보아야 했던 동일한 세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을 본 것은 그들이 그분이 치욕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게 될 그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기 위하여 도움이 되었다.

기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사람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도하기 위하여 산 위로” 데리고 가셨다. 그분에게는 인정할 부패나 고백할 죄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 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종종, 그분은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섰고, 기도하려 한 쪽으로 갔으며, 적어도 한 번은 기도 가운데 온 밤을 보냈다.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떠한 본을 남기셨는가! —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7).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려 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 사람들의 혼을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구원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짊어질 모든 일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분이 침례자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고자 오셨을 때, 그분의 침례에서 그분은 기도 가운데 참여되었다. 그분이 그분의 큰 유혹 가운데 사탄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을 때, 그분은 금식하셨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찬양과 영광의 언약으로서, 그분이 변화되셨을 때, 그분은 기도하셨다.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으시려 갈보리로 가실 즈음에 계실 때, 그분은 기도하셨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주께서 기도 가운데 약속 받으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29 절). —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의 기도의 결과를 본다. 그분이 기도하고 계셨을 때 우리 주께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너무 밝게 빛이 나서 그가 얼굴에 가리개를 썼다는 것을 상기할 것이다. 그의 얼굴의 빛남은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증거였다. 그 후, 모세는 주께서 그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함을 말했다 (신명기 18:15-18).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그 선지자로서 확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얼굴을 번쩍이고 빛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선지자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분의 옷을 희어져 광채가 나게 하셨고, “그의 용모가 해처럼 빛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모세, 엘리야, 그리고 구원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쟤” (30-31 절). —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완전히 놀랐을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두 구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가 그 구절들에서 배우기를 의도한 것들이 내게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분은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사항에 주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 그들의 강림 —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듣는 가운데 주 예수께 말하였다. 모세는 1,500 년 전에 죽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에 불의 마차를 타고, 900 년 이전에 하늘로 들림 받았다. 하지만, 둘 다 산 위에 주 예수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 이 두 사람이 산 위에서 우리 주와 함께 육신을 갖고 서 있다는 사실은 교훈적이다.

첫째, 떠나간 우리의 형제들이 실로 살아 있고 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둘째,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명확한 상징들이다. 둘 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우리 구원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였다. —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사도행전 10:43). 셋째,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날 성도들의 상징이다. — 모세는 그 육신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상징한다. — 엘리야는, 주의 재림 때에 땅 위에 살아서 발견되는 자들, 곧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주를 영접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17) 될 자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에 세상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무던 저편에서 살 것이다. 오고 있는 부활의 날이 있다. 그 날까지, 우리의 떠나간 형제들은 구원자와 함께 안전하다! 그들은 잘 보호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있다. 그들은 좋은 교제 가운데 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다!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갔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들을 그분과 함께 그분이 다시 오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때 데리고 오실 것이다.

넷째, 모세와 엘리야가 이 세 제자들에 의해 즉시 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비록 그들이 그 둘을 전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직관적으로 특별한 계시에 의해 서로 알게 될 것을 분명하게 한다. — 우리의 지금의 시야가 앞으로 올 것에 대하여 얼마나 희미한지!

다섯째, 모세와 엘리야가 주 예수와 함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말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들은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그 “무수한 수의 증인들”이다 (히브리서 12:1).

2. 그들의 옷 —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 모세와 엘리야는 그 안에서 주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것과 아주 동일한 영광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보인다.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 만큼은 확실하다: —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광 안으로 데려가셨을 때,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지금 누리시는 그 영광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5, 20; 로마서 8:28-29). — 하늘 영광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동일한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3. 그들의 담화 —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찌.” — 그것이 무슨 말인가! 모세와 엘리야는 “그분의 별세”(그분의 떠나심) “그분이 성취하셔야 할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그가 성취할 것으로 결코 언급되지 않았다. 그 말의 실제 의미는 “성취하다”이다. 우리 주의 죽으심은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들, 우리 대속자와 보증인 그분의 사명, 또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 하셨던 것으로 이룩하셨던 것이었다.

영광 가운데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셨던 그 별세에 대하여 많이 말한다 (계시록 5, 7, 14). 그들은 그 의미를 안다. 그들은 무엇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안다. 그들은 그것으로 성취된 것을 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 영광 가운데 성도들은 그것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런 아들의 죽으심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장엄한 아름다움을 본다. 땅 위의 죄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그것으로 철저히 소모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평강이다. 이것이 가련하게 타락한 죄인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유일한 말씀이다. — 구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 되었고 완성 되었다!

제자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남, 우리가 관찰한 변화, 그들이 들었던 대화는 우리 주의 제자들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주었다. —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2 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 되었고, 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세와 엘리야가 그분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음에도, 기도 중에 지루해 하여 부당하게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그런 종류의 잠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히 압도 당하고, 충격을 받고, 그 앞에서 어떤 것으로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의 무의식 상태의 수면이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성경의 여백에서 언급하는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당신은 이것이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것과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형태를 입고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대로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니엘 8:18; 10:9).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리스도의 옷의 영광의 모습과 그분의 몸의 광채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영광과 그들이 들었던 것들로 압도되었다. 시바의 여왕처럼, 그녀가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아무런 생명의 느낌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빠르게 회복하였다. —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것은, 그들이 힘을 회복하였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새롭게 넣으셨을 때이며, 마치 천사가 다니엘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3 절). — 베드로,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말하는 자였으며,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약간 마셨을 때, 중독된 사람처럼 말했다. 그는 밝은 표현으로 넘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났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를 더한 것은 잘된 것이다. 그가 외쳤어야 하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 그 말은 그렇게 기쁜 일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도 영광스러운 상태 가운데에서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중 누가 똑같이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초막을 짓는다고 한 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는 말은 베드로 스스로가 질책하여야 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산 위에 너무 높이 있어서 그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여전히,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인간적인 정직함과 그의 마음의 청렴함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 있었다. 베드로는 주의 영광이 성막과 옛 성전을 채웠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주 예수께서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났으며, 그는 그것이 그들을 위하여 새 초막을 세우는 것만이 오직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George Whitefield 는 이 사례와 관련하여 말했다

...

“본성과 은혜의 그런 혼합, 짧은 시야와 부족함의 혼합은, 은혜의 보좌 가까이에, 혹은 하나님과 산 위에 있을 때 조차 사람들의 최고의 열정과 최선의 선의의 열심 가운데 있다. 어떤 은혜 가운데 온전함은 하늘에서 온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 가운데에서만 예상되고 기대되어야 한다. 베드로처럼, 그런 땅 위에 것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모른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심할 여지 없이, 베드로의 돌발은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감탄해야 할 것도 많다. 베드로가 주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그런 동역자들로 둘러 쌓여 있던 것을 보았을 때, 그분이 고난 당하고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영광의 광채만 받았을 때, 그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다. 아, 우리가 그곳에, 그리스도와 하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소유인 모든 자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좋을 것인가!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34 절). — 마태는 그것이 빛나는 구름이지, 시내 산 위에 있던 그런 검은 구름이 아니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복음이 율법의 시대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 주기 때문에, 빛난다. 이 구름은 모세의 얼굴 위에 드리워진 수건 같았으며, 거기서 나오는 것을 곧 듣게 되었던 음성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마태와 누가는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마가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라고 했다.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죄의식과 진노 받기에 합당하여 우리가 구름 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한 가운데 계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얼마나 빨리 그 두려움들을 떨쳐 버릴 수 있었겠는가. 얼마나 속히 그들의 생각의 동요가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혼을 살리는 음성으로 조용해지고 잠잠하게 될 것인지.

하늘로부터의 음성

“구름 속에서 고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35 절). — 마태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더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비록 그들이 그들의 의로운 주께 그들의 헌신을 드리려는 계획으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그리고 새벽 별처럼 복음의 날에 가져오게 될 의의 태양 자신이 떠오를 때 사라지는 것처럼, 확실한 명령을 주신다. —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선포하셨던 것을 깨달아라: — 이 인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성육신 하나님이다! — 이 대표 인자, 이 보증, 이 중보자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이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대표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를 매우 기뻐하신다! —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위로부터 위임을 받고 오시므로,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라.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분의 본을 따르라. 그리스도만 우리 주이다. 그리스도만 우리가 들어야 한다!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를 기뻐하신다고 반복해서 듣는다 (마태복음 3:17; 12:18; 17:5; 마가복음 1:11; 누가복음 3:22; 베드로후서 1:17).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훈의 경이로운 선포를 듣고 깨닫기를 의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듣게 하시며, 그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오직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심을 선포하신다. 모세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기뻐하시지 않았다.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지 않았다.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지 않았다. 야고보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사람을 기뻐하셨고 분명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질적으로 그분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심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사람 중보자이신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 보증이고 중보적 대표자인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셨다 (이사야 42:21). 그분은 그분의 아들의 대표되는 삶 가운데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되시며, 또 매우 기뻐하시며, 그로써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의를 가져 오셨다 (마태복음 3:13-17).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대속하며, 죄 속량의 죽으심을 매우 기뻐하시며, 그로써 그분은 신성한 공의를 만족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백성의 죄를 없애셨다 (이사야 53:10; 시편 85:9-11). 우리의 변호자와 큰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아들의 하늘에서의 중재를 매우 기뻐하신다 (요한일서 2:1-2).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적인 왕이신 그분의 아들의 섭리의 통치를 매우 기뻐하신다 (이사야 42:1-4).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하늘의 통치에 대하여도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요한복음 8:29)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언약의 약속과 중보적 통치의 결과를 매우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 15:24-28). 중보자시고,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영원하신 아버지께 드릴 것이며, 그로써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화롭게 되실 것이다 (계시록 19:1-7).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가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공의롭고, 참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께서 그분의 아들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으시며,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 우리 본성의 상황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본성적으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우리를 기뻐하신다 (에베소서 1:6).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 (베드로전서 2:5).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변함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예레미야 23:6; 33:1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36 절). — 여기서 단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여러분이 주목할 것을 요청하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첫째, 모세와 엘리야가 가고 주 예수께서 홀로 이 제자들 앞에 서 계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시며 선지자들의 성취이시고, 율법과 선지자들 모두가 전한 분임이라는 생생한 선포였다. —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깨어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때, “오지 예수 외에는 아무도”(마태복음 17:8) 보이지 아니하였다! 실로, 구원의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손 외에 누구의 손도 보이지 않는 그 선택 받고, 구속 받았으며, 부름 받은 사람들은 복되다.

둘째, 제자들은 이것을 부활 이후에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가 36 절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본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변화산 위에서 보았던 것을 내려가 모든 세상에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잠잠할 것을 명령하셨다. 왜? — 만약 그들이 산에서 내려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한다면, 그것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질투와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세대에 아무런 표적도 주시지 않을 것을 선포하셨다. 그들은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 전에 이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의 눈에 완전히 어리석게 보였을 것이다. 그분의 부활 이후까지, 그분이 사망의 문을 부술 때까지 그것을 비밀로 지킴으로써, 산 위에서 그들이 목격 했던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믿을 수 있게 보였다. 말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진주들을 돼지 앞에 던지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영원

의인에게 있어서 무덤 저편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악인에게도 무덤 저편에 사망이 있다. 의인이 영광 가운데 서로를 알게되는 것처럼, 저주 받은 자도 지옥에서 서로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를 아는 것이 천국을 더 축복되게 만들 것처럼, 지옥에서 서로를 아는 악인은 지옥을 더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변화 가운데 우리 앞에 영광의 광채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집으로 모으시려 오실 때, 우리는 변화산 위에서 그분처럼 될 것이다: — 경이롭게 변화 되었다! — 경이롭게 소유 되었다! — 경이롭게 인정 받았다!

59 장. 그들이 내려 왔을 때—누가복음 9:37-45

“이튿날 산에서 내려 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록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9:37-45).

우리 주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 오셨을 때, 그분은 제자들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데려왔던 한 젊은 이를 점령하였던 귀신을 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쫓는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 서기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주 예수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이 기적을 행할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난처해 하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학식 있는 서기관들에 의해 난처해 하고 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분은 즉시 개입하셨다. 그분은 서기관들이 왜 그분의 제자들과 (의문을 던지면서) 논쟁하고 있었는지를 서기관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어떤 것을 말하기 전에, 한 사람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마가복음 9:14-29). 보통, 예절 바른 사회에서 그런 개입은 무례하게 여겨지고 멸시 받는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개입은 자신의 귀신들린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간절하게 끼어든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환영되었다.

이 불쌍한 사람은 서기관들과 우리 주의 제자들 사이의 논쟁을 개의치 않았다. 그의 아들은 마귀에게 점령 당했다. 그의 아들은 사탄의 영향 아래 수척해지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스러져가고 있었고 그는 무기력 했다! 따라서, 그는 그가 기회를 갖자마자 바로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께 왔다. 그는 우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능력으로 그의 아들에게 공훈과 은혜와 생명을 구해주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데려왔다.

산과 계곡

이 단락에서 내가 본 첫 번째 것은 산 정상에서 체험이 아주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단락과 앞서의 한 단락 사이의 대비는 매우 충격적이며 간과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변화 산에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비통의 계속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경에서 한 젊은 이의 삶 안에 있는 슬프고, 슬픈 사탄의 권세와 영향의 역사로 이동한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의 축복의 교제 안에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이제 막 들었다. 그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을 금방 보았다. 이제 그들은 싸움과 고통과 약함과 비탄의 장면 안으로 들어 왔다. 여기 고통 속에 있고, 귀신에 의해 괴롭힘 받고 있는 한 소년이 있다. 여기 부서지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깊은 시름에 있는 아버지가 있다. 여기 약한 제자들, 사탄에 의해 흔들리고, 도울 수 없는 한 무리가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꽤 생생한 그림이다. 산상 체험은 기쁘고, 복된 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자주 기대하거나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믿는 자의 삶의 대부분은 세상과 대립, 육신과 귀신 간의 대립 가운데 보낸다. 영광에 대한 우리의 복된 이상, 하늘에 대한 달콤한 미리 맛 봄, 주와 함께 거룩한 산 위에서 보낸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실 때 붙잡아야 하고 누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예외적이다.

우리가 계속 안에 있을 때, 주 예수께서 산 속에서 오신 것처럼, 계곡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하자. 그분은 언제나 정확하게 옳은 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오신다. 우리 계속의 슬픔과 대립은 우리의 산상에서의 기쁨만큼 거룩한 안배로 인하여 존재한다.

철저하게 의존적임

우리가 철저하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좌우된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또한 상기하게 된다. 그가 시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완전히 혼돈 상태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을 찾았다. 그들은 악의적인 서기관 무리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마가복음 9:14-16). 이 경우는 제자들이 이 사람의 아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으려 했던 제자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많은 귀신들을 내 쫓았던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과 그의 아들 앞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했다.

이 제자들은 겸손한 체험으로 매우 필요한 공과를 배웠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으로 타 들어가야 할 공과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5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택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보게 될 것이다. —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분이 없이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그분의 힘이 없이는, 그분의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이것은 우리 육신에 대하여 정반대이고 쓰라린 공과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안에서 반복하여 다시 보여지는 공과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주께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할 힘도 없고 마귀에 저항할 어떤 방법도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함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지혜와 선물과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철저히 무능력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 가르치시기를 원한다.

사탄의 권세

이 이야기는 또 사탄의 권세의 공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경계하도록 성경의 지면 위에 기록되어 있다. 아무도 사탄이 꾸며 낸 마귀의 힘이라고 상상하지 말자. 아무도 사탄이 단지 어린 아이들을 희생하려 변덕스러운 늙은 이에 의해 주술을 해서 불러낸 종교적인 무당이라고만 생각하고 비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만약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함께 읽는다면, 이 아버지가 다섯 가지로 그의 아들을 덮은 사탄의 권세와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본다.

(1.) 그는 이 악령을 더러운 영이라고 불렀다. 사람의 마음에서 기인하는 모든 더럽고, 불결한 것은 사탄의 영향으로 촉진되고 조장된다. 본성에 반대가 되는 그런 것들,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도착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지옥의 영향으로 바뀐 결과이다 (로마서 1:24-27).

(2.) 아버지의 아이를 점령한 그 악령은 파괴의 영이었으며, 그 소년을 안으로부터 갈갈이 찢고, 미친 개처럼 입에 거품을 머금게 하고, 그의 이를 갈고 여위게 하였다. 사람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이다.

(3.) 이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은 그를 귀먹고 병어리로 만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었다. 사탄에게 온 악령은 소년을 그를 돕는 사람의 어떤 말도 듣지 못하게 하였고 어떤 도움도 외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가련하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사탄이 그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으며, 사람의 혀를 묶는다. 사탄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보지 못하게 애쓴다. 사탄은 누구든 복음 듣는 것을 가로막으려 한다. 그리고 사탄은 궁핍한 혼이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을 가로막으려 한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죄인들의 친구는 어둠의 왕을 내 쫓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다.

(4.) 이 사람의 아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탄의 영은 그 소년을 “미치광이”로 만들었다. John Gill 은 그의 상태를 “간질의 한 형태로서, 기절과 병어리, 심장병 (καρδιακος: cardiac), 심장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사탄에 의해 사로 잡혔다 (디모데후서 2:26). 얼마나 슬픈 광경인가!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죄인의 그림이다. 사악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로 내주하시려 오실 때까지 사악함에 사로잡혀 끔찍하게 극악 무도한 행위를 행하는데, 죄인들은 그 악한 자를 거절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5.) 이 귀신은 단지 어린 아이 일뿐인 이 청년을 점유하였다. 이것은 가장 심오하게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하고 그들의 혼의 유익을 돕기 위하여, 그들의 초년부터 조차도 수고해야 한다. 만약 사탄이 일찌기 그들을 파멸하러 시작한다면, 우리는 일찌기 그들을 구원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능력의 최선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를 통제하고, 그들의 친구와 동료들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도하고, 성경과 복음의 복된 교훈 안에서 그들을 훈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중 본성

이 단락에서 초기 믿는 자의 이중적인 본성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주어진 무수한 예들 중에서 다른 것을 또한 본다. 이것은 마가에 의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마가복음 9:23-24).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누가 그 말씀을 읽고 같은 사람에게서 믿음과 불신과 의와 죄가 발견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는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는 믿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의심이 있었다. 그는 그의 아이를 소망을 갖고 데려 왔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그는 이것을 정직하게 마가복음 9:22에서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주 예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소서.”라고 말씀드렸다.

당신은 아마도, “그것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이 옳았을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그는 그의 아들을 귀신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는 겨자 씨 낱알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그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아무도 단 한 방면에서라 할 지라도 완전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의 믿음도 아니고, 그 힘도 아니며, 그 특질도 아니고, 그 분량도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누가복음 9:43-45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 준다. 참 믿음은 매우 종종 약한 믿음이 되며, 참 믿는 자들이 종종 많은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끔찍하게 무지하다. 그렇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자는 복음을 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의 참 믿음을 실행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모든 참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구원 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아는 가를 결정하려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 이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9:43-45).

그리스도의 통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생생한 예로써 그리스도의 통치의 전체성을 배운다. 사탄과 지옥의 마귀들이 하나님께 대적들이고, 그들이 통제 밖에 있다는 어리석은 상상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아무 것도 진리에서 더 멀리 존재할 수 없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이다. 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다 사용하셨을 때, 그분은 그를 멸하실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아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때에 있어서 사탄과 그 대리자들에 대한 완전한 통치를 행사하신다. 그분은 권위와 주권적 권세를 갖고 말씀하시며, 사탄과 그 마귀들은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철저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 사탄은 강하고, 악의적이고, 분주하다. 우리는 지옥의 악령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탄은 구원자의 절대적이고 전능한 손에서 우리를 결코 낚아챌 수 없다. 곧,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꿈치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믿는 부모

이 이야기가 감동의 지면에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믿는 부모의 특권과 책임에 대하여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지 않게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을 줄 수 없다. 많은 믿는 사람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반역으로 충만한 가정을 키웠다. 우리 중 아무도 자녀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모와 불화가 있다고 거만하고 무지하게 상상하지 않도록 하자. 그런 말은 교만과 독선을 드러낸다!

여전히,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우리 아들딸들을 위하여 이 사람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했던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아들을 구원자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곳으로 데려 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 데려 올 수 있다. 그는 열렬한 기도로 그의 아들에게 구원자를 모셔왔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하여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 그는 주 예수께 그의 아들의 상태를 고백하였다. 이 가련한 아비는 그의 유일한 아이가 귀신에게 점유되었고, 귀가 먹고 병어리고, 미치광이이고, 속으로까지 악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아이가 언제나 그랬다고 고백하였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의 간절한 필요가 그의 필요였음을 보여 준다. 구원자께 대한 그의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마가복음 5:22) 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대리자로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었다. 대리 믿음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믿었다. 이 사람은 모든 자녀의 마음 속에 어리석음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정의 회초리가 그에게서 그것을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그에게 있던 그 어리석음에서, 그리고 그를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인을 효험 있게 구할 수 있다.

은혜의 역사

성경의 이 단락 안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의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마다, 당신이 보길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것들,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이 있다. 나는 구원 받은 사람 모두가 동일한 체험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의 체험은 비슷하다. 사망은 사망이다. 생명은 생명이다. 은혜는 은혜이다. 그리고 구원은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이 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로운 그분의 전능한 역사를 행하시는 방법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41 절). 모든 은혜에 속한 주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리 아래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을 데려 오시고 그분의 선택하신 자를 그분 자신께 부르시려 그분의 영을 보내시는 섭리는 거절할 수 없고 효험 있는 은혜로 명령하신다 (시편 65:4; 110:3).

둘째, 주 예수께서 죄인들을 그분 자신께 부르실 때마다, 그들이 그분께 오게되는 것처럼, 언제나 사탄의 거꾸러짐이 있다 (42 절). 사탄은 이제 그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 가운데 있다 (계시록 7:12).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하는 죄인에게 그의 모든 지옥 같은 권세를 폭발하여 한다.

셋째, 주께서 영생을 주려 오실 때, 소망에 찬 도살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이 우리를 올리시기 전에 우리를 내려 보내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그분은 언제나 치료하시기 전에 상처를 입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나 옷을 입기 전에 벗으신다. 그분은 언제나 채우시기 전에 비우신
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나게 하시기 전에 죽이신다. (마
가복음 9:25-26).

“예수께서 무리의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
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병어리 되고 귀떡은 귀신아, 내게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
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 예수께서 구원의 능력 안에
오실 때, 사망에서 부활이 있다 (에베소서 2:1-4). —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마가복음 9:27).

60 장. 피해야 할 두 가지 것들—누가복음 9:46-50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46-50).

이 단락을 그 문맥 안에서 확실히 읽도록 하자. 주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데려 온 젊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악령을 쫓아 낼 수 없었다 (37-40).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과 마주쳤으며, 그에게 그만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큰 일들로 스스로 축하하면서 따라서 걸어 갔으며, 그들 가운데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 인가를 두고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46-50 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경고들은 모든 세대에 필요 하였고, 모든 회중 가운데 필요했던 경고들이며, 믿는 자 각각에게 필요한 경고들이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우리가 언제나 피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끔찍한 마귀들을 피하도록 애써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모두 악하게 되도록 하는 사악함이고 우리 자신 안에서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사악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사악함을 아주 속히 지적하지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보기를 매우 더디게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가 이 짧은 단락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바란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 교만과 잠재 의식 속의 억압의 끔찍한 사악함에 대항하여 지키고 피하기를 애써야 함을 우리에게 경고 하신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지복주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46 절). — 주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 (마가복음 9:33), 그들은 천국에서 그들 중 누가 가장 클지를 두고 논쟁이 시작되었다 (마태복음 18:1). 나는 오직 추측을 할 뿐이지만, 그 논쟁은 아마도 꽤 뜨거웠을 것이다.

논쟁은 영광 가운데 정도나 은혜 가운데 정도에 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장 큰 사도이고 복음의 전도자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 논쟁은 충분히 나빴으나,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여전히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세속적이고, 세상에 속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유대 왕국, 영적 왕국보다 오히려 축어적 왕국, 하늘 나라보다 오히려 세상 왕국을 세우시려 오셨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주장은 누가 메시아께, 그분의 왕국 안에서 주 예수께 최우선적인 사역자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예언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큰 관심거리가 아니고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계시록 1:7).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모든 대적들에 대한 심판대에 앉으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데살로니가후서 1:7-10; 고린도전서 15:51-58; 베드로후서 3:10-14; 계시록 20:11-15).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구원은 완료될 것이다. 우리는 종말이 올 때의 표적을 기다리고 계산하려는 것에 대하여 최소의 관심도 없다. 우리 일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구속자를 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지복주의에 대한 관념은 끔찍하게 악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럼, 그것은 유대인의 생각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께서 세속적이고 땅에 속한 유대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이 가련한 제자들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필요에 의해 많은 세속적 생각들, 가령 여기에 표현된 것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확실히 하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이시며, 하늘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보좌 위에 앉으셨다 (사도행전 2:22-36).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우리 주의 왕국은 그분의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그분 자신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다. —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가복음 17:21; 로마서 14:17).
- 우리는 새로 태어남으로 하늘 나라 안으로 태어났다 (요한복음 3:5-7; 계시록 20:1-6).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더도 덜도 아니고 당신의 의로운 주와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엮어지는 것이다.

비밀스럽게 들림 받거나, 칠 년 간의 환란기나, 혹은 글자 그대로 천 년 간의 천년 통치 같은 것은 없다. 그런 것 같이 기초가 없는 무의미한 말로 혼란스럽게 되는 한, 예언 체계에 대하여 당신이 무엇을 믿든 지, 믿지 않든 지는 내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염려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 안에서 기초가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만, 기독교의 이름 안에서 물질적인 것들 따라 분열과 세속적 정욕을 촉진 시킨다는 것이다. 세속적 종교는 세속적인 희망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세속적 희망은 세속적 욕망을 촉진시킨다.

신성의 체현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7 절). — 우리 구원자의 신성에 대한 거의 그런 우발적인 선포가 또 하나 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차리신다. 하나님 말고 아무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차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신 그분이 모든 자의 생각을 알아차리신다. 아무 것도 그분에게 숨길 수 없다. 모든 것이 우리가 그로 인하여 벌거벗었고 그분께 열려 있다 (히브리서 4:13).

우리 주께서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차리셨을 때, 그들의 세속적인 다툼에 대하여 그들을 책망하려 하셨을 때, 그분은 한 아이를 택하시고 그들 모두가 있는 가운데 그분 자신 옆에 세우셨다.

마태는 그분이 이 아이를 그들 모두의 한 가운데 앉히셨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18:1). 그분은 그들 모두가 그 아이를 보기를 원하셨다. 이 아이를 바라봄으로, 만약 그분이 전혀 한 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분의 계획을 알아차려야 했다. 주 예수께서 단지 어린 아이이고, 그 자신이 눈에 가장 낮고 사소한 그가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안에서 가장 큰 자임을 그들이 보기 원하셨다. 이 아이를 그분 자신 곁에 두시고, 그를 가리키면서, 아마도 그 아이의 어깨 위에 팔을 얹으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48 절).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어떤 것도 의도된 것 이상으로 만들고, 의도된 것 보다 덜하게 만드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아이들과, 아이들의 침례, 혹은 아이들의 회심에 대하여 아무 것도 가르치고 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어린이들이 그들이 책임감 있다고 생각되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순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없다!

기독교

공과는 기독교에 관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며, 의존적이고, 신뢰하고, 세상적 명성과 권력과 부에 무관심하기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 약함을 알므로 어린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는 사람들로써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2:10). 어린 아이가 자신이 무지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깨달으므로,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자신을 보호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어린 아이가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 받았을 때 속히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마음 상하게 하는 자들을 속히 용서하여야 한다. 어린 아이가 본성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품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서로 가르는 것들을 피하고 제쳐둠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이 아이처럼 나이가 들지 않았지만, 온유함과 겸손 가운데, 거만하고 도도하지 않은 사람, 세상적 명예에 대한 야망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을 자신의 집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히, 그분은 복음 전도자들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 “내 이름으로” — 그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를 내가 보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가 나의 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 “나를 영접함이요” — 그의 여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와이고 주, 그의 구원자이고 왕이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서로를 영접하자. 당신의 형제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속 받았고, 영접되었으며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또 우리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라! 그런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 가운데 하나를 위하여 그분께 하시듯이 어떤 것이든 택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과 관련한 그분의 위대함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가 아버지를 영접한 것과 아주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영접하는 모든 자는 그분을 영접한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잘못 대접하는 자는 모두 그분을 잘못 대접한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분 자신의 생각에, 그분 자신을 진실로 생각하는 자가 가장 작은 자이다, — “그이가 큰 자니라,” 높이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는 자이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다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49 절). — 다시, 그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읽어라. 요한은 여기서 갑자기 주제를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히려 그 반대이다: 주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찢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그의 형제들이 최근 행했던 것에 대한 악함에 빛 비춤을 가져왔다. 부드러운 마음의 요한은 그들이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영에 철저하게 반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마음이 부서졌다.

본질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계셨다. — “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불손했던가! 주여,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한 사람을 보았으며, 그가 우리 중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질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50 절). — 주께서 그런 비판적인 영을 분명하게 꾸짖으셨다. 그분은,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 너희가 전하는 것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며, 나의 이름으로 어둠의 왕에 대항하고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를 단지 그가 너희의 작은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 하고 해서 책망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정죄하거나, 심지어 나쁘게 말하는 것을 자신이 결코 택하지 말라.”

교만

교만은 끔찍하게 악하며 언제나 분열적이다. 우리 자신을 올리고, 높이며, 칭찬하는 것을 구하게 하는 죄로 충만 되고, 치욕적인 교만에 대항하여 늘 지키고 그것을 피하도록 분투하여야 한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셨으며 그분의 제자들이 되게 하셨던, — (죄인들이 사함 받았다! — 반역자들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정복 되었다! — 탕자들이 회복되었다!), — 누가 가장 큰 자인가로 논쟁하던, 하찮은 무명인들, 세리들과 어부들의 작은 무리가 있다! 각자가 자신이 다른 자들보다 더 높이 존귀함을 받기에 합당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의 타락이다! 교만보다 우리가 더 천연적이고 사악하게 죄, 사악함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언제나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하도록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괴물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어떤 죄도 우리 타락한 마음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 것은 없다. 그것은 접촉체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다. 그것은 어두움이 밤의 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의 한 부분이다. 이 육신이 숨을 멈추지 않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교만처럼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우리 마음의 사악함은 없다. 그것은 겸손의 옷을 낚아지게 한다. 그것은 온유한 척 한다. 그것은 필사적으로 자기 비하처럼 보이게 하기를 원한다. 교만은 무지한 자와 뛰어난 자, 가난한 자와 부자, 가장 쓸모 없는 자와 가장 재능이 있는 자 가운데 발견된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도록 만들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대하여 절대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 무엇이 교만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을 수 있는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담의 아들딸들인 우리가 교만하게 될 최소한의 이유를 갖고 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대상이고 수혜자가 된 우리는 교만에 대하여 최소한의 변명을 갖고 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은사를 받은 죄인들은 교만하게 될 최소한의 이유를 갖고 있다!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우리의 교만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반대가 되는 것은 없다 (고린도전서 4:7; 에베소서 3:8).

이 세상에 아무 것도 교만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따르도록 남기신 본에 반대가 되는 것은 없다. 우리의 교만보다 우리 구원자의 성품에 더 반대가 되는 것은 없다 (요한복음 13:1-5, 12-15; 빌립보서 2:1-8; 3:10).

억압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형제를 억압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경향에 대항하여 우리를 지키고 피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연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심판하고, 비판하며, 정죄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음해 하려는 것을 신중하게 피해야 한다. 그것은 엄밀하게 50 절 안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이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교회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복음을 손상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교회 역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형제를 분열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동등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 사악함은 결코 오늘날보다 결코 더 만연하지 않았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라. 우리 주께서 우리가 건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가르침에 무관심해야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지내기 위하여 복음을 타협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이단은 드러나고, 밝혀져야 하며, 정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을 섬기는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 우리의 “작은 무리”, 우리 교파, 혹은 우리 교제의 작은 집단의 한 부분이 아닌 많은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를 나쁘게 말하고, 그들을 우리와 갈라 놓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게 두라. 우리는 그런 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엘리야 시대에서 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칠천 명 (비록, 아마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갖고 계시다. 우리는 모두 욥이,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기 12:2) 라고 언급했던 자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Don Fortner 와 함께 그들을 규정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Don Fortner 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면,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민수기 11:27-29; 빌립보서 1:12-1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툼과 투쟁을 그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바란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의 강력한 손아귀를 끌어내리고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므로, 복음으로 그분의 뜻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유용함과 성공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50 절).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파멸의 낭떠러지에 있는 죄인들의 구원을 목표로 하면서, 복음의 전도에 우리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우리가 들이도록 하자. 논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개인적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기를 구하고, 신조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사람들의 인정의 미소가 아니라 그들의 혼의 선을 구하자. 침례자 요한처럼, 궁핍한 죄인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양에게 향하도록 하며, 우리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라.” 고 말하자. 그리스도는 나뉘어져 있지 않다. 그렇게 되지 말자 (로마서 14:4; 고린도전서 1:10; 3:9-10, 16-17; 10:15-17; 골로새서 3:12-15).

61 장. “기약이 차가매”—누가복음 9:51-56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고로 저희가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 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9:51-56).

오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백성을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아무 것도 그분이 결정한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분 자신을 우리 보증으로서 서약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결코 거두시거나, 심지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을 거두지 않으셨다 (잠언 9:23-32). 비록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을 통하여 동산에서 타락했으나, 우리 주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왔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본성을 입고 저주의 나무 위에서 우리 대신 죽기로 하셨다 (로마서 5:6-8; 갈라디아서 4:4-6). 그분은 침례 받아야 할 침례를 받으셨다. 그분은 마셔야 할 잔을 받으셨다. 열렬한 갈망으로, 그분은 마지막 유월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저녁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갈망하셨다. 이제, 그분의 시간이 왔다. 이제, 정해진 시간 속에서, 시간의 충만함이 이르렀을 때, 누가는 우리에게 말한다 —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 절).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방해 받기를 거절하신 큰 일의 성취에 그분의 얼굴을 부딪돌처럼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되돌아가는 가는 것은 없었다. 비록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분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많았지만, 그분은 그분의 큰 역사를 단념하지 않았을 것이다.

준비된 대속

우리에 대한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기꺼이 죽기 위하여 갈보리로 가셨다 (51 절). 우리 위대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단호히 결정하시고 이 세상 속으로 오셨다. 결코 한 번도 그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분의 시간이 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우리 구속자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확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분은 그 약속된 시간을 아셨다. 그분은 그의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아셨다. 그분은 결코 망설이지도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으며, 그분의 계획에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분의 대적들에게서 숨거나 자신을 구할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 오셨다. 자신은 구원할 수도 없었고 구원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간과 하였고 그 뒤를 보셨으며, 뒤따를 영광을 바라 보셨다. 주 예수께서 그의 보상이 무엇이 될지 아셨다. 그분은 곧 그가 영광 안에서 영접될 것과 (디모데전서 3:16), 지극히 높은 하늘 안으로 영접 받으시며, 시온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게 될 것을 아셨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그분이 떠나실 것으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실 별세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했다. 주 그분 자신은 그것을 갈망되어야 할 것으로 바라 보셨다. 왜? —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은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생명으로, 더 나은 교제 안으로 옮겨지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갈망할만한 것으로 바라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사망은 환영할 친구로 바라보게 되어야 한다. 곧 우리는 “열납 받을 것이며,” 그분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1-3; 고린도후서 5:1-9; 빌립보서 1:21-23).

시간이 왔음을 알았으므로,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을 확신하면서, 주 예수께서는 고난 당하고 죽어야 할 곳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단념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그분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분의 양 떼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셔야 했다. 용감하고 기분 좋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으로 가셨다.

그렇다, 그분은 거기서 그분께 닥칠 모든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성취하여야 할 사명이 있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다. 낙심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부딪돌처럼 하셨던 것은,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성취하시게 될 구속으로 의롭게 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사야 50:7).

그분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고, 그분을 위하여 어떤 것도 고난 받거나, 그분을 위하여 어떤 책망도 받기를 꺼리고 물러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치욕스러우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치욕스럽게 하는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는 그 위대한 역사를 통과하고 완료하시기 위하여 모든 반대에 직면하기로 굳게 결심하신 그분과 그분의 공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러서고 돌아설 수 있겠는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자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자!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렸던 모든 것을 충분히 잘 알았다. — 배반! — 조롱 재판! — 비웃음! — 가지관! — 침 뱉기! — 창! — 고통! —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분의 마음은 영원 전부터 우리 위에 놓여졌고, 마치 그랬던 것처럼 그분을 신성한 진노와 심판의 고통에까지 몰고 갔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의 고통으로 몰아가게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대신에 죽는 것이 그분의

혼의 갈망이었다!

“놀라운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군요!”

이런 것들의 빛비춤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흔쾌한 마음에 누가 이제까지 의문을 품을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고, 준비되어 있으며, 자진하는 구원자이다!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기로 준비되었던 그분은 오늘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분이 마음이 내키지 않다고 기록된 곳이 없다. 도처에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본을 따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나의 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사용하기 위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느 곳이든 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이든 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도 견딜 준비가 되고 기꺼이 하도록 하겠다. 그분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의무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게 결심하도록 하겠다.

사마리아의 큰 손실

그들에게서 영원한 축복을 강탈해가는 인종적 선입견을 허용했던 사마리아인 마을이 있었다 (52-53 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인종 갈등의 근원을 보기 원한다면, 열왕기하 17 장과 에스라 4 장에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종적 선입견은 끔찍하게 악한 것이며 종종 심지어 더 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악의 근원이다. 이 무명의 사마리아인들은 주 예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결정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고집스러운 불신에 대한 얼마나 슬픈 그림인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신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그분을 위하여 준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큰 대다수는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는다.

분노한 사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를 매우 나쁘게 대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행위로 분노하였다. —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4 절). 그들은 흥분하였다! 그들은,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명하여 재가 되도록 불태울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소돔처럼 만들 것이다!” 고 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것이 언급될 수 있고 언급되어야 한다. 야고보와 요한은 열심이었으나, 틀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했으나, 너무 무분별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전혀 의도되지 않은 방법으로 그 말들을 인용하였다. 이것 만은 말해 두겠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장군 없는 군대이고, 방향타 없는 배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한 참된 열심으로, 그러나 방향을 거절한 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심으로 큰 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 — 경계 하라!

주 예수께서 엄하게 야고보와 요한을 그들의 제안에 대하여 꾸짖으셨고 따라서 박해의 영도 엄하게 꾸짖으신다. —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너희는 너희가 속한 영의 태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55 절). 그분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의 격렬하고 맹렬한 열심에 대하여 꾸짖으심은 지극히 교훈적이다. 인간의 종교는 종종 검이나 법적으로 그 자체를 성취하기를 추구한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다른 무기를 갖고 있다 (고린도후서 10:4).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까지 사용하고 사용하기를 추구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유일한 무기는 악에 반대하고 거짓 종교를 뒤엎는데 있어서 기도와 전도이다. 기록은 법제화 될 수 없고, 믿음은 강요될 수 없으며 의는 사람의 법, 정치적 힘, 혹은 전쟁의 검으로 세워질 수 없다.

우리 주의 사명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리고 함께 다른 촛으로 가시니라” (56 절). — 주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1:21; 요한복음 3:16-17; 디모데전서 1:15).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계시된 모든 것이 큰 소리로 선포한다. — “예수가 구원하신다! 예수가 구원하신다! 예정하심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 계획은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이다. 그분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그분의 성육신은 인간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오신다! 공황에 속한 그분의 기적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단지 그분의 마음에서 궁핍한 혼으로 흘러가는 공허의 그림이었다. 그분의 교훈은 은혜의 교훈이다. 은혜는 죄인들의 보증으로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입으로 부어졌다. 그리고 은혜는 그분의 입에서 영원히 부어진다!

“우리가 기쁜 소리를 들었네:
‘예수가 구원하시네! 예수가 구원하시네!’
그 소식을 모든 곳에 퍼뜨려라, —
‘예수가 구원하시네! 예수가 구원하시네!’”

그분은 궁핍한 죄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22) 그분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공허와 은혜와 구원과 영생의 약속으로 가난하고, 길 잃은, 무기력하고, 파멸하고, 멸망해가고, 저주 받은 죄인들을 그분 자신에게로 부르신다!

62 장. 거짓 제자와 두 명의 잘못된 전도자들—누가복음 9:57-62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좃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좃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57-62).

이 사람들 중 첫 번째 두 사람은 마태에 의해서 또한 언급되고 있다 (마태복음 8:19-21). 세 번째 사람은 누가에 의해서만 언급되고 있다. 누가가 이 세 사람과 이 특정한 장소에서 그들과 한 우리 주의 대화를 우리에게 제시하도록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과, 세 사람이 함께 하나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성령은 이 세 사람을 간략한 대화와 함께 우리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이유로, 우리에게 특별한 공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짧은 단락 안에서 가르치는 공과를 우리가 깨달으려 한다면, 그것이 주어진 상황을 못 보지 말고 마음 속에 지켜야 한다. 주 예수께서 그분을 섬김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이제 막 마치셨다 (누가복음 9:43-50, 55).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마음 먹으셨다는 것을 듣는다 (누가복음 9:51).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그분의 사명을 이제 막 발표하셨다. —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누가복음 9:56 *역주: 한글 번역은 없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의 제자들 이른 명을 보내시려 하였다 (누가복음 10:1).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칠십 명을 보내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는 이들 세 사람과 하신 주의 대화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그렇게 하는 그의 계획은 분명하다: —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우리가 그분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충심으로 단일한 마음과 분명한 계획으로 해야 한다.

거짓 제자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려는 자원자 한 사람이 있다 (57-58 절). 마태는 누가보다 그 사람에게 대하여 약간 더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 마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8:19-20).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으며, 서기관이었고, 그의 평생을 성경으로 보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한 사람이었다. 순전히 그의 담대하고 자신 있는 선포에 주께서 하신 대답으로만 판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면, 이 사람은 그의 머리 속에 주의 제자들 가운데 계수되는 것이 그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만약 그가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다면, 나는 떨어져서 그분의 왕궁의 한 부분이 되는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는 크게 뻘뻘한 약속을 하였다. —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으며, 그들이)길 가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고, 그곳은 메시아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처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곳으로, “길 가실 때에 흑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57 절).

언뜻 보기에, 이것은 매우 좋은 일로 보이는 것 같았을 것이다. 결국,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인 자는 모두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계시록 14:4). 그들은 기꺼이 그분을 따른다. 비속이나 불을 뚫고라도, 감옥이나 죽음으로라도, 그들은 따라 간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단호히 결정 하였다.

그 가련하게, 그 자신의 타락한 마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종교로 눈이 멀었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몰랐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분을 따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만 관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그 일에 이를 것이라고 꽤 확신하였다.

자주 우리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내가 하겠다.”는 선포를 매우 급히 한다. 그들은 이 서기관하고 똑같이 자신의 선포를 공개적이고 자신 있게 할 것이다. —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 서기관처럼,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말하며, 부적당하게 말한다. 그들은 서서 말한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주께 드렸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전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릴 것을 촉구하는 말을 듣는지. 진실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구원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온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으로 오는 것이지, 당신이 그분께 어떤 것을 드리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이 가련한 서기관은 모든 사람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의지 숭배자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의 실행 만으로 구원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의 결정이 그를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하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커다란 약속을 하였다. 그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였다. 니고데모처럼,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였을 것인데,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사람이 거짓 제자였다는 사실은 명확한데,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인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시기 전까지 아무도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된 사실이다 (요한복음 6:44). 이 사람은 주께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나왔다. 그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말로 나왔다. 그는 내적으로가 아니라 외적으로 나왔다. 그가 충성 된지 아니면 순전히 위선적이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지 않겠다. 사실인즉, 그는 구원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올 수도 없었고 오지도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어떤 확신을 체험하였다고 가리키는 것이 없다. 그는 죄에 대한 고백도, 공흠에 대한 외침도, 은혜에 대한 탄원도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도 표현하지 않았다.

이 서기관은 단순히 “예수 클럽”에 가입하려 결정 했고, “약속의 수호자”가 되고자 했으며, 선한 것에 끼어들려 하였다. 그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어디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매우 자신만만 하였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결정은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로마서 9:16).

이 서기관에게 하신 우리 주의 대답을 보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공과를 배워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여정은 자기 부인의 대가와 고통스런 여정이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8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우는 새끼를 키우기 위한 굴이 있고, 새들은 그들의 알을 낳고 부화하기 위한 둥지가 있다. 그러나 주 예수는 그의 머리를 둘 곳조차도 없었다. 비록 그분은 모든 자의 주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바로 그 생명을 희생하셨고, 모든 것을 내려 놓으셨다 (고린도후서 8:9; 빌립보서 2:5-8). 만약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가를 계산하므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생명을 내려 놓고 그분께 우리 생명을 잃어야 한다 (누가복음 14:25-33).

잘못된 충성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59-60 절). — 잘못된 충성심을 가진 전도자가 있다. 만약 우리에게 단지 누가의 이야기만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미 주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람이 이미 제자였음을 말한다 (마태복음 8:21).

그 사람은 부름을 받았다. 그는 마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처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며, 주 예수께서 그에게 오셨으며,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는 믿는 자였다. 그는 진짜 제자였다. 그는 사실 복음 전도자로서 주 예수께서 보내시려 하였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꺼이 가고 가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가 다른 좀더 압박하고, 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더 중요한 책임 때문에 잠시 연기하기를 갈망하였다. 그가 전도하려 나갈 수 있기 전에, 그는 먼저 그의 가족의 필요를 보살펴야 했다. 그는,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여, 나의 늙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먼저 돌보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가겠나이다.” 고 말하고 있었다. 아마도, 우리의 번역판이 제시하는 것처럼, 그는, “주여, 나의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네가 집으로 가서 그분을 장사 지내게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고 말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든, 그의 요구는 매우 훌륭한 것처럼 보인다. 결국, 사람은 그의 부모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장례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언제나 합당하다. 개인적인 책임을 관심하는 것은 언제나 합당하다.

왜, 그러면,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의 요구에 그분이 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셨나? —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 예수는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 그 문제를 보살필 수 있고 보살필 사람들이 있다. 너는 해야 할 보다 중요한 일들이 있다. 너의 아버지를 장사 지낼 다른 사람들이 있다. 나는 너를 복음을 전하려 불렀고, 보냈다.

많은 선한 사람들,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죽은 자를 묻는데 보낸다. 물을 필요 없이, 장사 지내야 할 필요가 있는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 그들을 문을 죽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부름을 결코 밀쳐두지 말아야 한다. 가족, 친구들, 이웃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거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이 그들의 가족의 안녕을 염려함으로 방해 받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의 유익을 섬기므로, 그분이 내가 나의 가족과 그 안녕을 염려하게 하는 것들을 보살피실 것이다.

아무도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슬프게도,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 척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남는다: — 아무도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우리 본문에 있는 사람처럼, 시간제 전도자가 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세상의 염려를 따르려 하면서 나누어진 충성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려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기꺼이 전도자들이 되고자 한다. 그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정력을 그리스도와 다른 염려와 책임의 문제로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연기한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경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복음 사역의 일, 곧 기도하고, 학습하고, 전하는 일에 그들 자신을 완전히 드려야 한다 (디모데전서 4:12-16).

주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섬기도록 보내셨다면, 그분이 나의 일을 보살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실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하도록 매이므로 존귀하다 (출애굽기 34:23-24; 누가복음 22:35). Matthew Henry 는, “의무의 길은 안전한 길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면 결코 그분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채용되고 있는 한편으로, 또 그분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의회의 귀빈과 의원들이 체포로부터 특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보호 아래 있게 된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부양한다면, 그분이 나의 가족을 부양하실 것이다. 만약 내가 그분의 집을 섬기면, 그분은 내 집을 보살피실 것이다. 만약 내가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면, 그분은 내 자녀를 보호하실 것이다. 만약 내가 그분의 필요를 공급한다면, 그분은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4).

뒤를 돌아봄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61-62 절). — 여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전도자가 있다.

이 사람의 행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신 모든 자에게 경고로서 위치한다. 이것이 발견된 상황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10 장에 있는 그와 따르는 자들 앞에 선 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도록 주 예수에 의해서 보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신 한다. 이 두 구절 안에서 가르치는 공과는 이 축복된 일에 하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가장 엄격한 의미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 공과는 분명하다: — 우리는 갈라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

이 사람은 나뉘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안락과 기쁨과 함께 복음 전도의 고귀함 모두를 원했다. 그는 사역의 일을 어떤 특권이라기보다 희생으로 바라보았던 것 같다. 그는 그가 부름을 받았던 그 일로부터 자신을 되돌리기 가능하도록 가장 강한 유혹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경고로서 위치한다. 우리는 나뉘어진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 세상을 뒤돌아 보는 자들은, 소돔을 뒤돌아 보았던 롯의 아내 처럼, 스스로 안에 뒤로 돌아가기 원하는 어떤 것을 드러낸다! 경계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좌를 심지어 우리의 가장 사랑스러운 친척은 고사하고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 그분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아비와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다.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아비와 함께 있으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비를 죽이셨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던 여인을 버려야 했다. 하나님은 그를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 혹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 사이에 선택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4:24-26; 잠언 4:20-23; 23:17-18, 23, 26). — 우리는 나뉘어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63 장. “친히 가시려는”—누가복음 10:1-7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 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 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찌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샅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누가복음 10:1-7).

“이 후에” —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야하며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야 한다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후 (9:44), — 그분이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신 후 (9:51), —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의 잘못들을 바로 잡으셨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보여 주신 후 (9:43-62), — 그들의 교만과 야심을 드러내고 아이 같은 겸손의 필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난 후 (9:47-48), — 그들의 비판적인 영을 바로 잡으신 후 (9:49-50), — 사마리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인들 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실 것을 원하던 그들을 책망하신 후 (9:52-55), — 주 예수께서 다시 인자로서 그분의 사명을 선포 하시고 난 후 (9:56), — 주께서 그분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다한 희생과 헌신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고 난 후 (9:57-62), — “이 후에”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두 사람씩 칠십 인들을 내보내신 후.

누가는 여기서 다른 복음 저자들에 의해 언급되지 않았던 사건을 우리가 배우도록 기록한다. 그는 여기서 그분이 직접 오셨을 모든 성과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분 앞서서 가도록 칠십 인에 대한 우리 주의 위임을 서술한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의 이름은 아무데서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수고에 대한 이어진 이야기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감동의 일곱 구절들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가르침들은 매우 교훈적이며 우리의 주의 깊은 주목을 요구하는 공과들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종들

이 구절들 안에서 계시된 것들은 우선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 단락 안에 있는 일부 문장들은 이 칠십 인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특정하여 언급되었거나, 그것들이 전도자들에 대하여 한정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따라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의미 있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아무 것도 진리로부터 더 멀어질 수 없었다.

목사들, 장로들,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의 교사들은 모든 것 가운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데 모든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본이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은 첫째로 또 최우선적으로 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믿는 자들이고, 죄인들이다. 당신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그가 가는 곳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며, 다른 믿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당신은 믿는 자인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인가? 당신은 그분의 피로 구속 받고, 사함 받았으며, 의롭게 되었고,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열납 되었는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태어났고, 영생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소유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가르침은 당신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 단락의 공과는 당신과 내가 우리 사람의 모든 날 동안 배우고, 가슴에 품고, 따라야 할 공과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된 공과들이 우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로 우리 삶을 통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거룩하게 약속됨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1 절). — 이 칠십 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 예수에 의해 직접 지명 되었다. “세우사(appointed)”로 번역된 말은 신약 성경 다른 한 곳에서만 사용된 말이다 (사도행전 1:24). 그 의미는 “보여주다” 혹은 “명시하다”라는 뜻이다. 그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분명한 표식으로, 개별적으로 지정하다, 어떤 직무나 일에 지명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과 아주 유사한 파생어가 이전의 누가복음 1:80 에서 발견되며, 거기서 누가는 이스라엘에게 침례자 요한이 나타난 것을 설명한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지명되었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이 사람들은 두 명씩 짝이 되어 그분에 의해 보내 받았다. 그들은 둘이 하나 보다 낮기 때문에 짝으로 보내졌다. 만약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집어 올릴 수 있다. 여기의 공과는 분명하다. — 믿는 자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조력자와 다른 충성된 사람들의 격려와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이를 밖에 나가 놀게 내 보낸 것처럼 우리 주께서 단순히 이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의 “보내시며”라는 말은 매우 강력하다. 그 의미는 “강제로 보내다”라는 뜻이다.

왜 누가가 그런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는가? 그는, 비록 교만한 마음 각자는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주목 속에 있고 싶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목사의 호칭이나 전도자의 호칭을 쓰고 전하고 싶어한다!), 아무 것도 사람이 복음의 일에 스스로를 던지게 할 것은 없으며, 아무 것도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와 거절할 수 없는 부르심의 강제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꾼으로 사람을 보내게 할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성경 학교, 신학교, 그리고 개인적인 야심이 많은 사람을 강단에 세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전도자를 만드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포도원에 일꾼을 보내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을 돌린다. 그러나 그들은 헛되게 돌린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 받은 자들은 결코 헛되게 달리지 않으며 결코 헛되게 수고하지 않는다 (이사야 55:11; 고린도전서 15:58).

그분께 앞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포도원에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분께 앞서”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더 경이롭고, 더 정신이 들고, 더 중대한 생각을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의 앞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서 행한다!

1 절의 마지막 행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 우리의 영어 번역만큼 강력한 것처럼, 원어는 훨씬 더 강하다. 누가는 우리 주께서 이 사람들을 그분이 친히 가시려는 각동과 각처로 보내셨다는 것을 매우 축어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실 때마다, 그분이 친히 오신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다. 그분은 복음 전파에 의해 그것을 통하여 오신다 (로마서 10:14-17; 디도서 1:1-3; 디모데후서 1:9-10; 베드로전서 1:23-25; 히브리서 4:12-13). 누가복음 10:16 을 보고 복음이 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려져야 하는 그것으로 어떤 심각한 생각을 갖도록 하라. 만약 주 예수께서 복음으로 당신에게 말하기 기뻐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헛되이 받지 못한다. —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16).

기도의 사람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2 절). —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하려 한다면, 사람들의 혼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2 절). 이것은 우리 주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보내시며 가졌던 주요한 생각이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직면하게 될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을 가게하시기 전에, 그분은, “기도하라!”고 하신다.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것과 함께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야고보서 5:16).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다. 하나님의 자녀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의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라. 추수의 주께서 그분의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기도하라.

위험에 처한 사람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3 절). —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뜻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선포하려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뚫고 나가며, 위협에 처한 사람처럼 살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3 절). 그 초기 제자들처럼, 우리는 위험한 때에 살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사람들의 혼을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 한다면, 그분의 왕국의 이익을 섬기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받았던 것과 다르게 취급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3:18; 디모데후서 3:12; 요한일서 3:13).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범죄가 그치지 않았으며, 세상이 유지되는 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5:11). 아벨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인하여 가인이 아벨을 증오했던 것처럼, 가인의 자손은 세상의 끝까지 아벨의 자손을 증오했고 박해할 것이다. Martin Luther 가 언급했던 것처럼, “가인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아주 끝까지, 아벨을 죽일 것이다.”

계획의 사람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찌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4-6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매인 사람들의 혼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계획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뜻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의 뜻이고, 그분의 영광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결단을 갖고 섬겨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지 말아야 한다. 돈과 물질적 문제는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문제가 아니어야 한다 (느헤미야 6:3).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위하여 아무 것도 예비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의 관용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께 헌신되어야 한다. 복음 전도자들은, 특별히, 사소한 문제로 낭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으로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존귀를 드리도록 하자. 언제나 사려 깊고, 친절하며, 예의 바르도록 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의 대가 없는 관용으로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호혜도 비위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평강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같은 평강의 복음이다. 우리는 평강의 왕의 종들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길을 보여 준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강의 뜻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평강을 고무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평강의 아들이 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이 영접 받는다.

솔직한 사람들

만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려 한다면, 우리는 솔직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7 절).

우리는 실로 있는 그대로 살려고 애써야 하며, 그 첫째 생각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과 하늘과 영원과 우리 자신의 혼과 다른 사람들의 혼에 대한 것인 사람들이 되기를 애써야 한다. 이것들은 첫째로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 충고는 특별히 사람들 앞에 영원의 중대한 문제를 제시하기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전도자가 부와 화려함과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그의 전도자로서의 유용성은 끝이다. 만일 나의 행동으로 내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게 인도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영원히 매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추구하도록 촉구하는 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골로새서 3:1-7; 고린도후서 4:15-18).

주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그분이 그들을 보내시는 곳에서 그분이 그들에게 주시는 예비하심으로, 그들 앞에 차려진 것을 먹음으로 만족하라고 명하신다. 수고가 그의 대가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그분은 그분의 종들에게 결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구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 영광의 왕께서 그분 자신의 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유를 위하여 잘 예비하신다. 구걸하고, 비굴하게 굴고, 불만스러운
전도자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치욕이고, 복음에 치욕이고, 하나님
의 백성에게 치욕이며, 왕께 치욕이다!

64 장. “이것을 알라”—누가복음 10:8-16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찢저, 고라신아, 화 있을찢저, 벧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8-16).

누가만 이 장의 첫 부분에서 기록된 사건을 기록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분이 들어 가려고 하였던 성들에 칠십인의 이름 없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주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분이 이 장소들을 직접 가시려고 하였기 때문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갖고 보내심을 받았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1 절).

이것을 표시해 둘 수 있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누구에게든 가시려 하는 때마다 또 곳마다, 그분은 그곳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되고, 지정된 은혜로운 방법이며, 그분은 거기서 떠나지 않으신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찌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찌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말라.” (2-7 절).

8 절에 있는 대화를 보자. 이 아홉 구절들 (8-16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혼을 섬기기를 구하므로, 우리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 할 공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성

이 구절들에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사항은 종교적 세상 안에서 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반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며, 소홀히 하는 공과이다. 우리 앞에 있는 8-11 절에서 복음의 단순성의 매우 분명한 모습을 본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며, 특별히 전도자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음은 우주 안에서 가장 심오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을 바라 보는 것은 그와 같은 깊이와 지혜의 비밀이다. 우리가 그 경이를 배우는데 영원한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경이이다 (고린도전서 15:1-3). 복음은 무한한 비율의 비밀이다. 그러나 복음의 전도와 복음의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은 철저한 단순성의 문제이다 (고린도후서 11:2-4).

우리 주께서 이 칠십 인을 보내실 때, 그분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며, 단일한 임무를 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의 혼을 섬기려 보내졌지, 사람들에게 의해 섬김을 받으려 보내진 것이 아니었다. —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8-9 절). 그분은 그분의 종들에게 겸손하게 살고, 쉽게 만족하며, 병자를 치료할 것을 가르치셨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의 책임이다. 부와 호사를 추구하는 전도자들은 모순된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용으로 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할 기회가 주어질 때조차도 그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거절한다.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의 혼을 섬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섬김을 받기를 구하지 않는다. 충성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자들의 필요를 치유하기를 구한다. 그들은 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람들에 의해서 “잘 치유받기를” 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을 알라 하라.” — 이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고, 단일하며, 중요한 말씀을 영원히 맏인 죄인들에게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을 알라.” 그들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말로 전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전하며, 그리스도, 주권적인 주의 선포를 그들을 듣는 자들에게 긴급하게 전할 것을 요구 받았다. 복음 전도는 언제나 대립적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주께 반역하는 자의 항복을 요구한다 (누가복음 14:26-33).

Rolfe Barnard 는, “판결을 위한 전도다.”고 말하곤 했다. 전도는 언제나 우리 말을 듣는 자들이 무언 가를 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을 그것으로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 오라. 회개하라. 구원자께 보다 완전하게 자신을 헌신하라. 등). 나의 옛 설교법/목회 신학 교수는 거의 매 강의의 시작 때 우리에게, “호출이 없는 곳에, 설교는 없다.”는 말을 우리에게 하였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이고 교리적 사실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혼들 앞에 그리스도의 부요와 영광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분 안의 믿음을 요구하며 그분께 항복하는 것이다. 무엇이 전도인가? 그것은 성경을 해설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이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8:23).

하나님께 전도자들이 사람들을 믿음 안으로 설득하려 시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실 것인가. 죄인들은 믿음에 설득될 수 없다. 그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그리스도 안으로 가 아니라, 종교 안으로 설득될 수 있다.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세속적이 아니라, 영적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선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단순함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믿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의 큰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 주의 가르침은 10-11 절에서 이것에 관련하여 무엇이 있는 지 보라. —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3:3-4 를 읽어 보라). 첫 번째 공과는 이것이다: — 복음 전도는 단일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말씀 뿐이다 —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말씀은 의도적인 단순함으로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진실됨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정직하게 구하면서 전해져야 한다.

주권

둘째, 12-15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신성한 주권의 엄청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찐저, 고라신아, 화 있을찐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주권 가운데,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감추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심을 보여 주신다. 다른 말로 해서, 그분은 그분이 공활을 베푸시는 자들에게 공활을 베푸시며, 엄히 다루실 자에게 엄히 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1:20-27 에 있는 비슷한 단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라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찢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찢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사람이 그 자신의 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분명히 아니다! 마태복음 11:28-30 을 읽어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거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책임

이 구절들 안에서 가르치는 세 번째 공과는 이것이다: —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의 잘못, 당신 자신의 행위로 인함이 될 것이다. 많은 자들이 어리석게도 사람의 책임에 대한 어떤 말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 안에 있는 어떤 역량을 내포한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을 듣는 모든 자의 책임이다. 만약 그 선포가 당신의 신학적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체계를 해체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스러뜨려서는 안된다 (잠언 1:23-33; 요한복음 3:18; 16:9; 요한일서 5:10).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자신의 교만한 머리를 치켜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가 당신을 신뢰하고자 하였기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으나,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려 하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제게 믿음을 주시려 하지 않았으며, 저를 구원하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고 단언하는 혼은 지옥에 없다. 오히려, 저주 받은 자는 그들의 의도적인 불신 때문에 공의롭게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로 영원히 고통 받고 있다.

물을 필요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사악함은 불신이다. 불신은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요한일서 5:10). 그것은 당신이 만약 지옥에 간다면, 당신 자신 말고는 아무도 비난할 자가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당신이 이제까지 들은, 혹은 들었을 수 있었던 모든 복음 설교, 당신이 멸시하였던 모든 빛 비춤, 당신이 경멸하였던 모든 진리의 증인들에 대하여 당신은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사들

여기 네 번째 공과가 있다. 16 절에서 그것이 발견된다. —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은 당신의 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주 예수께서 선포하신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것은 정확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20-6:1 에서 주장한 것과 같다.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대리인들이며, 그들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혼에 말씀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들어야 하고, 영접 받아야 하며, 취급 받아야 한다 (이사야 52:7; 데살로니가전서 5:12-13; 히브리서 13:7, 17).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65 장. 억제된 기쁨과 격려된 기쁨—누가복음 10:17-20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17-20).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실로, 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빌립보서 3:3) 자들로 묘사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립보서 4:4)고 명령 받았다. 이 기쁘고, 참되고, 영적인 기쁨은, “믿음 안에 있는 기쁨”(로마서 15:13)은 주 예수 안에 있으며 그분의 은혜에 속한 지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쁨이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그 훈계는 “주 안에서” 로써 제한된다.

누가복음 10:17-20 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 안에서 가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 안에서 기뻐하는 그분의 제자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가르치시는 우리 구원자의 예를 준다. 주 예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분의 제자 칠십 인을 내 보내셨다. 여기 그들이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돌아왔다. 나는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우기 원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위에 이 중요한 네 가지 공과를 새겨 넣기를 바란다. 그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를 섬기려 하는데 있어서 우리를 잘 준비하게 할 것이다.

교만

첫째, 우리는 모두 너무도 쉽사리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흥분과 기쁨을 두고 그들을 너무 심각하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누가 그런 체험으로 의기양양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보고와 그것에 하신 주의 반응은 이 일에 대한 그들의 기쁨이 그들이 보였던 것보다 더 은혜로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기쁨과 뒤섞인 많은 거짓 불길이 분명히 있었다. 그 안에 너무 많은 자아가 있었다.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7-18 절).

젊은 병사들은 그들이 승리를 처음 맛보고 종종 훨씬 많은 자기 과신과 자축으로 들뜨게 된다. 주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사악함을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분은 그들에게, “조금 진정해라. 너희들이 보고 체험한 것들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 너희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사단이 하늘로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시록 12:3-4; 이사야 14:12-17) 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그분은 복음 전도를 통하여 사단의 추락을 미리 예견하셨고 약속하셨다 (마태복음 16:18). 그분은 특별히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탄의 보좌를 거꾸러뜨리기 위하여 오셨다 (에스겔 28 장). 그분은 옛 뱀을 묶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지만, 언급 했듯이,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함께 너무 심각해 저서는 안 된다. 모든 충성된 복음 전도자는 성공을 원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달리고 잘 달리는 것을 보기 원한다. 우리는 사탄이 넘어지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며, 죄인들이 변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 그런 갈망들은 의롭고 선하다. 그러나, 주께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가 이 큰 일 안에서 약간의 쓸모 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유일한 도구들임을 잊는 경향이 있다 (고린도전서 3:5-7).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성공을 보지 못할 때 쉽사리 낙심하며, 성공을 맞볼 때는 아주 쉽게 우쭐한다. 삼손처럼 그들의 큰 위업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사기 14:6).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경고는 근거가 확실하며 지속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3:6).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8-24).

그림: Bunyan 의 전도에 관한 Owen

사탄

둘째, 사탄은 우리 위대한 구원자의 완전한 통치와 통제 아래 있는 대적이다. 사탄이 거꾸러지는 것을 본 그는 사탄을 거꾸러뜨린 그분이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사탄을 내 쫓으셨고, 만물 위의 주로서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속이는 자를 묶으셨으며,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열방을 속이기를 계속하였을 것이다 (계시록 20:1-3).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실 때마다 그분은 사탄을 거꾸러지게 하신다 (마태복음 12:29: 요한복음 12:28-32).

사탄의 권세가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분되고 즐거운 한편, 그것으로 놀라기 보다 오다려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 (에스겔 28:11-19). 사탄은 우리 주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이지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 그는 물어뜯을 자를 찾는 으르렁 거리는 사자처럼 돌아 다닌다. 그러나 그는 사슬에 묶이고, 힘이 없는 사자이고,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해칠 송곳니도 없고 발톱도 없는 사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귀이지, 하나님의 경쟁자가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 하는 것들

셋째,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절대 해칠 수 없음을 은혜롭게 가르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구원자의 약속은 큰만큼 분명하다: —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19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물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 사도 시대 동안 특별한 능력,
그때까지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던 은사를 받았다. 따라서 이 구절
의 말씀이 축어적으로 취해졌으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염려하
였다 (마가복음 16:18; 사도행전 28:3-5).¹¹

하지만, 이 19 절은 우리에게도 하신 우리 구원자의 약속이다. 뱀
과 전갈을 대적의 권세의 비유적 상징으로 깨달으라. 주 예수께서
여기서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결코 해롭게 하지 않
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디모데후서 3:1-14). 죄의 독도, 전
갈의 독침도, 뱀의 독니도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결코 해치지 않을
것이다. 거짓 교리의 독도, 박해의 독침도, 지옥의 뱀도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하나라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16:20). 실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시편 91:9-13; 잠언 12:21;
이사야 3:10; 11:8-9; 호세아 2:18; 로마서 8:35-39). 어떤 대적
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사탄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질병이 우리
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시험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악
한 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비탄은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
다. 그렇다, 마침내, 죄라 할 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21:4).

택정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¹¹ 주의 제자들은 뱀 다루는 자들로 열광하지 않았다! 주는 어리석은 것에 대하
여 그들 (혹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지 않았다. — 그는 그들 (그리고 우리)
에게 그의 이익, 복음 진도를 섬기려 나갈 때 보호를 약속하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넷째,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택정의 사랑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여기 참 기쁨을 위한 뜻이 있다! —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0 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부르는 책이 있다 (계시록 13:8; 17:8). 그 축복의 책 안에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의 모든 이름이 창세 전에 기록되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무궁하게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운 손 안에,
생명책이 놓여 있네.
그의 택정한 자의 이름들이 거기 있으니,
그 이름들은 결코 지워질 수 없네!

하나님의 택정은 우리의 보증이다.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영의 인치심으로, 은혜의 은사로 보장 받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정의 사랑의 결과이며 그 곳으로부터 흘러 나온다 (예레미야 31:3). 그리고 그 택정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틀림 없다. 그것이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게 하였던 것처럼 (사무엘하 6:12-21), 영생에 우리가 택정 된 것은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다윗이 그의 사망의 침대 위에서 위로 받았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분의 택정이다 (사무엘하 23:1-5). 그리고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위로하는 것은 택정하심이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 세상에 누구든 그의 이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이 책에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었다는 것을 죄인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서 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3:36)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거기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안다. —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15).

66 장. 우리 구원자의 유일한 기쁨—누가복음 10:21-24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의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21-24).

우리의 조심스러운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이 구절들 안에 계시된 다섯 가지 엄청난 공과들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마음 위에 새기시기를 바란다.

우리 구원자의 기쁨

첫째,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 하나님의 책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뿔뿔으로 계시된 유일한 것은 그분의 백성의 구원이다.

이곳이 사복음서 가운데 우리 구원자의 기뻐하심에 관한 기록이 있는 곳이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것을 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는 세 번 들었다 (누가복음 18:41; 요한복음 11:35; 히브리서 5:7). 단 한번 우리는 그분이 기뻐하셨다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 구원자의 기쁨의 이유였는가? 그것은 타락한 혼의 변화,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그것은 도처에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그것을 거절하였을 때, 약하고 외로운 자, 가난하고 멸시 받는 자, 짓밟히고 버림 받은 자가 복음을 영접한 것이었다.

우리 축복의 주께서 그분을 비통하게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많이 보셨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분은 많은 수의 완고한 소경과 불신자들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다. 그러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영접하는 몇 사람의 가난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분의 거룩한 마음은 새롭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보았고 기뻐하셨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책에서 내가 찾은 유일한 것은 그분의 백성의 구원이다. 하지만, 이 한 가지에 대하여 우리는 반복해서 확신한다 (미가 7:18-20; 스바냐 3:14-17; 히브리서 12:1-2).

이 사실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를 구하도록 격려하게 한다. 만약 그분이 공훈 안에서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죄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신다면, 타락한 혼의 변화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쁘게 한다면, 왜 어떤 죄인이 그분이 그에게

은혜로우실 것을 의심해야 하는가?

이 안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예는 궁핍한 혼을 향한 동정과 긍휼의 놀라운 마음을 구하도록 우리를 감동한다. 하나님의 영이여, 내 마음 위에 내 주의 형상을 인치소서! 서내게 그분의 본을 따르는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타락한 자를 두고 애통해 하셨는가? —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겠는가? 그분에게서 떠나 버렸던 그 부자 청년 관원을 측은히 여기셨는가? —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 마음을 모질게 해야 하는가? 그가 죄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셨는가? — 우리가 그 동일한 것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를 가장 슬프게 만들고 정말로 결과 없는 것들에 슬퍼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게 나는 두렵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파멸과 경솔함과 냉혹함과 불신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극소수, 보배로운 극소수가 그들의 혼의 구원을 믿는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들의 변화에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지! —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5:19-20).

영원히 사로 잡힌 죄인들의 구원과 관련한 우리 태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는가? 우리 주변의 죄인들이 영원한 괴로움의 임박한 위협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 두려운 것은, 사망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큰 기적, 은혜로운 기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의 변화를 바라보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공활을 일반적이고, 평이한 것들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죄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혼 안에 거의 향기와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둘째, 우리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공과를 본다.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인식하고 머리 숙이도록 하자. — 주 전능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공활의 실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다. —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라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1 절).

그렇다, 우리 구원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인 실행을 기뻐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멸망하는 혼의 구원을 향한 주권의 행사를 기뻐하셨다.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주지만, 그 은혜로운 행사가 단순히 주권적인 관념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빼뚫어진 생각에 의해서 왜곡되어 왔다. 주의 말씀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라. 그 말씀은 많은 사람이 멸망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다. 주께서,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감사하나이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여, 비록 당신께서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그들 자신의 눈에 지혜롭고 분별 있지만, 회개하지 않을 자들에게 그것들을 숨기셨지만, 이 선택 받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계시하시는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 안에서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을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다.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서 12:1 과 로마서 6:17 에서 발견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므로,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라. —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권적 이시며 언제나 그분의 주권적인 의를,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원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를 행사하심에 있어서, 사람들 위에 행사하신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만큼 성경 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그것은 깊고, 복잡하며,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분명하게 계시된 성경의 진리이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으므로 부인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 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오해될 수 없다. 그렇다, 그것은 하늘처럼 높으며 지옥처럼 깊다. 하지만, 그것은 정오의 태양처럼 분명하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 받고 다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은채로 남아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한 땅에는 복음을 보내시고 다른 땅에는 우상의 어둠과 미신 속에서 더듬게 내버려 두시나? 왜 어떤 사람들은 믿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이 사람 말고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대답이 주어질 수도 없고 주어져서는 안된다: — “웁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니이다.” (마태복음 11:26; 요한복음 10:25-27; 로마서 9:13-16).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든 파괴되거나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모순되지도 않는다. 그 사실은, 만약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사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타락한다면, 우리가 멸망한다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일 뿐이며, 우리 자신의 행위일 뿐이고, 우리 자신의 책임일 뿐이다.

복음이 감취어질 때마다, 눈이 멀 때마다, 공의와 의로운 뜻이 있다 (잠언 1:23-33; 마태복음 15:38). 이스라엘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잘려 나갔다 (로마서 10:20). 은혜가 주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곳마다, 구원이 오는 곳마다, 하나님 자신의 뜻 말고 아무 것도 없다. —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는다. 그분 자신의 뜻의 결심에 따르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들을 책임 있고 의무가 있는 피조물, 만약 그들이 타락하면 그 죄가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있게 될 자들로 말씀하신다 (잠언 29:1; 마태복음 23:37-38).

은혜의 대상들

셋째,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의 대상들에 대하여 어떤 것을 배운다. 주 하나님께서는 보통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하신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나이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천연적으로 다른 사람들 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에 더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죄인들이며, 진노와 정죄 밖에 받을 가치가 없다. 오히려,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신다. — 이 세상의 지혜자는 종종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천연적인 적개심을 증가 시킨다. 지식의 교만이 없는 자, 혹은 의지하기 위한 도덕성을 상하였던 자는 종종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가운데 극복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밖에 서 있는 한편, 세리와 죄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이다.

독선주의를 경계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찰을 받게 될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악하지 않다는 헛되고 기만적인 생각 처럼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우리 혼의 눈을 멀게하는 것은 없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별거벗은 것”(계시록 3:17)임을 알게 된 사람은 복되다. 우리가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나가는 첫 번째 걸음이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구원의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가장 그렇듯 하지 않고, 가장 예상 밖이며, 가장 멀리 받는 자에게 온다 (고린도 전서 1:18-31).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넷째, 이 단락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보여 준다. 죄인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친구는 모든 권세를 그분의 손에 두셨다. —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2 절).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모든 탁월과 영광을 주신 그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존엄의 의미를 우리 앞에 제시하려는 의도이다. 하나님-사람 외에 아무도 이런 말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 말은 우리의 놀라는 눈에 우리 주의 본성과 위격에 대한 큰 비밀을 일별을 드러낸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사람 중보자이며, 그분에 의해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한다. 그분은 모든 것의 머리고, 왕 중의 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 자이나, 여전히 아버지와 구별된다 (요한일서 5:7).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그분 만이 사람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자인 것은,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 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Robert Hawker 가 바로 보았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여호와에 대하여 어떤 것을 그분의 삼중 성품의 위격들 안에서, 그러나 아들의 즉각적인 행위로 그분의 중보의 성품,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사람 안으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태어나는 것을 알고, 그로써 그분을 계시한다는 것을 알기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아들의 이 자원한 행위로, 또 이렇게 그분 자신을 낮춤으로서, 인간이란 매개체를 통하여 이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것을 행하셨으며, 그것은 본성의 연합이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위로, 그분은 신격에 새로운 영광을 가져 오셨고, 그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들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의 지복을 열어 준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찬양 받으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사람, 이 위대한 구원자는 바로 우리가 필요한 구원자시다. 우리 혼을 확신을 갖고 안식하자, 그렇다 우리 삶을 안식하자, 그렇다 모든 것을 그분께 안식하자. 그분은 “구원하시기에 전능한” 분이다. 우리 죄처럼 많고 무거운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모두 짊어지실 수 있다. 우리 구원의 일처럼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셨다면, 우리는 실로 절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원자와 함께, 우리는 담대하게 시작하게 되고, 소망을 갖고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사망과 심판을 기다린다. 우리 도움은 전능하신 분 위에 놓여진다 (시편 89:19).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라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큰 축복 받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우리는 우리 것인 그 큰 축복에 대하여 상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듣고 아는 복된 특권보다 이 땅 위에 있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더 큰 특권은 없다. —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23-24 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땅 위에 그 말씀의 완전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나는 이 복음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음을 확신한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지식과 이 시대의 그것들 간의 차이를 우리는 간단히 생각할 수 없다.

의문의 여지 없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믿음으로 오실 구원자를 바라고 기대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으며 이르게 될 생명을 믿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높여 지심으로 인한 구속의 성취가 이전에 닫혀 있었던 성경의 수백의 말씀을 열었으며, 이전에 결코 풀리지 않았던 의심스러운 수십 가지 점들을 분명하게 하였다. 바울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기록한 것과 같다 (히브리서 9:8).

그러나 이 말씀에서 배울 것이 단지 이전 세대를 넘어서서 이 세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유익 이상의 것이 있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을 특권, 경배의 장소를 갖는 것, 주기적으로 세워진 충성된 복음 사역, 그분의 백성의 복된 교제의 특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죄인에게도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 — 가장 큰 저주는 그분이 이 큰 특권을 우리에게서 가져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빛의 심오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복음을 멸망하지 않을 혼들에게 알게 하여야 하는 우리의 큰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복음의 큰 특권과 유익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누가복음 12:48).

67 장. 선한 사마리아인—누가복음 10:25-37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은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

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25-37).

우리 주께서 복음을 예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셨던 우화로, 그것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사실적인 이야기인지, 단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는 들은 것이 없다. 그분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분의 전도에 엮으신 모든 것처럼, 우리 구원자에 의해 여기서 주어진 이야기는 복음의 영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려 의도되었다.

비유의 목적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의 계획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의 철저한 불가능과 오직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분 자신의 영광스럽고 달콤한 축복하심과 효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이야기의 의도임은 분명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종교적인 헌신으로 그 자신의 양심 속에서 스스로 의롭기를 소망했던 사람인 타락하고 독선적인 종교주의 자에 의해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그 교만한 벌레는, 충성심의 속임수로, 주 예수를 “유혹하였다” (혼란스럽게 하려 시도하였다). 그의 유일한 의도는 그의 뒷에 주 예수를 걸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원자는 사람의 분노가 그분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복음을 가르칠 기회를 잡았다 (시편 76:10).

우리는 주 예수께서 이 교만한 율법사를 그의 악을 그에게 보여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에게 확신시키고, 그를 침묵하게 하려 율법에 보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계획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19-20).

죄인의 마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율법은 우리 몽학선생이며,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하게 하고 언제나 그리스도께 데려가며, 그로써 우리는 그분 안의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24).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포로 상태의 멍에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죽어 있다 (로마서 7:4; 갈라디아서 2:19).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아주 자주 그리고 너무도 많은 방법으로 율법으로부터 믿는 자의 자유에 대한 오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 복된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받게 된다 (로마서 6:14,15; 10:4; 갈라디아서 5:1-4, 18). 율법은 의 (공의로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디모데전서 1:5-11). 따라서, 이 교만한 율법사가 우리 주 예수를 덮에 걸리게 하려 했을 때, 주께서 그를 그 자신의 양심 속에서 그를 정죄하는 율법으로 보내셨다.

율법사와 율법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6-27 절).

여기서 “율법사”라는 말은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사의 종류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 율법사는 절대 가장 나쁜 종류의 율법사였다. 그는 구급차를 뒤쫓는 것보다 더 나쁘거나 텔레비전 광고에서 보는 “나를 불러주세요. 소송합시다.”라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보다 더 나쁘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율법사, 서기관이었다. 그는 종교와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활동에 절대적으로 헌신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만약 그가 그의 생각을 그것에 둔다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열납 받을 가치가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서기관이고, 율법 종교의 진흥자였기 때문에 “율법사”라고 불린다.

전술한 것처럼, 학식 있고 종교적 질문을 제기하는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이 율법에 거스르는 어떤 것을 말하도록 그는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그분이 미끄러지는 것을 잡으려 하였고, 따라서 성경에 대한 주의 무지를 보이려 하였다. 그는 영광의 주의 평판을 떨어뜨리기를 원했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는 아주 신실한 음성으로 질문을 하였다. —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마가복음 10:17 에서 부자 청년 관원이 제기한 것과 동일한 질문이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둘 다 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법의 행위로, 그들 자신의 손으로 행한 것으로 영생을 찾았다.

주께서 자신의 질문으로 그에게 대답하셨다. —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게 하기를 구하려 그 사람은 왔으며, 따라서 주께서 그를 율법으로 돌려 보내셨는데, 율법으로 의를 구하는 자들은 간단히 율법을 깨닫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2:19-21; 3:10; 4:21).

주 예수께서 그에게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물으셨을 때, 이 종교적인 완벽한 사람은 그분께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였다. —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좋지 않은 경우의 말을 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처럼, 그는 모든 것을 위한 구절을 말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성구함 속에 운반하던 그런 성경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은 가톨릭 신자들이 행운을 빌면서 목주를 비비는 것처럼, 그것을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으로 암송하였다. 이 가련하고, 현혹된 혼, 이 공허한 마음에 텅빈 머리의 종교주의자는 시내 산에서 유대인들처럼, 그가 이것을 행했고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으로 그것을 계속 할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였다.

이를 행하라

그리고 28 절에서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다. — 이 사람은 율법의 문자는 깨달았으나, 영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이 가련한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실로 거의 아무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신다: — 영생은 율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순종함이 없이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으려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며, 열납의 확신을 받으며, 어떤 방법으로나 어떤 정도에까지 의롭게 되려)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계속 지켜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사랑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 (당신의 최악이고, 가장 무자비한 대적)을 완전히 사랑해야 한다. 다른 말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으려 하는 것은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다: — 죄로 충만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

주의 선포는 바로 이것이다: — 의는 율법 순종이나, 율법적 행위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그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 시도하였다. 그는 당혹스러웠고 자신을 덮어야 했다. —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29 절).

만약 단지 그가 율법이 그 하는 것보다 덜 말하고 요구하게 할 수 있었다라면, 그는 그것에서 위로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거나, 적어도 사람들이 그가 그 안에서 위를 찾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그분이 방금 인용한 것을 무시한다면, 그분은, “누가 네 이웃이냐?” 라고 말한다. 그랬을 법 한 것처럼 보인다. 나는 내 이웃을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 아마 그는, “나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혈육과 내 친구들과 내 나라를 사랑한다.” 고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쉽다. 그들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이웃,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요구하신 자들,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요구하신 자들은 우리의 가족도 친구들도 아니라, 우리의 가장 최악의 적들이다.

선한 사마리아 인에 대한 이 이야기의 전체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께서 정확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분의 택정한 자를 대신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처럼 그의 이웃을 사랑하므로 여기 내려 오셨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인의 이야기가 선포하는 것이다 (로마서 5:6-8).

어떤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 절).

기억하라, 우리 주의 여기서 계획은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 갈망하였던 이 종교적 율법주의자에게 답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형제 사랑으로 공과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서 그것을 하신다.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독선적인 율법주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네가 옳은 과정에 있다. 그대로 따라가면 단지 괜찮아 질 것을 보라.” 우리 주의 여기서 계획은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에게 그의 소망의 철저한 어리석음을 보여주며, 그의 거짓의 피난처를 허무시려는 것이다. 우리 주의 계획은 이 사람과 우리에게 대속자에 의한 구원의 진정한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어떤 사람”은 원래 상태에서 내려 왔던, 강도들 한 가운데 넘어진, 그 옷이 벗겨졌고, 상처 입었고, 절반이 죽은 채 버려진, 우리 조상 아담이다.

이것은 그 분명한 대표자 아담 안에서 우리 인류의 죄와 타락을 묘사한다. 이 사람이 높은 곳에서 있는 예루살렘에서 낮은 곳에 있었던 여리고로 내려 왔던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내려 갔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내려갔는지, 우리가 얼마나 멀리 타락했는지, 아담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사람도 알 수 없었고, 홀로 선포한다! —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낸 것이니라." (전도서 7:29).

아담은 기쁜 상태에서 비극적인 상태로, 깨끗한 상태에서 기어 다니는 비열한 상태로, 의로운 상태에서 죄의 상태로 떨어졌다.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열납 되고 교제하는 상태에서 분리되고 비통한 상태로, 축복 받은 상태에서 저주 받은 상태로, 또 평강 (예루살렘)의 상태에서 저주 (여리고)의 상태로 떨어졌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대적의 상태로, 경배의 상태에서 음란한 상태로, 그리고 지식과 변영의 상태에서 무지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난의 상태로 떨어졌다.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 중인 사람은 강도들 가운데 떨어졌다. 우리도 그랬다! 우리 창조주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였을 때, 우리 인류는 두 강도와 죄와 사탄의 손에 떨어졌다. 얼마나 그들이 우리를 강도 짓 하였는가! 그 강도들은 큰 존귀와 우리가 피조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앗아갔다. 그들은 큰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우리에게서 앗아갔다! 이 강도들은 우리를 철저한 타락과 영적 빈곤의 상태에 버려 두었다. 그들은 의의 옷을 벗김으로 우리를 벌거벗겨 놓았다. — 타락한 사람은 벌거벗은 피조물이며, 그 자신을 덮을 것이 아무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진노에 노출된 채 서 있다. 우리는 의를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이,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할 능력도 없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의에 철저하게 궁핍한 사람이다!

그 강도들이 우리의 옷을 벗기고 우리를 털어갔으므로, 죄와 사탄이 우리를 상처 입혔고 전 인류를 반쯤 죽게 버려 두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완전한 타락과 영적 사망을 부인하는 어떤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그 정확한 그림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적으로 사망하였다.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판결 아래 있다. 그러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판결이다. 이사야 1 장에서 묘사된 나라처럼, 우리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백성이지만, 주권적인 은혜의 고약으로 위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와 타박상으로 덮여 있으며, 헌데가 끓고 있다. 우리 인류의 질병은 하나님의 아들 말고는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질병이다.

제사장과 레위인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1-32 절).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전체, 도덕법과 의식법을 대표하며,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거나, 심지어 돕는데 있어서 율법의 철저한 무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 종교 전체를 대표한다. — 그들은 크고, 분명하고 우리와 같은 말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8:1-4; 히브리서 10:1-9).

누가복음 10:31-32 에서 우리 주에 의해 그려진 그림을 보라. 이 제사장이 기 가련한 철면피를 보았을 때, 그는 다른 편으로 지나갔다. 그가 불쌍한 혼, 벌거벗고 피 흘리는 상황에 있는 자를 보았을 때, 그는 길을 가로 질러 갔고, 그런 불결하고 혐오스런 것을 접촉함으로써 더럽혀지지 않으려 했다. 독선과 율법주의 종교처럼 사람의 마음을 모질게 하는 것은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종교주의 보다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더 쓸모 없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보다 더 잔혹한 것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더 잔혹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또 이와 같은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 그 장면을 그려 볼 수 있겠는가? 이 훌륭한 레위인은 다가와서, 피 범벅이 되어 나뒀굴며 도랑에 누워 있는 이 불쌍한 피조물을 바라보고, 그의 머리를 흔들다. 그가 길을 가로지를 때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말을 거의 들을 수 있다. 그는 머리를 흔들며 아주 겸허하고, 눈물 섞인 음성으로, “거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를 돕고, 위로하고, 지원하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길을 가로 질렀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이 불쌍한 혼을 향하여 아주 조금의 마음의 움직임도 없이 지나갔다. 그들은 돕지 않았다. 그들은 도울 수 없었다. 그들은 어떤 도움도 가져다 주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도움의 방향으로 그 가련한 사람을 향하게 조차도 안했다. 그들이 그를 발견한 그대로 버려 두었다. 그들이 그의 길을 지나갔기 때문에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

어떤 생각이 막 내 생각을 가로질러 번뜩였고 내 마음 속에 타들어 갔다. — 아 나의 하나님, 어떤 궁핍한 혼과 접촉하려 오도록 나를 허락하지 마시고 그가 이전 보다 더 나은 형편에 두지 마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타락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율법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깨닫도록 하라. 율법은 굶힐줄 모른다. 율법에는 긍휼이란 없다. 율법은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감경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다. 율법은 우리 상태의 약한 점에 대하여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 율법은 나이와 위치와 지식과 환경과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율법은 단지 완전한 것 아니면 죽음을 요구한다. 율법은 그것이 우리를 발견한 곳에 내버려 둔다. 율법은 시내 산에 있었을 때보다 이 복음 시대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더 온건하지 않다. 율법은 아주 신실하지만 불완전한 순종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 율법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거룩을 요구한다.

율법은 비통함과 회개와 두려움의 외침에 대하여 귀머거리 이다.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한다. 율법은 구원도, 소망도, 치료를 누구에게든 제공하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별거벗음, 우리의 사악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유죄, 우리의 멸망을 보여 주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율법이 하는 모든 것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아무 것도 아니라 사망의 원조이다. 그것은 위협하지, 결코 위로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죄하지, 결코 소망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절망을 가져오지, 결코 평강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것은 상처를 입히지, 결코 치료하지 않는다. 율법은 우리에게 내려 올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 율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정죄와 죽임이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율법에 의해 살거나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것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정죄나 심판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율법으로 감화하거나 동기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하지만, 율법은 만족을 요구한다. 율법은 성취되어야 한다.

도움은 다른 것으로부터 얻어져야 한다. 낮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기력한 파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와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참 친구가 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친구, 우리에게서 아무 것도 바라지 않는 친구인 그 누군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친구이다! 누가복음 10:33-35 를 보라.

어떤 사마리아 인

“어떤 사마리아 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 올 때에 갚으리라.”

이 선한 사마리아 인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니, 우리 구원자는 사마리아 인이 아니라,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사마리아 인이라고 불렀고 (요한복음 8:48) 그분을 그렇게 불렀으며, 마치 그들에 의해 철저히 증오 받고 멸시 받은 자처럼 불렀다. 우리 주께서 그 호칭을 택하신다. 그분은 이 세상에 그분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의 타락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오셨고, 그분의 공공연한 대적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로마서 5:6-8).

누가복음 10 장에 있는 이 세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배워라. 그분은 여행을 하셨다. 그것은 우리 구원자의 성육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과 이 세상에서 체재를 상징한다 (고린도후서 8:9).

그분은 우리가 있던 곳에 오셨다. 그분 자신과 우리 본성의 연합 안으로 영광의 주께서 취하셨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의 대속과 죄 속량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셨다. 그분은 천영적으로 우리의 어떠하심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고린도후서 5:21).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저주 받은 백성을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그로써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생명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13-14).

그분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보셨고,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선택 받은 신부와 영원 전부터의 동역자로 우리를 기뻐하셨다 (시편 21:1-2; 45-13-14; 잠언 8:22, 30-31; 예레미야 31:3). 그분의 사랑과 동정은 동일하게, 변함 없이 온전하게 시간의 모든 세대를 걸쳐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남아 있다!

사랑의 약속된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 첫째,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있던 곳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에게로 가셨다.” 우리는 그분께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았을 때, 주권적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도움을 제시하려고 오시지 않았다. — 그분은 돕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처, 마음과 양심의 상처들을 싸매셨다. 그분은 성령(은혜)의 기름과 그분의 피의 포도주를 부으심으로 우리 상처를 치료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 자신의 짐승에 두셨다. 나는 이 짐승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세대를 통하여 그분이 의기양양하게 타는 그분의 거룩한 인성의 적마를 가리키거나 (스가랴 1:8), 그분의 복음의 백마를 가리킬 것이다.

다음으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여관,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셨으며, 거기서 그분이 우리의 지속적인 보살핌을 보신다. 그 여관의 주인은 충성된 목자, 복음 전도자, 지식과 깨달음으로 주의 백성을 먹이는 자이다 (예레미야 3:15). 두 데나리온이 율법 아래 구속의 대가이다 — 반 세겔 (출애굽기 30:11-16). 두 가지 사항이 우리 혼의 구속을 위하여 요구 된다. 그분의 피와 그분의 의이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살피기 위하여 그분의 종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종들에게 그분의 백성을 보살피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되었든지, 다시 올 때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불가능한 명령

이제, 36-37 절을 보라. 여기서 우리 주께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단으신다. 그분은 불가능한 명령을 발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정당화 하려 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해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모든 것이다. 이웃이 되라, 선한 사마리아 인이 되라. 당신의 가장 무자비한 대적들을 그들 모두를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모든 빛을 지불하라. 그들을 사망에서 일으키라. 그들을 저주로부터 구하라. 그들을 영광으로 데려가라. 만약 당신 자신을 의롭게 하려 한다면,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흠이 없이 만족시켜야 한다. 죄인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안의 믿음으로서 존재 한다 (로마서 3:19-26, 31; 5:12-21).

68 장. “한 가지 필요한 것”—누가복음 10:38-42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아래 앉아 그의 말씀들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38-42).

이 다섯 절의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교훈적인 것들 중 하나를 본다. 그것은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서술한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 키로 떨어진, 감람산의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오늘날 그곳은 엘아자리에(El-‘Azariyeh)라고 불리며, 아마도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었고, 죽었다가, 주 예수의 말씀으로 무덤에서 살아났던 곳이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베다니에 왔을 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그들 자신이 참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집을 주 예수와 그분의 종들에게 열었으며 따뜻한 환대로 그들을 맞이하였다 (히브리서 13:1-2). 분명히, 우리 구원자는 이 사랑스런 가족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 특정한 방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 예수를 포함하는, 성령이 결코 잊혀지지 않기를 의도했던 이야기에서 배우게 되는 공과가 있기 때문에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다. 요한복음 11 장과 12 장에 기록되어 있던 일들과 이 사건을 연결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가정의 속생명의 매우 교훈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고난에서 예외 없음

첫째,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고난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자. 믿는 가정들이 다른 가정들처럼 고난을 당한다. 우리는 물론 은혜가 혈통 속에 흐르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행보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전체 가정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분이 구원 받은 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11-13).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죄인들에게 오며 (로마서 9:16),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고 (갈라디아서 3:13-14), 그 영으로 태어난다 (시편 65:4).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외였다. 여기 한 지붕 아래 사는 세 사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 어떤 축복인가! 하지만, 베다니에 있는 이 거룩한 가족은 고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은혜는 고난에서 예외가 없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스도 안의 믿음은 골치 아픈 것에서 예외가 없다. 구원은 역경에서 예외가 없다.

그들이 아직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로 고난 받았다. 마르다는 흥분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말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을 말했고, 하지 않았기를 원했던 것을 했다. 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곳인, 죄로 저주를 받은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질병과 사별과 사망으로 고난을 받았다. 우리는 때때로, “왜 접니까? 왜 내 것입니까?”라고 묻는다. 우리는 오히려, “왜 제가 아십니까? 왜 제 것이 아십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헌신 되었기 때문에 박해로 고난을 받았다. 마리아가 그녀의 향유로 구원자에게 기름 부었을 때, 유다는 그녀를 조롱했다 (요한복음 12:3-5). 나사로가 주 예수와 함께 식탁에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다 (요한복음 12:10).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믿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달콤한 교제 가운데 행보 하였고, 그분을 섬겼으며,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그분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다.

은혜는 고난에서 우리를 예외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 경건은 온전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케 하셨고 그로써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백성이 자랑과 자기 확신과 독선에 대한 어떤 근거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

개인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우리는 이 사랑스런 가족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개인들이라는 사실의 분명한 예를 본다. 순수한 믿는 자들은 종종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다르던가! 둘 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이었다. 둘 다 믿는 자들이었다. 둘 다 하나님께 태어났고, 은혜로 변화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다. 거의 아무도 그분께 존귀를 드리지 않았을 때, 둘 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겼다. 둘 다 구원자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둘 다 구원자에 의해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다른 기질과 성품이었다.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충동적이며, 강한 의지에 근면한 여자였다. 그녀는 사물들을 강하게 느꼈고 그녀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진실로 헌신한 여자였다. 그녀는 많은 일로 분주하였지만, 그녀는 섬기고 있었다! — 마리아는 조용하고, 숙고하는 여자였고, 마르다보다 더 쉬웠지만, 그녀의 확신에 있어서 결코 덜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을 깊이 느꼈지만, 그녀가 느낀 것보다 훨씬 적게 말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 순수하게 헌신한 여자였다.

마르다는, 주 예수께서 그녀의 집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보고 기뻐했으며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후한 방법으로 그분의 대접을 위하여 즉시 준비하기 시작했다. — 마리아도 주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은혜가 그 둘 모두 안에서 의를 통하여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들 각자는 다른 방면으로 그리고 다른 때에 은혜의 결과를 보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 단지 우리 기질과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회심하지 않았다고 상상해서는 결코 안된다. (얼마나 어리석게 교만한가!) 하나님의 양 떼는 모두 그들 자신만의 기묘한 습성을 갖고 있다. 주의 정원의 나무들은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 모두 의의 나무들이다. 모두 삼나무들이다. 그러나 모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모든 참 믿는 자들은 원칙적인 것들에 있어서 닮았다. 모두 그들의 죄를 고백한다. 모두 주 예수만을 그들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모든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을 찾는다 (고린도전서 1:30). 하지만, 많고 많은 방법들 가운데 믿는 자들은 다르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안에서 우리는 마르다이고 마리아를 갖고 있다. 그 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속적 염려의 영향

셋째, 나는 성령께서 누가를 감동케 하여 베다니에서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세속적 염려가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의 숨통을 조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확신한다. 이 세상의 염려들은 우리의 주의를 율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와 우리의 구속자에 대한 경배와 섬김 사이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우리 혼에 덮이 될 수 있다. — 아무 것도 이 세상의 염려처럼 우리 혼에 위협한 것은 없다.

40 절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한다. 그녀가 존경하는 손님을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대접을 드리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위한 그녀의 염려가 그녀를 엄청난 압박 아래 있게 하였다 (그녀에게는 저녁 시간에 들이닥친 15에서 16명 혹은 그 이상의 기대하지 않았던 손님들이 있었다!)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그녀의 지나친 열심이 그녀로 하여금 짧은 동안에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잊게 하였다. 그녀는 정신이 나갔었다. 잠시후 그녀의 양심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끔찍하게 이기적이고 죄로 충만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구원자의 말씀을 즐겁게 들으며 앉아 있는 동안, 그녀가 식탁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직접 흘린 것들 모두를 치우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약간 짜증이 났었다. — 그녀의 혼 안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내부의 전쟁

마르다의 통렬한 양심과 그녀의 수고의 압박이 연합되었고, 옛 사람 아담은 공개적인 불평을 터뜨렸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얼마나 슬픈지! 마르다는 잠깐 동안 그녀가 누구였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는지를 잊었다. 그녀는 깊은 인상을 남겼을 심각한 비난과 비난하는 당혹스런 말을 스스로 하였다. —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은 마르다가 그녀와 그녀의 주 사이에 있을 저녁 준비의 순수한 가정 일을 허용 했으므로 일어났다. 그녀의 동생에 대한 분노는 훨씬 더 나쁜 것으로 악화되었다. — 그녀의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다!

마르다의 잘못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 없는 경고가 되어야 한다.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세상의 염려를 늘 조심하자 (마태복음 13:22). 그녀는 주 예수를 위하여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일들을 과도하게 하였다. 그녀는 그 일들로 소진되었다. 그 일들은 중요하였지만, 그녀는 그 일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이 세상의 염려가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방해할 때, 그 염려들은 우리 혼에 침체를 가져온다.

혼을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것은 공개적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명백한 위반이 아니다. 아니라고 하기엔 훨씬 더 자주, 그것은 그들 스스로 안에 완전하게 합법적인 것들에 주어지는 지나친 주목이다. 아주 느슨한 손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늘 붙잡아야 하고, 그리스도 말고 우리 마음 속에 첫 번째 위치에 두는 어떤 것도 결코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6:33; 골로새서 3:1-3). 모든 일시적인 것들은 우리 생각 속에 두개골과 대퇴골에 독소로서 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적당히 사용된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지나치게 소중히 한다면, 그것들은 명백한 저주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그분과의 교제를 주고 우리가 산 것은 매우 비싼 가격으로 산 것이다! — “탐심을 경계하라!” J. C. Ryle 이 바로 보았다. “우리 안에 불 위에 있는 작은 땅은 곧 불이 태워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로마서 14:4).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소유도 아니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또 그들은 나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그분의 소유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를 분명히 바란다. 그들은 우리에게 의해서 심판 받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의해서 통제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된다. 신약 성경 안에서 매번 누구든 우리 주께 와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했을 것과 하지 않았을 것에 대하여 그분께 불평할 때마다, 그분은 그들을 날카롭게 질책하셨다 (누가복음 9:49-50; 요한복음 21:21-22).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는 당신이나 내가 상관할 일이 절대 아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않든 지는 당신이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이 주든지, 아니면 주지 않든지는 당신이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소유만을 관심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소유하셨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관심하면서 많은 초과 근무 시간으로 정규직 일을 갖고 있다.

비록 마르다가 크게 잘못 하였어도, 그녀는 순수한 믿는 자였다. 세 가지 사항이 그리스도 안의 그녀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순수함을 보여 준다. (1.) 그녀는 사랑의 행위로서 겸손하게 그분의 질책을 받았다. (2.)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가장 큰 고백의 두 가지는 마르다의 마음과 입에서 나왔다 (요한복음 11:21-22, 27). 그리고 (3.) 그녀는 동일한 능력 가운데, 그러나 더 나은 영으로 주를 섬기기를 계속하였다 (요한복음 12:1-2). — 악한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을 불신자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악행 때문에 자신을 타락한 혼으로 판단하지 말라 (요한일서 2:1-2).

한 가지 필요한 것

넷째,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에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주목을 끌도록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만 외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건강과 번영, 재산과 능력, 지위와 존경은 모두 그들의 위치에서 좋은 것들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많은 수가 결코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쁘게 살고, 평화롭게 죽으며, 마침내 영광 가운데 들어 간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싸우는 많은 것들은 심판의 날에 뜻하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함을 입증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큰 짐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였다. 오직 은혜만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부요를 받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혼을 영원히 부요하게 할 부를 받았다. 오직 구원만 필요하다. 만약 내가 구원 받는다면, 다른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타락한다면, 다른 아무 것도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다른 아무 것도 당신에게 어떤 선한 것을 할 수 없다.

그분의 발에

지혜롭게 되고 주의 발에 마리아와 함께 하라. 이곳이 긍휼과 은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와 구원의 자리이다 (마가복음 5:22; 7:25; 누가복음 8:35). 그분의 발 아래가 존귀와 숭배와 경배의 장소이다 (에스더 8:3; 계시록 1:17). 이곳이 사의와 감사와 찬양의 장소이다 (열왕기하 4:37; 누가복음 17:16; 마가복음 14:3). 구원자의 발 아래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곳이며, 이곳이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25:24; 에스더 8:3; 요한복음 11:32). 그분의 발 아래가 선택되어야 할 곳인데 이곳이 가르침과 배움과 제자직분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2:3). 여기에서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도를 배운다. 이곳은 겸손과 행복과 순종 (룻기 3:8-14), 성별과 헌신과 사랑 (누가복음 7:36-50)의 장소이다.

되어야 할 선택

만약 우리가 이 한 가지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거기서 유익을 얻으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42 절을 다시 읽어보라. —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마음과 한 눈을 갖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르도록 하고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행보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 계획 되었으며, 우리 혼의 일을 우리의 첫 번째 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어느 정도 거의 생각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4:18-5:11).

그리스도는 필요한 한 가지이다. 그분은 믿는 자의 분깃이다 (예레미야애가 3:25).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결코 앗아 가서는 안되는 분깃이다 (시편 89:28; 요한복음 10:28; 로마서 8:38-39). 그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스도는 선택 되어야 할 분깃이다. 그분은 하나의 비싼 진주이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얼마인지 없고 가격이 없는 이 진주를 사라!

69 장.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누가복음 11:1-4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함소서 하라.” (누가복음 11:1-4).

물을 필요 없이, 하늘로 난 모든 혼은 기도한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대한 우리 마음의 외침이며, 새로 난 자녀의 호흡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의 마음의 혈떡임이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속적인 의지이다. 하지만, 우리 본문에서 누가가 언급하는 이름 없는 제자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부른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속지 않는 한, 내 마음의 외침이다. — “주여, 내게 기도를 가르치옵소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의 단락들 가운데 이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지한 것을 자주 인용하고 그에 대한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어떤 아이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것을 암송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일찍이 외우고 자주 암송한다. 때때로, 그 말씀은 노래로도 불린다. 하지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여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두 경우에만 구두로 어떻게 기도하는 지 가르치셨으며, 이곳과 마태복음 6 장이다. 누가는 마태가 말한 것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지 않다. 이들은 두 가지 구별된 경우이다. 마태복음 6 장은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주께서 하신 설교의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는 유대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곳에서 그 가르침은 그분의 설교의 부분이었다. 여기서 그분의 가르침은, 구원자 자신께서 기도에 참여하고 난 후,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요청에 답하신 것이다.

“제자 중 하나가”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물었다. 2-13 절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대답을 준다. 이 공과에서, 우리는 2-4 절에 있는 우리 주의 가르침에 주목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세 구절에 기록된 것의 분깃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혼에 영원히 유익할 것이다.

이 짧고 단순한 글은 영적 보배의 광산이다. 그것을 충분히 해석하기란 불가능하다. 많은 책들이 단지 이 짧은 구절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 깊은 광산에 아직 표면으로 나오지 않은 보화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있다. 내가 가장 비싼 금강석이나 가장 큰 금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척 하지 않겠다. 내가 캐냈을 때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내가 아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 주고자 한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가르쳤던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함소서 하라.”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이다. 주의 기도는 요한복음 17 장에서 발견된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고, 기도하지 마셔야 했으며, 기도하실 수도 없었다! 그분은 아직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지 않았다. 그분은 용서받을 죄가 없으셨다.

이것은 외우거나 암송되어야 할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에 대한 원형이고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르는 것을 아시므로 우리의 약점을 도우신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와 어떻게 그것을 기도할지를 가르치신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기도로 암송하는 제자를 찾아서는 안 된다. 사실, 그들에게 한 다른 유일한 참조는 마태복음 6 장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6 장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주시기를 피하셨다. 첫 번째 세 가지 간청은 동일하다. 나머지는, 그 의미는 동일하지만, 아주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6 장에서 보이는 그 찬송이 여기서는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 몇 안 되는 짧은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모든 방면을 가르치신다. 우리 기도는 단순하고, 진심되고, 영적이며, 짧으며, 가식과 형식과 과시 같은 모든 것을 피하여야 한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마음의 큰 갈망과 필요를 그 갈망들을 이루어주실 것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은혜로 그 필요들을 채워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단지 펼쳐 놓는다.

믿는 자의 마음의 큰 갈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큰 필요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가운데 기다리게 하는 그것들은 무엇인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가를 가르치시는 것을 이 몇 구절들을 한 행씩 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성도들이나 천사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께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신 분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다 (사도행전 17:28). 그분은 창조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합당하다. — 우리는 결코 누구에 의해서도 기도하는 것을 금하거나, 기도를 단념하게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뚜렷하고 특별한 의미 안에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아버지이다 (골로새서 1:20-22). 우리는 양자 됨으로, 택정함으로, 거듭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옳으며, 기도 가운데 그분께 그렇게 나오는 것은 옳다 (히브리서 4:16). 우리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로서 기도 드리는 권리와 특권과 믿음의 담대한 자유와 확신을 갖고 있다.

비밀하게, 당신의 벽장 속에서 혹은 당신의 가족과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리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 받고 인도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서로 간의 기도처럼, 모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경배 드리고 기도하므로 마음을 연합하게 하는 것은 없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분의 모든 속성을 나타낸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 그분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 예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기도한다 (요한복음 12:28).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셨다 (계시록 4:11; 잠언 16:4). 모든 섭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한다 (로마서 11:36). 죄인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이다 (시편 106:8). 그의 죽으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요한복음 12:28).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찬송과 영화롭게 됨을 받으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모든 믿는 자의 마음 속 갈망이다 (시편 35:27; 40:16; 70:4; 고린도전서 10:31; 베드로전서 4:11).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소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이며 그것이어야 한다. 우리 두 번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임을 구한다 (시편 122:6-7).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다만, “주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가 충만하도록 기도한다 (로마서 11:26). 그리고 영광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도한다 (베드로후서 3:13). 만약 우리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양 떼와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택정한 자와 그분의 교회를 위함이라면, 언제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언제나 기도하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하시도록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의 뜻에 우리 뜻을 자원하여 맡기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참된 기쁨은,” J. C. Ryle 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행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주는 모든 것에 신실하고 진심으로 행복할 것을 가르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언제나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시므로 진정으로 갈망하신다 (에베소서 1:11).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으로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로마서 8:26).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두렵건대, 야고보서 4:3 에서 야고보가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다. —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의 선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의해서 행해지는 사악함을 그분이 지배하심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하여 우리의 언제나 은혜로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든 것 가운데, 참 기도에 대한 열려는 모두 영적인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더 크고, 보다 중요한 문제들에 다른 모든 문제들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얼마나 교훈적인 말씀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공급을 구하여야 한다. — “주시옵소서.” 우리는 만약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먹게 된다는 것을 알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로서 우리의 매일 양식을 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황금이 아니라 “양식,” 단지 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식에 대한 우리의 “매일”의 공급 이상으로 구하지 말 것을 배운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혹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혼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매일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여야 한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는 그분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 세상과 관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요구한다. 우리 기도는 언제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30:8).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피를 통한 사함을 구할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는 계속하여, 세상 제사장의 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귀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사함을 구하면서, 계속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여야 한다 (요한일서 1:9).

우리 죄는 여기서 우리가 초래하였던 빛으로 비유된다. 우리 죄는 우리에게 의와 만족 모두를 요구하시는 분인 하나님께 빛이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 빛을 지불하셨다. 그분은 우리 대표자로서 그분의 순종으로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의를 가져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분 자신의 피로인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량이다! 삼일 여호와와는 그리스도 우리 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빛을 대가 없이 용서하신다.

하지만, 그 역사는 세상의 기초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고 (히브리서 4:3) 갈보리에서 그 계획의 실행 가운데 완성하셨지만 (요한복음 19:30), 우리가 계속하여 죄를 지으므로 계속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 사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무한하고, 무궁한 중보와 효험으로 계속하여 사함을 받는다 (요한일서 2:1-2).

물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게 되었고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 그러나 모든 우리 은혜의 새로운 공급을 위하여 매일 적용하는 것은 참 믿음의 생명이다. 비록 완전한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원하며,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죄와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 그분의 귀한 아들 안에 있는 우리 믿음 모두를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그것을 우리가 외치는 것을 듣기를 기뻐하신다. 비록 씻음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 우리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3:10).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편들어 어떤 것도 변론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대가 없고, 충만하고, 은혜로운 긍휼을 구한다.

우리는 결코 이 문장의 다음 행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께서 부연하여 설명하시는 이 단락에 있는 유일한 문장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 (마태복음 6:14-15). 우리 주께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용서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만약 우리가 은혜롭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의 사함이 서로를 용서하는 죄인들에게 조건이 됨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혼 안에서 체험된 은혜가 구원 받은 죄인들을 서로에게 은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되는 것 가운데 큰 축복이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해 다친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을 용서함에 있어서 우리 위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닮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4:32-5:2). 이 형제 사랑이 없이 우리 기도는 소음, 공허한 마음의 공허한 메이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유혹에 걸리기 쉽다. 우리가 육신의 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욕에 빠져 끌려가게 되며, 우리 자신의 본성에 의해 끌려가며, 사탄의 뱀에 의해 유혹되고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는 너희의 약함과 사탄의 힘을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너희는 너희의 무기력함을 늘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너희는 도움을 바라고 나를 늘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신다. 기도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에서 흠어져 나오는 의식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을 피하려 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유혹의 위험에서 지켜주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을 구한다. 우리의 발길을 명하시는 분께서 우리 발걸음을 유혹에서 멀어지도록 명령하시기를!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함소서”

J. C. Ryle 은, “우리는 악이라는 말,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 몸이나 혼 안에서, 특별히 악의 큰 창시자인 마귀의 모든 무기 아래 포함된다. 우리는 타락 이후 언제나 세상이 ‘한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요한일서 5:19)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우리는 그 악이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대한 것이고, 우리와 가까이 있으며, 모든 방면에 있고, 그로써 우리가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다. 우리는 힘을 위하여 강한 자에게 의뢰한다. 우리는 보호를 위하여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 간단히 해서, 우리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15)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구원자께서 직접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그침 없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악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에서, 우리를 멸하기를 구하는 악한 자에게서, 죄의 결과인 모든 악에서 구하시기를 언제나 기도하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유다서 24-25).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0:13). 그분이 사망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악에서 구원하고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4:1-3; 이사야 57:1-2).
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가운데,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며, 그 때는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흠 없는 완전함과 아름다움 가운데 제시할 때이다 (에베소서 5:25-27; 유다서 24-25).

70 장. 뻔뻔한 자포자기—누가복음 11:5-13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찌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5-13).

그 때는 아주 늦은 한밤중이다. 모든 불은 꺼져 있다. 당신이 침대에 있다. 당신의 자녀들 모두 깊이 잠들었다.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친구야! 날 도와줄 수 있어? 빵이 좀 필요한데! 내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집에 그에게 줄 음식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하나도 없어!” 환영 않은, 뻔뻔한 침입자를 무시하도록 하라. 그러나 그는 다시 문을 두드린다. “친구여! 도움이 필요해. 빵이 필요해!” 여전히 그를 무시한다. 그래서 그가 다시 두드린다. “친구여, 친구여! 약간의 빵이 필요해!” 마침내, 당신은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고 하면서, 문으로 간다.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난 목소리로, 냉담한 음성으로, “가게. 날 내버려 둬. 우리가 모두 자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너를 도울 수 없어.”

그 말로 그 사람을 한동안 침묵하게 한다. 그는 현관 입구에서 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서 간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갈 수 없었다. 감히 집으로 가지 못한다. 그는 아직 그를 찾아갔던 그의 친구 앞에 놓을 어떤 빵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왔다. 그는 문을 다시 이전 보다 더 큰 소리로 두드린다. “친구여! 친구여! 친구여!” 그는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웃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문을 열기 시작할 때까지 외친다. 그의 귀를 문에 댄다. 그는 당신이 거기 있는지 안다. 마침내, 그는 당신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그는 안에서 불 빛이 나오는 것을 본다. 마침내, 문을 열고 당신은 그가 쓸 수 있을 정도의 빵을 모두 그에게 넘겨준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그를 빨리 없애고 침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의 친구를 만족시킬 약간의 빵이었다. — 그것이 누가복음 11:5-13 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이야기다.

상황

이 비유를 그 상황 안에서 읽도록 확실히 하라. 만약 우리가 아주 나쁜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마치 버릇 없는 아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그의 부모를 졸라서 자기가 원하는 얻거나, 잔소리 하는 아내가 남편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하는 잔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 같은 것들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가? — 아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충분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하게 믿는다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만약 우리가 단지 포기하기를 거절한다면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여기서 가르치고 계시는가? — 아니다.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이 그의 죽어가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아주 진정으로 기도 하였던 자를 곧 장사 지내야 하는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여전히 불신 가운데 멸망할 부모들이 그들의 반항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다.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울이 육신 안에 있는 그의 가시를 없애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난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분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 기도는 전능의 팔을 비트는 기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관련 있는 것을 갖고 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할 때 효험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비유는 우리 주의 제자들의 요구에 대한 우리 주의 대답의 일부이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옵소서.” 2-4 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기도에 대한 우리 주의 가르치심은 그분의 산상수훈에서 주어진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 주는 죄의 용서와 모든 악에서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가르치심의 말씀을 마치신다. 그리고, 그분은 5-13 절에서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의 교훈을 예시하신다. 그것은 연결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비밀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죄의 사함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말씀하신다.

한밤중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한밤중에 일어났는지 주목한 적이 있는가? 주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나시고,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손으로 노예 상태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고 나오시며 팔을 뻗으셨던 때가 한밤중이었다 (출애굽기 11:4; 12:29). —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의 권능으로 인한 구속의 그림이었다.

삼손(사사기 16:3)이 가자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내고, 그것들을 넓은 어깨 위에 메고, 헤브론 앞 높은 산의 정상으로 가지고 갔던 때는 한밤중이었다. —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화해의 그림이었다.

룻이 타작 마당으로 들어가서 보아스의 밭치에 누웠던 것도 한밤중이었다 (룻기 3:8). —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궁핍한 죄인을 묘사하였다.

열왕기상 2:20 에서 여인이 그의 아들이 가버렸고 그의 자리에 어떤 죽은 자가 주워 있는 것을 발견한 것도 한밤중이었다. — 그것은 죄로 파멸한 생명의 그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훈의 행사가운데 하나님 우리 구원자에 의해 회복된 생명의 그림이었다.

엘리후는 세 명의 비참한 욱의 친구들에게,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제함을 당하느니라.”고 한밤중에 말했다 (욱기 34:20). — 회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압도적인 역사를 묘사하였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깨닫도록 가르침 받을 때, 시편 기자 다윗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9:62). —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에게 대한 우리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며, 그로써 우리는 대가 없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칭의를 받았다.

한밤중에 외침이 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6).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 가운데 그의 신부를 위하여 두 번째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빌립보 간수가 지키고 있던 빌립보의 옥문을 여셨던 것도 한밤중이었다 (사도행전 16:25).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 여행하였던 자들이 안전한 소망의 어떤 지역에 이르렀던 것도 한밤중이었다 (사도행전 27:27).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밤중을 가리키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은혜에 속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분명하게 묘사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 비유 안에서 우리 주께서 한밤중에 친구에게 오는 어떤 궁핍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비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죄인들이 얻을 것인가를 말씀하는 교훈의 말씀이다.

사랑의 때가 왔을 때, 궁핍의 약속된 시간이 이르렀을 때, 선택 받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왔을 때, 그분은 은혜롭게 그분의 사랑의 대상을 철저한 절망 속으로 데려가신다. 그분은 혼 가운데 있는 한밤중을 만드신다.

그것이 당신의 영우인가? 당신은 어둠 가운데 앉아 있는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인가? 한 때 당신은 빛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한 때 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든 것이 괜찮았다. 한 때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한 때 당신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추측한다. 이제, 당신은 짙은 어둠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당신의 혼의 어둠은 너무 짙어서 해칠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상태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비유는 특별히 당신을 위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는 이 절박하고 가련한 사람처럼, 한밤중에 빵을 얻으려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자주 오셨다.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분의 적들과 다투시고, 사탄과 전쟁을 하고, 절실한 고난의 긴 하루를 보낸 후, 종종, 우리 주께서 그분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으실 때까지 하늘의 문에 한밤중에 오셔서 반복하여 문을 두드리셨다. 이런 일들이 복음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감정이나 감탄이 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갑자기 그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여전히 우리 마음이 지탱되는 일들이다. —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라, 저물 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23). — 다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6:15). 그리고 다시,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12).

그분은 온 밤을 계속하셨다. 그분이 보이는가?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가? 그분이 물으시는 것을 구별할 수 있나? 그분은 일어서셨다. 그분은 무릎을 꿇으셨다. 그분은 얼굴을 대고 엎드리셨다.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혼에 무겁게 놓여 있는 짙은 어둠 속에서 문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두드리신다. 온 밤을 그분은 기도하시고, 해가 뜰 때까지 의식을 잃기를 거부하시며, 종족을 이끄는 강한 자처럼 그분의 제자들에게 내려 가신다.

저 멀리, 켓세마네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실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많은 핏방울이 되었던 것처럼 될 때까지, 그분은 다시 문을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리셨다! 실로, 우리의 부족한 느낌으로 감동받을 수 없는 대체사장이 없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체사장은 이 분이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7). 우리처럼, 그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8). —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9).

변화

그러나, 이 단락 안에 분명하고 최우선적인 것으로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은 변화 가운데 은혜의 체험이다. 우리의 친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그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놓인 것을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아, 그렇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몽학선생이다. 그것은 우리의 친구인데, 우리를 그분과 차단하며 우리 혼의 친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께 강제로 피하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와서, “거룩하라.”고 한다. — “죄 짓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혼마다 죽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의와 완전한 만족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두 죽었고 지를 지었다. 그러나 율법이 와서 생명과 의를 요구한다.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들은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앞에 아무 것도 없음을 발견한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25-37)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사야 1:16-18).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 평강과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 생각이 얼마나 환영 받지 못하는가!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것을 요구하면,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의문도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어떤 변화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저 자신의 친구들 중 누군가 너를 돕게 하라.”고 아주 좋게 그리고 아주 올바르게 말씀하실 것이다. 실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훨씬 더 나쁜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볼 생각을 감히 하며, 훨씬 더 나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보시게 하는 생각을 갖는가!

우리는 등을 돌린다. 단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지옥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 혼 안에 있다. 흑암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 지옥의 불이 우리 양심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우리 혼의 기아가 우리를 약함 가운데 땅에 엎드리게 한다.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한다. 아무도 도와 줄 수 없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끔찍한 침몰이 지옥 그 자체가 문턱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의 문에서 그리로 들어가려는 네 명의 문둥병자처럼 말한다: —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열왕기하 7:3-4).

내가 간다면 오직 멸망할 것이니,
내가 해보기로 결심하리;
만일 떨어져 있다면, 내가 아노니,
나는 영원히 죽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가장 좋은 생각의 틀이 아니라고 보장한다. 우리는 그분께 확신의 충만과 보증의 충만과 아무 것도 의심하지 않고 나와야 한다. 그러나 나는 내 평생 그렇게 하는 죄인을 절대로 모른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 일어나 가는 가장 뒤틀린 생각의 틀이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의 죽었으며,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잃어버렸으나 찾은 아들과 함께 있는 점들을 의존하지 않는 것을 모든 아버지는 안다.

당신의 혼 안에 한밤중이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이 아는 것을 요구하며 왔다면 당신은 드러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오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이에 오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
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
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엷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쥬로다.” (시편
107:9-15).

만약 오늘 당신의 친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당신에게 왔다면,
그러면 당신은 그 앞에 둘 것이 아무 것도 없다. — 만약, 우리 구
원자의 말씀 가운데, 당신이 오늘 당신 자신에게 나왔다면, — 만
약 그것이 당신의 혼 안의 한밤중이라면 — 만약 당신이 지금 저울
질 되고 원함이 발견된다면 — 당신의 두려움 한 가운데, 혹은 원
함이나, 혹 당신이 깨어남을 형성하는 무엇이든 택할 수 있으며,
은혜와 약속의 이 말씀을 듣는다: —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9 절).

그것을 행하라, 마치 책들이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펼쳐져야 했
던 것처럼. 그것을 행하라, 마치 이미 강도가 당신의 창에 있었던
것처럼. 이 비유로 들어가라. 만약 앞에 없다면, 무릎을 꿇고 그 비
유로 들어가라. 그것을 읽어라. 그것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
들께서 직접 죄인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함
을 어떻게 얻으며, 모든 악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에게 말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계시다.

한밤중에 있던 그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을 떠나 하라. 당신의 혼의 외로운 한밤중에 그 비유를 행하라. 아무 것도 남겨두지 말라. 곤경 가운데 있는 이 가련한 혼을 보라. 한 밤의 정적 속에 나는 그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라. 그의 큰 외침을 듣고, 그를 따라 그것을 외쳐라. 그는 떡 세 덩어리가 필요했다. 당신은 세 덩어리의 목숨이 걸린 떡 덩어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당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당신은 그리스도에 의한 속량이 필요하지 않은가? 당신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은혜의 보좌로 가서 당신이 필요한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라.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 일서 1:9).

평생

그러나 변화는 한 순간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평생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며, 평생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고, 혼의 평생의 투쟁이다. 나는 회개하였다. 나는 회개하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회개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나왔다. 나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나올 것이다 (베드로전서 2:1-4).

이 한밤의 침입자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의 날들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상징한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안에 사는 한, 우리는 이 가련한 혼과 마찬가지로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언제나 하늘 문을 두드리고, 언제나 요구하고, 언제나 구하는 자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에 대한 큰 필요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시온의 파수꾼들은 그 층만 가운데 그분의 왕궁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이 세상 가운데 찬양할 때까지, 그에게 아무런 안식을 주지 않도록 하자 (이사야 62:6-7). 하나님을 그분의 언약의 기억 속에 부치고 그분의 은혜를 탄원하자 (이사야 43:25-26).

뻔뻔스러운 자포자기

우리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 뻔뻔스러운 자포자기 가운데 오셨을 것이다. — 우리는 가져갈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오기를 부끄럽게 느끼는가. 우리가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만 그분을 찾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러운가. 하지만, 이 비유 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올 것을 가르치신다. 만약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 가운데 올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필요한 때에 공휼을 얻고 도울 은혜를 찾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뉘를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 쩌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8-10).

“강침함”이라는 말은 우리 주의 의도를 알맞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그 말은 “뻥뻥함”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 이것이 우리 주께서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 쯤이라도 그 뻥뻥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얼마나 뻥뻥한가!” 그 사람이 소리쳤고, 문을 닫은 채로 그는 침상에 있었다. “얼마나 뻥뻥한가!” 방해 받은 이웃들이 소리쳤다. “얼마나 뻥뻥한가!” 늦게 지나던 사람이 말했다. “진정해라,”고 하면서, “이런 밤 중에 정직한 사람의 문을 내버려 뒀다.”고 말했다.

“상관 마라,”고 우리 주께서 반대로 말씀하신다. “그들을 상관 마라. 그들은 집에 먹을 것이 충분히 있다. 굶주리는 사람에게 부끄럽게 외치는 것이 그들에게 쉽다. 그들을 상관 마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를 편안하게 하지 말라. 잘 했다! 다시 두드려라!”

그렇다, 뻥뻥함! “내가 얼마나 뻥뻥한 철면피인가!”라며 스스로에게 말하길, “그런 것을 요구하고, 내 나이에 그런 것을 요구해야 하며,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분의 귀한 아들의 피를 내 발 밑에 짓 밟았던 그런 방식으로 크게 두드리다니!”라고 할 것이다.

“내 나이에!” 지금 당신은 당신의 날을 세고 있으며 부끄러움으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내 나이에, 그리고 이제 겨우 정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다니! 얼마나 많은 밤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아 왔는지! 그리고, 이제 나의 손가락을 올리고 무릎을 바닥에 대고 오 분간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부랴부랴 모든 것을 잊혀두고 계실 것을 기대하다니!”

그렇다. 회개는 뻔뻔한 굴욕을 요구하고, 탈곡 마당에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갔던 룿이 가진 아주 뻔뻔함을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당신과 나처럼 교만한 반역자가 우리 혼의 한밤중에 은혜의 보좌에 나오고 긍휼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뻔뻔함”으로 이다. — 우리의 뻔뻔함을 악화시키는 것이 많이 있다.

- 우리가 요구하기에 부끄러운 것들: 용서, 속량, 은혜.
- 우리가 허락하고 고백해야 하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것들.
-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
- 우리의 낮과 밤을 보냈던 방법.
- 우리의 낭비된 삶의 결과!

닫혀진 우리 문이라 할 지라도 그런 것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인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지붕 꼭대기에서 그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보다 벽장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편이 무한히 더 낫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두드려라, 사람아! 두드려라! 당신의 혼의 사랑을 위하여, 두드려라! 일단 문이 닫혔고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이웃들이 두드렸던 것처럼 두드려라! 문이 닫힌 후에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듯이 두드려라! 두드려라, 마치 지옥에서 나오려고 두드리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두드려라!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축복을 얻을 때까지 두드려라! 야곱처럼, 하나님께 아들에게 소리쳐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26).

구하여진 축복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성령에 의한 영생과 은혜와 구원의 복된 은사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11-13).

이 그 영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의 공로와 능력과 효험으로 모든 구속 받은 죄인에게 흐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 전체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택정한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축복을 포함한다 (갈라디아서 3:13-14).

기도 중에 그분의 설교를 마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께서 한마디로 그분의 제자의 마음에 다가가셨다. 기도 가운데 뻔뻔한 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포자기는 성령을 위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함이다. 그것은 더이상 떡을 위한 기도나, 물고기 한 마리를 위한 기도나, 혹은 계란 하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장수를 위한 것도, 부를 위한 것도, 혹은 건강을 위한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마실까, 혹은 어떻게 입을 것인가도 아니다.

이것은 생명, 영생에 대한 뻔뻔한 끈덕짐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그분의 설교 끝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셨을 것이다: “내가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시편 27:4). 우리는 여기서 그의 무장한 부하들과 함께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을 보았을 때인 한밤중에 씨름하고 있었다. 우리 죄가 우리를 발견하였을 때 우리 침대가 눈물로 젖게 만들었다. 우리는 사망이 다가왔을 때 우리 얼굴을 떨구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한 가지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혼을 그리스도께 혼인하게 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사망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 혼에 평강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얻은 축복

믿음의 뻔뻔한 자포자기 가운데 은혜와 구원과 영생을 바라고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그들이 구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 주께서 여기서 약속하신다. —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9, 13 절; 히브리서 11:6; 예레미야 29:10-15). 당신의 한밤중이 더이상 없을 때,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한밤중의 일을 마치셨을 때, 그러면, (아 복된 축복이여!) 은혜를 따라, 그분께서 영광도 또한 주실 것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찌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 이러라.” (계시록 7:9-17).

71 장.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임하였느니라”—누가복음 11:14-20

“예수께서 한 병어리 귀신을 쫓아 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병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너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14-20).

그리스도의 주장은 주권적인 왕의 주장이다. 만약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왕으로서 머리 숙이지 않는다면,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그분께 머리를 숙이든 숙이지 않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왕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은 마지 못하여, 어떤 사람은 충성되게, 어떤 사람은 반역되게 그분의 피통치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분의 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통치자들이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는 그분께 모두 머리 숙일 것이다. 지금 그분께 지금 굴복하라, 그러면 영생은 당신의 소유이다. 만약 지금 그분께 굴복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심판의 날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사망이 당신의 분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굴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편 2:12)

하나님의 왕국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존재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세속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그것은 당신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일시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존하는 왕국이다.

상황

성경을 해석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모든 단락을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이 경우, 그 상황은 충격적으로 교훈적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인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가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 하셨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죄인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로마서 10:13; 마가복음 16:16; 사도행전 16:31; 이사야 45:22). 그 사실은, 타락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할 사람은 모두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 죄인들의 대속자의 중보를 통한 공휼을 구하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11). 만약 당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아직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소망

하지만, 당신을 위한 소망이 있다. 내게는 길 잃은 죄인들을 위한 소망이 있는데, 비록 우리 구원자께서 은혜롭기를 기다리지만, 그분의 은혜는 죄인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타락한 죄인들은 우리 본문에 있는 사람 같아서, 마귀에 사로잡혔고 우둔하며, 너무도 우둔하여 주님 자신이 오셔서 그 마귀를 내쫓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들의 혀를 푸시며, 그분의 달콤하고, 전능하며,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때를 제외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시편 65:4).

누가복음 11:14-20 에 기록된 큰 기적은 우리에게 얼마나 타락한 죄인들이 전능한 은혜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부르도록 강요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만약 우리가 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사탄의 권세를 파멸하시고 우리가 긍휼을 위하여 그분을 부르게 하는 분이다.

“그가 취소된 죄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그가 사로 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가 절름발이를 다시 걷게 하시며,
또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
그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그를 찬양하라, 너희 병어리들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너의 풀린 혀를 사용하라!

너희 눈먼 자여, 너희 구원자께서 오심을 보라,
그리고 기뻐 뛰라, 너희 절름발이여!”

사탄의 도구

우리 혼을 파괴하려 찾는 사탄의 도구들은 군대이다. 우리가 여기서 읽은 귀신에 사로 잡힌 자는 병어리였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불결한 영으로 묘사되는 사탄의 악동을 본다. 때때로 그들은 난폭하다. 다른 곳에서 그들은 눈 먼 귀신들로 오고, 다른 곳에서는 귀머거리 귀신들로 온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탄의 도구는 많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파괴를 위하여 계획되어 있다.

마귀의 소유가 일단 지옥의 악령이 덜 활동하거나 그 계획이 덜 파괴적인 것만큼 오늘날 눈에 띄고 분명하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상상하지 말라. 그것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에 의해서 그 의도대로 사로잡혀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은 이 가련한 혼처럼 병어리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당신은 이 사람처럼 병어리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가? 비록 당신이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는가? 비록 당신이 많은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을 부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지 않는다. 당신은 영적으로 사망하였고 영적으로 병어리이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병어리를 말하게 하신다. 이 귀신을 내 쫓으신 분은 여전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탄을 내 쫓는 일 가운데 계신다! 사랑의 때가 선택 받고, 구원 받은 죄인들에게 왔을 때, 비록 사탄이 길 잃고 사망한 죄인의 마음 속에서 지배하지만, 주 예수께서 강한 자를 묶으시고, 그를 내 쫓으시며, 그의 집을 못 쓰게 만드시고, 그의 모든 갑옷을 가져가시고, 은혜로운 통치를 그들의 마음 속에 그분의 영의 권능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신다. 오직 그리스도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눈을 주실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의 은혜에 속한 영광스러운 음성을 듣도록 죄인의 귀를 여실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탄원의 말을 주실 수 있다. —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구원할 힘이다 (요한복음 12:32; 히브리서 7:25).

의도적인 불신

다음으로, 나는 당신이 불신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임을 보기 원한다. 불신은 죄인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죄인들이 수동적인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불신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역적인 마음의 도전이다. 모든 반역적인 죄인은 성경의 이 단락 안에서 묘사된 사람들과 아주 똑같다.

주 예수께서 귀신을 내 쫓으시고, 이전에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의 혀를 풀셨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 기적에 대해 논쟁할 수 없었다. 은혜의 역사가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고 분명하였다.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에 그들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많은 사람이 택정하심의 사랑에 놀라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놀라 서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의 광경에 놀라며, 대속의 구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주 예수를, 귀신으로 귀신을 내 쫓았다고 말하면서, 폄하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역사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폄하하려고 하였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 주소서.”라고 말했다. 놀랍지 않은가? 하지만,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언제나 계급 불신의 배반이다. “표적을 보여 주소서.”라는 것은 지옥의 외침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

사실인즉 모든 불신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죄인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은 간음이 아니라, 불신이다! 타락한 자를 지옥으로 데려 갈 것은 강도가 아니라, 불신이다! 불신은 비난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자발적이다. 그것은 의도적이다. 믿는 자들은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계속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14-19, 36; 요한일서 5:1, 6-10).

그리스도의 신성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단락 안에 몇 가지 우연한 듯 하지만, 신성하게 감동 받은 우리 구원자의 영원한 신성의 나타남이 있다. 우리는 한 영광스러운 위격 안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을 신뢰한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던 그 인자는 그분 자신이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은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무한한 공로를 갖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는 무한히 효험 있다. 여기 우리 구원자의 영원한 신성에 대한 세 가지 큰 명시가 있다:

1. 지옥에 대한 그분의 통치 — 귀신이 그분께 순종한다!
2. 그분의 전지 — 그분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3. 그분의 경탄할 은혜 — 그분은 병어리가 말하게 하셨다!

가정 불화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에서 자주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경고의 말씀을 비유로 선포하신다. 그것은 쓸데 없는 불화에 대한 경고이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¹²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너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¹² 기초가 부서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17-19 절).

물을 필요 없이, 우리 주께서 그들의 모독적인 주장들이 그들이 모독적인 것만큼 어리석은 이 무성하고 엉터리없는 반역자들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 만약 사탄이 사탄을 몰아낸다면, 그의 왕국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우리를 위하여 보다 필요한 공과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애통스럽고 사악하게도 배우는 것이 느리다는 공과이다. — 형제들 사이의 불화는 치욕스러울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다. 국내 분쟁은 나라를 파괴한다. 가정 불화는 가족을 파괴한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의 분쟁은 지역의 교회를 파괴한다. 분쟁은 기초에서 집을 부순다. 그리고 기초가 부서진 어떤 집도 곧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타협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복음과 관련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직접 본다 (고린도전서 16:22; 갈라디아서 1:6-9; 5:12; 빌립보서 3:18-19; 요한이서 1:9-11). 그리스도 안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포함하지 않는 문제들에 이르게 될 때, 사소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분쟁을 그쳐야 한다. 하나님의 집 안에는 사소한 말다툼과 교만한 분쟁이 있을 자리가 없다. 이 끔찍한 사악함에 대한 유일한 치료는 은혜이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롭게 되기를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화내기를 더디하고, 용서를 빨리하며, 섬기기를 열심히 하고, 양보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불쾌하게 하기를 어렵게 되도록 하자 (에베소서 4:17-5:2).

대결

우리 본문은 대결로 마친다. —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0 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 끝으로, 그분의 피의 능력으로 갈보리에서 뱀의 머리를 눌러 부수며, 그분의 전능한 은혜에 속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두 귀신을 내쫓으셨다 (골로새서 2:11-15). 왕이신 예수께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그분은 하나님께 구원 받은 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만드신다 (출애굽기 18:6; 베드로전서 2:5, 9; 계시록 1:6; 5:10; 20:6; 22:5).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은 땅 위의 죄인들에게 임하였으며 지금 임하고 있다.

72 장. 무장한 강한 자 — 묶어 내다 버리다—누가복음 11:21-26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21-26).

시간의 시작 때부터 어둠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과 전쟁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와 전쟁에 있었다 (창세기 3; 이사야 14; 계시록 12). 그것은 상호 충돌이며, 상호 대적이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를 거꾸러 뜨리기 위해서, 그의 권위를 강탈하고, 인간의 혼을 파괴하기 위해 그에 의해 지배되는 지옥의 악귀와 무수한 귀신들의 계획이다. 그의 전쟁의 원칙적인 무기는 종교 — 독선과 의지 경배 이다 (고린도후서 11; 갈라디아서 1:6-9).

그러나 지옥의 악귀, 그 옛 뱀, 마귀는 성취할 것이 아무 것도 없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귀다. 그는 그리스도의 전능한 권세로 노예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곧 그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 구원자와 우리 발 아래 부서질 것이다. 그렇다, 그가 파괴하려 하는 가련하고 약한 존재인 우리 발 아래 밟혀 부서질 것이다 (로마서 16:20).

그가 오직 짧은 시간만 갖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고 있고 (계시록 12:12) 삼켜 버릴 자를 찾고 있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가려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모든 영광스럽고, 전능한 구원자께서 모든 것을 통제 가운데 두신다. 이 사자는 으르렁거릴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어떤 것도 혹은 아무도 해칠 수 없다! 전쟁은 실재이다. 그러나 승리는 확실하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지혜롭게 되고, 이 문제들을 내버려 두자. 마법과 마귀 신앙과 신비한 것을 조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는 것이 비소를 가지고 노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험하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만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

누가복음 11:21-26 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장막의 모서리를 들어 올리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영적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하고 교훈적인 정점에 있도록 허락하신다. 여기서 주의 가르침은 귀신 신앙과 퇴마의식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고 구원하는 은혜의 경이로움에 대한 가르침이다.

큰 파괴자

21 절에서 사탄은 무장한 강한 자, 그의 왕궁을 지키는 자로 묘사된다. 그가 지키는 왕궁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천연적 상태와 조건 가운데 있는 자의 그림이다. 우리 앞에 모든 타락한 사람, 어둠의 왕에 의해 속았고 속고 있는 자의 그림이 있다. —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1 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야 하지만, 사탄의 왕궁이 되어 버렸다. 우리 조상 아담이 지극히 높은 자의 순종하는 종이었을 때, 그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성전이였다. 그 이상이 아니었다! 이제, 타락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종들이 되어 버렸고, 우리 몸은 사탄의 작업장이 되어 버렸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되었다 (에베소서 2:1-4).

사탄은 여기서 “강한 자”로 불린다. 누가 그를 맞설 수 있겠는가? 어둠의 괴물, 지옥의 붉은 용은 아바돈과 아볼리온—파괴자로 이름이 잘 지어졌다! 그는 6000 년 혹은 그 이상 동안 혼 파괴의 일에 있어 왔다. 어떤 인간도 그에 상대가 된 적이 없었다. 아담은 그의 모든 완전한 피조 가운데 큰 파괴자 앞에 설 수 없었다. 삼손은 그의 모든 힘을 갖고 있었으나 지옥의 악귀 앞에 물처럼 약하였다. 사탄은 너무 강하여 만약 모든 인간이 그에 대항하여 뭉친다면, 그는 레비아탄이 갈고리를 비웃듯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사탄은 강하지만, 단순히 힘을 가진 자로서가 아니라, 맹렬하고 교묘한 교활함의 의미에 있어서 강하다. 사탄은 그의 유혹을 우리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따라다니는 죄에 어떻게 적용할지 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최상의 시간을 안다. 사탄은 왕이 싸우러 나갈 때가 있음을 알며, 그는 언제나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뛰어난 검투사이다. 그는 뛰어난 사격수이다. 그는 우리의 약한 곳을 안다. 그는 우리 갑옷의 모든 틈을 안다. 따라서, 의심 없는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 그의 뜻에 사로 잡힌다.

사탄은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하고 질투로 가득한 강한 자이다 (히브리서 2:9-14). 지옥의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축복하고 찬양해야 한다. 전능한 그리스도께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전능한 은혜로 구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면 사탄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집어 넣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듣는 이 강한 자, 파괴자는 무장하고 있다. 그는 가장 교활한 속임수로, 가장 그럴듯한 유혹으로,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매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그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의 자원한 동역자를 찾는다: — 우리의 내적 정욕들 — 우리의 고집스런 교만 — 우리의 의도적인 순종 — 우리 마음의 냉담! 그리고 그는 자유 의지와 행위의 종교의 거짓으로 무장하고 있다.

어둠의 왕은 언제나 그의 왕궁을 지킨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사탄은 결코 경비병 없이 잠이 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마다, 사탄은 그의 왕궁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 혼의 성 안에 있는 그의 왕국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 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잠든 동안 사탄은 가라지를 심는다. 그는 결코 잠자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주변에서 가장 바쁜 자이다. 우리는 우리 혼을 무시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는 언제나 방문하며 이곳 저속을 다니며 그의 검은 양을 지키려 그의 악한 일을 한다. 만약 언제나 일어난다면, 놀라서 악한 영을 잡을 소망도 없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은 폭풍우로 쓸려 나가게 될 것이다. — “그가 자기 왕궁을 지킨다. 그의 소유가 안전하다!”

안전하게 지키므로, 믿지 않는 혼은 그의 눈 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큰 죄책감이 없고, 아무런 불편함도 없으며, 아무런 고통스런 양심도 없다. 그는 편안하다. 그는 죽은 자의 모든 평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의 모든 힘이 말라버린 홍합이고, 그의 모든 갑옷은 녹아버린 플라스틱이며, 그의 왕궁 전체가 무방비 상태이며, 그의 모든 소유는 그 보다 더 강한 그분 앞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 보다 더 강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의 친구이며, 그분은 ...

위대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은혜에 속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실 때, 그 왕궁에 있는 어둠의 왕 위에 오시고 그를 괴롭히려 오시며, 그의 소유를 못 쓰게 만드신다 (누가복음 11:22; 마태복음 12:29; 이사야 49:24-25; 53:10-12; 골로새서 2:15). 그분은 지옥의 악령 위에 오시며, 그를 묶으시고, 그를 이기시며, 그의 갑옷을 빼앗고, 그 전리품을 나누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기 이사야 53:12에 대한 분명한 인용이 있다. 주 예수께서 오셔서 사악하게 지옥의 마귀에 의해 한 때 사용된 바로 그 재산의 소유를 취하시고 그분의 은혜의 왕궁 안에서 선한 도구로 만드신다.

사탄이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죄의 왕국을 세우고 유지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의 끔찍한 영향들은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부인될 수 없다. 여기에 우리는 분명하게 천명된 그 사실을 갖고 있다. Robert Hawker 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으며, 그것 때문에 마귀와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고 그들 자신의 거주지에 남겨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계시록 12:7-12; 유다서 6).” 아담이 쫓겨났던 것은 하와에 대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였으며, 전 인류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로 충만한 인류가 되었던 것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였다 (로마서 5:12). 불순종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계속하여 역사하는 자는 사탄이다 (에베소서 2:2-4).

사탄의 어둠과 기만과 죄의 왕국이 전 인류를 사로 잡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11)이라고 불려진다. 사탄은 우리 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그는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8) 라고 불려지고 “용” (계시록 12:7),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불려진다. 여기서 사탄은 “무장한 강한 자”라고 불려진다.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그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여서, 사람들은 그의 의도대로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 (디모데후서 2:26).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8)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복음의 한 가지 큰 목적과 계획은 사탄과 그 나라의 전복이며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완전한 질서의 회복이다. 기뻐하자!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마태복음 1:21)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 (요한일서 3:8) 이 세상에 오셨으며, 오셔서 성취하려 한 것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삼중의 묶임을 계시한다.

4.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속의 성취 가운데, 그리고 무덤에서 그분의 부활에 의해 우리 구원자께서 사탄을 묶으시고 사탄의 세상의 나라들에 대한 그분의 강탈된 통치의 권세를 깨버리셨다 (요한복음 12:31-33; 골로새서 2:13-15; 히브리서 2:14-15; 계시록 20:1-6).
5. 거듭남과 변화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권능으로, 새로 태어남 가운데 그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사탄을 묶으시고 그의 처소를 빼앗으신다.

그것이 누가복음 11:21-26 에 서술된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무장한 강한 자 보다 더 강한 분이다. 그분은 전능한 공화로 선택 받은 죄인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사탄을 묶으시고, 그를 내쫓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손상시키신다. 이것이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분은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죄인이 그분을 들어오시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서 계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 않는다. 그분은 문과 못과 빗장을 부수고 속량 받은 혼의 집에 들어오시며, 그분을 기꺼이 맞이하도록 하며, 그 마음 속에 그분의 보좌를 세우신다. 따라서 우리는 “흑암의 왕국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사야 49:24; 마가복음 3:27; 누가복음 11:21-22; 요한복음 12:31; 14:30; 16:7-11; 에베소서 2:1-4).

6.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 예수께서 사탄을 이 세상에서 불 못으로 던져 버리실 것이며, 거기서 사탄은 더 이상 힘이 없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10).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오고 있으며, 그 때 사탄의 왕국의 완전하고 영원한 파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는 완전한 승리 가운데 어둠의 왕을 정복할 것이다 (로마서 16:20). “마귀의 지옥” 같은 것은 없다. 지옥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것은 그분의 고문실이며, 그 안에서 그분은 영원히 마귀를 괴롭게 하실 것이며 마귀를 따랐던 모든 자를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제, 23 절을 보고, 그 사실을 보라. —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은…

큰 분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그분께 대항하는 자이다. 중간 입장은 없다. —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30). 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그분,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왕국과 관련하여 중립의 불가능을 보여 주신다. 많은 사람이, 두 가지 선택 사이에 갈팡질팡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부인하기를 원치도 않고 전적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에 공개적인 반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의 뜻에 참여하기도 원하지 않으며, 담장에 다리를 벌리고 서려 한다. 그런 중립은 불가능하다.

영적인 일들에 관련하여, 오직 두 가지 입장만 있을 뿐이다. 오직 두 방면만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분과 그분의 뜻에 위임하거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을 모두 섬길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반대하는 것이다. 중간 입장은 없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단성을 요구한다 (여호수아 24:15). John Gill 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에 선포되고 진행되는 공개적인 전쟁이 있으므로, 아무도 중립일 수 없다. 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않은 자는 누구라도 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도나 전도, 혹은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그분의 교회에, 그분 자신에게 혼을 모으기 위한 다른 방법들로 여겨지지 않는 자마다, 그분에 의해 그런 것들을 헤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24-26 절에서 우리 주께서 가짜 변화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신다. 그것들은…

큰 속임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에 대항하는 사탄의 가장 큰 방어 무기인 그것은, 그것으로 사탄이 자신의 왕국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그것은 거짓의 피난처이다.

“불결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안식을 구하며 그는 건조한 곳을 걸어간다. 그리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말하기를, 내가 떠난 나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 집이 청소되고 장식된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가 가서, 그에게 자신보다 더 사악한 다른 일곱 영을 택한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기거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불결한 영은 그 자신의 자유 의지로 나간다. — 그는 내 쫓기지 않고, 단지 나간다. 안식을 찾아서 마르고, 사막같은 곳을 지나 걸어가지만,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간다. 그가 돌아 왔을 때, 그의 집이 멋진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청소되었고, 씻지는 않았지만, 청소되었다. 장식되었고, 새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장식되어 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보다 더 사악한 일곱 영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쁘다. 죄인이 자신을 거짓의 피난처로 데려가고, 거짓 종교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할 때, 그는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상태로 빠진다 (이사야 28:14-20). 그러나, 심지어 여기에도, 혼이 전능한 은혜가 미치는 곳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사야 28:16, 20; 호세아 4:17; 11:8-9; 13:4, 9, 12, 14).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 주 예수, 위대한 구원자여, 아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 전능한 구원자여, 만일 당신이 당신의 힘의 위대함 가운데 다니시며 지나신다면, 오셔서 당신의 전능한 역량을 보여 주소서. 비껴 가소서, 아 하늘 삼손이여, 그리고 이 포도원에 있는 사자를 박살 내소서. 만일 당신이 당신의 대적의 피에 당신의 옷을 담그셨다면, 내 잔혹한 죄들의 피로 다시 그 모든 옷을 물들이러 오소서! 만일 당신이 여호와의 진노의 포도 짜는 틀 위에 올라서서, 당신의 대적들을 으깨셨다면, 여기 또 다른 골치 아픈 일당이 있으니, 오셔서 그를 끌어내서 으깨 버리소서! 내 마음 속에 아가그 (사무엘상 15:32-33)가 있으니, 오셔서 그를 찢어 조각 내소서! 내 영 안에 다곤 (사사기 16:33)이 있으니, 깨소서, 아, 깨소서 그 머리를, 그리고 나를 죄의 옛 상태에서 해방하소서! 나를 나의 사나운 대적으로부터 구하시고, 당신에게만 찬양이 영원히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아멘.

73 장. 표적을 기대함—누가복음 11:27-32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스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가복음 11:27-32).

당신은 표적을 기다리는가? 주께서 표적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 속임수와 사악함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성경의 이 단락 안에 사악하고 고집스럽고 음탕한 세대로 묘사되고 있다.

표적, 기적의 관찰, 논리적 증거, 어떤 영적 느낌, 체험, 혹은 성경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초한 어떤 믿음도 거짓 믿음이다. 참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기초로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체험이 아니라 그분을 믿을 은혜를 주소서! — 그분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다! — 그분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다! — 그분은,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다!

믿음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은사이다. —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뵈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27-28 절).

주 예수께서 방금 한 마귀를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능력으로, 병어리를 말하게 하시므로 내쫓으셨다. 이 큰 기적을 행하신 후, 그분은 “종교적 권리”에 의해, “도덕적 다수”에 의해, 사탄의 권능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마귀와 연대를 맺었다는 것으로, 아마도 심지어 마귀 그 자체인 것으로 고소 당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영광의 왕)에 대하여, 그분이 행하신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역사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결과 (사탄을 내 쫓으심)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설명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정말 사탄의 종들인 무덤을 회벽 칠한 자들의 위선을 드러내셨다.

이런 일들을 듣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보고,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당혹스러움을 기뻐하고,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은혜로 그녀를 위하여 한 것을 기억하므로, 그분의 공훈에 대한 그녀의 기억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숭배가 그녀의 정중한 언행의 법도를 깨게 하였던 한 여인이 군중 속에 있었다. 그녀는 외쳤다. —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쪼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 말은 마리아에 대한 존경과 찬양의 선포가 아니었다. 그런 선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로마의 마리아 숭배자는 너무도 많아 종종 예수의 어머니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성에 이르는 혈연 관계의 위치에 다른 여자들 보자 위로 높여진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우상숭배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톨릭 사람들이 외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머니”가 분명코 아니다!

이것은 마리아에 대한 찬양의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 말로 이 여인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사와 찬양을 표현한 언어의 기법이였다. 우리는 동일한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종종 같은 방법으로 누군가를 칭찬한다. — “그 아이는 부모에게 명예가 된다.” — “그 아이가 그의 부모에 대하여 좋게 말한다.” — “그 아이는 그의 부모를 매우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다.”

마리아는 실로 축복 받은 여인이었다. 천사 가브리엘과 침례자 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어머니인 엘리사벳 모두 그녀의 축복에 대하여 말했다 (누가복음 1:28, 42). 나는 마리아 자매가 주목할만한 성품과 본보기가 되는 믿음과 행동, 그리고 확고한 미덕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가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마리아의 축복은 더도 덜도 아니고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의 축복이었다. 그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녀의 태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녀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생겨났다. 마리아는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고, 구속 받았으며, 부르심 받고, 거룩하게 되고, 열납 된 그분의 은혜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받았다. 그녀는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 그녀의 구원자처럼 그녀의 배 안에 있는 아기를 경배하였다. 주 예수, 우리 구원자의 인성을 출생한 후에, 그녀는 그녀의 부정함 때문에 율법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는데, 그녀가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이 필요하였던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누가복음 2:24; 레위기 12:6-8).

구원자께서 이 여인의 찬양을 들었을 때, 그분은 즉시 로마에 있는 사기꾼들에 의해 그 말에 덧붙여져서 곧 얼마나 끔찍한 모독이 올 것인지를 아셨다. 그래서 그분은 즉시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 —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참 축복은 하나님께 난 모든 자 위에 부어지는 은혜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 위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부어지는 은혜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충성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실로 큰 특권이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는 복음을 단지 겉으로만 듣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게 하며, 믿음과 깨달음으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소중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의 동반이 있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저주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안의 믿음의 은사를 보장해주신 모든 자는 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 은혜의 모든 축복으로 복 받음 (에베소서 1:3).
- 섭리의 모든 축복으로 복 받음 (로마서 8:28).
- 하늘 영광의 모든 축복으로 복 받음 (에베소서 1:11).

불신의 요구

불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29 절). 마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39) 라고 선포하셨다고 말한다.

물을 필요 없이, 우리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보하셨던 그 세대에 대하여 특정하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것은 뚜렷하게 악하며 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탕한 세대이고, 우리 자신과 많이 닮은 세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그 때도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하게 악한 세대였다. 철학적, 정치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사악함이 도처에서 보였다 (로마서 1:18-32).

그러나 여기서와 마태의 이야기에서 모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위한 기초로서 표적을 따라 구하는 자들의 사악함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집한 군중 가운데 모였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 그들이 볼 수 있을 어떤 것, 그들이 느낄 수 있을 어떤 것, 그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믿음의 기초로서 요구했던 사람들이었다. — 그들은 만약 주 하나님께서 세속적 논리와 체험의 광장에서 그분을 명확히 입증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 그들은 믿음을 위한 증거들을 원했다. 그러나 증거에 기초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게 결코 머리를 숙이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머리 숙여야 한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큰 은혜 가운데 자신을 낮추신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몸을 굽혀 우리에게 의해 심판 받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구원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께 머리 숙여야 한다 (고린도 전서 1:17-31).

요나의 표적

믿음이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복음 안에서 선포되고 계시된 구속의 성취이다. —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0 절). 요나의 표적은 은혜의 선포이자 성취된 구속의 예언이었다. 요나는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니!”라고 선포하였다. 고래의 배 속에서 삼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된 요나는 우리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예언적 그림이었다.

심판의 폭풍을 잠잠케 하려고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고 고래에 의해 삼켜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 하나님-사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삼켜졌다. 진노가 없어졌을 때, 그 사람, 우리 대속자는 지옥의 배에서, 땅의 심부에서 사흘 후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 부활한 사람, 그리스도 주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심판

31-32 절에 있는 우리 주의 가르침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라. — 신성한 공의는 축복과 구원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 지옥에 있는 괴로움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31-32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부와 위대함과 지혜와 영광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말 외에 아무것에도 근거하지 않고, 큰 비용을 들여 먼 길을 여행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직 죄로 충만한 사람이다. —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야 바람직하지 않은 선지자였던 요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였다. — “보라, 요나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고 읽어왔다. 그것이 당신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가 될 것인가? 만약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귀한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신다면, 당신이 듣고 읽었던 그 말씀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동일한 말씀이 당신을 향하여 심판 때 살아날 것이고 지옥에서 당신의 혼을 영원히 괴롭힐 것이다 (고린도후서 2:14-16; 요한일서 5:1-14).

74 장. 빛인가 흑암인가?—누가복음 11:33-3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 니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33-36).

우리 주께서 자주 이런 빛의 상징 (등경 위에 등불)을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마태복음 5:15; 마가복음 4:21; 누가복음 8:16) 사용하셨다. 여기서 그분의 의도는 상황에 의해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그분은 그분 (세상의 빛)이 빛, 빛나는 빛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 서 계셨음을 선포하신다. 그분의 역사, 그분의 주장, 그분의 사역은 열려 있고, 공개적이며, 틀림 없이 분명하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사도행전 26:26).

요나와 솔로몬 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빛과 증인이신 그분이 아무도 밝히지 않았던 빛이다. 그분은 실로 빛이다! 우리 주는 사람의 불신과 반역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다. 그분은 29-32 절에서 그분이 주셨던 것처럼 생각과 교훈의 동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선으로 계속하신다. 우리 본문의 교훈은 분명하다. —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경멸하고 어둠을 선택하였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19-21).

그리스도는 빛이다. 빛을 보게 되므로, 어떤 자들은 그것 때문에 눈이 어지럽다. 우리 주의 밝은 것을 보므로, 한 사람이 외쳤다.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도소이다.” (27 절). 악의적인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은 빛에 속한 것을 아무 것도 못 본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주의 공훈의 역사들을 마귀의 탓으로 돌렸다. 많은 사람이 그분 안에서 어떤 빛을 보았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거의 보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요구한다!

우리 주의 시대에 그분의 일관된 대답은 우리 시대와 동일하였다. 그 빛은 계속하여 빛나고 있고, 볼 수 없는 어두움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빛은 팔레스타인에서 번쩍 번쩍 빛났다. 그 빛은 오늘날 더 빛나게 빛난다. 그 빛은 보여지는 것이 의도 되었다. 따라서 주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등겨 위에 두셨고 그를 높이셨다. 그 빛은 침례자 요한에 의해 높이 들렸다. 그 빛은 십자가 위에서 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려졌다. 그 빛은 주의 부활 가운데 올려졌다. 그 빛은 주와 왕으로서 우리 주의 승천과 찬양 가운데 높여졌다. 그리고 그 빛은 복음의 전도 가운데 높여 진다.

구약 성경 안에서,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들 아래에서 그 빛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움 아래 숨겨지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날, 그 빛은 모든 세상 가운데 빛나고, 모든 종족과 친족과 부족과 방언의 모든 사람에게 빛난다. 그 빛은 지금 빛난다. 만약 당신이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빛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눈이 먼 잘못이다 (고린도후서 4:3-6).

빛은 영적 생명에 있어서 불가결하다. 무지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라, 미신의 어머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빛과 지식으로 주어진 은사이다. 만약 하나님의 빛이 우리 혼 안에서 빛 비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그곳에 없다. 우리는 빛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 만약 의의 태양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기 위하여 빛 비추지 않으면, 어둠과 사망이 여전히 지배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외부에서 빛나는 빛이 우리 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서 1:15-20).

빛의 입구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 빛은 눈을 통하여 몸에 들어 온다. 그러나 빛이 어떻게 혼으로 들어오는가? 만약 우리가 볼 눈이 없다면, 태양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밝게 빛난다 해도 우리는 볼 수 없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문제는 빛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눈이 없다는 것이다. 천연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이다. 따라서, 그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는 빛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천연적으로, 우리는 모두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좋아한다. —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34 절).

혼의 눈은 생각이고, 깨달음이며, 양심이고, 마음이다. 눈이 깨끗하고, 단일하고, 구름이 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온 몸이 빛으로 충만하다. 우리 혼의 눈이 열려 있고 복음의 진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빛날 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우리 시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없을 때, 혼 전체는 빛과 기쁨과 안도와 평강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나 눈이 악할 때, 전체 몸은 어둠으로 충만하다. 어떤 사람이 그의 눈을 덮은 백내장이 있을 때, 그는 볼 수 없다. 만약 녹내장이 있다면, 일단 완전히 퍼지면, 그는 어둠 속에 사로 잡힌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눈 멀고 무지로 어둡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 속에, 복음에 관련하여, 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은 어두움에 사로 잡히며, 사람은 총체적인 어둠 속에서 더듬거린다.

사람의 눈은 많은 것들로 눈이 가린다.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어둠은 모든 사람을 눈멀게 한다. 백내장, 종교적 전통과 이단의 눈멀게 하는 비늘들은 사람들을 눈 멀게 한다. 녹내장, 독선의 희미함이 많은 사람을 눈멀게 한다. 근시,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근시안적임이 그 경배자들에게 눈 멀어로 갇는다.

자기분위는, 모든 형태에 있어서, 혼의 빛을 희미하게 한다. 황금의 광채는 눈을 멀게 한다. 어떻게 유다가 은 삼십에 더 큰 가치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미와 영광을 볼 수 있었겠는가? 사람이 그 눈이 물질적인 것에 고정될 때 어떻게 하늘과 영원에 그 마음을 둘 수 있을까?

모든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자아는 가장 죽이기 어려운 것이다. 교만, 야심, 명예욕과 존경에 대한 욕망,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망이 하늘 빛을 향한 눈을 멀게 한다. 아,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보다 그리스도의 교훈적 복음에 대하여 사람이 더 저항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 교만한 적그리스도인, 자아는 교만한 갈망 가운데 인간 육신이 하나님께만 속한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가진 것만큼 결코 강하지도, 활기차지도, 극복할 수 없지 않다. 신이 그 배인 인간은 그의 신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다!

한결같은 눈, 분명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한결같은 눈은 한결같은 대상—그리스도 (고린도후서 11:2-3)에 고정된 당신의 눈을 갖는 것에서 온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본다면,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16). 그러면 당신의 전체 몸은 빛으로 충만하다.

빛이 어둠을 만듦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34 절). 악한 눈은 여기서 마법의 악한 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곡되어, 너무도 왜곡되어 빛이 어둠으로 바뀐 것에 대한 깨달음이다. 천연적인 세상에서 빛은 결코 어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적 문제에 있어서 종종 그렇게 된다. “만일 네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지 아니한가 보라.”

복음과 복음의 사역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당신이 빛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이 당신의 혼에 어둠이 되지 않도록 하라. 멸시 받은 빛은 어둠이 될 것이다. 천벌의 눈이 머는 것 같은 눈 멀은 없다. 그런 것에서 회복은 없다. 아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사람 속에 있는 어떻게 빛이 어둠이 될 수 있는가?” 보여 주겠다. 사람들이 빛을 어둠으로 바꿀 때는...

-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꾼다.
- 그들은 복음의 법령들을 성찬식으로 왜곡한다.
-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거룩의 수단으로 만든다.
- 그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죄로 만든다.
- 그들은 그 영의 은혜를 은혜의 조건으로 만든다.
-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구원으로 만든다.
- 그들은 신성한 주권을 무책임의 변명으로 만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그들은 성품과 행위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
- 그들은 성품과 행위를 소망과 확신의 근거로 만든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 비춤

빛이 무엇을 하는가? 나는 빛이 이것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다: — 빛이 비춤다. 그것이 36 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다. —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빛이 올 때, 그것은 빛난다. 만일 당신의 눈이 한결같고 분명하면, 눈이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눈이 하도록 하는 위대한 일은 없다. 빛은 빛나고 있다. 눈이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다. 빛이 빛나고 있을 때, 당신이 빛을 원하면, 다만 당신의 눈을 열어라. 당신의 눈을 비빌 필요가 없다. 그냥 열기만 하라. 당신의 눈을 운동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열기만 해라. 당신의 눈을 훈련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열기만 하라. 보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로 눈을 둘 필요가 없다. 그냥 열기만 하라! 당신의 눈을 장식할 필요가 없다. 그냥 열기만 하라!

눈이 건강할 때, 빛을 받아들이고 빛 안에서 기뻐한다. 눈은 외부의 사물의 형상을 내부의 마음 속에 전달한다. 만약 주께서 그분의 큰 은혜 가운데 당신의 눈을 한결같이 만드셨다면, 그로써 당신은 진리를 알기만을 갈망하며, 수고와 노력 없이, 당신은 진리를 알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될 것이다. 창문이 열려 있을 때 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빛이 들어올 때, 당신은 그것을 안다. 밝은 빛이 어둠을 내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을 모르고 어둠에서 빛 안으로 통과하기란 가능하지 않다. 그 동일한 밝은 빛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빛나는 빛은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빛 비춘다. 밤이 더 어두울수록 빛은 더 광채를 낸다 (요한일서 1:5-7).

75 장. 독선주의—누가복음 11:37-54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찌니라. 화 있을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 있을찐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 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찐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찐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도다. 너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렸으되, 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꺾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찐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누가복음 11:37-54).

나는 심판의 날에 독선주의라는 죄로 그분 앞에 서기보다 어떤 범 죄에 대한 유죄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설 것이다. 독선주의는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한 시도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는 것이다. — 사람들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위선적인 주장이다. — 사람들이 죄의식의 양심의 내적 괴로움을 침묵하게 하려는 그것은 종교와 경건의 큰 소음이다. — 독선주의는 어리석은 자들의 종교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40 절) — 그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시대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르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오늘날 부르는 것이다. 이기적이 되는 것은 약간의 지혜를 택한다. 그러나 독선적이 되는 것은 완전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무지를 택한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라고 사용한 말은 산상수훈에서 사용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이 아니다 (마태복음 5:22). 이말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부인하였던 자들을 묘사하려 사용했던 말이다 (고린도전서 15:36). 그 의미는 “생각이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다! 실로 스스로가 의로운척 하는 자들은 모두 완전히 생각이나 깨달음이 없다!

독선주의만큼 우리 하나님께 경멸스럽고, 추악하고, 불쾌한 것은 세상 전체에 없다 (이사야 65:2-5). —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7). 하지만,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우리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도록 초대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분이 그곳에 계시는 동안, 종교적인척 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그분에게 독선적인 성격과 어리석음을 보이는 바로 그 배경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누가복음 11:37-54 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그림이다.

말씀의 전통

독선주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염려한다. — “잠수지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38 절). 그리스도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것에 대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신적인 열심 속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목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욕(씻음 - 침례)하는 것까지 갖고 있었다 (마가복음 7:3-4). 그렇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의 전통이 가리켰던 의식적 정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전통을 더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종교적 전통을 덧씌우므로 바리새인들의 이 악한 예를 따른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보다 전통을 우월하게 만든다. 세상 주변의 교회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신경과 고백들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통을 두면서, 그것으로 그들은 믿어야 할 것과 실행해야 할 것들을 결정한다. 종파적 관습들을 엄격하게 따르며, 한편으로 하나님의 책은 무시된다. 하나님의 계시보다 역사적 신학이 믿음의 기초가 된다. 성경보다 교회 언약들이 교회 지체들이 통치받아야 할 통치가 된다. 종교적 금기들이 세대를 이어서 사람들 위에 지워지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금기들이 교회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수단이 된다. 모든 바리새인들의 신조, 독선적인 종교의 신조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골로새서 2:21).

그분의 성품의 하늘에 속한 참된 신성 가운데, 우리 주께서 계획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무시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의 전통과 관습에 사로 잡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자들은 실로 자유하다!

여기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와 거룩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형체이신 분이 있다. 하지만, 이 독선적인 위선자는 공개적인 식사에서 그 손을 씻는 하찮은 관습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그분을 죄인으로 심판하였다!

외면 혹은 내면

독선적 종교주의자들은 마음의 믿음과 경배보다 경건의 외적 형태에 언제나 더 관심한다. —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39 절).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하여 살지, 하나님의 열납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종교이다. 모든 위선자들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들은 비록 그들의 마음이 사악함으로 충만하지만, 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행위에 있어서 그분을 부인한다 (디도서 1:16). 그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임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임을 부인한다 (마태복음 15:19-20). 그들은 경건의 큰 과시를 하지만,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그들 자신이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이 종교를 실행하고 의무적으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부인한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말을 하지만, 기도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 그들은 교회를 가지만, 경배에 대한 것을 모른다. 그들은 십일조를 드리나, 주는 것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참 종교, 참 경건은 공예배와 복음의 규례의 준수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 참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에 기뻐한다. 그러나 우리 종교는 외적 과시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적이고 영적이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마음의 문제이다.

영적 무지

독선주의는 언제나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부 무지하다. — “어리석은 자들아!” — 영적인 문제에 이를 때, 그들은 생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나는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뛰어나다. 나는 그들이 정통적이지 않다고 조차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주 철저히 정통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죄, 의, 혹은 구원에 대하여 어떤 것도 깨닫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도 모른다.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은 종교적인 말과 관습과 전통과 사실들이다. 그들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무지하므로, 그들은 그들이 선하다고 헛되이 상상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하므로,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한다 (로마서 9:33-10:4). 독선적인 종교주의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외적 행위를 보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따라서 그 마음에 눈이 멀었다!

타락한 사람은 그 자신의 의가 없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성격, 하나님의 의의 요구,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성취에 대하여 무지하다. 하나님의 의와 그 자신의 죄로 충만함에 대하여 무지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므로, 타락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고 있다. 타락한 사람은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를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에 맞추려 바라고 있었다. 그의 장자는 그의 타락한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본과 본성을 따라갔다. 가인은 하나님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으며, 그것은 그 자신의 손의 수고로 생산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몹시 싫어하셨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의가 없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를 산출하기란 철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때까지 결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타락하고, 무지하며, 죄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 애쓰는 헛되고 쓸데 없는 행위를 계속한다. 그들의 부패한 마음의 가마와 모르타르로 더러워진 손의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며, 자신들을 하늘로 데려다 줄 바벨탑을 지으려 한다. 율법 순종, 도덕적 개혁, 개인적 희생, 자기 부인, 헌신, 성례, 참회와 종교적 열심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의를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드리는 것은 마치 불결하고, 버려지고, 역겹고, 생리가 묻은 옷을 참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과 같다 (이사야 64:6)!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완전하지 못한 어떤 것도 열납 하지 않으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3:10). 타락한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의를 산출할 수 없다 (마태복음 15:19). 썩은 샘은 순수한 물을 솟게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동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위한 속량을 만들 수 없다 (히브리서 10:11). 심지어 사람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의를 행하기 시작할 수 있다 해도, 그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유죄이고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에서 하나님께 결코 열납 받을 수 없다.

주 예수께서 선포하신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20). 우리는 완전한 의를 가져야 하며,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한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택 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얻은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 위에 대가 없이 부여된다 (로마서 3:22).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벌 수도 없고, 그것으로 공을 돌릴 수도 없으며, 그것으로 얻을 수도 없다.

마음에 품은 사소한 일들

독선적 종교주의자들은 언제나 사소한 것들에 말이 많은 자들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무시한다. 독선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그들의 죄와 실수와 잘못과 오류들에 대한 속량으로 만들려 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찐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찌니라.” (40-42 절).

그들은 자선을 하고 그들의 큰 박애에 대하여 매우 좋게 느낀다. 41 절은 천거가 아니라 고발이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다. “어리 석은 자들아! 너희 잔과 접시를 씻고, 과부의 집에서 게걸스럽게 먹으면서 그것들을 채우고, 그런 것들을 마치 너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자선을 하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무지하게 상상하는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무시하면서 그들은 십일조 (실 수령액이 아닌, 총액에 대해서!) 를 낸다. 독선적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공의롭고 오직 공의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독선적인 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미워한다. 종교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은 주도 면밀하게 정통적이며 동일하게 악의적이다! — 그들은 교회 질서와 규율의 통치를 맹렬히 따지고 복음을 무시한다! — 그들은 체제에 대하여 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간과할 것이다! — 그들은 교회를 가를 것이고 시편이나 찬양을 노래하면서 새로운 종파를 시작하고, 결코 형제 사랑에 대하여 생각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가운데에서 신부를 취하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후, 그들은 가인이 그의 신부를 어디서 취할 것인지를 토론하기 원한다!

인정과 찬양

독선은 사람들의 인정과 찬양을 좋아한다. — “화 있을찐저 너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43 절). 위선자는 종교적이지만,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하고 그의 자만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돕는 한에서 뿐이다. 그는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을 꾸미려는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는 교리로서 장식되려 한다. 만약 그가 교회 안에서 책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의 고결함에 더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의 집에서 그의 자리에서 거의 나오지 않겠지만, 그의 신은 그의 배이다. 그는 만약 그가 다른 자들의 아침을 받을 수 있다면 종교 안에서 매우 열심이 될 것이다.

혹자는, “위선자는 반딧불과도 같다. 그것이 빛과 열을 모두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만졌을 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부패를 덮음

독선주의는 언제나 위선적이다. 그것은 단지 내적 부패를 덮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독선은 실로 자기 멸시의 체현이다. 독선주의의 큰 목소리는 인간의 죄 있는 혼 안에 있는 혼란을 침묵하게 하도록 계획되었다. — “화 있을찜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4 절).

우리가 공도요지를 지나갈때 무덤과 묘지 속의 악취와 부패에 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무덤과 묘지들은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씻은 호박은 여전히 씻은 호박일 뿐이다. 위선자는 그의 동료에게 어떤 걸림도 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 않으려고 세탁하여 관리하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무엘상 16:7).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심중의 숨은 자는 주의 눈 앞에 벌거벗었고 아무것도 거리지 않았다 (시편 7:9). 위선자는 “사람들 가운데 높이 칭찬 받는” 것을 위하여 살지만,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높이 칭찬 받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누가복음 16:15).

그리스도에 의해 마음 상함

독선주의는 그리스도에 의해 언제나 마음 상한다. —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 이다.” (45 절). 십자가는 언제나 독선적인 사람들에게 곁림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곁림이 되기 때문이다. 독선적인 자는 우리 주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에 마음이 상한다. 복음 안에서 계시된 모든 것이 그들을 질책한다 (하나님의 주권 — 완전한 타락 — 무조건적인 택정 — 제한된 속량 — 거절할 수 없는 은혜 — 성도들의 인내 — 대속에 대한 믿음 — 대가 없는 칭의 — 전가된 의 — 계시에 의한 지식).

지워진 율법

독선주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스스로 변명하는 율법과 법을 지운다. — “가라사대, 화 있을찐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6 절). 독선적인 행위 주장자들은 안식일 준수에 대하여 크게 논쟁을 일으키고, 일요일에 사람들을 교회 가는 것에서 식당에 내던지거나, 일요일에 있는 축구 경기를 보게 한다. 하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만, 구약 성경, 즉 유대 율법으로 사는 척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 지우는 바로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없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한다.

박해

독선주의는 박해의 어머니다.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은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높이면서 그들 자신이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박해자들이기도 하면서 죽은 선지자들의 기념비들을 세웠다.

“화 있을찐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도다. 너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47-51 절).

믿음을 방해함

독선주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 “화 있을찐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52 절). 종교를 실행하고, 종교적 관습을 지키며, 신조를 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키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 위원회와 교파와 성경 대학과 신학대학을 세우는 한편, 이 세상의 종교적 위선자들은 지식의 열쇠 그리스도를 없애 버린다. 그들은 좁은 문,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가기를 거절한다. 그리고 그들은 길에 서서, 문을 가로막으며, 다른 사람들이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언제나 기만적

독선주의는 언제나 기만적이고, 음모를 꾸미고, 손이 모자르고, 결코 공개적이고 공명정대 하지 않다. — “화 있을찐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53-54 절).

한번은 Anchorage, Alaska 근처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나는 술집 입구에 걸려 있던 큰 간판을 보았다. 그것을 읽을 때, 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 입구 위에 걸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가 그것을 읽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었다. — “만약 머리의 후광을 너무 짝 끼게 하면, 나머지 우리에게 두통거리가 될 것입니다.”

76 장. 주의 친구들을 위한 말씀—누가복음 12:1-7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 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앓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12:1-7).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의 친구들을 향한 말씀이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고, 그분에게 역겨운 고소를 퍼붓기 위한 거창한 근거를 찾는 한편 (11:54),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마디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였으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랐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사람들과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이 선택하였고 보냈던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이 구절들에 포함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기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일곱 가지 문장으로 제시할 것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이 되는 전도자였다 (1 절).

이 첫 번째 공과는 그분의 말씀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행동에서 택한다. —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만큼 되었다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 하라.” (1 절).

우리 주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그분의 백성의 행복을 염려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파멸을 찾고 있었던 동안, 그분의 마음과 생각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로 차있었다. 그분의 모든 생각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그분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지키기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염려하셨다.

그분이 그 어떤 본이 되는지. 나는 그분이 나를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에 완전히 헌신하는 전도자이고 목사로, 사람들의 혼을 섬기며,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 만드실 것을 기도한다!

이제, 주를 바라보라. 언급한 것처럼, 그분 주변에 그야 말로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이 어떻게 말씀 하셨을까? 여기 사랑의 성육신이신 하나님, 이제까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인간을 완전하게 사랑하였던 유일한 인자가 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분명 모든 전도자가 그분을 따라할 만큼 지혜롭게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대표했던 종교에 대한 엄하고, 공개적인 비난으로 시작하셨다. 가차 없이, 위축되지 않고, 편파적인 것이 없이, 그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철저한 위선자들로 비난하셨다. 만약 복음 전도자들이 도처에서 그분의 본을 따른다면 오늘날 얼마나 다른 것들이 존재하였을 것인가!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인정보다 더 관심을 두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혼의 행복을 그들의 칭찬보다 더 염려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 자신의 명성과 안전과 안락보다 더 관심하셨다. 여기 두 번째 공과가 있다:

2. 우리는 지속적으로 위선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1 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아니고, 군중을 향해서도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에게 향하여 하셨음을 주목하라. 이들은 그분께서 그분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선택하셨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거창한 계략들과 술수들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분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처럼 오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계략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아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 하라.” — 그가 말씀하시는 이 경고는 우리 앞에 모든 경계 위에, 모든 신호 위에, 모든 것 앞에 위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 할 이 누룩을 언제나 주의하라: — 위선!

교리와 행위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종교 전체가 경건의 외적 모습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그들의 종교 전체는 외적이고, 사람의 인정을 위하여 계획되었고 실행되었다. 그것은 모두 모양 뿐이다.

우리 주는 그것을 누룩에 비유하신다. 비록 아마도 처음에는 아주 작으나, 그것이 점차 커지고 스스로 퍼진다. 누룩처럼, 그것은 숨겨지고 덮여 있고, 쉽게 분별되지 않는다. 그 제전과 영향과 결과는 공명 정대하지 않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그것은 인간 전체의 원칙과 실행들을 오염하고 부패시킨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아무 것도 아닌 것같이 교만으로 사람에게 바람을 불어 부풀게 한다. — 보여주기 위한 것이 분명하게 의도된 모든 교리와 종교적 실행을 경계하라. — 과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경계하라. — 다른 모든 것보다, 그런 것들로 당신 자신이 기울어지는 경향을 경계하라!

만약 우리가 위선의 위험, 자기과시의 죽음의 전염병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일하고, 신실하며 공개적이고 정직하기를,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언제나 찾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1:2-3).

3.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v. 2).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자가 가졌던 생각은 우리가 마음 속에 두기를 그분이 의도하셨던 문제였다 (마태복음 10:26; 마가복음 4:22; 누가복음 8:17).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 이것이 위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경고인지! 그것이 참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위안인지! 옫과 사도 바울 모두 그 큰 날에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큰 기쁨에 대한 일로 생각하였다 (옫 16:19; 고린도전서 4:3-4).

4.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는 것이다 (v. 3).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을 계시하셨는가? 그러면 그것을 집 위에서 선포하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5-17)

5.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친구로 삼으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들 멧이 있다 (v. 4).

4 절의 시작 행을 보라. —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놀랍지 않은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그분의 친구로 삼으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그분의 친구로 삼으신다!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시다. 기뻐하라! 그분은 형제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는 친구이다. 감사 드러라! 그러나 여기 또 다른 것이 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친구로 삼으셨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14-15).

6. 인간의 두려움처럼 우리 충성됨과 쓸모 있음에 그런 파괴적인 것은 없다 (vv. 4-5).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인간의 두려움은 노예 신분이다. 인간의 두려움을 위하여 존재하는 유일한 치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생명과 사망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그분의 손 안에만 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뜻과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배워라. — 지옥과 영원한 심판과 진노는 실제이다.

7.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vv. 6-7).

“참새 다섯이 앓사리온 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무 것도 무엇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지시가 없이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되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진리이다. 가장 큰 행성에서 아주 작은 별레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 안에 있는 질서와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망원경이나 현미경처럼,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우리 일상 생활의 모든 일들 가운데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질서와 은혜로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창조나 이 세상을 통한 우리 여정 가운데 “은혜”나 “운”이나 “우연” 같은 것들은 없다. 모든 것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안배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 선을 위하여 “합력한다” (로마서 8:28; 11:33-36).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거하는 느낌을 갖도록 구하자. 우리 아버지의 손은 우리의 매일의 분깃을 측량한다. 우리 모든 발걸음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 의해 명령 받는다.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한 섭리에 대한 확신은 투덜거림과 불평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이다. 시험과 실망의 날 가운데, 기쁨과 행복의 날 가운데처럼,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우리가 질병의 침상 위에 눕게 되었을 때, 그것을 위하여 “할 필요가 있다”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 혼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를 확신시킬 것이다. 엎드려 잠잠하고, 모든 것을 끈기 있게 품자. 우리의 소유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 하다 (사무엘하 23:5).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진실로, “그가 다 잘 하였도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다 잘 하실 것이다.

77 장. 두 가지 경고와 하나의 약속—누가복음 12:8-12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8-12).

우리가 읽은 단락은 어떤 “알기 어려운 것”(베드로후서 3:16)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본문 안에서 다뤄지는 원칙적인 것은 “성령을 훼방하는 것”(마태복음 12:31)이다. 이것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주제이다. 그것에 대한 최선의 가장 충분한 설명은 내 의견에 포괄적인 것과 만족한 것에서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 주제의 깊이를 짚 수 있을 것에 대한 어떤 망상도 없다. 내가 신성한 계시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생각이 미치는 것을 넘어선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결코 놀라면 안 된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곳이 여기 저기에도 없다면,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걸려서 넘어지기 보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생각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에 속한 그 계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때, 혹은 우리 우둔한 머리에 분명한 계시의 문제들에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이심을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좀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성경을 향하여 존경심을 갖고 머리 숙이자. 신성한 진리에 대하여 결코 추측하거나,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분을 부인함

8 절과 9 절에서 우리 주께서, 참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것임을 가르치시며, 그분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당신이 구원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 (마태복음 11:28-30). 주 예수께 나오지 않고서 구원은 없다. 나는 종종 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문을 받는다. “어떻게 그리스도께 나오니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께 나오며, 다만 나오라. 이렇게 그리스도 나오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다. 만약 당신 구원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당신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녀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다.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개인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멸망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 나온다면, 당신은 신실하게 와야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길이심을 납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에 사랑과 충성으로 동의해야 한다. 그분은,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잠언 23:26). 그것은 이 하늘의 혼인 가운데 중심이든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런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문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제이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는 이성적으로, 지식과 깨달음 가운데 그렇게 행한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디서 구원 하셨는지 안다. 그분은 나를 죄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원하셨다. 나는 누가 나를 구원 하였는지 안다 —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사람이다. 나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 하셨는지 안다. 그분은 나를 은혜로만,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 하셨다. 그리고 나는 왜 그분이 나를 구원 하셨는지 안다. 그분은 “그 기쁘신 뜻대로”(에베소서 1:5) 그렇게 하셨다 (은혜, 은혜, 그리고 더 많은 은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또한 안다: —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온다면, 당신은 결코 그분께 오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오며,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죄인들이다 (베드로전서 2:1-4; 골로새서 2:6). 믿음의 은사는 은혜의 영원한 은사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영원히, 그분을 떠날 의도 없이 온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그분에 의해 결코 버림 받을 가능성이 없이 나온다.

그리스도께 나오면서, 우리는 그분을 고백한다 (로마서 10:9-13). 우리는 하나님, 교회, 그리고 믿는 자의 침례 가운데 세상 앞에서 우리 구원자를 고백한다 (로마서 6:1-6). 그리고 우리는 일상 대화 가운데, 그분의 경이롭고, 대가 없고, 구원의 은혜에 속한 다른 것들에 증언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한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분은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분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었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부인하기를 계속하는 자, 그분을 단호하게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디모데후서 2:12; 요한일서 2:23).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늘 조심하자. 나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고, 많은 종교적 소음을 만들거나, 우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불쾌하게 난처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거나,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강요 하므로써, 누구든 어떤 것이든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그분을 고백하라.

내가 나는 곳마다 내 아내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녀에 대하여 말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녀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면, 내가 그녀의 존귀함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부끄러웠을 것이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녀와 그런 침묵을 보았던 모든 사람이 그녀에 대한 사랑을 내가 고백 하였던 것을 의심스러워 할 모든 이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결코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손길에 당신이 체험한 선하심과 긍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앞으로 올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비겁과 위선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그분은 우리를 소유 삼기를 거절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탄원을 거부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한 변론자가 되기를 거절하실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0 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물론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 받지 않을 그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나는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와 같은 것이 있다. 그분이 땅 위에 계셨을 동안 인자에 대항하여 말 하였던 많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후에 변화되고 용서 받았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들은 영원히 저주 받는다 (마태복음 12:31-32; 마가복음 3:28; 요한일서 5:16).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하여 우리 주께서 하신 것보다 더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무엇이며, 결코 용서 받지 말아야 할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이 무엇인가? 이 죄가 아닌 것을 성경에서 보여 주기란 어렵지 않다. 그 어려움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준다.

우리 구원자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없고, 완전하며, 절대적이고 영원한 용서를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 “사람의 모든 죄와 뉘앙은 사하심을 얻되.”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얼마나 지독하든지 간에,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간에, 그 죄들이 얼마나 오래되고 새로운 것이든지 간에, 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7).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용서 받을 수 없는 한 특정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것은 “성령 모독”이라고 불린다. “성령 모독”이 무엇인가? “성령 모독”은 무지의 죄를 포함하지 않는다. “인자를 거역함”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간과 되어서는 안 된다.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죄는 그분이 메시아 이심을 모르는 자들에 의한 무지에서 저질러 졌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았고, 오직 반대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소의 사울처럼 (디모테전서 1:13) 무지하게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2:8).

이 성령에 대한 죄와 모독은, 우리 구원자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의도적으로 불신과 끈질긴 고집을 부리고, 의도적으로 그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결과적으로 불량한 생각으로 넘겨진 사람들에게 의해서 저질러 진다. J. C Ryle 이 그것을 정확히, “그것에 대한 의도적 거절과 함께 복음의 가장 분명한 지혜의 연합, 그리고 죄와 세상의 의도적 선택.”이라고 보았다.

John Gill 은, “그것은 성령의 은혜에 대한 악의적인 이용이고, 역사된 운행에 대한 반대와 모순과 부인이거나, 그분에 의하여 계시된 교훈이며, 사람 자신의 빛과 양심에 거스르는 것이며, 의도적이며 다루기 힘든 고집에서 기인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축하려는 계획에 기인하고, 인간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런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였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역사하였던 그리스도의 기적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악에게 그들을 적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전가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흐리게 하려는 관점을 갖고, 그들 자신의 사악한 욕정을 즐긴다.”

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의도적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죄인들의 구원자임을 충분히 확신하는 자에 의한 고의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이다. 그것은 주이신 그분께 머리 숙이는 것에 대한 의도적인 거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그것을 남겨두는 것이라기 보다,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옥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꼭대기에서 달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자들은 대부분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경 안에서 언제나 탕자로 묘사된 그 사람들을 특정 짓는 한 가지 사항은 무감각하게 된 양심의 결과인 무감각과 뻔뻔함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질책 가운데 포기하실 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

롯의 아내, 바로, 사울 왕, 아합, 그리고 가롯 유다는 모두를 경고하기 위한 신호로 자리 한다. 그들 각자는 아주 분명히 알고 있다. 여전히, 그들 각자는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 머리에 빛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에 어둠이 있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들 각자는 오늘날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멸시하는 것을 조심하라. 진리를 아는가?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빛 가운데 행하라. 그것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유일한 안전장치이다.

이것과 또 그에 대한 우리 주의 다른 경고들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령에 대한 모독은 바리새인의 현저한 범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거절이며,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주장에 대항하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마음의 뻔뻔함이다 (고린도후서 2:14-16; 잠언 1:23-33; 29:1).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은 그들 혼 안에서 공포심으로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나는 성령에 대하여 이 모독을 범하지 않았는가?” 당신에게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죄는 마음의 철저한 사망과 뻔뻔함과 무감각에 의하여 동반되는 죄이다. 그 죄가 결코 용서 받지 않을 사람은 엄밀히 그의 죄들을 용서 받기를 구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죄의 바로 본질이다. 하나님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셨다! 그는 “두 번 죽었다!” 죄가 확고해지면 복음이 냉혹해지며, 그의 양심은 뜨거운 쇠로 무감각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4:2).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다루는 것처럼 어리석게 되지 말라. 지금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분을 지금 신뢰하라.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

11 절과 12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필요한 시간에 돕기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시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자매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 계신 것처럼 확실하게, 당신을 시험에 이르게 하신 그분이 그 시험을 당신이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행하셨던 것이 분명하게 될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이 인내하게 허락 하시면서, 당신이 그분을 섬기게 허락 하시면서, 당신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허락 하시면서 주실 것이다. —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78 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누가복음 (12:13-21)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주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13-21).

우리 앞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다. 그것은 비록 그 두 가지가 나뉠 수 없지만, 부와 경건을 혼합하려는 사람의 자진한 충격적인 예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들은 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분께 그의 일시적인 일들에 대하여 도와 주실 것을 요구 하였다는 것을 듣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에게 주셨던 것을 원했던 한 사람이 있다 (13 절). — 그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얼마나 그가 주 예수에 대하여 거의 몰랐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에 대하여 몰랐던가! 그는 아마도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려 하셨고, 단지 땅의 군주로서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분명히 그분을 랍비로, 존경 받는 종교 교사로서 여겼다. 따라서, 그는 세상적인 상속을 확고하게 하는데 주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탐심을 채워주도록 하였다. 그는 올 세상에 그 마음을 두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현세의 멸망하는 세상과 그 부를 위한 탐심으로 휩싸였다. 다윗이 사악한 자의 번성을 시기 하였을 때, 그의 혼은 그의 탐심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시편 73).

이 사람 같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많은 사람이 때에 관한 것들, 심지어 영원한 것들에 대한 바로 그 소리 아래에서 끊임없이 계획하고 모의한다! 인간의 천연적인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전도에 있어서 조차도 모든 청중들의 주목을 사로잡지 않는다. 현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가련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수고하는 혼이 세상적인 것들로 허비하는 자들을 보는 것에 절대로 놀라지 말아야 한다.

국사에 개입된 종들에게 여호와의 의를 받게 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 (14 절). — “이르시되, 이 사람아 주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모든 복음 전도자가 여기서 우리 주의 행동을 흉내 내려 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가자. 전도자들이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으면 않을 수록, 더 좋다. 그것은 대부분 특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문제들에 적용된다. 복음 전도자는 그런 허튼 소리에 자신을 개입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도를 제외한 어떤 일을 맡는다면, 고통스러운 것이 복음의 일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한 가지 일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오로지 그 한 가지 일에 제한하도록 하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도록” 하자.

여기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다. —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바라 보았다. 그는 그의 보화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소진케 하는 생각이었다. 그는 그의 재산을 그의 수고의 열매로 바라 보았다. 그는 그의 공간에 그의 재화를 쌓아두었다 — 땅에 있는 전체를!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5-18 절)

이 사람의 요구에 대답하시면서, 주 예수께서 탐심에 대한 아주 확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한 경고를 말씀하셨다. —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 마음이 탐심보다 더 쉬운 악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타락한 천사들을 내 쫓은 것은 탐심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처음 상태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나은 것을 탐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 쫓고 세상에 사망을 가져 왔던 것은 탐심이었다. 우리 첫 번째 부모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욕심을 부렸고, 따라서 타락하였다. 타락한 이후 이 세상에서 비참하고 불행의 원인이 되어 왔던 것이 탐심이다. 모든 종류의 전쟁, 반목, 다툼, 불화, 분열, 시기, 분쟁, 질투, 증오는 공개적이든 사적이든 거의 모든 것이 이 악취가 나는 이에 기인할 수 있다.

주님의 경고를 듣도록 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게 되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자.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11)라고 썼을 때, 바울이 배웠던 공과를 배우기를 힘써라. 우리와 관련한 하나님의 모든 안배 가운데 그분의 완전한 지혜를 신뢰하며, 우리의 세상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의 철저한 확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좋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소유한 것이 빼앗긴다면,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다. 행복은 무엇이든 최선인 것을 확신하고, 더 많은 것을 헛되이 바라는 것을 그친 자들이다. 그 사람과 그 사람만이 “있는 바를 족한 줄 안다.” (히브리서 13: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상숭배는 많은 포장으로 오고 많은 이름을 입지만, 그러나 아무 것도 탐심보다 더 기만적이고, 위험하며, 파괴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쳐라”고 경고 하신다 (골로새서 3:2-5; 에베소서 5:5; 디모데전서 6:10-11).

탐심은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맹렬한 갈망이며, 이 세상의 부와 쾌락과 안위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집착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돈을 탐하며, 다른 사람은 그 칭찬을 탐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탐하며, 다른 사람은 그 안위를 탐한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다른 사람은 그의 쾌락을 탐한다. 그러나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 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들이 얼마나 바보들인가!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위험, 즉 이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경고 받는 것이 충분할 수 없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31). 이 세상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 더 짝 움켜쥐면 쥘 수록, 더 빨리 빠져 나간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구한다면,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24; 야고보서 4:4; 요한일서 2:15-17).

“우상숭배인 탐심”보다 우리 혼을 더 파괴하는 것은 없다! “우상숭배인 탐심” 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사람에게서 더 효과적으로 가로 막는 것은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8:18-26). “우상숭배인 탐심”보다 더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없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말씀을 막는다” (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태복음 13:22).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란다: —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사탄의 덫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위에 것에 애착을 두고 적절하게 우리의 우선 순위를 취해야 한다. 당신이 신뢰 받았던 그런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환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려 깊은 관심을 사용하라. 관대 하라. 당신의 풍성함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늘 섬기며 세상에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관대하게 공급하라.

**참 행복은 부에서 오지 않는다
참 평강은 결코 살 수 없다;
당신이 바라는 만족은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에 속한 우둔함을 분명하게 보여 주신다. 그분은 어리석었던 부자에게 이 비유를 주셨다¹³. 그의 마음과 생각은 땅에 속한 것들에 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는 길을 기획하고 계획하였다. 그는 마치 그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단지 “내가 어떤 것을 할 것이다.”고 말했던

¹³ 부자는 “나의” 곡간, “나의” 소출, “나의” 물건에 대하여, 모든 자만과 자신의 것 외에 아무런 뜻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 외에 아무런 주인도 모르는 자의 하찮은 중요함으로 언급한다. 그것은 사무엘상 25:11 에 있는 나발의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에 대하여 역시 기록되기를, “어리석음이 그의 이름이고, 우둔함이 그에게 있다.” (사무엘상 25:2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리고 장면이 바뀐다. 하나님께서 속물의 혼을 요구하셨고, 물으셨다.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리석은 자”는 그 자신의 돈 외에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행위를 묘사하기 위하여 맞는 말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하신 자이다.

우리 주께서 이 비유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특징은 매우 평범하다. 세상의 각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죄 받은 바로 그 것들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살아 왔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 보화를 쌓으며, 그들의 부를 늘이기 위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하여 마치 그들이 그것들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고, 올 세상이 없을 것처럼, 그들의 부를 더한다.

이 사람들은 영리하고, 신중하고, 지혜롭다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치켜세워 지며, 훌륭하다고 받들어지는 자들이다! 참으로, “주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무엘상 16:7). 주께서 오직 이 세상 만을 위하여 사는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선포하신다!

부유함보다 사람들의 혼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가복음 10:25; 마태복음 19:24; 누가복음 18:25). 부유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받은 자는 더 큰 위험 안에 있다. 아주 저명하고, 부유한 사람이 그의 임종에 말했다. “하늘은 왕들은 거의 없고 부자들이 오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부자들이라 할 지라도 큰 짐을 짊어지고 크게 불리하게 하늘로 달리는 경주를 한다. 돈의 소유는 양심에 담금질 효과를 갖고 있다. 우리가 부자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게 될지 우리는 결코 모른다. —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디모데전서 6:10). 가난은 많은 불리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부는 위험하다.

여기 자신의 혼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19 절). 아, 그렇게 자신의 혼에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읽으니 얼마나 슬픈가! 어떤 사람이 말했다. “만약 이 사람이 돼지의 감각만을 갖고 있었다면, 그가 다른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는가?”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부요하고, 의로운 행위에 있어서 부요하며, 지식에 있어서 부요하고, 은혜에 있어서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아무 것도 좋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좋아”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의 대가 없는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그들이 가난하고, 하늘에 있는 부를 구하는 것을 안다.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의에 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6).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 사람이 있다 (20 절). —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나와 당신의 혼에 대한 질문이 있다: —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0-21 절).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들은 복이 있다! 아 내 혼이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를 구하라! 이것이 참 지혜이다. 이것이 올 때를 위하여 참되게 예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순수한 현명함이다. 지혜로운 자는 오직 땅의 보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화를 생각하는 자이다 (마태복음 6:31-33; 골로새서 3:1-3).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언제 그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을 때인가? — 그가 은혜 가운데 부요하고, 믿음 가운데 부요하기 전까지는 절대 아니다. — 그가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에게서 불로 연단된 황금을 살 때까지는 결코 아니다 (계시록 3:18). —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할 때까지는 결코 아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생명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책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읽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그가 모든 부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인정한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는 하
나님의 섭리를 의지한다. 그는 존귀와 영광, 복음의 확장, 그리고
사람들의 혼의 선을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사용하기를 구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
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부요함을 관심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였다! — 그런 사람이 참되게 부요
하다!

- 은혜로 부요함 (에베소서 1:3)
- 은혜 안에 부요함 (갈라디아서 5:22-23)
- 용서함으로 부요함
- 의 가운데 부요함
- 영광 가운데 부요함

그런 사람은, 말하지만, 참으로 부요하다! 그의 보화는 썩지 않
는다. 그의 은행은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 그의 기업은 사라지지 않
는다. 사람이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사망이 그것을 그
의 손에서 낚아챌 수 없다. 모든 것이 이미 그의 소유이다: — 생명,
사망, 현재의 것들, 미래의 것들 (고린도전서 3:23). 모든 것 중 최
상은 그가 지금 소유한 것이 그가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에 비하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영원한 부요함은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죄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그것들이 당신의 소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에게, “네가 부요하도다” (계시록 2:9; 요한일서 2:15-17; 디모데전서 6:6-11, 17-19; 잠언 21:26; 전도서 5:10; 욥기 21:7-15; 잠언 8:18-21) 고 말씀 하실 때까지, 결코 안심하지 말라.

79 장.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누가복음 12:23-31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23-31).

이 단락에서,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우리 혼을 관심하고 우리 죽지 않을 혼의 영원한 이익을 위하여 관심하도록 하신다. 우리 자신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 마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하나님을 향한 관계여야 한다. 솔로몬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23).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을 가꾸는데 큰 관심을 가지지만, 혼의 장식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몸을 먹이는 것은 많은 염려를 포함하지만, 영적 양식의 공급은 무시된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우리가 한동안 거하려는 거처일 뿐이다. 우리는 산 혼이다! 그 혼은 불멸한다. 육신은 곧 벌레들을 위한 음식이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36-37)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우리 존재의 더 높은 부분과 더 고귀한 부분에 주목하기를 요구하시며, 우리 혼이 올바른 상태 안에 있기를 바라보게 하신다. 여기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 혼이 모든 것이 좋음을 확신시킬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나 이 단락 안에 있는 우리 주의 가르침은 우선적으로 우리 삶의 매일의 일 가운데 그분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안락을 누리는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며, 한편으로 많은 어려움에 고통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 환경은 실제에 있어서 우리 삶과 거의 관계가 없다.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환경은 일시적이고 속히 변한다.

마음의 행복과 만족과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존재, 우리의 마음의 건전함, 우리의 생각 속에 발견된다. 속사람은 우리 외부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각자의 기쁨이나 슬픔과 관련이 있다.

감옥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둘러 보기에 넓은 부동산에 완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 왔다. 어떤 사람들을 알았는데, 그들의 영이 주변의 모든 것이 그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을 때 승리 한 자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분명하게 마음에서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였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이다.

주된 것은 마음이고, 생각이며, 혼이다. 당신의 내적 자아는 당신에게 한 낮의 빛이나 한 밤중을, 부나 가난을, 평화나 전쟁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더 좋게 하려는 시도로 보내는 우리 혼의 시간과 정력과 관심의 절반을 들인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있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우리 환경에 맞추려 애쓰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환경을 맞추는데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할 수 있는대로 시도하라, 당신의 운이 던져진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의 안배를 바꿀 수 없다.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 바꾸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물론 그럴 것이다!

내적 행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책 안에서 성경의 감동 받은 기자들이 어떤 옛 저자가 “내적 행사”—사람 자신의 마음 속에서 행해진 일—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자신을 분주하게 하였다는 것을 주목한 적이 있는가?

다윗이 시편 103 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말한다. 이 내적 행사는 언제나 최선을 지불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설교 가운데 계속하여 우리가 그것에 기울일 것을 촉구하신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1) 잠시후, 그분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33)라고 하셨다. 그분은 모든 세대에 있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다. 바다의 모든 물은 배를 바다 밖에 두는 한 당신의 배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위험은 배에 올라 탔을 때 시작된다. — 속에 있는 것이 모두 랜찮다면, 당신 밖에 있는 것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 속에서 하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달콤하게 노래하도록 하며 우리 혼 안에 “마음의 평강”의 꽃을 피우게 하는 한, 우리는 근심의 광야, 염려의 사막, 그리고 분노하는 환난의 바다 한 가운데에서 평강과 만족과 기쁨 속에 있을 수 있고 있게 될 것이다.

C.H. Spurgeon 은, “불행의 태풍은 당신을 칠지 모르나, 축복의 모든 요소가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 있으므로 당신은 축복 받은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것들을 주셨으며, 마귀 자신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것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근심스러운 생각

이것은 당신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29 절). 이 구절에서 우리 주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매우 이례적이다. “근심스러운”이라고 번역된 말은 신약 성경 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의미는 “공중”이다. 그것이 유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 듯이 보이며, 그래서 그 단락은, “너희는 유성같은 마음이 되지 말라.”고 번역될 수 있다. 보다 축어적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당신의 생각을 구름 속에 두지 말라.” 혹은 “구름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로 읽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 주의 말씀은 긴급한 명령이다. 그분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 속에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들처럼 경박하고 안정되지 않게 사는 것을 그치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환경의 바람에 따라 공중에 있는 구름들처럼 너희 생각을 이리 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근심스러운”이라는 말은 내게 그것을 해석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의미로 아주 가득하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를 당신에게 분명하게 제시할 것이다. —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를 멈춰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염려를 멈춰라. 걱정을 멈춰라. 당신의 외적 환경으로 위 아래로 튕기지 말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창하게 하신다면, 당신이 하늘로 솟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만약 그분이 당신을 비우신다면, 당신을 침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작은 기쁨을 보내신다면, 당신의 머리를 구름 속에 두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만약 그분이 당신에게 압박과 비통을 보내신다면, 당신의 머리를 먼지 속에 두도록 허용하지 말라. 외적인 일들로 지나치게 영향 받는 것을 멈추게 하라. 근심을 멈춰라. 당신의 마음이 초조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당신의 환경에 대하여 당신이 염려하는 것을 그만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옹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4-9).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1-3).

누가복음 12:29 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금지명령의 의미는, “당신의 일시적인 사정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이다. 신중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돈을 소비할 권리도 없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것조차도 낭비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조심하고 지각이 있어야 한다. 모든 믿는 자는 그가 단지 청지기일 뿐이며, 그가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로써 얻은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의 주께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우리 최선을 다하여 다루었을 때, 그것을 더 많이 만들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의 비용에 맞추어서 당신의 최선을 다하였을 때, 그것을 줄일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손을 비틀면서, 주저 앞지 말라.

나는 십 센트 동전을 일 불로 바꿀 수 없다. 만약 내가 언젠가 호구지책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분은 보통 그분의 자녀를 매일의 만나로 먹이신다. 그분은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그분의 자녀들에게 떡을 거의 주시지 않고 매일 주신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험으로 많이 놀라지 않으면서 흔들려야 하는가?

탐욕스럽게 살고 자신과 가족에게 그가 충분한 장난감을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무책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
안달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근심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것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손톱을 물어뜯고 마루를 걷는 것으로 어떤 이익을 낼 수 있었는가?
근심함으로 어떤 것을 얻은 적이 있는가? 나는 근심에 쫓겨서 위
로를 얻은 사람을 하나도 본적이 없다. 초조하게 곡식을 방앗간에
가져가거나, 뒤주에서 어떤 음식을 쥐는 사람은 전혀 보지 않았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옳은지 알지만, 그
러나 초조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믿는
자입니까? 주 예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그 의미는 멈추라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
가 멈출 수 없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셨을까? 아니다. 사실은, 우리의 근심은 불순종과 불
신의 문제이다.

그에 더하여 — 우리는 근심함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그
런 경우를 언제나 발견하지 않았는가? 우리를 어떤 것에 대하여
부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을 부적합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불신이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들
가운데, 우리는 흥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복해서
자주 하였던 모세의 말을 분별할만큼 지혜롭게 될 것이다: — “가
만히 서서 여호와와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13). —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1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사야 41:10-14)

“그가 그의 보좌위에 주권자를 앉히셨고
또 모든 것을 잘 통치하시는가?”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가 근심하기를 멈추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리라 명령하시는데,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관심하시기 때문이다.

야심을 멈춰라

근심은 우리 중 누구든 알고자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개인적인 야심과 관련이 많다. 따라서, 나는 둘째로, 우리 주의 경고의 다른 의미가 “야심을 멈춰라”임을 보여주는 것을 안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이다. —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예레미야 45:4-5).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한 큰 생각으로 높이 오르면서, 그러나 산발적이고 불안정하게 하늘에 있는 유성과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가 아니라 지혜를, 명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송이 아니라 인내를 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교만한 야심의 날개가 잘려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크게 되기를 애써야 하고, 위대함을 위하여 애쓰기를 멈춰라.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위한 야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납 되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야심을 가져야 한다.

불안함을 멈춰라

구원자의 충고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이다: — “너희 생각 속에 불안함을 멈춰라.” 우리는 단호하고, 결단력 있으며, 안정적인 성격의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그 문맥을 본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주 잘 부합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시간만 보내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먹을 것이나, 무엇을 마실지, 아니면 어떻게 입을 것인지로 소진되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가야 할 최선의 길이 어떤 것인지 바라 본다. 구약의 잠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빵 어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쪽에 버터가 발려 있는지를 안다.” 그들은 사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 보기를 기다리고, 같은 방향으로 큰 열정을 갖고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천에서 잘려졌다. 은혜가 백성을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안정되게 만든다. —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7). 구약의 입다처럼, 그들의 손을 주께 들어 올렸으므로, 그들은 돌아 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결단되었고, 파도가 어떤 쪽으로 치든지 간에,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15).

우리 주께서 당신과 내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그 길고 짧음은 이것이다 —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무엇이 옳은지 내게 말하라, 그리고 내가 하여야 하는 것을 내게 말하였다. 만약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숙고한다면, 나는 내가 옳은 것이라 아는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당신이 내게 나의 길을 보여 주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뜻을 숙고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혈과 육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1:16).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멈춰라

넷째,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그분의 믿는 백성에게 말씀 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긍휼과 관련하여 근심하는 마음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갖는 것을 멈춰라. 너희도 너희 혼의 구원과 관련하여 근심스러운 마음을 먹지 말라.”

자신이 구원 받았다고 매우 확신하는 자들이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고 노래하고, 큰 활기를 갖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축복된 보증! 예수는 내것이라,
아 어떤 신성한 영광을 미리 맛 봄인가!

그런 추정은 치명적이다. 그러나, 그러면 경건의 중요한 점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도 역시 끔찍하다. 우리 주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당신과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느낌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실패가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얼마나 크든지 간에, —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이다. 우리 구원은 믿음의 문제이지, 느낌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라. —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는 전적으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가 우리에게 그분의 큰 신실하심을 입증하시지 않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을 믿었다. 그의 하나님 안의 믿음이 그의 마음에 평온을 주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두려움을 평온하게 하였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4). —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8). —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10).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을 위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염려하고 걱정한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28-30).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 내가 왜 하나님 나의 구원자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 밤낮으로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마루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가? 왜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에 대하여 나 스스로 염려해야 하는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태복음 6:31-34).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많이 의심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우리의 부끄럽고, 죄로 충만하며, 근거 없는 의심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8).

우리가 감히 어떤 근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의문을 언급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과 관련한 어떤 의심을 품을 아무런 근거가 절대 없다! 그분은 약속하셨고, 그가 그것을 이루시 않으시겠는가? 그 생각을 소멸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한다 (요한복음 3:36).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나는 생명을 가졌다! 왜 우리가 그것에 혹여라도 의심을 가져야 하나? 바울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디모데후서 1:12; 4:6-8; 로마서 8:31-39).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려 하지 않겠다.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대가 없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은혜는 죄가 있는 곳에 풍성하다! 내가 그분의 공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공훈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공훈은 합당하지 않은 자를 위함이다! 나는 나의 비신실함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신실함은 영원히 서 있다! — “우리는 미쁨이 없을찌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13). —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찌어다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19).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시험과 고난에 대하여 투덜거리고 불평하는데 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기이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33).

고난이 우리 길에 온다해서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는 경우 놀라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과 비통함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씨를 심으시니
고난과 고통과 다툼에 관한 것이라.
이것들이 싹이 트고 잡초의 숨통을 막으니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땅을 뒤덮었을 것이다.

완전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된 황금 덩어리마다 불로 제련되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의 황금을 두신다면, 그분도 우리가 불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10). —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12).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 어떤 무거운 시험, 어떤 마음 아픈 슬픔을 만나게 될 때, 비록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첫 번째 부끄럽고, 사악한 생각은 언제나, “왜 접니까?”이다.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실로, “왜 제가 아닙니까?”이어야 한다.

내가 하늘로 데려가게 될까
안락한 꽃으로 장식된 침대 위에,
다른 자들이 싸웠던 상 받을 때와
피 바다를 향해할 때가 아닌가?

우리 시험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앞에 견뎌야 했던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우리의 슬픔들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견뎌야 했던 비통함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 비탄은 우리 안에서 계시될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건축자와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성을 찾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과 이 현 생에 전적으로 너무 많은 집착을 갖고 있다 (히브리서 11:8-10; 고린도후서 5:1). 우리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고린도후서 5:8)을 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인, 그리스도와 떠나고 함께 있기를 갈망한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백성이다. 하지만, “인생”이라고 부르는 현세의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란 우리에게 너무도 어렵다.

이 세속적인 원칙들로부터 우리가 구원 받는 유일한 길,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늘 구원 받을 유일한 길,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염려, 의심, 불평, 집착에서 언제나 구원 받을 유일한 길은 더 나은 것을 찾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루신 역사를 보고 붙잡는다면,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은 뜨거운 감자처럼 내려놓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루신 것을 보도록 허락되고 보았다면, 우리의 자랑할만한 선행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본다면, 우리의 의는 그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본다면, 우리의 선함은 화덕에 들어간 잘려진 풀처럼 시들어 죽을 것이다 (이사야 6:1-6).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 본다면, 우리의 선에 대한 논쟁이나, 우리의 가치에 대한 토론이나, 우리의 의지에 대한 언쟁이 더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투덜거림, 작은 시험들에 대한 불평,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불만들은 우리가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의 약속 가운데 갖고 있는 믿음에 비례하여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 43:1-5; 46:4; 로마서 8:28-32). 내가 그분의 “내가 뜻하니”를 완전히 믿으면 믿을 수록, 나는 덜 두려워 할 것이다. 내가 그분의 “내가 뜻하니”를 믿지 않으면 앓을 수록, 나는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80 장. 중요한 것을 먼저—누가복음 12:22-31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22-31).

우리 딸이 어린 아이였을 때, 내 아내와 나는 딸에게 선견지명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갖고 보는 것을 가르치려 하였다. 작은 아이일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그 애가 게임 하는 것이나, 노는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의 여러 단계에서 누릴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가 게임이나 놀이나 경솔한 것을 위하여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려 애썼다.

왜? — 왜냐하면 책임감을 배우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는 그 아이의 평생 남은 동안 그런 길로 살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끔찍하고, 쓸모 없고, 자기 중심적이고, 애처로운 성인이 된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러기 원하는 것 만큼만, 우리 딸에 대하여 그러기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지키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에 그 아이의 마음을 계속 집중하도록 하였다.

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계속하여 일깨울 필요가 있었는가? 슬픈 사실은, 우리가 어떤 중요하지 않은 것, 약간 더 중요한 다른 것들, 다른 매우 중요한 것들, 그리고 몇 가지 안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 상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는 동안, 정말 하찮은 것들을 쫓고,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 울부짖으며 우리 삶을 보내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우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을 말씀하신다. 상황을 기억하라. 우리 주께서 금방 우리에게 이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자신들의 죽지 않을 혼을 무시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비유를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2:22-31 에서 발견되는 풍성한 교훈적인 말씀을 주신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2).

기억해야 할 사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2-23 절).

여기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 동물적 갈망의 만족과 육체의 장식보다 생명에 더 많은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 천연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정력의 대부분을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8) 라고 말할 때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오직 이 육신 안에서 산다. 생명은 육신 안에 있다. 생명은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 유지된다. 아름다움은 옷 가게에서 사거나 성형외과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은 마음의 숨겨진 사람,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27; 베드로전서 3:1-6).

고려해야 할 것들

여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리 구원자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를 불러 내시고, 우리를 믿음에 부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다. 그분은 모든 유치원 아이들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을 지적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들은 세속적인 생각에는 단순하고, 사소하며, 거의 하찮은 공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 단락 안에서 언급된 것들은 가장 심오한 중요성을 가진 문제이다. 그것들을 숙고하면 할 수록, 그것들은 더욱 더 무겁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공부하면 할 수록, 더욱 더 심오하게 보인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4 절).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그 까마귀가 필요한 것을 자신을 낮추어 공급하신다면, 만일 그분이 까마귀들에게 매일의 먹이를 주기 위한 섭리의 일을 명령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지 못할 것을 상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당신 자신을 생각하라. —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5 절). 여기서 “키 (stature)”라고 번역된 말은 아마도 요한복음 9:21 과 23 과 히브리서 11:11 에서처럼, “생명” 혹은 “나이”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 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신체적 뼈대의 키를 하나라도 더하거나, 우리 나이나, 우리 삶의 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을 하나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날들은 “한 뼀과 같다” (시편 39:5). — 한 자도 훨씬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날의 수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을까를 초조해 하며 우리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다! —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26 절). 훨씬 더 좋은 것은 다윗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아오니.” 라고 말한 것이며, 그런 것을 아는 것이 기쁘다.

백합화를 생각하라. —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7-28 절). 만약 주 하나님께서 해마다 새 잎과 새 꽃을 백합화에게 예비하신다면, 그분이 오늘, 혹은 내일 우리를 옷 입히시지 못할 것이라 상상하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교도를 생각하라. —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0 절).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이교도들처럼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치욕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며 나의 위로자 성령이라면, 만약 천국이 나의 집이고 영원이 나의 생명의 전 기간이라면, 나는 이교도들의 염려와 불안 위에 사는 것이 어렵다고 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면 안 된다. 영원의 빛은 땅에 있는 것들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늘 영광은 땅의 번지르르한 것들을 내게 완전히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라. —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0 절). 이 사실만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께 완전하게 알려져 있다. 그분은 합당하다고 보실 때마다 우리 필요를 구제하실 수 있다.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사망에서 그를 구원하셨던 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을 주셨던 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보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돌판 위에 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셨다. 사람들이 좌지 우지 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일반적 인 것은 없다. 이 세상의 것들과 그 안에서의 우리 삶에 대한 걱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우리의 믿음에 모순되는 것은 더이상 없다. 그리고 아무 것도 하나님을 자신 있게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없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1-6).

믿음에 부르심

여기 우리 하나님 안의 믿음으로 부르심이 있다. —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28-30 절). 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매일 그분의 무한한 지혜, 선, 은혜, 사랑, 능력, 약속, 신실함, 그리고 긍휼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시고, 매일 매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안식하기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 속에 창조하고 유지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구할 나라

31 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구할 왕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마치 불멸의 혼이 없는 동물들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에 대한 아주 짧은 서곡임을 계속 깨닫는 사람들로, 구원 받았거나 타락하였거나 불멸의 혼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 살아가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당신과 나는 죽어야 할 죽음이 있고, 만나야 할 하나님이 있으며, 직면해야 할 심판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이 있다!

그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 앞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언제 언급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당신은 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안다: — 하나님의 나라는 구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안다: — 사람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14; 빌립보서 3:3-14).

그리스도로부터 약속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그리스도로부터 약속이 있다. —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1 절). 그 마음을 그리스도와 영원에 둔 그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이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아주 필요한 만큼 갖게 될 것이다 (시편 37:25; 84:11; 이사야 3:10; 33:16; 로마서 8:28-32; 시편 23:1-6).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81 장.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 하시느니라”—누가 복음 12:32-40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32-40).

이 단락 안에 우리 앞에 있는 위로와 교훈과 소망에 관한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우리 주께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는가! 그분이 얼마나 속히 우리 낮은 상태로 내려와 우리 필요를 채우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가!

혼을 격려하는 확신

본문에서 본 첫 번째 사항은 혼에 격려가 되는 확신이다. —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2 절).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였고, 우리가 종종 동일한 것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을 아셨다. 그들은 수적으로 극히 적었다. 그들의 적들은 많았고 대단하였다. 그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여야 했다. 그들은 다만 약하고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해야 할 큰 일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그 일을 위하여 가치가 없고 모두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제자들이 직면하였던 이 모든 두려움에 대하여 아셨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두려움을 아셨으므로, 우리의 언제나 은혜로운 구속자께서 이 은혜의 말씀을 하신다: —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시느니라.” 그런 하나의 황금 같은 문장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혼을 격려하는 큰 확신을 주신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적은 무리”이다. 그 말은 “아주 적은 무리”라고 번역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도, 언제나 그랬고, 언제나 다만 아주 적은 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은 다수, 경배의 집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다수, 믿음의 고백을 한 다수가 있다. 그러나 참 믿는 자들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다만 아주 적은 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이다. 우리는 이 사실로 결코 놀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4).

은혜의 택정함에 따라 남은 자가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남은 자로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아주 적은 무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적은 무리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양이 되도록 선택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셨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셨고 발견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가게 두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부드러운 보살핌 아래 있다.

이 단락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크고 은혜로운 아버지를 가진 것을 확신하게 한다. 당신과 나는 스스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부드러운 사랑을 받는다. 어떤 특권인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귀한 자녀로 입양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대하여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아무런 흠을 보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롭게 받으신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더불어 아주 기뻐하신다.

지금 조차도,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 모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움과 결점과 더불어 내려다 보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심의 미소를 띄시는 것은, 마치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앞에 보이시게 되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 안으로 환영하실 때 충만이 하실 것과 같다 (유다서 24-25).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로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과 더불어 기뻐하시므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 아버지의 즐거운 기쁨이다. —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의 기뻐하심,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기쁨인 나라, 우리를 기다리는 영화롭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 받고, 시험 받으며, 유혹을 받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롱 당하고, 비웃음 받고, 멸시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땅의 겨로 취급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지속될 일이 아닐 것이다 (로마서 8:18; 골로새서 3:4; 계시록 19:1-9). 그분의 나라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적은 무리의 한 부분인가? 만약 우리가 이 무리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고 (베드로후서 1:4),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이고 아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이다. 영원은 우리의 소유이다.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이다. 세상, 육체, 마귀가 우리와 맞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마서 8:31).

자기성찰의 사실

다음으로, 33 절과 34 절에서 나는 자기성찰의 사실을 본다. —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구원자의 권고의 말씀은 분명하고 엄격하지만, 분명하고 틀림 없다. —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요구는, “냅아 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자기성찰의 사실을 더하신다: —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냇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줌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33-34 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팔아야 한다. 물을 필요 없이 이것은 비유적인 것이지, 글자 그대로 취할 것이 아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사람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그 소유를 팔아 버리라는 것은 없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충성되고 근면하게 공급하기를 요구 받는다 (디모데전서 5:8).

무엇이 그러면 이 권고의 말씀의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 위치한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팔거나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부인에 대한 권고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우리 삶을 드림과, 우리 존재와 우리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을 우리 주의 통치와 처분에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가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연보를 주는 것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한 관용과 친절에 대한 것을 언급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특별히 그분의 나라의 유익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위임하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저장해두고 세상 것들을 위한 우리의 세속적 정욕을 만족시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준비가 더 되어야 한다.

신약은 십일조에 대하여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많이 가르친다. 고린도전서 9 장과 고린도후서 8 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9 장의 모두가 이 주제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신약 내의 어느 곳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주어야 하는지, 언제 주어야 하는지, 혹은 어디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명령이 없다. 십일조와 그와 같은 모든 체계는 신약 성경에 모두 이질적인 것이다. 경배의 모든 다른 행위들처럼, 주는 것은 은혜에 속한 행위이다. 그것은 대가 없고 자발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분명하고 단일한 지침이 신약 성경 안에 있다.

1. 그리스도인의 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사에 기인하여야 한다 (고린도후서 8:8-9). 사랑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것은 그 자체로 율법이다. 그것은 모든 동기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관대한 것이다.

2. 우리가 주는 일은 기꺼운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 (고린도후서 8:12). 만약 우리가 주는 것이 기꺼운 마음에 기인한다면, 그것이 대가 없이 기분 좋게 주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열납을 받는다. 주는 우리의 드림의 양이나, 많거나 적거나에 관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 뒤에 있는 동기를 보신다.
3.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축복에 비례하여 복음의 일에 주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6:2).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따라 관대히 주기를 기대한다.
4.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주어야 한다 ('모든 자,' 고린도전서 16:2; '각 사람,' 고린도후서 9:7).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늙은이든 젊은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지원하기 위하여 줄 것을 기대 한다.
5. 우리가 주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기도 하고 또 희생적이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9:5-6).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며, 쓰려는 것을 택할 때까지 정말로 준 것이 아니며 주께 그것을 드린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12:41-44).
6. 우리가 주는 것은 자원하여야 한다 (고린도후서 9:7).
7. 우리는 주께 드리듯이 주어야 한다 (마태복음 6:1-5).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귀를 위하여, 보상 받을 것이 없을 것이라는 바람으로 주어야 한다.

8. 이런 종류의 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빌립보서 4:18; 히브리서 13:16).

그리고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하늘의 보화를 예비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영생에 대하여 견고히 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참 지혜이다. 이것이 참된 현명함이다. J. C. Ryle 이 그것에 대하여 말했던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잘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자이다. 그는 가장 좋은 거래를 한다. 그는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 세상에 영생을 소유한다. 그는 가장 좋은 소유를 얻는다. 그는 무덤에 들어간 이후에 그와 함께 할 부를 가져간다. 그는 여기서 은혜 가운데 부요하며 후에 영광 가운데 부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얻은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좋은 부분이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 당신의 보물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정직하다면,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애착심이 어디에 있는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믿는다고 고백하든지, 우리 교리가 얼마나 정통성이 있든지,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높이 존경을 받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만약 우리 보물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있다. 만약 우리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

셋째,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신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35-40 절).

우리가 언제나 그래야 하는 그림이 여기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지키고, 언제나 믿음과 기대의 발끝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디도서 2:11-14).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 오심에 완고한 기대 가운데 살려 한다면,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나 주의 명령을 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불타고, 우리 주를 주목하고 환영하는 빛을 갖고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2:37 은 성경의 모든 책 안에서 발견되는 가장 뛰어난 단락들 가운데 하나이다. —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고 계신다. 그분은 지금 오고 계신다 (계시록 1:7). 그분이 오실 때, 자신의 허리에 띠를 매실 것이며, 그분의 식탁에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를 수종 드실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귀뜸을 누가복음 22:18 에 있다.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에 대한 참조 구절이 이사야 25:6 에 있다. —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약속의 의미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이해의 영역 밖에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나는 확신한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억제하실 것에 존귀와 영광과 기쁨과 광채의 단계는 없다 (요한복음 14:1-3; 계시록 1:7;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디모데후서 4:8). —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시느니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82 장. 하나님의 종들—충성된 자와 악한 자—누가복음 12:41-48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 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41-48).

가련한 베드로, 그는 언제나 그의 입에 발을 달았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나, 아마도 약간의 썩을 테고, 만약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가 내게 말하고 있었나?”라고 묻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것이다. 베드로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단지 그 말을 붙쭉 하였다. 그는, “주여,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라고 말했다. 주 예수께서 그 질문을 다만 무시하셨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그러시지 않았다. 그분은 보다 자세히 다시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다시 우리에게 두 종들, 한 사람은 충성되고, 다른 사람은 악한 자를 묘사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충성된 자와 악한 자가 모두 주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잠언 16:4; 21:1; 시편 76:10). 사탄은 가브리엘이 자원한 종인 것처럼, 비록 본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종이다. 타락한 천사들, 바로 지옥의 마귀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지만, 그분을 흠모하는 하늘의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하나님의 종들이다. 인간 존재 각자도 역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기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생각을 경멸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분의 계획을 수종 든다 (로마서 8:28; 11:36; 에베소서 1:11).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곳을,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의 사자들인 그런 악한 자들이라 할 지라도, 그들의 사악한 교리로 사람들의 혼을 속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이며,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에 의해 주권적으로 사용된다 (고린도전서 11:19). — 이 비유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가르침과 감사와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

42-44 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 대한 설명을 주신다. 물을 필요 없이, 그 비유의 교훈은 그분이 특정하게 생명 안으로 부르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주이신 그분의 통치에 기쁘게 앞드린다.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우리 삶은 그분의 섬김 안에서 쓰여진다. 당신의 특별한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삶 가운데 당신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선을 위하여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당신의 부르심과 섬김의 장소이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전도자와 교사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지만 목사로서 부름 받고 은사를 받지 않은 자들 또한 그분의 종들이다. 그들은 그만큼 높이 여겨져야 한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 교회들에게는 한 사람 이상에게 은사를 주시며, 오직 한 사람이 그 회중의 목사가 되도록 은사를 받고 부름을 받지만, 말씀의 전도자와 교사들로서 하나님의 은사를 분명하게 받은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은사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듣게 되고 대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단락에서 우리 주께서는 지역 교회들의 목자들로서 그 가정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42 절). — 그 얼마나 큰 위임인가 (고린도후서 4:7; 에베소서 3:7-8).

당신은 결코 목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충성된 목사의 섬김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기대되는 것,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또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던 일에 대하여 그를 어떻게 최선으로 도울지 아는 것은 지혜로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사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구별하는 지 알 필요가 있다. 당신이 성령께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가르치시기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충성된 종, 충성된 복음 전도자, 충성된 목자를 자기 잇속을 차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함에 있어서 네 가지 사항으로 설명하고 계시다. 이 네 가지 사항들은 각 교회 시대와 복음주의 교회가 발견되는 곳마다 에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묘사하며 그들의 성격이다.

1. 그 위치 — 하나님의 종은 여기서 “그의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기” 자로서 묘사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가정, 믿음의 권속이며,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이다. 그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교회이지, 내 가족이 아니고, 당신의 가족이 아니며, 이런 저런 교파의 가족도 아니라, 주의 가족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16-17; 에베소서 3:15; 디모데전서 3:15).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몇 명의 아버지들, 몇 명의 청년들, 몇 명의 자녀들이 있다. 강한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다. 매우 독립적이고 거의 주목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잘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각자는 그분의 집과 가족 안에서 위치가 있으며 주의 뜻에 정확히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은 목사들은 그분의 집의 치리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위치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에 대한 폭군이나 독재자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래 청지기로서 그 집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 집에 배치된 치리자이다 (사도행전 20:28; 디모데전서 3:4-5; 히브리서 13:7, 17).

이 시대 대부분의 전도자들은 왕 풍덩이 전도자들이다. 교회, 집사회, 장로회, 혹은 교파는, 마치 꼬마가 왕 풍덩이 다리를 줄로 묶는 것처럼, 그의 다리에 묶은 끈을 쥐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백성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에서 선지자, 혹은 전도자가 전도하기 위하여 보냄 받은 그들의 뜻에 의해 지배되고 통지 받거나, 혹은 심지어 영향을 받은 전도자가 있는가? 하나님의 책 안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는 고용된 선지자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집을 치리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래에서 책임을 진다 (디모데후서 3:16).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충성된 청지기는 그의 주인의 집을 그 주인의 뜻에 따라 그대로 처리 한다. 그가 행할 때, 그 집의 모든 사람은 그 집을 책임지는 청지기를 존귀히 여기고 복종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은, 그의 지위를 그 가족 구성원 각자가 알고, 전체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모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일하므로 잘 통치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기쁘다.

2. 그의 일 — 목사의 일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식과 깨달음으로, 복음 진리로 먹이는 것이 복음 전도자들의 일이고, 부르심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예레미야 3:15; 사도행전 20:28). 좋은 사교가, 분석가, 치료사, 상담사, 체사장, 혹은 지역의 문 두드리는 사람이 목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전도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복음 전도로, 생명의 떡을 공개하여 그 가족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먹인다. 만약 목사가 그것을 한다면, 거리를 뛰고 구급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데 그 시간을 써야 한다 (디모데후서 2:15).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목사의 일이다 (에스겔 34:7-8). 주어지는 그것은 “음식”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음식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 그들의 혼을 먹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의 자녀를 먹이는 것은 복음의 달콤한 음식이지, 지성주의의 빈 껌질이나, 신비주의의 연무나, 쓸모 없는 교리적 억측의 돌이나,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단의 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타락으로 인한 파멸과 피에 의한 구속과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로운 음식을 가지고 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때를 따라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나뉘어져야 하고, 가족의 각 지체는 때에 따라 그에게 알맞은 음식으로 먹여져야 한다: — 범죄자를 위한 은혜, — 타락한 자를 위한 용서, — 파멸한 자를 위한 구속, — 사악한 자를 위한 의, — 더럽혀진 자를 위한 씻음, — 불법자를 위한 질책, — 고난 받는 자를 위한 위로, — 약한 자를 위한 힘,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

3. 그의 특징 — 우리 주께서 두 가지 성격의 특색을 가진 자들로서 그분의 종들을 묘사하신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은 충성된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4:2).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들에 대한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각종 은혜에 대한 청지기이며,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에 대한 청지기들이다 (고린도전서 4:1; 베드로전서 4:10; 에베소서 3:8). John Gill 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신탁에 충성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그 전체를 전한다. 아무 것도 감추지 않고, 그 어느 것도 가리지 않는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그들 자신의 일들, 그들의 안락, 명예,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존귀, 그리고 혼의 선을 추구한다. 그리

고 모든 대가를 치르고 구속자의 진리와 뜻과 유익에 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역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주의 존귀를 신실하게 추구하는 자이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변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며 주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 그대로 그분의 규례에 충실하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따라 좌우되지 않고 사람들의 혼을 관심하므로 사역의 일을 실행한다.

그들이 충성되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지혜롭다. 그들은 천연적으로는 충성되지도 지혜롭지도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와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분의 은사로, 그들을 복음에 합당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들로 만드시므로, 충성되고 지혜롭게 만드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잘 훈련되어 있고, 복음의 교훈에 있어서 분명한 깨달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달란트와 은사를 지혜롭게 행한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성경에 관한 그들의 지식과 깨달음을 향상시키는 것을 구하며, 기도와 학습 가운데 그들의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게 하며,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 수고한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일들을 그리스도와 그 백성을 최고로 섬기기 위하여 안배하고 관리한다. 하나님은 은혜롭게 그분의 종들에게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지시하기 위한 지혜와 아버지가 그 가족을 인도하고 보살피는 것처럼 그들을 보살피기 위한 지혜를 주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충성되고 지혜로운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르셨던 것을 행하는 사람이다. —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3 절).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하라고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하는 것이 보여야 한다. 그는 꿈꾸는 것이나, 빈둥거리거나, 잡담하는 것이 아닌, 그의 주의 뜻과 일을 행하며, 그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보여야 한다. 하나님의 종은 그의 수고 가운데 지속적으로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기신 일을 꾸준히 힘쓴다. 어떤 사람은 한 때 John Calvin 에게 질문하였다. “주께서 오실 때 주께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원하는가?” Calvin 이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오실 때 내가 한 가지 하지 않은 채로 보여지기 원한다.”

4. 그의 보상 —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받기리라.” (43-44 절).

성경은 아무데서도 하늘에서 보상의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거나, 심지어 의미를 비치는 곳은 없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에 모순된다 (로마서 8:17). 분명히, 우리 주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다른 종보다 한 종을 칭찬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와 올 세상 가운데 모두 충성됨을 보상하신다. 적은 것들에 충성된 자들은 주는 많은 것들 위에 계시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9:17). 종종, 하나님은 수행할 더 큰 섬김을 주시므로 충성된 섬김을 존귀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좌 주변에서 수고하였던 자들을 보는 가운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엄청나게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19).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이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7:5, 22). —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찌어다, 너의 파숫군들의 소리로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이사야 52:7-8).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6-7).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2-13).

하나님의 악한 종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

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45-48 절).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 가운데 악한 종인 자들을 설명하신다. 여기서 다시, 우리 주께서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집 안에 악한 종인 그 사람에게 대한 설명을 네 가지 주신다. 나는 그에 대하여 많이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즉시 알게 될 것이다.

1. 그의 특징 — 불신 (45 절) “주인이 더디 오리라.”
2. 그의 행위 —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45 절). 다른 말로 해서 그는 율법적이고, 판단적이고, 이기적이다.
3. 그의 놀라는 것 —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46 절).

“그 파숫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짚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이사야 56:10-11).

4. 그의 멸망 (46-48 절)

각 세대 가운데, 충성된 자들과 악한 자들 모두 주권적으로 제어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절대적으로 우리 위대한 한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 모든 세상 가운데 그분의 모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분에 의해 사용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83 장.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누가복음 12:49-53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49-53).

누가복음 12:49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나는 성경의 이 단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두 아는 척 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헌신과 열심과 영원한 영광과 관련된 기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우리를 감동하며,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마음을 격려함이 여기 많이 있다. 그리고 영광의 왕께 대항하는 반역자들과 이 세상에서 그분을 단지 섬기는 척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포를 치는 것이 여기에 많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이고 주이지만, 그분은 그분의 제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의 발을 씻으셨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기대
하고 섬기는 것을 보시며, 우리 주인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분의
영광의 모든 옷을 입고, 띠를 매시고 우리를 수종 드실 것이다 (누
가복음 12:35-37).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선포인지!

경고 받은 반역자들

그리고, 38-40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아직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경고를 하신다. 믿는 자들은 주의 돌아오심에 대한 예상과 소망과
기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있다. 오직
믿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오심을 연기하신다고 상상한다. 하나님
의 아들께서 이 지면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상상해 보라. —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당신
의 모든 삶을 마치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는가?
그리스도께 옆드리고, 그분의 종이기를 거절하는가? 주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돌아오실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
41-44 절을 감히 읽을 수 있다면 읽어 보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
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의]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하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
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자신의 눈으로 아직 보지 않았고, 귀로 아직 듣지 않았으며, 마음으로 아직 품지 않았으므로 어떤 보상을 그리스도께서 저장해 놓으시겠는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상상하는 것을 시작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 형제들의 종들이라면, 그분이 올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치리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선해야 한다. 그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에 대하여 사실이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누가복음 12:45-46).

지옥의 공포들

나는 지옥에 어떤 공포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공포들이 존재한다! 모든 충성되지 않은 청지기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영원한 고통이 될 것인지! — 그의 자칭 부름에 진실하지 않은 전도자! — 자칭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는 여전히 그의 주인과 주께 불충성 하다! 악한 종은 여기서 종교적이지만, 그러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판단적이고 잔혹한 자들처럼 그려진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다시 보고 두려워 하라. 우리는 종종 지옥과 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과장하는 것으로 비난 받는다. 그러나, 실상은, 아직도 이런 것들은 어떤 인간에 의해 적절하게 언급되지 않아 왔다. 하나님의 책을 읽어 보라. 성경 안에서 지옥, 하나님의 진노, 사람들의 글 속에서 전대미문인 저주 받은 자의 고통에 대한 표현을 보게 될 것이다. 지옥은 밑이 없는 구덩이이고, 꺼지지 않는 불의 못이고, 결코 죽지 않는 삶아 먹는 벌레들이고, 암흑이고, 어둡이고, 단념이고, 영원한 소망 없음이며, 불이고, 유향이고, 고통이며, 사망이며, 영원한 저주 아래 영원한 사망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은 사랑 받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한 사람에 대한, 우주 가운데 가장 온화하고, 은혜롭고, 동정심 많은 영인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다른 모든 것에 더해져서, 지옥 안에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것이 그들의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로 영원히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47-48).

어떤 달란트와 능력과 기회들을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탁하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을 그들 자신을 위하여 각자가 판단하도록 하자. 우리는 이것이 나 저것을 다했다고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과 기회에 비례하여 우리 주인,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길 책임이 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부서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나 이 단락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특정적으로 말한다. 큰 달란트, 은사, 능력, 그리고 기회들은 큰 책임들이다. 그것들은 갈망되기 보다 두려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 자신을 위하여 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혼을 위하여 큰 저주를 추구한다.

복음의 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49 절). —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검을 보내려 오셨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보다 더 단일한 것은 없다. 그러나 어떤 것도 다양한 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야 하는 우리 주의 의도이다. 이 단락의 원래 표현은 아주, 아주 강하다. John Trapp 이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달리 표현하였다: “나는 불을 땅에 보내려 오게 되었다. 이 불이 이미 붙어 있게 하리라.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그것으로 많은 선한 것이 올 것임을 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전 안에 안치된 신조가 아니라, 혼 안에서 불타는 불이다. 복음은 머리 속에 가두어진 신학적 체계가 아니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음 속에 분출하는 불이다. 복음은 제전이나 의식절차에 대한 차가운 체계가 아니라, 땅 속에 불타는 불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은 열정적이고, 열렬하며, 불타는 것 — 열정을 휘젓는 주제 — 열렬한 헌신을 일으키는 주제 — 사람들의 혼을 흥분시키는 것 — 그들의 존재 깊이 있는 것들을 휘젓는 것임을 말씀하신다. 복음은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과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 모두 이것을 행한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하여 아마도 종종 무관심하다. 그러나 아무도 복음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 주께서 땅에 보내려 오셨던 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찬양에 의하여, 모든 육체에 그분의 영의 부어 주심으로 빛 비춤을 갈망하셨던 불이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0 절). 우리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고 죽으시려 얼마나 갈망하셨는지!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고 구원하기를 얼마나 갈망하였는지!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기를 얼마나 염려하시는지. 그리고 갈보리에서 그분의 역사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속에 있는 불이며, 분열케 하는 불이다. 51-53 절을 읽어보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11 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에게 걸림돌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왔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복음의 분명하고 단순한 전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걸림돌이다. 그것은 사람을 나눈다. 그것은 친구를 나눈다. 그것은 가족을 나눈다. 그것은 교회를 나눈다. 왜? 그런 걸림돌을 야기하는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복음의 걸림돌은 그것이 행위가 없이 은혜로 만의 구원의 선포라는 사실이다. — 복음이 모든 사람을 죄인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 복음이 구원은 오직 신성한 계시에 의해서만 온다고 주장하므로 인간의 지혜를 해친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당신에 또 당신 안에 계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다. — 복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대속과 특정하고 효험 있는 구속과 전가된 의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심을 해친다. — 복음이 주이신 그리스도께 항복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애를 해친다. — 복음이 구원은 은혜로만, 구별되고, 대가 없으며, 주권적이고, 거절할 수 없으며, 효험 잇는 은혜로 인함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가치의 느낌을 해친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복음, 언제나 너무 불화를 일으키는 이 복음은 하늘의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죽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1-3). 그분은 우리의 자원한 보증으로서, 우리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대속자로, 우리의 효험 있고, 죄속량의 제물로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계시, 구원의 은혜의 실행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계시이다 (이사야 45:21; 로마서 3:24-26).

비교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 (예레미야 23:29). 복음이 어떻게 불에 비유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책을 본다면, 그 신성한 지면에서 계시된 복음의 두드러진 교훈에 충격 받기를 피할 수 없다. 만약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그것을 적용하신다면, 그것의 의혹과 철학과 종교적 이론과 토론에 대한 문제들이 되는 것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은 혼을 붙잡고, 당신의 마음을 꿰뚫으며, 근본적이고 영원하게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아마도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죄인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압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경이로운 계시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황금 같은 말씀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요한일서 3:1, 16; 4:9-10). 아 나의 혼아, 멈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라! — 영원한 택정하심의 사랑! — 받을 가치가 없고, 대가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 — 구속하고, 죄속량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사랑! 영원하고 꺼지지 않는 사랑! —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것을 상상하라!

이것은 복음의 경이로운 계시이다: —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할 수 있는 공의와 진노와 엄격함의 가장 놀라운 나타남에 연결되어서만 계시되고 알게 된다. — 하나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 당신이 하나님을 알려고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신다면, 당신이 복음을 배우려 한다면, 그것은 불처럼 당신에게 올 것이며 당신의 혼 안에 불을 붙일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가 체험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이사야 6:1-7).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주의 검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이다. 그것은 잠잘 수 없다. 복음의 진리 — 피의 속량 — 대가 없는 칭의 — 완전한 용서 — 은혜로 인한 구원 — 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종교적인 표어가 아니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원칙들이다. 우리 허파 속에 있는 호흡처럼, 그것들은 담겨질 수 없다. 그것들은 터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야그것들은 세상 가운데 불처럼 터져야 한다. 사람들의 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자마자, 당신은 우리 주의 말씀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그리고 (불과함께)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의 의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12 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음 전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 쫓으로 만드신 분이 그들 속에 불을 넣어 두신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 안에 있는 불은 단순히 감정주의적 불이나, 뛰어난 지성의 불이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열정적인 웅변의 불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 위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이다. 성령께서 모든 참 전도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와 기름부으시고, 모든 참 복음 사역의 참 능력과 불이다. 나는 그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논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 둘 것이나, 그것은 사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들을 화염으로 만드신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효과는 언제나 동일하다. 복음은 분쟁을 야기한다.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믿는 자는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언제나 미친듯한 분노의 격분 속에서 믿는 자들을 뒤집어 엎지 않는다.

복음은 불처럼 놀랍게도 순수하다. 그 안에는 불결과 오류와 불의의 혼합이 없다. 그것은 땅의 모든 혼합물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영적이다. 그리스도, 우리 제단은 영적 제단이지,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희생은 영적 희생이고, 영적 동기로부터 드러진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복음은 불과 같아서 빛을 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준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빛을 쏟으며 우리 죄를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 세상과 시간에 대한 빛, 심판과 영원에 대한 빛을 우리에게 준다.

복음은 빛과 같아서 큰 시험적 특질을 갖고 있다. 어떤 것도 불처럼 땅에 속한 것을 시험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어떤 것도 복음처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시험하는 것은 없다 (고린도전서 3:13).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된 것으로, 또 그것 만으로 우리는 모든 교훈과 모든 신조와 모든 종교적 실행과 모든 종교적 성향을 시험하고 입증한다.

복음은 불과 같아서 격려하고 위로한다. 그것을 체험한 자들은 이 세상의 냉냉함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죄지 않음을 발견한다. 우리는 가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불은 가난의 냉기를 가져간다. 우리는 아프겠지만, 그러나 복음이 우리 혼에게 육신의 퇴락 가운데에서 조차도 기쁨을 준다. 우리는 비방받고 무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 복음은 그것을 마음 속에서 체험할 때마다, 비길데 없는 위로의 신성한 근원이 된다.

불은 엄청나게 공격적이다.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렇다. 불 붙은 숯 몇 개를 집어서 마른 짚더미에 던져 넣고, 불에게 말하라. “나는 네게 불붙이기 위한 짚단을 주었다. 이제 타고, 네 마음 속의 내용을 태워 없애 버려라. 그 짚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너는 더 멀리 갈 수 없다. 너는 오직 이 짚더미만 태워야 한다. 불똥이나 화염을 튀지 말아라.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불태우지 말라.” 당신이 너무도 어리석게 말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잿더미가 된 헛간을 보게 될 것이다. 불은 공격적이다. 그것은 결코 자연히 꺼지지 않는다.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복음은 불처럼 자연적으로 퍼지며, 천국 바람이 복음을 날려 보내는 곳마다, 그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 버린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불이 마침내 확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산될 것이다. 세상이 일단 파멸되자, 세상은 두 번째로 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임이 성경 안에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가들이 불타 버리고, 그 요소가 뜨거운 열기로 녹아 버릴 것임이 운명지어져 있다. 불은 그 날에 도달할 것이다. 바다는 이전처럼 큰 교만으로 일렁이고 큰 소리를 내고, 불을 비웃는다. 그러나 불이 그 화염의 혀로 바다의 물을 삼켜버릴 것이다. 모든 도시와 나라와 땅의 요소들이 곧 불로 소진되어 버릴 것이다.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악의 바다가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 앞에서 궁극적으로 소멸시킬 것이다. 복음의 불이 세상을 지극히 높은 주 하나님께 번제가 되게 할 것이다.

한 가지 추가 비교: — 불처럼, 복음은 태워 버린다 (시편 39:4, 10-11). 주 하나님께서 복음의 적용으로 인간이 그의 마지막과 그 날의 측량과 얼마나 연약한 가를 알게 할 때, 인간은 계시로 삼켜질 것이다. 축복의 구원자여, 당신의 불을 보내시고, 나의 불신과 교만과 독선을 삼키시고, 나의 냉담과 무관심을 삼키시며,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내 마음을 삼키시고, 내 생명을 삼키소서!

“이제 사랑으로 그분의 이름을 품으니,
내가 얻은 것으로 내 손실을 계수하네;
내 이전의 교만을 내 치욕으로 부르니,
내 영광을 그분의 십자가에 못박네.
그렇다, 내가 중히 여겨야 하고 여길 것이니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손실이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 나의 혼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며,
또 그분의 의에 참여하게 되기를.”

84 장. 때를 분별함—누가복음 12:54-59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54-59).

이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특정하여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난 하셨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비난하신다. 그들의 교사들과 전도자들은 소경들이나, 그러나 또한 의도적으로 소경 되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모두를 우리 주께서 여기서 위선자들로 비난하시고 질책하신다.

우리 책임

첫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분별함으로 무엇이 의로운지 판단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54-57 절). 우리 주께서는 여기서 천연적인 사람들이 영적 분별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천연적인 사람은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철저히 소경이고, 무지하다는 것을 선포한다 (고린도전서 2 장).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메시아, 세상의 구원자로서 그분의 주장은 너무도 극명하게 참되어 그의 세대의 사람들이 그분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 그들이 의로운 것을 심판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정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민간 정부의 권좌는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다니엘의 칠십 이레는 성취되었다. 엘리야 (침례자 요한)이 왔다. 그리고 우리 주의 기적은 분명하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분의 시대의 사람들은 명백하게 참되고 의로운 것을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왜? —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포기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용납을 하나님의 인정과 열납보다 더 선호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들은 종교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싫어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위하여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꺼려 하였다.

역대상 12:32 에서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이백 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라 하였다. 아, 얼마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한지! 이스라엘은 어떤 고난, 불안한 시간을 통과하였다. 치명적인 문제가 직면 하였고 처리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뜻과 왕국이 공격 아래에 있던 때에, 잇사갈의 사람들이 때를 깨달았고 앞으로 나갔다. 그들은 행해 져야 하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그것을 했다. 반복하며, —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깨닫기를 추구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읽을 것 만을 요청한다. 나는 성경의 분명한 선포의 빛 가운데, 우리가 배교와 신성한 심판과 영적 어둠, 세상이 이제까지 결코 보지 못했던 위험한 때에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마서 1:18-32; 데살로니가후서 2:1-16; 디모데전서 4:1-3; 디모데후서 3:1-5; 계시록 20:1-8).

지금은 끔찍한 배교의 날들이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악과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부패와 영적 어둠의 때이다. 지금은 끔찍한 무관심과 영적 미지근함의 때이다. 지금은 보편적 타협의 때이다. 지금은 모든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에 대하여 철저한 비관용을 향하여 양면성과 인내의 때이다.

이 날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 현재 위험한 때가 당신과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담대하고,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견지를 성경의 단일한 권위에 대하여 요구하며, 뚜렷하고 결정되었고, 복음 교리의 지칠 줄 모르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선포를 요구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대하여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 이런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과 가장 무거운 책임과 우리 자신의 혼에 대한 부단한 경계를 요구한다.

이는 하나님의 날이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이다. 그 사실에 대하여 실수가 없도록 하자. 이 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다. 그분을 섬기기 위한 얼마나 큰 날인가! 나는 다른 날보다 오히려 이 날에 살것이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손 끝에서보다 쓸모 있는 더 큰 필요와 더 큰 기회와 더 큰 방법으로 예비되었던 날은 없다.

은혜의 날

이제, 나는 당신이 58 절과 59 절을 보고 이 날이 은혜와 구원의 날임을 배울 것을 원한다. 만약 당신이 지혜롭다면, 그것을 당신의 심판을 직면하기 전에 당신의 대적들로부터 구원 받기 위한 당신의 일로 만들 것이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내일은 너무 늦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를 대적과 함께 판사, 재판관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는 사람에 비유한다. 당신과 나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의 자리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우리와 함께 행보하는 대적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저주하는 율법이다. 만약 우리는 우리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대적의 주장에서 구원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 지옥에 던져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대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가, 그로써 그가 만족하고 만족할 희생을 가진 강력한 변호자에 의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 이다. 그 변호자와 희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고린도후서 5:17-6:2; 요한일서 2:1-2; 4:9-10; 로마서 8:1; 갈라디아서 3:13-14; 골로새서 2:12-15; 베드로전서 3:18).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때가 짧다. 심판이 임박했다. —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20).

85 장. 인간의 비극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1-5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1-5).

1995년 4월 19일에 Timothy McVeigh와 Terry Nichols는 Oklahoma주, Oklahoma시에 있는 연방 건물을 폭파했고, 168명이 무차별하게 살해되었다. 우리 나라는 충격을 받았다. 그 후 바로 며칠 후에, 내 아내와 나는 Oklahoma시에 있었다. 나는 폭파 현장을 지나갔다. 우리 나라를 대상으로 한 그 살인자들과 그들의 범죄의 비겁한 행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느꼈던 마비와 분노와 좌절감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보다 더하여, 나는 그 범죄로 그토록 유린당한 그 가족들에 대한 아픔으로 그 때 (지금도 여전히) 가득하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999년 4월 20일, 두 십대 소년들이 Colorado 주의 Littleton 시에 있는 Columbine High School 에 걸어 들어가서 열두 명의 다른 학생과 교사를 살해하였다. 다시, 우리 나라는 충격을 받았다.

2001년 9월 11일, 우리 나라는 3000 명의 집단 살상으로 고통 받았다. 미국 전역에 있는 시민들이 비행기를 납치한 비겁한 테러 분자들이 국방성과 World Trade Center 와 Pennsylvania 에 있는 들판에 추락하였던 것을 공포 속에 지켜 보았다. 종교적 미치광이들의 그런 공격 가운데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이 그들의 남은 삶 동안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런 무분별한 살육자들에 의한 고통에,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잔혹한 이런 행위들이, 그들이 나머지 우리 위에 죄인들이긴 하지만, 죽은 자들 위에 임한 신성한 심판의 행위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에 의해 던지시 더해졌다.

이런 사건들은 우리 마음 위에 나라로서 그렇게 많이, 우리 피를 끓게 하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들은 우리가 설명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설명하려 하지만) 그 생각을 대경 실색하게 하는 공포들이다. 사람들의 아들들에 임한 갑작스런 죽음은 사람의 논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우리는 거의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라디오를 켜거나 텔레비전을 틀거나 신문을 펼칠 때마다 그런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을 예상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새롭다고 상상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인종과 문화적으로 다양한 우리 사회의 불가피한 결과라든지, 그것들이 신성한 지혜의 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역과 신성한 섭리의 통제를 넘어선 사건들이라고 상상 해서는 안 된다.

누가는 13:1-5 에서 우리에게 달리 말한다. 갈릴리 사람들은 9/11 테러 공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대량 살상을 자행하기 위하여 권력과 돈과 수단을 가진 잔혹한 사람의 무감각한 분노로 살육되었다. 실로암에 있는 탑을 쓰러트리고 넘어지는 탑의 짓누르는 무게로 영원 속에서 갑자기 인도 되었던 열여덟 명을 기억하라.

그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Oklahoma 와 Colorado 와 New York 에서 있었던 사건들 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가족에게 그것들이 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이이런 일들은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말자. 갑작스러운 죽음은 죄로 저주 받은 이 세상 가운데 삶의 한 부분이다. 언제나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비극들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있었고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사회를 그 기초부터 흔드는 그런 사건들을 직면함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보좌 위에 계시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세상을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계곡을 확신을 갖고 두려움 없이 통과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통치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여전히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제 가운데, 언제나, 어느 곳이나 계시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은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원한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행하는 자들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이다: —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시편 25:13).

그 도구가 누구이고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Timothy McVeigh, Terry Nichols, 거리의 치한, 이나 이슬람 암살단들),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을 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이다. 그 뜻에 따라 죽이고 살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뿐이다. 때대로 그분은 세상 전체가 그분의 역사로 충격 받게 될 그런 갑작스럽고, 눈부신 모습으로 그렇게 하신다.

경계의 말

첫째, 나는 경계의 말을 당신에게 주고자 한다. 우리는 독선적인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지만, 큰 비극을 경험하고 큰 손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벌을 받고 있다고 절대로 추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추정들은 그런 두려운 행위를 행하게 되는 악한 사람들의 행위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우리 주께서 그런 교만한 추정을 했던 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비극으로 고통 받은 자들이 모든 우리 나머지 사람들보다 죄인들이었다고 상상하는가? 내가 말하지만,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모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겠다.

물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의 나라 위로 그들의 불법을 방문하심으로, 그들을 죄로 인하여 심판하신다. 물을 필요 없이,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심판, 의도적인 반역으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자신 위에 우리가 쌓아둔 심판 아래 있는 나라와 세대이다. 그러나 신성한 심판으로 언제 누구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올지 아는 것이 우리 능력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종종 하나님은 큰 공홀과 은혜의 행위로서 그분의 백성에게 갑자기, 기대치 않게 죽음을 가져 오신다.

“의인이 죽을 찌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 찌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 57:1-2).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 하나님의 분노의 행위가 아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언제나 주의 시각에 보배롭다. 내가 어떻게 죽고, 어디서 죽으며, 언제 죽고, 내 죽음의 수단이 무엇이 될 지는 전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제가 되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구속 받고, 용서 받고, 의롭게 되고, 열납 되어 죽느냐 이다. —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시편 116:15). 죽음의 예상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다 (요한복음 14:1-3; 고린도후서 5:1-9; 계시록 14:13).

내 마지막 숨을 호흡했을 때
또 사망 가운데 육신의 이 옷을 내려 놓았을 때,
내게 지명된 일이 끝났을 때
또 정해진 내 시간이 끝났을 때,

나의 무덤 주위에 서서 울지 마라.

나는 그곳에 없을 것이라. 나는 죽지 않았다.
나의 구원자께서 나를 집으로 부르러 오셨고,
또 나는 그분과 함께 하늘로 갔노라!
이제 나는 죄와 고통에서 자유하고;
또 영광 받으시는 자와 함께 통치하노라!
나의 무덤 주위에 서서 울지 마라.

영화롭게 되었노라! 죽지 않았노라!
예수와 함께 그분의 보좌 위에 앉았으며,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영화롭게 되었으니,
나는 그분의 은혜의 기념품이라.
기뻐하므로, 그분의 얼굴을 보노라.
나의 무덤 주위에 서서 울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노라! 죽지 않았노라!
나의 육신은 진흙 밑에 누워 있으니,
부활의 날 까지라.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몸과 혼이 다시 연합하네!
나의 무덤 주위에 서서 울지 마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죽지 않았노라!

경고의 말

다음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신과 나는 세상에서 곧 잘려 나갈 것이며 영원 안으로 인도될 것이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당신과 내게 죽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심판 가운데 만날 준비를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회개 하여야 한다. 내게 이렇게 묻는다면, "회개가 무엇인가?" 나는 참 회개가 적어도 이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간략히 답할 것이다:

1. 성령 확신 (요한복음 16:8-11),
2. 그리스도 안의 믿음 (로마서 10:9-10), 그리고
3. 하나님께 돌이킴 (데살로니가전서 1:2-10; 빌립보서 3:3-14).

이 세상의 모든 미혹된 의지 경배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개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되는 인간의 상상의 "자유 의지"의 행위라고 절대 상상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진리에서 멀어질 수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언급된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회개는 하나님의 전능하고, 효험 있고, 구원의 은혜로운 역사로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르심 받은 죄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이다. 신격의 모든 위격들은 그분의 선택 하신 자 가운데 창조된 회개의 은혜로운 역사에 관여되어 있다.

-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주실 것을 서약하셨다 (에스겔 36:24-27).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사도행전 5:31).
-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로 난 혼이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하시므로, 사랑의 약속된 때에 모든 구속 받은 죄인 위에 부여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다 (스가랴 12:10).

회개는 은혜를 위하여 죄인들의 자격을 정하는 조건이 아니라, 부여하는 은혜의 증거이다.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 결과이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분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효험 있게 돌이키게 하시므로, 여기서 누가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기술 하였던 그런 자들과도 같다!

86 장.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누가복음 13:6-9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3:6-9).

우리가 이 단락을 제대로 이해하려 한다면, 1-5 절의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 그 문맥 안에서 읽으면, 이 비유가 우리 주께서 유대 나라에 주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그들이 알아야 하고 섬겨야 했던 방법이고, 그로써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했던 큰 특권과 우위를 주셨다. 그들과 그들 만이 신성한 계시의 모든 특권을 가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이 되었어야 할 바로 그 것들이 그들의 파멸이 되었다 — 그들의 종교!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 심판에 보내셨고 던져 버리셨다 (로마서 11 장).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삼 년 동안, 해가 거듭되면서 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행보하셨고, 기적에 기적으로 자신을 보이셨고,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의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멀리하였고, 거절하였으며, 믿기를 거부하였다. 마침내, 그분은 그들을 버리셨고, 완전히 황폐화 되었다 (마태복음 23:37-38).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이 비유에서 우리 주의 계획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하듯 매우 심각한 오류이다. 이 비유는 당신과 나를 향하여 특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의도는 그분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복음을 듣는 은혜와 특권의 의미를 누리는 모든 사람을 깨우는 것이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 주의 입에서 나왔으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유를 들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C. H. Spurgeon 이, “그 비유는 너무 단순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께서 아무런 설명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썼던 것과 같다.

하나님의 포도원

복음 교회는 하나님의 정원이고 포도원이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분의 교회와 왕국에 대하여 주신 그림이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 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쩔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 5:1-7).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 아래 앓을 특권을 주셨으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고린도후서 5:20-6:1). 하지만, 그들에게 충성되게 전해진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없다. 당신은 그 비유에서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무화과에서 열매(단수)를 기대하였으나, 아무런 열매들(복수)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며, 다른 것은 없다 (사도행전 16:31; 마가복음 16:16; 요한복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음 3:16-19, 36; 로마서 10:9-13). 이 열매는 인간의 상상 속의 자유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열매,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 은사와 운행하심의 열매이다 (에베소서 2:8-9; 빌립보서 1:29; 골로새서 2:12).

복음을 듣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은 자신을 곧 그들 위에 떨어지고 그들을 지옥에서 짓밟을 거짓의 피난처로 만든다. 그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므로, 그들은 그들의 침례, 그들의 교회 등록, 그들의 선한 행위, 그들에 대한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 그들의 지식, 혹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소망을 줄 종교적 체험들을 기대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이상한 역사이다 (이사야 28:21).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행하신다. 교만한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이상한 행위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에 거꾸로 던져 넣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 될 것이다.

정해진 시간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강한 불신에 속한 모욕적인 언동을 용납 하시지 않을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결정된 때의 기간이 있다. —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2)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모든 생각을 피하기를 추구한다. 복음을 믿는 사람의 책임에 대한 주장이 신성한 주권의 거부라고 상상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다. 만약 당신이 불신 가운데 멸망한다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비난은 당신의 몫이다. 만약 당신이 구원 받는다면, 모든 찬양은 하나님의 몫이다. 불신은 인간의 행위이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의도적이고 끈질기게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롭게 되기를 거부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할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은혜의 날에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이 비유의 말씀의 정확한 의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하나님은 당신과 내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23).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실수 할 수 없다.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분께 돌이킨다면, 당신이 그분을 부른다면, 당신이 그분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한다면, 경계하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며이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부를찌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 하였고, 내가 손을 펼찌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회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安然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 하리라.” (잠언 1:24-33).

우리는 그것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갖고 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멸시한다면, 만약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우리 귀를 고집스럽게 막는다면, 그분은 우리 위에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파멸의 판결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동안이라도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뉘우치지 않는 혼을 지옥에 던지실 때, 악한 자가 그들 자신의 방법에 의한 열매를 영원히 먹어 버릴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도 없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경고를 받는 방법은 많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창조 가운데 그분 자신께 부르신다. —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로마서 1:20). 하나님의 존재, 능력, 지혜는 창조의 일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모든 사람을 그분 자신께 부르신다.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거가 되느니라” (로마서 2:14-15). 당신의 양심은 우리 혼 안에 있는 그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의 행위로서 오게 될 심판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신다. 에디오피아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마다, 당신이 아플 때마다, 자동차 사고나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병원을 방문하거나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섭리의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라고 하신다. 그분은 죄인인 당신에게,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12)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의 전도로 오게 될 그분의 공의와 확실한 심판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신다. 그분은 이 큰 위임과 함께 세상에 그분의 종들을 보내신다: —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15-16).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당신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거절한다면, 당신은 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 받게 될 것이다. —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히브리서 3:7-8).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와 회개로의 진지한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빛에 대하여 죄를 의도적으로 범하며, 그들의 마음을 모질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훈의 문을 닫으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법궤의 문을 닫으실 때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리고 감히 말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의 문을 닫으셨던 자들에 대하여 오늘날 세상을 행보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날은 가버렸다. 그들은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도우신다. 지혜로워라! 복음을 소홀히 하지 말라 (누가복음 13:24-25; 예레미야 7:16; 호세아 4:17; 마태복음 13:12-16; 고린도후서 2:15-17).

확실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 열매를 맺지 못하여 열매 없는 혼들은 그 자체로 쓸모 없을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그들은 땅을 훼방하며, 흙을 망치고, 바리새인들 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는다.

충성된 목자들, 충성된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의 혼을 위하여 진실하게 수고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훈을 구하면서, 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려나가기에 합당한 열매 없는 혼이라도 아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탄원한다 (8 절; 요엘 2:17; 로마서 9:3; 10:1). 그러나 당신은 믿어야 한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도끼에서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므로 은혜의 새 창조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열매를 당신에게 가져오신다. 그렇다,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고 역사이며 운행하심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한다. 만약 믿으면, 구원은 당신의 것이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가 없는 모든 혼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한 율법이 신명기에 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불태우는 것 말고는 합당한 것이 없다. 당신은 오직 두 가지를 위하여 무화과나무를 사용할 수 있다. 먹을 것이나 연료이다. 다른 것에는 쓸모가 없다 (신명기 20:19-20). 당신 믿든 믿지 않든, 당신 구원을 받았든 저주를 받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잘 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순종할 것이다 (로마서 3:3-4).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은 구원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지켜질 것이다.

87 장. 마침내 치유받음!—누가복음 13:10-17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누가복음 13:10-17).

우리 주의 기적들은, 그분이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속자와 우리 왕이라는 주장을 확증하므로, 그분의 긍휼과 은혜의 예표가 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사람들의 육신의 질환을 치료하실 때, 그분이 우리 혼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권능을 갖고 계심을 보여 주고 계셨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이 범죄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 떡과 물고기의 수를 늘리셨고, 그들의 수고하는 제자들의 빈 바구니에 물고기를 모으고, 물고기의 입에서 동전이 발견되게 하셨을 때,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실 권능을 갖고 계심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리고 험한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물을 가로 질러 가셨을 때, 우리 삶의 폭풍을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요 우리 혼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려 오실 것임을 가르치고 계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하여 읽을 때마다, 믿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기적 가운데 공훈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 우리 주께서 이런 일들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내 육신의 날 가운데 땅 위에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했으므로, 나는 나의 높여짐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분명히 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를 오래된 고통스러운 질환에서 살리셨을 때, 그분은 이제 그분의 성도들의 집회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엮드리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파이다. 그분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26)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당신 앞에 이름을 모르는 이 여인을 주 예수께서 모든 세대와 장소에서 우리 같은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것에 대한 예로써 제시하겠다.

그 여인의 상태

첫째, 성령은 이 여인의 상태에 우리가 주목할 것을 요구하신다. — “십팔 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그러면 십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1, 16 절).

안식일에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회당에서, 혹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 발견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리 잡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실 때 가장 기뻐하셨다.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예시하기 위하여, 그분은 공훈의 이 큰 기적을 행하셨다. 성경 안에서 이것과 똑같이 언급된 다른 경우는 없다. 따라서, 누가는 “보라!”라는 말로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도록 한다.

우리는 이 여인이 뭐가 잘못 되었는지 정확하게 들은 것이 없고, 오직 그녀가 “꼬부라져” 있고, 그녀의 상태가 사탄이 그녀를 묶은 데 기인하였고, 18 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고, “조금도 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만 듣고 있다. 그 여인은 매우 아팠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질병은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그녀의 외모는 그녀의 내적 고통의 징후였다. 그녀의 육신의 모습은 그녀의 혼의 그림이었다. 그녀는 꼬부라져 있었다. 이 단락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Spurgeons 은, “영적 장애는 많은 형태를 취하며, 각각의 형태는 바라보기에 고통스럽다.”

다음 번에 하나님의 집에 가면, 현재 모든 사람이 이 여인처럼 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적인 것이 외적으로 나타난다면 집회가 어떻게 보일지 당신의 생각 속에 그려 보도록 하라. 당신의 육체적 외모가 당신의 내적 상태의 반영이었다는 것을 가정해보라. 그곳은 보기에 정말로 비참할 것이다. 벽 저편에 죽은 시체를 볼지도 모른다. 다른 쪽에는 가련한 문둥병자를 충격적으로 바라 볼지도 모른다. 다른 곳에서 당신은 떨리는 믿음으로 마비된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한 편에 앉아 있는 여인은 열정과 절망에 순응할 것이고, 다른 쪽에 있는 남자는 열과 한기에 정신 없고, 뒤에 있는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는 심장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쥐어 뜯고 있다.

모든 복음 교회는 “베델 (Bethel)” (하나님의 집) 과 “베데스다 (Bethesda)” (공홀의 집, 치료의 집) 으로 불리워지기에 합당할 것이다. 함께 모인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아픈 자의 다수, 가난하고, 절름거리고, 상처입고, 절뚝거리며, 불구가 되고, 무기력한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 한 가운데 계신다. 그분은 공홀 가운데 그분의 선택 하신 자의 비통한 것들을 누그러뜨리려 임재 하신다.

우리 본문 안에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은 아마도 군중 가운데에서 인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꼬부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난쟁이 같이 작았을 것이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회당에 출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에 무감각해 졌다. 그들은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여인을 보셨고, 그녀를 측은히 여기셨고 그녀를 치료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녀는 은혜의 예로서 제시되어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여인의 상태는 모든 것을 잃은 죄인의 그림이다. 그녀는 꼬부라져 있었다 (전도서 7:29). 죄를 인하여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녀는 이런 끔찍한 흉한 모양으로 오래, 오래 동안 있었다. 그녀의 비참함은 사탄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도 퍼지 못하였다” (예레미야 13:23).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갇힌 포로, 질병의 포로였지만, 그러나 소망의 포로였다. 비록 그녀가 자신을 펼 수 없었지만, 그녀를 펼 수 있는 분의 임재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그분이 많은 사람을 펴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다.

- 문둥병자 (누가복음 5:12-13).
- 중풍병자 (누가복음 5:18-26).
-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누가복음 6:18-19).
- 백부장의 종 (누가복음 7:1-10).
-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11-17).
- 귀신 들린 여인들 (누가복음 8:2-3).
- 거라사 인 (누가복음 8:26-36).
-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8:41-42).
- 혈루증 앓는 여인 (누가복음 8:43-48).
- 회당장의 딸 (누가복음 8:49-56).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병 고칠 자들 (누가복음 9:11).
- 귀신 들린 아이 (누가복음 9:42).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이유를 생각했다. “만약 이 사람,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치료 하신 분이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이 나도 치료 하실 수 있다!” 나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확신을 갖고 말한다: — 주 예수께서 그분과 나란히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는 최대한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여인의 상태는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림이다. 물을 필요 없이, 비록 사탄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몹시 괴로움 당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믿는 자였고, 구원 받은 여인이었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섬기는 자였다. 그녀가 여기서 사함 받았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우리는 그녀가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 다른 곳에서, 치료 받은 자들은 또한 사함을 받았다. 분명히 그녀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딸,”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의 많은 아들 딸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은 이 가련한 여인처럼, “꼬부라져” 있고, 어떤 의미로 사탄에 의해서 고통 받고 묶여 있으며, “질병의 영”을 갖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타고난 명랑함과 쾌활함 모두를 잃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소녀때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미소 띄고,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행복하였다. 그러나 점차 그녀의 몸에 질병이 기어들어 왔으며,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인하여 얼굴을 끌어 내렸고, 마침내 꼬부라지기 까지 했다. 십팔 년이라는 오랜 동안, 그녀는 무덤을 찾고 있는 것처럼 얼굴을 땅으로 향한채 걸었다. 그녀가 한 낮의 태양을 보았고, 나무에서 노래 하는 새들을 바라보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 보았던 것이 십팔 년이 지났다.

그녀는 질병의 영으로 꼬부라졌다. 당신은 이렇게 가련한 혼처럼 영구히 꼬부라져 있는가? 아마 당신은 좀더 행복했던 날을 기억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신은 질병의 우울한 영 안에 꼬부라져 있다. 당신이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거나, 당신의 사랑하는 구원자의 얼굴을 보거나, 믿음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때로부터 오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 당신의 가장 깊은 혼 안에서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기쁨이 되는 그분을 갈망한다.

“내가 알았던 축복이 어디 있는가
내가 처음 주를 보았을 때?
달콤하고 신선한 광경이 어디 있는가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 예수의?
내가 그때 누린 것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그 기억이 여전히 얼마나 달콤한가!
허나 아픈 공허함을 남기고 떠나 버렸네
세상은 결코 채울 수 없으리!”

이 여인은 꼬부라진 채 자신을 향해 굽어 있었으며, 가장 우울하게 하는 것을 향하여 굽어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불가사의로 우울함이 우울함을 낳고, 비통함이 가중되고, 울적한 영이 수가 많은 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이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하여 굽어질 수록, 더 그렇게 구부러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평강과 확신과 기쁨을 찾지 못한다. 우리 구원자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 볼 것을 훈계하신다. 종교와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그분만을 바라 볼 것을 명령 하신다 (이사야 45:22; 히브리서 12:1-20). 당신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어떤 종교도 사탄의 짓일 뿐 아무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가련한 혼이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 그녀의 상태 때문에 그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녀가 허리가 굽기 시작할 때, “자매야, 네 느낌에 굴하지 말아라. 몸을 곧게 펴라,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굽어지고 기형이 될 것이다.” 고 말하면서, 그녀의 언니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녀의 상태 때문에 그녀에게 잔소리 하였을 것이다. 얼마나 좋은 충고를 사람들이 할 수 있겠는지!

이 가련한 여인은 사탄에게 묶여 버렸다. 그리고 사탄이 그 혼을 묶을 때, 그것은 마치 사람이 독수리를 뒷에 걸고 묶을 때처럼 정말 묶인 것이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묶였다! 세상에서 모든 충고와 권고와 훈계도 그녀를 똑바로 서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비록 온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스스로 똑바로 설 수 없었다. 그녀의 자유 의지는 그녀의 상태를 바꿀 수 없었다!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그녀가 십팔 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다는 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다. — 십팔 년! 그것은 길고, 긴 시간이다. 행복한 십팔 년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날아 간다. 행복한 십팔 년은 짧은 동안의 시간이다. 그러나 비참한 십팔 년, 고통 가운데 십팔 년, 꼬부라진채의 십팔 년을 누가 그것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십팔 년 동안 그 뒤에서 매년 열두 달의 비참한 달들을 끌고 가면서, 매달 무거운 사 주를 잡아 당기며, 매주 칠 일의 우울한 날을 짊어지고, 매일 스물 네 시간 기진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들을 짊어졌다! 얼마나 비통한가! 이 여인은 십팔 년 동안 꼬부라져서 마귀에게 묶여 있었다!

독자들이여, 당신은 이 가련한 여인과 같은가? 오래고, 오랜 시간 동안 영 가운데 꼬부라져 있었는가? 아마도 당신의 내적 낙담, 당신 혼의 지속적인 불안정은 아무도 이해 할 수 없는 고통이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소망을 가져라. — 이 여인의 치료가 곧 왔다. 사탄이 부당하게 사용한 십팔 년 간 묶고 있던 사슬을, 하나님의 아들이 한 순간에 끊어 버리셨다!

그녀가 비록 그런 비통한 상태에 그렇게 오래고, 오랜 시간 동안 있었지만, 늘 그녀는 아브라함의 자녀였음을 잊지 말라.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께 의로웠다.

그녀의 행동

둘째, 하나님의 영은 이 가련한 혼이 행동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십팔 년 동안 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0-11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가련한 여인은 그녀가 육신이나 영 가운데 꼬부라져 있으면서 안식일에 기도의 집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혼 안에서 갈망하였던 자유를 찾았던 것은 그녀가 그 기도의 집에 있을 때 였다. 십팔 년 동안 그녀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왔으며 고통 속에서 다시 집을 돌아갔다. 그러나, 이 날, 그녀는 치유 받았다. 공홀이 기도의 집 안에서 발견 되었다.

그녀의 삶에 대하여 그리고 그녀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그녀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똑바로 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었다. 심지어 그녀의 비참함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께 존귀를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녀가 필요하였던 모든 것이 그곳에서 찾아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도의 집에 왔다. 주께서 거기 계셨다. 그분의 말씀이 거기 있었다. 그분의 백성이 그곳에 있었다. 그분의 가르침을 그곳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공홀이 그곳에서 발견 되었다. 나는 거의 그녀가 시편 122 편을 찬양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그녀가 그날 집에 뛰며 춤추며 갔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경배에 출석하지 않을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었겠지만, 공예배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그녀의 일로 삼았다. 그것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무슨 핑계를 하겠는가?

그녀의 치유

셋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 예수께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련한 혼을 치료하셨는지 말씀하신다. —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12-13 절). 누가 이 여인의 치유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라. 그녀는 십팔 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자 오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이 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분이 그 여인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그 여인에게서 그녀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며, 효험 있게 말씀하셨다. —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고, 부드러운, 못 박힌 손으로 “안수하셨다!” 그리고, “여자가 곧 펴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만드셨던 것을 결코 곧게 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사탄이 구부러지게 만들었던 것을 쉽게 곧게 펴실 수 있다. 그녀가 치유 받자마자,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무거운 짐으로 족쇄를 찾으니
죄와 치욕의 짐 아래 있도다
그 때 예수의 손이 내게 닿았으니
이제 나는 더이상 같지 않네.

그가 내게 손 대셨네, 아, 그가 내게 손 대셨네
그리고 아 기쁨이 내 혼을 휩쓰니
무언가 일어났고 이제 나는 아네
그가 내게 손 대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네

축복의 구원자를 만나 후
또 그가 나를 씻으시고 온전케 하신 후
그분 찬양을 결코 그치지 않으리. —
내가 그것을 외치리 영원 동안.

아 그가 내게 손 대셨네! 아 그가 내게 손 대셨네!
또 아 어떤 기쁨이 내 혼을 휩쓰나!
무언가 일어났고 이제 나는 아네,
그가 내게 손 대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네!

주께서 십팔 년 동안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탄이 괴롭히도록 허락하셨으며, 그것으로 그녀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녀의 깊은 슬픔이, 모두 끝났을 때, 그녀가 가장 달콤한 찬송을 하게 하였다.

그녀의 다툼

한 가지 시험이 끝나자 마자 다른 것이 시작되었다. 이 여인이 치유 받자마자, 그녀는 독선적이고, 종교적인 위선자와 큰 충돌 속에 개입되었다. 이 여인이 안식일에 치유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화가 났었다. —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v. 14).

안식일은 쉬는 날이었다. 그리고 지금, 십팔 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가련한 혼은 안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 율법주의는 모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과 규범들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관습과 날들을 인간의 필요를 염려하는 것보다 더 염려한다. 율법주의는 오만하다. 율법주의 자는 언제나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율법주의는 위선적이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척하는 모든 자는 위선자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언제나, 완전함과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순종인 율법의 기준을 낮춘다. 율법의 기준을 그들 자신에 대해서 낮춤으로써,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헛된 상상을 한다.

그녀의 위로

주 예수께서 세 가지 사항으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온화하게 위로 하셨다: (1.) 그분은 그 여인의 적들에게 대답하셨다 (15 절). (2.) 그분은 그녀에게 그녀의 열납을 확증하셨다 (16 절). 그리고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그녀를 은혜롭게 사용하셨다 (17 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3:15-17).

우리 주께서 모두 마치셨을 때, 그분의 모든 대적들과 우리의 대적들이 영원히 치욕 당할 것이다. 그 크고, 영원한 날에 그분의 모든 백성이 영원히 그분에 의해 행해진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로
서 그분이 영원히 찬양 받으시게 될 그분에 의해 이루어진 그 영광
스러운 일 가운데 불러질 것이다!

88 장. 두 가지 교훈적인 비유—누가복음 13:18-21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가복음 13:18-21).

이 네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가루 서 말 속에 있는 누룩으로 비유하신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위대한 이야기꾼이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고, 그분의 교훈을 예시하고 적용하기 위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그분은 절대로 마음을 사로잡는 웅변이나, 지적 논쟁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신학적 역사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평범하고, 단순한 언어로 복음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예시하시려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서 일궈져야 하는 전도의 종류이다 (고린도전서 2:3-5; 마가복음 4:33-34).

주 예수께서 전도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범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전하셨다. 지혜와 지식의 체현이신 그분은 결코 복잡한 말이나 문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한 번도 원어를 인용하거나 혹은 어떤 말을 정의 하지도 않았다. 그분은 정의가 필요한 말씀은 사용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그분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 가르치시는 진리들을 비유로 예시하셨다.

오늘날의 가르침에 비하여, 우리 주의 전도의 예는 분량있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방법으로 전하셨다.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혹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로 인상 깊게 하려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지식을 보이시지 않았다. 그분은 지식을 가르치셨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주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르친다.

우리 주께서는 분명함과 단순함으로 가르치셨다. 그분은 그분이 예시하실 수 없는 것을 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마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깨달았다. 우리 구원자께서 지식과 깨달음으로 가르치셨다 (예레미야 3:15). 그분은 그들이 필요했던 것을 정확히 아셨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아셨으며, 그에 따라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아무 것도 뒤로 숨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해석해 주셨다. 충성된 자들은 그분의 본을 따른다.

“비유”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잠언으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말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과 교훈적인 비유를 잠언, 혹은 비유라고 부르며, 그것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셨다. —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도다!” (누가복음 11:32; 마태복음 12:42) 그분의 비유로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신다. —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9, 43).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시편 78:2). 그리고 이 비유들의 문제, 대상, 주제들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고 마태는 말한다 (마태복음 13:35).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의 예표들과 그림자들로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으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태복음 13:9-10 에 설명되어 있다. 하늘과 땅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주권적인 공활을 그분이 뜻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 사이에 분명한 구별을 하시며 그분의 주권적인 공활을 행사하신다. 어떤 자에게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신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은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숨기신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특권이다 (마태복음 11:25-26; 20:15; 출애굽기 33:19).

두 가지 교훈적인 비유인 겨자 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시간의 세대를 통하여 전하는 복음의 결과임을 기대하게 되는 것을 보여 주신다.

겨자 씨

첫째, 겨자 씨의 비유를 배우도록 하자.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18-19 절).

기억하라, 비유들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진리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친근한 땅의 예시들이다. 이 경우 비유는 우리 주의 땅 위의 사역의 날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유적인 표현에서 가져온 것이다. 겨자 씨 한 알의 비유는 우리가 결코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계획되어 있다 (스가랴 4:6-10).

성경

이 비유에서 당신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첫 번째 것은 성경의 정확성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은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심판을 넘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긴다고 주장하는 한편 성경의 정확성을 부인한다. 오래기 전에, 어떤 사람이 ABC 뉴스와 회견하던 한 사람이, “나는 성경을 믿는다. 그러나 말씀을 위한 말씀으로 성경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같은 단락에서 여자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말씀임을 믿습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글자대로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언급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잘 대변한다.

영적 어둠과 배교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오한 말씀의 축어적이고 절대적인 감동 가운데 대부분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단념이 있다. 진실성을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거절하므로, 도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 권고와 도움을 위하여 강령술과 점성술과 마법으로 돌아서고 있다. 오래 전에 John Hazelton 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사탄은 빛의 사자의 모습을 취하며 이런 위장 가운데 사탄의 속임수는 치명적이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19-20).

종종,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분이 겨자 씨를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겨자 풀을 나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께서 무지하거나 잘못 아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 비유를 지적한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다. 우리 주께서 겨자 씨가 “세상에 있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예외 없이 모든 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이 그분의 동산에 심는 모든 씨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비록 우리가 겨자 초본이 덩굴이나, 잎이 우거진 식물로 생각하지만, 크기가 바나나 나무 같은 종류의 초목처럼 꽤 상당한 크기의 나무로 자라는 다양한 겨자가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상상으로 성경 안에 부정확함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의 우리 믿음을 흔들도록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디모데후서 3:16-17).

믿음

둘째, 겨자 씨는 그분 안의 우리의 믿음의 예시로서 우리 주에 의해 사용되었다. 비록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겨자 초본의 많은 다양한 종류가 팔레스타인 안팎에서 무성히 자랐다. 어떤 것은 야생으로 자랐다. 다른 것은 다양한 목적으로 경작되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그것은 오직 우리 구원자에 의해서만 언급된다. 두 번 참 믿음이 겨자 씨 한 알에 비유된다 (마태복음 17:14-21; 누가복음 17:3-6). 겨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섯 번만 언급 되었다. 마태복음 17:20 과 누가복음 17:6 에서 그것이 믿음을 예시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참 믿음의 특징에 대하여 네 가지 특정한 것들을 가르친다.

1. 참된 구원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 — 겨자 씨 한 알. 그 사실은 참 믿는 자들이 언제나 그들이 믿음이 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 안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큰 믿음의 사람들로 바라본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은 아마도 전혀

믿음이 없을 것이다.

2. 공로와 능력과 효험을 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구원자의 위대하심,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들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 자신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믿음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이며,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 죄의 산으로 이동하고 고난의 쥐방울나무를 뽑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그분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의문은,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나”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이다. 우상에 대한 큰 믿음은 바람에 침을 뱉는 것처럼 소용 없다. 그러나 믿음은, 겨자 씨 한알 같을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고, 효험 있고, 구원하는 믿음이다.

3. 하나님과 함께, 아무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23).

아무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것의 길목에서 있거나, 방해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파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홍해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져야 한다. 여호수아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야 한다. 갈렘이 하나님을 믿었다. 블레셋 거인은 죽어야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의 뜻과 그분의 백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야이로의 딸은 살아야 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백부장의 종은 살아야 한다.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구원자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40).

4. 하지만, 아무 것도 믿지 않음의 마비 효과보다 더 지독하게 사악한 것은 없다.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땅에, 그분 자신의 백성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58).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량 만큼 그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분량 만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본다. 아무 것도 믿지 않음 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없다 (이사야 48:16-19).

교회

셋째, 겨자 씨의 비유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의 성장을 예시한다. 그 비유의 목적은, 전술한바와 같이, 작은 일들의 날을 결코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왕국의 확실한 성장과 축복에 대하여 우리를 확신시키려는 의도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음 속의 믿음처럼,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 “겨자 씨 한 알 같은”이란 표현은 어떤 작고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대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바라보게 된다. 분명히, 그것은 신약의 교회와 함께 있었던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초 사도들이 되게 선택을 받았던 자들은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였다. 주이시고 이 교회의 주, 이 왕국의 왕이신 분은 멀리 받은 나사렛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이었다. 이 교회가 선포한 교훈, 그들이 도처에서 전하였던 교훈은 십자가에 못 박힌 대속자의 공로와 효험으로 인한 은혜와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교훈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아무 것도 성공적이지 않을 것 같을 수 없었고, 아무 것도 더 비열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고, 아무 것도 더 불쾌했던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왕국이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의 언제나 우리가 했을 것에 정확히 반대가 되고,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을 하신다. 복음은 갑자기 승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 갑자기 세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땅에 심겨진 아주 작은 씨인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로부터 솟아났다 (요한복음 12:24). 하나님의 역사들은 거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언제나 사소한 것들로 보이는 것으로 불분명하게 시작한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의 확산은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것이다. 땅에 심겨진 겨자 씨 한 알처럼, 그 성장은 거의 관찰할 수 없으나, 지속적이다. 완전히 자란 겨자 씨가 모든 초본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도, 세상의 종말에 켈 수 없이 거대하고 크게 될 것이다 (시편 80:8-11).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수는 일 만 곱하기 일 만으로, 천천히 될 것이다. 언급되지 않은 수 백만, 수 십억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일단 심겨지면, 이 교회와 왕국은 큰 왕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 주의 비유는 여기서 예언적이었다. 다시, 그분은 제자들에게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계셨다. 겨자 씨처럼, 비록 그것이 작고 천한 것으로 보였지만, 주께서 여기서 그분의 교회가 위대하고 큰 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분은, “겨자 풀이 자라서 모든 초본들 가운데 가장 크게 되는 것처럼, 나의 교회가 자라서 모든 왕국들 가운데 가장 크게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것이 일어났다. 그것은 오순절 날에 자라기 시작했다. 3000 명이 그 날 그분의 왕국 안으로 거듭 났다.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여 아무 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제외하고 그것을 셀 수 없다. 오순절 이후 며칠 만에, 오천 명이 한 번에 교회에 더해졌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입증하였다 (로마서 1:14-17).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이 이제까지 알았던 가장 큰 제국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성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장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태초에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한 방법을 여전히 채택하신다 — 복음 전도 (고린도전서 1:21-31; 마태복음 16:18). 사악한 자들의 모든 예측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모든 대적들과 내부의 모든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진행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여전히 스스로 확장한다, — 겨자나무가 여전히 자란다!

믿는 자들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참된 것은 그것의 각 지체에 대하여 참되다.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은혜의 시작은 아주 작지만, 생명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성장 한다. 그들이 더 자라면, 그들 자신의 눈에 더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 이루실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바로 그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영향

이 비유에서 극명한 네 번째 사항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세상 나머지 위에 아주 고귀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영향을 갖고 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극소수가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사회 나머지 위에 심오하게 거룩하게 하는 영향을 끼친다. 그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겨자나무에 때를 지어 와서 둥지를 트는 공중의 새들에 의해 의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큰 나무와 같아서, 세상을 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선을 위하여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7:14에서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예를 본다.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는 도덕 의식 안에서 믿는 자에 의해 거룩하게 되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 의해 거룩하게 된다. 역사책을 읽어 보라. 교육은 그리스와 로마 세계의 도덕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절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프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선을 위하여 사회에 절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각 사회, 각 문화, 각 가정,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있는 각각의 관계를 개선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혼합된 균중

다섯째, 겨자 씨에 관한 이 비유 안에서, 우리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은 혼합된 균중임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신다. 공중의 to 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와 왕국 안에 있는 혼합된 균중을 상징한다. 보이는 교회는 언제나 정결한 자와 불결한 자 모두에 의해 세습되어 왔다.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교회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참된 교회는 그 우리 안에 염소와 양들 모두 들어 있다. 그것은 깨끗한 새와 불결한 새를 위한 산란처이다. 그것은 외부 접촉이 없는 동산이다. 그러나 밀과 가라지가 나란히 자라고 있는 동산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 것도 없다! 까마귀들을 겁주며 쫓아버리려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홍새도 쫓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버리게 될 것이다.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 하지 말라. 매번 밀을 뽑게 될 것이다. 결코 염소를 양과 나누려 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오직 주님 자신만 참과 거짓을 구별하실 수 있다. 나누는 것은 그분의 일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하실 것이다.

누룩

다음으로, 누룩의 비유를 배우자.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20-21 절).

이 비유는 많은 사람에게 의해 오해 된다. 우리는 종종 누룩이 세상의 영원히 늘어나는 악에 비유된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하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누룩의 비유는 겨자 씨의 비유처럼 의미 안에서 아주 많이 동일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단계적으로 퍼져 나가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마음 속에 누룩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 여자, 약한 그릇은 복음 전도자, 땅이라는 그릇 속에 복음의 보화를 갖고 있는 자이다 (고린도후서 4:7).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감추어져 있었다. 거듭난 마음은 가루처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부드럽고 유연하다. 누룩은 결코 옥수수 속에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갈려진 가루 속에서만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복음은 돌 같이 거둬나지 않은 마음 위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 그것은 죄의 자각 가운데 성령에 의해서 갈려진 부서진 마음 위에서만 역사한다.

일단 누룩이 반죽 속에 넣어지면, 그것은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넣어지면 역사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역사하는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그러나 역사한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역사는 겨자 씨의 성장과 누룩의 확산과 같으며, 아주 조금씩 점차 우리가 눈으로 거의 알아 볼 수 없게 확산한다. 작은 일들의 날을 절대로 멸시하지 말자. — 그러나 그분이 다 마치셨을 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찌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와 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라.” (스가랴 4:6-10).

89 장.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누가복음 13:22-30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22-30).

선창의 유대인들처럼, 외적 복음 포고와 공예배의 모든 유익과 특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권들을 갖고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고, 종교적 실행과 경건의 형태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전능한 공훈에 속한 구원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종교적 실행들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 애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의 힘 안에서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듣고 충성되게 전했으나, 그분 없이 멸망한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그런 특권을 전혀 갖지 못했고, 복음을 듣고 그들 가운데 계시된 주 예수를 결코 소유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그런 것은 나중 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은혜의 차별이다.

나는 확고하고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깊은 죄의 자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 나라와 세상 여러 곳의 교회들 가운데 내가 전도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쓰디 쓴 고통 가운데 있고 부정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발견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가 거의 없으며, 그리스도께 위임한 자가 거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거의 없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모든 교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어느 복음 교회 안에 거의 없다는 것은 꽤나 사실일 것이다. 마지막 날에 다수, 종교인들의 엄청난 다수, 그들이 구원 받았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7:23, 25:41; 누가복음 5:8, 13:27)고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이며, 저주의 고통으로 영원히 넘겨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21-23). —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었다. —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였다. —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전도하였다. —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기적을 행하였다. —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많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다. —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속자들과 영원한 영광으로 태어났다는 완전한 평강과 자신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소망 없이 길을 잃었다. 마태복음 7 장에 있는 세 구절을 읽는 어떤 정직한 사람도 그 자신에게, “주여, 내니이까?” 라고 묻도록 되어야 한다. John Newton 이 그의 찬송 중 하나에서 그것을 넣었다...

이것이 내가 알기를 갈망했던 점이네,
종종 염려의 생각을 일으키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요, 아닌가요,
내가 그의 소유인가요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의 불멸의 혼이 모두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대다수는 길을 잃었고,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파멸의 대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 안에 분명하게 계시된 사실이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내게 말씀하신다. “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확고한 충고를 우리 주께서 의미하신 것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분이 의미하는 것을 정하는 가장 좋은 길은 문밖 안을 보는 것이다.

충격적인 질문

주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려 놓게 될 곳인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가고 계셨다. 그 곳에서 그분은 우리 대신에 죽으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끔찍한 모든 진노에 고난 당하면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한 속량이 되실 것이다. 갈보리로 향한 그분의 길을 가시면서, 그분은 복음을 가르치셨다. 어느 날, 그분을 둘러싼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면서 길을 걷고 계셨을 때, 분명히, 누군가 성경이 하나님의 택정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생각했고, 주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할 자들만을 선택 하셨고, 구원 받게될 자가 몇 안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사탄은 보통 보배로운 복음의 가르침을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을 어렵게 변질시키며,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취하여 그것을 그들 앞에 장벽으로 만든다. 그것이 여기의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 예수와 함께 가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 하나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였다: —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은 어떤 유대인에 의해서 여쭙던 것 같으며, 왕국의 시작의 작음을 예시하는 두 가지 비유들이 그에게 제시하였던 것 같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배타적인 영은 물론 올 세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까지 확장하였고, 따라서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고 오직 그들의 선택 받은 족속이 그 영광들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질문자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구원자께서 이 편협한 유대인의 영에게 그분이 인정하여 주기를 원했거나, 아니면 비애국적인 혐의를 그에게 뒤집어 씌울 입장을 취하기 원했다.

이 질문을 물은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주 예수께서 아주 필요한 훈계로 그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4 절). 만약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가 적든지 혹은 많은 지가 왜 문제가 되는가? 주께서는 이 사람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그가 그 수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안에 있을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대답하였다. 사탄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없이 지옥에 가는 한 하루 스물 네 시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토론하고 논쟁한다면 사탄은 관심이 없다. 많은 수가 종교에 대하여 말하면서 지옥에 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정에 관한 복된 복음의 가르침을, “너희들은 구원 받을 사람이 오직 선택된 적은 수만 있다고 믿는구나.”고 말하며, 믿고 전하는 우리들을 장난 삼아 찌르는 것 같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4).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질문에 동의한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만만이고, 천천인 다수가 될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취하셔서 그들의 신앙 없는 부모들 위에 심판의 행위 가운데 영화롭게 할 택정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받은 유아들이 얼마나 된다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어떤 한 특정한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멸망할 다수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매우, 매우 적다. 노아의 시대에 오직 노아만 주가 보시기에 은혜를 찾았다. 롯은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집트를 떠났던 많은 수의 사람 중,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렘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나머지는 불신 가운데 멸망하였다. 갈멜 산에 851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엘리야만 하나님을 알았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두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려 나왔다고 하였다 (느헤미야 2:12).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땅 위에 임했을 때, “적은 수만 남았을” (이사야 2:6) 것이다. 큰 수가 바벨론으로 끌려 갔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왔을 때, 그들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만 남았다”고 하였다 (예레미야 42:2).

우리 주 예수께서 믿음과 생명의 길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14). 그리고 그분의 비유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얻은 자가 적음”이라고 분명하게 하셨다 (누가복음 13:20-25). 마지막 때에, 사탄이 묘사한 그 교회 시대 가운데 충성된 자들 가운데 “몇 명”이 발견될 뿐일 것이다 (계시록 3:4).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은 다수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한 자들 가운데, 그분을 알고 구원을 얻은 자는 단 몇 명일 뿐이다. 나머지는 거짓 소망의 환상 아래 멸망하고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주의 말씀이 있고, 경계하라. 당신은 멸망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선택 받은 적은 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만 그리스도를 믿는 적은 수 가운데 있는가? 사도 베드로와 함께, 내가 당신에게 확고하게 충고하는 것은 당신의 부르심과 걱정함을 확실하게 만들도록 애를 써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가? 그리스도 만을 당신의 구원자로서 실로 신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이고 주인인가? 만약 당신이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소수 가운데 당신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걱정함을 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인들이 다섯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임을 알았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데살로니가전서 1:4-10). 이것들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표시들이다.

1.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6).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한다.
2.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데살로니가전서 1:3, 6).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진실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와 소망과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기쁨 가운데 그분 앞에서 행한다. 그들의 주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시험 때에 인내한다. 그들은 그분을 따른다.
3.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운 복음에 헌신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1:8).
4.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참된 마음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하나님께 돌이킨다 (데살로니가전서 1:9).

5.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기대와 소망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산다 (데살로니가전서 1:10).

실로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은 그분을 위한 감사와 찬양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로마서 11:33-36). 멸망하는 많은 자와 선택 받은 소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은혜가 만들었던 차이이다 (고린도전서 4:7; 데살로니가후서 2:10-14). 내게 있어서,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대가 없이 사랑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나의 구원 전체를 기쁘게 돌린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10). 나는 은혜로 선택 받았고, 은혜로 구속 받았으며, 은혜로 부름 받았고, 은혜로 믿을 믿음을 받았고, 은혜로 보존되었으며, 대가 없는 은혜만이 나를 안전하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데려갈 것이다 (유다서 24-25).

“아 은혜로우니, 얼마나 큰 빛진 자인가,
매일 나는 그리 되길 강요 받네!”

진지한 충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진지한 충고를 하신다: —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4 절). “힘쓰라”라는 말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열심히 수고하고, 싸우라”는 의미이다. “곧은(좁은)”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말은 “좁고, 잘록하고, 편협하고, 단한”이란 의미이다.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책임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 할 것이 아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지가 아니다. 우리 책임은 다른 사람이 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직접 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믿지 않음과 우유부단은 마지막 날에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다수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만 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도록 결심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만을 따른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자들이 있든지, 적든지, 우리 책임은 분명하다 - “들어가기에 힘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주실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불신 가운데 계속 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들어가기에 힘쓰라.” 하나님의 택정한 자와 나의 무능함은 내 책임과 아무 관련이 없다. 나는 “들어가기에 힘써야 한다.” —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12).

엄중한 경고

그리고 우리 주께서 아주 분명하고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내 놓으신다 (25-30 절). —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것의 길고 짧음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관용이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을 날이 올 것이다. 그분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6:3). 그것에 대하여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남은 그들의 인생 동안 그것이 건전한 가르침인가 아니면 지나친 아르메니아주의 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다. 나는 정말 그들의 논쟁에 관심이 없다. 나의 염려는 당신의 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인데, 당신에게 오랫동안 열여 있었던 긍휼의 문이 닫혀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있다.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 죽었던 사람들 조차 구원 받지 못할 때가 온다 (잠언 1:22-31; 호세아 4:17).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29:1). 우리 주께서, “당신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당신 앞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지금 들어가라. 문이 언제나 열려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7:13-16).

결산의 날

그리고 우리 주께서 결산과 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하신다.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26-30).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어린 양의 진노 아래 마침내 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26-28 절). 그들의 종교적 고백, 그들의 큰 체험, 그들의 교리 지식, 그들의 대단한 일들은 모두 공허하게 될 것이다.

너무 늦을 때 옳은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지옥은 진리가 너무 늦게 알려진 곳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늘과 영원한 영광의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29-30 절).

이 전체 단락에서 우리 주께서 밤에 열렸던 고대 혼인 잔치에 대한 환영을 만들고 계시다. 집은 전체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된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배제된 사람들은 바깥 어둠 속, “바깥 어두운데”에 있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잔치에 몰려 들어가려는 누구든 막기 위하여 문지기가 서 있는 좁은 삼주문으로 손님들은 들어갔다. 초대 받은 모든 사람이 집에 있을 때, 문은 닫혔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들에게 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18-6:2).

“오라, 보잘 것 없는 죄인아, 그 가슴 속에

수 천 가지 생각이 맴도는구나,
너의 죄의식과 두려움을 억누르고 오라,
그리고 이 마지막 결심을 하라
내가 예수께 갈 것이니, 비록 내 죄가
산처럼 높아졌을 지라도;
내가 들어갈 그의 법정을 아니,
어떤 반대가 있을 지라도.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릴 것이네,
그리고 거기서 내 죄를 고백하네;
그분께 나는 미완의 비참한 자라 말씀드릴 것이니,
그분의 주권적 은혜가 없이는.
은혜로운 왕께 다가갈 것이니,
그 홀이 사함을 주시네;
혹 그가 내 손을 잡으라 명한다면,
그러면 애원하는 자가 살리라!
혹 그가 내 변명을 받으신다면,
혹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러나 만약 내가 멸망한다면, 나는 기도하리라,
오직 그곳에서 멸망하기를.
내가 간다면 멸망 뿐이니,
애쓰려 결심하네;
내가 멀리 있다면, 내가 아노니,
영원히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구하던 공훈과 함께 죽는다면,
왕께서 심판하실 때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는 죽어야 했으니 (기쁜 생각이라!)
결코 죄인은 죽지 않네.”

Edmund Jones

90 장.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누가복음 13:30-35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 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30-35).

교훈적인 잠언

첫째, 30 절에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 잠언을 사용하신다. —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교훈적인 잠언인가! 이 잠언이 주어진 문맥을 인지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줬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촉구하고 계신다 (24 절).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문을 닫으시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될 때가 비록 그들이 들어가기에 갈망하지만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의 날과 영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25-29 절).

우리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문맥 가운데 이다. —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이 잠언은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세대를 거쳐서 성취되었으며, 지금 성취되고 있고, 영원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처음 된 유대인이 나중 되었다. 그리고 나중 된 이방인들이 처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분의 택정한 자를 다루심에 있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의 단순한 선포보다 더 많은 것이 여기 있다. 이 잠언에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과 그분의 영원한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인 그들이 누구인지, 그분이 구원하려 선택하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하늘로 가는 줄에서 처음인 자와 처음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줄에서 마지막이고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들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생각하는 자들은 심판의 날에 처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거의 우리가 선택했을 자들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6-31).

“아, 은혜여! 예상 밖의 마음 안으로
그것은 올 당신의 자랑이네;
당신의 빛의 영광을 찾으리니
가장 짙은 흠 가운데 집이라.
당신이 선택 하시니 (아 선택하신 하나님!)
사랑스럽게 흠모 합니다:
아, 내게 은혜를 주소서 당신의 은혜를 위하여,
또 더욱 더 갈망하는 은혜입니다.”

축복된 사실

둘째, 31-32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고난에 직면한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진정시키고 달래려는 복된 사실을 우리 앞에 제시 하신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심판의 날에 그들이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다른 사람이 그들에 앞서 들어감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음을 깨달았다. 나는 오히려 그분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보기에 오히려 그들을 바라 보시고 계셨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침묵하도록 겁을 주고 그분이 전도하시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 “곧 그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아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1 절).

아마도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잘랐던 갈릴리 총독 헤롯은 그가 우리 구원자를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그 보고를 분명 꾸며냈을 것이다 (자신을 의롭게 하려 결정한 자들인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어떤 지난 것도 두지 말라.) 그 보고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분명히 주를 헐박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기대 밖의 결과를 낳았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 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32 절). — 우리 주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으로 인하여 놀라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여기 있다.

그분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대답에서 우리 주께서 분명히 천명하셨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나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시간이 이를 때까지,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그 여우’에게 그가 나를 해칠 권한이 없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로 무서워하며 짓어대는 작은 여우를 겁주는 것보다 그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겠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 삼일”은 예언 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분의 섬김의 시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와 우리에게 의해 정해진 그분의 죽으심의 시간을 확증하셨고, 헤롯이나, 누구에 의해 서든, 혹은 무엇에 의해서도 단축될 수 없다는 사실의 선포로서 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명하게 사용된다.

우리 주께서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을 그분의 죽으심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므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것을 마칠 것이다. 내 계획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지명하신 계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끝날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히브리서에서 두 번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이 오셔서 완전하게 만들려 하셨던 백성에게 세 번 이 동일한 말 (완전하게 하리라)을 적용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히브리서 2:10; 5:9; 10:10-14; 11:40; 12:23). 하나님-사람 중보자인, 우리 언약의 보증이신 우리 주의 완전함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의 구원 가운데 있었고 정리 되었다. 율법은 결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히브리서 10: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중보자, 보증, 대표자, 그리고 대속자로서 완성하셨던 일로 그분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0:10-14; 11:40).

여기서 우리 주께서 그분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믿는 자에 대하여 사실이다. 주 하나님께서 특정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정한 때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두셨으며, 아무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 것도 우리의 날을 더하거나 짧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배우는 공과는 분명하다: — 우리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하게 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주께서 여기서 본을 보이셨던 생각과 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음의 틀 가운데 사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 만약 우리 마음이 주를 신뢰하므로 확정된다면, 우리는 악한 과도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시간은 우리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 (시편 112:4-10; 31:13-20).

이것이 모든 위험과 모든 적과 모든 고난과 모든 비방하는 혀와 모든 거짓 영 앞에서 나의 태도가 되도록 하자: — 나는 내게 좋은 것만을 갖고 있고 계속 갖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살 것이지만, 그러나 한 순간도 더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 땅과 지옥의 모든 연합된 권세들은 나를 해칠 수 없다. 모든 땅과 지옥의 연합된 권세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 까지 내 생명을 파괴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그 시간을 넘어 단 일초도 더 나를 보존할 수 없다.

그의 생명에 대하여 그런 태도를 가진 자의 이르는 것을 넘어설 것은 없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 머리의 머리카락은 모두 계수되었다. 우리 발길은 모두 주에 의해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 선을 위하여 역사한다. 만약 어떤 Shemei 가 내게 저주의 말을 한다면, 주께서 그 사악한 자의 더러운 혀로 내게 선한 것을 하실 것이다. — 생명! — 죽음! — 현세의 것! — 내세의 것! — 모든 것이 내 소유임은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철저히 버림으로 살아서 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나서, “내가 여호와와의 집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6; 56:4; 118:6; 92:1-15; 히브리서 13:5-6).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3 절). — 여기서 “법이 없느니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불가능하다” 이다.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 (침례자 요한, 이름을 말하면 단 한 사람)은 다른 어디서도 죽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1. 예루살렘에서를 제외하고 어느 곳에서든 선지자가 죽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예외이며, 법칙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대표자들임을 고백하였던 자들의 손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선지자가 죽는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예외이며, 법칙이 아닐 것이다.
2. 그리고, 둘째, 여기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처럼 말씀하신다. 기억하라,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분은, “내가 (모세가 말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때, 너희 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거기 있지 않다. 그리고 나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은 그 배경에 반대가 되므로 우리는 그분의 다음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원하신 구원자

셋째, 34 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원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노를 받았고 완전히 받기 합당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온화하고, 동정적이고, 자원 하신가를 본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
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 우리 구원자께서 얼마나 자원하신 구원자인가! 그분은 “공홀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감사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에 대하여 깨달
아 질 수 없다고 말하려 하며, 우리는 우리 주의 인간적인 감정에
대한 표시로서 이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다: — 우리 구속자를 두 가지 인격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를 내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신학자들을 아직도 하나도 발견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분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다.

하나님을 당신의 작은 상자 속에 절대로 가두려 하지 말자. 그분은
전혀 맞지 않을 것이다! 성경의 분명한 말씀보다 더 신학적으로 엄
밀하게 하려 절대로 시도하지 말자. 만약 이 복되고 복된 말씀, 모
든 은혜가 부어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당신의 목을 조른
다면, 당신은 목이 졸릴 필요가 있다. 만약 그것을 설명함이 없이
그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당신은 읽는 것에 대한 치유과정이 필
요하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다. — 창세 전부터 구원에 선택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받은 자들은 마지막에 구원 받을 것이며, 그들 외에 아무도 없다.
—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속량과 만족하게 하신 자들을 위하여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 외에 아무도 없다.
—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주인들과 함께 왕관을 받을 것이며, 그들 외에 아무도 없다. — 그러나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적은 모두 사람의 역사이다.

이 책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라: — 만약 당신이 구원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고, 어둡고 그리스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행위로만 이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구원하실 힘이 있는 만큼 기꺼이 구원하신다 (이사야 45:22; 55:1-3, 6-7; 마태복음 11:28-30; 23:37; 누가복음 13:34; 요한복음 7:37-38).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자원하심을 듣지 않는가?

만약 당신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고, 어둡고 그리스도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행위로만 이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이다 (이사야 59:1-2; 요한복음 5:4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차차 구원하려”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불신자들의 자리에 그들 대신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위에 자리 하시고, 영화롭게 되기를 기다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다리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34 절을 한 번 더 읽고 임마누엘의 온화하고, 동정심 많으며, 자원 한 마음을 들어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그 성의 사악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떤 범죄가 그들에 의해 자행되었는지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증오하고 살해 하였던 모든 선지자들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하기 원했던 것과 곧 그들이 하려고 한 것을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동정하셨다! 아, 그분이 내게 그분의 영과 그분의 은혜를 주시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동정심을 품고, 자비가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심판

넷째, 35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그 큰 심판의 날에, 그분의 진노 아래 멸망한 자들에 의해서 조차 완전히 오해를 풀게 되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 이것이 당신이 선택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열매를 영원히 먹을 것이다 (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언 1:31). 당신이 떨시하고 버린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떨시
하고 버리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29). —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모두에 의해 영화롭게
되는 나를 보기 전까지 나를 더이상 못 볼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모두가, 후에 울게 될 자들조차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고,” 외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
시는 왕이여!” (누가복음 19:37-38). 그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재
림 가운데 너희가 말할 때, 지옥의 벌어진 구덩이가 당신을 삼키려
그 입을 크게 벌리므로,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신 복된 분이 계시
다!” (계시록 1:7; 빌립보서 2:9-11; 이사야 45:22-25).

“너희 죄인들아,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
그분의 진노를 너희는 견딜 수 없노라;
그분의 십자가의 피난처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찾아라.
그로써 저주가 없어질 것이니,
구원자께서 피를 흘림으로 인함이라;
또 그 마지막 경이로운 날 부어 줄 것이라
그분의 축복을 너희 머리 위에!”

91 장 안식일 — 공휴의 날—누가복음 14:1-6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누가복음 14:1-6).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 선포하신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13-14).

그분이 땅 위에 계셨던 동안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께서 안식일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쁜 날로 만드셨으며, 복음을 안식일, 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약 율법의 안식일이 그랬던 것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인들에게 기쁜 날로 만드시는 것을 계속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식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 죄인이 그의 길에서, 그의 죄에서, 그의 타락한 마음의 쾌락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될 때, 그분 안에 있는 긍휼과 은혜와 구원과 안식을 찾으므로, 그가 그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분 안의 믿음이 존귀임을 발견한다. 실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며, 그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적들을 이기며, 여기서 “야곱의 기업”이라고 부르는 하늘의 가나안의 충만한 기업을 마침내 얻게 될 것이다. “대저 여호와와 그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식일의 기적

우리 주의 땅의 사역의 시간 동안, 안식일은 치료를 위한 날로서 사용되었다. 그분의 본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은혜의 날을 묘사하기 위하여 의도되었고 계획되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1 절). —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안식일에 크고 호사스러운 잔치를 열었다. 이 날에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의 한 사람, 공회회의 한 사람, 독선적인 율법주의 자들의 그 무리 중에서 최고로 가장 잘 알려진 한 사람의 집에 초대되었다. 우리 주께서는 호의로부터 바리새인의 집에 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련되고,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주의자들이 주를 덮에 걸기 위한 계획을 꾸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엿보았다.”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2 절). — 이 선하고 친절 한 종교주의자들이 구원자 앞에 “고창병”이 있던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아 그들의 덮의 미끼로 삼았다. 고창병은 율혈성 심부전의 옛말이다. 이 상태는 부기와 가는 소변과 식욕 부진과 활기 부족과 쇠약함이 따른다. 부기는 언제나 발과 발목에서 시작하며 다리를 따라 올라가서 복부까지 진행한다. 그것은 당뇨 환자들 사이에 상당히 일반적이다. 종기에 더하여, 방광 기능이 약하고, 식욕을 잃으며 매우 활기 없게 된다. 그 부어 오른 수족은 쇠약하게 된다. 잠시 후에는, 만약 그를 도울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가 심각하게 아프고 곧 죽게 될 것임이 분명해진다.

몸에서 황산이 생성될 때, 그것이 물과 결합하여 부기를 일으킨다. 이 때 열이 발생하며, 모세 혈관을 확장하게 한다. 압력으로 인하여 혈청이 혈관 벽을 통하여 나가게 하고, 염증과 부종을 일으킨다.

오직 의사였던 누가만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기록한 것은 흥미롭다. 아마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과 같은 상태로 발견된 사람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록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한 치료 방법은 없었고, 적어도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없었다.

이 사람들은 이 가련하게 죽어가는 비참한 자를 바리새인의 집에 데려왔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 말고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를 위해 어떤 염려도 하지 않았다. 종교가 언제나 하는 것처럼, 그들은 단지 그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되기를,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편 76:10). 그리고 그들의 진노는 곧 우리 구원자의 찬양으로 보여졌다. 이 극악무도한 자들은 단지 하수들이었고, 그들로서 영광의 주께서 확실하게 선택 받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분께 기꺼이 데려오게 하시므로 그가 이 사람 안에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속한 경이롭고 구원의 능력을 보여 주셨을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3 절). — 비록 그들이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구원자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생각에 대답하셨다. 그들은 단지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한 선지자를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덮을 놓으려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으며, 그분은 그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셨다. 주 예수께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4 절). — 그들은 잠잠하였는데, 그들이 감히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덮에 걸렸다. 그들은 주께 어떤 동의도 보여 줄 수 있는 말을 감히 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이 행하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려 하였던 것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공황에 속한 일들이 안식일에 허용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다. 실로 안식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큰 복음의 시대, 공황과 은혜의 이 시대를 묘사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일단 주께서 이런 떠드는 사람들을 침묵하도록 무안하게 하셨으며, 그분은 고창병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치료 하셨다. 홍해를 마르게 하실 수 있고, 사나운 갈릴리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신 그분은 이 사람의 몸에서 약간의 물을 빼내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즉시, 부어 오른 손발이 온전하고,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진짜 연회장이셨던 그분이 이 사람을 식탁과 친구들과 그의 적들의 친구들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게 치료되어 집으로 갔다.

이것은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 가운데 은혜에 속한 우리 구원자의 역사들이 어떤 그림인가! — 그분이 그를 데려 오셨다. — 그분이 그를 치료하셨다. — 그분이 그를 보내셨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5 절). — 다시, 우리 주께서 이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그분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싫어했으며 사람을 싫어했던 종교적인 군중의 말하지 않은 핑계들에 대답하셨다. 그들은 분명히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분노하였고, 그 가련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안식일에 온전하여 졌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것에 분노하였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들 중 아무도 그 자신의 황소나 나귀를 안식일에 익사하게 내버려 둘 자는 없다. 우리 주의 분명하고 담대하게 빗대는 것은 이것이다: — 너희 점잖은 사람들은 분명히 인류를 위하여 행하는 것보다 너희의 가난과 너희 자신의 짐승에 더 많이 걱정한다.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6 절).

다른 안식일 기적들

우리 주께서 얼마나 자주 안식일에 가련하고 궁핍한 혼 위에 그분의 공황에 속한 기적들을 행하시기로 선택 하셨는지 당신은 이전에 알았는가? 복음서들 가운데 우리는 안식일에 행해진 여섯 가지 특정한 치유 경우를 본다. 사람이 제 육 일에 창조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줄 필요는 없다. 여섯은 사람의 수이다. 우리 주께서 안식일에 이 여섯 가지 치유를 행하시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27) 라고 말씀하는 것 같다.

1. 누가복음 14 장에서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이 그 하나이다.
2. 안식일에 우리 구원자께서 한 남자로부터 마귀를 내 쫓으셨다 (누가복음 4:31-37).
3. 누가복음 6 장은 우리 주께서 안식일에 한 사람의 마른 손을 치료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해 준다 (누가복음 6:6-11).
4. 누가복음 13 장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십팔 년 동안 불구의 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점으로 질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을 치료하셨다 (누가복음 13:10-17).

5. 요한복음 5 장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가련하고 무능력한 사람, 오래고 오랜 시간 동안 허약한 상태로 있었던 사람을 치료하신 것을 본다 (요한복음 5:1-9).
6. 요한복음 9 장에서 우리 주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다시 안식일에 치료하셨다 (요한복음 9:1-14).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 여섯 가지 기적들 모두에 대하여 세 가지 특별하고, 아주 교훈적인 방면이 있다. 첫째, 그 기적들은 모두 안식일에 행해졌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다. 아, 그 날이 당신에게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식일이라 부르고 이 날을 그분의 은혜로운 기쁜 날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둘째, 이 기적들 각각은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수행되었다. 셋째, 이 가련한 혼 가운데 아무도 주의 공훈을 구하지 않았다.

모든 예 가운데 구원자께서 그분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 되셨다 (이사야 65:1). 귀신들린 자는 자신을 홀로 두라고 그리스도께 탄원하였다 (누가복음 4:34). 손 마른 자는 치료 받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6:6). 허약한 여자는 치료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누가복음 13:11). 고창병이 있는 남자는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14:2). 무기력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다 (요한복음 5:5).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이 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들은 적이 없었고, 따라서, 그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9:32). 그러나 안식일의 주께서 사람들에게 묶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지 않았다. 전능한 은혜는 결코 쇠하지 않는다. 주의 팔은 결코 죄인의 의지를 기다리지 않는다 (로마서 9:1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들을 그분은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보혈로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전능한 공훈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조력 없이, 그들의 행위 없이, 그들의 의지 없이, 심지어 그들의 갈망 없이 그것을 행하신다. — 그분은 대가 없이 그것을 행하신다!

의사는 누군가 그를 병자들에게 보내기 전까지 절대로 병자에게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분을 위하여 보내심 받은 분이 아니며, 그것이 그분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사야 65:1). 그분은 우리 그분께 오실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기 오래 전에 우리를 찾으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찾는 꿈을 꾸기도 전에 우리를 찾으셨다.

의사가 올 때, 그는 그의 진료에 대하여 효과가 있든 없든지 간에 대가를 받을 것을 기대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긴 여정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다.

큰 의사가 이제 여기 계시네,

동정심 많으신 예수!

그는 약한 마음을 격려하려 말씀 하시네—

아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너의 많은 죄가 모두 사함 받았네.
아 예수의 음성을 들어라!
평안 가운데 하늘로 가는 길을 계속 가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왕관을 써라!
모든 영광을 죽는 어린 양에게!
이제 내가 예수를 믿네.
축복의 구원자의 이름을 사랑하네.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네.
그리고 위에 그 밝은 세상에 이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 오르네.
사랑의 보좌 주변에서 노래 할 것이라,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기쁨이 충만한 안식일

이사야 58:13-14 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언의 감동 받은 이상을 갖고 세속적인 유대인 안식일을 너머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 안식일이고 그분 안의 믿음의 복된 안식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본다¹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때,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될 때만, 우리의 안식일이신 그분 안의 믿음의 복된 안식으로 옮겨질 때만, 우리가 믿음의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자

¹⁴ 이것은 우리가 그 이사야의 충고를 볼 때 분명해 진다 —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쁜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봐야 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열납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하면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를 수 있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요구하셨던 안식일이 단지 일시적이고, 예표적인 규례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을 상징하였던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주 하나님께서 율법 제정에서 유대인에게 지키도록 한 안식일을 가르치셨을 때, 그분은 그것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주셨다.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켜져야 했다 (출애굽기 20:8-11).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을 상징하였다. 비록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죄와 타락으로 손상되었으며, 안식일은 “만유를 회복하실 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안식의 축복된 날을 상징하며 (사도행전 3:21; 골로새서 1:20; 에베소서 1:10), 만유가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할 때이다.

둘째,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지속적인 일깨움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구속의 그림이었다 (신명기 5:15). 다른 말로, 안식일은 모세 율법의 다른 모든 방면처럼,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의 완전한 구속에 대한 그림 같은 예언이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든 일로부터 제 칠일에 안식하였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찾는다.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일임을 깨달을 때만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를 수 있고, 부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의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식일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이다. 나는 글자 그대로의 안식일을 지키는 척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의 안식일 행위 가운데 기뻐하려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를 시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안식일주의자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모든 안식일주의자는 그들의 율법 준수의 멍에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발견한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행해야 하는 것으로 느끼는 영적 채찍질이다.

안식일 준수는 동물 제물들처럼 구약 율법의 한 부분이었다. 그것은 신약 경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안식일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지나던 그 변화의 기간 동안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과 성전에서 혹은 그들의 회당에서의 유대인 경배와 연계하여 언제나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서신서에서 오직 두 번만 언급되고 있다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골로새서 2:16-17 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고 말씀하는 것을 본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율법적 안식일의 준수를 금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가 전적으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말한다 (로마서 7:4; 10:4).

히브리서 4:3-4, 9-11 에서 이 복음 시대에 남아 있는 안식은 “휴식”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적인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과 그들만이 진실되게 그분 안의 믿음으로, 그분 안의 안식함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완성된 역사

우리의 모든 영광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안식이 영화롭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안식일을 기쁜 날로 부를 수 있고 부르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4:10; 이사야 11:10). 하늘에서 우리 구원자의 안식은 영화로우며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다. — “그 거하신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10).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일이 끝났으므로, 제 칠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께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마치셨으므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셨다 (로마서 8:34; 고린도후서 5:17-21; 히브리서 10:10-14).

우리의 찬양 받으신 구원자를 보라! 당신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을 보는가? 그곳에서 그분은 방해 받지 않고 방해 받을 수 없는 주권적인 평온 가운데 앉아 계신다!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7:2; 빌립보서 2:9-11). 그 찬양 받으신 하나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신성하게 지명된 대변자로서, 율법의 모든 다른 요구를 행하셨던 것만큼, 우리를 위한 모든 율법의 안식일 요구들을 성취하셨다. 이제, 하늘에서 그분은 영원한 안식일 휴식을 지키고 계시다 (이사야 53:10-12). 그리고 그분의 영광인 그분의 쉼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분의 일을 마치셨고 (요한복음 17:4; 19:30), 그분의 백성의 구원이 확실하고 (히브리서 9:12), 그분의 모든 대적들이 곧 그분의 발판이 되었을 것임을 (히브리서 10:13) 우리에게 말해준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하셨다! 그리고 모든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행해졌으며, 우리의 복된 구원자께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은 모든 사람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른다!

안식일 안식

우리가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복된 안식일 안식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우리 혼의 기쁨이라 부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히브리서 4:3).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하는 만큼 우리 구원자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 그분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의 안식일 준수는 세속적이고 융통성 없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다 (골로새서 2:16-17). 우리는 믿음에 의해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기억하라, 안식일은 구약 성경 안에서 창조 후 하나님의 안식의 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징과 이집트로부터 유대인 구속의 기억으로써 유대인의 의식 경배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다. 안식일 준수の本질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부인과 희생이었다.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기쁜 어떤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었다 (이사야 56:2; 58:13; 에스겔 20:12, 21). 안식일 준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망라하는 자기 부인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아의 포기과 자기 자신의 헌납이었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안식일을 영적으로 지키는 것이며, 칠일 가운데 하루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날들이다. 믿는 자의 삶은 안식일의 철저한 준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그분께 오는 모든 죄인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당신은 죄와 죄책감의 짐 아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가? 당신은 안식을 갈망하는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평강을 찾기를 갈망하면서 죄와 함께 어렵게 분투하겠는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것인가? “오라” — 그것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라 이다. “내게로 오라!” — 전도자에게 가 아니다. 내 교회로 가 아니다. 심지어 내 교리로 가 아니다. 그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인이 그리스도께 올 때, 그분의 대속의 완성된 역사 위에 그 혼을 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일하기를 그친다 (고린도전서 1:30-31).

하지만, 이 믿음의 안식은 우리 행위를 그치고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구속의 기억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그의 진짜 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질 안에 우리의 귀한 구원자에 대한 우리 삶의 헌신도 포함한다 (마태복음 11:29-30). 우리는 믿음의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가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께 기꺼이, 의도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행복함으로써 우리 혼에 안에서 안식을 찾는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 하고 안식일을 진실로 지키려 한다면,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종교적 실행을 위하여 일주일의 하루를 남겨두는 것보다 상당히 더 많이 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의 멍에 아래 우리 자신을 두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무엇을 믿을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지 그분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분의 멍에가 쉽고 그분이 짐이 가볍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분의 뜻에 엮드릴 때, 우리는 우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며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른다!”

그분이 이 땅 위에 행보하셨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 2:27)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참 안식일의 여명이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위한 공휴의 날임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율법의 안식일에 공휴에 속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92 장 “말석에 앉으라”—누가복음 14:7-11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7-11)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사람들과 도덕적 선행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뛰어난 데 대하여 공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세 가지 이유로 분명하다:

1. 그분은 타락하고, 독선적인 종교적 바리새인들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2. 그분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 속한 일에 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 당신이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전진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상석을 원한다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취해야 한다. 만약 기꺼이 말석에 앉기로 한다면, 당신은 분명 그 자리를 얻는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은 기꺼이 당신이 바라는 것을 제공할 것이다.

3. 그분의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1-8), 우리 구원자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종교를 보여주고, 경건을 보여주거나, 어떤 외적 행위로 하나님께 대한 영성과 헌신을 보여주려해서는 결코 안 된다. 언제나 우리의 행위로 복음을 빛나게 하자 (디도서 2:10).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과시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한 세상사람들이 하듯 행동해서는 안 된다. 각자가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하기를 선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선, 우리 형제의 안녕을 늘 구하도록 하자. 그러나 종교적으로 행도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과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본

분명히, 이 구절들 안에 있는 비유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참되게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그분 자신의 본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한 단락이 이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빌립보서 2:1-1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1-11)

여기 누가복음 14:7-11 에서 우리 주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겸손을 가르치신다. 첫째, 그분은 혼인잔치에 초대 받아 자들에게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하신다. 둘째, 그분의 입에서 자주 말씀하셨던 큰 원칙을 선포하신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열쇠

이 비유의 열쇠는 잠언 25:6-7 에서 발견된다. —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옴이니라.” (잠언 25:6-7).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생각 속에 이 단락을 분명 갖고 계셨다. 그분은 죄인들이 초대 받은 혼인 잔치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와야 한다.

이 단락 안에서 많은 경우의 굴욕 당한 교만으로 제시된 체면의 치욕과 난처함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자기 주장, 자만심, 주제넘음, 그리고 과시는 언제나 오만하게 행동하는 자들 위에 수치스러운 타락을 수반한다. 온유함은 확실하게 될 것이지만 아직 “세상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듯 하다. 다윗은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하여,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시편 17:10),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시편 31:18) 이라고 말했다.

야심적이고 자기 본위의 사람들은 때때로 물론 신중함과 빈틈 없음과 인내 같은 다른 자격을 얻는 것을 전제로 그들의 야심을 높이려 한다. 그러나 비유가 결론을 내리는 (11 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경우에 확인될 때가 오고 있다. 그분은 모든 교만을 스스로 나타내는 자들 앞에, 그것이 저자세가 될 분 앞에서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해야 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 영원하신 아버지 옆에 우주 가운데 있는 상석을 갖고 계셨을 때, 자신을 낮추셨고, 죽음의 십자가의 위치일지라도 말석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고린도후서 8:9), 그분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는 모든 자를 영원히 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원하고 높이기 위함이다. 그 날의 심판은 모든 교만한 행위를 기억하고 낮출 것이며, 마치 그분이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기억하고 보상하기 위함 때문이다. 그분은 심판 안으로 모든 게으른 말을 가져 오실 것이며, 모든 자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지만, 이 겸손은 우리가 그것을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에 매우 반대가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의해 낮아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질 수 없다. 겸손한 사람은 낮아진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허리를 굽히게 하실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결코 허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후에서 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은혜롭게 낮추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교만이 이제 굴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주 더 쓸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나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세상의 위대한 왕과 재판장의 임재 앞에서 굴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더 쓸 것이다.

우리 자신의 사악함과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이라 불리는 이런 것은 죄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아브라함, 모세, 욥, 다윗, 다니엘, 바울은 모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삼위 주 하나님 앞에서 그들 스스로가 죄인들,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고,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입고, 열납 받은 죄인들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

겸손

무엇이 겸손인가? 한 마디로 그것을 설명된다. 겸손의 뿌리는 올바른 “지식”이다. 구속의 샘이 우리에게 열릴 그 날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스가랴 12:10; 13:1).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한 주권과 거룩을 알며, 그리스도와 구속 받은 자에 대한 대가이신 분을 아는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야곱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공훈의 가장 작은 것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 그는 “나는 비천하오니”라고 말한 욥처럼 자신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외친 바울처럼 외친다 (창세기 32:10; 욥기 40:4; 디모데전서 1:15). 그는 어떤 것이든 자신을 위하여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합당한 것보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낮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낮아짐 가운데 그는 그의 형제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낮다고 평가한다 (빌립보서 2:3).

무지, 전적으로 무지함에 지나지 않는, 자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모든 교만의 원인이다. 끔찍한 자기 무지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기를 매일 기도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를 낮아지게 하는 모든 것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경작되어야 할 덕목으로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겸손을 여기에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여기서 죄인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막는 독선과 불신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책하고 계시다.

배경

이 비유가 주어진 배경을 보라. 우리 주께서 이제 막 가련하고, 멸시 받고, 궁핍한 고창병 걸린 남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셨으며, 그로써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우리 주의 진실성을 그들이 파괴하려 소망했던 뜻의 미끼로 사용했던 바리새인들을 정죄하고 계셨다 (1-6 절). 그러므로, 7 절의 시작 말씀이 연결임을 주목하라. — “그리고”(역주: 한글 번역본에는 없음).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대답할 수 없을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7 절).

그리고 이 비유를 주신 후에, 주께서 만찬에 그분을 초대하였던 교만한 바리새인에게 참된 겸손, 참된 선은 대가로 아무 것도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아무런 유익도 가져올 수 없는 자들을 섬긴다는 것을 선포하신다 (12-14 절). 분명히, 그분은 이 행위 판매자에게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사람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대가 없이 분배하시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큰 잔치에의 초대에 비유된다. 그리고 주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은혜롭게 가난한 자, 불구인자, 절름발이, 소경 등 그분께 갚을 수 없는 자들을 그분의 잔칫상에 은혜롭게 부르신다.

군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주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정확히 이해하였다. 15 절을 보라. —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리고, 우리 주께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계속하신다. 기억하라, 그분은 여전히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 그분은 여전히 혼인 잔치에 그들이 초대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하여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특별히, 주 예수께서 가련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큰 혼인 잔치에 어떻게 와야 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마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16-24).

교훈

이 단락에 있는 우리 주 예수의 목적은 공황을 구하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다. —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하며, 그분 앞에서 죽어서 우리 자리를 취하면서, 겸손하고, 무가치하고, 멸망하고, 저주받고, 소망 없고, 파산한 죄인들로서 그리스도께 와야 한다. 우리는 치욕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죽어서 말석을 택하여 그분 앞에 허리 숙여야 한다. —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천연적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나고 그분의 영으로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아무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2:7-14). 천연적인 세상 가운데 위로 오르는 길은 위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 세상 가운데 위로 오르는 길은 아래에 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천연적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 세상 가운데 사는 방법은 죽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39). 천연적인 세상에서 인간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만족을 찾지만, 그러나 바울은,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10) 고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마음과 혼 속에서 그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공허함을 보여 주는 것이고 (전도서 1:2, 14),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 그의 유익과 애정과 사랑과 염려를 돌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5:3-12).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충만하게 되려면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지혜롭게 되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벗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면 우리는 가난해져야 한다 (잠언 16:18-19; 마태복음 5:3; 11:29; 야고보서 4:6).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긍휼과 은혜를 받겠는가? 그리스도께 나오라. 와서 그분이 주시는 유일한 근거를 취함으로써,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가난한 죄인으로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라 (요한일서 1:7-10). 태초에 그분께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자.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6).

“아무 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나, 내가 받은 것.
은혜가 그것을 부어주었으니, 내가 믿은 이후네.
자랑함이 채하여졌으니, 교만을 낮춤이라—
오직 죄인이니, 은혜로 구원 받네!”

93 장. 영원을 위하여 살아감—누가복음 14:12-15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누가복음 14:12-15).

그 때는 토요일 저녁, 유대 안식일이었으며,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도자들 중 한 사람 (14:1),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으로 율법 준수자들 중 가장 열심인 자에 의해 만찬에 초대 받으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두 번째 다시 초대 받았는지에 대하여 내가 아는 암시는 없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기란 어렵지 않다. 매번 그분이 그분의 입을 열었을 때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의 위선을 벗기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 그렇게 꿰뚫고 그렇게 드러냈던 다른 사람은 결코 없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마음을 열고 드러내셨다 (히브리서 4:12-13).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마다, 그분은 권위, 신성하고, 꿰뚫고, 전지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로서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한때 그분에 대하여,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고 보고 하였다 (요한복음 7:46).

우리 주께서 크든 적든, 군중 가운데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분열이 있었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듣고 순종한다. 그분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0:27, 4).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43, 47).

치료

우리 주께서 이 토요일 만찬에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고창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율법 전문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율법적인가를 물으셨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침묵은 분명히, ‘아니요. 율법적이지 않습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누가복음 13:14 로 돌아가서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말했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그들의 침묵에 대하여 그것에 대답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누가복음 14:5). 다시,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드러난 위선

주께서 그들과 우리가 추측을 이끌어 내도록 그것을 남겨 두신다. 그것은 틀림 없다. —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안녕에 날카로운 관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과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 사이에서 있는 듯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타협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보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경배보다 분명 더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이를 때, 그의 질병, 고통, 혹은 손실이 전혀 없는 자들은 그들의 강경함 가운데, 말하자면, 그들의 영성 가운데 편리하게 엄격하게 된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악하며, 경직된 마음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신이 그들의 배” (빌립보서 3:19) 인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우리 주께서 철저한 모욕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을 붙잡으셨고, 나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 우리 주의 세상 삶 가운데 있던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공과는 이것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사람들을 이전의 상태보다 두 배 더 지옥의 자녀들로 만든다.

우리 주께서 만찬장에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은 고창병을 가진 그 가련한 사람을 치료하고, 그분의 종교적인 주인의 모진 마음을 드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내시는 것이었다. 그분은 공개적을 인간의 위선을 드러내셨다. 당신의 초대자에게 하는 가장 비위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분명 가장 은혜로운 일이다.

드러난 교만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두 번째 일은 보다 더 충격적이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우리 주께서 공개적으로 만찬 손님의 교만함을, 모든 사람 바로 앞에서 드러내셨다. 그분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앉아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들이 어떻게 입고 있는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아니다. 그분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찾으신다. 전지한 예리한 눈은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안다. 조만간 그분이 그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보물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보신다. 여기 그것이 있다: —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사랑한다. 그들은 명예로운 자리를 가진 것에 대하여 평가 받기를 좋아한다. 그분은 그들의 길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않게, 그들이 교체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 보신다.

이 존귀와 존경의 사랑, 이 고귀함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그분은, “화 있을찜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누가복음 11:43; 참조-누가복음 20:46-47). 두 가지 것들이 언제나 존귀한 곳을 사랑함과 나란히 한다: (1.) 약함의 활용과 (2.) 덜 존귀히 하는 것 같은 자들의 정죄이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칭찬을 도모하고 과부의 집이 당신의 길에 서 있다면, 당신은 생각 없이 그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 자신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에 허물어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로운 자리를 추구한다면, 영광 가운데 구속 받은 자들 가운데 우리를 위한 자리는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4:11; 마태복음 5:3, 5, 7; 18:3). —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11).

드러난 동기

당신은 아마도 주께서 하루 저녁에 충분히 괴롭히셨다고 생각 된다. 그분은 공개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위선과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셨다. 우리 주께서 저녁 연회를 얼마나 망쳤는지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일반적으로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말씀해 오셨다. 이제 그분은 돌려서 주인에게 말씀을 하신다 (12-14 절). 여기서, 그분은 그 사람의 동기, 그의 마음의 동기를 모든 그의 손님 앞에서 드러내신다.

“또 자기를 칭찬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칭하여 네게 값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값은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값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얼마나 예외적인 사고방식인가! 얼마나 이상한 논리인가! 주 예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께서는, “너희가 호사스런 만찬을 할 때, 너희 친척과 친구들과 부유한 이웃, 너희에게 되갚을 수 있는 자를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이득이나 어떤 종류의 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 가운데 초대하라.”고 하신다.

우리 주께서 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면전에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면 그보다 더 거칠게 솔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귀하께서 당신의 선으로 인하여 천국에 가기를 희망하는데, 당신 속에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당신이 선을 보이려 하는 모든 것에서 당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척하는 모든 것은, 실로 당신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영원한 파멸이 될 것입니다.”고 말씀하셨다.

누가 도대체 그렇게 말하겠는가? 아마도 그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요한복음 18:36); 이 땅 위에서 천 년이 지나고 나면 어제 같은 것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시편 90:4); 우리 목숨이 나타났다가 한 순간 사라져 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야고보서 4:14); 그 생명을 구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잃을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잃은 자가 이제 사랑 가운데 구원해 줄 사람일 것이다 (마가복음 8:35); 그리고 부활과 심판의 날과 영원이 실제임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이다. 아무도 이제까지 이 인자처럼 말하지 않았다.

의도된 공과들

그러나 왜 우리 주께서 그분이 이 만찬장에서 하셨듯이 말씀하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 왜 그분은 그가 하셨던 일들을 하셨나? 그것이 단지 이 사람들에게 사랑하기 위함이었나? 단순히 그들의 정죄를 드러내자 위함이었나? 단지 그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함이었나? 물론 아니다! 그분의 행위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의 목적은, 여기서나 또 언제나 매우 중요한 영적 일들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함이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대가 없이 은혜로운 복음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이 단락에서 배우도록 하시려는 분명한 공과들 몇 가지를 보여 주도록 하겠다.

1. 여기서 우리 주로부터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사항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이 그들에게서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을 찾아서 섬기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다.

내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우리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실로 마음 가운데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며, 그로써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언제나 관심하여 하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찾아 볼 수 있는 자들에게 관심하여야 한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신명기 15:11).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은 그들을 돕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증오하고 경멸하는 것이며,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요한일서 3:14-17).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의 더 약한 형제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주목을 해야 한다. 서로의 부담을 짊어지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한다 (갈라디아서 6:20).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도덕적 강박함의 공과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목표는 훨씬 더 높다. 2 절에서 묘사되었던 고창병 가진 사람처럼, 당신과 나는 가련하고, 무기력하며, 멸망하는 죄인들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다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주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원하거나, 그분께 나왔거나, 도움을 위하여 기도해서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주 예수로부터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그분을 보았다는 표시조차 없다. 그러나 공허의 시간이 그를 위하여 왔던 고창병 있는 그 가련한 사람은 그곳에 있었고, 주께서 바리새인의 만찬 초대를 받으셨다.

2. 두 번째로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 사이에 말석을 택하셨다.

겸손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무리에게 스스로 겸손하도록 가르쳐서, 그로써 그들이 심판의 날에 칭찬 받고 보상 받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로, 그런 자기 이익만 차리는 겸손이 절대 겸손이 아니고, 다만 겸손의 모양일 뿐이다. 우리 주께서 참 겸손을 설명하고 계신다. 그분 자신이다 (빌립보서 2:1-11). 그분의 겸손은 본보기가 된다. 우리는 그와 동일한 생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은 본보기이다. 그분의 겸손은 자원한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셨고, 그래서 그가 칭송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은 칭송 받으셨으며 심판의 날에 보상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8:9; 이사야 45:20-25; 53:9-12).

3. 세 번째 우리 구속자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부활의 날과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것, 그분은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영원 가운데 행하셨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영원에 대하여 아시고 사셨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동일한 것을 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4:17-5:1).

우리는 멸절되지 않는 혼이다. 우리는 모두 죽어가는 피조물들이며, 무덤으로 빠르게 움직인다. 죽은 자의 부활, 곧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28-29).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며, 그 날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7:31; 계시록 20:11-1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큰 날에 모든 자에 대한 재판장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인자, 하늘 보좌에 자리하신 인자, 하나님,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인자가 되실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하늘, 하나님의 기억의 책, 그리고 “생명책”이라 부르는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모두가 멸망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모두가 영원히 저주 받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 위에 쌓인 고통은 단지 보답, 정확한 보단,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한 보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주 받은 자 그들 자신은 이것을 인정하도록 강요 받을 것이다.

죽은 자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일어나게 될 그 큰 마지막 날에 대한 임박한 기대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자. 사망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자. 우리가 여기에서 육신 가운데 사는 생명이 전부가 아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우리 존의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대해야 하는 유일한 세상이 아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 쉴 때 모든 것이 끝나지 않으며, 사람들은 무덤 속에 있는 그들의 오랜 동안의 집에 옮겨진다. 나팔 소리가 어느 날 날 것이며, 죽은 자가 부패하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올 것이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로.

앞으로 오게 될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들처럼 살며, 또 다른 세상을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기를 갈망하자. 살아 있으므로, 우리는 중요한 사망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살아 있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하는 모든 것을 인내심 있게 취할 것이다. 시험, 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실, 실망, 배은망덕은 우리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 큰 날에 모든 것이 조정될 것임을 알므로, 모든 세상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실 것을 알므로, 우리는 인내를 갖고 그 날을 기다릴 것이다 (창세기 18:25).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대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가 사망과 부활과 심판과 영원을 경고 없이 기다릴 수 있게 하는가? —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 죄는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는 완전히 만족된 채 보일 것이다. 우리는 그 큰 날 확고히 서게 될 것이며, 아무도 우리에게 어떤 혐의도 둘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8:22). 그 이름이 생명책 안에 기록된 자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모두,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그분의 의로 옷 입혀졌으며, 영원히 축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원 받은 자 위에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꼭 맞는 보상, 정확한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한 보상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23:6; 33:16; 50:20).

우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사람은 그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단락에 기록된 모든 일이 주 예수께서 이 장소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셔서 이 한 사람의 죄인, 그의 사랑의 시간이 도래하였던 자를 구하고 찾으려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일어났다. 15 절을 보라. —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나는 그럴 것을 발견하였다. 당신은? — “무릇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94 장. 대만찬—누가복음 14:15-24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25-24).

우리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 중 한 사람의 집에 계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그분은 고창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므로, 안식일에 큰 기적을 행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은 물론 궁핍의 그 일로 몹시 마음이 상하였다 (1-6 절). 그리고, 주께서 은혜와 구원에 관한 그분의 방법을 밝히는 비유를 주셨다 (7-11 절). 12-14 절에서, 그분을 만찬에 초대하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며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매우 날카롭게 적용하셨다. 구원자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듣고 깨달았던 사람이 군중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구원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주께 말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15 절). 우리 주께서 16-24 절에 기록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은 그 사람의 주장에 응답하신 가운데 있었다¹⁵. 이것은 가르침이 충만한 비유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의미와 우리 마음에 그것을 적용하시기를 바란다.

대만찬

“이르시되” — 다음과 같이 선포한 사람에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 이것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끝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니다. 이 큰 만찬은 복음의 전도 가운데 가련하고, 궁핍하고, 굶주린 죄인들 앞에 제시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복음 잔치이다.

¹⁵ 이 비유와 마태복음 22 장의 혼인 잔치의 비유 사이에 분명한 유사점이 있지만, 이 둘은 두 가지 구별된 비유이며, 두 가지 별개의 경우에 언급된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세상의 종말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찬”이라고 부른다. 그 만찬을 세우신 분이 왕 중의 왕, 주 주의 주이기 때문에, “대만찬”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큰 만찬, 살진 것들과 잘 정제된 찌끼 위 포도주의 잔치이다. 이 큰, 복음 잔치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찬이며, 큰 대가를 치른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 공휼, 사랑, 그리고 은혜의 큰 공급이 있는 만찬, 큰 필요가 있는 많은 죄인들을 위한 만찬, 많은 다수를 위한 만찬, 그리고 종말이 될 때까지, 큰 때에까지 계속되는 만찬이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 분명히, 여기 가리키는 것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많은 육체적 후손이며, 하나님께서만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보내준 자들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침례자 요한에 의해, 주 예수 그분 자신에 의해,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만찬에 초대 받았으며 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비유의 말씀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특권을 받은 모든 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늘의 왕께서 큰 만찬을 배설하시고 당신과 나를 그 만찬에 오도록 초대하신다.

종

“잔치할 시간에 종을 보내어” — 종은 여기서 침례자 요한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혹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것이다¹⁶. 분

¹⁶ A. W. Pink 는, “누가복음 14:16 에서,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배설하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고 하였다. 마태복음 22:2-10 과 여기를 따라서 조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명히, 좋은 멸망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상징한다. — “그 청

스럽게 비교하면, 몇 가지 중요한 구별이 발견된다. 우리는 이 단락들이 동일한 비유의 두 가지 독립된 이야기들이며, 각 복음서 안에서 성령의 구별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다. 마태복음의 이야기 —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 에 대하여 그곳에서 그 영의 전람과 조화를 이뤄서 — 는, “어떤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한 혼인을 배설하였다.” 누가복음의 이야기 — 그 영이 인자로서 그리스도를 전람한다 — 는,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고 한다. 마태복음 22:3 은, “그의 종들을 보냈다.” 누가복음 14:17 은, “그의 종을 보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이야기 전체를 통하여 “종들”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언제나 “종”이다. 우리가 글을 쓰는 대상인 독자의 종류는 성경의 말씀의 감동 가운데 전적으로 믿는 자들이며,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복수에서 누가복음에서 단수로 바뀌는 이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게 있는 것임을 믿으며 이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진리를 드러낸다. 마태복음에 있는 종들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지만, 누가복음 14 장의 “종”은 성령 그 자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시대에 여호와의 종이셨기 때문에 성령에 조화롭지 않거나,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 42:1). 마태복음 22 장에 있는 “종들”은 세 가지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첫째, 혼인식에 “부르기” 위하여 (3 절); 둘째, 초대 받은 사람들에게 ...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식에 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며 (4 절); 셋째, “혼인식에 초대하기” 위함이다 (9 절);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오늘날 복음을 사역하는 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누가복음 14 장에서 종도 역시 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첫째, 그는 “초대 받은 자들에게, 오라. 모든 것이 이제 준비되었다 고 말해야” 한다 (17 절). 둘째, 그는 “가난한 자와 병신들과 절뚝거리는 자와 소경을 데려와야” 한다 (21 절); 셋째, 그는 “그들에게 오기를 강권해야” 하고 (25 절), 이것들 중 마지막 두 가지는 성령만 하실 수 있다!

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종”인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이 “만찬”에 오도록 강권하는 것을 보며, 그 안에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신성한 충만함이 보인다. “강권하다”라는 이 말에서 분명히 내포한 것은 성령께서 “데려온” 자들은 그들 스스로 기꺼이 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였던 자들에게 가로되, 오소서” —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죄인들을 은혜의 만찬에 부르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부르려 세상 안으로 보냄 받았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를 선포한다 —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에 온 모든 자를 위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을 의가 준비되었고, 대가 없이 베풀 사함이 있으며, 완전히 성취된 구속이 있고, 충만하고 완전한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 죄인들을 위한 아들의 명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선물들을 받지 않은 하나의 혼인 잔치이다. 모든 것이 대가 없이 예비되어 있다!

불신에 대한 변명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 보이듯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께 부름 받은 모든 자들이 오지 않으려 변명한다. 그리고 부름 받은 모든 자들이 동일한 변명을 한다.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구원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부름 받은 모든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초대 받은 모든 자가 불순종을 위하여 (그들 자신의 생각 속에) 아주 논리적인 변명을 한다.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보다, 그들은, “청컨대 나를 용서 하도록 하라!”고 말한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며,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땅 한 조각을 사고 그것을 보러 가야 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는 땅을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에게서 땅 한 조각을 샀다. 그 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람 속에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겠는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확신이 없다! 둘째는 더 안 좋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그는 소 다섯 겨리를 그것들이 멩에를 메고 있는지 혹은 마차를 끄는지, 그것에 대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알지도 않은 채 소 다섯 겨리를 샀다.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이 한 핑계는 셋 중 최악이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가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그는 적어도 사실을 말했을 것이다.

사람을 그리스도로부터 가로 막는 것은 사람의 무기력함일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이기도 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위한 의지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올 은혜를 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44).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5:40). 그것은 모두가 심판의 날에 책임지게 될 개인적인 문제이고, 의도적인 선택과 책임이다 (잠언 1:23-33).

아내와 결혼했던 사람은 잔치에 올 이중의 책임이 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만약 그의 아내가 오려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녀를 자신에게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이다. 아내를 가진 자들은 마치 그들이 아무도 없는 자처럼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막는 세속적인 연합, 성향, 애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음성을 경청하여서 지극히 높은 대가를 치렀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만약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집과 땅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들,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도록 요구하신다.

종의 보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 복음 전도자들은 잘 수행하여야 할 자들로서 인간의 혼을 지켜 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13:7, 17). —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 많은 사람은 그들의 발아래 그리스도의 피를 밟는 것이 가벼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곧 그분께 믿지 않음이 얼마나 마음 상하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실 것이다 (잠언 1:23-33:29:1).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데려오라” — 우리는 복음을 가난한 자들, 그들의 혼을 위한 떡이 없는 자들, 의의 옷이 없고, 오직 더러운 누더기만 있는 자들, 살 돈이 없는 자들, 그들의 빛을 갚을 방법이 없는 자들에게 전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복음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병신들과” — 은혜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죄인들, 힘이 없고, 소망 없고, 생명 없으며, 도움이 없는 자들을 위함이다. — “저는 자들을” — 그리스도는 길 잃은 자, 은혜와 긍휼과 도움을 찾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며, 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뚝거리는 자를 구원하신다. 죄인들은 가련하고, 타락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절뚝거리고, 끔찍한 타락으로 병신이 된 자들이다. — “소경들과” — 그렇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서 가난하고, 병신이며, 절뚝거리고, 소경인 죄인들을 은혜의 잔치로 부르게 하신다. 소경은 볼 수 없고, 절뚝거리는 자는 올 수 없으며,

가난한 자는 가져올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자리가 많이 있나이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은혜의 집 안에 많은 자리가 있고, 배고픈 죄인들을 위하여 많은 떡이 있다. 계시록 4 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스물 네 자리를 보았다. 이 자리들 각각은 보좌 앞에 앉아 있는 스물 네 장로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희 옷을 입었으며, 그들 모두 그들의 머리 위에 순금 왕관을 썼다. 스물 네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한다. 스물 네 족장들이 구약의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이 스물 네 장로들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 모두, 하나님의 전체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계시록 21:12-14). 보좌 주위의 모든 자리가 채워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당신이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을 열람하실 때인 그 큰 날에 잃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선택 받은 죄인,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던 모든 혼, 효험 있고, 거절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부르심 받은 모든 죄인은 영원한 영광 안에서 삼일 여호와 앞에 앉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명히 그렇게 말하므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누구라도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은혜의 만찬에 자리가 많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가 깨닫고 선포하여야 하는 것이다. —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오게하라!”

그들을 강권함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 아무도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강요받기 전까지 그리스도 올 자는 없다. 23 절을 읽어보라 —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리라.” 물을 필요 없이, 성령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자께 오도록 효험 있게 강요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비유 가운데 이 명령은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복음의 설득력 있는 전도로 죄인들을 굴복하게 하고, 설득해야 하며, 하지 않을 수 없게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4:18-6:2).

이것은 우리에게 John Gill 이 말했던 것처럼 보여 준다. “복음 사역의 본성은, 그것이 썸의 장막 안에 거하도록 야벳을 설득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에 수반하는 능력이다. 부끄러워 뒤로 물러서는 혼의 경우와 상태는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정직한 자는 갈망하며, 잔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큰 관용을 갈망한다.”

“내 집을 채우라” — 그리고 그 집을 채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마치 양 우리가 양 떼로 채워지듯이,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각자는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26).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것을 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안에 은혜의 무한하고, 끝 없는 공급하심이 있다 (이사야 55:1; 마태복음 11:28-30; 요한복음 6:37; 7:37). 그리스도는 식탁 위에 있는 떡이다. 배고픈 자는 모두 먹을 것을 환영한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다. 목마른 자는 모두 마실 것을 환영한다. 만약 당신의 죄 가운데 멸망한다면,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당신이 은혜의 풍성한 잔치에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 말고 아무도 닦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땅과 소와 관계는 당신이 영원한 고통의 불을 위한 연료가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 예수께 나오도록 달콤하게 강요하시기를 바란다!

95 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가지 문제—누가 복음 14:25-35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좃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25-3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미국과 해외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교회의 지치고 생명 없는 상태를 보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교회에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적 체험과 교회 안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문제를 결코 직면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듣는 설교자들과 그들이 출석하는 교회들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른다. 당신은 아는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당신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당신이 어떻게 사는 방법이 상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큰 문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다. 오늘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지만 지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다. 젊은 부자 관원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본으로서 있다 (마태복음 5:20).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영적 영역에서 당신이 무엇을 느꼈고, 체험하고, 행했냐 가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령 침례, 방언 말하는 것, 기적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서 완전한 감정주의, 그분의 불인정과 진노의 증거로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 심판의 날에 영적 영역이라 부르는 것에 있어서 당신이나 나보다 더 느꼈고, 더 체험했고, 더 행했던 많은 자들이 저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22-23).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에 대하여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다. 다시, 내 말을 이해하게 되도록 하겠다. 교리적 진리, 복음 진리는 중요하다. 당신은 복음의 교훈을 알고 믿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통적인 진리는 구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지만 구원 받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은 복음의 교훈을 믿을 수 있지만, 아직도 타락하였다. 가룟 유다, 데마, 디오드레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당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두드러진 집사들로서 서 있다.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주의 직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 이다.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리스도인가 당신인가? Rolfe Barnard 는 아홉 가정으로 교회를 시작하였던 그가 만난 젊은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다. 짧은 기간 내에 회중은 그 수가 늘었고 그들이 살았던 도시가 일어서고 주목을 받게 하였다. 그 교회는, Barnard 가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의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교제”였다. Barnard 가 그의 사역의 비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그 젊은 전도자는, “Barnard 형제, 전한 말씀은 한 가지 외에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내려놓으신 그분의 생명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분의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세우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놀라운 말이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꿰뚫는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똑바로 앉아서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만드셨다 (요한복음 17:2; 로마서 14:9; 히브리서 10:10-14; 빌립보서 2:5-11).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기로 결정하시고, 특별히 당신과 내게 그분의 아들의 통치에 머리 숙이도록 데려오실 것을 결정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가지 문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래 왔으며 언제나 그럴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죽을 때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를 원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모든 자가 천국에 가기 원한다. 문제는 당신이 평강을 갖기를 원하느냐, 혹은 혼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느냐가 아니다. 모든 자가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한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는 그분의 아들이다. 당신의 주권적인 주이신, 그리스도의 주장에 머리를 숙일 것인가, 아니면 숙이지 않을 것인가? 모든 자가 자진하든 아니면 마지 못해서든, 지금이든 혹은 심판대에서든 머리를 숙일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진하여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면, 그것은 구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주께 당신은 머리 숙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이 당신을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은 그분의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9:6-7; 시편 110:1). 이것은 언제나 문제가 되어 왔다.

동산 가운데

이것이 에덴의 동산 가운데 있는 문제였다 (창세기 2:15-17). 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지배, 그분의 권위의 상징이었다.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는 말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권리가 없다. 나는 내가 그분의 진노로 영원히 고통 받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할 수 없다.” 기억하라, “아담은 속지 않았다” (디모데전서 2:14). 그는 그의 반역 가운데 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무지하거나, 속았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패와, 당신의 죄와 당신의 죄로 충만함을 안다.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와 만족)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 당신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치하시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갈보리에서

이것은 갈보리에서 있던 문제였다. 반역자들의 폭도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말투에서 그분의 규약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데려다 그들의 말로 그분을 왕으로, 그들이 조종하려 했던 왕으로 만들기 원했다 (요한복음 6:14-15).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통치에 머리 숙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누가복음 19:14).

오늘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여전히 오늘날의 문제이다. 이것은 사람들과 전도자들과 교회 안의 문제이다. —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권리를 갖고 있고 그분이 그 권리를 행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으실 권리를 갖고 있고 그분이 뜻하는 무엇이든지 하시는가? 성경은 그분이 그렇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행사하시는가? 성경은 그분이 그러시다고 말한다 (시편 115:3; 135:6).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물러나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내려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명령을 공표하고, 그분의 주장을 압박하며, 우리 삶에 간섭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요구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내어 드릴 것을 요구하신다. 구원의 믿음은 주이신 그리스도께 행복하는 것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만약 내가 구원 받으려 한다면, 나는 내 삶을 그리스도께 잃어야 한다 (마가복음 8:34-35). 내 마음도 아니고, 내 혼도 아니며, 내 생각도 아니고, 칠 일 가운데 하루도 아니며, 십일조도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에 약간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이다!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으시면 나를 소유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소유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가복음 14:33).

C. H. Spurgeon 은 말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을 진실로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 아니다. ‘나의 주여, 오늘 나의 몸과 나의 혼과 나의 능력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물질과 나의 집과 나의 자녀와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후로부터 그것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밑에 있는 청지기로서 지키겠습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그것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저는 아무 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처한 혼란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모두 시작되었다. 아담이 눈을 크게 뜨고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두 가지 일이 벌어졌다. 첫째, 하나님이 보좌가 그분의 피조물에 의해서 위협 받았다. 만약 아담이 이겼다면, 그의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일에서 물러나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그만 두셨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아담의 아들이 오늘날 그들의 길을 갔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그만 두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둘째, 인간은 그의 전체를 잃었다. 성경은 “천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말씀한다. 그것은 타락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천연적인 사람은 정상 상태에서 나와 있다. 인간은 타락하였고, 이성을 잃었다. 인간은 그분 자신에게 돌아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코 화목되지 않을 것이다. 정신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전에 아버지의 집의 통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와야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머리 숙여야 한다. 왕이신 예수의 보좌의 권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자리잡고 인정되어야 한다.

Barnard 는, “인간의 온전함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다. 인간은 통치 받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를 제외하고 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느 누구의 어깨 위에 놓여진 어떤 통치권도 결코 없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사야 9:6). 이 전체 도구가 그분 위에 돌려졌다. 아무도 이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없다.”고 하였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주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 함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다. 주 예수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25). 조만간,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8-11).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시편 110). 그것이 아버지께서 언약 안에서 아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다 (시편 2:8). 그것이 우리 구원자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다 (요한복음 17:1-2; 로마서 14:9). 그것이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하여 지어진 지어진 종말이며 (계시록 4) 그분의 성도들의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계시록 5). 따라서,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가지 문제는 그리스도의 통치이다. 누가 대장이 될 것인가? 인간은 통치 받도록 지어졌다. 통치 받지 않는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이다.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지배 받는 것으로 이다. 인간다움의 인격은 자기 중심적인 동물적 존재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인간은 혼자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고,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계획 안에 타락하도록 지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다! 그분의 섬김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찾는다. 죄는 노예이다. 종교는 속박이다.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멍에와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구원은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회복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의 삼중의 말씀

만약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가지 문제가 주이신 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라면, 인간에게 향한 우리의 말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모든 복음 전도자는 하늘과 땅의 왕의 대사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 전체를 통하여 반역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말씀을 갖고 각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삼중이다.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우주의 주이고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분의 종들을 보내신다 (고린도후서 4:5; 사도행전 2:36-38). 복음의 말씀은 제안이나, 계획이나, 제의가 아니라, 한 위격,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교리를 정의하고 지키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위격을 선포하시려 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계획하셨던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그로써 그들이 세상을 뒤집었던 말씀은 그리스도 주의 자격이었다 (사도행전 2:36). 그들은 예수와 부활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전하며 도처로 갔다¹⁷. 전체 창조는 그분의 보좌를 향하여 곧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속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지배에 회복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1:10).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모든 계획을 어떻게 두시는가 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만큼 넓고 그리스도만큼 좁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도처에 있는 소망의 문을 닫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문이 열려 있다. 그분은 문이다.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인간의 반역이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은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분의 피조물들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성취하실 위격이다.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다.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화목하는 것은 그분의 계시, 그분의 의에, 그분의 구속, 그분의 지배에 화목하는 것이다.

둘째, 복음의 말씀은 화목의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5:18-21). 구원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배에 화목하는 것이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좌에 내 마음의 자유로운 동의이다. 죄는 행위 그 이상이다. 그것은 어떤 상태,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지배에 대항하는 반역의 상태이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 그 이상이다. 그것은 어떤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화목하는 상태이다. 화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의해 충

¹⁷ 사도행전에서 “전하다,” “전하는,” 그리고 “전환”이라는 말은 37 회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이 발견되는 곳마다 전해지는 주제는 주이신 그리스도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만이 성취된 주권이다 (고린도후서 5:18-21). 화목의 상태는 항복, 그리스도의 지배에 무조건적인 항복이다. 그것이 믿음이 무엇인가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대하여 주신 기록을 믿는다. 그리고 믿음은 그 믿음에 대한 행위이다. 믿음은 행동 가운데 있는 믿음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향한 변화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평생의 추구이다.

셋째,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된 통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도처에서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지금 통치하심을 안다. 그분은 언제나 통치하셨고 언제나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반역을 잠잠케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배 속으로 모든 것을 사로잡으실 것이다 (계시록 19:1-6).

두 가지 종류의 믿음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 내 안에 중심이 되는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 안에 중심이 된 믿음이 있다. 만약 나의 믿음이 우선적으로 내게 중심되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 믿음의 대상은 나다.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을 경배한다. 만약 내 믿음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중심되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다. 나는 그분께 경배 드린다. Martin Luther 가 한번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실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필요의 만족이 아니다.”라고 정의 내렸다. 그는 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에 엮드리는 것이라고 보았다. Calvin 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참 믿음은 이득이나 손실에 관계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갖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확언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한 가지 문제이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4:26-33 에서 주장하신 바로 그것이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 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찌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26-33).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모두 항복해야 한다. 기독교, 참 기독교, 참 구원의 믿음은 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항복을 포함한다. 왕이신 예수의 통치 아래 종이 되고 자원하여 그분의 주장에 모두 드리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갈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행복은 마치 당신이 실제로 모든 것을 드러 버렸던 것처럼, 심지어 생명 그 자체도 내려 놓을 만큼, 당신의 마음 속에 실체가 되고 완전하여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께 전적이고 완전한 행복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주이신가? 그분이 진실로 당신의 주이신가?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가지 문제이다.

96 장. 잃어 버리고 찾음—누가복음 15:1-32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1-32).

이 장과 그 안에 포함된 말씀은 소개가 필요 없다. 이 장은 세리와 죄인들이 긍휼과 은혜에 속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주변에 모여 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2 절).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구원자의 가장 깊은 감정을 꺼냈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분의 온화함과 동정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일으켰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께 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리고 보는 곳마다 죄인들의 친구께서 그들을 시중드시는 것을 기쁘게 행하셨던 것을 본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독한 경멸과 분노와 복수에 대한 공개적인 모습을 자아냈다. 우리 주께서 단순히 독선과 종교적 율법주의자들을 참으실 수 없었다. 그분은 결코 그들의 무리 가운데 아주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분을 싫어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조롱하셨고, 그들을 꾸짖으셨으며, 그들을 비웃으셨고, 그들을 정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우리가 읽으려 하는 삼부작 비유를 말씀하시도록 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는 이 세 가지 비유, 보통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은혜의 전체 역사,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삼일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본다. 잃어버린 양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선한 목자의 역사를 그분의 택정한 자를 하나님이 계신 집으로 데려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준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탕자, 잃어버린 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인들을 받으심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잃어버린 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3-7).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회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가슴을 찌르는 말이 되었을 것이다! 가련한 세리와 죄인들의 귀에, 회개하여야 하나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는가!

구속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복되고 교훈적인 설명이 있다.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주어진 양이나, 언제나 그분에게서 떠나 방황하며, 타락한 인성의 광야 가운데 잃어버려졌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 떼를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찾으실 때까지 그분의 양 하나 하나를 찾으신다. 그분이 그분의 양을 찾으실 때, 그분의 넓고, 전능한 어깨 위에 메고 집으로 갖고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양과 함께 집에 왔을 때 “회개하는” 모든 죄인 위에 하늘의 기쁨이 있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여기서 회개는 양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 떼를 위하여, 양 떼 가운데, 양 떼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분은 양 떼를 집으로 향하게 하신다. 그리고 양 떼를 집으로,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데리고 오신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8-10).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큰 역사의 다른 부분을 본다. 이 여인은 전능하신 공훈과 효험 있는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준다. 양 떼와 달리, 드라크마는 무생물, 생명, 느낌, 혹은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값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개입하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범죄와 죄 가운데 죽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그림을 보여준다 (에베소서 2:1-5).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발하게 하시며, 그분은 복음의 촛불을 켜신다 (고린도 후서 4:4-6). 오랜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집을 빗질할 때, 많은 먼지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역사를 행하실 때, 그분은 죄의 자각의 빗질로 우리 혼을 휘저으신다. 그리고 모든 회개하는 죄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있다. 다시, 여기서 회개는 드라크마로 인하여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드라크마를 찾는 역사이다.

타락한 아들

11-24 절에서 우리는 탕자에 관한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본다. 보통, 아들의 반역 위에 강조를 둔다. 그러나 우리 주의 비유의 세 번째 부분에서 그분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인을 받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친절함, 무한한 공훈, 놀라운 은혜를 보여 주려는 것이다. 여기 천연적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타락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대한 다른 그림이 있다. 우리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모두 천연적으로 방황하는 양이며, 드라크마처럼 죽고 생명이 없으며, 철저히 부도덕한 반역자들이다. 11-24 절을 보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11-24).

여기 궁핍한 죄인 은혜의 보좌로 오고 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기다리고 계시다. 여기 은혜의 복된 영접이 있다. 가련한 죄인들이 집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시려 달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을 끌어 안고 입맞춤을 하신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풍성한 대가 없는 은혜의 모든 충만을 대가 없이 주신다: — 사랑의 입맞춤 — 의의 옷 — 확신의 신발 — 아들 명분의 반지 (인침) — 잔치에 희생물을 죽임 — 공허의 끊임 없는 축하!

큰 형

그러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은 구원자에게 온 가련한 세리와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모두 계획되었다. 비유의 나머지는 모든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려 특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25-32 절에 있는 탕자의 큰 형으로 묘사된다.

“만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25-32).

이 큰 형은 집 안에 있지 않았고, 들판에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입은 노예다. 그는 독선적이다. 그는 희생물과 옷과 아버지를 멸시한다. 그는 시기로 가득하다. 그는 아버지의 집의 모든 조례를 가졌으나, 복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마도 이 위대한 비유의 가장 놀랍고도 가장 비밀한 방면은 그 마치는 방법일 것이다. 오직 영원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이 마치는 구절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다. 32 절에서 우리는 본다 —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니라.” 여기서 비록 우리가 죽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비록 우리가 잃어버렸으나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탕자 안에서 상징되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분 자신에 대하여, 하늘의 모든 천사들에 대하여, 그리고 모든 구원 받은 죄인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분이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그분은 실로 그렇게 하셨다 (스바냐 3:18-20). 따라서 아직 오지 않은 그 큰 날에 있을 것이다 (스바냐 3:14-17; 에베소서 2:1-7).

97 장.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누가복음 16:1-13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쩐 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백 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
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1-13).

예시

비유들은 하늘의 진리에 대한 땅의 예시들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비유 위에 우리의 교리를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주의 비유의 빛 가운데 성경의 나머지를 해석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언명 위에 우리의 교리를 세운다. 그리고 감동의 전체 책의 빛 가운데 우리 주의 비유들을 해석한다.

비유가 그 목적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 비유의 목적은 한 가지 우선적인 것을 예시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한 가지 중심 뜻이 있다. 비유의 각 단어에 영적이거나 교리적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며, 그 최우선 의도가 무엇인지 정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이 비유 안에서 어떤 부자는 주 우리 하나님을 상징한다. 부자의 청지기는 우리 모두를 상징한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이 비유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이것이다: —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책임이 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의 불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장래 그 자신을 위하여 예비한 그의 현재 상황을 사용하는데 그의 지혜와 큰 염려 때문에 정죄 받았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혹자는 이 세상이 집이라고 제시한다. 하늘은 집의 지붕이다. 별들은 그 등불이다. 그 열매와 함께 땅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으신 그 집의 주인에 의해 펼쳐진 식탁이다. 인간은 그 집의 청지기이고, 그 손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의 모든 재산을 한 동안 맡기셨다.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의 존귀를 위하여,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청지기의 책무이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 위하여 부름받게 될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설명할 수 없이 중요한 주제이다. 그것은 걱정함보다 더 깊고, 예정함보다 더 심오하며, 하나님의 주권보다 받기에 더 어렵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아래 있는 청지기들이며, 그분이 그분의 백성의 선과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나는 우리가 이것을 배울 것을 원한다: —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 (돈, 물질적 재산, 시간, 재능, 기회, 가족 —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재산의 청지기일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비유 그 자체

첫째, 그 비유 자체를 간략히 보겠다 (1-8 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

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 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뇨? 네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 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뇨?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 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뇨? 가로되 밀 백 석이니 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1-8).

여기 우리 주께서 우리 앞에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불의한 청지기를 보여 주신다. 그의 주인은 그의 집의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책무와 지위를 그의 주인과 주인의 채무자들을 속이려 사용하였고 자신을 위하여 일했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는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창조로 그분을 섬기게 하셨고 그분을 존귀하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신성 모두를 하나님에게서 훔치려 하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 장에서 큰 형의 이야기와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비유에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 비유와 이것 모두를 그들에 대하여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을 것을 확신하는데, 그들이 그것에 마음 상했기 때문이다 (16 절).

주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네 가지 사항이 있다...

1.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1 절). — 이 청지기는 그의 주인의 재산을 횡령하였고, 그것들을 부정하게 사용하였거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잃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고발되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는 혐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였고,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낭비하였다.

2. 그가 그의 주의 재산을 허비하였으므로, 이 청지기는 그의 청지기 직분에서 곧 쫓겨나도록 통지를 받았다 (2 절). —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그의 청지기 직분을 포기할 것을 요구 받았을 것이며, 그의 주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다. 그 말씀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곧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때가 아직 낮이때 일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4)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의 소유가 된 특권과 쾌락을 언제나 즐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이 곧 올 것이다. 그 때 사망은 우리가 지금 가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 대한 섬길 수 있는 능력과 기회들을 우리에게서 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면 다른 청지기가 와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곧 잊혀질 것이다.

우리의 청지기 직분으로부터의 해고는 공의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주의 재산을 낭비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청지기 직분을 상실하였다.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취하실 때, 우리는 불평할 근거가 없다.

우리의 청지기 직분이 우리에게서 빼앗길 때, 우리는 우리 주께 그것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히브리서 9:27; 고린도후서 5:10-11).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지혜롭다면, 우리는 그 큰 날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당신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을 자신에게 계속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곧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3.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의 청지기 직분이 그에게서 빼앗긴 것을 깨닫자 마자, 그는 약속된 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3-7 절). — 그는 시간과 기회를 사용했고, 그의 청지기 직분이 박탈되었을 그 약속된 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았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 가실 것이다. 곧 우리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지 않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자신의 생계를 벌 능력이 없고 지나치게 교만하여 구걸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3 절). 그는 땅을 파지 않으려 했으므로 땅을 팔 수 없었다. 그는 비천한 노동으로 바라 보았던 것에 자신을 기꺼이 낮추지 않았다. 그는 너무 자존심이 심하여 흠치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는 너무 교만하여 일을 못한다! 그는 너무 게을러 일을 못하며 너무 교만하여 구걸도 못한다. 일과 굴욕 모두 그의 본성에 반대적이다.

영적으로, 당신과 나는 그가 있던 것과 같은 위치에 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하는 행위로 우리 혼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느니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입지 않느니라.” 구원은 은혜로만 있다.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거나 쟁취되지 않는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대가 없는 은사이다 (에베소서 2:8-9).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너무 교만하여 공흠을 구걸하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 교만하여 대속자를 통한 대가 없는 은혜의 발판 위에서 세리처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 (누가복음 18:13). 우리는 너무 교만하여 다른 자의 공로를 통하여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

비록 그가 너무 게을러서 일하지 못하며 너무 교만하여 구걸하지 못하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채무자들과 친구가 되기로 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정했고, 따라서 그는 그의 주인의 집에서 나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배신하고 부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에 있어서 뛰어났다. 그는 그 자신의 미래의 안녕을 위하여 준비할 기회를 사용하였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백 말이니 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백 석이니 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누가복음 16:4-7).

4. 8 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이 그의 행위를 칭찬했던 것을 말씀한다. —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칭찬이다. 그의 주인은 그가 해야 했던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을 위하여 지혜롭게 예비하였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가 부정직하였기 때문에, 그의 주인의 채무자들의 증서를 줄여줌으로써 그는 자신을 친구로 만들었다. 그의 행위가 악하였으므로, 그는 미래에 대한 눈을 가졌다. 그의 행위가 불명예스러웠으므로, 자신을 위하여 잘 예비하였다. 그는 게으르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고 가난하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위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장래 집을 안전하게 할 방법을 꾀하였고, 계획하였으며, 기도했고, 발견했다.

따라서, 주 예수께서,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하셨다. 그 대조가 보이는가? 이 사람은 땅에 속한 것과 관련하여 근면하였다. 그는 장래를 위하여 지혜롭게 바라보고 준비하였다. 이것은 곤충이나 짐승들에게 있어서 조차 칭찬할만한 하다 (잠언 6:6-9; 30:24-28). 그러나, John Trapp 이 보았던 것처럼, “세상 사람의 지혜는 땅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또 세상 일들 가운데, 그를 앞서도록 하려 자신 (타조의 날개처럼)에게 수종 드나, 하늘을 향한 지혜에는 결코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영적인 일들

물을 필요 없이, 잠언서는 세상의 격언들로부터 가져온 감동의 지혜의 책이다. 그러나 격언들은, 솔로몬에 의해 주어진 것처럼, 신성한 감동 아래 있으며, 세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영적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6 장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에 정면으로 모순될 것이다. 솔로몬의 목적은 하늘에 보화를 쌓을 필요성을 보여주려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혼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과 관련하여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가 지혜로와서 따르도록 한 예로서 우리 앞에 있다.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4:18). 우리가 현재 우리의 거주지를 떠나야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게 될 그 날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안녕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대로 쓸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J. C. Ryle 은, “시간에 속한 것에 대한 세상적인 사람의 열심은 영원에 속한 것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인척 하는 것의 냉담함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무익하게 한다. 그들은 그들의 부를 늘리기 위한 그 순간을 잡는다. 우리는 비록 영광 가운데 영원한 부가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듯이 산다.

그리스도의 권고

둘째, 우리 주께서 9 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고를 깨닫기 원한다. 그 비유는 8 절에서 끝난다. 9-13 절은 당신과 내게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며, 그로써 우리 구원자께서 날카롭게 그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9 절).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이다. — 당신의 돈과 땅에 속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당신이 죽을 때, 영원한 거처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땅에 속한 재물을 하나님 아래 청지기처럼, 장래를 보는 눈으로 사용하라.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부를 심판의 날에 그들이 당신에게 친구가 되게 하고 당신에 대한 증인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떤 잘못이 없거나, 이 구절에서 우리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잘못이 없으면, 이것을 완전하게 깨닫도록 하자. — 아무도 돈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거처를 살 수 없으며, 그의 행위로 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베드로전서 1:18-21). 당신의 세상 부는 그것들과 무슨 관계가 있든지 간에 하늘에 당신을 들어가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세상 부는 하늘로부터 당신을 가로막는다 (마태복음 13:22; 누가복음 18:22-24). 우리가 가진 땅의 소유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복음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세상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책무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기에 지나지 않는다. 청지기는 한 손으로 취하여 그의 주인의 뜻에 따라 다른 손으로 나누어 준다 (마태복음 6:19-21, 33). 우리는 부를 쌓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의 선을 위하여 맡기신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 주께서 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분명하다. — 우리의 땅의 재물을 합당하게 사용하고, 합당한 동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존재할 것이다. 우리의 혼의 영원히 친구가 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6:9 에서 우리 주의 권고에 대하여 세 가지 감동의 해석을 주신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

리라.” (전도서 11:1).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 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찌니라.” (갈라디아서 6:7-10).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17-1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 하리라.” (누가복음 16:9).

충성된 것인가, 불충한 것인가?

셋째, 우리 주께서 이 권고의 기초를 우리에게 주시고 10-12 절에서 그것을 적용하게 하신다. 만약 우리가 섭리에 속한 하나님의 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적인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이고 영원한 은혜와 영광의 참된 풍요를 우리 위에 그분이 부어주시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 —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0 절).

이 세상의 부는 사소한 것으로 불린다. 사람들은 부가 크고,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께서 부를 사소한 것,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사소한 것이라 부르신다. 영적 부, 은혜와 영광의 부는 풍성하고, 무한하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에베소서 3:8)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 (빌립보서 4:19)이다.

Matthew Henry 는, “하나님께서 탐욕스러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깨닫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은혜를 거두신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누가복음 18:25 에서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1 절). — **이 세상의 부는 기만적이고 불확실 하다. 그것은 “불의한 물질”이다. 영적 부는 “참 부”이다.** 나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지 의심스럽다. 믿음이 부요한 자들은 참되게 부요하다. 은혜 안에서 부요한 자들은 무한하게 부요하다. 하나님께 향하여 부요한 자들은 영원히 부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들은 완전히 부요하며 모든 것 가운데 부요하다 (고린도 전서 3:21).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섭리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며, 모든 일시적인 것들이 우리의 소유이고, 모든 은혜로운 것이 우리의 소유이고, 모든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소유이며, 모든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2 절). — 이 세상의 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는 오직 그것에 대한 청지기일 뿐이며, 그것들을 아주 짧은 동안 사용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야 한다. 영적이고 영원한 부는 우리 자신의 소유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올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져 갈 수 없는 선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속시키신 것은 영원히 나의 소유이다. 그분이 내 혼에 나누어 주신 것은 내게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바로 내 소유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의이다 (예레미야 33:16). 그분의 보상은 우리의 보상이다 (골로새서 1:12). 그분의 기업은 우리의 기업이다 (로마서 8:17).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17:20).

작은 것들

이 구절에서, 우리 주께서 작은 것들에서 충성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주신다. 그분께서 작은 것들은 성품에 대한 가장 참된 시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동전 하나를 훔칠 사람은, 그가 만일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은행을 털 것이다. 당신에 대하여 험담할 여자는, 그녀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을 살해 할 것이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정말로 불충하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것들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지만, 충성됨이 행위가 아니라 삶에 의해 판단됨을 깨달아야 한다. 다윗은 어떤 영역에서 크게 잘못 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청지기 였다.

우리 주의 공과

넷째,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앞에 우리가 배워야 할 공과를 제시하신다. —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 절). Matthew Henry 가 똑바로 보았다. “물질, 즉, 모든 우리의 세상적 얻음을, 그분의 섬김 가운데 우리에게 유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분의 섬김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에 의한 것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취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의 은혜를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 섬김,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세상적 이득에 유리하도록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용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복음을 섬기며 그분을 계속 붙잡기를 구한다면, 세상을 싫어하게 될 것이며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경멸할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경쟁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분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붙잡아야 한다 (누가복음 14:25-33). 우리는 우리 일과 세상 관심을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순종과 섬김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세상 일들을 더도 덜도 말고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호수아가 구약의 이스라엘에 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다. —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열왕기상 18:21; 여호수아 24:15). 나와 나의 집에 있어서, 나는 내 마음을 먹었다.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가복음 8:34-37).

98 장.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누가복음 16:13-18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누가복음 16:13-18).

단일한 마음

주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그분의 비유를 결론 지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3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이 여기서 선포하신 공과는 틀림없다. —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단일하고, 나뉘지 않은 마음 마음으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7).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관련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순종과 경배, 마음은 원칙적인 것이다 (잠언 4:23; 23:26). —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시편 51:17)을 그분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믿음 안에서 그분께 오는 모든 자에 대하여 그분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마음, 신실하고, 단일하며, 분열되지 않은 마음이다. 그 마음이 젊은 부자 관원 속에 부족한 한 가지였다. 그 마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지 않으려 했을 그 것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우리 안에 상하고, 통회하며, 단일하고, 분열되지 않은 마음을 창조하신 것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한 가지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그분께 향한 나 자신의 행복이다. 그것은 그분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대한 나 자신의 전적인 헌신이다.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달으라. 헌신이 없는 곳에, 변화는 없다. 행복이 없는 곳에, 구원이 없다. 주이신 그리스도께 자원하여 머리 숙임이 없는 곳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다 (누가복음 14:26-33; 마가복음 8:34-37).

분명하고 간단한 사실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다. 만약 물질, 즉, 우리 모든 세상적인 이득을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섬기는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전적으로 그분의 섬김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도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붙잡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할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 그분을 향한 섬김, 그분 안의 믿음은 우리 세상적 이득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을 섬기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복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붙잡기를 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싫어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주는 모든 것을 멸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분명히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대결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던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를 잡는다. 우리는 우리 일과 세상적 이득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위한 섬김에 유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도 덜도 말고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만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자들이고 종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쓸모 없는 위선의 과시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분열된 마음으로 섬김을 받으실 수 없다. 그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어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것과 관련한 논쟁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이 우리 주께서 선포하신 것을 행하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세상의 친구들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려 한다.

그것이 당신을 설명하는가?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종교적이 되게 강요한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세상 것들에 묶여 있다. 당신은 계속되는 불안 속에 산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행복 하려고 너무나 많은 종교를 갖고 있고 종교 안에서 행복 하려고 당신의 마음 속에 세상에 속한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당신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수고한다. 당신은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전심되고 단호한 믿음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 전심되고 단호한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 안도와 평강에 대한 열쇠이다. 전심은 좋은 땅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악한 보고를 가져온다. 그리스도 안의 전심한 믿음은 갈렙처럼 또 다른 영에 속한 것이며 —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8).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분께 전적으로 살면 살수록,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로마서 15:13) 갖는 것이 무엇인지 더 강력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섬길 가치가 있다면, 우리 온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자...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을 먹을 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소유하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리 온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4). 결단하지 않고 반쪽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 될 것이다.” (J. C. Ryle).

냉소적인 종교주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우리 주의 비유와 그분이 거기서 이끌어내신 결론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을 비웃었다.” 이 타락한 종교인들은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에 경멸하듯 그들은 콧방귀를 끼었다. —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4 절).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사로잡힌 종교주의자들 무리가 주께서 이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눈을 굴리고, 손 댈 수 없이 소망 없는 것처럼 그분을 보냈다.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콧방귀를 끼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보았고, 그분을 비웃었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비웃었고 조롱하였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였고,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로 높이 여겼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주 열망이었던 것은 세상에 대한 사랑이었다. G. Campbell Morgan 은,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던 이 불쌍한 갈리리 촌놈에 대한 경멸로 가득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주시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있던 그 가르침은 너무도 터무니 없어서 그들의 비웃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썼다.

오늘날 세상 주변에 강단과 교회 안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도덕적이다. 그들은 종교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께서 여기서 강조하여 선포하신 것들이 실질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실질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모독적인가! 종교적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 “실질적인 것을 가르침, “실질적인 교리,” 그리고 “실질적인 경건”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언제나 이것이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충분히 들어왔다. 그것인 더이상 우리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 그들이 어떤 “과도하고” 또 “비현실적” 것으로 하나님께의 아들에 대한 헌신과 성별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의 반역과 이기적임과 세상 사랑을 덮으려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 모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께 우리의 삶을 전심하여 성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없다 (로마서 12:1-2).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종교적이든지 간에, 그들의 애착의 대상에 의해 자신을 배신한다 (요한일서 2:15-17).

통렬한 대답

주께서 이미 그들의 양심을 찌르셨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 대하여 말하고 계심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15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들의 비웃음에 통렬한 대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위선의 가면을 꺾어서 보신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 “예수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종교적 헌신의 가면 뒤에 숨음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크게 사랑하는 자들인 양 행세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탐심과 그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숨기는 가면에 지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그분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선하게 보이게 하려는 데 능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뒤에 있는 것을 아신다.” 사회가 “기념비적”이라고 보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기괴한” 이라고 부르신다. 그렇게 하시면서, 만일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면, 그분은 두 가지 정신이 들게 하는 공과를 주신다.

1.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2.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의 행위로, 사람들 앞에서 종교와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것으로, 스스로 의롭게 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악취이다.

그들은 그분에게 악취이며, 그들의 모든 종교도 그분에게 악취이다. 그들의 종교와 거룩, 그들의 헌신과 의식, 그들의 열심과 기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은 하나님께 악취이다! 그들이 “거룩하게 헌신된 경건한 사람들”로서,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모든 것, 그들이 탐하는 세상을 얻는 모든 수단은 하나님께 미움이다.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언급하신 것이 무엇이었나? 그분이 어떤 특정한 것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분 자신의 말씀을 듣고 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 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1-4).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5-8).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16-18).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1-8).

“화 있을찢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15).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찌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23-25).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27-28).

“화 있을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29-33).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상당히 같지 않다. 당신의 의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다 (이사야 1:10-15; 65:2-5). 하나님은 인간이 멸시하는 것들: 공허, 은혜, 사랑의 친절, 그리고 믿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멸시하는 것들: 경건의 모양, 종교적 과시, 그리고 인간의 칭찬을 사랑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찌어다.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찌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16-20).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16-18 절에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의 모욕을 드러내신다. 한편으로 모든 율법주의 자들은 믿는 자의 완전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충성된 사람들을 반율법주의자로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로마서 6:14-15; 7:4; 8:1-4; 10:4; 갈라디아서 5:1-4; 골로새서 2:8, 16, 20), 사실은 율법으로 산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이 율법을 파괴할 것이다. 반율법주의자, 율법에 거스르는 자가 율법주의자이다.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산다고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는 모든 자는 실제로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낮춤으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율법을 파괴하려 애쓴다. 이것이 정확히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에 대하여 이 세 구절 안에서 고발하셨던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비록 그들이 내적으로 율법을 멸시하지만 율법에 대한 그들의 순종을 과시하기 좋아한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내가 만약 믿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었을 것이며,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는가. 그런 주장들로 그들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혐오를 배반하며 그들 자신의 말로 그들은 심판 받았다. 믿는 자들은 속 사람을 따라 율법 안에서 기뻐한다.

새 시대

우리 구원자께서 16 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제 충만하게 되었으며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다. —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엄격한 의미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실 때까지 충만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주자로서 나타났으며, 그분 앞에 길을 예비하고, 이 현재의 복음 시대의 시작을 공표하고 있었다. 침례자 요한이 그분을 가리켜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친 그 날로부터, 율법의 예표와 그림자는 충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왕국은 더이상 음식과 마실 것과 의식과 속박과 아무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관계가 없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17). 이 복음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무와 의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올 것을 요구한다.

율법은 세속적인 것들로 일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예표 하였다. 복음은 오직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 관계 있다. 율법 시대의 옛 것들은 지나갔다. 우리는 더이상 앞으로 올 왕국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세워진 왕국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왕국이며, 의 위에 세워진 왕국이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의 왕국이며, 은혜의 왕국, 영원한 왕국이다.

밀어 넣음

16 절의 마지막 행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는 말씀을 본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분명히, 우리 주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뜻은 아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왕국으로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며, 마치 우리 현재 종교주의자들이 그들의 전통, 의식, 제단의 부름, 대본기도, 그리고 동정심의 표현을 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16 절에서 “침입하다”라고 번역된 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한 군데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태복음 11:12). 그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번역된 것처럼, “침노를 당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애를 쓴다. 모든 종교와 종교적 의미에 대항하여, 모든 기도의 말과 속죄의 행위에 대항하여, 모든 율법과 의식에 대항하여, 그것으로 타락한 종교주의자들이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려는 것에 대항하여 모두 싸운다.

성취된 말씀

17 절에서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모든 세밀한 것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신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 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을 모세 율법이나 구약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 전체, 혹은 둘 다에 적용하라. 그 의미는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선포하시는 것은, 누구든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이 하듯이) 그것들이 성취되었으므로, 율법과 선지자들은 멀하여졌다고 말하지 말하는 것이다. 성취되었다는 것은 멀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율법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원히 세워진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단 한 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 (복음 선포)는 그것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아니면 멀하지도 않는다. 결코 아니다! 복음 선포는 철저한 가혹함과 엄격함, 그리고 율법의 공의를 유지하며, 우리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유지한다 (로마서 3:24-26; 8:1-4; 9:33-10:4).

저질러진 간음

17 절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집행하시려, 우리 주께서 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무례한 영의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이 가장 명백히 죄의식을 느낄 왜곡하고, 범하며, 멸하려 시도하는 특정한 율법이 모세가 신명기 24 장에서 기록할 때 행해졌던 것처럼 오늘날 그대로 동일한 것을 의미함을 선포하신다. —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 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18 절).

하나님의 말씀은 극히 분명하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평생 결합이다 (창세기 1:27; 24). 그 결합을 파괴하는 어떤 남자나 여자는, 간음이나 버림에 근거하고 그 이유 때문인 것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5:31-32; 19:1-9; 고린도전서 7:15), 다른 사람과 결혼은 간음을 범한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무관심에 파렴치하였다. 힐렐(Hillel)이라는 유명한 랍비는, Herod I 세 시대 동안 살았던 사람으로, 여자가 남자의 음식을 태운다면 남자가 그 아내와 이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랍비 (Akiba)는 남자가 더 예쁜 여자를 만나면 그 아내와 이혼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도 일반적으로 쉽사리 그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므로 우리 주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혼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만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쥘대,” 바리새인들이 하듯이 사람이 어떤 것이든 모든 이유를 들어 그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마태복음 19:3),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다”고 말했다 (마태복음 19:10).

그것이 친근하게 들리는가? 이런 모든 느슨함과 트릿함,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모든 모욕은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열심인척 했지만, 한편으로 율법을 그들 자신의 수준으로 낮추었던 사람들에게 의해 높여졌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그들 자신의 칭찬을 고취시키고, 사람들의 눈에 그들이 높임을 받도록 하려고 종교와 하나님과 성경을 분명히 사용했던 자들이었다.

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주 예수께서 이 상황에서 18 절에서 하셨던 것을 왜 말씀하셨는지 알려 하는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1-13 절에 있는 비유와 14-17 절에 있는 설명과 또는 19-31 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두 잘못 하였다. 18 절에서 우리 주께서 모든 교만한 율법주의자의 부푼 가슴을 가리키면서, 그 위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신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산다. 너희 종교, 너희 큰 경건, 너희를 천국에 데려갈 것으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너희를 빠르게 지옥으로 곧두박질치며 데려 갈 것이다. 그리고 곧, 너희 눈에 아주 부요하다는 너희는 지옥에서 너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눈을 올려 뜨고 모든 하나님의 가련한 나사로의 눈을 바라볼 것이며, 나를 신뢰하는 세리와 죄인들만 하나님께 열납 되고, 은혜를 구하는 가련하고 궁핍한 거지들처럼 공허의 열린 문에서 내게 오는 이 사람들, 아버지의 풍성한 식탁에서 나와 함께 먹는 이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늘 영광의 모든 부요함 가운데 너희가 보게 될 이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면, 그 때, 너희는 너희의 상상 속의 부요함과 좋은 것들이 당신의 혼의 영원한 고통에 기억될 것이다.”

당신의 의이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공허를 위하여 그분께 피하라.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20). 아, 가련하고, 죄의식의, 궁핍한 죄인아, 더럽고, 빈 손의 벌거벗은 거지로 그리스도께 와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분 안에서 의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허가 필요한 모든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신다 (고린도전서 1:30-31).

99 장. 너무 늦게 배운 일곱 가지 공과—누가복음 16:19-31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찌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6:19-31).

주 예수께서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속 하신다. 그분은 15 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15 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다. 그 비유 가운데 그들은 가련한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멸시하였던 망아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15:2)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를 조롱하였다. 누가복음 16:19-31 에 있는 이야기가 주어진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모든 자에게 특정하여 향한 것이다.

큰 변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은 영원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일들은 부자가 죽은 후 동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있어서 같지 않았다 (19-24 절).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유명하고 두드러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요하다고 생각했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처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자로, 그 자신의 혼 가운데 절대로 고난이 없었던, “한 부자가 있어”라고 말씀 하신다. — “나사로라 이름한 한” 가련하고 무기력한 “거지가 현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고난으로 충만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리고 잊혀졌다. —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큰 변화가 우리 육신에서 숨이 거두어질 때 일어나는가! 여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매우 가난하였다.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다른 사람은 “거지였고…현대를 앓았고,” 자신의 소유라고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하나님께 났으며, 그리스도 안의 참 부를 소유하였던 자는 나사로라 하는 가난한 거지였다. 부자가 비록 자색 옷과 고운 베옷 (긴 옷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의로운 사람임을 보여주는 옷)을 입었지만 아무 것도 소유하지 못했다.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의 발자취 안에서 행하였다. 부자는 생각이 없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세상 사람이었고, 범죄와 죄 가운데 죽어 있었다. 세상에 있는 동안, 부자는 세상의 최고에 있었고 나사로는 밑바닥에 있었다. 이제 나사로는 영광 가운데 위에 있으며 부자는 지옥에서 낮은데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절대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는 그 성은 종종 그분의 저주이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 질병을 앓고, 고난을 받으며, 믿지 않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절대 상상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비통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9:23-24)

부와 세상적 명예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아니다. 가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표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자들은 거의 이 세상의 부자나 존귀한 자가 아니다.

한 가지 끝

이것을 또한 알도록 하라: 사망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끝이다. “거지”의 시험들과 “부자”의 호사스런 삶 모두 약속된 시간에 끝났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에, 두 사람 모두 죽었다. 모두 무덤으로 갔다. 솔로몬이,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3:20)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당신과 나는 죽을 피조물들이다. 그것에 대하여 극소수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곧 우리는 죽어야 한다 (히브리서 9:27). 죽음은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라도 할 것처럼 먹고 마시고 말하고 계획을 세운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혹자가 한번은 말했다.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종종 생각해야 하며, 그것을 그의 회사원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 오래 전 묘비 위에 남겨진 비문이 있다…

“당신이 지나가면서 내 무덤을 보세요,
당신의 지금처럼, 나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처럼 곧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
그러니 나를 따라올 당신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 거지가 죽었고,” 그의 고통과 슬픔과 필요도 죽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호사스런 삶도, 그의 모든 즐거움도, 그의 모든 부도 죽었다! —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10).

복된 기대

이 비유는 또한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이 육신의 사망이 복된 기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의도 되었다. 그 시간에 모든 사람은 매우 두려워하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고 온화하게 보살핌을 받는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나는 이 표현에서 매우 보배롭고 위로가 되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죽는 사람들의 진정한 내적 체험에 대하여 안다 해도 거의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확실하다: — “주 안에서 죽는 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13). —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8). —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15).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안전하다. 그들은 몸을 떠나, 공중을 떠도는 영이 아니다. 그들의 몸이 땅 속에서 잠든 동안, 부활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안식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 무엇보다 최선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이다 (빌립보서 1:23). 참으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 유익함이다.” (빌립보서 1:21). 바울이 고린도후서 4:16-5:9 안에서 일시적인 것들과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썼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종말

여기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의 궁극적인 종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종말을 보도록 허락되었다. 곧, 아주 곧, 당신과 나는 이 두 사람 중 하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 영광 가운데 나사로와 만나지 않으면, 지옥에서 부자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종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의 이 부분에서 우리 앞에 내 놓으신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한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¹⁸

¹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사로는 죽었고, 천국에 올리어졌다. 선택 받고, 구속 받고, 하나님께 난 그가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는 어떻게 되었나?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덤 너머를 바라보도록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옥 그 자체를 바라보도록 허락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옥에서 영원히 타락하고 저주 받은 혼의 고통과 느낌과 갈망을 보여 주시며,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거룩한 공의와 진노의 고통 아래에서 지옥 안에 영원히 갇힌 자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과 당신이 그분의 진노를 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실 것과 마침내 당신이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와 함께 할 당신의 자리를 발견하지 않도록 임할 진노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실 것을 얼마나 기도하는지!¹⁹

지옥의 불에서 피신하려 한다면, 당신의 상상과 걸치레의 선을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2-4).

¹⁹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지옥에 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던 어떤 생각을 가졌다면, 나는 지구 상에 가장 신성 모독적인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끔찍한 것을 바라는 생각에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선인 것은 오직 독선주의의 자기 환상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선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누군가 선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치우친 직관인 것은, 우리를 향한 그들의 친절과 사랑과 관용으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득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10-12). 사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른 사람인 다윗조차도 주 그의 하나님께 말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시편 16:2).

당신의 선이 당신을 결코 천국에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선은 예쁜 가면 아래 있는 끔찍한 죄이고, 고상함의 소매 아래에서 하나님께 대한 증오이며, 종교의 향수에 덮여서 부패하고 있는 썩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과 내가 구원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어 있으려 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그분에 의해서 열납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할 가치가 있는 선과 의를 갖고 있어야 한다. — 종교적 결정은 당신에게 선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 종교적 도덕성은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다. — “내가 주를 믿습니다.”는 말은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 “죄인들의 기도”라는 말은 당신의 저주에 더할 뿐이다.

구원 받으려 한다면, 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아야 한다. —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 (요한복음 17:3).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바로 그 의가 되지 않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구원 받을 수 없다. 당신은 그것이 사실임을 안다. 당신의 양심이 이것 들을 확인해 준다. 당신은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지옥에서 멸망할 때까지 그것을 억누를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들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로부터 요구하시는 것이다: 완전한 만족 (속량) (히브리서 9:22)와 온전한 의 (마태복음 5:20).

우리는 그분께 드릴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들의 대속자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만 얻어져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라야만 우리의 소유이다.

조만간, 당신은 이 것들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만약 당신이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알게 될지 의문이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여기 누가복음 16 장에서 우리는 너무 늦게 모든 것을 알게 되었던 자에 대하여 읽는다. 그는 그가 지옥에 있을 때까지 그것들을 알지 않았다.

지옥에서 배우는 공과

우리 앞에 있는 단락은 다른 모든 것들과 분리되는 매우 확고한 구별을 갖고 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어떤 것을 배우는 유일한 곳 (세상 가운데 유일한 장소)이다. 부자가 배운 것이 일곱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너무 늦게 배웠다. 그는 지옥에서 그것들을 배웠다. 나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너무 늦지 않게 배울 것을 기도한다.

1. 그가 죽자마자, 이 부자는 죽음이 전혀 끝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욥기 14:14). 우리는 우리 몸이 무덤 속에 있게 된 후, 영원히 살게 될 불멸의 혼을 모두 갖고 있다 (마가복음 8:36-37). 당신은 천국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영원을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의 고통 속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이 타락한 이웃들이나, 타락한 딸과 그녀의 타락한 어머니, 타락한 아들 그리고 그의 타락한 아버지, 타락한 교회 지체와 그의 타락한 목사를 위한 놀라운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인가.

2. 이 가련한 혼은 또한 “지옥(음부)”이라 부르는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지옥은 Danville, Kentucky 처럼 실제적이다. 우리에게 천국과 구속 받은 자의 영원한 기쁨에 대하여 말해주는 동일한 영감의 책이 우리에게 지옥과 저주 받은 자의 영원한 슬픔에 대하여 말해준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은 후에 부자가 “지옥에서 — 불꽃 가운데 고민”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두려운 그림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지. 지옥에 있는 이 타락한 혼은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을 갈망했고 구걸하였다. 그는 불꽃 속에서 고통 받고 있었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 가로지를 수 없었던 “큰 구멍이 끼어” 있었다.

J. C. Ryle 은, “이보다 더 무서운 단락이 아마도 전체 성경 안에 좀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왔던 그분이 공회 안에서 기뻐하였던 분임을 기억하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것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옥은 실질적인 장소이다. 부자는 너무 늦게 지옥이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벌레들과 탈출할 수 없는 고통과 영원한 어둠과 끝나지 않는 소망 없음과 하나님과 영원하고 의식적으로 분리된 장소이며 그 모든 것은 좋다!

“지옥이 끔찍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다. 대부분의 사람은 지옥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작고 뾰족한 것으로 약한 사람을 찌르면서 영원한 동안 그들을 비웃으며 사탄의 앞잡이들이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동굴들이다. 이것만큼 나쁜 게도, 지옥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에 비교되지 않는다. 지옥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있는 곳이다. 지옥은 구원자 없이, 그들의 죄의 빛을 지불할 누구도 없이 인간이 하나님과 마주치는 ‘장소’이다. 만약 당신이 사탄의 앞잡이를 두렵다고 생각한다면, 예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마주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Nathan Terrell)

3. 지옥에서 그의 눈을 들어 올리며, 이 부자는 그의 모든 삶을 무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셔야 하고 하실 것을 보았다.

기록되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4)고 하였다. 하나님은 매우 융통성 없이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그분 자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서 죄를 발견하셨을 때 그분은 그에게 진노를 무한하게 퍼부으셨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그분의 아들을 벌하셨던 그분이 당신의 죄가 그분의 아들에 의해 없어지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당신을 분명히 벌하실 것이다.

4. 부자는 지옥이 끝없는 고통의 장소임을 발견하였다.

그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 외쳤다. 지옥은 성취되지 않은 정욕과 욕망의 장소이며, 정신적이고 도덕적이며 육체적인 고통의 장소이다.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의 고통들이 무엇이 될지 상상하려 할 때, 나는 내가 안 것으로 충격을 받고, 그 고통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비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율한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들이다! 끝 없는 고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가련하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피하라! 피하라! 그리스도께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저주 받은 자의 고통 속으로 떨어진다!”고 외치는 것이다.

이름들

하나님의 책 안에서 그 곳을 묘사하기 위하여 얼마나 끔찍한 이름들이 사용되었는가! 그곳은 벌레들이 죽지 않을 곳이라 부른다 (마가복음 9 장). 그것은 극렬한 풀무불이라고 불린다 (말라기 4:1). 그것은 풀무 불이라고 불린다 (마태복음 13 장). 그것은 밀이 없는 구덩이, 꺼지지 않는 불, 불과 유황, 지옥 불, 불 못, 계절스럽게 삼키는 불, 영존하는 불, 영원한 불, 불의 강 (계시로 21 장),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불린다.

고통

저주 받은 자의 고통은 생각할 수 없다. 지옥에서 당신은 당신 상태에 대하여 완전한 시각을 갖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모든 감각이 완전히 깨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낭비한 삶,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보고 알게 될 것이다. — “아들아, 기억하라!” (25 절).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당신의 혼에 무겁게 놓일 것이다. 지옥에서 시간 동안 죄 가운데 아무런 기쁨이 아니라, 오직 고통 뿐이다.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고통 받는 양심의 고통을 상상 할 수 있겠는가? 죽지 않는 것은 벌레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 불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시니, 불과 유향의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의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당신의 언약이 폐하며,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당신의 언약이 서지 못할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게 될 때, 당신이 거기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사야 28:17-18). 그러면 당신의 절대 그치지 않을 기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은 당신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 당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시온에 놓인 그 한 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저주 받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깨어난 기억이 당신의 타락한 혼에게 영원히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이사야 28:14-19; 잠언 1:23-33).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비록 그가 고통스러운 지옥의 킁킁한 감옥에 영원히 갇혔을지라도, 그 저주 받은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다,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들은 그들의 친구, 가족, 이웃,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멀리 하였던 자들을 하늘의 왕국 안에서 보게 될 것이며, 그들 스스로 영원히 던져 버리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3:28).

지옥에서 당신의 유일한 동료는 저주 받은 자들 — 저주 받은 천사들 — 저주 받은 인간의 아들들 — 당신처럼 저주 받은 자들 — 당신이 그들을 싫어할 정도로 충분히 당신을 싫어하는 마귀들일 것이며, 모르는 사이에 소리치고 으르렁거리므로 당신을 미치게, 영원히 미치게 하며, 당신의 광기가 구원의 소망 없는 광기가 될 것이다!

지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누그러지지 않은 진노의 모든 충만을 공허이 없이 당신 위에 내려 놓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파멸로 별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9). 이런 상태에서 당신은 영원히 있어야 한다 (계시록 20:6).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누가복음 16:23 의 마지막 행에서 서술된 것이다. — 지옥에서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모든 언약의 은혜에 속한 축복이 그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아브라함과 그 안에서 성취된 언약의 은혜의 모든 충만을 보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멀리” 있는 그 축복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언약의 은혜의 모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축복을 갖고 누리면서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5. 지옥에서 이 가련하고, 타락한 혼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배웠지만, 너무 늦게 배웠다.

부자의 부와 종교와 행위들은 지옥에서 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잃음으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안의 믿음으로 인하지 않고서 구원은 없다.

6. 지옥에서 부자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배웠으나, 너무 늦게 배웠다.

지옥에서 이 부자는 회개 없이 구원이 없음을 깨달았다 (30 절). 지옥에서 그가 일시적인 것은 아무 것도 보지 않은 것이 어떤 실질적인 가치에 속한 것이다. 지옥에서 그는 그리스도와 그분 안의 믿음을 제외하고 아무 것도 실질적인 것은 없고, 다른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배웠다.

7. 한 가지 더 부자가 지옥에서 배웠으나, 너무 늦게 배웠던 것은, 이것이다: —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 없다 (28-31 절).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한 역사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축매이다 (로마서 1:16; 10:17; 베드로전서 1:23-25). 축매는 작용의 매개체이다. 만약 화학자가 다른 것을 새로 만들기 위하여 두 물질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결합하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촉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촉매는 결합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 물질들의 결합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촉매의 존재가 없이는, 결합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계속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정확히 똑같이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바로 그것이다.

물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심이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어떤 방법이나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고 죄인들을 구원하려 선택하셨을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우리 코를 꿰어 우리를 하늘로 끌어당기려고 천사들을 보내셨으며, 일단 속량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기뻐하심이 아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의 매개체를 통하여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고 부르실 것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사실이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교통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필요한 촉매로 만든다.

나는 많은 사람이 이것에 대항하여 외치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한다. 그것은 구원이 사람에게 의존적 이도록 만든다.”고 말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어리석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들이 의미하도록 그 의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리적 관념들과 신학적 체계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여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계시에 우리의 논리를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할 수 없다.

성경을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라. 그리스도 안의 거듭남과 믿음, 성령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의 운행이 복음 전파의 조력을 통하여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통하게 된다는 결론 없이 그 문맥 안에서 다음 단락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마서 1:15-17; 10:13-17; 고린도전서 1:21; 에베소서 1:13; 디모데전서 4:12-16; 히브리서 4:12; 야고보서 1:18; 베드로전서 1:23-25). 각각의 단락들 안에서 주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기쁨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무런 복음 전도자가 이전에 있었던 적이 없는 곳인 뉴기니아의 밀림 속에 있는 머나먼 야만족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 질문이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지를 알 수 있다 —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 그분의 공훈을 보이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사람에게 어떻게 그분의 선지자가 도달하게 하실 것인지 정확히 아신다. 요나에게 물어 보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압력으로, 우리는 긴급한 느낌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력으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성공을 확신하며 전한다 (고린도전서 15:58).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분께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분의 뜻과 행하도
록 보낸 일들 가운데 번영을 성취할 것이다 (이사야 55:11).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르심 받아야 한
다. 그리고 그 역사는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혜롭고, 복
음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100 장. 강력한 교훈—누가복음 17:1-5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 쥘대, 차라리 연자땃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7:1-5)

이 몇 개의 구절은 성경 안에서 제시된 가장 강력한 교훈을 포함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것들이 있다. 여기에는 오직 강한 음식 말고는 없다. 비교적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예정하심과 택정과 영벌과 한정된 속량과 효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한 단순한 젖으로 보이게 만든다.

확실한 범죄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 주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교훈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내려주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주의 말씀은 당신과 내게 주시며, 그분의 제자임을 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백한 사람들, 그분의 피로 씻음 받았고, 그분의 의로 옷 입었으며,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
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라…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 그분이 말씀하시는 실족
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실족케 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사용하려 계획하셨으
며, 그분의 택정한 자들의 구원과 영원한 선을 위하여, 또 그분 자
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지배하셨기 때문
에 실족케 하는 것은 온다. 많은 사람이 이 본문에 대한 Charles
Finney 의 설교 안에서 그가 나타낸 생각에 포함되어 있다. Fin-
ney 는, “이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죄는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론, Finney 의 주장은 철저한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를 넘어선 어떤 것, 어느 것이든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시편 76:10)고 한다. 우리 하나님은, “나
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
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7)라고 강조하신다.

실족케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들의 유익을 위
하여 오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온다. 그리고 실족케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 주 하나님께서 참 믿는 자들을 거짓 고백자들과 구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기 위하여 와야 한다 (고린도전서 11:19; 사도행전 20:30; 디모데전서 4:1; 베드로후서 1:1-2).

우리 주께서 이 단란 안에서 생각하고 계신 실족케 하는 것들은 무언인가? 있어야 할 이런 실족케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실족케 하는 것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발에 걸리는 발판,”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덧의 올라미가 그 희생물을 잡도록 하는 격발 장치를 가리키는데 사용하곤 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 말을 그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 그 말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이어 바로 따라 온다. 우리 주는 혼을 속이는 실족케 하는 것들, 사람들을 지옥으로 영원히 데려가게 하는 실족케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실족케 하는 것들은 단순히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과 골로새의 의지 경배자들과 같은 이단자들을 저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단락 안에 있는 실족케 하는 것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파멸에 이끄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경은 한 세대의 실족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어지는 세대 위에 방문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출애굽기 20:5; 34:7; 민수기 14:8; 신명기 5:9).

전체 세상은 거치는 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도록 계산되지 않은 것은 그 안에 하나도 없다. 복장, 허영심, 거리의 천함, 정치와 교육 체계, 사람들의 야심, 세상이 주는 명성과 부, 그리고 그 종교, 모든 것이 비유 안에 있는 부자의 경우에서처럼 육신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추켜세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의 경고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 쥘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가장 괘씸한 범죄자들만을 위하여 남겨진 사형의 고대 형태를 가리키신다. 그분은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끔찍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인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옥에서 멸망하도록 하는 죄가 되기 보다, 단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처형되기 때문이다.

“이 작은 자들”은 누구인가? 다시 말하건 데, 그 대답은 문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들 가운데 작은 자들은 그 가련하고, 멸시 받은 세리와 죄인들이며, 그들은 그분 앞에 앉아 있었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이 작은 자들을 멸시했고 그들의 종교로 그들을 천국으로부터 가로막았을 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제,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앞에 앉아 있는 죄인들 위에 그분의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신다.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 쥘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언제 사람들은 “실족케 하는 것”이 오게 하는가? 분명 이것은 그런 것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방해하려 애쓸 때는 언제든지 이뤄진다. 그리고 실족케 하는 것들은 위선적인 교훈, 즉 사람들의 혼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있게 된다. 그러나 실족케 하는 것들은 그런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 행위로 복음에 책망을 가져올 때마다 사탄이 많은 사람의 혼을 가두는 덫을 놓는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의 죄의 결과였다 (사무엘하 12:14).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그것이 바울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24)고 말했을 때, 유대인에게 정한 범죄였다. 우리가 영원히 사로 잡힌 죄인들에게 어떤 실족케 하는 것도 주지 말고, 그들 앞에 어떤 덫도 놓지 말며, 아무도 파멸하지 않도록 주의 하자 (고린도전서 10:31-32).

용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 여기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심오한 것들 중 다른 것으로 이동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1 절과 2 절에서 영원히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실족케 하는 것을 주기를 피하도록 유의하라고 경고 하신다. 3 절과 4 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들, 당신과 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하난의 가족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행위들로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 하신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교만한 경향이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지키며, 훈련하며, 바로 잡을 것을 가르친다.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 만약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할 때 그것으로 당신을 잘 못되게 한다면, 은혜롭고 친절하게 그에게 그것에 대하여 말하며, 다른 누구도 언제나 당신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며, 마음 상하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그의 편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누구도 그것을 알지 않게 하라.

훈계하라는 말은 “그를 질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그가 한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그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을 것이다. 사실, 그 말은 존경심을 보이는 생각을 그 말과 함께 가져간다. 그렇다, 내가 나의 형제에 의해서 상처받고, 다치고, 마음 상했을 때, 그에게 존경심을 보이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 그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의도적으로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곧, 그를 용서하라. 모든 적개심과 분노를 내려 놓으라, 그리고 달콤한 성품과 사랑의 친절과, 아무런 잘 못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존경 말고 아무 것도 보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즉시 행하라!

아마도 당신은, “주여, 그것은 힘듭니다.” 아, 아니다. 그것은 힘들지 않다. 다음 행이 우리 교만한 육체 위에 힘들다!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우리와 똑같다. 우리처럼 그들은 동일한, 어리석은 것들을 반복하여 다시 또다시 행동한다 (잠언 24:16).

하지만, 아무 것도 용서의 실행보다 더 많이 지속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촉구된 것은 없다. 왜? 우리가 더 천연적으로 내키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육신은 복수를 원한다. 은혜는 용서를 가르친다. 교만은 벌하기를 원한다. 긍휼은 용서를 가르친다. 독선은 양값음을 요구한다. 사랑은 용서를 요구한다. 만약 내가 나의 형제가 내게 범했을 몇 가지 사소한 잘못 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대가 없고 충만한 그 용서에 대하여 아무 것도 체험적으로 알 수 없다 (마태복음 6:9-15; 18:35).

우리 주께서는, 아무 것도 당신의 혼에 해가 되는 것이 없고, 아무 것도 교만하고, 모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처럼 끔찍하고 쓸모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신다. 아무 것도 분노의 거름으로 상처 받은 감정을 치료하고 악의를 공급하는 것처럼 내적으로 더 철저하게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는 우리 주의 말씀은, “네 자신을 해치지 말라”는 것이다. 아주 적은 정도의 적의와 증오와 복수는 모두 우리가 믿는 복음에 정반대이며 철저하게 우리 축복의 주의 성품과 모순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흠이고, 늘 우리 육신으로 방해 받는 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분은 우리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서로를 실족케 하는 경향이 심한지,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하기 쉬운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영을 고갈시키는 말을 하고 일을 행하며, 평강을 붕괴시키고, 그분의 육신의 친구들의 교통에 상처를 주는지 아신다.

따라서, 어떻게 악한 자를 바로 잡을 것인지를 그분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대하여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하여 그를 원망하지 말고, 다만 붙잡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의 이름을 당신의 하늘의 아버지, 그의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부르라. 만약 여전히 그가 자주 반복하여 그의 실족케 하는 것이 확대된다면, 그를 원망하지 말고, 다만 그를 동정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갈라디아서 6:1-3). 그가 기분 상하게 하는 때마다, 그만큼 용서하라. 만약 그가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만약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의 문제로 남겨두라. 어찌되었든지 그를 용서하라. William Mason 은 이렇게 기록했다...

“위험을 각오하고 우리가 분노를 즐기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분노를 하루를 넘기지 말고, 우리 마음 속에서 대가 없이 또 충분히 실족케 하는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나 그가 고집스럽게 남아서 쓰라린 영을 고집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라 할 지라도 우리는 마음 속에서 그를 용서해야 하고, 사랑 가운데 그를 품기를 갈망하여야 한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기 전에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향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생각은 실족케 하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돌이키기 전에 향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모든 반복된 범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이른 번씩 일곱 번, 하루에 490 번까지 라도 용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 안에서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한다. — 분명 그분은 그분의 사랑을 확대하고 그분의 공활을 그분께 돌이키는 모든 자의 셀 수 없는 범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믿음을 위한 기도

우리 주께서 일반적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다. 제자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전도자들이 그분의 강력한 교훈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었다: —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들은 이것이 강력한 교훈, 육신이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육신은 영원한 칭의, 특별한 은혜, 주권적 예정하심과 영별, 그리고 한정된 속량을 거머쥌 수 있다. 반면에, 그런 것들은 아무 것도 아니다. 육신은 가장 엄격하게 정통적인 교리를 깨닫고 촉진할 수 있다. 육신은 교회 안에서 교리와 예언의 비밀들을 사랑하고 즐긴다.

그러나 용서는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 우리 혼 안에서 깊이 체험된 은혜의 공급을 요하며, 그것으로 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이 더욱 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대가 없고, 지속적인, 절대적인 십자가의 피에 의한 용서라는 것을 더욱 더 충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배우며,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늘 솟아나는 샘으로부터 우리 혼
으로 흐름으로, 더욱 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될 준비와 능력을
갖게 된다 (에베소서 4:32-5:2).

101 장. “주여,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누가복음 17:5-10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 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찌니라.” (누가복음 17:5-10).

우리의 믿음

우리 본문 안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첫 번째 사항은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것의 작음이며, 그것의 강함이 아니라, 그것의 약함이며, 그것의 승리가 아니라, 그것의 실패이다. 오늘날 우리 믿음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대상은 위대하다. 그러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은 크게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런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만을 구원자와 주로서 참으로 신뢰하는 모든 자)는 사도들과 함께 크게 외칠 필요가 있다. “주여,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 그 사실은 우리가 모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도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들은 것이 없지만, 그 이유는 적어도 문맥 안에서 암시되고 있다. 기억하라, 이 요구는 이 사람들이 앞의 두 장과 17 장의 처음 구절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 주께서 주신 것을 주의 깊게 들은 후에 나왔다. 그들이 주의 입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이 무게 있는 공과들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어떻게 잠겨졌을 것인지 상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은, “누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충분할까? 누가 그런 높은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그런 높은 표준을 따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깊이 중요하다 —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문제의 뿌리이다 (히브리서 11:6).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요한복음 9:35) 이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모든 다른 질문들은 의미 없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요한복음 3:36; 요한일서 5:1, 10-12). 믿음은 그것으로 혼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이며, 체험적으로 그분께 연합되는 것이고, 그분으로 구원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모든 영적 위로와 확신과 평강의 비밀이다. 사람의 믿음에 따라 세상에 대하여 그의 평강과 그의 소망과 그의 힘과 그의 용기와 그의 결단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믿음의 정도가 변한다. 어떤 사람은 더 크고 강한 믿음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행이 덜하고 더 약하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가운데 매일 매일, 시시각각, 순간 순간 변한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있다. 모두 성경 안에서 언급되고 있다. 모두 하나님의 성도들의 체험 안에서 보여진다.

다시 질문하겠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기록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데살로니가후서 3:2). 구원의 믿음은 단순히 신경을 외거나, 사실들에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믿음이 아니다. 교리적 정통은 믿음이 아니다. 침례는 믿음이 아니다. 교회 가입이 믿음이 아니다. 종교적 체험이 믿음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던 많은 자들이 지옥에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그분의 은혜의 전능한 운행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된다 (에베소서 1:19-20; 2:8; 골로새서 2:12). 이 믿음은 옛 전도자들이 성령 확신을 외치곤 하였던 것의 결과이다 (요한복음 16:7-11).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구원에 본질적이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온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의가 아니다. 불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의를 세울 수 없다. John Gill 은 이렇게 기록했다...

“믿음은 가장 훌륭한 성도들 가운데 불완전하다. 우리 주께서 자주 그분의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로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믿음에 불완전함을 알았기에, 그들은 그분께, 주께서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7:5), 그분께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의 믿음 안에 약간의 불완전함과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 복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9:24), 모든 사람은 많은 적든 말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믿음은 온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화하는 의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였다면, 그것은 율법의 한 부부일 뿐이다. 그것은 실로 율법의 더 무거운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지만 (마태복음 23:23), 그러나 그것은 율법 전체가 아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한다 (갈라디아서 3:10).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심판이 진리에 따른 분인 하나님께서 오직 일부분인 율법에 완전한 복종으로 그것을 여기실 수 없다.”

겨자 씨 믿음

사도들이, “주여,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하였을 때, 그들의 믿음이 단지 좋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보다, 그분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약함과 불충분하다는 그들의 느낌을 의도적으로 가중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 “주께서 가라사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뿔나무더러 뿌리가 뿔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6 절).

질문의 여지 없이, 이것은 속담적인 표현이다. 그것을 글자 그대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께서 이 속담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공과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다. —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거의 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의 해내지 못하는 이유,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계속 직면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아무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고 구원자 안에서 그토록 작고, 적고, 하찮은 믿음을 갖고 있고, 겨자씨 믿음에 비유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23; 요한복음 11:40).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아마도 우리에게 대한 어떤 것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지 구원자 안의 믿음이 부족함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내게 있어서 아무 것도 그분의 보혈로 씻는 것보다 더, 그분의 흠 없는 의로 덮는 것보다 더, 그리고 그분 안의 나의 믿음보다 그분의 지속적 은혜로 용서받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주여, 우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과 용서

분명하게, 5 절에 있는 제자들의 기도와 3 절과 4 절에 있는 용서에 대한 구원자의 가르침 사이에 연결이 있다. 이 세 구절을 함께 읽어보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7:3-5).

주의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용서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표현하였던 무한한 선에 놀랐다. 그와 같은 믿음이 그분의 은사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공활을 구하였다. 서로에게 용서의 큰 은혜를 행사하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은혜가 없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으므로 (요한복음 15:5),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복되다 (골로새서 3:12-13).

무익한 종들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이 너무도 철저하게 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대한 우리의 최선의 섬김은 무익한 종들의 섬김과 희생에 지나지 않는다 (7-10 절).

“너희 중에 뉘게 받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 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사례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찌니라.”

우리 주께서 얼마나 무거운 타격을 독선주의에 주시는지.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교만하고 독선적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장점들과 우리 성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이 생각한다.

독선주의는 수 천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교묘한 질병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안에서 쉽고 속히 본다. 그러나 우리 자신 가운데에는 거의 보지 못한다. 큰 교만은 종종 겸손의 외투를 입는다. 바리새인의 특징 중 한 조각도 포함하지 않는 마음은 세상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로에 대한 모든 주장을 포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구원받으려 한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과 아무런 공로도 없고, 선한 것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의 가치가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해야 한다.

일단 용서받고 사함 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오직 “무익한 종들”임을 깊이 자각하는 가운데 매일의 삶의 여정을 떠나야 한다. 우리에게 최선은, 오직 우리 의무를 하는 것뿐이며,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무를 행했을 때 조차도, 우리가 한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구원자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힘에 의함이다. 하나님께 주장할 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우리에게서 아무 것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할 권리가 우리에게서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만한 가치가 우리에게서 없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다. 우리 현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별된 은혜에 빚졌다.

무엇이 독선주의의 뿌리이고 원인인가? 우리처럼 가련하고, 약하며, 오류가 있는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것을 받을 꿈을 꿀 수 있는가? 그것은 모두 무지로부터 생겨난다. 우리의 깨달음의 눈은 천연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우리 자신도, 우리 삶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율법도 보지 못한다. 일단 은혜의 빛이 죄인의 마음 속에 비추면 독선주의의 통치가 끝난다. 교만이 남아서 종종 그 추한 머리를 세운다. 그러나 교만의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위하여 오실 때 부서진다. 참된 믿는 자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

공과들

여기 우리 앞에 제시된 공과들은 아주 분명하다.

1. 우리 주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책임이다.
2.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모두를 행했을 때 (심지어 그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행했을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행할 우리의 의무를 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주의 소유이고, 전적으로 모조리 그분의 것이다.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모든 시간, 힘, 능력, 소유가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온 마음과 생각과 혼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4.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섬김의 날이 끝났을 때, 인정하도록 하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찌니라.” “무익한 종들”이란 말은 “그들의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은 종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들,” 혹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가치 없는 종들” 이란 뜻이다.

큰 대조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 — “우리 주께 아무 것도 유익하게 하지 않은 종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가치 없는 종들” 이다. 그러나 우리 주는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보신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관점은 약간 다르다. 대비를 보라 (마태복음 25:21, 34-40; 베드로전서 2:5).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축복된 복음의 계시인가: —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모두, 주 예수를 신뢰하는 자는 모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열납되며,”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102 장. 깨끗함을 받았으나, 치유 받지 않음—누가복음 17:11-19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 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11-19).

당신은 깨끗함 만을 받았는가, 아니면 치유를 받았는가? 당신은 단지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온전하게 되었는가?

우리 주의 땅의 사역의 시대 동안에, 그분의 역사의 외적이고, 일시적인 유익들을 누렸으나 그분을 결코 몰랐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분의 몸을 만졌던 많은 자들이 결코 그분을 만지지 않았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갈리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마셨던 많은 사람은 결코 그분의 은혜에 속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생명의 떡을 결코 맛보지 않았던 많은 사람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혼의 치유 가운데 있는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결코 몰랐던 자들의 몸을 치유하기 위한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많은 자들이 있다. 누가복음 17:11-19 는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자신들의 고통을 고치기 위한 능력 말고 그리스도로부터 더이상 원하지 않았던 아홉 명의 그 문둥병자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그들이 찾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받은 모든 것이다. 크게 위험하거나, 크게 어려운 때, 혹은 그들 자신에게 큰 비탄을 가져왔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며, 교회에 가입하고, (적어도 한동안은) 매우 종교적으로 되었던 많은 사람들을 알았다. 그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었다. 그들은 큰 변화를 이루었다. 그들의 고난은 치유 받았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원하였던 것을 가졌을 때, 이 단락에 있는 아홉 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으나, 오직 외적으로만이었다.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으나, 치유 받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한” 한 문둥병자 같은 다른 자들이 있다. 이 단락 가운데 우리 혼을 위한 많고 많은 공과들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이 열명의 문둥병자 안에서 계시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인치시기를 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다.

11 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 주 예수께서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다. 그분은 죄로 충만한 그분의 백성 대신에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시려는 복된 계획을 위하여 그리 가고 계셨으며, 죄과 고통의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일들을 마치시려 지나고 계셨다. 그곳에서 그분은 그분의 양 떼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실 것이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 죄를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므로 그분의 생명의 피를 부으심으로 죽음에 이르실 것이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끔찍한 진노로 고난을 받으시며, “다 이루었도다!”고 마침내 외치실 때까지 공의의 완전한 만족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공의의 모든 철저한 진노에 고난 받으실 것이다.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다.

그가 희생의 장소로 가고 계셨을 때, “그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것에 대하여 많은 추측이 일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실한 구원자께서 이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침해된 공의에 의한 약속, 우리를 위한 은혜와 구속의 약속, 그리고 그분을 위한 사망의 약속인 예루살렘에서의 약속을 갖고 계셨다. 그분의 때가 이제 왔다. 그분의 시간이 이제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돌아가지 않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으실 것이다 (이사야 50:5-7).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1).

12 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 우리는 16 절에서 이 문둥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인임을 듣는다. 나는 그것이 흥미롭게 보인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경멸하였다. 보통 그들은 서로가 절대로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고통과 슬픔, 가난과 궁핍은 종종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며, 그들은 건강하고 가난한 때 어리석은 선입관 때문에 서로 경멸한다. 만약 비탄이 타락한 사람들을 그런 교만한 다툼과 분열로 나뉘게 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사회적, 인종적, 계급적 차별을 없애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가!

한 마을의 외곽에서,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모여들었고, 치명적인 비탄의 공통점 안에 모였다. 그들은 멀리 떨어졌는데, 그들의 접근이 불결했으므로 감히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려는 모든 자에게 떨어지도록 치욕스럽고, 가슴이 미어지는 외침으로, “불결하도다! 불결하도다!”라고 함으로써 경고하게 되어 있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열 명의 문둥병자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의 길을 지나시고 있었음을 들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분을 만나러 왔을까? 그들은 그분의 명성에 대하여 들었고, 그분이 다른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하신 것을 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이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을 치료하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왔다.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이다. 가장 경악스러운 고난과 하락의 그림을 상기시키고, 사람이 생명의 피의 바로 그 샘들을 부패시키고, 그 외모를 왜곡하고, 그의 접촉을 역겹게 하고, 사망 그 자체보다 훨씬 더 끔찍한 역병으로 천천히 덮고 감염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의 마음에 예민하고 즉각적인 동정심이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인 문둥병의 그 살아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었다.

문둥병

이 사람들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은 누구든 우리 주 앞에 전개된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문둥병자들은 열 명이었다. 그들의 음성은 쉬어 거슬렀다. 그들은 피부가 험고 딱지로 덮여 있다. 타버린 석탄 덩어리 같은 그들의 얼굴은 부풀고, 단단하고, 갈라지고, 딱지가 앉았다. 그들의 육신은 그들의 몸 위에서 썩고 있다. 충혈되어 붉게 타는 눈, 연골이 허물어져서 가라앉은 그들의 코, 검게 부풀고 궤양이 생긴 그들의 혀가 있다. 그들은 모두 끔찍한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문둥병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당신은 지금 거울 속을 들여다 보고 있다. 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대상인가. 당신이 보듯이, 당신과 내가 모두 천연적으로 문둥병자이다. 문둥병은 죄의 생생한 그림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 앞에 서 있다. 문둥병은 구약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불결하게 만든 병이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그는 제사장(율법)에 의해서 불결한 것으로 선포되었고, 이스라엘의 집단에서 버려졌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문둥병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불결하게 되었고 깨끗하지 않았다. 문둥병은 죄처럼, 그것으로 모든 것이 파괴될 때까지 번지는 질병이고, 인간의 모든 삶을 타락시킨다. 죄의 문둥병은 전체 인류를 부패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 모든 지체를 통하여 퍼진다. 그것은 우리를 집단 밖으로 차단하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 (에베소서 2:11-12). 문둥병은 죄처럼,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이며,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유될 수 없다.

문둥병자들은 절대로 의사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보내졌다. 그러나 모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문둥병자의 상태를 보고, 그가 불결하다고 선포하고, 그를 집단 밖으로 내쫓는 것이었다. 제사장은 문둥병자를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레위기 13:2-3; 14:2-3). 문둥병자들과 문둥병에 관련한 레위 율법 전체는 율법의 본성과 용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의도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의 문둥병을 규정하며, 우리가 문둥병자들임을 결론 짓고, 우리가 불결하다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상태를 바꾸거나 돕기 위한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속량의 피 말고 아무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공의의 채찍으로 그분에게 고통을 주는 자국 말고는 아무 것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 마음의 질병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깨끗하게 함

문둥병이 우리의 죄를 묘사하는 것처럼, 율법 아래 문둥병자의 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뜻하게 함(레위기 13, 14 장)은 그리스도에 의한 우리 혼의 치유를 그렸다. 문둥병자가 의례적으로 깨끗하게 되려면, 두 마리 새들을 정결하고 산채로 잡아야 했다 (레위기 14:5-6, 50:52).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 위에서 흙 그릇에서 잡았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피가 문둥병 걸린 죄인들의 정결케 함을 위하여 뿌려져야 했다. 흙 그릇은 그분의 인간적 본성을 상징하였고, 그가 죽음에 처했던 그분의 육신을 상징하였다. 흐르는 물은 그분의 피의 정화하는 본성을 상징하였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그 계속되는 효능을 상징하였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오는 살아 있는 새는 잡은 새의 피에 찍는다. 그리고 제사장은 살아 있는 새를 풀어주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의 부활을 상징하며, 성취된 구속과 확증된 열납과 없어진 죄를 선포한다.

13 절

문둥병자였던 열 사람은 갈보리를 가는 길에 계신 주 예수를 만났다. —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이제까지 문둥병 걸린 다른 사람을 치료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람은 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불렀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그들 앞에 서 계셨던 인자를 불렀으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그분께 요청하고 있었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이다.

14 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 이 문둥병자들이 그들에게 공활을 보여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였을 때, 주 예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구약 율법 안에서 그들이 문둥병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가서 그들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줄 것이 요구되었으며, 따라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 율법)은 그들이 정말 문둥병자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레위기 13:2-3).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쳤다. 그들은 이미 문둥병자들로서 선포되었고 규정되었다.

그러면 왜 주 예수께서 그들이 다시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줄 것을 명하셨을까? 그 대답을 레위기 14:2-3 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는 자신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했는데 (레위기 — 율법),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함을 선포 받기 위해서였다. 다른 말로, 주 예수께서, “너는 깨끗하다.”고 하셨고, 깨끗함을 의례적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은 보내졌다. 이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깨끗함을 선포 받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곧바로 향했다.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향하여 출발하였을 때, 그들은 자신을 보았고 깨끗하여진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문둥병은 없어졌다. 그들은 주권적인 구원자의 주권적 뜻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다.

15-18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구절들은 교훈으로 가득하다. 왜 다른 아홉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은 주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자의 발에 그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는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다른 아홉은 주 예수를 그분의 이름, 여호와-예수, 하나님 우리 구원자로 불렀으며, 그분을 주로써 인정하였고, 그들의 몸에 있는 문둥병의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 그의 몸의 문둥병의 깨끗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질병을 일으킨 문둥병의 치료를 받은 자가 주 예수를 하나님 그의 구원자로 경배 드리기 위하여 돌아왔다. 그는 그의 문둥병을 치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었다.

19 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 아홉 사람이 그들의 몸의 질병을 치료 받았을 때,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 그들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다른 어떤 것을 체험하였다. 그는 그의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혜가 그의 혼에 부어졌다. 아홉 사람은 노예 상태와 형식주의의 멍에 아래 살면서 그들이 전에 했던 것처럼 계속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 제사장들과 종교적 의식과 율법적 제사와 세속적 의식과 영원히 관련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창조자이고 종결자에게 피신하였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홉 문둥병자들처럼, 오직 그들의 육신의 외적 치유만을 받음으로, 한 두 가지의 종교적 조우로, 결코 하나님의 아들을 알거나 경배할 수 없다. 그러나 가련하고, 사악한 죄인들은 그들의 혼의 문둥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주 예수에 의해 온전하게 되자마자 그분의 발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돌린다. 그들은 세속적 계명인 율법에 더 이상 나가지 않지만,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께 오지 않고, 우리 제사장을 끝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하게 만든다 (히브리서 7:16).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믿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선포하신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 예수께서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나? 분명 아니다! 아, 그러나 그분은 하셨다. 그렇지 않은가? 그분은 여기서 그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 마태복음 9:22 에서 그분은 그분에 손을 대었던 혈루증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0:52 에서 그분은 그 눈이 먼 것을 치유하셨던 바디매오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7:50 에서 우리 구원자는 죄인이었고, 그분을 그녀의 구원자로 경배하였던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18:42 에서 주께서 다른 소경에게 빛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만약 전도자가 어떤 죄인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움츠러들 많은 사람을 안다. 그들은 성경의 분명한 선포가 그들의 놀라운 교리적 체계를 철저히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죽을 정도로 두려워하였다. 성경의 분명한 선포를 받을 수 없는 어떤 교리적 체계도 부패한 체계이며 파괴될 필요가 있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라는 이런 선포는 절대 잘 설명될 수 없지만,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아니, 믿음은 우리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의 역사로 모두 구원 받았지, 우리 도움으로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구원이 없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고 역사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믿음을 역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므로, 그것은 우리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요하고 대가 없는 은혜에 속한 모든 풍성한 축복들을 받는다.

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포하므로, 그분의 귀한 아들 안에 있는 믿음에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죄인은, 그분의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자의 발에 엎드려 그분만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의 구원자로 경배 드리며, 절대 죽지 않고,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전서 15:10; 고린도후서 9:15)고 외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물겠다: — 깨끗하게 됨을 받았는가, 아니면 치유를 받았는가? 단순히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온전하게 되었는가? 이제 주 예수께서 당신을 그분 자신의 귀한 이름을 위하여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103 장. 하나님의 나라—누가복음 17:20-25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좃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찌니라.” (누가복음 17:20-25).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다. 전도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록한 것을 읽은 거의 모든 것은 완전히 거짓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유명한 책들은 미래 일들에 대한 세간의 주목 외에는 아무 것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예언적 일들에 대한 참조 성경과 연구 성경의 주석들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것은 거짓이다. 분명히, 나는 그것들을 모두 읽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개는 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제시한 것은 아직 단 하나도 읽지 못했다. 나는 당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이 종교적 어리석은 것들을 무시하기를 촉구한다.²⁰

만약 내가 이 공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종교적 어리석은 장식품 이상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라. 나는 그 보다 훨씬 더 멀리 갈 것이다. — 만약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종교적 어리석은 말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

이 여섯 구절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 될 것을 기도하면서, 한 행씩 보자.

조롱 섞인 요구

첫째, 우리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질문을 받는다 (20 절).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께 질문했던 모든 것이 악한 동기를 갖고 질문된 것이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이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여 어떤 악한 것으로 주 예수를 고소하거나, 우리 구원자의 교훈을 조롱하려 질문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더 나아갔다. 그들은 그분께 “물었다!” 얼마나 건방진가!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 감히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지

²⁰ 어떤 사람이 그의 말에 풍성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이 그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옥 같은가! 하지만, 이 요구를 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참경배자들인 척 하였다!

“물었다”라고 번역된 말은 “빠히 대하다” 혹은 “따져 묻다”를 의미한다.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언약의 메시야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그들을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로 만들고 땅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 안에 엄청난 조롱이 섞여 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당신이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디에 그 나라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정말로 그런 가련하고 일반적인 사람,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누구든 믿기를 기대합니까? 얼마나 오래 우리가 나타날 당신의 이 나라를 기다리기를 기대하십니까?”라고 하는 것 같다.

주의 대답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분 자신의 제자들에게 몇 가지 축복의 복음 진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의 조롱으로 그분께 주어진 상황을 끝내셨다.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신다 (20 절). 나는 그 무지한 바리새인들의 얼굴 위에 있는 철저한 무지의 퍼즐 같은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우리 주께서 이 바보들에게 오직 그들을 더 무지하게 하고, 그들에게 더 큰 혼란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기 위하여, 그들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대답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동시에 그날 군중 속에 있던 그분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으며, 장래 모든 날에 있을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귀를 얼마나 세워야 했겠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확신컨대, 죽은 듯 잠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 왕국과는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는 표적으로 날을 확정하거나, 시간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성취된 예언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임재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관찰될 수 없는데, 그것이 세속적이 아니라, 영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 중 어떤 것을 보기를 기대하는 자들은 분명 실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오지 않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왕국을 헛되이 기다리고 기대한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신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그분의 말씀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1. 하나님의 나라는 허식과 겉치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외적 과시를 갖고 오지 않는다. 사실상, 당신의 성경 여백에 주어진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 과시를 갖고 오지 않는다.”이다.
2.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볼 수 없다. 그것은 새로 태어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왕국이다 (요한복음 3:3, 5).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이 왕국에 대하여 절대 아무 것도 분별할 수 없다 (요한복음 3:1-8; 고린도전서 2:12-16).

3. 20 절 안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적 율법과 의식과, 전통과 계명들을 지킴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 최우선적 의미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일을 지키고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당신은 상상 속의 성체를 받고 상상 속의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 행위나 금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로마서 14:17; 골로새서 2:20-23). 사실은 만약 당신과 내가 우리 눈이나 우리 본성적 감각이나 우리 느낌에 크게 인상을 주어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틀렸고, 철저하게 틀렸다는 것이다. 21 절의 첫 행을 보고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지 아닌지를 보라.

경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21 절). — 그것이 무슨 뜻인가? 실로, 그것은 단지 우리 주께서 이제 막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선포하셨던 것에 대한 부연이다. 그 시대,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사역을 즉시 따라온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난 2000 년을 통틀어서 많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사람 혹은 다른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혹은 저기, 지금 혹은 그 때 나타날 것으로 말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누가 하든지 간에,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확신을 주든지 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든지 간에, 그런 주장을 무시할 것을 경고하신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경고가 있다. 우리가 메가 교회, 슈퍼 교회, 유리 대성당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매년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모든 주요 티브이 방송은 로마의 이상적 광경과 성스럽지 않은 교황을 방송한다. 텔레비전 전도사가 그들의 종교 개혁운동, 위대한 역사, 기적들을 갖고 수백 만을 매혹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음녀 바벨론과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부와 군중과 장대함에 놀라워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왕국임에 틀림없다. 이 모든 사람들이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정확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았을 때 했던 것과 똑같다 (계시록 17:4-8). 그러나 그런 경이로움은 화려하게 늘어선 매춘부에 놀라는 것이며, 그의 유일한 사명은 멸망하지 않을 혼의 영원한 파괴이며, 파멸되기 합당하고 파멸되어야 할 매춘부에게 놀라는 것일 뿐이다. 그 이름이 생명의 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그들은 그녀의 간통의 포도주로 독이 주입되었다.

너희 안에

이제 21 절의 뒷 부분에 있는 주의 다음 말씀을 주목하라. —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라는 말은 아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 당신의 성경의 여백에, “가운데”라고 번역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 우리 주의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당신 한 가운데 있음을 의미한다.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은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것은 분명 사실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상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의 나라이다. 하지만, 우리 번역자들에 의해 사용된 말이 우리 주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한다. —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영적 나라이지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며, 하늘의 나라이지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내적 나라이지 외적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들에 처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의 전능한 은혜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세워진다. 그것은 사탄을 묶고 내쫓음으로, 무장한 강한 사람에 의해, 그 속임수로 충만한 정욕을 가진 옛 사람, 죄를 보좌로부터 내어 던지므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를 내적 부분, 속사람 안에 갖고 있다. 그것은 종교적인 말과 외적 고백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의 그릇 안에 있는 기름이며, 가시적인 신앙 고백의 빛과 구별된다. 그것은 외적 행위와 의무 안에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곳에 산출된 인간의 혼 혹은 영 안에 있는 경건의 내적 원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통치되는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생 위에 균립한다. 성도들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 안에 거하시고 통치하신다.

큰 고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2 절과 23 절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향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여기서 큰 고난의 시간에 대하여 경고하신다. 그분이 언급하고 계시는 시간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날이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2 절). — 우리 주께서 가리키는 “때”는 전체 복음시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시대, 구원자의 사망의 때로부터 그분의 재림의 때까지이다.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반항 해야 했었는지! 얼마나 자주 그들이 그들과 함께 다시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그들 그들 자신에게, “얼마나 내가 더 많은 주목을 했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내가 그 기회들을 무시하지 않았기를 원하는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달콤한 복된 교제와 가르침의 시간과 날들이었는지!”라고 생각해야 했었는지!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여기 우리 주의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된다. “인자의 날”은 인자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보여 주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만나서, 가르치고, 위로하고, 축복할 그 때와 시기이다. 그 날들은 복음의 사역 아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드리는 공예배의 우리 날들이다. 주 예수께서 그분이 그분의 백성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곳이 이 세상이다 (마태복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8:20).

박해나, 질병이나,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날이 빼앗길 때, 그러면 그들은 그것의 가치를 높이 여기는 것을 배운다. 일단 그것들이 없어지며, 그것들은 귀하게 된다. 우리는 John Gill 처럼 가르침을 받자. “우리가 그것들을 갖고 있는 동안, 그 날과 기회를 소중히 하고, 유용하게 하며, 발전시키라. 우리가 그것들을 헛되이 바라고자 할 때,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빨리 사방으로 없어질지 모르며, 그것들을 듣게 되는 때가 여기 제시된 것과 같다. 그것은 그것들을 원함으로써 슬프게도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될 기회들이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올 때라고 해도, 우리가 경배처가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라 해도, 아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시온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달콤한 교통의 때가 없이, 그런 때가 언제고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 흥분의 거품을 뒤쫓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23 절).

그의 날

24 절에서 우리 구원자는 그분의 날에 경고 없이, 표적 없이, 갑자기 또 속히, 번개처럼 그분의 날과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한다. —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분명히, 이것은 우리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구절의 시작 말인, “같이(for)”는 22 절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와 직접 연결된 것을 내게 보여 주는 것 같으며, 22 절과 23 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지 말 것을 우리 주께서 경고하시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인자의 날은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공훈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시는 날이며,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날임을 본다. 그 날이 어떤 것이든, 그분의 날이고, 주의 날이며, 번개가 치는 것처럼 언제나 기대하지 않게 온다 (이사야 12:1-6). 아, 그 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 그분의 은혜로운 능력으로 그분의 소유를 구원하시려 오실 때, 그분의 사모하는 자들을 살리려 오실 때, 그들의 약속된 사망의 때 그분의 속량하신 자를 부르려 오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가운데 오실 때, —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소유에게 오실 때마다, 그 날은 그분의 날이며, 그 날은 영광스럽다!

“하리라(Must)”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 구원의 공훈 가운데 어떤 죄인에게 오실 수 있기 전에, 우리 중보자로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보좌에 오르실 수 있기 전에, 구원에 죄가 없이 다시 오실 수 있게 되기 전에,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야 한다. — 그분은 사악한 사람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죄 속량의 대속자로서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하며, 그로써 주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25 절; 이사야 45:20; 마태복음 16:21; 마가복음 8:31; 9:12; 누가복음 9:22; 22:7; 24:7, 44; 요한복음 3:14; 12:32).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이 은혜 가운데, 구속과 은혜와 구원의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전에, 주 예수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고난 당하고 죽으셔야 했고,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없애야 하셨으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야 했으며, 영광의 왕, 우리 구원자 왕으로서 그분의 보좌에 오르셔야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104 장. 하나님의 두드리진 은혜—누가복음 17:20-37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좃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찌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룻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룻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지 말것이니라. 룻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20-37).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시려, 우리의 대속자로서 죽으시려,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베드로전서 3:18)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 누가복음 (20-37 절)에 있는 이 단락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마태복음에서 주어진 우리 주의 감람산 강론의 간략한 변형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 장과 25 장), 정확히 동일한 것이 그 안에 사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못이다. 비록 주에 의해서 사용된 말씀의 어떤 부분이 동일할 지라도, 그 경우는 다르다. 마태복음 24 장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오셨다. 여기서 그분은 사마리아와 갈리리 지방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11 절). 마태복음 24 장과 25 장에서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파괴와 그분의 오시는 때와 관련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고 계시다. 여기서,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 이까?” (20 절) 라는 질문에 그분께 말을 건넸던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으로 시작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구원자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세속적이고 모두 잘못된 것이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대답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오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 가지 사항들, 적어도 이것들이 그분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다:

1. 하나님의 나라는 허식과 화려하게 오지 않는다. — 그것은 어떤 종류의 외적 모습을 갖고 오지 않는다. 사실, 당신의 성경 여백 안에 주어진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모습을 갖고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 —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라이다. 그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거듭남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다 (요한복음 3:3, 5).
3. 20 절에서 우리 주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종교적 율법, 의식, 전통, 그리고 성례를 지킴으로 오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의미할 것이다. —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날을 지키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 침례 — 성찬식 — 선행, 등.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적으로 할 일과 배척할 것들의 문제가 아니다 (로마서 14:17; 골로새서 2:20-23).

우리 눈과 우리 천연적 감각과 혹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느낌을 크게 인상을 주는 것을 보는 때마다, 우리는 틀렸고, 치명적으로 틀렸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21 절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다.

경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21 절). — 그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바로 선포하셨던 것의 확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시대에,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사역을 바로 뒤이은 그 시대에, 지난 2000 년을 통하여 다양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라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혹은 저기, 지금 혹은 그 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그런 주장을 하든지, 얼마나 그들의 주장을 확신시키려 하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을 따르든지 간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주장을 무시하라고 경고하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 그것은 영적 나라이며 세속적 나라가 아니고, 하늘 나라이고 세상의 나라가 아니며, 내적 나라이고 외적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다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그들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세우실 때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에 세워진다.

큰 환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2-25 절에서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에게 돌이키신다. 그분은 이제 큰 환란의 때에 대하여 여기서 특별하게 그분 자신의 소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때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이 구절들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날이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좃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뜻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바 되어야 할찌니라.”

경고는 26 절에서 계속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구원자께서 특정하게 “인자의 때에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라. 그분이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시려 나타나실 어떤 날에 대하여 그분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의 초림, 그분의 재림, 혹은 그분이 선택 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는 은혜의 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앞의 그 구절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때 우리 주께서 오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임을 확신하는 한편, 나는 달리 확신하였다. 이 단락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구별된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가르침을 결정적으로 예시하고 확증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태복음 11:25-26).

인간의 상태

26-30 절에서 우리 주께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공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타락한 인성에 대한 공과를 말씀하신다. 그 공과는 이것이다: —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 세대가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모두 갖고 있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나는 이 세대의 끔찍하게 신앙심이 없음을 어떤 식으로든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땅 위에 있는 인간의 상태는 정확히 노아의 시대와 룻의 시대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인류는 더 나아지지 않으며, 또 실제로,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단지 숨으려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숨기려는 다소간의 능력이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전 인류를,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그분의 진노의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전 인류가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살았고, 그 이상도 아니다. 동일한 일이 룻의 시대에서 실재 있었다. 동일한 일이 오늘날 마찬가지로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택정한 자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 영광 안으로 모으시고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의 실행 가운데 세상의 나머지를 파멸하시려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방법이다.

이 세상의 상태와 상황은 무엇인가? 인류의 상태와 상황은 무엇인가? 좀더 개인적인 질문으로 해 보도록 하자.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상태와 상황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가 없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면, 창세기를 펼쳐서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두려워하라. 이것이 당신이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렀고 끊임 없이 요청하고 있다.

우리 주께서 하신 그분 자신의 오심에 앞선 때와 노아와 롯의 때 사이의 비교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6, 18, 19 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 때에, 우리 자신 가운데 믿음 없음과 부패와 정욕과 공허함과 쾌락과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일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도 철저하게 인간의 마음을 소모하였으며, 그로써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인간의 생각 속이나 그의 세상 가운데 없었다 (창세기 6:2, 5). 인간은 살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면서 그들이 좋아했던 대로 살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가족과 가정, 일과 쾌락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었다.

동일한 일이 소돔에서 실제로 있었다 (창세기 18:21). 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바라보셨을 때, 그분은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베드로후서 2:8)고 말했던 한 의인을 그곳에서 보셨다.

우리 주께서 롯의 시대의 사악함을 설명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이 나 누가복음 안에서 소돔에서 실행되었던 동성애의 끔찍한 변태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 생략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서 너무도 보편적이고 너무도 촉진되는, 그 부도덕한 행위 안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분노로 이성적인 사람들을 몹서리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려고 분명히 의도되지 않은 것이다. 그 부도덕한 행동은 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제나 외고집 우상숭배의 결과와 사회 질서와 예절의 파멸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다.

따라서 왜 구원자께서 소돔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그 한 가지 끔찍한 죄를 언급하지 않으셨나? 그 이유는 분명하다: — 자신 위에 살고, 자신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분의 복음과 영원과 관계 없이 사는 모든 자가 그 방탕하고 불결한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며,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고 있는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을 것이다.

노아의 세대와 소돔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선고는, 인간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회개하기를 촉구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사악한 반역 가운데 계속되었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주 하나님께서 소돔 위에 불과 유황 비를 내리게 하셨다 (창세기 6:3, 7, 13; 19:11-14). 하지만, 그 사악한 시대 가운데 조차도, 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던 택정한 나머지를 소유하셨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할 때까지 세상을, 혹은 롯이 소알에서 안전하게 될 때까지 소돔을 파괴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베드로전서 3:20).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시간의 종말 때까지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은 그들을 향하여 그분을 오래 참으시도록 하는데, 모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랑 받고, 선택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지 누구도 멸망하게 하려 의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9, 15; 창세기 19:17-22). 노아와 롯의 시대에서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별한 은혜는 모두 명백하고 효험 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그럴 것이다. —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8). 그리고 그리스도, 주의 천사는 롯을 소돔에서 데리고 나왔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창세기 19:16).

30 절을 읽고 기뻐하라! —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 박수 치며 찬양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그분은 그분의 소유를 어떻게 구원할 지 알고 계시며, 그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두드러진 은혜

30-36 절에서 주 예수께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계속하여 희생하도록 호소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두드러진 은혜를 보이신다.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 가운데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전능한 은혜의 행위로써 그들을 방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데려 오시고, 그들의 생명을 소알에서 피신처를 찾도록 소돔에서 피하도록 은혜롭게 강제하실 때까지 회개하고 믿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누군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군가 그리스도께 피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 보실 것이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공활을 베푸실 자들에게 공활을 베푸신다. 그분은 아벨을 구원하셨고 가인을 지나가셨다. 그분은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지나가셨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우르의 나머지 거주자 모두를 지나치셨다. 그분은 롯을 구원하셨고 그의 아내와 그의 사위들과 그의 다른 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지나치셨다. 그분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분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를 취하시고,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신다.

전념된 마음

여기 우리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세 번째 공과가 있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분은 전념된 마음을 요구하신다 (31-33 절).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분열된 헌신에 대하여 우리 주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얼마나 확고한가.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다. 기억하라, 그녀는 그녀의 남편 롯과 함께 소돔을 떠났다. 기억하라, 그녀는 의로운 남자와 결혼하였다. 기억하라,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기억하라, 그녀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제멋대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순종하였다. 그녀는 뒤돌아 보았다! 왜 뒤돌아 보았나? 그녀는 나누어진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롯과 함께 소돔을 떠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돔에 남아 있었다. 기억하라, 그녀는 세 천사와 그녀의 남편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서 있었지만, 소돔 인들과 함께 멸망하였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녀를 쳐서 죽이셨다! 이것도 또한 기억하라: — 그 날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있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소돔에 그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며, 나누어진 마음으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독수리와 주검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37 절). — 이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자주 그랬고 우리가 종종 행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것에 대한 예측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출현과 분열이 일어나게 될 곳을 알기를 원했다.

우리 주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가? 현대 번역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혼란을 심화시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검”이란 말을 “시체”로 “독수리들”을 “탐욕자들”로 번역한다. 두 가지 경우 그런 번역은 틀렸다. 우리 번역은 원래의 뜻과 일치한다. “가라사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주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란 말은 죽임 당한 자의 육신을 의미한다. 정관사를 주목하라. 우리 주께서, “주검 있는 곳에는 (시체들이 있는 곳마다가 아니라),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하셨다. 그리고 복수형으로 독수리 (말뚝가리들이 아니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문맥을 기억하라.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두드러진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분은 그분 자신 안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죽임 당한 자의 주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독수리들”은 믿음 가운데 그분께 모이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책이 이것을 가르치는지 보도록 하자.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성경 안에서 독수리들로 언급된다 (신명기 32:8-12; 욥기 9:25-26; 이사야 41:31; 계시록 12:14). 그분의 제자들의 질문, “어디오니이까, 주여?” 에 대한 우리 주의 대답은 이것이다: — “복음의 전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제시되는 곳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그분의 영의 능력과 은혜로서 사람에게 계시되는 곳마다,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은 ‘인자가 계시되는 날에’ 그분께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독수리들은 그들의 양식이신 그분께 “모인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의 살육당한 구원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주검은 그분의 택정한 자들의 만남의 지점이다. 그분은 주검을 향한 독수리들처럼 궁핍한 혼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그분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음 12:32)고 하셨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독수리인 그분의 피조물에 대하여,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만한 것을 살피나니 … 살육 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욥기 39:28-30). 우리 구원자 하나님은 그분의 경우를 더하신다: 독수리들이 주검 주변에 모이는 것처럼, 나의 은혜로 인하여 선택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인간의 혼들이 내게로 모이게 된다.

독수리처럼 기도를 위하여 예민하고 빠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한 자도 그래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 축복의 구원자의 말씀이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자. —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는 포획의 새이다. 모든 포획의 새 가운데 아주 먼 거리에서조차도 그들의 적당한 먹을 것 냄새를 맡을 정도로 냄새에 대하여 아주 빠르다. 그 후각에 더하여, 독수리는 탐욕스러운 식욕을 갖고 있다. 굶주림과 그 후각에 의해서, 모든 기회를 잡아 그 성찬에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러나 독수리는 탐욕스러운 동물이 아니다. 독수리는 죽은 것을 먹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먹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 혼이 양식을 공급 받는 그분은, 비록 한 때 우리의 대속자로서 살육 당했지만, 영구히 살아계신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면, 만약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살어나게 하셨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계속하여 늘어나는 식욕과 배고픔을 주신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그분의 포용에 대하여, 그분의 의에 대하여, 그분의 피에 대하여, 그분의 임재에 대하여 배고프지 않은가? 그분에 대한 굶주림으로 인하여, 그분의 독수리들은 마치 굶주린 새들이 사냥감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날아간다. 그분의 집,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Robert Hawker 가 말했다. “만약 예수께서 실로 당신의 갈망의 한 복된 대상이라면, 이것은 당신의 갈망의 정직함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다윗이 목말랐을 때 베들레헴의 물을 갈망했던 것처럼, 아 내 혼이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1) 그는 그분의 하나님을 갈망하였다. 당신과 내게 있어서도 실로 갈기를 바란다. 아 밤낮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의 혼이 허기를 갖는 은혜를 위하라! 독수리가 그 사냥감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위에 있는 성찬을 찾게 되어야 한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탁월함 가운데 우리 혼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높은 탑이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속량이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옷이다.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기쁨이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목상이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확신이다. 그분의 방문이 우리의 달콤한 기억들이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기쁨이다. 그분의 강함이 우리의 위로이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야망이다. 그분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분의 영원한 동행이 우리의 천국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마다, 그분의 백성이 독수리가 먹이감에 날아가고 비둘기가 창문에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갈 것이다 (이사야 40:8).

105 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누가복음 18:1-8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8).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구원자이다. 우리는 그분의 전가된 의의 공로와 그분의 죄 속량의 피의 효험과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능력으로 산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구원자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본이셨고 본이시다. 아무도 그분의 삶이 본 이상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상상하지 말자.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분이 우리가 우리 삶의 본보기로 추구해야 할 본 이시라는 것을 보는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있어서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2:21-24).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5) 라고 말씀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예로써 보이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위임함으로써, 어떻게 인내를 갖고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본으로써 보이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김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본으로써 보이신다.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시다.

다른 모든 가운데에서처럼, 우리 축복의 구원자는 기도에 있어서 뛰어나게 본보기가 되셨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것과 “끊임 없이 기도하라”고 촉구하실 때, 그분은 그분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실 뿐이다.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사람이셨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죄들로 결코 더럽혀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지체 가운데 전쟁을 하는 육체의 정욕이 없으셨다. 그분은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고, 죄인들로부터 구별되신다. 그분은 죄를 알지 않으셨고, 행하지 않으셨으며, 죄가 없으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온전하게 행보하셨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 가운데,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언제나 생각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행위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에 더하여 이 사람, 하나님-사람께서 (세상 위를 행보하셨던 동안 조차도) 하나님으로서 모든 전능을 그분의 소유 가운데 갖고 계셨다는 사실에, 그분이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뛰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난 본 이시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도

누가는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소개하면서, 공과, 비유의 의미가 바로 이것임을 말한다: —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 옛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다. “그는 문에 열쇠를 꽂아둔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보아야 할 첫 번째 사항은 기도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이다. —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의 주제는 비록 그것이 치욕으로 얼굴을 붉게 만들지만 언제나 내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나는 내가 그것에 대하여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기도는 믿는 마음의 생명 호흡이다. J. C. Ryle 은 그가 다음과 같이 썼을 때 그대로 옳다. “여기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 있다. 여기서 그것은 융성 한다. 여기서 그것은 소멸한다. 기도는 회개의 첫 번째 증거들 중 하나이다 (사도행전 9:11). 기도의 무시는 타락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다 (마태복음 26:40-41).”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41; 마가복음 14:38).

이 비유 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심으로 기도에 관한 문제를 가르치신다. 그것은 다만 악한 재판관으로부터 그녀가 필요한 것을 얻어 낼 때까지,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악한 재판관으로부터 판결을 얻어냈던 한 가난하고 궁핍한 과부의 이야기이다. 그녀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받아야 했다.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집요하게 끈덕진 강요로 그녀가 필요했던 것을 얻었다. 그 재판관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녀가 정당성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였다.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6-8 절에서 이것의 의미를 말씀하신다. —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분은,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모든 필요, 그들의 혼의 모든 갈망을 만족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밤낮으로 그분께 외치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을 그들의 원한을 신속하게 풀어주실 것이다.

이 과부의 계속되고, 끈덕진 외침이 그녀의 적에 대한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 무심한 재판관을 감동시켰다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 하나님의 외침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 대한 우리의 원한 풀어주기 위하여, 옳은 일만 행하셔야 하는 온 땅의 재판관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감동케 할 것이다!

언제나 기도하라?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말씀을 아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써 놓은 기도의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면서, 언제나 하듯이 그들의 마술 기도 염주를 문지르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헛되게 상상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은 수도원 같은 은둔적인 종교 뒤에 있는 전적인 관념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우리 주께서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종교적 어리석음, 독선, 또 우상은 기도가 아니다.

우리 주의 여기서의 말씀인, “항상 기도하고”는 단순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마음의 갈망을 그분께 가져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교훈을 다른 곳에서 주신다 (테살로니가전서 5:17; 골로새서 4:2; 히브리서 4:16).

우리는 “계속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누가복음 18 장에 있는 우리 주의 교훈의 의미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시간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 안에서 살 것과 하나님과 함께 기도와 교제의 태도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신다. 다시, 나는 우리가 기도의 행위를 무시하거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실패하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좀더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도록 하자.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긍휼과 은혜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우리 혼에 대하여 언제나 깨어 있고 기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깨어 있도록 하자. 깨어 있고, 잠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조심하여야 하는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2). 기도와 믿음에 깨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함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서 8:28). 우리는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 (빌립보서 4:4-6).

변성과 역경 가운데 기뻐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주를 신뢰하므로 기도로 충만하게 살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일게 하자. 높은 가치를 그리스도, 그분의 의, 그분의 풍성한 은혜, 그분의 피의 속량,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과 함께 있는 영생, 곧 이 생명 안에서 아무 것도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사 위에 두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일 때 어떤 것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의 실행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로 충만하여 살 것을 요구하신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기도의 실행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직 더욱 중요하게 기도로 충만하여 살라.

“낙망치 말라”

결코 믿음을 잃증 내지말자. 우리 하나님의 풍성 위에 살고, 은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보좌로 나오는 것에 절대로 싫증 내지말자. 지속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음식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달려 가는 것을 그 배고픈 과부가 지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 육신은 우리가 깨어 있고, 기도하고, 낙망치 않을 것을 우리 주께서 지속적으로 일깨우시는 우리 혼을 위하여 좋은 모든 것에 너무도 대립한다! 왜 이 충고가 그렇게 자주 반복되고 많은 방법으로 반복되는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충고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는 이 비유 안에서 만약 우리가 큰 갈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충분히 나쁜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다만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 야고보는 그런 기도는 부적절하게 기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야고보서 3:3).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우리의 정욕이 선하고 논리적인 갈망처럼 보일 때라도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뜻에 굽히게 하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지 않는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신음을 그분께 퍼붓고 그분의 뜻에 엮드린다. 당신이 아무 신음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당신이 울부짖는 신음을, 그분의 은혜로 당신 안에 생긴 신음을, 그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당신이 안식할 수 없게 될 신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물론 당신에게는 있을 것이다. 나도 역시 갖고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신음한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위로 받으려 신음하고, 하나님 우리 구원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그분 앞에서 믿음이 부족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에 대한 위임과 헌신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신음한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통의 끝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그리고 슬픔과 한숨짓고, 투쟁과 유혹, 고통과 고통을 야기하는 것, 비탄과 비탄을 야기하는 것들의 끝을 위하여 신음하는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 주는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를 그치지 말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코 그만두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기를 멈추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 (빌립보서 3:7-14; 히브리서 12:14). 그분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갈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라도 충만함과 만족을 입증하실 것이다. 우리 주의 약속,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이끌어 낸 약속은 단지 이것이다. — 불의한 재판관이 그 무기력한 과부의 원수의 원한을 갚았던 것처럼,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곧 우리 대적에 대하여 우리 원한을 갚으실 것이다 (로마서 16:20; 계시록 22:4-7). 약속된 때,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신 분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영광을 그분께 주셨다. 그리고 약속된 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자 (히브리서 10:35-39; 하박국 2:3).

택정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비유에 대한 우리 주의 설명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사항은 이 세상 가운데 택정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지속적인 보살핌의 대상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그분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은 그분 자신의 특별하고, 특정한 백성, 그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자들이다. 우리는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과 기뻐하심으로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구원 안으로, 그 영의 성화와 진리를 믿음을 통하여 선택 받았다. 그분은 그들의 대적에 대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 앞에서 그들을 정당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과 관련한 모든 잘못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공의롭게 하시며, 그들을 하늘 왕국과 영광 안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이고 엄격한 공의로써,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과 중재의 공로와 효험을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한 개의 가방, 한 권의 책, 한 개의 병

이 가련한 과부처럼, 그들은 밤낮으로 그분께 울부짖는다. 그분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분의 병 안에 우리 눈물을 담으신다. 한 마디로 그분은 우리를 관심하시며 모든 때,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보살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많은 시험과 이 세상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위로하려 크게 관심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전도자들에게 그분의 백성의 위로를 그들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삼을 것을 명령하신다. 그분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고 말씀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술된 세 가지 사항, 모든 믿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될 사항들이 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주머니를 만드셨다. 욥은,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욥기 14:17)고 말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은 무게가 나가는 주머니에 놓여지고, 함께 묶어서 봉인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하신 것이다. 우리 죄들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께 전가된 우리 죄를 대신한 그분 한 분의 희생으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없애셨다. 그 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바다 속에 장사되었고, 없어졌으며, 결코 다시 끌어 올려지지 않게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죄로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대항하는 우리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죄 때문에 덜 은혜롭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이 용서이다!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8).

주께서 또한 우리 이름을 위한 책을 쓰셨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새겨 넣으셨다. 그 책 안에 하나님께서 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택 받은 하늘의 상속자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따르는 모든 것도 기록하셨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16; 빌립보서 4:3; 계시록 13:8; 17:8).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은혜와 예정하심과 택정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책이다. 우리 이름이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구원이 절대적인 확실성의 문제이며, 모든 것이 우리의 예정된 마지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안배로 우리 선을 위하여 협력하며, 그것은 그리스도께 온전한 위로이다 (로마서 8:28-30). 우리 주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20)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을 위하여 좋다.

더욱이, 주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을 위하여 병을 갖고 계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하나님이 나를 도우심 인줄 아나이다.” (시편 56:8-9). 고대 이집트 장례식에서 장례식 참석자들이 그들의 눈물을 닦으려 작은 천이나 스펀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관습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작은 병, 눈물 병에 짜 넣었고, 죽은 자와 함께 무덤 속에 두었으며, 죽은 자를 위하여 장례식 참석자들이 가졌던 관심을 상징한다. 그렇다 해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 전능한 구원자이고 우리 거룩한 위로자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살피신다. 우리 모든 고통 가운데 그분은 고통 받으신다. 우리는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어떤 것이 이 세상에서 죄와 슬픔과 죽음을 더 위로할 수 있겠는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주머니 안에 넣고 그것들을 묻어 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셨고,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책 안에 있는 우리 이름, 그분의 온화로우심을 보이기 위하여 병 안에 있는 우리 눈물을 묻으시고 우리를 살피신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택정한 자를 위한 우리 아버지의 관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책 안에 계시된 가장 달콤하고, 가장 복되며, 가장 혼을 격려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요한복음 15:16; 에베소서 1:3-6; 데살로니가후서 2:13-14). 택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며, 그로써,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을 죄와 율법의 저주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 의해, 그와 함께 구원 하려는 주권적인 예정하심 가운데 명하셨다.

택정은 그리스도 우리 보증이고 모든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의 근원에 의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정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법궤 앞에서 춤을 주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시편 65:4). 택정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그침 없는 찬양과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택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그분 자신의 선하신 기쁨으로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선택 받을 수 없었을 것인데, 우리가 절대로 그분의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아르메니아 주의자, 행위 주창자, 의지 경배자들이 울타리를 치고, 과장된 소리를 하고, 헛소리를 치게 하도록 하자. 우리는 택정하심의 사랑을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하셨던 그 축복—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원한 택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는 알고 기뻐 노래
한다...

“내가 당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네,
왜냐하면, 주여,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여전히 당신을 거절할 것이니,
당신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음이라:
당신께서, 나를 더럽힌 죄로부터,
나를 씻으시고 해방하셨고,
또 이 종말까지 나를 명하셨으니,
그로써 내가 당신께 살아야 함이라.

나를 부르신 것은 주권적인 긍휼이었네,
또 내 열린 마음을 가르치셨네,
세상은 다른 것으로 나를 현혹하였으니,
하늘 영광에 눈멀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이 당신 앞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갈급함이라 —
이를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어떤 택정의 표시나, 내가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하나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징표가 있는가? 정말로, 있다! 이 표시는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택정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그분의 형
상을 닮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로마서 8:29-39). 바울
이 데살로니가 인들의 역사하는 “믿음”을 보고, 인내의 “소망”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보며, 수고하는 “사랑”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의 “하나님의 택정 하심”을 알았다 (데살로니가전서 1:3, 4).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 택정의 이 표시를 주신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밤낮으로 그분께 부르짖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으실 것이다. 그분은 “비록 그분이 그것들을 오래 참으실 것이지만” (누가복음 18:7),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의 원한을 갚으신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적들과 반대자들과 박해자들을 가리킬 것이다. 그들은 진노의 그릇이며, 멸망하기에 합당하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들을 향하여 많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의 사악함을 그분의 백성의 고난들이 성취되고 이 부도덕함의 부정이 충만 히 될 때까지 참으신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이, “비록 그가 그것들을 오래 참으시겠지만” 택정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대부분 합당하다.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가 그들 사이에서 모이기까지 경건하지 않은 자의 세상 위에 복수를 행하시는 것을 지체하신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고 하신다 (8 절; 베드로후서 3:9, 15).

엄숙한 질문

이 단락에서 우리가 보는 세 번째 사항은 참 믿음이 마지막 날에 희귀하고 드문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것을 8 절에서 매우 엄숙한 질문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대답은 분명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다. 노아와 룻의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그럴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 단 여덟 혼만이 방주에 들어갔다. 룻의 시대에 오직 셋 만이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 받았다. 남은 모두가 멸망하였다. 세상의 종말에도 그럴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요한복음 9:35).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에 대한 그분의 대가 없는 걱정하심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구원과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임하며 당신은 생명을 결코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3:36; 8:24).

106 장. 독선주의—누가복음 18:9-14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9-14).

독선주의는 우리 앞에 있는 비유의 주제이다. 나는 더 메스껍게 불쾌하고, 혹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빠지는 주제를 생각할 수 없다. 누가는 우리에게 9 절에서 그 비유에 감화 받은 소개를 제시한다. —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주께서 여기서 고발하는 것은 독선주의이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의 계획은 독선주의의 어리석고 위험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모든 독선적인 자

모든 인간은 천연적으로 독선적이다. 그것은 아담의 모든 자손의 가족 질병이다. 사회의 높은 자들에서 낮은 자들까지, 우리는 모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들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 은혜에 천거할 어떤 것이 있다고 비밀스럽게 우쭐댄다. 현자는,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잠언 20:6).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증언을 잇는다. —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야고보서 3:2). —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 7:20). —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욥기 15:14). — “다 죄 아래 있다 하였느니라.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9-10).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로부터, 사람은 독선적이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가졌을 때, 사람은 그 안에서 영화롭지도 않고 그것을 품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모든 의를 잃어버린 후, 사람은 의로운 척 하였다! 사람의 타락 후 즉시, 아담은 자신을 무화과 잎으로 된 앞치마로 자신을 감쌌고, 그에게 여자를 주셨고, 그 여인이 그에게 과실을 주게 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문제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아담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과 함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 한다. 독선은 우리와 함께 태어난다. 그리고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정욕과 거짓말과 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인을 통제하는 한편으로, 우리의 독선은 우리 죄를 고백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죄 있는 죄인들처럼 공황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수백 만의 설교가 독선주의에 대항하여 전해졌으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막는 첫 번째 죄로 남아 있다.

한 나이든 전도자가 말했다. “나는 독선주의를 정죄하지 않고 설교를 했던 적이 거의 없지만, 그것을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자랑하며, 하늘로 가는 길이 그들의 행위와 공로로 포장되어 있다는 잘 못을 범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비유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의 소망의 기초와 그들의 구원의 기초가 그리스도 뿐이라고 인정하는 많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오직 절반의 구원자로 만든다. 그분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할 만큼 절대 용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지옥 그 자체 만큼이나 검고 혐오스럽고 부패하다고 들을 때 대단히 마음 상한다. 왜 그런가? 당신이 옳다고 당신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당신의 그 혼을 위하여 탄원 하건대, 정직하라. 당신은, “나는 내가 그래야 하는 것만큼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몇몇 사람들처럼 나쁘지 않다. 나는 교회에게 정기적으로 간다. 나는 성경을 읽는다. 나는 나의 기도를 한다. 나는 술 취하지 않고, 정직하며,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한다. — 당신은 독선적이지 않은가?

한 가지 치료

독선에 대한 한 가지 유일한 참된 치료가 있고, 그것은 자기인식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인들이며, 의가 없으며, 불의로 충만하다. 당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다.” (마태복음 15:19).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마음도 같다.

천연적으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모두 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아무런 능력이 없다. 사람들의 눈에, 혹은 당신 자신의 눈에 당신이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당신이 그리스도의 의를 갖지 않으면 아무런 의를 갖고 있지 않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를 위하여 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갈라디아서 2:21).

일단 우리 이해의 눈이 하나님의 영으로 열리게 하면, 모든 독선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선에 대하여 더이상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보게 하면, 자만심은 죽게 될 것이다. 아, 만약 우리가 삼 중의 거룩한 여호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사야와 함께 외치게 될 것이다. “내게 화로다!” (이사야 6:5). 우리 손을 우리 입에 얹고, 문둥병자와 함께 외칠 것이다. “불결하도다, 불결하도다!”

경배의 집에 가는 자는 모두 이 비유 안에 제시되어 있다. 당신은 독선적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나오든지, 아니면 스스로 낮추는 세리처럼 나온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공과를 독선적인 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깨우고, 수고하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위로하며, 믿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육하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란다.

외적으로 동일함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의한 한 가지 점이 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한 가지 사항이 있다. 그들은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그들의 얼굴을 향하였다. 외적으로, 그들 모두 동일한 경로를 걸어갔다. 그들은 동일한 집에 갔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그들의 외적 종교적 행위가 어떻든지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 비유 안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처음 사람들, 가인과 아벨을 생각나게 한다. 그들 사이에는 강력한 격차가 있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받으셨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셨다.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가인은 교만을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가 의롭다는 것을 스스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였다. 아벨은 죄 때문에 치욕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졌다. 그가 주 그의 의로서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열납 하였다. 당신은 누구인가, 교만하고 독선적인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부서지고 자신을 낮추는 세리인가?

Robert Hawker 가 우리 주의 비유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우리 주의 시대 가운데 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 있는 인물들이다. 모든 사람은 전체로든 혹은 부분적으로든 하나님께 열납 되기를 구하는 바리새인이며, 그 자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선행과 기도와 성찬과 구제 등으로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는 자이다.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자신의 부족을 포장하기보다 더 이상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리스도께 의지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비유의 의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가 태어났던 아담의 본성, 그리고 원천적이고 실질적인 범죄 모두로 인하여, 그가 포함된 정죄를 보도록 인도되었던 자인 세리라고 불려질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 그 자신을 값없는 용서를 인정하고, 한편 그가 슬픔과 회개 가운데 그것을 구한다. 칭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자기 정죄와 독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구하라.”

그들의 성격

비록 그들이 외적으로는 동일했지만, 이 단락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 네 가지 큰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하신다. 그분은 그 비유를 이 두 사람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음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 — “하나님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우리 주의 땅에서의 사역의 시간 동안 유대 나라의 생각 속에 더 충격을 주는 대조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바리새인은 도덕과 의의 전형을 상징했다. 그리고 세리는 매춘부나 술주정뱅이보다 더 혐오스럽게 바라보게 되었다. 세리는 죄와 타락의 깊이를 상징했다.

이 사람들 중 하나가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중 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장 오래된 종족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에 대하여 철저하게 정통적이었다. 그들은 성경의 감동을 믿었다. 그들은 메시아를 믿었다. 그들은 택정과 예정과 한정된 속량을 믿었다. 그들은 결코 유대인 말고는 누구든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이 된다가나, 속량이 이스라엘 나라 말고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절대 꿈꾸지 않았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 그들은 심지어 사악한 자의 장래 심판과 의인의 영원한 기쁨을 믿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 준수와 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였다. 그들은 하루에 세 차례 기도하였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였다. 그들은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다. 그들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였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의 십일조를 드렸다. 그들은 엄격하게 율법의 의식을 지켰다. 그들은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정확하였다. 그들은 교회 예배를 빠지거나,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오래 기도를 하였고, 따라서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주께서 그들이 “경문을 넓게 하였다”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3:5).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이 그들의 긴 관복에 양피지 쪼가리를 꿰맸고, 그것이 그들에게 써준 성경 본문이 있는 것이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오늘날 살고 있었다면, 그들의 옷 주머니는 넓은 천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꿰매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큰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예수를 사랑하면 경적을 울리세요!”라는 말이 있는 범퍼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녔을 것이며, 공원 벤치나 육교에 “나는 예수를 사랑해요.”라는 것을 써놓기도 하고, 낙태나 포르노에 대항하여 시위하러 길거리를 행진하고, 모든 공공 건물에 십계명을 걸어 놓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며, 모두가 그것을 알았다. 그들의 종교적 실행들 모두는 사람들의 갈채를 얻도록 계획되었다.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종교적 외적 의무를 지킴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거나 지킬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 행위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채무자로 만들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경멸한다. 그들은,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사야 65:5).

이는 참 믿는 자와 훨씬 다르다.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은 그들이, 그들 스스로 안에, 가련하고, 비참하며, 죄가 있음을 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3:3).

비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보다 더 불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공민에게서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강제로 징수하였고 그래서 그들 자신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부를 축적하려 하였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수치스럽고 경멸스럽게 바라보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더 수치스런 고소를 할 수 없다.

그들의 행위

이 두 가지 경배자들의 행위에 있어서도 역시 차이가 있었다. 교만한 바리새인을 보라. —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은 그가 성소에 갈 수 있는 한 가까이 올라갔고 어떤 눈에 띄는 곳에 서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는 확고하고 형식적인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떨어져서 서 있었고, 그가 더럽혀지지 않으려 하였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되지 않으려 하였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진 것처럼, 아주 뻔뻔하고 자신 있게 서 있었다. 그는 홀로 서서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는 전부 그 자신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의 의를 자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는 홀로, 그리스도 중보자에 대한 존경도 믿음도 없이 서 있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말하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 안에서 인간성에 대해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 그는 그의 창조주 앞에서 그의 머리를 숙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그 마음에는 더 없었다.

이제, 세리를 보자. —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세리는, 그 이름이 거룩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회당 바깥 멀리 서 있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태와 상황에 대하여 그가 가졌던 느낌의 간증이었다. 그는 무가치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으며,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에 합당하였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존경심의 표현이었다.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 보려 하지도 않았다.

J.C. Ryle 은 말했다. “그는 자신의 죄들에 대한 기억을 너무도 비통하게 느꼈으며, 그 죄들에 대한 짐은 너무도 참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던 아이처럼, 그는 그의 전능한 창조주를 감히 정면으로 바라 볼 수 없었다.”

그의 죄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그를 너무도 무겁게 누르고 있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었다. 죄책감이 그를 치욕으로 붉게 물들었다. 비통함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서지고 회개 가운데 엎드리게 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당연한 진노의 두려움으로 휩싸였다. 이 가련한 죄인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었다.

슬픔과 자기 비하와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세리는 “그의 가슴을 찼다.” 그가 자신의 느낌을 억제 할 수 없는 마음의 죄로 충만함으로 압도되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죄를 기억하였다. 그는 그가 받았을 공훈을, 그리고 그것들을 그가 무시한 것을 회상하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없는 짐처럼 그의 마음 위를 짓누르며 다가왔다. 그는 그의 죄의 원천인 그의 마음을 가리키면서 그의 가슴을 찼다. 그는 자신의 죄를 혐오하는 것을 보이면서 그의 가슴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졌다.

그들의 기도

셋째, 우리 주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두드러진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먼저 바리새인의 과시적인 기도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감히 기도라고 부를 수 없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권한을 그의 편 위에 인정하는 한편, 이 교만한 위선자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잘못 되었다. —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누락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필요에 대한 단서가 없다. 그는 그가 아닌 것을 만족하여 되뇌고 그의 어떠한 교만스럽게 자랑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 자신을 높이기 위함 뿐이다.

교만스럽게도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는 실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다. 그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고, 천연적으로 죄인이었으며,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심중에 죄인이었다. 바리새인들이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특정한 죄를 계속하고 부인한다. 그들은 종교적 기만 하에 과부의 집을 파멸하는, 강요의 죄가 있었다.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로서 우리 주에 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해 적절하게 상징되므로, 불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간통자들이다. 우리 주께서 그들을 불륜의 세대라고 부르셨다.

그가 이 기도를 했음에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죄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의 하나님을 강도 짓하고 있었다. 그는 불의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최악의 간음은 자신을 숭배함으로써 영적 간음의 죄가 있었다.

그가 율법의 문자를 완전하게 복종하였지만, 그는 율법의 축어적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틀렸다. —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20).

바리새인은 스스로 그릇된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를 고소함으로써 악한 자의 자녀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그런 종교적 위선처럼 위험한 입장에 있는 혼은 없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죄로 충만함의 깊은 느낌을 갖지 않은 바리새인처럼 소망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다. 독전적인 종교 안에서 죽은 것보다 더 접근하기 어려운 마음은 없다.

자 세리의 기도를 보자. —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는 아주 짧지만, 가장 교훈적이다. 거기에는 개인적이고, 신실하며, 충만한 죄에 대한 고백이 있다. 이 세리는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그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가 이제까지 살았던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였다. 그의 말의 보다 문자적인 번역은, “하나님,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이다. 그는 그의 죄로 충만한 본성과 죄로 충만한 행위를 고백하였다.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말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를 벌하시기에 완전히 합당하실 것임을 고백한다.

이 사람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보좌에서 긍휼을 구하기 합당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신 분이었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 그는 뜻하신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특권을 가진 분인 하나님께 탄원한다. 그는 개혁의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다만 긍휼을 탄원하였다. 그는 드릴 것을 아무 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다만 긍휼을 구하였다.

이 세리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긍휼을 구하였다. 여기 번역되어 있는 “불쌍히 여깁소서”라는 말은 신약에서 유일한 또 다른 곳에서 한 번 히브리서 2:17 에서 발견된다. 거기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비하고”라는 말은 기분이 좋은 혹은 화목하는 이라는 뜻이다.

세리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상징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희생을 통한 그분의 긍휼을 그에게 보이실 것을 기도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만 긍휼을 보이실 수 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만족된 지분이 될 때라야만 죄를 용서하신다. 이 죄인은 그분의 공의와 양립하는 방법 안에서 죄를 용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보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함을 고백하였다. 여기에 죄인의 탄원이 있다. —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시편 25:11).

그들의 종말

넷째, 나는 당신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들의 종말이 달랐음을 보기 원한다.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4 절). 교만한 바리새인은 비록 그가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나, 하나님께 거절 당하였다. 가련한 세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의의 대가 없는 은사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양심에 뿌려져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양심 속에서 의롭게 하였다. 그는 괴롭고, 죄책감의 양심으로 성전에 올라왔다. 그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화목하므로 평강의 양심으로 집에 갔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독선 안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모든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임재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지게 될 것이다.

담대한 예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주께서 다른 어떤 범죄보다 더 엄하게 꾸짖으시는 것이 독선이다. 나는 심판의 날에 독선의 죄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보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흠치고, 간음하고, 살인한 죄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 독선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더 크게 엄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이 비유를 그들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모든 자, 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 것이라고 헛되게 상상하는 모든 자는 독선적이라고 선포하신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의롭게 한다고 무지하게도 상상한다 (누가복음 16:15).

만약 이사야 65:1-7 을 읽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독선에 대하여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스스로를 믿는 모든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 장에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함에 있어서 매우 담대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우상숭배와 미신과 의지 경배에 넘겨졌을 그 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확고한 확신과 신성한 기름부음에 대한 담대함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나라의 독선을 드러낼 것을, 그들의 빼뿔어진 종교에 대한 환상과 그들 마음의 부패로 인하여 백성이었던 사람이 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요구하고 있다. —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사야 65:5). 그리고 그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한 자에 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덧붙인다. —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람들이 완전히 율법에 항복하였을 날에, 그는 복음을 전하였다. 그의 나라가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뿐이었다고 추정할 때, 그는 담대한 그들을 위선자들과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하나님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택정의 은혜를 확증하였고 유대 나라에 대한 그분의 배제를 천명하셨다. 아마도 그것은 메시아의 진노를 일으켰던 그의 담대함이었을 것이며, 그것이 이사야가 왕의 명령으로 조각 조각 잘리면서 잔혹한 죽음에 처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스라엘의 죄는 공개적이고 부인될 수 없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였지만, 첫째와 둘째 계명을 완전히 범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와 경배에 다른 신들에 대한 경배를 섞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배 가운데 우상과 형상과 상징물들을 사용하였다.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 조차 하나님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출애굽기 20:3-4). 그들은 주를 경배하였으며, 혹은 적어도 벽돌로 장식된 제단, 그들 스스로 만든 제단 위에서 그들 자신의 선택의 자리에서 그런 척 하였다. 다시,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범하는 가운데 그렇게 행했다 (출애굽기 20:24-26). 그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과 통하는 척 하면서 심지어 강림술을 실행하였다. 그들의 경배 속에 마술을 병합하면서 그들은 마술과 마법을 행하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끔찍한 독선주의의 죄가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독선을 절정으로 가져감으로써 그들이 길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접촉한다면 그들이 오염되고 더럽혀질 것이라고 헛되고 교만하게 상상하였다. 따라서, 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 사람의 코에 연기를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게 된다고 선포하셨다.

실로, 이사야의 담대한 예언은 그의 시대에서처럼 우리 시대에 적용될 만 하다.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고 말하는 그 독선을 정직하게 드러내게 해야 하는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매주 일요일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코에 연기” 같은 날을 보낸다.

우리는 독선주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의를 얻는 생각이 그 마음 속에 있는데, 우리의 어 떠 함이거나, 우리가 관련이 있는 자이거나,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거나, 우리가 느끼는 것 때문이다. 독선은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이다 (누가복음 18:9).

독선은 거짓의 피난처이며, 그로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며, 다리를 뻗기에 너무 짧은 침대이고, 자신을 감싸기에 너무 좁은 이불이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걸리며, 불쾌하고, 메스꺼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악함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육신에 가장 매력적인 것이고, 그로써 우리가 대부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속게 되는 것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한 독선의 덫에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일곱 가지 성명

여기 독선에 대한 일곱 가지 분명한 성명이 있다. 그 중 몇 가지는 쓰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것은 많은 사람에게 매우 마음이 상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되어야 한다. 나는 내 세대 안에서 이사야가 그의 세대에 그랬던 것처럼 신실하고, 사탄이 당신의 혼을 파괴할 독선을 담대하게 드러낸다.

1. 독선은 종교적 토양에서 가장 잘 성장하고 번성한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벽 안에서 발견되는 적이다. 그것은 신성모독의 어두운 골목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다. 독선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 가운데, 그리고 종교적 의무를 실행하는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이사야 1:10-15; 누가복음 16:15). 독선은 세상의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만 발견되는 악이 아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끊임 없이 투쟁하는 것과 함께 있는 악이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끌어 내릴 수 있는 우리 혼 위에 처진 커다란 거미줄 같은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우리 행위가 독선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법으로 낮추어 표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목을 우리에게 보이고 끌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혐오스럽게 독선적이다 (마태복음 6:1-6). 독선은 종교적 토양 안에서 성장하고 번창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교회 밖에서 찾게 될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 독선은 또한 세상의 기본적인 것과 비속한 것 가운데 일반적이다. 이 죄는 당신이 그것을 가장 적게 기대할 곳에 넘쳐난다. 어떤 것도 도덕과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강직함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혐오스럽게 하는 말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놀라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선한 악과 악한 선이라 부를 때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한다.
3. 독선은 언제나 사람들을 모질고, 힘들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만든다 (누가복음 18:9).
4. 독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만 머리 숙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전통과 관습과 종교적 규칙과 법과 종파적 권위와 교리와 그리고 고백과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5:7-9).
5. 독선은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혼의 괴로움 안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한다 (시편 51:1-5; 요한일서 1:9). 독선은 약한 표현으로 죄에 대하여 말하며 그것에 대하여 변명한다. 철저하고, 개인적인 부패를 독선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6. 독선은 그리스도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주 우리의 의” (예레미야 23:6; 고린도전서 1:30-31). 독선은 순종과 의와 그리스도의 죄속량의 희생을 효험 없게 만든다 (갈라디아서 2:20-21). 그러나 독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선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9:31-10:4).

7. 독선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로막는다. 당신의 죄는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막지 않지만, 당신의 의는 가로막을 것이다. 아무도 구원 받기에 나쁘지 않지만, 다수는 너무 선하다!

나의 고백과 나의 소망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18). 내 발의 혼에서부터 내 머리의 관까지, 내게는 아무런 선함이 없고, 오로지 부상과 상처만 있고, 현대를 끊게 한다 (이사야 64:6).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호와-치드키누이신 분이다. “주 우리의 의이다” (예레미야 23:6; 33:16; 고린도전서 1:30-31).

“이 손으로 행한 것은 아무 것도
이 죄 있는 혼을 구원할 수 없나니;
이 힘든 육신이 태어난 것은 아무 것도,
내 영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나니.

내가 느끼고 행한 것은 아무 것도,
내게 하나님과 평강을 줄 수 없나니;
내 모든 기도나 한숨이나 눈물도,
나의 끔찍한 짐을 가볍게 할 수 없나니.

당신의 역사 만이, 나의 구원자여,
이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 만이,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내게 그 안의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게 대한 사랑이, 아 하나님이며,
나의 것이 아니고, 아 주여, 당신께 대한,
나를 이 킁킁한 불안을 없앨 수 있고,
또 나의 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행위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니,
어떤 하찮은 피도 할 수 없을 것임이라;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하지 못하니,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노라.

당신의 은혜만이, 아 하나님이며,
내게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만이, 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고통스런 속박을 부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찬양하니,
하나님의 사랑 위에 안식하네;
그리고 단호한 입술과 마음으로
구원자를 나의 것이라 부르네.”

107 장. 어린 아이들과 하나님의 나라—누가복음 18:15-17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5-17).

성경의 이 짧은 단락은 우리 앞에 우리 주의 가장 중요한 공과 중 하나를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자인 우리에게 어린 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와야 한다.

하지만, 신약 안에서 아주 극소수의 단락들이 이 세 단락처럼 거짓 교훈을 가르치려 너무도 기대에 어긋나게 꼬여있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르치는데 이 구절들을 사용하는 기대에 어긋난 것들 중 두 가지를 언급해야겠다.

유아 침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톨릭 신자들과 로마 가톨릭 의식 실행을 계속하는 자들은 보통 이 구절들을 아기들 위에 물을 뿌리는 것의 방어로 가리키며, 그것은 보통 “유아 침례”로 언급된다.

만약 성경 안에서 “유아 물뿌림”에 대한 언급이나 사례를 찾기를 기대하는 어떤 곳이 있다면, 이 구절이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유아 침례”라고 부르는 이 실행은 전적으로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거나, 심지어 내포한 한마디 말도 성경 안에는 없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그것에 대한 단 하나의 예도 없다. 그것은 순전히 로마 가톨릭이 근원이다. 유아 물뿌림을 실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헛되게 소망되는 것은 약간의 물로 물을 뿌린 아기는 그로써 거듭났다거나, 적어도 하나님께 향하여 한 걸음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실행은 물론 전적으로 성경의 가장 분명한 선포, 구원과 침례와 관련한 모두에 완전히 모순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에 완전히 대립된다. 구원은 많은 적든지 간에 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온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성직자 흉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운행의 결과이다.

유아 물뿌림은 또한 침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정반대이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잠김이다 (로마서 6:3-6). 그것은 “믿는 자의 침례”라고 부르는데, 오직 믿는 자들만 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침례는 믿는 자의 공개적이고 상징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적인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다.

이 구절들은 또한 어린 아이들을 “예수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말하는 실행과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키려 많은 사람에게 이용된다. 나는 성경이 사람들이 부르는 “책임의 세대”라 부르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나,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면, 당신은 그것이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었음을 안다. 당신이 지옥에 갈 때까지 그것에 사로 잡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것은 구원이 아니라, 종교적 고백일 뿐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들이 기꺼이 된다.

해설

그것을 말했으므로, 비록 더 말해야 할 것이 있고, 담대히 말했고, 그런 어긋난 종교적 실행들에 대하여 종종 말했지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구절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하겠다. 그리고 그 구절들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당신에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 “어린 아기”라고 번역된 말은 태아, 어린 아기,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누가복음 1:41, 44; 2:12, 16; 18:15; 사도행전 7:19; 디모데후서 3:15; 베드로전서 2:2). 이 경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픈 성인들을 그분께 데려와서, 다음 부분의 말씀에서 보듯이, 그분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만지기만 하면 치료가 되었던 것처럼, 이 어린 아기를 구원자에게 데려왔다.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 그들은 이 아이들을 주께 데려와서 그가, 그의 습관적 행동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손을 댄으로써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려 하였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 제자들은 아픈 아이를 주께 대려온 자들을 꾸짖었다. 우리는 왜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는지 이유를 들은 것이 없다.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던 매우 좋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사실상, 그것은 주 예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그들을 어떤 식으로든 잔소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 만큼은 확실하다. — 그들은 아이들을 구원자에게서 침례를 받게 하고자 데려왔던 것이 아니다. John Gill 이 설명했다...

“제자들의 이 꾸짖음과 금지로부터, 마치 그것이 유아를 침례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혹은 침례자 요한이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의 실행이 절대 아니었던 것처럼 분명하였다. 그리고 소용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왔던 자들을 거의 금하고 꾸짖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그들을 침례 받도록 데려왔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전에 얻었던 그런 소용에 대하여 알았으므로,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으며, 그들을 금하였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 주 예수께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께 오도록 데려왔던 이 아이들을 부르셨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아라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기에 충분하다. 그들은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었고, 아마도 열두 살 보다 어렸겠지만, 신생아들은 아니었거나 젖먹이 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 주께 올 능력이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이를 먹었다.

그분이 아이들을 그분께 부르셨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려 그분의 팔을 뻗으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부드럽게 품으실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고, 그들을 그분의 무릎에 앉히시고, 그들을 보살피실 정도로 은혜롭고, 겸손하시고, 친절한 분이셨다. 그분은 너무나 은혜롭고, 부드럽고, 친절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그분께 다가가는 것이 완전히 편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 그것은 마치 우리 주께서, “이 아이들을 내게서 쫓아내지 말라. 그들이 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 아이들은 내가 나의 모든 자녀들이 그래야 할 것의 좋은 그림이다. 신뢰와 의지, 겸손과 해롭지 않고, 괴로움과 악의에서 자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허하고, 교만과 오만과 야망이 없고, 커짐에 갈망이 없는, 단지 아이들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받들지 않는 자는.” —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권위에 머리 숙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므로, 그의 왕이신 그리스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영접함이다. — “어린 아이와 같이” — 한 마디로, 우리 구원자
께서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정도로 예가 든 그 믿음을 제외하고 참
믿음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필
요하며, 중대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받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가지 공과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지나가지 말아야 하
는 네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우리는 주 예수께서 구원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선택 받은
죄인들의 삶 속에 오실 때,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순종을 구걸하러 오
시지 않는다. 그분은 선택 받은 죄인들의 마음 속으로 주권적이고
전능한 공홀 가운데 오신다. 그분은 사탄을 묶으시고, 그의 소유를
못쓰게 만드시며, 그를 내 쫓으시고, 그의 집의 소유를 취하신다.

둘째, 만약 우리가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왕이
신 그리스도께 데려가게 되어야 하며, 어린 아이처럼 그 나라 안으
로 데려가게 된다. 어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이니라.” (17 절)고 하신다. 그 말씀을 표시하라. 모든 나라에는 아
이들이 있으며, 우리 주의 나라에 아이들이 있다. John Newton 이
한번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아이들
이다.”고 하셨다. 나는 그 점을 논쟁하지 않을 것이다. 영아 때 죽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었던 모든 많은 아기들, 지금 영광의 길에서 때를 지어 다니고 있을 아기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큰 지혜와 선하심을 기뻐한다. 비록 세대를 이어 성인들이 반역과 불신 가운데 죽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수도 없는 많은 수의 어린 아기들은 하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며, 그분의 영광의 영원한 보좌 앞에서 그들의 큰 구속자이고 친구이신 분에 대한 높은 찬양을 영원히 부르고 있다. —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나는 유아기에 죽은 유아들(그들은 낙태로 살육 당한 아기, 이교도 제단 위에서 태워진 아기, 로마 가톨릭교인, 모하메드교인, 불교도들의 아기들을 포함한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주장함에 있어 망설이지 않겠다. 나는 유아기에 죽은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들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났음을 완전히 확신한다. 만일 즐긴다면,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게 두라. 내게 있어서 나는 이것이 기쁘다. 내가 하나님의 책 안에서 읽는 모든 것이 내게 그것에 대하여 확신시킨다. 어린 아이로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자는 구원 받았다.

수 년 전, 나는 길고, 슬픈 편지를 다른 주에 있는 나의 사랑스런 친구로부터 받았다. 그녀와 남편은 불과 2, 3 년 전, 인생의 꽤 늦은 때 결혼하였다. 그들은 아이를 갖고자 애를 써왔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우쭐함은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내 귀한 친구가 유산하게 되었다. 그들의 실망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인간이었을까요? 어떤 시점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살아 있는 사람일까요? 내 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가 천국에 있을까요?”라고 묻는 편지를 썼다. 당신은 회신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기는 그리스도의 보물 가운데 하나이며, 당신의 모태로부터 그분의 영원한 품과 그분의 영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고 하였을 때 나의 혼쾌함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 받을까? 그들이 어떻게 그 나라로 들어갈까? — 행위로? — 그들의 의지의 실행으로? 물론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전능한 역사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방법이다.

그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영접하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그 나라를 아무리 영접할 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영접하여야 한다. 분명히, 아이들은 출생이나 피로써 그 나라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로서도 아니고 육신의 의지라도 나지 않았음을 들었다. 모든 혈통의 특권이 이제 폐하여졌고, 어떤 아기도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의 부모가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나,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차단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구원 받는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유아들은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기쁨에 따라 다만 구원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그들을 택정과 구속과 거듭남에 의해서 그들을 그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주목하라.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오매.” 이 어린 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들을 그리스도께 데려왔다. 그 말은 “데려와서 보여졌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죄인들은,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한다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가게 되어야 하며,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데려와야 하고, 그리스도께 보여져야 하며, 그분의 혼의 수고의 보상으로 그분께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가 자시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사야 53:11).

셋째, 우리 주 예수께서 왕이시며 믿음으로 영접받아야 하는 나라는 그분의 나라이다.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그분의 종들은 기꺼이, 자발적인 노예들이다.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긴다. 그리스도의 섬김 가운데 행해진 모든 것은 그분께 대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자유하고 자발적으로 행해진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구원 받으려 한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에게 영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이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넷째,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최우선적인 것은 이것이다: — 이 왕과 왕국을 영접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보여 주겠다.

철저한 의존

어린 아이는 완전하고 철저하게 의존적이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수 있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좋고 분명한 그림이다. 구원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완전하고, 철저한 의존이다.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께만 의존하고 (고린도전서 1:30-31), 우리 주로서 그분께만 의존하며 (잠언 3:5-6), 우리 변호자이고 중보자로서 그분께만 의존함이다.

온건함

어린 아이는 겸손하고, 온건하며, 주체넘지 않다. 그는 그가 단지 아이일 뿐임을 안다. 다만 아이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임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믿음은 절대적인 주이고 왕이신 그리스도께 온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므로, 믿음은 모든 것을 위하여 그분께 아무 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신뢰하지, 우리의 체험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중재를 신뢰하지, 우리의 도덕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지, 우리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성화를 신뢰하지, 우리의 거룩함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신뢰하지, 우리의 경건함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을 신뢰하지, 우리의 섬김을 신뢰하지 않는다.

다정한 사랑

어린 아이는 부드럽고 사랑스럽다. 아이가 더 어릴 수록, 이것은 더욱 더 사실이다. 어린 아이는 사랑스런 아버지의 비 승인이나 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랑스런 어머니의 화난 얼굴로 부서진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사랑한다. 아이는 부모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 더 아무 것도 갈망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인정과 기쁨을 즐거워 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이나, 심지어 아주 헌신한 종교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방법이라고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방법이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5:14-15; 요한일서 4:19).

내 딸, Faith가 네댓 살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그리스도께 이 사랑으로 감동한 섬김을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하였다. 나는 설교하려 떠나 있었다. 내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내가 도착할 때를 집 사람에게 말하였다. 집으로 운전하여 왔을 때, 나는 예쁜 꼬마 소녀가 현관 계단에 앉아서 아빠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내 차에서 내가 나오기도 전에 그 아이가 내게 인사하려 달려 왔다. 그 아이가 달려 왔을 때, 손을 뒤에서 앞으로 뻗었다. 그 아이는 아빠를 위하여 민들레 한 다발을 꺾었다. 그 아이가 달려 왔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그 풀에서 위의 솜털을 날려 버렸다. Faith가 내게 그것을 주었을 때, 꽃이 단지 보기 싫은 줄기뿐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나도 역시 울기 시작했다, —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보았던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꽃다발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아이는 내게 대한 그 아이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 민들레를 꺾었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뿐이었다. 그래서 그 보기 싫은 민들레를,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내게는 세상의 어떤 꽃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존귀하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불쌍히 애쓰는 것을 받으시는 방법이다 (베드로전서 2:5).

성실함

어린 아이는 열린 책이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간사함이 없다. 속임수와 위선과 과시는 어린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들이다. 어린 아이는 그렇게 살려 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어린 아이는 자기 말을 인상적인 문장으로 불타게 하려 하지 않으며, 그가 아는 것을 과시하려 하지도 않는다. 어린 아이는 단순히 그가 원하는 것을 주 하나님께 말하며, 알고 싶은 것을 말하고, 감사를 드린다.

잘 배움

아이들은 잘 배운다. 그들은 단지 잘 배우기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배우기를 갈망한다. 어린 아이들은 논쟁이나 근거, 과학이나 논리로 어떤 것을 확신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그들이 그렇게 빨리 배우는 이유이다. 그들은 결코 분명한 것을 두고 논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려 하지 않는다.

우리 손자인 Will 이 대여섯 살 때, 그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한 상점에서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다. Doug 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Doug 가 어떤 문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Will 이 "하나님께서 저 문을 만드셨다."고 말했다. Doug 가 웃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들에 주신 재능으로 사람이 그 문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자기 아빠가 자세한 설명을 끝냈을 때, Will 이 대답하였다. "그게 내가 한 말이야. 하나님께서 저 문을 만드셨어."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가르쳤던 것을 배웠다.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부러워하지 않음

어린 아이는 상대적으로 부러움과 야망이 없다.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배운다. 친구 사이인 두 아이들은 심지어 다른 친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 집이 큰지 작은지, 부모가 어떤 차를 운전하는지, 부모가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혹은 그 가족의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피부색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는다.

용서

아이들에 대하여 관찰하는데 있어서 당신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들은 용서가 빠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가 용서 받은 것처럼 용서하며 그분께 나오기 위한 은혜를 주신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5-17).

108 장.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누가복음 18:18-27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누가복음 18:18-27)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안에서 세 번 기록되어 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가 그리스도께 왔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 사실 만으로도 그 중요성에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특별한 주목을 요구하는 공과들이 그 이야기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셨을 때, 그분은 그가 그분에 대한 그의 사랑을 세 번 고백하도록 하셨다 (요한복음 21 장). 주 하나님께서 그 같은 제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의 헌신을 부과하시려 했을 때, 그분은 세 번 반복되었던 이상을 그에게 보내셨다 (사도행전 10 장).

부자 관원

그의 혼에 대한 염려와 영생에 대하여 고민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 그는 부자였다. 그러나 그의 혼에 대하여 근심하였다. 그는 젊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관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 예수에 의해 가르침 받기 위하여 왔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주 예수께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다. 우리 주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 그분은 이 젊은 이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알고 있었던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젊은 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영생이 죄적 도덕성에 의해 얻어 질 수 있는, 말하자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분은 이 젊은 이에게 율법에 따라서 대답하셨다. 그분은 그에게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다. 젊은 부자 관원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었다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글을 읽는 어떤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젊은 관원과 같다.
—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당신은 매우 도덕적이다. —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당신은 사람들의 눈에 매우 존경 할만하다. —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그리고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당신은 죄인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믿는다. 당신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죄인의 유일한 소망임을 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은 사람, 그리고 영생의 상속자가 아님을 안다. —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외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오히려 영생에 필연적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

관원의 질문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이 질문은 사람들이 영원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전과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워 할 때 종종 묻는 질문이다. 우리는 그 질문을 여러 번 들었다. 유대인들,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이 연 이어서 구원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누가복음 3:10, 12, 14)라고 물었다.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37)라고 물었다. 빌립보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사도행전 16:30)라고 물었다.

이 질문 그 자체를 보면, 아주 고귀한 질문,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질문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그 질문을 했던 많은 사람이 믿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오순절 날에, 큰 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들은 후, 그들의 마음 속에 찢려서 외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다. 빌립보의 간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이 질문을 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그의 마음은 죄의 확신으로 부서지지 않았다. 그의 혼은 죄책감으로 겸손해지지 않았다. 그는 교만하고 독선적이었다. 그는 그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맞출 것이라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본질적으로, 그는 주 예수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의에 열심이었고 그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순종하지 않았다 (또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로마서 9:31-10:4). 바울이 기록했던 그 유대인들 같은 자들과 이 젊은 부자 관원 같은 자들,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교만하며, 아주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젊은 이에 대하여 칭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는 비열하고, 허랑방탕한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독실하였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공손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다. 만약 그가 결혼하였다면, 우리는 그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그의 가족을 위한 좋은 가장이었을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많은 부를 얻었다. 그는 좋은 이웃이고, 존경 받는 지역사회 지도자 였다.

많은 불신의 날 가운데, 그는 그 자진하여 그리스도께 왔다. 그는 치료 받아야 할 질병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 속수무책의 아이를 위하여 탄원하려 온 것도 아니며, 어떤 큰 기적을 보려고 온 것도 아니라, 다만 그의 죽지 않을 혼에 대한 염려에서 왔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였다. 마가는 우리에게 그가 그리스도께 달려왔다고 말한다. 그는 그의 교리에 있어서 정통하였다. 그는 높이 존경 받는 종교 지도자 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성경을 믿었다. 그는 영생의 실재를 믿었다. 그는 그의 종교적 실행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독실하였다. 그의 유년 시절부터 그는 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다. 그의 삶은 세심하고 도덕적이고 엄격하였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리스도를 경배하였다. 다시, 마가는 우리에게 그가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말한다. 니고데모처럼, 이 젊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인식했다.

그는 심지어 우리 주의 신성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 예수께서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강조하셨을 때, 이 젊은 관원은 그의 말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젊은 이는 두 가지 매우 비참한 특징을 보여 주었다. — 이 젊은 관원의 성격에 대한 두 가지 점은 우리에게 그가 타락했고, 파멸되었으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첫째, 그는 모든 영적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는 천연적인 느낌으로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처럼 무지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는 그 자신의 죄로 충만함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는 율법의 영적 본성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그는 율법은 오직 외적 순종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철저히 무지하였다 (에베소서 2:8-9).

그리고 둘째, 이 젊은 부자 관원은 끔찍하게 독선적이었다. 독선에 주의하라! 어떤 죄도 독선의 죄보다 더 치명적으로, 더 그럴싸하게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어떤 죄도 사람에게 더 공통된 것은 없다.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으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만약 사람이 사람의 공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

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9-20 절)

그가 율법의 외적 요구 내에서 율법을 깨닫고 있는 한, 그는 그것을 지켜왔다. 그는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빌립보서 3:6) —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21 절).

그러나 그는 전혀 그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율법은 모든 점에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율법은 모든 때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율법은 외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율법은 내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시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간 자신의 정죄와 유죄를 인간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결코 생명을 줄 수 없다. 율법은 요구하지만, 결코 은혜를 줄 수 없다 (로마서 3:20; 갈라디아서 2:16; 3:10).

“달려라,” “행하라,” 그리고 “일하라,” 율법이 명령한다,
그러나 발도 주지 않고 손도 안 준다.

하나님은 “속에 있는 지혜”를 요구하시나,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각 속에 율법의 계명을 범하며, 심지어 우리가 외적 행위 가운데 그 계명을 범하지 않을 때라도 요구하신다 (시편 51:6; 마태복음 5:21-28). 우리 자신과 관련한 눈땀 에서 구원 받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첫째로 필요한 것들 중 하나이다. 우리 깨달음의 눈은 성령에 의해 빛비춤을 받아야 한다 (에베소서 1:18).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대하여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바울과 함께, “율법은 신령하나,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로마서 7:14-18).

네가 오히려 부족하니

둘째, 주 예수께서 젊은 부자 관원에게 말했다. —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22 절). 만약 우리의 근대의 혼을 얻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젊은 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를 물 속에 넣고, 설교단에서 곧 말려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혼을 얻는 전도자”로서 그의 승진표에 넣을 다른 결정을 하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혼을 위하여 수고하셨다. 그분은 동정하셨고 정직하셨다. 따라서, 그분은 정확히 그 젊은 이가 부족하였던 것을 보여 주셨다. 그는 도덕성이나, 종교적 의무나, 정통성이나, 성실성이나, 아니면 열심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이 부족하였다. 그가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나? 만약 우리가 영생을 받을 것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젊은 이는 그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였고, 그의 부모를 공경하였고,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시험하셨다. 주 예수께서 그에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다 (22 절).

이 명령을 잠시 보도록 하자. 그것은 사중의 명령이다. 우리 주께서 이 젊은 이에게 그의 주인 그분의 권위에 항복할 것을 명령하신다. — “네게 이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주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그분을 신뢰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분은, “오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안의 믿음의 실행이다. —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히브리서 11:6). 마가는 이 말을 더한다: — “네 십자가를 지라.” (마가복음 10:21 *역주: 한글 번역에는 없음).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주께서 그 사람이 그분께 고백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 젊은 사람에게 그분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들이다: — 순종, 믿음, 고백, 복종

주께서 이 특정한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데 좋은 이유가 있으셨다. 그는 젊은 이의 마음을 조사하고 계셨다. 그분은 그의 반역된 점을 노출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이 젊은 이가 정확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로 결정하셨다. 이 사람의 돈은 그의 신이다. 그것이 그의 반역된 점이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의 반역된 점을 두고 만나신다. J. C. Ryle 의 이 단락에 대한 기록이 경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를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도록 지혜로워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자신과 우리 구원 사이에 그것이 위치해 있다면, 그것이 귀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것을 기꺼이 내주어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거나, 어떤 우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른 손을 자르고 오른쪽 눈을 빼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생명,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영생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나의 누수를 무시하면, 엄청난 배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하다.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하나의 죄가 집요하게 들러붙는 것으로 혼을 천국 밖에 가두어 두기 충분하다. 돈을 사랑함은 비밀스럽게 마음 속에서 조장되어 사람을 다른 도덕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방면에서 지옥의 구덩이로 데려가기에 충분하다.

우리 주의 명령은 이 젊은 이의 마음의 사악함을 드러내려 의도되었다. 그것은 자기 확신과 교만을 파괴하려 계획되었다. 그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의 불가능함을 보여주려는 우리 주의 계획이었다. 이 명령은 이 죄인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보여주려 계획되었다. 우리 주께서 그의 독선의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는 이 한가지 겨누어진 명령으로, 그의 교만의 어리석음을 드러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대속자가 필요한 것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젊은 부자 관원의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핍은 마음의 결핍이었다. Simon Magus 처럼, 그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았다.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그는 쓰디쓴 쓸개 속에 있었고 범죄에 묶여 있었다. 그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았다. 그의 영은 낮아지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않았다. 그는 주이신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역의 시점에 그를 만나셨고, 그는 머리 숙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그분께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께 그의 주로서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당신은 이 젊은 이 같은가? 그에게 하신 우리 구원자의 말씀이 당신에게 하고 계신가? —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당신은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만약 당신이 구원 받았다면, 당신의 마음은 부서졌을 것이다 (시편 51:17; 이사야 66:2).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부서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당신에게 또 당신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충만함 안에서 계시하시는 것이다 (스가랴 12:10).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부수지 않으시면,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구원받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전능하신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 새 마음은 당신 안에 피조 되어야 한다.

불가능한 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24-25 절).

이것은 모든 방면에서 확증된 우리가 보는 사실이다. 우리 자신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눈은 은혜와 부는 거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다. —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26).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생명의 길에서 발견되는 것이 거의 없음은 분명한 사실적인 문제이다. 왜 그런지 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점은, 부자들은 그들의 소유를 교만과 자기 의지와 자기 탐닉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점은, 부자는 거의 그들의 혼에 대하여 신실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전도자들에 의해서 빌붙어서 비위를 맞춘다. —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잠언 14:20). 부자에게 온전한 진리를 말해줄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비위를 맞추고, 허풍을 떨고, 맹목적으로 사랑을 받는다. 결과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숨이 막히는 동안 그들은 눈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상태에 눈이 멀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자와 그들의 소유를 질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가진 것을 가졌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들과 같았을 것이며, 외양간에 갇힌 소가 도축자를 위하여 살찌워지는 것과 같다. 갖고 싶어 했고, 갈망하였고, 탐을 냈고, 숭배하였던 돈은 무수한 혼을 천국 밖에 있게 한다! “부하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에 떨어지나니.”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을 배운 자는 행복하며, 그가 가진 것들로 실로 만족한다 (디모테전서 6:9; 잠언 30:8; 히브리서 13:5).

많은 사람이 우리 주의 말씀이 갖고 있는 것보다 의미가 덜하게 만들려 애쓴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정확히 의미가 보이는 대로 뜻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더도 덜도 아니다. —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누구인가?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들었을 때, 그들은 놀라서 외쳤다. —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우리 주께서 그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6-27 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 받았던 부자들의 많은 충격적인 경우들을 말씀하신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헤즈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읍, 그리고 다니엘은 모두 이 세상에서 아주 위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위하여 하신 것을,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고, 심지어 당신과 나를 위하여 하실 수 있다.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 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경우가 소망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당신의 경우가 소망 없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 살며, 이세상에서 우리 지위가 무엇인가, 부자인가 가난한가, 도덕적인가 부도덕한가, 위대한가 하찮은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눔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은혜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이 돌아가는 경첩이다 (요한복음 1:12-13; 로마서 9:15-16; 에베소서 2:8-9; 시편 65:4; 시편 110:3).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당신 위에 얹기만 한다면, 당신은 구원 받을 것이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나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지 말해 주겠다. 걱정하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모든 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모든 자, 전능하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나오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하게 구원 받게 될 것이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 만약 당신이 구원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 할 능력이 없으시고, 뜻하지 않으시고, 준비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구원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요한복음 5:40) 때문이다. 그것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 당신이 가져야 할 것인 그리스도 예수 주를 선택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0:42).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께 온다면, 당신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것”을 선택한다면, 만약 당신이 구원 받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분의 은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주시고 당신이 “그 좋은 부분”인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기
를 바란다. 만약 그분께서 하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영원히 소유하
게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에게서 “빼앗기지 아니할” 한 가지이다.

109 장. 약속, 예언, 그리고 문제—누가복음 18:28-34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뱀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8:28-34).

누가복음 18:18-27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 와서 그 무릎을 꿇고 그분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말하면서 그분께 경배드렸던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하여 읽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잘 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하셨다.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께서 요구하신 것을 보고, 대가를 계산하였으며, “아니요.”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 선택하였고 그것을 잃어 버렸다.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세 가지 것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소유하였고 그것들이 그를 소유하였다. 그것들은 사탄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서 떼어 놓았던 덫이다.

1.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 젊은 부자 관원은 독선적인 종교주의자였다. 그는 고린도전서 11 장에 있는 먹고 마시는 자들 같았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추정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2. 이 세상의 근심. — 그는 사람들 사이에 관원이었고, 큰 근심거리들이 많았다.
3. 부자들의 기만. — 젊은 관원은 타락하였고, 독선적인 종교인으로 큰 부를 축적하였다.

그가 구원에게서 떠나 갔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4-25 절). 제자들은 놀랐다. 그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고 말했다.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26; 마가복음 10:27).

주 예수께서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만약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을 따른다면, 그가 하늘에 보화를 갖게 될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것을 이해하고 구원자에게 말씀드렸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28 절). 그리고 마태는 그가, “그러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교만과 오만과 야심과 불신을 내포했던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갖게 될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를 바로 잡으려 하셨거나 그를 혼내주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나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실상은 만약 내가 베드로가 분명히 들었던 것을 듣는다면, 나는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사실상, 나는 동일한 질문을 하였다. 나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떤 보화인지 매우 관심이 있었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약속

여기 구원자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하신 대답이 있다. — “이르시 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29-30 절).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서 광범위하고, 복된 약속을 그분의 모든 충만과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하신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에 대하여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우리의 것인 은혜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인간의 상상의 영역을 넘어선 영존하는 축복인 영광의 왕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원자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가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특별히 지금 있는 생명을 가리킨다. 그것은 “금세”로서 언급된다.

우리는 결코 우리 주의 손에 손해를 입고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여러 배”를 약속하신다. 그것이 오늘날의 늑대들이 약속한 “건강, 부, 번영”같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번영과 더 큰 명예와 더 나은 건강과 더 평온한 삶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아니다!

우리 주의 약속은 분명하게 더 높은 의미를 갖고 있다. 약속의 “여러 배”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그분이 갖고 계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무한히 주신다. 그분은 여기서 그분을 위하여 포기해야 했을 것보다 더 형언할 수 없이 더 많은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금세에”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렇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잃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것은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모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버린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 모든 것인 분이다! 비싼 값의 이 진주를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지 않을 사람은 누구든지 바보다.

오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비싼 진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돈도 없고 대가도 없이 사면 (이사야 55:1), 그분 안에서 당신의 혼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주 우리 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으시기 때문에 당신은 속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화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혼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의 제자들은 그렇게 그것을 발견했고, 우리도 역시 발견할 것이다 (누가복음 22:35).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그분은 우리에게, “금세에” 그분과의 달콤한 교제 가운데 그런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이며, 당신은 결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돈이나, 번영이나, 친척이나, 친구들보다 당신에게 더 좋을 것이다. 우리의 흑암의 시간 가운데 그분은 그 마음이 그분께 머물러 있는 자들을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신다 (이사야 26:3). 그분은 당신에게 환란 가운데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그분으로 인하여 비난과 결점과 박해 가운데 기쁨을 취하실 것이다 (로마서 5:3; 고린도후서 12:10). 당신의 가장 큰 무게 가운데,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치욕에 고난당하는 것을 당신이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형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1:18; 사도행전 5:41; 로마서 8:28; 11:36; 데살로니가전서 5:25).

친구들은 종종 믿음 없음을 입증하였다. 큰 약속들이 종종 깨졌다. 부자들이 스스로를 날개로 만들고 멀리 날아가 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약속들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 그렇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32).

한 마디로, “금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간에, “금세”가 무엇을 가져다 주든지 간에, “금세”가 얼마나 어렵게 보이든지 간에, 주 하나님, 우리 위대하고 은혜로운 구원자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7-10).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모든 필요를 영원히 채워주시기 위한 무한하고, 매우 풍성하고, 넘치는 풍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시험 가운데 당신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며 (이사야 43:1-5), 유혹 가운데 당신을 붙들어 주기에 충분하며 (고린도전서 10:13), 그분의 모든 뜻을 당신이 행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25).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혜가 당신을 지키지 않을 곳에 당신을 절대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4).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종들을 붙들고, 지탱하며, 예비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수고를 사람들의 혼에 효험 있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후서 3:5)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타락한 성도들을 위해서 조차, 아니, 특별히 충분하다 (시편 37:23-25; 마가복음 16:7).

당신의 마지막 시간에, 당신이 요르단 강이 불어나는 곳에 와서 건너편으로 건너려 할 때, 당신은 여전히 “나의 은혜가 네게 넘치도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불바다 일 때, 당신은 이 세상을 뒤돌아 볼 것이며, 당신의 모든 삶의 체험을 뒤돌아 보게 될 것이며, “그가 다 잘 하였도다.” (마가복음 7:37)고 말할게 될 것이다. 그 큰 날에 주 예수께서,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없었나이다.”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22:35).

아, “금세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얼마나 불가해한가! — 그리고 이후에, 세상 가운데 “영생”이 올 것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풍성하고, 무한하고, 대가 없는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주 예수는 은혜로운 주이다. 그분의 섬김은 달콤하다. 아, 주를 신뢰하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아무 것도 부족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도 아니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없다! — “내세에 영생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예언

31-33 절에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 자신의 죽으심과 관련한 우리 구원자의 분명하고 자세한 예언이 우리 앞에 있다. 주 예수께서 오랜 영원전부터 갈보리에 가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그분 자신의 육신에 짊어지심으로 죽기 위하여 그분의 얼굴을 부딪돌처럼 놓으셨고, 그로써 우리 죄들을 없애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이 공의의 충만한 만족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 고난당하셨을 것이다. 이제, 그분은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 뱀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이유 때문이었다 (마태복음 1:21; 히브리서 10:5-14). 그분은 많은 자를 위하여 속량으로 그분의 생명을 주시려, 그분의 혼을 죄에 대한 제물로 삼고,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육신 안에 우리의 범죄를 품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음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그분의 생명의 피를 쏟으시려 함이었다.

우리 혼이 우리 구원자 앞에서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옷 입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큰 사랑으로 언제나 옷 입도록 하자 (로마서 5:6-8; 요한일서 3:16; 4:9-1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언제나 영화롭게 하자 (갈라디아서 6:14).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한 순간도 그분의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려던 그 역사를 마치실 때까지 영 안에서 제한되었다 (누가복음 12:50). 그런 사랑은 지식을 능가한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다 —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사랑 위에 안식할 수 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믿은 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한 죽음의 예상 안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침착함은 우리를 위한 본이다. 그분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쓴 잔을, 불평 없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말하며 마시도록 하자. 믿는 자들은 죽음과 무덤에 대하여 두려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 죽으셨다 (히브리서 2:15; 고린도전서 15:56-67).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문제

아주 슬프지만,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문제가 참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 —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34 절).

주 예수의 다가오는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종종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중요성이 그들에게 가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붙잡지 못했다. 우리는 이것을 측은함과 놀라움으로 혼합되어 이것을 읽는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어둠과 눈멀에 놀란다. 우리는 분명한 가르침 앞에서, 모세 율법의 분명한 예표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들, 진실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던 이들, 그분을 진실로 신뢰하였던 이들의 무지와 불신에 대하여 읽을 때, 우리는 경악한다. 이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었고, 우리 주의 사도들이었다!

우리 안에 계시된 그 사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며, 위선적인지!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큰 빛을 갖고 있다. —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갖고 있다. 우리는 더이상, 그들처럼 예표와 그림자와 의식과 세속적 규례의 희미한 빛 가운데 행보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충만한 빛 비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끔찍하게 무지하고, 두려워하며, 믿지 않는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우리에게 이 신실한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 약함과 두려움, 타락과 결점, 심지어 부인과 단념들에 대하여 많이 말하도록 하였는가?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음을 가르치려 하셨다...

-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곧 모두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 우리 구원은 우리 믿음의 강함이나 속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의 힘과 속성에 좌우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 구원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이다.
-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여전히 약하고, 죄로 충만하고, 결점이 있고, 무지한 사람들이다. —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 우리는 이 약한 상태에 있는 한,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2:6).

하지만, 우리가 29 절과 30 절에서 본 약속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은 약하고, 무지하고, 죄로 충만하고, 믿지 않는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것이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을 떠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110 장.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누가복음 18:35-43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 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대,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가복음 18:35-43).

우리는 여호수아 10 장에서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는 옆에 있던 그가 태양더러 하늘의 중앙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어떻게 명령하였는지 본다. 한 사람의 명령에 “태양이 머물렀다!” 우리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14)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여기 그보다 더 놀라운 어떤 것이 있다. 여기서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머물러 서 계신다. 그분은 공황을 구하는 한 궁핍한 죄인의 외침으로 그의 갈 길에서 죽은 듯 멈추셨다. 태양이 머물러 서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일이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태양을 머물러 서게 하셨던 하나님을 머무르게 하였던 한 사람을 우리 앞에서 본다.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한 가련한 눈먼 거지가 공황을 호소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의 외침의 소리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 앞에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그림이 있는가! 가시던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머물러 서셨고, 그분의 공황을 구하는 궁핍한 혼의 외침으로 급히 서셨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구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다. 아무 것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아무 것도 그분이 머물게 할 수 없었다. 아무 것도 그분의 역사로부터 우회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외롭고, 무기력한 혼, 한 사람의 눈먼 거지의 공황을 향한 외침, 그분께 도움을 바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시는 길에 멈추게 하였다 —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분명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게으른 호기심과 신학적 억측의 우리 신발을 벗고, 이 위대한 광경을 보기 위하여 그런 하찮은 것들로부터 잠시 동안 돌아서자. 분명히,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기서 배울만한 공과들이 있다.

우리 구원자의 세상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 사건으로부터 빛나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가지 사항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는 그분이 “공홀 가운데 기뻐하시므로” 공홀을 구하는 죄인의 외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믿은 증언들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던 때에 주 예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로부 터 들었던 증언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알았던 것을 들은 자로부터의 이야기를 그는 믿었다. 주 예수께서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며 가르치셨으므로 그분을 따랐던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떡을 위하여 그분을 따랐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하여 그분을 따랐다. — 어떤 자는 호기심에서 그리고 어떤 자는 확신에서. — 어떤 자는 탐욕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자는 은혜 때문에. 그분의 기적들을 보았던 많고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한 소경, 우리 주의 기적들을 하나도 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소문과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만 주를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분을 믿었으며, 그분에 대하여 처음 들었을 때 그분을 믿었다!

이 사람은 구원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이다 (35-38 절).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이야기를 축복하 라! 나는 이 사람이 군중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지 의문이다. 아 마도 그는 주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심지어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누가복음 9:11).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들었다. 그는 구원자 를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으며, 그분을 그의 “주”로 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정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 이심과, 공흠을 베푸는 것이 오직 그분의 특권이신 분으로 인정하였다 (41 절). 그는 구원자의 많은 공흠의 전능한 기적들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의 길을 다시 지나지 않으실 것을 알았다!

그의 단순하고, 확신에 차고, 즉각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나는 변증론에 대한 책들이 있고, 신학 작품의 뛰어난 장서가 있으며,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수도 없이 좋은 전기들을 갖고 있으며, 사십 년이 넘는 동안 그 책들을 읽어왔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 어린 아이 같은 확신과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지! 참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조차도, 단순하고, 확신에 차고,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기대하는 곳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누가복음 18:34). 겸손하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궁핍한 혼이 하나님을 믿고 평강 가운데 행보한다. 배우고 책을 잘 읽은 신학자가 의심과 질문들로 종종 고민한다.

사용된 방법들

우리가 공흠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우리 혼에 좋은 모든 방법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이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단한 노력의 중요성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길 가에 앉아 구걸하는 한 소경”이 있음을 들었다. 그는 그의 비참한 상태가 매우 주목을 끌게 할 장소를 찾았다. 그는 집에 게으르게 앉아 있지 않았고, 그분이 오실 것을 안심하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다리 않았다. 그는 자신을 길 가로 끌고가서, 그를 도울 수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보고 돕도록 하였다. 거기서, 길 가에 앉았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다. 즉시 그는 구원자에게 공황을 구하며 외치기 시작하였다. —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그가 그가 있던 곳에 그 때 있지 않았더라면, 주 예수께서 그 길을 지나실 때, 그는 그가 필요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의 혼을 염려한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다면, 이 소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법을 열심히 사용하라. 주 예수께서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장소에서, 그분의 성도들이 모여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곳인 그분의 집에서 발견되는 것을 당신의 일로 만들어라 (마태복음 18:20).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공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는 곳인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당신의 일로 만들어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당신에게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당신이 그분이 당신 앞에 주신 수단들을 멸시하는 동안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기대한다면, 당신은 너무 게을러서 그분의 경배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우둔하게도 뻔뻔스럽다.

인터넷에서 종교대화방, 혹은 우편물에 최근 데이프 묶음, 혹은 텔레비전의 전도자에 대하여 흥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실한 집회를 지원하고, 그리스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대용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활동은 양심을 누그러뜨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들어서 누그러진다. 모든 주권적 은혜가 넘쳐나는 성경 대회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사람과, 그들이 높이 평가하는 방문 전도자의 전도에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에 주신 목사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들이 있는 곳의 복음주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런 모든 종교적 위선은 누가복음 18:11 에 있는 바리새인과도 같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을 곧 지옥으로 데려가게 될 속임수 게임일 뿐 아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공홀히 여길 자를 공홀히 여실 것이다.” (로마서 9:15).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시는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홀을 베푸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 밖에서 회심한 사람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그분을 진실로 구하는 자들에게 늘 발견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레미야 29:11-14). 하나님의 경배와 복음의 전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교통과 시온에 있는 그분의 백성의 찬양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의 공홀을 멸시하고 그들 자신의 혼을 위하여 무덤을 판다.

이 소경은 도움이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은 주권적이심을 안다. 나는 주의 구원을 안다. 나는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구원 받을 것을 안다. 나는 그 사실들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그것들을 기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신의 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안다. 우리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사용할 책임이 있음을 안다. 이 가련한 소경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니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떤 지혜를 그가 보여주었나! 그는 “갈 가에” 희망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다. 거기서 그는 퍼지고 있을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 것 같다. 거기서 그는 동정심 많은 자를 만나고 그들에 의해 거의 발견될 것 같았다. 비록 그가 소경이었지만, 그는 귀머거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것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25).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3:15). 은밀한 기도를 버리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은혜로운 수단들이다. 그것을 멸시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공훈의 길에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8:20).

축복된 소동

우리 앞에 믿음의 복된 소동의 그림이 있다. 우리는 이 가련한 소경의 예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따라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것처럼, 한 번 더 배운다 (마태복음 11:12).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것을 듣는다. 어떤 사람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할 때, 그는 침묵하지 않았을 것도 듣는다. —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느낀 절체절명의 필요를 갖고 있었다. 그의 필요가 그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할 말을 주었으며, 도움을 위한 긴급한 필요를 그에게 억눌렀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몰랐던 사람들의 비난으로 멈추게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주 예수께서 기꺼이 주실 것이라면, 그는 공황을 받기를 결정했다. 그의 비참한 느낌이 그를 가서 외치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집요함이 베풀어진 은혜를 보상으로 받았다. 그는 그가 구하던 것을 찾았다. 바로 그날 그는 광명을 받았다.

당신은 믿음 없고, 그리스도 없고, 생명 없는 가련하게 눈먼 죄인인가? 당신의 필요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 마음의 소경은 눈의 소경보다 훨씬 더 통탄할 만 하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 아직도 지나가고 계신다 (로마서 10:6-13). 그분께 공황을 호소한다. 당신의 외침을 어떤 것도 멈추게 하지 말라.

생명이 자유롭게 될 때, 왜 당신은 죽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공황 가운데 기뻐하실” 때, 왜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인가? 천국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강권하실 때, 왜 당신은 지옥으로 곧두박질치게 될 것인가? 주 하나님께서 부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실 때, 왜 당신은 죄책감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당신 앞에 생명수를 두고 갈증으로 죽어갈 것인가? 생명의 떡을 식탁 위에 두고 떡을 원하므로 멸망할 것인가? 당신이 영원히 타락할 것인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단 한 가지 이유만 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것이 있을 것이라 선포하신다: —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40).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동정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전적으로 영광스럽고 언제나 은혜로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궁핍한 죄인들에게 얼마나 동정하시는지 를 본다! 그분의 동정은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하신 것 가운데 보여진다. 첫째, 그분은 그 사람이 그분이 지나가셨던 이곳에 그를 두게 하실 어떤 필요를 갖도록 하셨다. 그의 눈땀은 축복된 눈땀이었다. 그것은 그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안배에 의해 역사되었던 눈땀이었다. 둘째, 구원자께서 이 사람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해주도록 누군가를 보내셨다. 셋째, 그분은 그 사람이 있던 곳을 지나가셨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40-42 절). — 그분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오셨고,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서서 마치, “내가 여기에서 은혜로이 기다릴 것이다. 내가 이 궁핍한 혼 위에 공황을 베풀 때까지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했다. 그분이 그 소경을 부르셨다. 구원자께서 그를 그분께 데려오도록 명령하셨다 (시편 110:3). 그분은 그에게 은혜롭게 말씀하셨고, 효험 있고, 전능하며, 치료의 은혜를 말씀하셨다! — “곧 보게 되었다.”

그분은 이 사람의 믿음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고, 그분은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구원과 함께 있는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셨다.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그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그 소경이 계속하여 공황을 바라며 외칠 때, 우리 주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그분께 데려 올 것을 명령하셨다고 들었다. 그분은 죽으시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셨으며, 그의 생각 속에 무거운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이 가련하게 고통 받는 자에게 친절히 말씀하시려 머무를 시간을 찾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탄원하였다. “주여,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즉시, 우리가 듣는 것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이다. 그의 믿음은 약하고 많은 무지로 뒤섞여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로 하여금 주 예수께 외치게 만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까지 꾸짖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친다.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갖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오셨다. 그는 믿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 왔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에게 그의 마음의 갈망을 주셨다. 즉시 그가 광명을 받았다.

이와 같은 단락이 의도하는 것은 특별히 궁핍한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오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당신은 많은 결점에 예민할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매우 약할 것이다. 당신의 죄는 아주 많고 매우 클 것이다. 당신의 기도는 아주 형편 없이 더듬거릴 것이다. 당신의 동기는 완전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당신의 죄를 갖고 그리스도께 온다면, 만약 당신이 다른 모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신감을 기꺼이 버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혼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위탁한다면, 당신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은 이것이다.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37). 나는 당신이 이 사실을 보고 확신하기를 원한다. 믿음은 언제나 그것이 찾는 것을 얻는다. — 공훈이다! —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스런 순종

이제, 한 가지 더 보여 주도록 하겠다. 43 절을 읽고, 이것을 배워라. 어떤 것도 감사와 사랑처럼 그리스도께 순종을 자극하는 것은 없다. —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소경이 그의 시력을 받았을 때, 그가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 받았을 때, 그는 주 예수를 따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의 감사는 깊이 느껴졌다. 그의 사랑은 자연적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자발적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를 흠잡았다. 사두개인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비웃었다. 명석한 율법사들은 그분을 비겁한 반율법주의자로 조롱하였다. 그것 중 어떤 것도 이 새로 태어난 혼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따를 가치가 있는 주시라는 그 자신 속에 증언이 있었다. 그는,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한복음 9:25)고 말할 수 있었다. 그 아침에 그가 집을 나설 때는 그가 가난하고, 눈멀고, 타락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사망한 죄인이었다. 그는 구원 받아, 부유하고,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로 집에 갔다.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체험한 은혜는 참 순종의 원천이다. 감사는 신실함의 근원이다. 사랑은 헌신의 법칙이다. 그 자신의 혼의 깊숙이 그가 그리스도의 장엄하고, 견줄 데 없는 은혜와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에 빛진 자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혼의 깊숙한 곳에서 느끼지 않는 자는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자신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던 그분을 우리는 사랑한다. 그분은 나를 치유하셨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분께 속하였다. 무엇이 더 논리적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사람처럼 주 예수를 따르게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란다.

111 장. 찾아 구원 받은 타락한 죄인—누가복음 19:1-10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10).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로 죄인이 회심하는 것에 대하여 읽는 것은 우리 혼을 위하여 언제나 유익하다. 성경의 지면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회심케 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학습하는 것은 특별히 유익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경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움을 가르치시기를 요구하면서, 주의 깊게 그것들을 자주 읽어야 하고 학습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4 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 사도행전 9 장에 있는 다소의 사울의 회심, 그리고 빌레몬서에 있는 오네시모의 회심에 대하여 읽을 때, 우리 마음이, “그것이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고 말하는 우리 마음을 발견한다. 그렇지 않은가?

누가복음 19:1-10 에서 우리는 주 예수에 의해 삭개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다. 하나님의 경이롭고, 대가 없으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이야기를 깨닫기 위한 열쇠는 9 절과 10 절에서 찾아진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삭개오에게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는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전능한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복된 구원자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삭개오를 위하여 하셨던 것을 그분이 오늘날 죄인들에게 여전히 하신다.

상황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읽어야 한다. 누가복음 18 장으로 돌아가 보라. 18-25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머리 숙이기를 거부하였던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하여 읽었다. 그가 주께로부터 떠나갔을 때, 우리는 24-26 절에서 본다: —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그리고

26 절에서 제자들이 물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27 절에서,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홀로 구원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계속하신다. 그분, 그리고 그분 만이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분 자신이 아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오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이다. 30 절에서 그분은 그분이 가져온 구원이 “내세에 올 영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31-33 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어떻게 죄인의 대속자로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련한 혼에 오게 되는지 말씀하신다. 35-43 절에서, 그분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소경에게 시력과 구원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에 대한 그분의 완료된 역사의 확실한 결과가 전능한 은혜로 죄인들의 구원임을 보여 주신다.

확고한 말씀

이 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확고한 말씀,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그곳을 통과하고 계셨다. 그분이 여리고로 가까이 가고 계셨을 때, 그분은 바디매오와 (마가복음 10:40-52) 18 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소경을 구원하셨다. 그분이 여리고에서 나가시면서, 그분은 길가에 앉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 있던 소경 두 사람을 구원하셨다 (마태복음 20:29-34). 여리고에서 더 나아가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은 삭개오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행해진 은혜에 대하여 아무런 놀라움이 없음에 대하여 읽는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는 것을 읽는다. 여호수아 시대로 돌아가서, 수 백 년 전에 주 예수께서 라합이라 하는 매춘부 그 안에서 그분의 왕관을 위한 보석을 발견하셨다 (여호수아 2 장과 6 장; 히브리서 11:31). 실로, 그분은 해를 넘어서 그곳에서 그분의 왕관을 위한 많은 보석들을 찾으셨다 (열왕기상 16:34). 그러나 그분은 여리고를 통과하신다. 그것은 거기에 그분이 구원하려 오셨던 그 큰 성의 성벽 안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분은 여리고에서 버림받은 가난한 자, 소경, 세리, 그리고 죄인들 가운데 그분의 왕관을 위한 보석을 찾으신다.

1 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징적인 은혜를 위하여 그분을 흠모하고 감사 드리는 것을 절대 그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이 공회를 베푸시려는 자에게 공회를 베푸시는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분을 기뻐하고 경배하자 (시편 116:12-13, 17).

이 단락 (누가복음 19:1-10) 안에 있는 영적 공과들은 많다. 그것들 중 몇 가지만 여러분이 주목하도록 하자.

전능한 은혜

첫째, 삭개오의 회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아무도 너무 죄로 충만하여, 너무 천하여, 너무 혐오스러워서, 혹은 너무 멀리 가버려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자는 없다. 그분의 팔은 그분이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 않다. 아, 아니다! 그분의 전능한 팔은 그분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전능하다! 아무도 전능한 공훈의 도달 밖에 있지 않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악명 높은 세리, 여리고 가까이 거주하는 멀리 받는 세금 징수원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 바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한 부자가 있다. 즉석에서 자기 희생적 박애주의자로 변화된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다! 우리의 모든 영광과 늘 은혜로운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앞에서 아무도 치료받지 못할 자가 없던 의사가 있다! 그렇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26; 누가복음 18:27; 마가복음 10:27),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분은 여전히 무효화된 죄의 능력을 끝내고 계시며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분은 여전히 절름발이를 다시 걷게 하시며 소경을 보게 하신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그의 찬양을, 너희 병어리들아!

너희 늘어진 혀를 사용하라!

너 눈먼 자는 유의하라 구원자가 오신다;

그리고 너희 절름발이는 기뻐 뛰어들어!

작은 것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삭개오의 회심의 이 이야기에서 내가 보는 두 번째 것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가장 하찮은 것조차도 그분 자신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시려 사용하신다는 사실이다. 위대한 역사는 종종 작은 것들로 좌우된다. 아무 것도 멸시하지 말자 (스가랴 4:10).

그리고, 보라,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는 세리들 중 우두머리였고, 부자였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누구였는지 보려고 하였고,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누가복음 19:2-3).

그리스도께서 삭개오를 발견하게 될 곳이 될 그 장소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삭개오를 데려왔던 것은 그의 편에서 호기심이었고, 호기심 말고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의 호기심과 그것 만이 성인을 어린 아이처럼 뿔나무 위로 뛰어 오르게 그를 자극 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4 절).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움직이신다
행하시려는 그의 경이로움을!

삭개오는 호기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은혜롭게 오셨다. 삭개오를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취하시려 비밀스럽게 역사하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그의 호기심은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한 우리 주의 비밀스런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주권적인 택정

이 단락에서 분명하게 한 세 번째 사항이 있다. 구원은 택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구원은 삭개오에게 왔다.

그는 외적으로 유대인이었는지 아닌지 모른다. 우리는 들은 바가 없다. 많은 세리들이 유대인들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언약의 자손 (갈라디아서 4:28), 그리스도의 소유 중 한 사람, 언약의 기업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영적 씨 가운데 계수되었기 때문이었다 (갈라디아서 3:29). 그는 천연적으로 거칠고, 사악한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18:17). 당신과 나처럼, 그는 나면서 죄인이었고, 본성적으로 죄인이었으며, 선택으로 죄인이었고, 실행으로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날 군중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었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선행 은혜

넷째, 우리는 삭개오의 회심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선행 은혜의 다른 모습을 우리 앞에 갖고 있다. 그렇다, 삭개오는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를 보려 하였다. 그는 많은 소란을 일으켰던 그분을 보려는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삭개오는 소란이나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였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다. 그분이 삭개오가 그분을 보려고 생각하기 오래 전에 삭개오를 보려 하셨다. 우리 구원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분의 발길을 여리고를 지나도록 향하셨는데, 그분이 삭개오를 부를 시간이 왔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삭개오의 집에 이른 구원을 위하여 모든 영원 전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터 지정된 날이었다! 그 계획된 끝으로 인도하는 모든 발걸음이 계획되었고, 기각되었고, 이 하나의 큰 종말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아,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될 때 하나님의 선행 은혜의 실현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세상이 볼 수 없는 그것을, 그만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치신 혼이 그의 밝아진 눈으로 읽은 큰 책으로 본다.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하나님의 선행 은혜의 많은 경이로운 역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끌었던 그런 일들이다. 유다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성별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고, 부름 받았다. 따라서, 공홀과 평강과 사랑이, 비록 우리가 부름 받을 때까지 그것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몰랐지만, 우리 삶의 모든 날에 배가 되었다 (유다서 1-2). 선함과 공홀이 우리를 지정된 사랑의 장소와 지정된 사랑의 때를 좇게하며, 우리 삶의 모든 날에 우리를 따라왔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선함과 공홀이, 우리를 영광에 직접 좇을 때까지 우리 삶의 모든 날에 우리를 계속 따라 올 것이다!

돌아보라, 아 나의 혼아, 당신의 삶의 날들을 되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의 은혜가 그 동일한 은혜가 당신을 그리스도께 부름 때까지 당신을 얼마나 보존하였는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성별로부터 이 모든 것을 보존하셨는지 보라 (에베소서 1:3-6; 로마서 8:28-30; 11:33-36).

천국의 달콤한 사냥개인, “선하심”과 “공홀”이 삭개오가 나무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오르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그 지점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러 갔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시리라고 결코 한번도 생각지 않았던 자를 바라 보신다. 거기서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 오도록 하시고, 자신을 그의 집에 초대하며, 그에게 그분이 그와 함께 그의 집에 오늘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의 마음이 즉시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였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하게 하는 그의 마음을 발견한다. 왜? 그것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65:4; 110:3).

이 세리 같은 가련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고, 그가 지나가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느낄 때, 비록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을지 모르나, 그것은 그 안에 갈망을 창조하는 그들의 생각 위에 역사하시고, 복음의 부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그들이 듣도록 하는 그들의 구원자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삭개오처럼 “키가 작고,” 지식이 부족하며, 그들의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작을 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압박, 시간의 압박, 군중의 압박이 그들을 사랑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

섭리에 속한 어떤 사건으로, 죄인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 안에서 오시는 곳에 있게 될 때, 비록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적인 동기를 갖고 온다고 해도, 만약 그 죄인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사랑의 시간이 그를 위하여 왔을 때, 그러면 그는 그곳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여, 매일 매일 당신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물리쳐라. 결코 그것들을 못 보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눈을 영원에서 당신에게로, 마치 그분의 눈을 삭개오에게 향한 것처럼, 돌리셨다. 당신은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분에 의해 선택 받았다 (에베소서 1:3-4). 당신의 이름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계시록 13:8; 누가복음 10:20). 당신은 옛 영원부터 아버지에 의해 선한 목자에게 주어진 이 양 떼 가운데 한 마리였다 (요한복음 10:27-29). 그리고 기록되기를, “양 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3:13). 그분은 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에스겔 20:37).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5 절과 6 절을 보라. 삭개오는 주께서 그를 위하여 그 뽕나무를 바로 여리고 외곽에 심으셨고 그를 그 나무 위로 보내셨기 때문에, 또 그분이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에 요셨기 때문에 이 때 이곳에 있었다.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회심이 공개적인 광경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삭개오를 키가 작은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가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나무의 가지를 충분히 낮게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셨다. —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 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5 절).

그리고 당신은 삭개오가 한 것을 안다. —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 절). 그는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

만약 어떤 죄인이 그리스도께 온다면,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의 효험 있는 능력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그를 그리스도께 이끄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아니라 결과이다. 구원의 믿음은 전능하고 주권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전능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람의 마음 속에 피조 된다 (에베소서 1:19; 골로새서 2:12).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의 이 창조는, 그것으로 사람이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것으로, 우리가 “효험 있는 부르심” 혹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다. 성령의 효험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우며, 거절할 수 없는 역사와 운행이며,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키며, 그가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 받게 한다.

효험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온화한 영향, 압도하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능력이며, 이는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기뻐하며 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꺼이 영접하게 한다. 천연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버려졌다면, 그리스도께 오지 않을 자들은,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그분께 기꺼이 오게 된다.

강력한 변화

7 절과 8 절을 읽어보라. 그러면 죄인 안에서 역사한 은혜가 그것을 체험하는 죄인 속에서 강력한 변화가 일게 하는 것을 보게 것이다.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어떤 명령의 말 없이, 어떤 율법의 위협도 없이, 어떤 보상의 약속도 없이, 삭개오는 율법으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젊은 부자 관원은 결코 할 수 없던 것을 했다. — 그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엄청난 값에 비싼 진주를 샀고, 그의 십자가를 짊어졌으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원자를 기쁘게 따라갔는데, 그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나? —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였다! 그것이 전부이다. 주 예수께서 삭개오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셨다.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예수께 왔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오신 것을 본다. —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구원자께서 차이를 설명하신 것이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9-10 절).

성경의 이 열 개의 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된 자들 가운데 한 사람마다의 감동된 영적 자서전을 우리에게 준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분을 알았다며, 이것은 당신의 간증이기도 하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분의 은혜의 큰 계획의 성취를 위하여 모든 발걸음을 영원 전부터 안배하셨다. 그분 자신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고, 대가 없는 은혜에 대한 지식과 누림에 그분의 선택 하신 자에 대한 부르심을 위하여 오게 될 때, 그분은 그분의 소유를 약속된 장소에 데려 오시고 전능한 은혜로 그들을 만나신다. 섭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실패 할 수 없는 그분의 선행 은혜로 인하여 매우 질서가 잡히게 되고 드러난다.

얼마나 신선한가! 얼마나 복된가! 우리 반역과 죄와 불신의 모든 날과 해 동안, 구원자의 눈은 끊임 없이 우리를 바라 보셨다.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사랑의 부르심이 진행될 때, 비록 우리가 삭개오처럼 바리새인 같은 교만과 독선과 야심과 세상적 추구하고 끊임 없는 다른 헛된 것들과 함께 들러졌으며, 은혜의 부르심에 내려 왔다! 기쁘게도, 우리는 구원자를 우리 집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모셔 오며, 그분을 기쁘게 영접하였다. 왜? 인자께서 사랑의 때에 잃어 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 전능하신 구원자의 사랑의 부르심의 어떤 것을 아는가? 만약 당신이 그것들에 대하여 들었다면, 그것들을 모른다는 것은 불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능 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혼은, 비록 그가 전에 그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았을지라도, 목자의 음성의 달콤한 소리를 안다. 구원자께서 범죄와 죄 가운데 죽은 죄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 무시될 수 없는 큰 음성 (요한복음 11:43).
- 거절될 수 없는 강력한 음성 (요한복음 11:44; 시편 29:3-11).
- 그 한 분이 부른 자를 제외하고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아직 작은 목소리 (열왕기상 19:9-14).
- 마음을 여는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승리하는 음성 (아가 5:2).
- 그리고 부르신 그 한 분에 의해 알려진 개인적인 음성 (누가복음 19:5).

112 장. 귀인과 그 종들—누가복음 19:11-27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 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11-27).

우리 주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셨을 때, 비록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은혜 가운데 그 가련한 혼을 그분이 다루시는 방법을 보았지만, 또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분이 그들 대신에 죽기 위하여, 그분의 피를 뿌림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분의 취임 연회로 그들이 가고 있다고 여전히 생각했다! 12-27 절에서 주어진 비유는 그들의 무지를 바로 잡으려 주어진 것이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생각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분이 육신의 왕,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되시려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는 관념에 고착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끔찍하게 세속적 관념들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그분은 여기서 그들에게 현재 기억되어야 할 실질적인 문제가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이었음을 보여 주셨다.

만약 그들이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왕국에 대한 그들의 무가치한 꿈에 너무도 가득하였다면, 그들은 삭개오의 부름 안에서 그것을 이해했을 것이며, 주 예수께서 공훈과 은혜와 구원의 영역 안에서 그분의 왕권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삭개오를 찾고 구원하는 가운데 은혜에 속한 주권적인 왕으로서 그분의 은혜의 주권을 나타내셨다. 그것은 오늘 그분의 보좌 위에서 우리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로서,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주로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잃어버린 자들을 차차 구원하고 계신다.

이 비유는 현재의 것들과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예시이고, 그림이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자와 그분의 뜻 위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다. 그 의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실한 하나님과 구원자, “나를 존귀하게 하는 그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그분의 충성된 종들에게 그들의 섬김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올 세상에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귀인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2 절). — 이 비유 가운데 있는 귀인이 상징하는 분을 당신이 깨닫기를 나는 확신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분 자신을 상징한다. 그분은 여기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분의 동류의 시민의 한 가운데 있는 참 귀인이었다. 그는 모든 세상의 왕이었고 왕이시다. 그분은 본성적으로 정당하게 왕이시나, 그분의 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종의 상급으로서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그분 자신을 위한 왕국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의 대법정에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먼저 가셔야 한다. 시편 2 장에 기록되기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시편 2:8). 그 날은 그분이 영광과 존귀를 입으시고 그분 자신 위에 그분의 큰 권능과 통치를 취하기 위하여 돌아 오실 때 올 것이다. 그가 모든 대적들이 그분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될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오실 때, 그분의 대적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충성된 종들은 넘치게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비유의 의미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이 세상에 인자로서 굴욕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이 세상에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완료하고 그분의 나를 영접하기 위한 영광에 돌아온 것으로 묘사된다. 그분은 우리의 선주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왕국을 영접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6:20), 그분의 성령의 전능한 운행으로 그분의 왕국 안으로 그분의 속량 받은 자들을 모두 영접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분은 여전히 인자이시며, 이제 영광으로 승천하셨고 그분의 보좌 위에 앉으셨다. 그리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다. 그분의 그의 왕국을 받으신 후, 잃어버린 자를 모두 구원하신 후,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려 돌아오실 것이다. 그 때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일이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 그분은 전능한 정복자로서, 사로잡힌 자를 인도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책무를 하실 것이고, 영원히 그들을 위하여 중보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 앉아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모든 대적을 그분의 발 아래 넘어뜨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분의 우주적인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권능과 영광을 갖고 다시 오실 것이다 (히브리서 2:8-9).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세상의 왕국들은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라앉아 있게 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의 재림을 결코 잊지 말도록 하자.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디도서 2:11-14; 베드로 후서 3:11-14).

그리스도의 종들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3-14 절). — 우리 주께서 그분의 종들을, 그 돈을 잘 사용하도록 엄한 지침으로 그들의 주인의 돈을 책임지게 된 사람들에게 비유하신다. 그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열 명의 종들 각자에게 한 므나씩 주었다. 그러나 이 종들은 누구인가? 비록 열 명의 종들이 언급되었지만, 두 무리, 혹은 두 부류가 있다. 열 명 모두 귀인의 종들이다. 그러나 어떤 자는 충성되고 좋으며, 다른 자들은 나태하고 쓸모 없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각각의 종은 한 므나씩 받았고, 그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선택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을 들을 큰 특권을 받은 모든 자가 동일한 책무를 갖고 있다. —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그 말의 뜻은, “내가 너의 손에 쥐어준 이 돈을 받아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는데 바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보화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혼에 부를 늘리는데 장사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을 믿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5:18-6:1 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돈도 없고 대가도 없이 장사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은 사실이며, 이는 큰 값의 진주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또 주시지 않으면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을 받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혼은 은혜로 풍성하고, 달콤한 은혜의 체험이 풍성하게 되어, 혹 다섯 배로 혹 열 배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육신의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무한히 더 높은 정도에 이르는 정도로 부요하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2:9-10).

우리가 결코 듣지 못한 복음에 비유되는 우리가 누리는 무한한 특권은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므나”이며, 어느 날 우리가 계산해야 할 “므나”이다. 심판 날에 우리는 성경과 영과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대하여 전혀 듣지 않은 이교도 땅의 종족들과 나란히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큰 날에 계산해서 드릴 돈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이 비유에서 충성된 종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우리 혼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사용하는 자들이다. 이 충성된 종들은 주의 오심에 대한 기대 가운데 기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의한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무익한 종들이 그의 므나를 받았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에 의한 은혜와 구원, 구속과 의의 복음을 듣는다. 그러나 무익한 종은 그의 주, 주 예수를 싫어한다. 그는 그리스도, 죄인의 십자가에 못박힌 대속자를 통한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하고, 그 자신의 혼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

충성된 종들과 무익한 종 모두 일반적으로 세상과 구별된다. 그들은 이 한 가지 사항에 있어서 다르다. — 당신과 나는 복음을 받았다.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 받았다. 대부분의 세상은 부름 받지 않았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이 요구될 것이다. — 얼마나 큰 유익인가! — 얼마나 큰 책임의 무게인가!

무익한 종의 불신과 거절은 그의 정당한 정죄의 이유이다 (잠언 1:23-33). 유익한 종의 믿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부요함을 확장하며, 앞으로 올 세상에 더 큰 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축복 받은 노예 상태

이 열 명의 모든 종들은 충성된 자와 무익한 자 모두 귀인의 종들이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께 머리 숙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가브리엘 자신처럼 확실하게 그분의 종들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는 우리는 그분의 종들이다. 그러나 모두 그분의 종들이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우리, 그분의 종이기를 기뻐하는 우리는 우리 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사용하므로 “장사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섬김의 축복됨에 대하여 몇 가지를 보여 주도록 하겠다. 그것은 실로 축복의 노예 상태이다! 우리의 섬김은 가장 존귀하다. 우리는 큰 귀인, 영광의 왕을 섬긴다! 우리의 섬김은 우리 주께서 모든 것—“한 므나”를 공급하시므로 인한 섬김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우리 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은 복음 가운데 발견된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자체이다. — 그리스도 안의 믿음. 우리의 섬김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27-29). 이것이 얼마나 복된 섬김인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종사하고, 복음을 장사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 말고 더도 덜도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는 더욱 더 성장한다.

결산의 날

우리가 우리 섬김에 대한 계산을 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결산하는 그 큰 날 우리는 복음에 의해 심판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므나”로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 심판 받게 될 것이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5-16 절).

충성된 종은 예의 바른 겸손함으로 자신을 뒤로 한다. “열 므나를 남긴”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렇게 한 그의 주의 므나였다. 그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열 므나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한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무런 공도 주장하지 않고, 다만,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고 말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17-19 절).

종의 행위와 그것에 대한 보상 사이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음을 주목하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열 므나를 만들었던 자와 두 므나를 만들었던 자 모두 충성된 종이라 선포되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20-23 절).

보상받은 종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 됄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4-27 절).

자신을 통치하는 이 인자를 소유하게 되지 않을 자들, 그분의 대적들인 자들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에게서 취하여 그분 자신의 소유에게 그것을 주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그분 앞에 데려오게 하여 죽이실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베드로가 그분께 물었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우리 주의 대답을 기억하는가 (누가복음 18:28-30)? 주 예수께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쟈어다!” (마태복음 25:21).

하나님의 성도들은 금세에서 조차도 큰 보상을 받는다. 비록 우리 이름이 종종 악한 것으로 내버려질 지라도, 우리가 많은 환란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지라도, 경건의 연음과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연음은 땅에 속한 것들로 측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안에서, 믿는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통한 선한 소망 가운데 측량된다. 여전히, 우리 선한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없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그 날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초과하는 값을 받을 것이다. —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 대하여 읽었네.
그것은 순전한 자와 자유한 자를 위하여 지어졌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들을 그분이 주셨으니. —
천국은 분명 무척 아름다울 것이라네!

천국에서 풀이 죽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곳에 있고자 하는 바램도 없을 것이네.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서 영원히 빛나리니 —
천국은 분명 무척 아름다울 것이라네!

순수한 생명수가 흐르고 있으니;
또 마시는 자는 모두 거저 마시리.
광채 나는 보기 드문 보석들이 빛나고 있으니 —
천국은 분명 무척 아름다울 것이라네!

천사들이 그리도 달콤하게 노래하고 있으니
아름다운 바닷가 그 위에서.
그들의 황금 하프에서 달콤한 선율이 울리고 있으니. —
천국은 분명 무척 아름다울 것이라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천국은 분명 무척 아름다울 것이라네!
기쁘고 자유한 자의 달콤한 집이요,
지친 자를 위한 안식의 좋은 피난처니,
천국은 분명 무척 아름다울 것이라네!”

113 장. 길들이지 않은 나귀새끼를 타는 왕 예수— 누가복음 19:28-40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벧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 하신대로 만난지라, 나귀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28-40).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앞서서 가시더라” (28 절)고 우리에게 누가가 말한 방법을 사랑한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앞에 가신다. 그분은 그가 계시지 않았거나 인도하지 않는 곳을 결코 보내시지 않는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짊고, 어두운 계속으로 가는 구불구불한 길로 당신을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당신에 앞서서 가신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유혹의 광야 속으로 인도하신다면, 그분이 당신에 앞서서 가신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 오실 때, 저 위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르시면서,” 그분이 당신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당신에 앞서서 가셨다.

여기서 누가는 구원자께서 계획적으로, 확신을 갖고, 확정적으로 우리의 위대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사망과 지옥과 무덤을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고 계시며, 우리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그의 보좌로 오르고 계신다. 우리 구원자의 세상에서 삶과 사역 가운데 이 사건은 마태 (21:1-11), 마가 (11:1-11), 누가, 그리고 요한 (12:12-19)에 의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 몇 가지 중 하나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의도적으로 한 문제를 크고 공개적으로 보이셨던 것으로 보이는 그분의 세상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것은 유일한 사건이다. 분명히, 여기 계시된 그 사건은 크게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사복음서 기자 모두에게 그 사건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공과들을 질문하면서, 이 단락을 크게 유의하여 읽어야 한다.

명백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기 기록된 몇 가지 사항들은 명백한 사실, 너무도 명백하여 그것을 놓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무오한 말씀인 성경에 대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거절이다.

1.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스가랴 9:9 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쯤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 쯤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그 것이 스가랴 서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누가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노라.”고 기록한다.
2. 우리 위대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하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나귀새끼를 발견할 것이라는 것과 그들이 나귀새끼를 발견했을 때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말씀하셨다.
3. 우리 구속자께서 모든 우주의 주권적인 주이고 왕이시다. 그분은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승리하여 오셨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로써 그분의 왕국을 영접하시려 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왕이셨다. 나귀와 그 새끼는 그분께 속해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은 그분께 속해 있었다. 모두가 그분의 종들이었다. 모두가 그분의 명령을 행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과거에도 언제나, 그리고 장래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 언제나 그분이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에 힘입어 모든 사람과 모든 것 위의 왕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길이 있으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왕국,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분의 순종의 보상으로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하나님-사람으로서 그분께 주어진 왕국과 통치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중보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신 주 예수를 본다 (로마서 14:9; 요한복음 17:2; 빌립보서 2:9-11). 따라서, 우리는 36-38 절을 읽어보자.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겹옷을 길에 퍼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한 가지 비유

이런 일들이 사실로서 예루살렘으로의 우리 주의 승리의 입성에 대한 이 역사적 이야기에서 더 배울 것이 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정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는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 속에 영적 공과가 있다.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가 비유로서 갈라디아서 4 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하나의 비유이다. 이것은 사실로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더 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의한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구원의 은혜를 묘사하는 사건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의 그 사건들을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의 그림이 되도록 계획되었고 의도된 일로 바라본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이상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 사건들 안에 포함된 영적 공과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영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말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 이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성경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영적 의미, 복음의 말씀, 각각의 특정한 단락이 우리 구원자의 땅에서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과 그분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기적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모든 사건을 알게 하므로, 그분의 위대한 구원에 관한 대상 공과를 전달 위하여 의도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이런 방법으로 읽을 때, 그것은 생명을 갖게 된다. 몇 년 전, 내 손자 Will 이 네 살 되었을 때, 내 책상 위의 내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할아버지, 이것이 예수께서 사시는 곳인가요?” 비록 내가 대답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그 아이에게 주었지만, 우리 복된 구원자의 위격과 역사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설명을 하면서, 아주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 아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단다. 주 예수께서 이 복된 책 안에 바로 여기서 살고 계신다.” 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그분이 하였던 모든 움직임, 그분이 취하셨던 모든 발걸음은 그분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정되었으며,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택정하심과 구속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과 구원과 공훈과 사랑과 은혜에 속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의해 계획되었다. 작고 세심한 것들조차도, 정보를 갖고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제시한다.

여기 누가복음 19 장에서 우리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읽으려 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전에 읽은 적이 절대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끝날 때 당신은 다시 동일한 것을 결코 읽게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예루살렘 거리를 나귀새끼를 타고 통과하는 우리 주 예수의 이 이야기는 그분의 주권적이고, 탁월하고, 매력적이고, 거절할 수 없으며,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실로 오래 오래된 이야기이다.

증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이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한 증거 없이 이야기에 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대하여 그들 생각 속에 가졌던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복음 이야기 속에 있는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기록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신 이유이다. 이것을 보여 줄 두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 주도록 하겠다.

첫째, 스가랴의 예언을 한 번 더 보자 (스가랴 9:9-10).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 쯤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 쯤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 내가 예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꿰겠고, 전쟁하는 활도 꿰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9:9-10)

선지자 스가랴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가실 때, 그분의 승리의 입성은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역사의 특징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진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분은 “공의와 구원을 가지신” 한 분으로서 그분의 은혜의 무한한 겸손 안에서 그분 자신을 보여 주시려, 그리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 끝까지 이를” 우주의 정권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기 위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를 타고 오셨다.

요기 11:12 에서 우리는 영광의 왕께서 승리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의 거리를 타고 지나갈 들나귀 새끼인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허망한 사람”이 “들나귀새끼처럼 태어났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타고 들어간 나귀새끼는 타락한 사람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비유이다.

보냄 받은 제자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9 절). —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 할 때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시간이 올 때마다, 그분은 전도자를 보내신다 (로마서 10:13-17). 아무도 그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까지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두 제자들은 주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음을 주목하라.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도 혹은 전도자도 그 일을 지원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그분에 의해 선택 받고, 부름 받고, 은사를 받고, 보냄을 받는다.

이들 두 제자들은 아주 특정한 임무로 보냄을 받았다. 그들은 주 예수를 위하여 어떤 것을 가져 오도록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이 르비보셋을 데리고 오도록 시바를 보냈던 것처럼 (사무엘하 9 장), 그분의 택정한 자를 그분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분의 종들을 보내신다. 사랑의 약속된 시간에 그분의 나를 데려오 시려 그분의 종들 가운데 하나를 보내셨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확신

우리 주께서 이 제자들을 그들의 임무로 보내셨을 때, 그분은 얻으려는 것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을 찾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확신 시키셨고,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30 절).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거슬러서 이 논쟁을 일으킨다. — “만약 택정이 사실이라면,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 받도록 예정 받았다면,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왜 전도하는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가! 만약 내가 당신에게 나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마다 \$100.00 을 쥐어 준다고 확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문제이며, 나는 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구라도, “만약 그렇다면, 왜 문을 두드리나.”고 말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그분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21)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향하여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 구원 받게 될 것임을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37) —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내가 인도하여야 할터이니.” (요한복음 10:16). 모든 그리스도의 양 때는 찾아질 것이다. 그분의 택정한 자 각자는 부름 받을 것이고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55:11; 고린도후서 2:14-16). 그리고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지혜롭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 두시는 바로 그곳에서 발견될 것이다. 사마리아에는 우물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왔던 그 선택 받은 여인은 어떤 우물에서 발견되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을 따라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러나 삭게오는 어떤 나무 위에서 발견되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태복음 7:7).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우연이란 없다. 주권적인 주께서 그분의 잃어버린 양을 그분의 그들이 있기 원하는 바로 그곳에 두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들나귀 새끼를 그분이 그 것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매어 놓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에 매어 두셨다.

나귀새끼

우리 주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그들이 찾을 것을 31 절에서 정확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우리가 욥기 11 장에서 보았던, “들나귀 새끼”처럼,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찾으도록 보내셨다. 마가복음 11:4 에서 그들이 이 나귀새끼를 발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분은 두 길이 만나는 곳 바깥에 매여 있는 나귀새끼를 찾아 오도록 그들을 보내셨다. 이것은 좋은 켄터키 사라브레드 종의 망아지도, 테네시 워커도, 단거리 경주마의 당나귀도 아니었다. 이 망아지는 나귀의 새끼, 들나귀의 망아지였고,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것이었다 (마태복음 2 장; 스가랴 9:9).

이것이 모든 고집스럽고, 부서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거친 죄인에 대한 얼마나 좋고, 정확한 묘사이고 그림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한 말로, 아주 분명한 의미로서 인류를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분명하다. 그리고, 오늘날의 전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은 절대로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선한 것도 없으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타락하고, 모두 더럽고, 선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하신다 (시편 14 편). 우리 발의 신발바닥에서 머리의 관에까지 우리에게 온당함이란 없으며, 상처와 타박상 밖에 없고, 곪아가는 염증 밖에 없다 (이사야 1). 로마서 3 장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익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쓸모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그림은 심지어 우리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보다 심지어 더 떨어진다. 나사로처럼, 우리는 사망하고 악취를 풍긴다. 에스겔이 묘사한 유산된 아기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로 오염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덟 번도 더 되게 우리는 들나귀 새끼로 상징되었고, 아주 정확하게 상징되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욥기 11:12 에서 묘사된 것이다. 당신과 나는 모두 천연적으로 “들나귀 새끼처럼,” 어리석고, 무감각하고, 고집스럽고, 정욕과 방탕에 주어져서, 거칠게 태어났다. 들나귀가 멍에를 매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를 부수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멍에에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을 것이다. 천연적으로 사람은 그 성욕이 동하므로 혈떡거리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와 같다 (예레미야 2:24; 욥기 39:5).

당나귀를 타는 늙은 남녀를 영화에서 보고 공간이 있으면 애완동물로 갖고 싶어할 그런 종류 같이 멋지고, 양전하고, 편안한 동물들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 다루기 어려운 것이 그들의 본성이다. 만약 당신이 타기 위하여, 짐을 싣기 위하여, 마차를 끌기 위하여, 한 마리를 얻으려 한다면, 변화되고 길들여질 때까지, 그것은 저항하고, 차고, 물 것이다.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그는 단지 주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아주 좋은 그림이다. 하나님에 의해 지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모든 사람은 그분께 기쁘게 감사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드리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지불할 것을 드려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할 자를 얻으려 힘쓰기만 하고, 그가 밭길질 하는 것을 경계하라.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과 은혜에 대한 진리를 그 암전하고, 종교적인 들나귀에게 말하라, 그리고 튀어 오르고 물 것을 경계하라! 그렇다, 사람은 “들나귀 새끼”로 잘 묘사되고 상징되어 있다.

매여 있는 나귀새끼

이 나귀새끼가 매여 있었던 것을 알았는가 (30 절)? 사람들은 그들이 독립적이고 자유롭다고 생각하길 좋아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죄에, 사탄에, 전통에, 사회적 압박에, 종교에 매여 있고 묶여 있다.

나귀새끼는 두 길이 만나는 곳, 교차로에 매여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있다. 모든 사람이 교차로에, 두 길이 만나는 곳에 묶여 있고 매여 있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은혜의 길과 행위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잠언 14:12; 16:25). 타락한 사람은 이 “들나귀 새끼”처럼, 문 밖에, 문 안이 아니고, 은혜 밖에,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이 아닌 곳에 매여 있다.

그를 풀음

주 예수께서 이 “들나귀 새끼”를 풀기 위하여 그분의 두 제자들을 보내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30-31 절).

하나님의 책 안에 도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풀어놓는 것처럼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종교는 묶는다. 은혜는 풀어준다! 우리는 푸는 일에 있다. 이 제자들은 그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나귀 새끼를 발견하였다. 그들이 발견했을 때, 그들은 나귀새끼를 풀었다. 그들은 “주가 쓰시겠다”하고 풀어주도록 말을 들었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과 나 같은 들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실 가능성이 무엇이겠는가? 그분은 그분께 끌고 오실 모든 자를 필요로 하시며 따라서 그분은 그분의 혼의 혼의 수고에 대하여 보시고 만족해 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리를 그것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가실 것이며 은혜와 영광의 왕으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위하여 그분의 백성의 찬양을 모으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35 절). 요한복음 12:12-15 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것에 더 많은 빛을 부으신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나귀새끼를 발견하고 구원자에게 그것을 데려왔으며, 그렇게 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요한의 이야기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분의 백성을 찾아서 발견하러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죄인들을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그분 자신께 데려오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들나귀 새끼를 구원자에게 데려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자기들의 겹옷을 나귀새끼 위에 걸쳐 놓고” (35 절). 그리스도께 오는 모든 자가 그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구원의 옷으로 입은 것이 사실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한 사람을 찾고 그들에게 그들의 등에 옷을 기꺼이 벗어 준다.

그리고, 그들은 주를 나귀새끼 위에 앉히고, 그들의 옷을 길에 펼치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마,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루살렘을 의기양양한 영광 가운데 타고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행한 행위들이 아니라, 그들 보았던 역사들이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기가 꺾이고 지배당한 들나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새끼가 있으며, 날뛰거나, 밟길질 하거나, 물지 않는다. 그 나귀새끼는 구원의 멍애가 쉽고 그의 짐이 가볍다는 것을 발견했다.

종교적인 균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외침을 들었으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분명한 축복을 들었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짐작도 못했다 (39-40 절).

왜?

왜 나귀새끼인가? 왜 크고 흰 종마가 아닌가? 고린도전서 1:26-31 이 답을 준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한 번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포유류들이 아프리카 야생 당나귀라는 것을 읽었다. 세계에 수 백 마리 이상이 없다. 나는 그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사실 아주 흥미롭지 않다. 그러나 나는 야생 당나귀의 새끼로 우리 본문에서 상징되는 사람들이 흥미롭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그들이 아주, 아주 드물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이 장엄한 구별이 인지되어야 한다:
비록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지만,
그들 자신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자는 거의 없다.
이들처럼 우리 주께서 보내지신 자들에게;
그들은 단지 참회하는 죄인들일 뿐이다.

어떤 위로를 구원자께서 가져오실 수 있을까
자신의 고뇌를 전혀 느끼지 않는 자들에게?
죄인은 성별된 것이니;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분으로부터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하니,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연히 슬퍼하기 전에.

이 신실한 말을 우리가 소유하자,
믿기에 아주 가치가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내려 오셨음은,
그로써 죄인들이 그분으로 구원받으려 함이라.
죄인들은 그분의 높은 존경을 받으며,
그리고 죄인들은 그분을 높이 존중하네.”

Joseph Hart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14 장. “성을 보시고 우시며”—누가복음 19:41-44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41-44).

고대 이교도들 가운데, 수 많은 호느끼는 신들이 있었다. 고대 멕시코인 들의 갈갈이 찢긴 달 여신은 여신의 눈에서 흐르는 황금 눈물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Joseph Smith 의 물문서 안에, 그는 에녹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산 위에 내리는 비처럼 떨어지는 눈물로 그의 거짓말을 연관 짓는다. (Smith 는 서부 인디언들에게 있는 너무도 많은 담뱃대를 연기 나는 것으로 만들었다!)

물론, 우리는 그들 주변에 이교도 우상들과 종교적 신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구원자께서 황금보다 더 귀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그리는 성경의 세 가지 특정한 단락들이 있다. 성경의 이 세 가지 본문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시는 성육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분명히, 우리가 그분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본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위로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원자의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관찰되는 것
들이 있다.

요한복음 11:35

요한복음 11 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본다. 당신은 그 상황을
안다. 나사로, 구원자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 죽었다. 주 예수께서
사망에서 그를 살리시려 오셨다. 나사로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가 부서지는 마음으로 흐느끼고 있다.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그분
의 사별한 친구들의 무리 가운데, 그분 자신 속에서 흐느끼고 신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다 (요한복음 11:32-38).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
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
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
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
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
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 35 절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은 가장 크다. 여기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흐느끼는 백성과 함께 흐느끼시는 우리의 성육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축복의 하나님 구원자께서 실제 사람,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느낌으로 감동 받으신 사람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나사로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크다. 그들이 흐느끼시는 그분을 보았을 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희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비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이 느낀 것처럼 고통과 비통을 느낀다. 비통은 부득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반역이나, 불신을 내포하지 않는다. 가장 향기로운 꽃들이 비통한 땅에서 자라는 것이 발견된다. 우리 눈에 눈물이 없다면, 우리 혼에 무지개가 있을 수 없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 너무도 온화하고 동정심이 있어서 그분의 친구들의 비통함이 그분을 울게 하였다면, 우리는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얼마나 더 많이 울어야 하는지!

히브리서 5:7-8

히브리서 5:7-8 은 그분의 육신 안에서의 날에 계실 때의 우리 구원자를 묘사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단락이 겿세마네에 있는 마음과 혼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고통을 특정하여 가리키는 것임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14:34-36). 큰 무거움과 비통과 고뇌 속의 그분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기도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를 발견한다. 그분께서 우리 앞에 놀라운 예를 제시하시는가. 매 고난의 때에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첫 번째 분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녀드리의 말을 들을 첫 번째 분이 되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 고난을 해결하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은혜의 보좌에 내려 놓는 것이 우리 혼을 위하여 좋다. 거기서, 오직 그곳에서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모든 충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4:16; 야고보서 5:13).

겿세마네에서 우리 주의 큰 무게와 비통함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주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무엇이 그토록 크게 그분을 동요하였는가? 그것은 분명 육체적 고통에 대한 공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조차 아니었다.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서는 갈보리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시려 우리 육신 안에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구원자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는 것에 대한 예상이었다. 그분의 바로 그 혼을 부수었던 무겁고, 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거운 짐은 그분의 것이 되려 하였던 죄와 범죄에 대한 엄청난 짐,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의 죄와 범죄였다.

우리 구원자의 큰 비통함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다는 그분의 예상으로 인함이었다. J. C. Ryle 은, “그 때 그것은 그분 위에 특별하게 놓여졌던 우리의 죄와 범죄의 말할 수 없는 무게의 느낌이었다.”고 기록했다. 죄를 알지 않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려 하였다. 죄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듯이 죄를 보시는 유일한 분이 죄가 되시려 하였다. 거룩하고, 해가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려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에게서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게 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심히 놀라기 시작하셨고” (마가복음 14:33), 그분 위에 임하는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를 보시고, 그분 위에 두텁게 모이고 있는 진노의 검은 폭풍에, 그분을 향하여 휘둘러지는 공의 검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수의 번개처럼 그분을 향하고 있었던 의로운 법의 저주에 크게 경악하고 놀라기 시작하셨다. 그 구절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구원자께서 “심히 슬퍼하기” 시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며 마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구원자의 마음과 혼을 부수었던 그것은 바로 그분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로서 견디셔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예상이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의 뜻은 대속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 우리 중보자이고 보증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의 택정한 자 대신에,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셨다.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이 우리 대신 살육 당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였고, 거룩한 율법을 확장하셨으며, 존귀하게 하였으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들의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를 사셨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로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실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의롭게 하는 분이 되신다. 기록되기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라 하였다 (잠언 16:6; 로마서 3:19-28; 에베소서 1:7).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자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고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에 의한 정죄, 하나님 앞에서 고발,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로마서 8:1-4, 31-39).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나는 죽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에 대한 그분에 의한 정죄나 그분 앞에서의 고발, 혹은 그분으로부터의 분리의 가능성이 없다.

겻세마네에서 우리 구원자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은 우리의 죄와 범죄의 엄청난 짐이었다 (이사야 53:4-6).

나의 모든 범죄의 엄청난 짐이

나의 구원자 위에 놓여졌네,
그 때 죄를 모르시고 행하지도 않은 그분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가 되셨네!

“아, 검아 깨어나라,” 격노한 진노 가운데,
여호와께서 외치셨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대속자!),
나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셨네!

그와 같이,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나의 속량 받은 혼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네!

이 은혜로운 놀라운 비밀이여! —
구원은, 충만하고 대가 없이,
내 노래의 주제가 될 것이니
영원을 통하여서라!

누가복음 19:41-44

여기 누가복음 19:41-44 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 위에서 울고 계신 것을 본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41-44).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 온화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며, 동정이 많으시다! 보라 당신의 하나님을, 동정으로 찬만하시다! — “그는 어질고, 자비하시다” (시편 112:4; 78:38-39; 111:4; 145:8-9).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인자하심과 자비를 본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특성을 아셨다. 그들의 잔혹함, 그들의 독선, 그들의 고집스러움, 복음을 향한 그들의 집요한 편견, 그들의 마음의 교만은 모두 그분께 열린 것들이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살해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음과 불과 며칠 안에 그들의 손으로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을 아셨다. 하지만, 그분은 그 성을 보고 우셨다.

왜 그분은 타락하고 파멸한 성을 두고 우셨나? 이 네 구절에서 그분 자신의 말씀이 그분의 큰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세 가지 특징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준다.

1. 주 예수께서 그분의 동포들이 복음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우셨다 (42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 그분은 그들에게 임하고 있을 심판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우셨다 (43 절).
3.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당할 심판이 그들의 고난의 때를 멸시한 결과였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성을 두고 우셨다 (44 절; 잠언 1:23-33; 29:1; 로마서 9:1-3, 31-33; 10:1-4).

115 장. 하나님의 집을 정화하심—누가복음 19:45-48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9:45-48).

만약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음 주일에 교회로 오시면 어떻게 될까? — 주 예수께서 우리의 현대 교회 중 하나를 방문하셨다고 한다면, 만약 그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열린 사람들이 “예배”라 부르는 그런 것 중 한 곳에 출석하셨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려 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분이 우리의 현대식 교회 건물 중 한 곳에 들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자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분은 우리 앞에 있는 그 단락 안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하셨을 것이다.

마가는 그분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바닥에 쏟아버리시고 난 후에, 그분은 그들이 성전에 그들의 그릇 조차도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는 그날 저녁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하셨던 것을 마태, 마가, 누가가 우리에게 말한 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끝나지 않았음에 충격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정말로 행해져야 할 것을 사람들이 하도록 하신 후에, 우리 구원자께서 하셨던 어떤 점잖은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주께서 정말로 분노하여 하셨던 것이었다. 요한은 삼 년 반 전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준다 (요한복음 2:13-17).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공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처음 가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람들이 주를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던 사람들 가운데 무례함과 철저한 모욕의 참을 수 없는 광경을 보셨다. 이제, 삼 년 후, 그분은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다. 다시, 유대인의 유월절의 때였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있었다.

범죄

여기서 큰 범죄는 무엇이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것을 행한 것이 무엇이었나? 앞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던 장사는 율법에 의해 요구되는 제물과 속전에 관련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 (요한복음 12:20; 사도행전 2:5). 돈 바꾸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주 당연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들이 거기 없었다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들의 돈을 교환하기 위하여 사소하고 쓸데 없는 곤란을 겪어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요구된 반 세겔을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일한 일이 “주와 그 백성을 섬기는” 그곳에 있던 다른 장사꾼들에 대해서도 언급될 수 있었다. 만약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 하면, 제물들이 필요했다: 동물, 포도주, 기름, 소금, 등등이다. 더 큰 제물을 가져올 여유가 없던 가난한 사람은 율법에 의해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오는 것이 허락되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다만 일을 쉽고 편리하게 해 주었다. — 물론, 그들은 이익을 남겨야 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 우리는 유용하게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에서도 읽은 것이 없다. 그들의 범죄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으로 자신을 부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익숙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럴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업은 대형 사업적 종교이다. 그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꾸였으며, “기도의 집”이어야 했던 곳을 취하고 쾌락의 집을 만든 것이었다. 아, 그들은 율법을 읽었으며 큰 허식과 인상적인 의식으로 절기를 지켰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행위로 아무 효험이 없게 만들었다.

네 가지 공과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 있는가? 성전은 2,000 년 전에 파괴 되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날들을 유대인의 신성하지 않은 것으로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내가 교회 안에서 선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동물을 팔고 교회 안에서 화폐 교환 행위를 하는 것을 절대 본 적이 없다. 그런 일들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들을 아직 보지 않았다. 따라서 다시 묻겠다.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위한 말씀이 있는가?” 실로 있다.

사실, 이 단락에서 배워야 할 많고도, 아주 중요한 공과들이 있다. 여기 네 가지가 있다.

1. 우리 주 예수에 의한 성전 정화 작업은 그분의 절대적인 신성에 대한 우리 주의 가장 위대한 모습들 중 하나로서 자리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우리 주께서 여기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옆에 서서 침묵하며 바라보았다는 사실이 겟세마네에서 로마 병사들을 우리 구원자께서 명령하신 것과 돼지 떼로 들어가도록 그분의 허락을 구걸하였던 군대귀신처럼 경이로운 것으로 나에게 충격을 준다. 이런 일들을 목격하였던 자들은 완전히 놀라운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 이것을 또한 배워라. 하나님의 집은 그분의 집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의 머리, 유일한 머리이시다. 그분은 이 왕국의 왕이다. 그분의 음성 외에 다른 권위의 음성은 없으며, 그분의 말씀 말고는 믿음의 통치와 실행은 없다.
3. 때때로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은 화가 났고 그들의 분노를 보였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을 자들은 그분을 모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침묵하는 것은 승인하는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 앞에 있는 사악함에 대하여 그분의 불승인을 보이셨다. 그분의 본을 따르자.
4.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언급할 때, 건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과 집은 경배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분의 성도들의 집회이다 (마태복음 18:20; 고린도전서 3:16-17). 하나님의 집 안에 기도—경배 외에 어떤 것을 위한 공간은 없다.

그것을 당신이 확실히 깨닫도록 하라. — 하나님의 집 안에는 하나님의 경배를 제외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따른 경배 외에 어떤 것을 위한 자리도 없다. 느헤미야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다. 짐을 짊어지기로 한 자들의 힘은 쇠퇴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엄청난 쓰레기(많은 폐기물)이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헛된 철학과, 종교적 전통과 어리석은 감성으로 그 안에 가지고 들어온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그분의 집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헤미야 4:10).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베드로가 오순절 날 그 앞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이 패역한 (뒤틀리고, 휘감기고, 구부러지고, 빼뺏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도행전 2:40) 말하겠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있는 그곳은 참 복음의 말씀이 대부분의 경배의 장소에서 전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벌어진 처절한 전쟁이 없다. 각자가 “경건의 모양” (종교)을 갖고 있고, 그것에 그들은 고집스럽게 들러붙어 있으며, 늘 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 오늘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종교 세대가 사도 바울에 의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디모데후서 3:7) 사람들로 잘 묘사되었다.

종교 안에 너무도 많은 쓰레기가 있으므로 전도자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큰 삽과 쓰레기 트럭을 준비하고, 쓰레기를 청소하고 쓰레기 하적장에 가져가는 것이다. 쓰레기 더미 위에 시온의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종교 쓰레기 위에 소망과 보증의 벽을 건축할 수 없다. 기초는 쓰레기가 발견되고, 처리되고, 멀리 옮겨가기 전까지 놓여질 수 없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는 것은 결코 쉽거나 즐겁지 않다. 그러나 행해져야 한다. 각 세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은 필요하고 대가를 치르는 일을 발견했다. 모세는 고라와 그의 군중을 다뤄야 했다. 엘리야는 지속적으로 아합과 이세벨과 대적해야 했다. 히스기야는 그가 놋뿔을 파괴했을 때 그의 손에 문제가 있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대치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록 강요되었다.

나는 지난 40년 간 많은 좋은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쓰레기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시대에 있는 영원히 묶인 죄인들을 위한 소망과 피난처의 벽을 지으려 한다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율법

오늘날 종교 사회에서, 나는 모든 상표의 교회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데, 거룩하고, 순전하며, 흠이 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한 외적인 종교적 실행과 외적인 유사성으로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는 법의 묶음으로 절하되었다. 의는 사람의 행위로 축소되어 왔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그분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두셨던 혐의였다 (마태복음 23:25-27).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의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내려져야 하는 혐의이다.

다소의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전에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는 독실하게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은 당신과 나를 부끄러움에 처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않았다. 그는 그의 평생 교회에 갔었다. 그는 가말리엘 신학교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그는 성경을 가르쳤다.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도덕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우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였다 (빌립보서 3:5-6). 다소의 사울은 깊숙이 종교적이었던 사람이었고, 율법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살았으며, 율법 앞에 그의 의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나 그분의 율법을 알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땅의 꼭대기에 있는 여느 죄인과 마찬가지로 타락하였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9; 로마서 7:9). 그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말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련하고 타락한 종교주의자에게 오셨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그렇게 하심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참 성품을 계시하셨다. 그가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의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고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 16:8-11), 그의 생애 처음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적 부분 가운데 진리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그 자신 속에 거짓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그의 삶 가운데 처음으로, 그는 그 자신 속에 오직 죄 외에 아무런 적합함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거벗기셨고 그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셨다 (로마서 7:9-11). 그가 한 때 지킨다고 자랑했던 율법이 그의 죄를 드러냄으로써 이제 그를 떨게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의 구원의 운행하심으로 당신에게 오시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당신에게 계시하셨는가? 그분이 선포하시는 것을 들어 보라.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낮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20).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는 당신이 행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지는 의이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이다. 그리고 경건, 참 경건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이다. — “여호와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7). 그리스도교는 계명이 아니라 위격이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27).

우리가 만약 기도의 집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하려 한다면, 그것이 멀리 실어가야 할 첫 번째 쓰레기 조각이다. 아무도, 그가 하거나 체험하는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야 한다. 여자 노예와 그 아들 (행위 종교와 그것을 조장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경배를 퇴보시킴

둘째 문제는 이것이다. — 경배는, 혹은 사람들이 경배라고 부르는 것, 경배의 위장 아래 행해지는 종교적 오락과 의식 말고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퇴보하였다. 대부분의 교회는 규범과, 규율과 의식이 있는 종교적 사교 집단에 지나지 않고, 사업을 위한 인맥을 위한 좋은 장소이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서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결함 없이 따라 움직였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를 위하여 결정을 하려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거듭나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개혁하게 하려 성령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거듭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려 성령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믿음을 얻도록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복음을 배우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일어서고 간증하기 위하여 그 영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머리를 숙이고 경배드리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종교적 활동과 봉사에 헌신하려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물에 잠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주의 만찬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체하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기도를 암송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기도하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공과를 배설하기 위하여 그 영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십일조를 드리기에 성령이 필요 없다. 그러나 주의 이름 안에서 두 냇돈을 드리기에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종교를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함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께서, 구원이, 영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종교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사업상 만남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기도 (예배) 집회를 갖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교회 안에 있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은 교회 건물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에베소서 2:22)가 되기 위하여 그분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돈 바꾸는 자들과 제물 파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 쫓으시는 것에 대하여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오늘 그분의 집 안에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내 자신에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집 안에, 기도의 집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포함한 것을 제외한 어떤 것을 위한 곳은 없다.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집회 안에 복음 전도, 복음 포고와 기도와 찬양을 제외하고 아무 것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둘째 문제이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께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경배는 사람 중심의 종교적 행위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퇴락하였다. 당신의 프로그램과 의식을 던져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부패한 말

오늘날 세상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세 번째 문제가 있다. — 이 기대에 어긋난 세대의 교회가 복음의 뜻,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말씀을 부패하고 기대에 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긋난 뜻으로 대치하였다.

오늘날 도처에서 사람들은 일어서고 계수되라는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복음은 당신이 머리 숙이고 경배드릴 것을 요구하신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다! 순종의 말씀, 우리 주의 축복의 순종과 죄속량의 희생의 말씀, 그리고 그분에 의한, 그분 안에 있는,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을 위한 구원은 다음의 것들로 대체되었다 —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도록 할 것인가?” — “당신의 마음을 예수께 드리지 않겠는가?” —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 “당신의 몫을 해야 한다.” — “당신의 결정이 무엇인가?” — “주께서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 “주를 섬기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 “당신의 마음을 주께 열면, 그분이 들어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 (갈라디아서 1:6-9).

우리가 쓰레기를 청소해 버렸을 때, 기초가 놓여질 수 있고 시온의 벽이 건축될 수 있다. 기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시대에 침례자 요한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은 광야 가운데에서 였다. 거기서 그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 한 가운데에서, 영원히 묶인 죄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치면서, 그의 외로운 음성을 높였다. 침례자 요한 처럼 죽지 않을 혼들에게 광야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당신의 삶의 본으로 삼아 뒤따를 좋은 예만은 아니다. 그분은 “주 우리의 의”이다! 그분은 종교적 선주자가 아니다. 그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다. 그분은 고귀한 뜻 가운데 순교자로서 죽지 않으셨다. 그분은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속량과 피의 제물로서 죽으셨다. 그분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은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오게 될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은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 63:1).

만약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쓰레기를 청소할 은혜를 주시고, 장사꾼들과 그들의 매물을 그분의 집에서 몰아내며, 그분의 집을 궁핍한 자들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만드신다면, 아마도, 단지 아마도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그것을 하셨을 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치유 받은 죄인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14).

116 장.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악함—누가복음 20:1-8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1-8).

성경의 이 단락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거니시며,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것을 본다.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왔다 갔다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서 그분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여기 기록된 사건은 우리 주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돈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신 다음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이틀 뒤에 일어났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군중 가운데, 우리 구원자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주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백성을 파멸시키려 결정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다. 다시 한번, 그들은 그들이 그분의 평판을 떨어뜨릴 완전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주 예수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셨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 쫓으셨으며, 그 집의 주인으로서 질서를 잡으셨다.

그 모든 것 위에, 그분은 하나님의 집을 그분의 집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써,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이 전하실 때, 유대인의 용납된 전통들과 관습들에 반대되게, 이 위대하고, 존경 받고, 학문적인 이단자들, 유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자들이 주 예수께 그분의 권위의 근원을 요구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가졌던 증오가 얼마나 결정적인가! 주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아프고 질병에 대하여 모든 방법으로 치료하려 하셨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증오와 원한의 원인이었나?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랬다. 그것이 사탄과 그의 씨에 충분한 이유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고, 세상이 서 있는 한 언제나 그럴 것이다. 십자가의 범죄가 멈췄나? 아 아니다! 현세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든지, 구원이 그분의 이름 안에만 있다고 선포하고, 인간의 모든 선과 의를 땅에 던지고 그리스도의 피와 의가 죄인이 하나님께 열납되는 확고한 이유임을 선포하면서, 주께서 전하셨던 복음을 전하도록 하자,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러면 그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머리 위에서 웅웅거리는 화난 말벌처럼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다.

교회나 교파나 나라나 세대의 종교적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로 신앙심이 없고, 그들의 눈먼 인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그들의 혼의 영원한 멸망으로, 그리고 그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그렇게 행한다.

여기에 네 가지 영적 사악, 사악함에 대한 네 가지 역력한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이 구절들 안에 등대처럼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두드러지게 서 있다.

영적 무지

첫째, 누가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영적 무지의 사악함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당신은 아마도, “어떻게 영적 무지가 악한 것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그의 무지로 인하여 잘못을 범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사람이 알 수 있었고 알아야 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빛 가운데 단지 행했다면 그는 책임질 수 있고,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에 의해 책임지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내가 지금 언급한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귀한 아들의 복음과 관련하여 들었고 멸시하였던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의 날에 책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였다면 당신이 들었을 수 있는 모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책임지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사실이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고하고, 충분한 근거를 가진 확신을 갖는 편이 좋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하듯 글을 쓰는 것은, 엄청난 무게의 책임을 진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불멸의 혼에게 말을 전하는 이 일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므로, 만약 내가 이런 것들을 확신 않고 있다면, 나는 감히 다른 말을 하거나 (혹은 쓰거나), 사역의 일에 있어서 다른 날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가 되는 것을 다만 잘근잘근 씹는 어느 누구든지에게, 나이가 들었는지 혹은 젊든지 간에 말하건대, 이 일을 받기 전에, 이런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좋다...

- 당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알라.
-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이 일에 보내셨다.
-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 당신은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지만, 불멸의 혼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하여 파수꾼으로 지정된 자들은 그 혼들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에스겔 3:17-21; 33:1-20).

그 모든 것이 누가복음 20:1-8 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바로 이것이다: —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종교적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종종 완전히 무지하다는 사실의 확연한 예로서 우리 앞에서 있다.

이 사람들은 날품팔이 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가장 높이 훈련 받고, 종교 학문에 전문적이며, 상류층 중의 상류층 집단에서 선택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제사장들이 아니었으며, 대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교사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연장자들이 아니라, 장로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그들 시대의 종교적 세상에 의해 모든 영적 지식의 바로 그 근원이고 샘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대부분에 있어서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주류의 역사적 유대인 전통의 완전한 무게와 힘을 갖고 있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돌대가리처럼 하나님을 몰랐다. 영적으로, 그들은 완전한 소경이었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였고, 분류하였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 책의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알기 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이 그들 한 가운데서 계셨을 때 그분을 지목할 수 없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영적 지식은 신성한 계시에 의해 온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될지 의심된다.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영적 문제를 제외하고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인정, 학문적 학식, 역사적 인정, 저명한 명성, 종교적 질서, 그리고 종교적 전통은 모두 의미 없다. 실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방해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게 하실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른다 (고린도후서 4:3-6).

일단 그것이 일어나면, 일단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안에서 계시되면,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신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다. 그 진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다. 우리는 결코 그것들을 완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것들을 배우기를 절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 죄 — 우리 자신의 죄, 우리 마음의 부패, 우리의 악한 행위의 부패, 우리 의의 오염!
- 의 — 우리 대리자로서 그리스도 순종에 의한 우리를 위하여 성취되고 가져온 하나님의 의!
- 심판 —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 만족에 의하여 갈보리에서 완료된 심판 (요한복음 16:8-11; 로마서 8:1; 고린도후서 5:21)!

당신의 혼과 당신의 가족의 혼과 당신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모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를 관심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영을 시험하라 (요한일서 4:1-3).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적 무지,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무지가 전도자들과 교사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이며, 그로써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인도되고 있다. 소경이 소경에 의해서 인도될 때, 모두 구덩이에 빠진다.

하지만, 그들의 무지의 사악함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하여 무지하다. 그들의 무지는 주께 대한 그들의 적개심으로부터 일어났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악의와 증오의 열매였다. 우리 주의 기적적인 역사가들이 그들을 위하여 말했다. 하나님 말고 아무도 그분이 하셨던 것을 할 수 없었다.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요한복음 3:2). 그리고 상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명백함을 거절하였고, 그 명백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종교적 호기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악은, 신앙심 없음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을 이 사람들 속에서 보며, 종종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종교적 호기심의 사악이다.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문제가 더 비밀할수록, 그들의 호기심이 더 치솟는다. 그들은 분명하게 계시된 진리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들은 분명하고 중요하며, 필요하고 치명적인 것들을 경멸한다. 그러나 그들은 애매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27-37 절 안에서 사두개인들은 주께 부활에 대하여 계략적인 질문을 하였다. 정신차려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토론하기를 원했다.

서기관들과 그들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 모든 세대에서 넘쳐난다. 그들은 복음의 순수한 진리에 모두 비슷한 적들이다. 그들의 종교는 호기심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당신은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1:4).

종교적 교만

셋째, 이 종교적 위선자들도 종교적 교만과 오만의 끔찍한 사악함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여기 그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행하는 척하고, 성육신 하나님 그분 자신께 그분의 권위에 대하여 감히 도전하고, 오직 질서와 질투와 오만과 교만으로만 행동하였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감동받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들 자신의 위치와 권력이었다. 그들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악함의 혐의를 붙일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역사 안에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다. 남아 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것을 할 그분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물었다. “당신이 어떤 권위로 전도하는가? 누가 당신에게 명령하였는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권한이 무엇인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와 상의 없이 질서를 잡으려 하는가?”

그가 전하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분 자신 외에 아무 것에도 성별되지 않은 한편, 하나님의 영광에 성별되고, 불안한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한편, 하나님의 처소에서 안전하고, 그의 혼 안에 한 순간의 안식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른 사람의 광경보다 타락한 종교인을 더 오만하고, 불안하고, 시기하고, 악의에 차게 하는 것은 없다.

분명하게 마주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에 머리 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영적 교만과 오만이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마음 속에 사악함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그들, 일반적으로 설탕처럼 너무나 달콤하게 보이는 자들을 분노하는 박해자들로 만든다. 그들을 지옥으로 끌어 내리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적 오만이었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그러나 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선생의 발 아래 앉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메시아직분과 신격을 선포하셨고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믿기를 거절하였다. 그것이 단지 그들에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자의 침례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였다.

영적 부정직

영적 무지는 언제나 영적 오만으로 이끈다. 그리고 영적 무지와 오만은 언제나 영적 부정직의 사악을 산출한다. 자신의 의도적인 불신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것이며 그들 자신의 양심에 부정직한 행동을 할 것이다. 부정직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우리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렵고 난처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속했는지를 그들에게 질문 하셨다 (3-4 절).

그들은 심지어 분명하고, 정직하며,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즉시,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진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체면을 지킬 것인지를 궁리하였다 (5-7, 31 절). 진리를 말하기 보다, 그들은 직접적이고 확실한 거짓말을 하였다. 그들은,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였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서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인지에 대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주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들은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그것은 분명한 거짓이었다. 그들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만약 그들이 정말 믿었던 것을 말한다면 그들 스스로를 정죄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만약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선지자라고 고백하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곧 메시야고 궁핍한 죄인들의 구원자,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려 오셨던 분에 대한 그분의 증거를 믿지 않음에 있어서 총체적인 불일치의 죄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어떤 것이든 말할 것이다. 거짓말 하는 것은 죄 가운데 하나로, 사람의 마음이 가장 천연적으로 행하기 쉽고,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악 중의 하나일 뿐이다.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와 바울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더 많은 추종자들과 모방자들을 갖고 있다.

공과

이것을 확실성의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다. —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시기할 것이며, 당신을 경멸할 것이고, 당신을 깎아 내리기 위하여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없다면, 그들은 당신의 영향력을 파괴하려 시도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가장 악독한 대적들(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하셨다. 바울은 그의 가장 큰 적 (거짓 사도들과 유대주의자들)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심지어 사랑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런 요한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적 (디오드레베)를 갖고 있었다.

우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에 반대하며, 우리가 행하는 일에 반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반대하는 자들을 다루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아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주께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8 절)고 대답하셨을 때처럼,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복음 사역을 거의 올바르게 평가하고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 단락에서, 그분이 종종 하셨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과 그의 시대에 그에게 주께서 주신 사역을 높이 칭찬하셨다. 침례자 요한처럼, 모든 참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고 그분의 역사를 선포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죄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호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이사야 52:7), 믿지 않는 모든 자를 변명의 여지 없이 버려두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2-13).

117 장. 하나님의 교회 — 그분의 포도원—누가복음 20:9-19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 인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20:9-19).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우리 주의 비유들 중 하나가 이 구절들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 그 사실 만으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비유라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 비유이다. 19 절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주 예수께서 “비유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다.” 유대국의 역사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때로부터 A.D. 70 년에 그들의 파멸의 때까지,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 포도원과 농부(포도원지기)들의 상징 하에, 우리 주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야기를 큰 공황과 큰 심판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공황을 영접하였고 체험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징벌과 심판의 반석 위에 또한 마침내 조각들을 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신호로서 자리하게 하려 하나님의 책 안에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그분의 시대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비유 안에서 묘사된 농부들이다. 그들의 죄가 분명한 말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박해하고 죽였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죽였다!

그 비유가 유대 나라에 대한 정죄의 말씀이 되도록 직접적으로 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나와 관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John Trapp 은, “경건한 자는 성경을 법령서로 읽듯이 성경을 읽는다. 그는 그가 읽은 모든 것에 스스로 염려에 사로 잡힌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매 지면마다 기록된 것을 발견하며 그에게 말하는 것으로 마음에 그것을 둔다. 반면에 사악한 자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것을 찢혀두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처리한다.”고 기록하였다.

그렇게 어리석지 않게 되도록 하자. 사악한 농부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이다. —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떨어진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 공과를 유의하기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그 나라는 오늘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와 고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들이 빛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빛 가운데 행보하기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눈멀과 어둠을 보내셨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의도하신 것이다: —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20-21). 그 경고를 마음에 두고, 당신이 이 비유로부터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공과들에 주목하게 하도록 하겠다.

우리 땅의 교회들, 전도자들, 교사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버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 오래되었다. 그 배교의 결과는 이 부도덕한 세대의 넘쳐나는 비경건이다. 우리가 영원한 파멸의 이 종교적 세대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자.

하나님의 교회

첫째,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분의 포도원임을 본다 (9 절). 나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킬 때, 모든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경우처럼, 나는 우선적으로 지역 교회, 지역의 복음 교회들을 마음에 둔다. 거기에는 확실하게 우주적인 교회에 이 비유를 적용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지역 교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지역 집회에 대하여 언급한다. 모든 참 복음 교회는 하나님이 심은 포도원이다. 그것은 주께 속해 있다. 그분은 포도원을 위하여 한 조각의 땅을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것을 심으셨다. 그분은 울타리를 치셨다. 참 복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공동체 위에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기르시는 곳 안에 살고 있고, 그분에 의해 그분의 대가 없고, 주권적이고 구원의 은혜에 속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드문 특권이고 축복이다!

농부

우리는 또 9 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그분의 농부인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듣는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특권은 없으며, 이보다 더 큰 하늘 아래 책임은 없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7).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에 가져가는 보화는 그분의 은혜의 복음, 그분이 선택 받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의 모든 축복들을 교통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1:3-14). 그러나 이 보화를 가지고 가는 우리는 오직 “질그릇”이며, 깨진 질그릇이며,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일 뿐이지, 그 이상도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가는 보화는, 하나님은 그분의 택정한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상된 열매

셋째, 약속된 때에,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포도원의 농부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시고 받을 것을 정당하게 기대하신다 (10 절).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임대료는 매우 합리적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존경하는 것이다 (13 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분의 아들에게 경배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10-14 절을 주의 깊게 읽어 보라.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다루고 대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고 대하는 것을 본다.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사랑 받은 종교와 증오 받은 그리스도

타락한 종교인들은 종교와 종교적 의무와 종교 활동과 종교 의식과 종교 역사와 종교적 전통을 좋아하지만, 철저히하게 하나님,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경멸하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보좌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분의 왕국에서 내쫓고, 그분을 죽일 것이다. —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14 절). 그것이 시편 2 장에서 예언된 바로 그것이다.

전도자들과 교사들과 교회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고 쫓아내는 이유는 단지 이것이다: —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포도원을 원한다.

회심이 아닌 자각

이것도 역시 알아라: — 절대로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자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19 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

하더라.”

그것은 마음 속에 회개나 믿음을 산출하지 않는 양심을 정죄하는 죄의식보다 더한 것을 취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심과 은혜의 은사이다 (로마서 2:4; 에베소서 2:8-9; 스가랴 12:10).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 (로마서 2:4).

멸시 받은 공홀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멸시 받은 공홀은 빼앗길 것임을 경고하신다 (15-16 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기회들을 멸시한다면, 그분이 그 큰 특권들을 가져가실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방법이었을 그것들을 우리의 영원한 파멸의 그 기초로 만드실 것이다.

현재의 특권들이 장래의 특권들에 대한 보장이 아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멸시 받은 축대를 옮기실 것임을 경고하신다. 만약 복음 전도가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에게 사망의 향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부정한 잔은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더이상 그들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가 왔다. AD 70 년에, 이 비유가 언급되었던 때로부터 단 40 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성, 그 성전과 그 나라를 파괴하려 타이투스 와 로마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세상 전체의 표면 위로 흩어져 버렸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무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한 때 매우 강했으나, 이제 사라졌다. 아프리카는 한 때 빛의 요람이었는데, 이제 어둠의 집이다. 영국은 한 때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였지만, 이제 종교적 폐허와 기억들의 무덤이다. 많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요구될 것이다.

John Trapp 은 말했다. “복음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이다. 우리의 후손에게 동일한 것을 전해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앞선 세대들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유산이며, 진리는 이어지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남겨주어야 하는 유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진리의 그 특정한 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의 계명은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우리가 보존하고 선포하여야 하는 진리는 그 큰 “경건의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에 의한 구속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만, 따라서 그들 자신 위에 파괴를 쌓아 올리지만, 그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취하실 때,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며, 하나님의 계획은 훼방 받지 않고 심지어 지연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찬양 받으시고 그분의 백성은 구원 받을 것이다 (17-18 절; 로마서 11:25-26, 33-36).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놓으셨던 기초 위에 건축하기를 거절하면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멸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전히 찬양 받으신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를 거절하고 그들의 불신을 위하여 그것을 던져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내어쫓지 않으신다. 은혜의 택정에 따른 남은 자가 여전히 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는 구원 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11:1-5).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신에 의해 방해 받지 않는다 (로마서 3:3-4).

유일한 길

죄인이 영원히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시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놓으신 구원의 그 반석 위에 놓는 것이다. —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18 절). 만약 그리스도께서 심판 가운데 당신 위에 넘어진다면, 그분은 당신을 가루로 갈아 버리실 것이고, 이 돌의 무게 밑에 있는 당신의 영원한 파멸은 회피할 수 없고 완전하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흠으리라.” (18 절).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릇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

틈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며,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별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 80:10-19)

118 장.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누가복음 20:19-26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 인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누가복음 20:19-26).

순간의 회오

이 단락에서 나를 치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궁극적으로 멸망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자각이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볼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느낌의 순간들을 갖고 있다는 경종을 주는 사실이다. 우리 주께서 그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진노와 심판을 선포 하시자마자 곧, 유대인들은 그들의 범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 속에서 찢렸다 (16 절). 그러나 그들은 곧 죄의 그 느낌을 극복하였다.

이것은 경종을 울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타락하고, 독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순간들,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의 양심 속에 찢리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게 할 때이다. 그러나 율법의 두려움, 신성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그 자체 있어서 성령 회오가 아니다. 율법적 두려움은 이 사람들이 지나갔듯이 곧 지나간다.

성령 회오는 저항할 수 없고 결코 지나가지 않는 회오이다. 성령 회오는 오직 늘어날 뿐이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성령 회오는 비록 분명하게 그 일부분이지만, 죄책감과 지옥의 공포보다 더 많이 포함하는 회오이다. 성령 회오는 율법의 두려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부터 일어난다. 성령 회오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 마음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회오이다 (스가랴 12:10; 13:1; 요한복음 16:8-11).

우리의 공홀이 충만한 구원자

17 절과 18 절을 읽고, 우리의 위대하고, 은혜롭고, 공홀이 충만한 구원자를 앙망하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흙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기쁜 그림인가!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그들의 외침을 우리 구원자께서 듣자마자, 부드럽게 그들을 바라보셨기, 그들이 매우 친숙한 성경으로 그들을 향하게 하셨고, 모든 안식일이 왔던 하나님 책 안에서 그들이 읽었던 분인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신다. 그들의 보는 앞에서 끝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다. —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 공훈의 구속자께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참 회개 가운데 그분 위에 떨어지고 부서질 것을 요구하셨다.

그분은 모퉁이의 머리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왕과 구원자로서 높이 칭찬하셨으며,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주려 하셨으며, 이는 그분이 그분의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 떨어지라, 그러면 당신은 회개 가운데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분께 떨어지라, 그러면 용서 가운데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구원자께서 그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이 독선과 불신을 계속한다면, 그분은 확실하게 그분의 진노 가운데 그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임을 경고하셨다. —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가루를 만들어 흠으리라 하시니라.”

공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구약의 바로처럼 그들의 마음을 모질게 먹었고, 구원자를 신뢰할 것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생명보다 오히려 사망을 선택함으로써, 믿음 가운데 그분 위에 떨어지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앞에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들로서 확고하게 서 있었다. 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얼마나 악화된 정죄를 불러일으켰는가! 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그런 어리석음에서 구원하시고 이제와 또 계속하여 그분의 거절할 수 없는 공홀로 그리스도께 떨어지도록 은혜롭게 우리를 강요하시기를!

격분한 종교주의자들

19 절과 20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분노한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이 되었는지를 본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 인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리스도의 주장들은 당신을 부수든지 아니면 모질게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구원의 은혜의 복음에 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면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회개 가운데 부서지든지 아니면 독선 가운데 모질게 될 것이다. 당신은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불명확하게 된다. 당신은 당신 자아에 대항하는 하나님 편을 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당신 자신 편을 들게 될 것이다. 이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권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노하였고, 그들 자신에게 드러난 그 말씀에 분노하였으며, 이제 그분을 죽일 때라고 결정하였다.

옛 속담에, “지옥은 조롱 받은 여인처럼 분노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조롱 받은 여인의 분노는 그 의가 하나님에 의해 조롱 받은 사람들의 격분에 비교되는 달콤한 위안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은 언제나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불쾌하다. 그것이 그랬던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그런 방법이다. 십자가의 실족케 하는 것은 그치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5:11).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신다. 그것은 사람의 교만을 실족케 한다. 완전한 타락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며, 선하지 않음을 선포한다. 그것은 사람의 의를 실족케 한다. 무조건 택정은 구원을 오로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으로 결정된 문제로 만든다. 그것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하는 신 — 자신의 의지를 실족케 한다! 제한된 속량은 구원을 그리스도만의 공로가 되고 확증되게 한다. 그것은 사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높은 긍지를 실족케 한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는 새로 태어남과 회개와 믿음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로 만든다. 그것은 사람의 오만한 권력욕, 높은 개인적 신성의 느낌을 실족케 한다. 성도들의 인내는 구원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혜와 영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존하게 한다. 그것은 사람 자신의 의에 대한 사랑을 실족케 한다.

아침하는 대적들

우리의 가장 혹독한 대적들인 그들은 종종 화가 난 대적들로서 보다 아침하는 친구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20 절에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척하는 자들이었던 염탐꾼들을 보냈다는 것을 본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주 예수를 덮에 걸리게 하려는 것이었고 로마 정부에 의해 그분을 처형하게 하려 과장된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21 절에서 그들의 아침하는 말을 본다. —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사람들이 언급했던 것은 완전히 진실이었고, 그들은 그것이 진실인지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을 싫어하였다. 그들은 그분이 그분 자신과 그들에 대하여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우리 구원자께서 사람의 외모로 눈이 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실되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거짓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들에게 있어서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은 좋게 들리고 훌륭하게 들린다. 무지한 방관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리에 관심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은 단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내적 증오를 덮으려는 외적인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그들은 영광의 주를 속이는 미친 관념 아래, 편의상 양의 가죽을 쓴 늑대들이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기록 했듯이, 그들의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우나, 전쟁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그들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하지만 그 말들은 뽑은 칼이었다” (시편 55:21).

당신이 지혜롭다면, 아침하는 혀에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박해에 대항하여 강하게 섰고 확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적인 친절에 의해 파멸했다 (시편 12:2; 26:28).

달콤한 것들이 쓴 것들보다 더 많은 병을 야기한다. 따뜻하고, 온화한 밝은 여름 날의 햇빛은 겨울의 얼어붙는 돌풍보다 훨씬 더 사람이 보호 갑옷을 걸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다. 마귀가 우리 친구처럼 보일 때만큼 아주 위험한 경우는 없다. 그리고 세상은 미소 짓고 아침할 때만큼 우리 혼에 위험한 경우는 결코 없다.

그 마음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부족한 적은 절대 없다. “공교하고 아침하는 말로” (로마서 16:18) 속이려 시도할 사람은 언제나 약간 있다. 모든 세대와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디오드레베 (로마서 16:18; 잠언 26:23) 같은 사람을 다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들에게 빠지지 말라.

지배적인 섭리

하나님의 지배적인 섭리의 달콤한 위로를 한번 더 보여주지 않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수 없다. 이 분노하고, 독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열망을 갖고 그들의 정욕을 좇는다. 그들은 증오심을 갖고 영광의 주를 처형하기를 원하였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은 “같은 때”라고 말한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 자신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은혜의 계획에 따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려 우리 축복의 구속자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을 수반한 모든 순간의 환경이 행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이사야 53:10; 요한복음 19:10-11; 사도행전 2:23; 4:27-28).

하나님과 가이사

22-26 절에서 우리 선생, 우리 주, 그리고 왕이시며 구원자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이 위선자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국가 법의 제반 문제들에 있어서 국가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뉘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여기서 언급된 이 사람들의 시도는 주 예수를 로마 정부에 고소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려는 계획 때문이었다. 그 때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 하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이사와 로마인들을 매우 싫어하였다. 나라 전체가 그들을 근대의 바빌론 포로로부터 구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중요 가운데, 그들은 그분을 밧에 걸리게 하려 간교한 계획을 열었다. 구원자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간에, 그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을 밧에 걸리게 했다고 확신하였다. 만약 그분이 로마 정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들은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분의 명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분이 로마 정부의 세금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신다면, 그들은 신속히 그분을 처벌 받게 하려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려 했을 것이다. 이들은 시편 22:12 에서 예언적으로 언급했던 사람들이다. —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었으며.”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들의 교활함을 좌절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로마 정부를 향한 우리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 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붙잡으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3:1-7 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우리에게 주신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1-7).

나는 우리 나라(미국)에서 정부 기관에 의해 촉진되고 장려되는 대부분의 것들 가운데 실로 많은 것들에게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나라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기꺼이 싸우겠다. 그러나 바로 사회 구조를 파괴하려는 경향이 있는 나라의 그런 법들을 눈감아 주지 못하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나라의 법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요구하지 않을 때마다, 나는 국가 정부의 법에 순종하고 해야 한다. 우리는 대가나 결과에 무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우리의 순종을 법이 금할 때라도 순종해야 한다 (사도행전 4:18-20). 그러나, 가이사가 그리스도께 불순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소유인 것들을 가이사에게 주어야 한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는, 특별히 우리가 입법의 현재 경향을 보는 것처럼, 상상 가능한 모든 정도의 난잡한 것들: 동성애, 간통, 간음, 낙태(아기를 살해하는 좋은 말), 그리고 안락사 (더이상 살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살해)를 고무하고 있으므로, 선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국가 정부에 대한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의 신성하게 명령된 책임은 이 세 가지 말로 종합될 수 있다: 내고, 기도하고, 복종하라!

내라 — 이르기를, “오직 두 가지 사항은 확실하다. 사망과 세금이다. 그리고 그 둘 중, 세금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라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언제나 종교적 광신주의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IRS 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약간 다른 관점을 취한다. 세법은 “자발적 준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세금을 내지 않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는, 믿는 자로서 유일한 염려는 이것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해야 하셨는가? —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혹자는 말할 것이다. “그러나 가이사와 로마인들은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나라와 같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의 말이 옳다. 가이사와 로마인들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지독히 사악했다 (로마서 1 장을 보라). 우상숭배는 로마인들 가운데 미쳐 날뛰었고 로마 정부에 의해 조장되었다. 가이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서 경배하기를 요구하였다. 낙태가 아침 먹듯이 일반적이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모든 상상 가능하게 다양한 부도덕이 도덕적으로 여겨졌으며, 그
에 반대하는 것이 반역적 증오범으로 여겨졌다.

기도하라 — 우리가 합법적 세금을 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의미하는 것은 법에 의해 요구된 세금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세금은 없다!) 지역 교회를 위하여 가르침을 주는 가운데 젊은 목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디모데전서 2:1-3).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말씀이다. “탄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생각이다. “중보”는 동정으로 드려지는 기도이다. “감사를 드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지명하신 국가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있어서 그분의 선하신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표현된 감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기 위하여 그들을 우리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통치자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지어 사악한 이교도 왕들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사역한다 (에스라 7:27; 잠언 16:1; 21:1).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탄원과 기도와 중보와 감사 드림”이 “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든 사람”을 위하여 행해졌고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의원들과 대법원 판사들을 위하여, 주지사를 위하여, 주 의원들을 위하여, 시장과 시의원들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에 상관 없이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불평하기 보다 우리 국가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생각과 시간과 힘을 들인다면, 우리 나라에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순종하라 — 바울은 말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로마서 13:1-2). — 기억하라, 바울은 가장 압제적인 정부, 우리 주 예수를 처형한 바로 그 정부, 그분을 따르는 알려지지 않은 수 천 명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살해하였을 그 동일한 정부 아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주께로부터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통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정부가 질서를 잡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가진 자는 법준수자가 아니라, 범법자들이다. 우리가 문제 삼는 각 단계별 정부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정부가 없으면 무질서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법이다, 정부에 복종하라.

예외

그러나 나는 당신의 학창 시절의 당신이 영어 문법에서 배운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거기엔 법칙이 있고 대부분의 법칙에 예외들이 있다. 우리는 “c 후를 제외하고 e 앞에 i”를 배웠다. 그리고 우리는 예외를 암기하라고 들었다. 예외들이 법칙을 무효화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변경한다. 비슷하게, 정부에 복종하는 법에 예외가 있다.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답하기 때문에 불복종이 필요한 때가 있다. 성경에 세 가지 분명한 사례가 있다.

1. 다니엘의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황금 형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도록 명령 받았기 때문이다.
2. 다니엘은, 율법을 어기는 가운데 주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였으며, 그로써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되었다.
3.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 것을 명령 받았던 것을 들었다. —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5:29).

어떤 정부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을 범하는 어떤 것을 하도록 명령 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 말고 선택이 없으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결과에 대해 고난을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불순종하는 것은 법에 대한 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외이다. 단지 우리가 부여된 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그 법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심지어 그 법들이 그 핵심에 있어서 많은 우리 법들이 그런 것처럼 저질이고 악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가 법에 불복종하면 안 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불복종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는 법에 복종하여야 하고, 정부를 지지하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믿는 자들인 우리는 나라의 최고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좋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고 다른 왕의 종들이다 (베드로전서 2:9-17).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 가이사에게 당신의 세금과 존경을 바치라.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확신과 당신의 찬양과 당신의 존경과 당신의 생명을 드리라.

119 장. “부활의 자녀”—누가복음 20:27-38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찌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세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0:27-38)

성경의 이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를 닮아 걸려들게 하려는 사두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인의 시도를 본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종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무리이지만 단연코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유대주의의 특권 계급이었고, 대부분에 있어서 제사장들과 성전을 조종하였다. 비록 그렇더라 해도,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상상하면서, 부활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 가장 진보적 종파였다. 그들은 종교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불신의 종교였다.

그들은 혼의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실재임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고,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않았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실재임을 믿지 않았다.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들은 개처럼 죽으며, 몸의 사망이 개인의 존재의 종말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였고, 성경을 가르쳤으며,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였다. 우리 앞에 있는 단락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들은 성경을 기억하여 암송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고, 잘 교육 받은 사람들이었고, 아주 지식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그들의 의도적인 질문으로 완전히 곤경에 빠지게 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완전히 불신의 종교였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대답으로 완전히 곤경에 빠졌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롭게도 이 불신자들의 부질없는 트집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부활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기회로 바꾸셨다. 성경의 이 단락 안에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바보 같은 질문과 그들에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답하신 우리 주의 대답을 생각할 때, 네 가지 사항이 큰 중요한 문제들로 두드러진다.

불신의 종교

첫째,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불신의 확연한 예로써 우리 앞에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 막대한 대다수는 기독교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직 종교적 불신자들이다. 그들의 종교는 편리함의 문제이지, 확신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한 경멸 속에서 붙잡고 있는 종교는 이들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이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가르침을 비웃었다. 그들은 그런 종교적 감성을 믿기에 단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교육을 받았으며,” 너무 “빛 비춤을 받았다.” 주 예수께 그들이 제시한 질문은 그들의 위선은 물론 그들의 오만도 보여 준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위선적으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척하였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존경하는 척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염려를 하는 척 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질문을 마치 사실에 입각한 것인 양, 마치 그 질문들이 대답을 아는데 정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제시 하였다. 어느 통계학자들 당신이 각각이 죽은 후, 여인을 자녀 없이 남겨둔 일곱 형제들이 동일한 아내와 결혼하는 것보다 복권에 맞을 기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훨씬 더 크다고 말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질문을 야기하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그들이 주께서 대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현대 종교적 불신자들이 우리를 뺏아 버리게 하지 않도록 거기서 배우도록 지혜롭게 되자. 트집쟁이 종교 불신자들이 당신과 논쟁하기를 원할 때, 그들을 단지 무시해라. 그들에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을 주고, 그들을 떠나도록 해라. 만약 뱀과 치열한 경쟁에 끌려들어 간다면, 당신은 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어렵고 난해한 점들로 압박하려 한다. 그들은 언제나 부정직한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욕 말고는 아무 것도 받을 것이 없다.

마가복음 12:24 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였던 이 동일한 사람들의 무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영적 무지와 교리적 오류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사항에 기인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2.)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들이 성경의 글을 알았다는 것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은 성경의 엄청난 단락들이 암송하여 인용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적 사건들과 연대기에 대하여 아주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고, 심지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언급한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의미와 말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절대 없었다. 그들의 깨달음은 세속적 논리와 종교적 전통에 대한 이해 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당신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가? 하나님의 책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누가복음 24:27, 32, 44-45; 요한복음 5:39; 베드로전서 1:23-25). 영적 지식은 단지 교리적 지식, 계몽적 지식, 논리적 지식, 그리고 사실적인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영적 지식은 위격, 그 위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분에 대한 계시된 지식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활의 가르침에 대하여 논쟁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한 인격이다. 그리스도는 부활이다 (요한복음 11:25). 당신은 가르침을 알지 않고서 그 위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분명히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하여 알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 수 없다. 구원은 교리적 지식 그 이상을 포함한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3). 그리스도는 선택 받은 죄인들의 부활이고 생명이다. 전형적으로 구속 안에 있고 (에베소서 2:4-6), 체험적으로 거듭남 안에 있으며 (요한복음 5:25; 계시록 20:6; 골로새서 3:1-3), 그리고 장차 마지막 날에 있다 (골로새서 3:4).

하나님의 진리, 그분의 은혜의 복음은 교리와 역사적 사실들 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 복음은 위격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스도이다 (요한복음 14:6). 물을 필요 없이, 이 위격은 계시된 교
훈적인 진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와 우리 안에 계시되고 알게
되었다. 그러나 생명과 구원은 우리 모든 영광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안에서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으로 온다 (요한복음 17:3; 디모데후서 1:12). 구원은 단순
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나의 하나님, 나
의 보증, 나의 대속자,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적 무지, 교리적 오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단은 우리 구원자
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에 기인할 것이다. 나는
세 가지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당신이 성경을 통하여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
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1.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절대적인 권
위에 대한 철저한 무지로부터 생기고 그것에 기인할 것이다.
2.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전능함에 대
한 철저한 무지로부터 생기고 그것에 기인할 것이다.
3.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에 대한 철저한 무지로부터 생기고 그것에 기인할 것
이다.

이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전능과 그분의 복음에
대하여 완전히 무지하였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 모든 이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들, 모든 영적 무지는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모든 거짓 종교, 모든 자유 의지, 행위 종교는 택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주권, 구속과 거듭남과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있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전능, 그분의 귀한 아들의 피로 성취된 구속에 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의 능력을 부인한다. — 복음 전도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17-24).

천국을 받을 가치

이 트집쟁이 불신자들에 대한 우리 주의 대답 안에서 우리 혼을 위한 달콤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발견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34-36 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것은 장래 세상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이 세상에 있는 얼마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고린도전서 15:50)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계시록 21:27). 하지만,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서 선포한, 장래 세상을 얻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이 세상이 얼마간 있음을 강조하신다 (골로새서 1:12-14; 데살로니가후서 1:3-5).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장래 올 세상을 얻기에 합당하게 만드는가? 이 네 가지 사항이 그것들을 규정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항이 그들이 하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든다.

1. 하늘의 기록 책! —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 전부터 합당한 것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8:28-30).
2. 구속자의 보혈! —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였다.
3. 하나님의 의! —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변할 수 없도록 의로우며,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4. 은혜의 거듭남! —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났으므로, 그들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시다 (골로새서 1:27).

매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적어도 하나의 외국을 여행한다. 나는 동서남북으로 우리 나라의 국경을 넘었다. 내가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라를 떠며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마다, 세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1.) 내 시민권을 증명하기 위한 출생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나를 받아 줄 나라로부터 받은 비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3.) 전과가 없이 깨끗한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곧 나는 이 비
통과 죄의 땅을 떠나갈 것이다. 나는 하늘의 낙원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에 소망한다. 내가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져
서 영원히 서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 소망의 근거이다...

- 출생 증명서 — 주 하나님께서 내게 새 본성을 주셨다 (고린도 후서 5:17). 내 안에 의와 참 거룩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조된 새 사람이 있다.
- 비자 —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으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갈 권리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열납 되도록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 썬니.” 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2:21),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 그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의롭게 만드셨다!
- 깨끗한 기록 —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로도 나를 결코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 (로마서 4:8).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이 나의 이름으로 된 범죄와 죄를 책에서 찾으실 때, 그분은 아무 것도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50:20).

당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갖고 있는가? 당신은 장래 올 세상을 얻을 자격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 생명

우리 구원자는 부활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신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는 부활 영광 가운데에서처럼 어떤 생명이 있을 것에 대한 약간의 일견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34-36 절).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의인과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과 양심 위에 새겨져 있다. 누구든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다. 인간은 자신의 양심에 거슬러 거짓말을 한다. 부활의 이 가르침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의 가르침이다 (출애굽기 3:6; 욥기 19:25-26; 시편 16:9-10; 49:15; 73:24; 호세아 6:1-2; 다니엘 12:2; 요한복음 5:29; 고린도전서 15:25-58; 데살로니가전서 4:13-18).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부활 안에서 우리는 “천사들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뜻인가? 내가 이제까지 알아차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동등하게 확신한다.

1. 부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구별과 약함과 필요와 동정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하다.
2. 부활 안에서 혼인과 출산의 필요가 없을 것인데, 더이상 질병이나 비통이나 사별이나 사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루시는 권세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과 하나됨에 있어서 불완전함은 없을 것이다.
3. 그리고 부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열납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완전한 지식과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방해 받지 않는 완전한 보증의 확신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구속자와 함께 온전하고, 방해 받지 않는 교제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우리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합당하고 감사하는 섬김에 언제나 참여하게 될 것이다. — 그분께 경배드림! — 그분의 찬양을 노래함! —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축하함! — 그분의 뜻을 행함! 우리는 깨지지 않고, 영존하는 안식을 갖게 될 것이다! 위에 있는 그 천상의 영들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구원자를 응시할 것이다.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태복음 18:10). “저희가 그의 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굴을 볼터이요!” (계시록 22:4) —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열 굴을 보리니, 깎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15).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37-38 절).

다시 말하지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여기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들은 분명하다. 이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지 않았고, 살아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대표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들은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 눈물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완전히 누리지 않았다 (히브리서 11:13-16).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삶 속에 쌓여 있었다. —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22:32).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1:16).

하나님의 말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37 절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에게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광대하고, 한없는 책이 아닌지! 그것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커진다.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두뇌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는 책이다. 우리가 그 책을 가능한 깊이 그리고 완전히 공부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였을 때, 우리는 오직 그 표면만 긁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의 비밀을 영원히 무한한 세대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보여주겠다. 우리 주께서 37 절에서 인용하신 단락은 출애굽기 3:6 이다. —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 만약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의 이 단락은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누가 꿈이나 꾸었겠는가? 주 예수께서 우리의 본문을 설명하실 때까지, 역사상 이제까지 아무도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해석을 한 사람이 없다. 혹자가 한번은 다음과 같이 썼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자, 한 자가 전능한 손가락으로 기록되었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영존하는 입술에서 나왔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성령으로 인하여 받아 적었다. 모세는 그의 불타는 붓으로 기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붓을 인도하셨다. 다윗은 달콤한 시편을 연주하고 노래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들을 현 위에서 움직이게 하였고 그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셨다. 베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의 주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 영원한 분, 볼 수 없는 분, 전능한 여호와와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책이다. 이봐, 나를 읽어! 나는 하나님의 기록이고, 내 면을 열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의 저자시고 당신은 모든 지면에 나타난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고 말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음성을 나는 듣는 것 같다.”

하나님의 책을 읽어라.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 그것을 기록한 분께 기도하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을 받을 것이며 그것들이 당신에게 계시될 것이다. 아,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세상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만드시며,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얼마나 크고, 한이 없고, 대가 없으며,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인지! —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와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27:4).

120 장.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주—누가복음 20:39-47

“서기관 중 어떤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 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 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 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39-4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분이 그들을 향하여 (19 절) 포도원의 비유(9-18 절)를 말씀하신 것을 똑바로 깨닫고, 우리 주의 가르침에 크게 마음이 상하였다. 그분의 가르침에 마음 상하여서, 이 사악한 종교인들은 이후 모든 세대에 있는 그들의 후계자들처럼, 교묘한 질문으로 주 예수를 잡으려 시도하였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 말씀을 그분을 향하기를 바라면서, 온 시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내내 신실하고 정직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반대하던 자들이 항상 그런 것처럼, 그들의 계략에 역으로 당했다.

일단 우리 주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으셨으며, 그분은 그분 자신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과 종교적 속임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셨다. 사두개인들은 부인했던 부활의 가르침을 믿었던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에 대해 하신 주의 대답에 아주 즐거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 모든 세 무리는 단지 독선적인 종교주의자들이고, 그리스도와 그분에 의한 구원을 철저히 멸시하던 자들이다. 우리 주께서 그들의 뻔한 거짓말을 꿰뚫어 보셨다. 그분은 다른 자보다 한 사람에게 더 좋은 인상을 받지 않으셨다.

쓰라린 노출

첫째, 우리 주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이 종교적 위선자들의 무지를 드러내셨다. 그분의 대적들의 트집을 참고 침묵하게 하신 후, 우리 주께서 그들에게 판을 뒤집어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무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셨다. 기억하라,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혹은 심지어 평범한 종교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 시대에 가장 존경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 세대의 대부분의 존경 받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무지했다. 그들의 무지가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던 것이 그들에게 얼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 쓰라렸을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주 예수께서 여기 하셨던 것이다.

그분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들 모두가 그의 주로서 인정하였던 분 메시야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고 있는 시편 110 편에서 발견된 표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그들은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그들은 아연실색하여서 어떤 식으로의 답변을 할 수 없었다. 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야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고 구원자이신 분이 한 분 영광스러운 위격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이자 충만하게 사람이셔야 하고 사람이신 분임을 성령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편 110 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선포한 것이다. 그들의 이 시편에 대한 무지가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났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교사인채 하면서,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권위로써 가르친다고 주장했던 성경에 대하여 그들은 완전히 무지하였다. 아무 것도 더 황당하고 짜증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성경의 말씀

둘째, 주 예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책은 그분과 그분의 위격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심 안에서 그분의 큰 영광에 대한 모든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우신다. 나는 당신에게 다시 성경이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일깨우겠다. 하나님의 책의 감동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일한 충만이 있다. 우리가 더 읽고 학습하면 할수록,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더 큰 것을 얻고 더 많이 그것이 내포한 것처럼 보인다. 다른 모든 책들은 반복하여 읽혀진다면 세속적인 것이 된다. 그 책들의 약점은 분명하게 된다. 얼마 후, 그것들은 모두 낡아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은 더욱더 신선함을 얻는다. 그것은 더 충분히 학습한다면 더 폭넓고, 더 깊고, 더 충만한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 눈 앞에서 지속적으로 솟아나고 있는 신선한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하며, 명확하다. 하나님의 책은 영적 보화의 고갈될 수 없는 광산이다. 성경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말고는 아무 것도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디모데후서 3:16-17; 베드로후서 1:21).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오직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말씀만 있다.²¹

²¹ 성경의 완전한 조화와 유일성은 단순히 우리 믿음에 대한 위로와 확신의 그 신성한 기원과 큰 근원에 대한 대답 할 수 없는 논쟁이다. 만약 내가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나신 증조부를 본다면, 그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보다 덜 기적적일 것이다. 성경은 세 가지 언어(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두 곳으로 분리된 대류에 살았고, 16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사십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어떤 부분들은 궁정에서 기록되었고, 어떤 부분은 감옥에서 기록되었다. 어떤 부분은 대도시에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다른 부분은 목동과 어부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어떤 부분은 전쟁과 역병과 위험한 기간 동안 기록되었고, 다른 부분은 황홀하게 기쁜 기간 동안 기록되었다.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자들은 사실상 삶의 모든 방면에서 왔다: 사사, 제사장, 왕, 선지자, 총독, 목동, 서기관, 어부, 그리고 병사 등이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환경과 상황과 장인과 시간 가운데 세대들이 성경의 산출에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책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그 모든 부분 가운데, 오류가 없고, 모순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이다.

“다른 국적의 40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정도의 음악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대성당의 오르간에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결합될 때 어떤 종류의 충돌도 없이, 예순 여섯 개의 다른 음표를 치면서, 이제까지 들었던 것 중 가장 장엄한 오라토리오의 주제를 산출한다. 이 사십 인의 다른 사람들 뒤에 한 사람의 지휘자, 한 사람의 위대한 악장이 있었음을 보여주지 않는가? 어떤 큰 교향악단을 청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책의 주제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이며, 그분의 피로 인한 구속과 구원이다 (누가복음 24:25-27,
44-47; 사도행전 20:26-27; 고린도전서 2:2).

시편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 이 사실을 본다. 이 책은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신 분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열
 때, 그 책이 그분의 말씀인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여시도록 기도하자.

시편은, 우리 주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인용하신 것은, 모두 그분
 에 관한 것이다. 아마도 시편처럼 성경의 어떤 부분도 글자로 더
 잘 알려진 곳은 없고, 어떤 것도 영 안에서 거의 이해되지 않는 것
 이 없다. 그것은 우리 주의 시대에서도 실질적이었다. 동일한 것이
 오늘날도 사실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시편에 대
 하여 어떤 것을 안다. 어떤 교회들 안에서 시편은 매주 노래로 불
 려진다. 어떤 사람은 시편을 독자적으로 부른다. 하지만, 시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
 다.

대체로 모든 사람이 시편의 어떤 것은 구세주에 대한 것이고, 그

할 때, 엄청나게 다양한 악기들이 그들의 다른 부분을 연주하지만, 선율과 화성
 을 낳으므로, 우리는 이 많은 음악가들의 뒤에는 작곡가의 인성과 천재성이 있
 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학의 홀에 들어가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하늘의 합창단의 노래를 들을 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일치하여 조화를
 이룬 가운데, 우리는 그 음악을 작곡하시고 그들의 입에 이 노래를 주신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안다.” — A. W. Pink.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시편 모두가 누가복음 24 장에서 그렇다고 그분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분에 대하여 말씀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극히 드물다. 그렇다, 시편은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의 느낌과 체험과 찬양과 기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우리 구원자께 향하게 하고 그분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시편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 — 그리스도의 오심 —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 — 치욕 가운데 그리스도 —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심 —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심에 대하여 충만한 책이다. 시편은 우리 주의 위대한 강림 — 치욕의 강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과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시려 나타나셨을 때 —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강림,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영광에의 집으로 모으시기 위하여 죄가 없이 재림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대하여 말씀한다. 왕국이 이 세상에 있다. 은혜의 왕국, 택정한 자들이 모이는 동안, 그리고 영광의 왕국, 모든 방언이 예수께서 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이다.

만약 우리가 기록된 말씀의 문자를 읽기만 하고 기록된 말씀이 언급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의 위격과 성품과 성취와 은혜와 위대함과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셋째, 주 예수께서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심과 통치를 선포하신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 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2-43 절).

다윗이 정확하게 그것을 말하였는가? 그가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중보자로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선포하였는가? 실로, 그는 그랬다. 그러나 우리 중보자이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심은 그분의 성취된 구속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지 않은가 (시편 2:8; 요한복음 17:1-5; 빌립보서 2:5-11; 로마서 14:9)? 따라서 그분이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지 않았고, 그분의 백성을 아직 완전히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이미 보좌에 앉으셨을 수 있는가? 세상의 기초로부터 살육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역사가 성취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미 보좌에 앉으셨다.

시편 110 편을 다시 읽어라. 성령께서 다윗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위대한 구속이 그분께서 시간 가운데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미 보좌에 앉으셨음을 단호하게 주장하였다는 것을 주의 깊게 주목하라. 사실상, 이것은 바로 이사야 6 장에서 이사야가 보고 체험하였던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로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비밀하게 우주적인 지배의 통치권을 받으셨다 (요한복음 17:5). 그분은 그 통치권을 공개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으로 그분의 승천 때 받으셨다. 그분은 이제 그 통치권을 쥐고 계시며, 영원히 갖고 계실 것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우리 구속자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곧, 그분의 모든 대적들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나 진노의 처형에 의해서든) 그분의 발 아래 놓여질 것이다 (이사야 45:22-25; 고린도전서 15:24-25).

하나님-사람

44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훌륭한” 종교적 백치들에게 무르셨다 —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그 질문에 말문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구원 받은 가장 가련하고, 가장 배우지 못한 죄인에 의해서도 쉽사리 속히 대답될 수 있는 질문이다 (요한복음 1:14-18; 디모테저서 3:16).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이 큰 비밀을 알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정말로 축복인가. 우리 위대한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조상”이자 “자손”이다. 영원한 아들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확실하다: — 다윗의 조상, 만물을 지으신 분. 그리고 인자로서 그분은 자손이시며, 가지로서 그분의 조상에서 나와 자라실 것이 약속되었다 (이사야 11:1).

보배로운 구원자! 축복의 구속자! 당신께서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을까? 그러나 당신 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문에, 오 축복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으니, 영생이 당신의 의와 피의 공로와 효험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네! 하나님-사람의 순종으로 가져온 의가 하나님의 의이다 (로마서 10:1-4). 죄의 속량을 위하여 뿌려진 피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 인자의 피이다 (사도행전 20:28). 그리고 그것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이고 구원자시며, 그는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영원히 그분의 보좌 위의 우리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며, 우리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변호자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되셨다!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보장되었는지! 우리가 그래야 하듯 얼마나 평화롭고 확신을 갖는지!

시간을 초월한 경고

넷째, 우리 구속자께서 다시 우리에게 종교와 경건의 모양을 만든 모든 자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경고하신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과 인정 받고 존경 받은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질책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위선과 종교의 모습보다 더 추악한 죄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의 세상 사역의 전체 과정 동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빈번하고, 강하며, 압도적인 질책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없었다. 우리 구원자께서 죄인들의 과수를 위한 공훈과 동정으로 언제나 충만하시다. 그분이 삭개오, 참회하는 강도, 세리 마태, 박해자 사울, 그리고 시몬의 집에 있던 여인을 보셨을 때 그분 속에 분노가 없었다. 그러나 그분이 종교적 가식의 망토를 입고, 그들의 마음은 사악함으로 충만하면서도 외적으로 크게 고결과 경건과 신성한 척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셨을 때, 그분의 거룩한 혼은 분노로 충만하였다. 한 장 (마태복음 23 장)에서 여덟 번이나 우리는 그분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시다.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 가운데 있든지, 진실되도록 하자.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순종이 얼마나 연약할 지라도, 실질적이고, 순수하며, 진실하도록 하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권고한 갑옷의 그 첫 번째 것이 “진리”임은 우연이 아니다. — 그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에베소서 6:14).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종교, 헌신, 경건, 신성, 그리고 거룩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누구든지 진실로 행하라. 그러면 그는 그의 보상을 받는다. 그의 종교, 헌신, 경건, 신성, 그리고 거룩은 모두 외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은 모두 받을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한다.

고통의 정도

다섯째, 우리는 지옥에서 저주의 정도가 있음을 가르침 받고 있다. 이 교훈적인 장에서 우리 구원자의 마지막 말씀은 독선적 종교주의자들의 더 큰 정죄에 대한 말씀이다. —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광의 정도는 없다.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를 위하여 얻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옥에서 저주의 정도가 있다.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의 영원한 고통은 인간의 사악함의 정도에 따라서 신성한 공의에 의해서 측량되고 실행된다.

이 확고한 말씀을 읽지 말고 잊어버리라. 그 말씀은 타락한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저주 받은 모든 사람의 경우처럼 끔찍할 것이지만 (누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끔찍한 고통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아직 더 큰 저주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밟아 아래 짓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자들 위에 임할 것이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사야 65:5).

너무 교만하지 말라. 너무 어리석지 말라. 아,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믿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죄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샘이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옥에 영원한 저주 말고 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무 것도 없다. 아 죄인아,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솟아난 피로 가득 찬 그 샘 속으로 뛰어들어라. 죄인들은 그들의 모든 죄의 열락을 없애는 그 큰물 아래로 뛰어 들었다.

121 장. 어려운 때를 위한 공과들—누가복음 21:1-24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뺨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

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찌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찌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1-24).

우리는 어려운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이는 위험한 날들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날들이다. 그러나 그 날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보다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어렵다. 당신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에 가득 차 있다. 도덕적 타락과 간음과 간통과 동성애와 소아에 등 그것이 낳는 것들은 그냥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서도 범으로 적극적으로 진작되고 있다. 태아의 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혹한 살육은 사마귀를 제거하는 것처럼 일반화 되어 있다. 어떤 정도를 벗어난 논리로, 멸종에서 방울뱀을 보호하기 원하고 실험실 쥐의 오용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동일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기의 살해는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다! 가정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 전쟁이 매일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가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성경 단락이 내 마음에 온다 (신명기 31:17; 시편 10:4; 갈라디아서 6:7).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신명기 31:17).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10:4).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매일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 이런 위험한 때에 우리 혼을 위한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누가복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음 21 장의 처음 24 절에서 우리 축복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운 때를 위한 필요한 공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들을 함께 보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

여기 첫 번째 공과가 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얼마나 예리하게 관찰하시는지. 우리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라는 것을 읽는다.

우리 주의 생각이 다른 것들에 있었음을 내게 합리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그분의 배신, 그분의 불법적 체포, 그분의 조롱거리 재판, 그분의 십자가 처형, 그분의 고난 당하심, 그분의 죽으심이 모두 임박해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아셨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스라엘 민족의 내쫓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복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대의 오랜 기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재림은 모두 큰 그림처럼 그분의 생각 앞에 모두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넣는 것을 보시고.”에 주목하셨다.

진실로, 그 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13). — “여호와와 그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3). 아무 것도 그분의 관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그분의 기억의 책 안에 기록된다. 권능자의 대회의장을 보는 그 동일한 눈이 당신의 집과 생각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관찰하신다. 그분은 이 부자들의 뽐내는 태도를 관찰하셨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큰 희생을 관찰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유도 관찰하셨다.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 그 사실은 끔찍하며, 그해야 한다. 믿는 자에게 그것은 복된 위로이다 (요한복음 21:17).

파멸에 대한 예상

여기 두 번째 공과가 있다. — 이 땅 위의 모든 것이 파멸이 예상되어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누가복음 21:5-6).

이 말씀은 충격적인 예언이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고 놀랍게 들렸겠는가. 예루살렘 성전은 이 말씀이 주어진 후 단 수년 만에 철저히 파괴되었다. 곧, 모든 세상 건물들과 모든 세상 것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상을 주고 귀하게 여기든지 간에,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고 파괴 될 것이다. 이겨 있는 것을 손에 움켜쥐지 말라. 당신이 죽었을 때 그것에 가치를 둘 것보다 이 세상 위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고린도후서 4:17-5:9).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그것은 놀라운 건축물이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파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 건물을 우상 숭배로 바라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주신 본에 따라 지어졌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건물과 관련하여 존경 받은 이름들이었다. 세상 모든 구석에 있는 모든 독실한 유대인이 매일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파괴되어야 했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한 때 하나님의 체현된 영광의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던 장소였지만, 사람들이 삼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서 경배를 드렸던 곳이었지만, 빈 껍데기가 되었으며, 도둑의 소굴이 되었고, 사탄의 회당이 되어 버렸다. 한 때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곳이 바벨론의 매춘 굴이 되었고, 파괴되어야 했었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역 교회에도, 모든 종교의 모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버린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바빌론이 몰락할 때, 그 침상에서 자고 있던 모든 자가 그와 함께 몰락할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타오를 때, 모든 거짓 종교는 나무와 건초와 남은 그루터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참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종교적 체계도 아니며,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는 가련한 죄인들의 부서지고 통회한 마음이다 (요한복음 4:23-24; 빌립보서 3:3).

거짓 그리스도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누가복음 21:7-8).

세상의 종말이 언제가 될지,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리고 그 큰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를 모두가 알기 원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7 절에서 질문된 그 질문을 완전히 지나치시는데, 모든 그와 같은 질문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질문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감추셨기 때문이다. 우리 주께서 예언에 대한 그들의 헛된 호기심에 빠지기를 거절하셨다. 우리도 그와 같은 동일한 것을 하도록 지혜로 워야 할 것이다.

대신에,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관심이 되어야 하는 문제로 그분 자신을 말씀하셨다. 여기 그 세 번째 공과가 있다. —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이 세상이 있으며, 그들로 인하여 많은 대중이 속고 있다. 그리스도라 주장했던 분인 우리 주의 십자가 처형을 따르며 그 해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들의 시대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이름 안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다 (고린도후서 11:3-4; 갈라디아서 1:6-9; 요한일서 4:1-3).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정직하게 유의할 것을 촉구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4-5, 21-24).

분명한 사실은 그로 인하여 인간의 혼이 속고 저주 받게 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관대하고, 친절하고, 은혜롭기를 원한다. 그러나 관대함과 친절과 은혜는 불멸의 혼들이 속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는 동안 내가 침묵하는 것을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올챙이를 믿고 구원 받는 것보다 더 이상 구원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와 그분만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구원은 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말고 아무에게도 약속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본문 안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 받았다. 우리가 몇몇의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 속지 않도록, 성경의 가르침을 분별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 그분은 사회적 자선가였다. 우리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다. 동정녀 출생, 성육신, 부활은 모두 우화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를 아주 의혹할만한 도덕적 성격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여긴다.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에 속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속는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에 의해 속지 않는다. 오직 떠버리 바보는 자유주의자들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한편 그리스도인인척 할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거짓 그리스도이다. 자유주의자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타락하였다.

우리는 또 다양한 이단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 그는 선한 사람으로, 예언자로, 도덕 교사로, 하나님의 첫째로 가장 위대한 창조로, 혹은 심지어 제 2의 신의 한 종류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단의 그리스도는 결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상징되지 않는다. 그들의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다른 신으로부터 그의 존재를 받는다. 이것은 물론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속지 않는다. 이단의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이단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타락하였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안다. 가톨릭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위한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을 받으셨고, 죽고, 장사되고, 셋째 날 다시 사셨고, 하늘에 다시 승천하셨으며, 그가 다시 오실 것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다.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는 그들 자신의 선행, 제사장들의 중재, 교회의 성사가 없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속지 않는다. 비록 많은 사람이 로마 가톨릭 우상의 흑암으로 저주 받았지만, 그것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속지 않을 것 같은 위험과 속임수가 아니다. 가톨릭교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지만, 거짓 그리스도이다.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타락하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자유주의자, 이단, 로마 가톨릭 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인간의 혼이 여러 해 동안 속아왔고, 수백만이 오늘날 속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 사실상,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 엄청난게 많은 수가 궁극적으로 그들을 영원한 파멸로 이동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해야 하겠다. 이 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이며,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속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분이 그 택정한 자를 속이셨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4:24). 그분은 구별되어야 한다. 내가 언급하는 그리스도는 아르메니아 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이다.

내가 자유주의, 이단, 로마 가톨릭의 거짓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런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저주로 결론지어질 것임을 사람들에게 경고함에 있어서 내가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아르메니아 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타락하였다는 것을 담대하게 주장할 때마다, 나는 악한 사람으로 응징 받는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처럼, 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위험에 대하여 당신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다.

아르메니아 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는 여러 방면으로 참 그리스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극히 위험하다. 이 시대의 자유의지 주의자들과 행위 장사꾼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참 그리스도이며, 모든 방면에서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심지어 그분이 사람의 행위를 제외하고 은혜로만 구원한다고 주장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다. 그들은 선행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이 그리스도의 헌신자들은 자유주의자, 이단, 혹은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에게서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보가 되지 말라. 아르메니아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거짓 그리스도이다. 이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도 역시 타락하였다.

그 문제를 확실히 깨닫도록 하라. 그 문제는 구원받기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혹은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누구인가 이다. 내가 누구를 알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17:3 에 분명하게 천명되어 있다. 우리는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현대 종교, 아르메니아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거짓 그리스도와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섯 가지 비교를 해 보겠다. 성경의 빛비춤 안에서 이 다섯 가지 비교를 고려할 때, 당신이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 사이의 분명한 구별을 보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1. 현대,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똑같이 갈망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로우시다고 듣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뜻과 은혜를 무기력하고 쓸모 없게 만든다. 그러나 그 말은 성경의 그리스도에 적용될 수 없다. 참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백성의 구원을 뜻하시고 기도하시며, 그분의 백성, 영원 전부터 구원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백성, 그가 구원하려 오셨던 자들에게 은혜로우시다 (시편 5:5; 7:11; 11:5; 마태복음 1:21; 11:27; 요한복음 10:16; 요한복음 17:9-10; 사도행전 13:48; 로마서 9:21-24; 에베소서 1:3-6).

2. 현대,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가 모두를 구원하려 애쓴다.

우리는 그분이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다고 듣는다. 그러나 그분께 나와 구원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의지로 인하여 그분의 제안은 거절되고 그분의 역사는 좌절된다. 성경의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원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것을 수행하신다! 은혜는 제안이 아니다. 그것은 운행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효험 있게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 그분의 양 떼를 그분 자신에게 부르시며, 그분의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그들 가운데 구원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가? (시편 65:4; 110:3; 이사야 55:11; 요한복음 5:21; 6:37-40; 10:3, 25-30; 17:2; 빌립보서 2:13).

3. 아르메니아주의의 거짓 그리스도는 그에 의해 구원 받도록 먼저 선택하지 않은 누구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듣지만, 사람의 뜻을 범하는 것이 그분에게 의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뜻이 사람의 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로 묶일 것이며 기다려야 한다! 참 구원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상상의 자유의지를 범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매우 감사한다. 그분이 나의 자유의지를 범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타락하였거나 지금 지옥에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된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모든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신다. 그분의 은혜에 속한 운행하심은 전적으로 죄인의 의지와 선택과 무관하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를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한 죄인들은 절대로 그분을 믿고 믿음 안에서 그분께 오거나 올 수 없다. 믿음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기여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운행의 이유가 아니라, 결과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요한복음 3:3-7; 6:44, 65; 15:16; 사도행전 11:18; 로마서 2:4; 3:4; 9:16; 에베소서 2:1-4, 8-10; 빌립보서 1:6, 29; 골로새서 2:12; 히브리서 12:2).

4. 현대, 아르메니아주의, 자유의지, 행위, 사람 중심 종교의 거짓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가 구원 받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려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의 죽음으로 누구의 구원도 보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속 받고, 의롭게 되며, 구원 받을 수 있게 만드셨다고 듣지만,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을 믿을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도 효험이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불신 가운데 멸망하는 모든 자에게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을 듣는다. 비록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했지만, 실패하셨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좌절된 실패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없애셨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과거에도 이제도 영원히 용서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며, 거룩하게 되었다 (이사야 42:4; 53:8; 마태복음 20:28; 요한복음 10:14-15, 26; 사도행전 20:28; 로마서 5:9-10; 에베소서 5:25; 히브리서 9:12; 10:10-14; 베드로전서 3:18; 계시록 5:9-10).

5. 아르메니아주의의 거짓 그리스도는 그로 인하여 구원 받았던 자들이 마지막까지 매달리고 붙잡고, 버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잃는다.

오늘날 이단 침례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들의 죄가 “영원한 보증”이라 불려지게 된 것을 갖고 있다고 보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계획 위에 기초한 보증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피나, 혹은 그분의 영의 운행 위에 기초한 보증이 아니다. 자유의지 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비슷한 사람들을 위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보증”의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기도한 보증의 선포이다. 참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그분의 선택을 받고, 구속 받고, 부름 받은 자들을 보존하며 따라서 그들이 종국에 떨어져 나가거나 멸망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뜻의 불변함과 그분의 피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의 효험과 그분의 영의 인치심과 그분의 중보의 온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함에 의한 생명과 은혜와 믿음 안에 지켜진다 (말라기 3:6; 요한복음 5:24; 10:26-29; 로마서 8:28-39; 베드로전서 1:2-5; 유다서 24-25).

먼저 보기에, 현대, 아르메니아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를 근접하게 닮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자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이다. 다른 쪽은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한 쪽은 약하고 무기력하며, 사람의 뜻을 기다리고 거기에 머리 숙인다. 다른 쪽은 주권적인 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뜻하시고 그분이 뜻하신 것을 행하는 분이다! 한 쪽은 당신의 협조로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쪽은 당신의 쪽에서 어떤 협조도 없이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의 구원이 당신의 협조를 산출한다!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은 성경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그들은 속고 있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 그리고 그분 자신에 의해 그분의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혼에 관심하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에 아무런 신뢰를 주고 교체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6:14-7:1; 계시록 18:4). 우리는, 어둠과 속임수와 환상의 이런 시대 가운데, 그분의 모든 구원의 충만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야 한다. 그분 자신만 구원하실 수 있다 (로마서 1:15-17). 그리스도만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양망하고, 찬양하고, 칭송하자 (이사야 59:16).

곧

여기 네 번째 공과가 있다. — 주 예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이며, 그분이 9 절에 “곧”이라고 하신 것과 같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1:9).

우리는 그분이 어떤 순간이든 오실 것을 주시하고 보고 있어야 한다. 그분이 나타나신 것을 기대하면, 그분은 곧 나타나신다. 하지만, 우리는 종말의 때가 곧 임박한 것으로 절대 생각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기대로, 믿음의 발끝에 서서 그분을 주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과 인내로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 앞에 있는 세대를 보고 우리에게 의해 영향을 받을 장래 세대를 바라보며 그분을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

확실한 고난

여기 다섯 번째 공과가 있다. —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고난은 확실하고 오직 늘어갈 것이고, 세상에 있는 고난과 복음에 대한 박해와 주 예수께 경배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모든 자들은 늘어갈 것이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꺾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누가복음 21:10-12).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29).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질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21-25).

그리스도를 고백함

여기 여섯 번째 공과가 있다. — 큰 고난의 시간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큰 기회의 시간이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꺾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재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12-15).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구원자께서, “도리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하셨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하고, 이 사악하고 빼뺏어진 세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구원의 은혜에 속한 영광스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큰 기회를 공급한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것을 갖고 나오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 동안 필요한 우리에게 “구재와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구재와 지혜”는 복음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될 우리 마음 속에 그것을 자리잡게 하도록 하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증거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으므로” (디모데후서 2:9), 우리의 변호자께서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것이다.

온전하게 안전함

여기 일곱 번째 공과가 있다. — 비록 우리가 배신당하고, 증오 받고, 박해 받으며, 때로는 죽음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은 언제나 그분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온전하게 안전하며, 어떤 해나 종류의 상처로 고통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멧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16-18).

기록되기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잠언 12:21) —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이사야 3:10).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인내로 얻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찌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찌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누가복음 21:19-24)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기 여덟 번째 공과가 우리 본문 안에 있다. —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고난의 때 한 가운데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19).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 자신을 두려라,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과 구원자를 두려라. 아무 것도 당신을 방해하고 괴롭히지 않게 하라. 당신은 세상이 앓아 갈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당신의 혼 안에 가졌다 (로마서 5:3-5).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모든 택정한 자가 그분의 나라에 모일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로마서 11:25-27), 은혜와 믿음과 평강의 이 인내 가운데 우리 혼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움직이시니
그분의 경이로움을 행하기 위함이네;
그가 그의 발걸음을 바다로 떼시고
폭풍 위를 타고 가시네.

측량할 수 없는 광산 깊이가 들어가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기술을 가졌음이라
그의 빛나는 계획을 보배롭게 하고
또 그의 주권적 뜻을 행하시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아, 새 용기가 취하니;
구름을 너희가 너무나 두려워하니
공홀로 크고 부서질 것이니
너의 머리 위에 있는 축복 안에서라.

약한 감각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라,

허나 그분의 은혜를 위하여 그를 신뢰하라;

화가 난 섭리 뒤에서

그가 미소 띤 얼굴을 감추신다.

그의 계획이 속히 여물 것이니,

모든 시간을 펼치네;

봉오리는 쓴 맛을 낼 것이나,

허나 달콤한 것은 꽃이 되리라.

소경 된 불신자는 분명 잘못 할 것이며

그리고 헛되이 그의 일을 살피라;

하나님은 스스로 해석하시는 분이니,

또 그가 계획을 세우실 것이네.

122 장. “실패하게 하는 인간의 마음”—누가복음 21:25-38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누가복음 21:25-38).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구절이 AD 70 년에 성과 성전을 파괴하기 위하여 로마 군대를 보내셨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주의를 파괴하기 위하여 오시는 우리 주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다는 것을 충분히 안다. 우리 구원자의 32 절에서 말씀이 그것을 수정같이 분명하게 만든다. — “이 세대 (그 때 살아 있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라.”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동의 이 단락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의 “교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로마서 15:4) 기록되어 있다. 물을 필요 없이, 우리가 여기서 읽은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디도서 2:13)을 바라는 이 시대에 합당하게 적용되게 하여야 한다.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초기 성도들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하면서 서로 인사하곤 했고, 헤어질 때, “주께서 오시리라.”고 말하였을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지속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성취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일깨웠다.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무덤에서 살아난 것처럼 확실히, 그분의 성도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살리고 부활 영광 가운데 모든 택정한 자를 하늘로 옮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확신시키셨다. 우리 구원자의 돌아 오실 것에 대한 축복의 기대 가운데 언제나 기뻐하자. 주께서 오고 계신다 (계시록 1:7).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사실에 대하여 언제나 마음에 두기 위하여 당신의 마음과 나 자신의 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음을 회저으시기를 원한다. — 주께서 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축복의 기대 가운데 믿음의 발끝에 서서 언제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의 영광 (25-27 절)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5-27 절)

우리 구원자께서 큰 두려움의 때로, 너무 두려워서 인간의 마음이 그것을 모를 때로 그분의 강림의 때를 묘사하심으로 이 강론을 시작하신다. 나는 이때가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 날에 대한 설명으로 취해야 한다면, 분명 우리는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는 결론에 합리적으로 이르게 된다!

히브리서 9 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축복의 구원자에 대하여 세 가지 사항을 말씀하신다: (1.)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없애시려 한 번 나타나셨다 (25-26 절). (2.) 우리 위대한 변호자이고 대제사장이신 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중보를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다 (24 절; 요한일서 2:1-2).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고 (3.) 우리 위대한 하나님 구원자께서 약속의 때에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분의 큰 역사를 끝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27-28 절).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본문 안에 있는 그분의 올리브 산 강론에서 그분의 재림을 묘사하시듯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비밀스러운 일이 아닐 것임은 분명하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 그분은 능력과 큰 영광과 함께 나타나실 것이다. —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다.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것이 성경의 언어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상상하는 “비밀한 들림”에서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일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7-10; 계시록 1:7).

주 예수께서 태양이 어둠으로 바뀌고, 달이 빛을 내기를 거부하며,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런 말은 큰 우주의 격동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손끝에 의한 창조의 기상적 해체에 대한 생각을 가져온다. 그분이 사용하신 말은 베드로가 그분의 강림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바로 그 표현이다 (베드로후서 3:10).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바로 앞서게 될 그것은 우주의 돌발이 될 것이다. 물을 필요 없이, 그 일이 일어날 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건의 순서

재림에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 일들은 확고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재림조차도 그 일들을 방어함에 있어 논쟁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이 그럴 것이라고 내게 보이는 것이다. 나는 이 순서를 조심스럽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세웠다. 사건의 순서가 실제로 무엇이든지 간에, 전체 일이 성취되기 위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1.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 속에서 오실 것이다.
2. 그분은 땅 속에서 잠들어 있는 그분의 성도들의 육체를 일으키실 것이다.
3.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은 그분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사로잡힐 것이다.
4. 그분은 현재 창조와 그와 함께 있는 그분의 대적들을 파괴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5.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세상에 올 것이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분과 함께 올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6.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올 것이다.

7. 이 모든 것들이 있는 후 —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 있으리라!

우리 주의 재림은 그분의 초림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치욕 가운데, 어린 아기로, 가난한 여인의 태생으로 첫 번째 오셨고,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셨고, 주목 받지 않았고, 존경 받지 않았으며,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 가운데, 당당한 위엄 가운데, 그분을 둘러싼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모든 사람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 의해 보이고, 인식되고, 알려지고, 인정받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 번째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 받고, 그분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며, 멸시 받고, 거절 당하고, 불의하게 정죄 받으며, 살육 당하려 첫 번째 오셨다. 그분은 모든 적을 없애고, 모든 반역을 끝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소유하시고, 완전한 의 가운데 그들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분의 대적들을 파괴하시고, 구속 받은 죄인들에 의해 영원히 칭송 받으시려 우주를 통치하는 전능한 주권자로서 두 번째 오실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일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모두가 지혜로울 것이다. 이 사실들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위로로 충만하다. 우리 위대한 왕,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여기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 받을 것이다. 우리는 곧 십자가를 왕관과 교환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존귀와 기쁨과 만족과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책 안에 계시된 그 사실들이 끔찍할 것이 확실하다. 실로, 그것들에 대하여 감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알기로 그 일들이 당신의 혼을 두렵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당신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조롱한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곧 당신을 부르실 것이다. 그 하나님-사람, 그분의 복음을 당신의 발 아래 짓밟힌 분이 곧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 날에,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당신의 정확하고 공의로운 책임을 주의 손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지옥이 당신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이다!

당신은 “지옥이 무엇인가”라고 묻겠는가? 영원한 불이다! 끝 없는 비통이다! 영원하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다! 결코 끝나지 않는 진노이다! 결코 끝나지 않는 고뇌이다! 영원한 어둠이다! 영원한 고립이다! 영원한 저주이다! 영원한 광란이다! 영원한 사망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모으심

28 절에서 우리 주께서 그 일의 첫 번째 순서와 그분의 재림의 최우선의 목적이 그분의 택정한 자를 모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심을 뚜렷하고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는 그것을 이 말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그 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 복음 13:27).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복음 전도에 의해 세상의 사방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그분의 왕국 안으로 모으도록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시간의 마지막 때 선택 받은 자에게 수종 들기 위하여 피조된 그 하늘의 영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그들 모두를, 심지어 그들의 먼지와 재까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 모으려고 보내심을 받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사로를 아담의 품 속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를 그리스와 함께 있도록 하늘의 품 안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로부터 모으는 것이 세상 위에 임한 주의 심판 바로 직전에 있을 것임을 앞서 천명하였다. 우리의 안전은 주께서 그분의 강림의 불같은 빛으로 땅을 태워버리실 때 처리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해를 입지 않게 될 때까지 절대로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9). 비 한 방울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룯이 안전하게 소알로 피신할 때까지 소돔 위에 불과 유황이 떨어질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성도를 세상에서 그분이 데려가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그분의 대적을 태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게 모은 날이 올 것이다! 믿는 우리는 순수한 기쁨으로, 조금의 공포나 두려움 없이 그 큰 날을 기다려야 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1; 디도서 2:13). 그 날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의 은혜로운 모으심이 될 것이다. 택정한 자는 우리의 의가 된 그리스도의 의로써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되므로, 의 가운데 모여지게 될 것이다 (36 절; 예레미야 23:6; 33:16; 골로새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12).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리라.” (29-32 절).

우리 주께서 엄하게 바리새인들을 꾸짖는데 그들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3). 그들은 홀이 유다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다니엘의 칠십 이레가 충만하게 되었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무분별을 경계하자. 영적 무감각과 이 세상에 대한 무분별한 애착으로 인한 무분별이다.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는 깊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것이 아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께서 마가가 이 강론을 연결 지은 것처럼 (마가복음 13:14), 우리가 그 문맥 안에서 언급되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에 의해 언급된 황폐함에 대한 혐오를 볼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임박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폐함의 혐오는 적그리스도 (아르메니아 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의 계시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님)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 장에서 언급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것은, 세상 열방들을 속이기 위한 사탄의 패배이다 (계시록 20:1-8).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의 공과는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절대 추측하거나 계산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어둠과 사악함과 배교와 우상숭배가 늘어나는 것이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끝 위에 살아가야 한다.

늘어나는 불신, 로마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그리고 신비주의가 받아들이는 것이 늘어나면서 이 배교 시대의 전세계적 의지 경배, 무법 상태, 무정부 상태, 권위에 대한 모욕, 성적 난교의 용납 (간통, 간음, 동성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이 우리 시야에 극명한 신호와 우리에게 — “이것이 종말이다! 심판은 시작되었다. 종말은 가깝다. 주께서 오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나팔이 되어야 한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볼 수록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더 많다. 우리 구속이 가까웠다! 우리는 따라서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 옷을 희고 흠이 없도록 세상에서 지켜야 한다 (계시로 16:15). 아마겟돈이 여기 있다. 큰 음녀의 심판이 임박했다. 주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33 절에서 우리 주께서 회의주의와 불신을 향하는 우리의 경향을 예상 하셨던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그것에 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여 경고 하신다. —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문에 대하여 어떤 신뢰를 두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자연이나, 경험이나, 우리 판단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서 예언의 어떤 말씀도 일어날 성 싶지 않거나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하지 말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상상하는 그런 오만한 바보들 사이에 절대로 끼지 않도록 하자. 우리는 절대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조롱하는 자들에게 동의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말아야 한다.

가치 있는 사람들

이제, 34-36 절을 보라. 여기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기도하므로 그분의 진노에서 피하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실 때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경계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순성에서 부패하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되고 우리 주변의 종교적 세상의 부패에 사로잡히게 된다. 언제나 자유의지/행위 종교, 의지 경배, 독선,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어떻게 그 큰 심판의 진노를 탈출할 가치가 있도록 여겨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날에 인자 앞에 설 가치가 있게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모두 그분의 은혜의 역사이다. 우리의 가치는 그분의 피의 속량이고, 칭의 가운데 우리에게 전가되고 거듭남 가운데 우리에게 분배된 그분의 의의 모든 역사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 있음은 그리스도이다!

담대하라 그 큰 날 내가 서게 될 것이니,
무엇이든 내 책임에 두실 그분 때문이라,
그 때,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나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처럼 거룩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안식하지 못하는 중

37-38 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혼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도에 대하여 우리 구원자의 변함없고, 충성된 헌신에 당신의 주목을 호소하길 피할 수 없다.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 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사랑의 수고로 지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절대로 그분의 위임을 미뤄두지 않으셨다. 그렇다. 때때로 우리는 그분이 우물가에서 스스로를 쉬시기 위하여 앉아 계셔야 했던 것을 보며, 때때로 낮에 낮잠을 주무셔야 했던 것도 본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해도, 그분은 은혜가 필요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쉬고 계셨으며, 난폭한 거라사인을 구원하시려 그분의 여정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여기 오셨고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기쁘지 않은가? 나는 기쁘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온” 것이 놀랍지 않다!

나의 혼을 그토록 은혜롭게 섬기셨고 섬기시는 그분이 내게 그분의 은혜를 변치 않고 공급하시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악하고 빼뿔어진 세대 가운데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므로, 그분의 택하신 자를 섬김 가운데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변함 없는 기도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5:10-11).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당신과 내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옥에 있는 저주 받은 자의 고통 가운데나 천국에 있는 구속 받은 자의 기쁨 가운데 모두 영원 어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곳에서든 보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영원히 살라. 하나님의 자녀여, 주께서 오실 것이
다. 기뻐하라!

123 장. 마지막 유월절의 준비—누가복음 22:1-13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다.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체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누가복음 22:1-13).

누가복음 22 장은 우리 흠모할만한 구원자의 우리 대속자로서 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난과 죽으심에 대한 누가의 감동 받은 이야기로 시작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책 안에 계시되어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심오하며, 가장 경이로운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거듭난 혼에 그렇게 숭고하고, 그렇게 확고하며, 그렇게 달콤한 것은 없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 누가가 그의 복음서의 이 마지막 장들 안에 서술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다. 그리고 우리 주의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떤 부분도 이처럼 모든 복음 기자들에 의해서 완전하게 제시된 것은 없다. 오직 마태와 누가가 우리 구속자의 출생의 상황을 서술한다. 그러나 사복음서 기자들 모두가 우리 구원자의 죽으심을 세밀하게 서술한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의 이야기가 가장 구체적이다.

이 처음 열 세 절에서 누가는 유월절의 마지막 준수와 처음으로 주의 만찬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하신 예비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구원자께서 여기에서 율법적이고 유대교적인 유월절을 영원히 폐기하셨고 그분의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을 영원한 조례로써 세우셨다.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로 예비하셨던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제까지 지켜졌던 마지막 유월절이었다. 서참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시려 하였다. 동시에, 우리 주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지키려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스도 우리 유월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1 절). — 첫째, 구약의 유월절이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시적인 예표와 그림이었음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5:7 에서 선포하신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첫 율법의 규례였다 (출애굽기 12 장).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억하는 것으로 세워졌다. 그것 (다른 모든 율법의 요구와 의식과 경배와 제물)을 따랐던 그 첫 번째 유월절과 모든 유월절 제물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드러졌다. — 그 예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분을 율법 전체가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으로 율법 전체가 성취되었다.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듯이 모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였다 (골로새서 2:17; 히브리서 10:1).

구약 시대의 믿는 자들은 마치 우리가 지금 주의 만찬을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한 어린 양”을 기억하며 주의 만찬을 지키듯이, 유월절 어린 양을 “세상의 기초로부터 죽임 당한 어린 양”(계시록 13:8)의 예표로서 어린 양을 바라보며 유월절을 지켰다. 유대인의 유월절에서 약속된 어린 양은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일 년 된 수컷이어야 했다. 그리스도가 그랬다. 어린 양은 유월절 나흘 전에 따로 구별해 두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예지 안에서 영원히 구별되셨고 (4000 년 간 — 나흘 전)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이 죽으시기 나흘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으로 구별되셨다. 유대 유월절 어린 양은 불로 전체가 태워지며, 그 뼈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영원한 구속의 성취 안에서 그분의 희생 가운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모두 받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뼈 가운데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음 과 성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요한복음 19:36).

성경은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의 과정 동안 네 차례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리스도께서 지키셨던 첫 번째 공개적인 유월절은 요한복음 2:13-25 에 있는 것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유월절, 우리 주께서 그분의 임재로 은혜를 주셨던 때이며, 요한복음 5 장에 기록된 그분이 벧세다 못에서 절름발이를 치료하셨을 때이다. 세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주 예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며 요한복음 6 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 주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가르침을 주신 곳이다. 주 예수께서 지키셨던 네 번째와 마지막 유월절은 여기 누가복음 22 장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록을 하였다.

“만약 주 예수께서 그분의 사역의 기간 동안 유월절에 그분이 참석하는 것을 절대로 한 번도 생략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에게 그분의 거룩한 만찬을 따르게 하셨고, 유대인의 유월절 대신에 그분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게 그분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셨고 약속하셨는가? 분명히 이로 인하여 예수께서 그분의 거룩한 기쁨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분의

백성이 언제나 그 축하에 함께 해야 한다. 주의 이런 변함 없는 참석으로 생각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려는 의미는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의 만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인 사도는 그분께서 특별하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6)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주의 은혜로운 설계와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압도하는 섭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다.” (2 절). — 둘째, 우리 구원자를 살해하고자 계략을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압도하는 섭리로 여기서 주신 모습에 당신이 주목할 것을 다시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주의 거룩한 뜻과 영원한 계명의 성취를 위하여, 그들 사악한 손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나신대로”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주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사도행전 2:23; 4:27-28; 13:27-28).

얼마나 달콤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이것이 얼마나 기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라보니, 우리 죄가 우리를 데려온 바로 그 상황 속으로 그리스도를 데려오는 계획을 위하여, 그러나 그분의 개입을 위하여 임을 바라보라! 비록 그들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철저하게 그분을 증오하였으나, 그들은 그분을 그가 세상에 와야 했던 그 임무로, 우리를 대신한 죄와 저주가 되심으로, 그분을 모시고 앞으로 나왔다. 우리가 구속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수단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악한 사람들의 가장 사악한 행동을 주권적이고 지배하고 사용하셨다!

나는 이것이 보기에 달콤하고, 위로가 되고, 기쁘다 하겠다. 과거에 여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분의 계획된 축복을 가져오기 위하여 가장 사악한 자들의 가장 악의적인 도구들을 직배하시고 사용하신다.

소경 된 인도자들

셋째,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라는 것을 읽을 때, 나는 가장 유명하고, 높이 존경받고, 잘 훈련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종 소경 인도자들임을 상기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고위 직책은 마음 속에 은혜가 있음을 가리키지 않는다.

우리 구원자를 죽음에 처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유대 국가의 종교 교사들에 의해 취해졌다. 메시아를 환영했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그분을 살해하려 공모하였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어린양의 나타나 나심에 기뻐했어야 했던 바로 그 목사들이 그분의 살육을 음모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소경의 인도자들”일고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의 빛”이라고 주장하였다 (로마서 2:19).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였다. 그들은, 대부분이 아론의 지계 후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전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해진 중요함과 중대성과 영적 지식을 주의하라. 성직 서임 서류가 사람을 신실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단 중 가장 큰 자가 전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충성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 충성된 목자들은 그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추종을 받아야 한다 (히브리서 13:7, 17).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소경이 우리를 구덩이 속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현대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새롭게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가 없는 원칙으로 모든 교사를 시험해야 한다. —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20).

유다의 배신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체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6 절).

넷째, 유다의 배신이 우리에게 인내의 필요성을 가르치면서, 믿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선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탕자들임을 종종 증거하는 사실의 명백한 예를 제시한다. 여기 서술된 배신은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 중 한 사람의 배신이다. —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 말은 아주 무시무시하다. 가룟 유다는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인 신호가 되어야 한다. 유다는 우리 주의 선택 받은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우리 주를 그분의 사역의 전 과정 동안 따랐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가 전했던 것과 같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도들처럼 말했다. 유다에 대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를 구별할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절대 침묵하는 것으로 의심 받지 않았고, 혼자 배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유다는 타락한 사람, “멸망의 자식”이었다 (요한복음 17:12).

기껏해야 우리는 우리 마음의 끄찍한 속임수의 미약한 관념 밖에 없다.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은혜가 없이 종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시편 139:23-24; 마태복음 10:22; 고린도전서 9:26-27; 히브리서 6:4-6; 10:38-39; 요한일서 2:19-20).

탐심을 경계하라

다섯째, 유다의 배신이 그가 돈을 사랑한 결과였다는 사실은 누가복음 12:15 에서 우리 주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한층 더 강조해 준다. —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돈을 사랑함이 사람을 얼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 엄청난 힘으로 점령하는지!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의 주를 배신할 것을 제안하였을 때,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였다." (5 절). 그것은 우리에게 유다의 마음 속에 숨겨진 비밀과 그의 행동 뒤의 동기를 말해 준다. 그는 돈을 사랑하였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였다. 그는 부를 좋아하였다. 그는 우리 주의 엄중한 경고를 들었다. —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나 그는 그것을 삼가지 않았다. 탐심은 그 위에 그의 혼을 난파선으로 만든 반석이였다. 탐심이 그를 지옥으로 향하게 한 약을 주입하였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라, 특별히, 그것이 돈을 사랑함을 포함하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 악의 뿌리" (디모데전서 6:10)이다.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유다는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한 돈은, 그것에 그들의 혼을 팔았기 때문에, 끔찍하게 하찮은 것이다! 단지 은 삼십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였다! — 은 삼십 (대략 \$30.00 이다!)은 노예에 대한 합법적 가격이였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종교적 위선자들은 다른 노예처럼 예수를 사들임으로써, 그분을 로마 정권에 넘겨주는 것이 그들에게 완전히 합법적이었다고 그들 스스로 말함으로써 그들의 양심을 누그러뜨렸다. — 은 삼십 (대략 \$30.00 이다!) 이었다. 유다가 그의 가증할만한 교활함으로 무엇을 샀는가? 그는 아마도 소망했겠지만, 강력한 상류층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는 비열한 노예상,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그리고 배신자 외에 아무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았다. — 은 삼십 (대략 \$30.00 이다!)은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노예의 값으로, 마침내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신의 죽지 않을 혼에 치른 대가가 되었음이 입증되었다. — 은 삼십 (대략 \$30.00 이다!)은 성전의 금고에서 꺼내졌으며, 제물을 사기 위하여 구별된 은이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노예의 값으로 성전 금고에서 꺼낸 돈으로 사신바 되었다!

반복하건대, 돈을 사랑함을 경계하라! 그것은 미묘한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가깝다. 가난한 자는 부자처럼 돈에 흔들리기 쉽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약간의 자가 많이 가졌으며,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많은 자가 아주 조금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적든지 많든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자” (히브리서 13:5). 만약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면 우리 하게 될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모른다. 지혜서(잠언)에서 오직 한 가지 기도만 (잠언 30:8-9) 발견하게 된다는 것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준비 됨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7-13 절).

여섯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도, 선택 받은 죄인들이 참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안배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는 우리 구원자의 절대적인 통치에 대한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보는가! 하나님의 인도로 제자들이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필요했던 모든 것을 공급하였다.

절기를 지키기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다. 어린 양이 예비되었다. 어린 양은 살육되었고 주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 제자들을 위하여 제단 위에서 태워졌다. 그 피가 제단의 하단에 뿌려졌다. 어린 양이 집으로 가져가져서 거기서 먹었다. 어린 양은 구워졌고 쓴 나물과 함께 먹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안의 우리 믿음으로 희생 되신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근접하게 대응되는 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본다. 우리가 이 열 세 구절에서 우리 구원자의 십자가형 전날 저녁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날” (누가복음 22:7)로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네 번이나 일깨움을 받는다. — “그리고 그 날이 왔다!” 그 날이 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당신은 안 그런가! —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6).

신성한 안배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 당할 바로 그 때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유월절의 성취였다. 그분은 그분은 모든 유월절 어린 양이 1500년 동안 지목되어 왔던 참 제물이셨다. 어린 양의 죽음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그분의 죽으심은 실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갖고 있었던 안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그분의 피가 믿는 죄인들을 위하여 무한히 풍성함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7)

124 장.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4-20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14-20).

이 구절들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교회 가운데 영원한 규례로서, 주의 만찬의 준수를 가르치셨는지 설명한다. 이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깊은 존경을 즉각적으로 일으켜야 하는 성경의 그런 단락이다.

하나님 경배의 이 축복의 규례가 너무도 아름답게 단순하고 위엄 있고, 너무도 기쁘게 하나로 만들고 복되어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움의 문제이고 논쟁과 분열의 초점이 되어왔던 것이 철저하게 놀랍게 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구원자에게 불경하며, 그 규례를 세우셨던 분에 의해 또 그것이 그분을 위한 존귀이며 지켜야 할 것인가!

가로막음이 없음

유다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교회안에 이 규례를 세우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명확히 들었다. —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14 절).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거래를 한 후, 유다는 그의 죄를 가리고 주를 배신할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시하려, 뻔뻔스럽게 와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다.

이 사실은 우리 주께서 불신자들을 믿는 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먹는 것을 막으려 만찬을 가로 막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그분은 폐쇄적인 성찬의 실행을 위한 어떤 근거도 주시지 않았다.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자. 주의 만찬은, 침례와 교회 지체자격처럼, 믿는 자들 만을 위함이다.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와 함께 복음의 이 복된 규례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격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누구든 가로막기 위하여 만찬상 주변에 장벽을 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께서 자신이 믿는 자인지 확실하게 자신을 시험하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자로서, 떡과 잔에 무가치하게 참여하는 모든 자를 경고함으로써,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없이, 자신에게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주의 몸을 분별하는 자의 책임임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1:27-30).

당신과 당신 만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당신의 고백을 순수한 것으로 보고 당신을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않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책임이고 나의 책임이다 (로마서 14:1).

우리 주는 유다가 악한 자였고 그가 그 때 그분을 배신할 기회를 찾고 있었음을 아셨다. 하지만, 하지만, 그분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분은 야고보와 요한과 마찬가지로, 유다가 그분의 사람 중 하나임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유다에게도 그것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갈망

15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구분의 마음의 욕망과 갈망을 표출하셨다. —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분은 이것, 마지막 유월절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갈망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이 세상 안에서 그분의 사명의 끝에 이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모든 격노하심을 당하시게 되었고 우리 대속자로서 공의에 죄짓게 하였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분은 그분과 우리의 연합과 교제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죄 속량의 죽음에 기초하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으로써 이 성찬 규례를 세우셨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원했는데,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의 갈망이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 전서 3:9). 영원 전부터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배필이고 신부이기를 갈망하셨을 때부터 그러했다. 그것은 시간 가운데, 그분이 성육신이 되셨을 때, 고난 당하셨을 때,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을 때부터 그러했다. 그분의 갈망은 거둬나지 않았고, 믿지 않는 반역자들이었던 동안, 부름 받기 전에 그분의 백성을 향하여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갈망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향하여 있다 (아가 5:1-2).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는 죄로 검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여쁘고 아름다우며, 그분의 의로 옷을 입었고,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았고, 순전하며, 회개 되었다. 그분의 눈에 너무 어여쁘고 아름다워서 그분은 우리로 인하여 너무나 황홀하다고 선포하신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황홀하게 한다고 선포하신다 (아가 4:9). 따라서,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동역과 교제를 갈망하신다!

주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안에서 기뻐하셨으며,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그분 자신 안에서 우리를 온전한 것으로 보신다. 우리는 그분 앞에 놓여진 기쁨이며, 그분을 지탱하였고 그분을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게 하였던 기쁨이었다. 당신과 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끊임 없는 갈망과 기도의 대상들이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드시고자 하는 갈망과 함께 갈망하였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임박했고, 우리 혼의 영원한 구속이 곧 성취되려 하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던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로마서 5:6-8; 요한일서 3:16; 요한일서 4:9-10). 공의가 곧 만족될 것이었다. 율법이 곧 성취될 것이었다. 우리 죄들이 곧 속량 받고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곧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었다.

충만될 때까지

율법은, 일단 그분에 의해 성취되면, 곧 끝나게 되었다. 유월절과 율법의 모든 격식과 의식들은 영원히 멸절되려 하였다. 따라서, 그분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6 절). 이제 그분에 의해 모두 성취되었으므로,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직접 은혜로 띠를 두르시고 율법 안에서 강조하고 예표 하였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기신다. 그리고, 곧 우리의 소유가 될 영광 가운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끝 없는 영원을 보낼 것이다 (출애굽기 15:1-18).

잔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7-18 절).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는 데는 네 잔이 사용되었다. 보통, 각 잔은 식탁에서 하나씩 전달되었고, 그 집의 가장이 가족을 기도와 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를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은 잔으로 마시고, 그들 가운데 나누었다.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께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고 하셨다.

우리 주께서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나? 아마도 그분은 단 순히,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실제로 너희들과 함께 다시는 먹고 마시지 않을 것이다.”고 하고 계셨을 것이다. 아마 그분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으심 가운데 그분에 의해 부여되어야 할 은혜의 새 포도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거의 30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만찬 상에서 영원히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구속의 영원한 축하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규례가 세워짐

14-18 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가족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기록을 받았다. 19 절과 20 절에서 주의 만찬의 규례가 세워졌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19-20 절).

이 말씀이 주의 만찬의 세우심을 가리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1:23-29 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임을 안다. 19 절의 마지막 행을 다시 읽어보자. —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얼마나 많이 우리 이 계명을 그 함축된 의미를 생각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읽는가? 이 명령의 첫 번째 의미는 이 규례가 처음에 내가 천명한 것처럼 믿는 자만을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당신은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구원자를 알기를 원한다. 만약 그렇다면, 주의 만찬은 당신을 위하여 배설된다. 그러나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떡을 떼 수 없고 잔을 마실 수 없다. 둘째, 이 계명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도록 관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은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처럼 그분의 신부의 귀에, “나를 기억하라.”고 속삭이셨다. 그리고, 셋째, 이 계명은 우리의 구속자를 기억하는 끔찍한 경향을 내포한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킴에 있어서 그분을 기억하도록 이 계명을 은혜롭게 세우셨다.

우리의 집회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계명에 따라 매 주일 저녁에 주의 만찬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만찬 주변에 모인다. 만찬상은 우리 주의 기념이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지키기 위한 완전한 지침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해져야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지를 본다. 그 지침은 분명하고, 명확하며, 확고하다. 우리는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도 옳지 않을 것이다.

단순함

이 축복의 규례는 단순함으로 지켜져야 한다. 여기에는 화려하고, 비밀스럽고, 혹은 심지어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것이 없다. 복음의 규례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처럼, 단순하고, 투명하며, 꾸밈이 없다. 여기에는 떡과 잔 외에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은 자주 지켜져야 할 규례이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6)고 말했다. 우리 주와 그분의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상기할 지속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억을 수시로 돕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다.

이것은 모든 주의 백성에 의해 지켜져야 하는 규례이다. 이 만찬상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 우리의 필요는 동일하다. 우리의 열납의 근거는 동일하다. 우리 하나님께 열납 됨이 동일하다. 우리는 그분의 의와 뿌려진 피의 공로로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은 바 된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언약의 상징이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때면, 우리는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대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여 그분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언약에 대하여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다 (로마서 9:16-18). 그것은 모든 것과 확신 안에서 세워졌다 (사무엘하 23:5).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된 언약이다 (히브리서 13:20).

이 축복의 규례는 우리 구속자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 강론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 그분을 가장 잘 기억한다. 무교병은 우리의 하나님-사람 대표자로서 그분의 몸, 그분의 거룩한 인성, 그분의 성취된 의의 상징이다. 잔은 그분의 보혈, 우리 대속자와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성취된 구속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규례를 우리가 지킴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인한 우리 구원의 그림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6:51-56). 그분 안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어떠한 심의 모든 것과 우리의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그분이 성취하셨던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속량을 영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받아들인다 (로마서 5:11).

“이것을 행하라”

우리는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계명을 받았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언제나 합당하다는 것을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만찬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합당하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슬프게도 자주 그분을 잊지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다. 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실상, 우리의 망각이 이 규례에 와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비록 우리 구원자를 잊을지라도, 만찬상에 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 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온다. 그리고 만약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 기분이 언짢다면, 그것이 우리를 이 규례의 특권으로부터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냉정하고, 죄로 충만하더라도 이 규례에 올 수 있다.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규례를 지킨다.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은 당신에게 달콤하고, 신선하며, 위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보다 더 무엇이 더 달콤할 수 있는가? 당신의 혼을 더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의 마음에 그토록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념하라”

이 규례의 목적은 우리 귀한 구원자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다. —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지, 그분의 교리가 아니며,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교훈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심으로써, 주 예수를 기억하자. 그분을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으로 또 당신의 혼의 전능한 대표자로서 기억하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주 예수를 당신의 마음의 기쁨으로, 당신의 소망의 보상으로, 당신의 생명의 주로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하라. 그분이 이루신 것

을 기억하라. 그분이 왜 그것을 했는지 기억하라.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인지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1:30). 진실한 감사로 그분을 기억하라. 깊은 사랑으로 그분을 기억하라.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분을 기억하라.

“당신을 기억하소서, 또 당신의 모든 고통을,
그리고 내게 대한 당신의 모든 사랑도—
그렇다, 맥박이든 호흡이 남아 있는 동안,
나는 당신을 기억하리.
그리고 이 약한 입술이 병어리가 될 때,
또 생각과 기억이 사라지네;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로 오실 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단락 안에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신에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1. 주의 만찬의 목적은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일깨우며, 우리 구속의 대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함이다. 떡은 그분의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된 그분의 거룩한 인성을 상징한다. 잔은 그분의 보배롭고 죄속량의 피를 상징한다.
2. 이것은 선택적인 규례가 아니며, 믿는 자의 침례가 선택적인 규례 그 이상이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특권이고 책임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3. 우리 한 가운데에는 언제나 배반이 있을 것이다. 21 절과 22 절의 말씀이 여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령께서 가라지들은 언제나 알곡과 나란히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 의도하셨던 것이 분명하다.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셨다. —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마귀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선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만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지키기를 거절하면 결코 의롭지 않다.

4. 당신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그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고린도전서 11:23-29). 당신이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리스도만을 당신의 구원자로 신뢰함으로써, 당신이 주의 몸, 죄인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성육신과 순종과 죽으심의 목적을 분별하든지 간에 당신만 결정해야 한다.

125 장. “누가 가장 크냐?”—누가복음 22:21-30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성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찌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찌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안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21-30).

우리는 종종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과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비교하려 한다. 그러나 그런 모든 비교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그것들은 단순히 비교될 수 없다! 천연적인 영역에서 취하여 영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어떤 법칙이나 원칙은 반대가 되어야 한다. 천연적인 영역에서 성공은 소득으로 측량된다. 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적 세상에서 성공은 손실로 측량된다 (마태복음 16:25). 천연적인 세상에서 부는 사람이 얻고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얻어지고 측량된다. 영적 세상에서 부는 주는 것으로 얻어지고 측량된다 (잠언 19:17; 11:24; 22:9; 누가복음 6:38). 천연적인 것들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은 존경 받는다. 영적인 것들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은 정죄 받는다 (로마서 4:4-5). 천연적인 것들 가운데 야망과 적극성은 추천할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들은 비참한 것들이다. 천연적인 사람은 발전과 승진을 위하여 애쓰는 자로서 칭찬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자기비하와 노예상태를 위하여 애쓰라고 가르치신다.

이것은 제자들이 배우기에 어려운 공과였는데, 우리처럼 그들 각자가 가장 크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서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의 제자들의 공동체와 교제와 조화를 붕괴시켰던 한 가지가 개인적인 야심, 개인적 칭찬과 인정과 위대함을 위한 갈망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마태복음 18:1; 20:20-21; 마가복음 9:33-35; 누가복음 9:46-48).

주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던 그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먹으며, 그분과 함께 만찬상 주변에 둘러 앉았을 때 조차도, 주의 만찬에 대한 축복의 규례를 그들에게 주실 때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그림인가. 형제들이여, 만찬 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그들 가운데 주를 팔아 넘기려 하는 자에 대하여 다투면서 (22-23 절) 그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길지 다투고 있었다 (24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겸손이 넘쳐야 하는 곳에, 교만과 야심이 침범했다! 사랑과 하나됨이 지배해야 할 때, 야심이 나누었다! 누가복음 22:21-30에서 우리에게 하신 우리 주의 말씀은 야심과 자기본위와 이기주의와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사악함에 대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의도하여 있었다. 이 슬픈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그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요청하자. 나는 주 예수께서 이제 막 그분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드셨고 주의 만찬의 복된 규례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겸손과 사랑 곧 영원히 이 악을 따르는 자들을 영원히 치유하여야 할 것의 본을 주셨다 (요한복음 13:12-17). 그 이후, 제자들은 누가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 여겨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거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모두의 종이다. 우리는 모두 오만한 갈망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려는 우리의 갈망에 대하여 경건하게 말한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참으로 갈망인가? 만약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기도하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가장 큰 자가 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 주께서 우리의 종이 되셨다면, 서로 섬기도록 하자 (빌립보서 2:1-7).

“섬기는 자”

첫째,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한 사람의 종의 위치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떠 맡으셨다. 그분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께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들 위에 더 나은 몇 사람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부자나, 권력자나, 귀족 중 한 분이 아니었다. 그분은 종들 주의 종이였다 (마가복음 10:42-45).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 오셨을 때, 그분은 스스로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

그분의 제자들의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섬기는 분이셨다. 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오직 한 번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누군가에게 요청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자신의 겸손을 보이셨을 것이다. 유대인으로서, 그분은 물을 마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요청하셨다. 그 때에도, 그분의 목적은 그분이 그녀를 위하여 일하려 하셨던 것이었다.

그분이 가장 극명하게 주이셨던 곳에서, 그분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분은 가장 극명하게 종이셨다. 목자처럼, 그분은 그분의 양 떼에 종이셨다. 간호사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이셨다. 객실 여급처럼, 그분은 그분의 제자의 발을 씻으셨다.

주의 만찬을 축하하는 가운데 주 자신께서 제자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셨다. 그분은 만찬을 예비하셨다. 그분은 유월절에 그분의 형제들의 고통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떡을 떼셨다. 그분은 기도를 공급하셨다. 그분은 포도주를 부어주셨다.

세상에서 그분의 전 여정을 통하여, 주 예수께서 한 사람의 종, 한 사람의 노예의 위치를 취하셨다. 그분께서 우리의 보증으로 아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와 함께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자
원한 종이 되셨다 (시편 40:6; 이사야 50:5-7; 출애굽기 21:6). 그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여호와
의 종으로 선포하셨다 (시편 40:7; 히브리서 10:5-10). 우리 구원
자를 위하여 예비된 육체적인 몸과 그분의 모든 땅에 속한 주변들
이 섬김에 합당하였다 (히브리서 10:5; 빌립보서 2:7; 고린도후서
8:9).

그분의 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섬기
셨다 (마태복음 20:28). 그분은 그분 자신의 뜻과 기쁨을 내려 놓
으셨고, 우리의 유익을 섬기심으로 그분의 아버지의 뜻과 기쁨을
행하려 오셨다 (요한복음 4:34; 6:38). 그분은 다른 자에게 종이신
한 분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악한 방법을 끈기 있게 품으셨다
(베드로전서 2:23).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셨으며, 그로써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늘의 영광의 가장 높은 자리로 데려가실 수 있을 것이다 (시편
22:6; 이사야 53:3; 고린도후서 8:9).

그분을 흠모하라

우리가 그렇게 멀리 보았던 것이 경이와 숭배로 우리 마음을 채워
야 한다. 얼마나 눈부신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
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분의 종들인 자들에게 종이 되셨다! 그 사
실이 당신을 놀라게 하지 않는가? — 모든 자의 주이신 분께서 그
분의 모든 백성의 종이 되셨다 (골로새서 1:15-19).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섬기셨다! 통치자께서 그분의 피지배자들을 섬기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처음 난 분께서 입양된 자녀들을 섬기셨다! “모든 중만”이신 분께서 모두 비어 있는 우리를 섬기셨다! 모든 탁월함을 소유하신 분께서 우리 아무 것도 아닌 자를 섬기셨다!

지혜와 능력과 거룩 가운데 무한하게 뛰어나신 분께서 가장 낮은 자에게 종이 되셨다 (마태복음 8:26-27; 요한복음 14:9). 그분은 소경인 거지들에게 시력을 주셨다. 그분은 간음한 여인을 변호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믿지 않는 제자들을 위하여 혼란한 물을 잠잠케 하셨다. 그분은 작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셨다. 그분은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그분의 손을 뻗으셨다. 그분은 의심하는 도마의 의심을 없애셨다. 그분은 베드로가 그분을 버렸을 때 베드로에게 오셨다.

그러나 우리 주의 섬김이 그 제자들에게 국한 되었거나, 심지어 그분의 땅에서의 시간에 한정된 것이라 상상하지 말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땅에서의 섬김을 행하셨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섬기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섬기실 것이다. 우리의 큰 후원자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은혜의 수혜자들인 우리에게 종이 되셨다 (요한복음 15:16). 그분이 이루셨던 의가 우리를 위하여 있었다 (로마서 5:19). 그분이 죽으셨던 그 죽으심, 그분이 하셨던 속량은 우리를 위함이었다 (갈라디아서 4:4-5). 그분의 하늘의 중보는 우리를 위함이다 (히브리서 7:24-25). 그분의 섭리의 통치가 우리를 위함이다 (요한복음 17:2). 천사장들, 그분의 거룩한 종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그분에 의해 보내졌다 (히브리서 1:14). 영원의 시대들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때 조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 그분은 우리를 섬기실 것이다 (누가복음 12:37).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께서 자신을 낮추어 그분의 섬김은 커녕, 주목을 받기에 전혀 무가치한자인 우리를 섬기신다.

동기

그리스도 편에 있는 이 큰 겸손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분이 그것을 하셨는가? 여기 세 가지 대답이 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도 무한히 크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섬김으로 아무 것도 잃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2-4). — (2.)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한다 (요한복음 15:9; 요한일서 3:16; 요한복음 13:1). 그리고 (3.) 우리 중보자, 하나님-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전적으로 헌신하셔서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죽으심 조차 견디셨고, 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 것이다 (마태복음 26:38-39; 요한복음 12:28).

그분을 따라 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우리 구원자를 따라 하도록 우리를 은혜롭게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삶의 법이 되게 하자 (요한복음 13:5, 13-15).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한다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야망은 없다 (에베소서 4:32-5:1).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김을 성취할 것을 즐겁게 선택하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형제들을 향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참 사랑과 겸손의 영을 구하는 그 구원 받은 죄인들은 복되다 (에베소서 4:1-3; 빌립보서 2:3; 베드로전서 5:5). 우리가 다른 자를 위하여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내려 놓아야 하는 것은 이런 방법 안에서 이다 (요한일서 3:16-17).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보내고 보내도록 감동하였던 그것이다 (고린도후서 12:15). 다른 사람들의 선을 언제나 구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통치를 자기 희생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빌립보서 2:4-5).

“아무도 나를 보러 오지 않는다.”며 우는 소리를 내기보다, 왜 누군가를 만나러 가지 않는가? 아무도 내게 전화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기 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한다. “아무도 내게 관심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하여야 한다. 우리가 잊혀지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하기 보다, 다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육십 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나는 주목할 만한 것을 보아 왔다: — 다른 사람을 관심하고 섬기는 삶을 보낸 사람들은 결코 무시 받고 간과 당하거나 잊혀졌다고 우는 소리를 내고 불평하지 않지만, 무시당하고 간과 당하고 잊혀진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평한 자들은 자신 말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도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의 복된 평강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해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불의들을 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2:19-21). 가장 사소한 것을 받아야 할 것 같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처소를 언제나 구하라. 섬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섬기기를 선택하라! 우리 주께서 그러셨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존경을 받는 곳은 가장 큰 섬김의 처소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그 수건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의 고귀한 옷보다 더 형언 할 수 없이 마음을 끈다.

이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용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 받는 사람으로 만드소서. — 취하는 자들과 주는 자들이 있다. 나는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 섬김을 받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만드시기를 기도한다. —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모든 자의 종이시다 (마태복음 11:11). 그분 같이 되도록 애를 쓰자!

126 장. 베드로의 타락과 회복—누가복음 22:31-34, 54-62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밑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31-3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54-62).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은 고통스럽지만, 매우 교훈적인 베드로의 끔찍한 주 예수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다. 이 슬픈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친구인 베드로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거나 변호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대하여 기록한 단순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의 도구들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였다. 이 베드로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배움과 경고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에게 네 번이나 이 이야기를 주신 하나님의 영께서 이제 그 공과를 우리 마음 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전능한 은혜로 새기시기를 바란다.

할 수 있다면 그 춥고, 비통한 밤에 일어났던 그 장면과 사건들을 그려보라. 그날은 엄숙하고, 엄숙한 밤이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이 세상의 심판(위기)”라고 부르셨다. 제자들은 금방 율법 시대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과 복음 시대의 첫 번째 성찬식을 지켰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확실하고 임박한 배신과 죽으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 밤을 보냈다. 그 신성한 저녁에, 우리 구원자께서 요한복음 14, 15, 16 장에 기록된 놀라운 설교를 하셨다. 우리 주,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요한복음 17 장에 기록된 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 큰 기도를 주신 것이 이날 밤, 이른 저녁이었다. 그분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 가롯 유다에 의해 안내된 군병들이 처형수 집단처럼, 동산으로 영광의 주를 체포하기 위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 왔다. 유다는 입맞춤으로 그분을 팔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 예수를 부인하였고, 다시 부인하였으며, 술 취한 선원처럼 저주의 말을 하면서 세 차례 그분을 부인하였다.

왜 이 기록이 신약 성경에 네 번이나 주어졌다고 상상하는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아는 것처럼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이 슬픈 이야기가 사복음서 기자들에 의해 그렇게 자세 히 기록되었던 것에 대하여 적어도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특별히 주목할 것을 의도하신다.

1. 주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 부드러운 마음의 구원자의 고통과 고난을 크게 늘어나게 하였을 것이다.
2. 성령께서 아주 강조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원자의 구원의 능력의 위대함과 그분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존엄함과 변할 수 없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 앞에 제시하셨을 것이다.
3. 신성한 위로자께서 우리는 모두 이 동일한 유혹의 대상이었을 것을 아셨다.
4. 베드로의 타락에 대하여 사 중으로 기록한 것은 사람들의 최선의 덧없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놀랄만하고 교훈적인 공과가 되도록 의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최선에 대하여 조차 아주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역사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장 현저한 성도들의 잘못과 타락들을 특별히 기록한다. 성령의 계획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이사야 40:6)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우려 하는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최고는 아주 좋아야 사람들일 뿐이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우신다. 베드로는 가톨릭교도들이 가장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절대 옳은 추기경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연약하고, 잘못하기 쉽고, 변덕스럽고, 죄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교황이 베드로와 공통되게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부인이다.

베드로의 타락은 우리 각자에게 말하려 하는 것 같다. — “당신도 역시 약하다. 당신도 역시 홀로 남겨진다면 타락할 것이다. 당신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분께 끊임없이 의지하라. 당신의 큰 경험들이나 당신의 믿음에 대한 상상 속의 힘과 확고함에 의존하지 말라. 사탄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가 당신을 알곡으로 키질하도록 하게 갈망하였다. 그리스도만 당신을 붙잡으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 당신을 지키실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경계하고 기도하자!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존귀함을 위하여 살 것이라면, 우리는 각자가 우리 자신의 혼을 열심히 경계하여야 하고 기도로 충만하게 주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하여 살고 싶다. 나는 나의 설교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확대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당신이 동일한 것을 원하리라고 생각한다. 내 마음은 부들부들 떨며, 내 혼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의 이름 위에 비난을 가져간다는 생각에 떨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안다 —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사악함으로부터 나를 보존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사악함으로부터 당신을 보존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의 타락의 환경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그런 통탄스러운 사악한 것을 저지르게 되었나? 누가는 타락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이고 자녀이고, 피로 구속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입었고, 은혜로 구원 받았고, 그 영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역정에서 충성된 거물들 가운데 충성된 거물이었다. 그의 앞이나 뒤에 아무도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자각 가운데 확고하며, 전도에 있어서 담대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열심 가운데 확고 부동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사도들 가운데 조차도 탁월하였고, 인도자들 가운데 인도자였으며, 본 중의 본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 다만 사람이었다. 당신과 나처럼, 그는 그 마음이 천연적으로 죄로 충만하였고, 그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 어둡고, 어두운 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이 사람의 악한 마음이 사악함의 끔찍한 표현 가운데, 인간 역사상 어떤 사람만큼 악하고 혐오스러운 행동 가운데 터져버렸다. 경건한 사도 베드로는 모독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 맹세로 부인하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타락의 환경을 볼 때, 그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심지어 경감하는 환경을 가볍게 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실로, 감동의 복음 기록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의 범죄를 악화시킨다.

베드로의 타락이 매우 이상했던 것은 그가 주 예수의 가장 높이 칭찬을 받고 가장 높이 존경을 받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너무나 많이 행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계셨던 동안 자신을 알게 하셨던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1:40-42). 베드로는 주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내부에 속한 자였다.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위한 최고 대변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베드로의 타락은 특별히 슬픈 일인데 그가 분명하고 틀림없이 그의 큰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2:31-43). 우리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가능한 정확하게 그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심지어 그에게 자세히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그가 노출되게 될 위험에 대하여 들었다. 사탄이 그를 장악하기를 갈망하였다. 그의 믿음은 맹렬히 공격 받았을 것이다. 그는 경계하고 기도해야 했으며, 그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험 속으로 향하여 걸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을 거절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무시하였다!

²² 우리의 특권이 더 커지고 우리의 존귀함이 더 높아질수록,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지며 우리의 범죄들이 더 끔찍해진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베드로의 죄는 그가 그리스도께 그의 충성을 자신 있게 선언하였던 직후에 왔다는 사실로 가중되었다 (마태복음 26:31-35; 누가복음 22:33).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그의 교만하고, 자신 있게 자랑한지 수 시간 만에, 베드로는 그분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였다.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러운가!

여전히, 베드로의 타락은 즉시 온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왔다. 그는 주를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다 (51 절). 그는 멸시자들의 자리에 앉았고 (55 절), 위로를 하면서 그들이 피워 놓은 불을 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단계적으로 주 예수를 부인하였다. 처음에, 그는 여종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을 알았던 것을 부인하였다 (마태복음 16:18 과 요한복음 6:69 를 비교해 보라)²³. 마침내, 그는 비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욕되게 하는 말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택하였다²⁴.

여기 베드로의 죄를 더욱 크게 악화시키는 다른 것이 있다: — 이 모든 것이 그의 여호와이자 주께서 그를 대신하여 고통 당하고 그의 책망을 받으시면서 그 때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행해졌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바로 앞에 서서 모든 말을 듣고 계셨다!

²³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버리신다면, 큰 성도가 큰 죄 안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거의 없다. 베드로의 시험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노라.”고 말했던 나약한 젊은 여인 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²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수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성도들의 타락은 갑작스런 것이 아니다. 보통 큰 타락은 매우 작은 모순된 일들이 앞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베드로의 타락의 이유가 무엇이었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토록 많은 방법으로 그렇게 크고, 유일하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베드로는 자신에게 너무 교만하고, 그 자신의 힘에 너무도 자신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두려움으로, 이 경우에 있어서, 그에게 대하여 아무 분명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던 여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점령당했다. 그는 그 자신의 마음과 혼에 대한 경계를 무시하였다 (잠언 4:23). 나는 조상 하와처럼 베드로가 구원자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베드로의 회복의 방법

베드로는 타락했다. 그러나 그는 멸망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그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는 버려지거나 포기되지 않았다. 그는 주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결코 그 자신의 소유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실 수 없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그의 양 떼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릴 수 없다. 베드로는 타락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은혜롭게 그를 일으키셨다.

의인은 하루에 일곱 번 타락한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 (잠언 24:16). 어떻게 주 예수께서 그의 타락한 종을 회복하셨는가? 나는 주께서 그의 타락한 자녀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사용한 네 가지 사항을 안다.

1. **섭리의 역사** — “답이 울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에 이르는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선지자처럼 쉽게 당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귀들이 말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수탉이 정시에 울도록 하실 수 있다. 시편 107 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들을 회개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랄 것이다!

2. 은혜의 역사 —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복음 22:61).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었겠는지! 주께서 베드로께 돌아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 돌이키지 않았다. 그분은 베드로를 분노와 혐오감으로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셨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부드러움과 동정과 신실하심의 눈길이었다. 그렇게 보시면서 주께서 조용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그분의 타락한 자녀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너는 나를 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그리고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나는, 심지어 나도 너의 범죄를 감추려는 그이다…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내 안에 너의 의가 보이노라…나는 네 힘이라…나는 주이니, 변치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치 않으리라…이보다 더 큰 사랑이 아무에게도 없으니, 한 사람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내려 놓음이라…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는 용서 하리라.”

3. 말씀의 역사 —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1 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효험 있게 베드로를 회개로 데려가셨다.

4. **대변자의 역사** —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누가복음 22:32).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보존되고 은혜로 회복되기를 그가 타락하기 전부터 기도하셨다! 그 동일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높은 곳에 계신 우리의 대변자이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하시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중보 해 오셨다 (요한일서 2:1-2).

그리고, 약속된 때에,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고, 자신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으며, 베드로가 그 자신을 알게 하셨다 (요한복음 21:15-17).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흥분하게 하며 기쁨으로 내 혼에 넘쳐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드러움과 긍휼로 충만하시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위대하다. 그리고 그분의 동정은 절대로 모자라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은 신실하시고, 틀림없이 신실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시다!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만약 당신이 진실로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면, 아무 것도 영원히 당신을 그분으로부터, 심지어 당신의 죄로부터도 분리하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4:8). 아무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이니 그분의 은혜나 그분의 긍휼이나 그분의 관심에서 분리 할 수 없다. 아무 것도 절대로 당신을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나 그분의 용서로부터 갈라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아무 것도 절대로 당신을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손길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

베드로의 회복의 징조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에게 임한 주의 역사들은 효과적이었다. 그것들은 그 의도된 계획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토록 격렬하게 부인하였던 바로 그 구원자에 의해서 은혜롭게 회복되었다.

베드로의 시험과 타락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사탄은 그 거친 체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거른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겨 외에 아무 것도 잃지 않았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이 보여준 것처럼, 그의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서 나왔다. 심지어 이런 비극적인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통제 아래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에 따라 있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마귀이다. 그 지옥의 마귀는 전능하신 분의 적대적이고 부주의한 하인이다 (이사야 14:12-27). 우리는 그 사실을 한 순간도 잊지 말자. 지옥의 용은 빛의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합하여 선하게 역사하는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 (로마서 8:28).

베드로는 그 곳을 떠났다 (62 절). 일단 불이 그의 혼 안에 회복되었고, 그는 더이상 주의 대적들이 지피 놓았던 그 불의 온기가 필요 없었다. 그는 즉시 그의 마음을 그의 주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던 자들을 버렸다.

베드로는 처절하게 흐느꼈다 (62 절). 갑작스런 흐느낌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는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의 마음이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신 속에서 허물어졌다. 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부서진 그 사람은 복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서진 마음을 가진 자를 치유하신다! —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이다!” (시편 51:17). 회개에 대하여 어떤 것이든 아는가? 하늘로서 난 혼마다 안다 (시편 51:1-5).

베드로는 그의 구원자를 사랑하였다 —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17). 베드로에게서 이 사랑의 고백을 짜내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의 계획은 모두 은혜로웠다. 많은 사람은 우리 구원자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세 번 하신 것이 그에게 그가 그분을 세 번 부인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렇다는 표시가 없다. 사실, 나는 베드로의 죄의식과 치욕을 가중하려는 것이 우리 주의 의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스런 제자에게 그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있는 그의 유익을 증거하려 함이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택정하신 자를 향한 잘 알려지고 오랜 동안 입증된 사랑과 은혜는 나를 구원자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을 세 번 하셨던 것이 그분이 그분의 타락한 자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세 번 공개적으로 반복할 기회를 주려 함이었다고 생각하게 한다. 확신을 갖고, “주여, 내가 진실로 당신을 사랑하나이다.”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세 번 부인한 것이 그의 참 성격의 표시가 아님을 베드로가 깨닫게 만드는 주의 방법이였다. 그것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실질적인 베드로가 아니었고, 다만 그 안에 거하는 죄였다 (로마서 7:15-20).

우리를 위한 공과들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그 사건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의 타락과 회복으로 배우게 되는 공과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떤 것을 배우도록 하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뻔뻔스럽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그의 약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처럼 모두 아주 비슷하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변덕스럽고, 죄로 충만한 비참한 자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악함은 없다 (고린도전서 10:12; 4:7).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타락한 형제자매를 우리의 그릇됨으로 섬기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구원에 대한 것을 배우도록 하자. 그것은 무조건적이다. 그것은 대가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불멸하다! 우리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된 보장을 받았는가! 아무 것도 우리를 우리 구원자로부터 갈라 놓을 것이 없다! “한 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고 구원자의 미쁘심에 대한 것을 배우도록 하자. “주는 일향 미쁘시니!” (디모데후서 2:13)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5:24)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23)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을 아주 떠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유다서 1:21).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라. 십자가 주변에서 살라. 언제나 그리스도께 매달리라. 우리가 타락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돌이키라.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라. 기억하라, 우리 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바로 다음 말씀은, 그가 바로 그 날 밤 세 번 그분을 부인하였을 그에게 말씀하신 후, 이것이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1-3).

우리 대부분이 그분을 필요할 때, 우리 구원자에게 돌이키고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자 (히브리서 4:16). 그분은 당신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행한 잘 못을 잊으실 것이다!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8).

127 장. 까부른 밀—누가복음 22:31-32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31-32).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적 안녕을 최선으로 보증할 것인지, 혹은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믿는 자의 영적 성장을 최선으로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제시하겠는가? 나는 당신이 이렇게 답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가 세상의 영향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언제나 다른 믿는 자들에게 둘러 쌓여 있는 곳에 그가 있게 하라. 형제 자매가 가능한 거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적인 염려가 없고, 유혹하는 환경이 없도록 안배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영적 일들을 두고 묵상하도록 몇 시간을 보낼 것을 격려하라. 그리고 그의 육신을 만족하게 할 모든 것을 삼가면서 엄격한 규칙이 있는 생활을 실행하기를 격려하라.”

동일한 생각의 선을 조금 더 추구하라. 만약 내가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 전도의 복된 일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면, 무엇을 제시하겠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를 성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학이나 신학교로 보내라. 좋은 교육을 받게 하라. 그에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라. 그에게 좋은 도서를 제공하라. 그가 큰 뜻을 품은 다른 전도자들 가운데 있게 하고, 그들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그 날의 가르침과 종교적 문제들을 토론하라. 그리고 그를 가능한 한, 그의 생각을 부패하게 할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떨어져 있게 하라.”

그것은 역사를 통하여 종교인들의 실행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역사를 주의 깊게 본다면, 수녀원과 수도원이 안 그런 것보다 더 자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범죄의 소굴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서 대학과 신학대학들은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르면서 거의 개선이 없었다.

당신은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실히 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영적 일들에 적용된다. —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 아니다. 위대한 찬송가, “Amazing Grace”를 작사한 사람인, John Newton 은 이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자랄 수 있도록 주께 요청하였네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모든 은혜 가운데;
그의 구원을 더 알게 되기를,
또 그의 얼굴을 더 정직하게 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나를 가르치신 분은 그이네,

그리고 내가 신뢰하는 그가 기도에 응답하셨네;
하지만 그것은 그런 방법 가운데였으니
나를 거의 절망으로 몰고 갔던 것처럼.]

약간의 은혜를 받은 때를 소망하였으니,
즉각 그가 나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
또, 그의 사랑의 강제하는 권능으로,
내 죄를 억누르고, 내게 안식을 주시네.

이 대신, 그는 내가 느끼게 하셨네
내 마음의 숨겨진 사악함을,
그리고 지옥의 분노한 권세들로
나의 혼을 모든 방면에서 괴롭히네.

그렇다, 더 그분 자신으로 손으로 그랬을 것이니
내 비통을 가중하려 의도하였음이라;
내가 계획한 모든 좋은 계획을 방해하셨고,
나의 호리병을 시들게 하고, 나를 낮추셨네.

‘주여, 왜 이것입니까?’ 나는 떨며 외쳤네;
‘당신께서 당신의 벌레를 죽음에 처하게 하실 것이지요?’
‘그것은 이런 방법이라,’ 주께서 응답하셨네,
‘은혜와 믿음을 위한 기도로 대답하네.’

‘내가 이용한 이 내적 시험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아와 교만으로부터 너를 자유롭게 하려 함이라;
또 너의 세상적 즐거움의 계획을 부수면,
네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게 될 것이라.”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그분의 종 베드로의 체험 가운데, 어떻게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은혜롭게 그분의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지, 어떻게 그분이 믿는 자들을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과 지식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지 이다. 그리고 이 단락 안에서 우리는 우리 축복의 모든 지혜와 언제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자 구원자께서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백성에게 사역하고 섬기도록 예비하여 선택하신 방법을 본다.

그리고 주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라.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사탄은 우리를 소유하기를 바라며, 그는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따라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곳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 마음에 효험이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 대적의 욕망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첫째, 주 예수께서 우리와 관련하여 우리 대적의 욕망을 선포하신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밑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 의해 버림 받고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버림 받을 때가, 우리 죄를 그분 자신의 몸에 품으시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고난 당하고 죽으시게 되셨을 때가 가까워 왔을 때, 사탄이 생각했던 것이 구원자의 제자들을 떼어내기 위한 완전한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던가, 그분이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속하고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았다. 사탄은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과 지옥의 문이 교회를 능가할 수 없을 것임을 선포하셨던 것을 알았다.

지옥의 마귀는 또한 제자들이 큰 혼란의 시간 가운데 있었음을 알았다. 그들은 주 예수께서 세상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전적으로 기대하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임박한 영광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분을 따랐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분이 사악한 자들의 손에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고 죽으셔야 하며, 성경이 성취될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실망하였고, 낙심하였을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들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27)고 말했다. 따라서 마귀는, “이것은 내가 칠 수 있는 완전한 시간이다. 만약 내가 이 제자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허물게 될 것이다. 나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마귀는 이 시간을 위하여 그의 큰 힘을 축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마치 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부짚는 사자처럼, 삼켜버리려는 자들을 찾으며,” 주를 따르는 자들 위에 그의 경계의 눈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욥

욥기의 처음 두 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단이 그의 먹이를 결정하는지 우리에게 보여 줌으로써, 여기에 어떤 빛을 뿌렸다 (욥기 1:8-12; 2:4-6).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1:8-12).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찌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욱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

하지 말찌니라.” (욥기 2:4-6).

만약 당신의 성경의 여백에 주어진 (만약 각주가 있다면) 욥기 1:8의 다른 번역을 보게 된다면, 그 말쑤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는 “네가 네 마음을 나의 종 욥 위에 두었느냐?”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이, 백정이 잡기로 선택한 송아지 위에 그의 눈을 둔 것처럼, 혹은 늑대가 양 떼 가운데 한 마리 어린 양을 골라낸 것처럼, 그의 악의에 찬 마음을 욥에게 두었다는 것을 아셨다.

사탄은 그의 악의적인 의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보인다. 그가 하나님께 대답한 것은,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였다. 그는 그의 마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의 손이 욥의 심장의 피 속에 담겨지기를 갈망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산 울을 치신 것과 여호와께서 그가 침입하지 못하게 욥의 종 주변에 울타리를 치셨다는 것을 불평하였다. 그는 울타리와 울부짖음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없애실 때까지 욥에게 손댈 수가 없었다. 두 번 여호와께서 그 울타리를 치우셨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찌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여전히 그분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대상을 보존하셨다.

비록 그분은 사탄에게 다른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분의 종 욥은 보존하셨다. 산울타리가 치워졌을 때, 사탄은 욥에게 들이닥쳤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먼저 그의 재산과 가족을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그의 몸을 괴롭혔으나, 그의 생명에 손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은 누가복음 22 장에서 우리 앞에 있는 장면의 아주 좋은 그림이다. 늑대는 그 마음을 양에 두고 주의 양 떼를 에워쌌다. 유다, 완전한 파멸의 아들은 그가 파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잡아 파멸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러나, 이제 유다의 피가 그 입에서 아직 따뜻한 맛이 있을 때, 사탄은 그 마음을 나머지 제자들 위에 두었다. 지옥의 마귀가 그들 모두를 원했다!

“당신(thee)” 과 “너(ye)”

당신은 성경이 때때로 “당신(thee)”과 “너(ye)”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다른 때 “너희(you)”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놀란 적이 있는가? 모든 현대 번역에서 완전히 타락한 것 중 우리 King James 번역 가운데 아름다운 번역 하나를 보여 주도록 하겠다.

신약 성경 안에는 “당신(thee)”과 “너(ye)”이란 말과 “너희(you)”라는 말 사이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언급할 때, “당신”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반대하는데, “당신(Thee)”이 “당신(You)”보다 더 존경스러운 것이라고 미신적으로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그렇지 않다. “당신(Your)의 이름이 거룩하니이다.” 보다 “당신(Thy)의 이름이 거룩하니이다.”가 더 공경스럽지 않다. 둘 다 우리 구원자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번역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우리 기도 가운데 “당신(thee),” “당신을(thou),” “당신의(thy),” 그리고 “당신의 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유(thine)”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가 언급했던 것처럼, “당신(thee)”과 “너(ye)”라는 말과 “너희(you)”라는 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성경에서 “당신(thee)”과 “너(ye)”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이 말은 언제나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 대명사임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러나 “너희(you)”라는 말을 읽을 때, 그것은 복수 대명사, 한 사람 이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우리 구원자의 말씀에 많은 빛을 뿌린다. —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밑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you)를 청구하였으나” (“너희(you)”는 나의 제자들인 너희 모두), “사단이 너희(너희 모두)를 밑 까부르듯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thee)” 단수 — 특별히 너, 베드로) “네(thy)” (“너의(thy)” 단수 — “너의(thy)”와 “너를(thou)”은 “그대(thee)”와 “너(ye)” 처럼 단수 대명사들이다. 주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였노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은, “베드로야, 사단이 너희 모두를 밀처럼 까부름으로써 너희를 파멸하려고 너희 모두에게 그 마음을 두었으나,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원했던 모든 것

나는 이것을 말하기 위한 모든 것을 말했다. —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제자들을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천명한 계획 안에 있는 제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을 포함한다. 그분은 당신과 나를 여기에 포함하신다. 사탄은 우리 모두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모두를 원하신다. 당신은 누가 그분이 원하신 것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사탄은 우리 모두를 소유하기를 갈망하며, 그가 우리를 밀처럼 까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지혜와 은혜로운 계획의 크기에 따라, 우리 주 예수께서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분은 사탄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밀처럼 까부르기 위하여 사단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7:15),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요한일서 2:1-2),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0:28).

죄가 죽음에 처하게 하였던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의 죄)는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죄의 정도나, 그들의 범죄를 악화시키는 상황이나, 더 큰 빛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도, 혹 다른 자들보다 더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다. 유다의 타락과 베드로의 타락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이것이었다. — 주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며, 그것이 그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다.

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그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모든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른 모든 사람은 밀처럼 까부르기를 해야 하고 하게 될 것이다. 당신과 나는 체 안에 넣어져야 하고 넣어질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겨를 밑에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분리하시고 불결한 자를 보배로운 자들로부터 분리하신다.

당신은 체가 무엇인지 안다. 모든 가정 주부가 빵을 구울 때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서 가리키는 체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내가 찬장에 갖고 있는 것의 엄청난 크기의 물건이다. 체는 알곡을 먼지와 겨에서 걸러내려고 사용되는 큰 그물 바구니이다. 그것을 앞뒤로 세차게 흔든다. 이리 저리 그것을 흔들면, 알곡이 겨와 분리된다. 모든 먼지와 부스러기가 체의 그물 사이로 떨어지고, 좋은 알곡이 남게 된다. 이것은 필요한 도구이고 필요한 행위이다. 밀이 겨와 분리될 때까지 빵을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사탄이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 행해진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그의 방법을 갖고 있다고 상상하면 절대 안 된다. 사탄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테로 까부르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은 단지 사탄이 그것을 하도록 사용하신다. —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아모스 9:9).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는 체질을 당한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는 체질을 받아야 한다. 까부르는 과정은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알곡을 겨와 나눈다. 보배로운 알곡이 가치 없는 겨와 나누게 하는 많은 체들이 있다. 네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1. **용성** — 용성의 체는 사람을 까부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용성으로 한때 그리스도 안의 참 믿음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은 스스로가 탕자임을 증거하면서 믿음에서 벗어났다 (디모데전서 6:10).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큰 부를 갖고 있고 크게 안락하게 살지만, 그들의 손 안에 갈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 같이 되는 일이 있느니라” (욥기 21:16-18). 다윗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성하게 만드신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가 사악한 자의 용성에 시기하였다. —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편 73:18).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부에 대한 부정직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이 체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까부르실 것이며 그들의 종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드러내게 하신다. 돈을 사랑함과 이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얻을 기회를 받을 때, 거짓된 자는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디모데후서 4:10) 그리스도를 버린다. 참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부하게 되거나, 말년에 있던 욥처럼, 그의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섬기고, 존귀히 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사용한다.

2. **역경** — 체질의 두 번째 방법은 역경의 체이다. 이 체는 용성의 체 안에서 시험을 받지 않았던 자들과 살아 남았던 자들 모두를 시험한다. 가난한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갑자기, 혹은 점차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으로 부하게 된다면 과멸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부유한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가난에 빠지게 된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곡을 거와 갈라 놓으려는 다른 많은 역경들이 있다 (질병 — 가정 불화 — 더러운 성격의 아내 — 무관심하고 폭력적인 남편 — 애 태우는 자녀 — 간통하는 배우자 — 사별).

3. **혼의 고난** — 또 다른 체질의 방법은 혼의 고난의 체이다. 체질 속에 있는 환란들은 체질 밖에 있는 환란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베드로가 어떤 혼의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뇌와 고통을 그에게 야기하였을 것이다. 그는 맹세를 하면서 그의 구원자를 부인하면서 (만약 내가 그 문제를 올바르게 알았다면) 그가 위선자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처절하게 울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른 체자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했다. — “나는 어부로 되돌아 갈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우리 마음의 사악함을 드러내기 위한 큰 시험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불신과 신뢰 없음과 역겨움과 모독과 반역으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시험인가!

어둠의 자식들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빛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 걷고, 우리 길 위에 비추는 빛이 없이, 우리 구원자의 달콤한 체현과 그분의 은혜가 없이, 눈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신음하고 한숨 지으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눈물과 우리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듯한 신음을 하며 걷는가! 하지만, 베드로가 당신 옆에 앉아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에게 이 쓰라린 일들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달콤한 역사임을 입증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하지 않는다. 사실, 그가 그렇게 하였다 (베드로전서 1:1-9).

4. **유혹** — 종종 우리는 한 손에서 혼의 고난의 체로 다른 손에서 유혹의 체로 까부르게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아론은 사람의 두려움으로 까부렸다. 라헬은 시기와 질투로 까부름 당했다. 모세는 성급함과 불 같은 성격으로 까부름 받았다. 다윗은 정욕과 권력으로 까부름 받았다. 솔로몬은 여인들과 우상으로 까부름 받았다. 헤스기야는 교만으로 까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책을 모두 읽어 보라. 유혹의 체 속에서 까부름 받지 않았던 자가 감동의 지면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어떤 믿는 자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한 유혹이 있으며, 그것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까부르도록 허락되었다. 얼마나 자주 당신 감히 절대로 언급하지 않았고, 마침내 많은 사람이 억눌렀던 질문과 의심인 내적 의심과 질문으로 유혹을 받았었는가? —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질문과 의심이다! 얼마나 자주 당신 속에서 그것 때문에 당신의 혼 안에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내내, “됐다! 나는 계속할 수 없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당신의 바로 그 혼으로부터 외치는 충동을 느꼈겠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까부름을 당하고 당하게 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통과해야 할 모든 체들이 있다.

우리 구원자의 증보

그것은 충분하다. — 사탄의 갈망과 까부름의 고통보다 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까부름의 체험을 위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구원자의 증보의 큰 공훈과 은혜를 절대 감사할 수 없었다. 32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에게, 나에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선택 받고, 그분의 피로 구속 받고, 그분의 영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죄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 예수께서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다. 그는 지옥의 아들이었다. 따라서, 그가 까부르게 되었을 때, 그는 체를 통하여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졌다. 우리 구원자께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라고 하신다. 그것이 그 사실을 위함이 아니었다면, 당신과 나는 바로 유다처럼 체를 통하여 떨어질 것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그와 함께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하게 까부르게 되더라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7 장을 다시 읽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은혜로운 찬양으로 천국에 올리자.

우리가 까부름을 당할 때, 비록 사탄이 우리 믿음을 파괴하려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 구원자의 마음과 손에서 우리를 벌거벗기려 구하지만,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거에서 밀알을 분리하는 것이다. 체를 통하여 떨어진 유일한 것은 먼지이고, 부스러기이고, 거이고, 독선과 율법 종교, 자기 확신과 허식, 자기 의존과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힘, 세속적 지혜, 교만, 판단의 가혹함이다.

체를 통하여 떨어진 것은 악하고, 세상에 속하고, 세속적인 본성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 우리 혼 안에 심겨지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속에 숨을 불어 넣지 않으셨던 모든 것, 그분의 영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알게 하도록 하셨던 모든 것이 까부름의 시간에 우리를 떨어트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떨어진다! 우리 구원자께서,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태복음 15:13)라고 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우리가 까부름을 받을 때 믿음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믿음이 까부름에 반응하는가? 믿음은 그리스도께만 더 확고하게 매달린다! 사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그분을 더 신뢰하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까부름 받음에 의해서 이다 (요한복음 13:36-14:3). 믿음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며” (유다서 1:21), 그리스도 안에서만 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완전하게 소망한다. 믿음은 우리 믿음의 유일하고 모든 충만이신 창시자이고 종결자로서, 우리 혼의 유일하고 모든 충만이신 구원자로서, 유일하고 모든 충만이신 피난처이고 숨을 곳으로서,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런 일들은 까부름으로 방해 받고 상처받지 않고, 더 빛나게 빛을 비춘다. 베드로는, 그가 까부름을 받았을 때, 그분의 구원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고, 다만 그분을 사랑했고 더 완전하고 그가 이전에 알았고 알았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겸손으로 그분을 신뢰하였다 (요한복음 21:15-17).

까부름 받음의 유익함

우리 구원자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만약 네가 돌이킨다면”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모든 까부름으로 우리가 더 큰 용도의 도구로 변화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며 말씀하셨다.

어떤 자들은 베드로가 전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 문장에서 어리석은 결론을 끌어냈다! 그것은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가 아니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의 고백은 은혜의 계시에 의한 결론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의 죄들이 용서 받았으며, 복음 전도자로 그를 내보내셨다.

우리 주의 말씀의 의미는, “네가 나의 공홀로 회복되고 되돌려 졌을 때, 정금처럼 화로에서 꺼내질 때, 당신의 형제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역에 합당하게 되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되었다. 이제, 그의 약함을 통하여, 그는 강해졌고, 그의 형제를 강하게 할 정도로 강하다.

베드로는 이전보다 그가 까부른 후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고, 그렇지 않았으면 훨씬 더 낮고 더 쓸모 있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얼마나 그가 그의 형제를 강하게 하고 오늘까지 그의 형제들을 계속하여 강하게 할 수 있는가! 전도자로서 그의 담대함은 다른 자들 속에 있는 담대함을 감동에 하였다. 그리스도께 대한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베드로의 철저한 헌신은, 그가 까부른 뒤에,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의 본으로써 하나님의 책 안에서 제시되고 있다. 어떤 힘이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하도록 그가 감동을 받은 서신서들에 의해 그의 형제에게 주어졌고 또 주어지고 있으며,택정의 사랑과 피의 속량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훈과 은혜를 우리에게 일깨우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그분께 우리를 향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강림과 올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은혜로 인치시기를 바란다. —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왜 이것입니까?’ 나는 떨며 외쳤네;
‘당신께서 당신의 벌레가 죽게 하시렵니까?’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니,’ 주께서 대답하셨네,
‘내가 은혜와 믿음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노라.’

‘이 내적 시험을 내가 사용하니,
자아와 교만에서 너를 자유케 하고;
또 세상 즐거움에 대한 너의 계획을 깨려니,
내 안에 있는 너의 모든 것을 구할 것이라.’”

128 장.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누가복음 22:31-38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밑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겹옷을 팔아 살찌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2:31-38).

성령 하나님께 은혜롭고 효험 있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하여 적용하기를 요구하면서, 우리가 자주 읽고 마음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 구절들 안에서 계시된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우리의 큰 대적, 사탄, 어둠의 왕은 계속하여 우리 혼의 영원한 파괴를 추구한다. 사탄은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한다. 사탄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8). 사탄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계속하여 악한 것을 행한다.
- 대적으로부터 우리 혼의 크고 유일한 보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은혜, 그분의 희생, 그리고 그분의 중재와 중보이다. 그분은 자신의 소유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32 절). 그분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늘에서]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다” (계시록 17:14).
-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이 타락할 때, 그들은 돌이키게 될 것이다. 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었다 (말라기 3: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찌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주께서 그를 그분의 은혜로 일으키시기 때문이고 (잠언 24:16), “여호와께서 손으로 불드심이로다” (시편 37:24).
-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는 서로를 도우므로 큰 기쁨을 받아야 하며, 특별히 그것을 타락한 사람들을 돕는 우리의 특권이고 명예로 여긴다. —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갈라디아서 6:1-2).
- 이것을 함께 배우도록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해야 하고, 우리 주를 위한 우리의 처분에 따른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충성되게 그분을 섬겨야 한다 (35-36 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 (35-36 절).

여기 우리 주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취해져서는 안되고, 격언의 말씀으로 취해져야 한다. 우리 구원자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애써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떡을 위하여 일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 입으로 떡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고통과 씨름하고, 다투고,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 어려움과 대적들을 극복하기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J. C. Ryle 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내포하는 원칙을 늘 행하도록 잘 해야 할 것이다. 마치 모든 것이 우리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수고하고, 힘써 일하고, 주고, 말하며, 행하고, 기록하도록 하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에 전적으로 의존한 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우리 자신의 ‘지갑’과 ‘검’으로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교만이고 독선이다. 그러나 ‘지갑과 검’이 없는 성공을 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하는 것은 뻔뻔스러움이고 광신주의이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처럼 행하도록 하자. 그는 에서를 달래고 진정시키기 위하여 모든 순전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는 온 밤을 기도 가운데 보냈다 (창세기 32:1-24).”

그것들은 모두 매우 중요한 공과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종종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학습에서 나는 37 절에 있는 우리 구원자의 말씀에 당신이 주목할 것을 원한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되어야 하리니

첫째, 주 예수께서, “이 기록된 바가 이루어져야 하리니.”라고 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되어야 할 많은 것들에 대하여 말씀한다. 그것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되어야 한다. 그것들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며, 거듭나야 할 많은 수의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다 (요한복음 3:7). 주 예수께서 단순히 니고데모에게, “너는 참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나, “거듭날 필요가 있다.” 든지, “네가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우리 구원자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내 편에 있어서 고찰할 문제가 아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후에 그의 복음서에서 (19:38-40) 니고데모가 아리마대의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서 주 예수의 시신을 얻기 위하여 왔으며,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 사랑과 은혜의 약속된 시간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거듭났다.

나는 니고데모를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의 상징으로 여긴다. 주 예수께서, 모든 선택 받은 죄인들에 관하여,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 각각은 하나님의 약속된 때에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확실성의 문제인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거듭나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 비록 선택 받고 구속 받았지만, 영원한 구원에 예정되었지만, 하나님의 택정한 자 가운데 아무도 거듭남을 떠나서 절대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가 왜 거듭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계시된 일곱 가지 이유가 있다.

1. 우리는 모두 처음에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시편 51:5; 58:3). 우리가 처음에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2. 택정 받은 자들 각자는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디도서 1:2; 예레미야 31:31-34; 디모데후서 1:9).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3. 선택 받은 모든 자는 택정함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테살로니가후서 2:13-14). 구원에 선택 받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의미 없고, 그분의 계획은 쓸모 없으며, 그분의 사랑은 가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은 황량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어질 수 없다면,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그분이 계획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그분은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믿겨질 수 없다 (에베소서 1:3-6).
4.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예정하심이 그것을 안배하였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 예정하심은 그분의 선택 하신 자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하여 영원 전부터 모든 것에 대한 약속과 안배이다 (로마서 8:28-30).
5.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 각자는 예외 없이 거듭나야만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속량의 피가 그것을 얻었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12).
6.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선택 받고, 피로 사신 바 된 죄인은 거듭나야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시기 때문이다. 기록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흑자는 물을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베드로후서 3:9 의 가르침임을 아는가?” 베드로후서 3:15 이 우리에게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렇게 말하기 때문에 안다. —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7. 그리고 모든 선택 받은 자, 영생에 예정된 모든 자, 구속 받은 모든 자, 그들 모두는 거듭나야 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행하도록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37-40, 44-45, 63).

요한복음 4:4 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택 받은 죄인을 위한 사랑의 시간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했다는 것을 본다. 사랑의 약속된 시간이 이르렀을 때,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거듭나야 할 시간이며, 그리고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측은히 여기시는 구원자께서 선택 받고 구속 받은 죄인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하며 그분의 사랑의 대상에게 생명을 주셔야 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택정은 그리스도께서 들어 오셔야 하는 집을 표시하였다. 예정은 그분이 오실 시간을 정하였다. 피의 속량은 그분이 오실 길을 포장하였다. 섭리가 그분을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집으로 데려온다. 효험 있는 은혜가 그분을 데리고 온다 (이사야 55:11).

여기 누가복음 22:37 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우리 대속자로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 “기록된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이 하신 대로 죽으셔야 하는데, 성경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편 22 편; 이사야 53 장). 그분이 여기서 인용하신 특정한 단락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이사야 53:12 이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 속으로 사명을 갖고, 공훈의 사명 위에서, 그분 자신의 자원한 보증의 약속의 매임 아래 오셨으며, 그것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의 보증으로서 받으셨다 (히브리서 7:22; 마태복음 1: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자유의지 때문에 일어났거나 유대인들이 그분을 그들의 왕이 되시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갈보리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분이 직접 선포하신 것과 같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9:22).

필요성

“해야만 한다”라는 말은 “필요한” 혹은 “속박”을 의미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무슨 필요성이 있었나? 왜 거룩한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야 했는가? 왜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구원자께서 죽음에 처해져야 했는가? 우리 구원자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고 수 백 년 전에 선포된 성경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이 필요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이 희생적이고, 죄속량의 죽음을 이루셔야 했던 다른 필요성이 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 (사도행전 2:23).
2. 우리 사랑의 구원자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 혼을 위하여 모든 책임을 지셨다. 그러나 일단 그분이 그 책임을 지셨는데, 그분은 그것을 성취하셔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묶이신 것은 존귀하다 (창세기 43:8-9; 요한복음 10:18; 사도행전 13:29).
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으셨고, 땅에서 들리셨던 것처럼 죽으셔야 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함이다 (로마서 3:24-26; 요한복음 3:14-17).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 했다면, 그분이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실 수만 있는데, 의가 지속되어야 하고, 죄가 응징 받아야 하고,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며, 용서가 합법적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분 자신 밖의 어떤 것으로도 누군가를 구원하도록 강요 받으시지 않았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족속의 얼마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으므로, 그분은 만족된 공의의 기초 위에서가 아니면 그렇게 하실 수 없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강요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 선택 하셨으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실 수 없다. —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잠언 16:6).

이루어 감이니라

이제, 누가복음 22:37 의 마지막 행을 보라. 우리 구원자께서, “내게 관한 일이다”라고 하시고, 그 모든 것, 구약 성경에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 그분에 관하여 영원 전부터 명령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루어 감이니라”고 하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나에게 대하여 명령되고, 계획되고, 기록된 모든 것은 특정한 계획과 목표와 의도가 있고, 결론이고, 종결이며, 예정된 결과이고, 신성하게 정해진 종국성을 갖고 있다.

죄를 모르셨던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 죄를 품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모든 충만으로 고난 받으셨을 때,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외치셨다. “다 이루었도다!...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9:30; 누가복음 23:46). 그리고, 그분은 순종의 종으로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의 머리를 겸손하게 숙이셨으며, 그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고, 영혼을 드리셨다. 그 순간, 그분에 대하여 명령되고 기록된 모든 것이 그 목표를 성취하였고 종국성을 갖고 결과를 예정하였으며, 그 종말, 그 결과, 그 마침에 이르렀다 (창세기 3:15; 시편 22:12; 이사야 53:5-12; 다니엘 9:25-26; 스가랴 12:10; 13:6-7).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의 언약의 보증, 그분의 모든 책무로서 그분의 약속의 모든 요구들은 끝났다. 구약 성경의 모든 그림자, 예표, 약속, 그리고 예언들은 끝났다. 하나님의 율법은 끝났다 (로마서 10:4).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와 진노와 복수는 그분을 위하여 또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끝났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자에게 “나는 노함이 없나니” (이사야 27:4). 심판은 그분의 구속 받은 자를 위하여 끝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와 죄의식은 끝났다 (에베소서 1:7; 골로새서 1:14; 2:13-17; 베드로전서 4:1-2; 로마서 8:1).

우리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있어서의 계획된 목적이 그 종말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마태복음 1:21; 히브리서 10:10-14). —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요한복음 13:31).

또 다른 하리라

이 모든 것의 빛 가운데, 있어야 할 한 가지를 더 보여 주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3:29-30 을 읽어 보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리스도는 신랑이다. —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요한복음 3:29). 복음 전도자들은 신랑의 친구들이다. 우리는 신랑 앞에서 있다. 우리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한다. 우리의 기쁨은 신부와 신랑을 함께 데려오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될 때 성취된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 하나님의 모든 참된 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존귀와 주목을 돌리기를 갈망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참되고 충성된 종의 기도이고 갈망이며 결심이다.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30).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 계신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일 뿐이고, 땅에 있다 (31 절). 우리는 곧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자들일 뿐이다 (32 절). 나를 믿거나 다른 사람들을 믿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를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참이시다는 이 사실을 인치는 것이다 (33 절).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35 절). 그리스도께서 흥하여야 하는데,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6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면 쇠할 수록, 그분 앞에서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기쁘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 수록, 그분은 내 앞에 더 흥할 것이며, 나는 그분 앞에서 쇠한다.

아, 그리스도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하라!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점유될 수 없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언제나 점유되고, 우리 자신으로 점유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그분으로 점유되면 될 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덜 점유된다.

겸손은 우리가 개척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겸손 하려 하면 할 수록, 나는 점점 더 교만해 진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 볼 수록, 나는 그분으로 더욱 더 점유되고, 그분 앞에서 더 겸손해진다.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129 장. 겐세마네에서의 고뇌—누가복음 22:39-46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39-46).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분의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의 장소, 겐세마네 동산으로 온다. 겐세마네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다. 겐세마네가 이 어둡고 어두운 밤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얼마나 적당한 장소인지. 여기서, 영광의 주께서 혼의 고통 가운데 흐느끼시고, 무겁고 깨진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그분의 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다는 예상 가운데 부서지게 하도록 시작되었다. 그분의 마음의 짐이 너무도 무거웠기에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육신의 땀구멍에서 피땀을 퍼부었다!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능력한 큰 느낌이 없이 내가 이 단락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대응되는 단락들을 읽은 적이 없다. 죄로 충만한 육신의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주께서 겿세마네에서 체험하셨던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극히 불가능하다. 나는 우리 앞에 있는 구절들을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에게 너무 큰 일이다는 것이다. 이 단락은 충성되고 경건한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다만 우리 구원자와 그분의 제자들을 이 단락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것처럼 바라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앞에 여기 제시된 분명한 공과를 배울 것이다.

우리 구원자의 고뇌

우리 구원자의 고뇌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 큰 무게와 비통함, 우리 복된 구속자의 혼의 이 비통과 고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주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크게 어지럽혔나? 그것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혹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우리 구속자께서 겿세마네에서 고뇌하셨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 아니었다. 그분이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대속자로서 죽으시는 계획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여 천명하셨다.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구원자의 고뇌에 대한 기록을 광야에서 그분의 앞선 유혹의 빛 가운데 읽어야 한다. 그 유혹 후, 사탄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동안 그분을 떠났고, 그분을 괴롭힐 다른 기회를 기다렸다 (누가복음 4:13). 겟세마네에서 이 세상의 왕이 주 예수 위에 그의 마지막 공격을 가했다. 마치 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공격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아담을 공격하였다. 겟세마네에서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으며, 겟세마네에서 여자의 씨가 다시 그의 공격을 격퇴하였다.

우리 구원자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다는 예상이었다. 그분의 그 혼을 부수었던 무겁고, 무거운 짐은 죄와 범죄의 짐, 이제 막 그분의 거시 되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모든 택정한 자의 죄와 범죄이었다. 우리 구원자의 큰 슬픔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실 그분의 예상으로 기인하였다. J. C. Ryle 은, “그것은 그 때 특별히 그분 위에 놓여졌던 우리의 죄와 범죄의 형언 할 수 없는 무게의 느낌이었다.” 죄를 모르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려 하였다. 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분, 하나님으로서 죄를 보시는 유일한 분께서 이제 죄가 되려는 것을 보신다. 거룩하고, 해가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려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은 이제 그분의 아버지에 의해 버림 받게 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기 시작하셨고,” 큰 경악과 놀람 가운데 계시길 시작하셨고, 그분 위에 다가오는 그분의 백성의 모든 죄의 모습에, 그분 위에 두텁게 몰려들고 있었던 신성한 진노의 검은 폭풍에, 그분을 향하여 휘두르는 공의 검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불가변의 공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의 저주들에, 그것은 마치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수의 번개처럼 그분을 향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자는 “매우 무겁게 되기” 시작하셨다! 우리 구원자의 바로 그 마음과 혼을 부수었던 그것은 세상에 그분이 오셔야 했던 바로 그것이다. — 우리 대속자로서 그가 견디셔야 했던 것에 대한 예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그 전체에 있어서, 대속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 우리 중보자이고 보증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들 대신 죽으셨다.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을 때, 우리 대신 살육 당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였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확대하였으며, 그것을 존귀하게 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의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를 사셨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위한 의로운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게 하려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셨고 믿는 모든 자의 의로운 분이 되셨다. 기록되기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잠언 16:6, 7; 로마서 3:19-28; 에베소서 1:7)라 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속자로서 죽으셨던 이후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고 충만히 만족하게 하신 이후로,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에 의한 정죄나, 하나님 앞에서 고소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영원히 없다 (로마서 8:1-4, 31-39).

겻세마네에서 우리 구원자의 마음을 부수었던 것은 우리 죄와 범죄의 엄청난 짐이었다 (이사야 53:4-6).

죄의 치욕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 하며, 불명예스러운 것인가! 어떤 것도 그렇게 갈보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죄에 대한 지나친 죄로 충만함을 보여 주는 것은 없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에게서 죄를 보셨을 때, 그분은 그를 죽이셨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셨을 때, 그분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 위에 그분의 진노의 누그러지지 않는 분노를 부으셨고, 그를 버리셨다. 그 사실들은 모든 인간을 놀라게 하였을 것이다. 그 일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죄를 발견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히 동일한 것을 하셨을 것임을 확실하게 한다. 죄에 대하여 절대 가볍게 바라보지 말자.

그리스도의 기도

42 절에 있는 우리 주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이 매우 무겁고, 비통하고, 고뇌의 시간에 계실 때, 기도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를 발견한다. 그분이 우리 앞에 얼마나 놀라운 본을 제시하시는지. 매번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첫 번째 분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푸념의 말을 들으시는 첫 번째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도 있고 야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혼을 위하여 좋은 일이다. 그곳에서, 오직 그곳에서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든 충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4:16; 야고보서 5:13).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주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가? 우리는 절대로 천사들이 감히 억압하지 않는 곳을 달려가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견디셨던 혼의 마음이 미어지는 고뇌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한가한 호기심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우리 혼의 이 고뇌,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견디셨던 것이 모든 사복음서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와 마가는 모두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께서 이 기도를 세 번이나 같은 말로 내뱉으셨다는 것을 말한다. 누가는 그분의 피땀과 그분께 수종 들러 오는 천사들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첨가하였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마태복음 26:39-42).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더라.” (41-44 절).

한편 사도 요한이 갯세마네에서 우리 주의 기도를 특별하게 다루지 않지만, 그는 우리에게 그분의 기도의 의미에 대하여 암시를 한다. 요한복음 12 장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갯세마네에서 배신 전에 옛새 동안 비슷한 위치와 경험 가운데 계신 것을 본다 (요한복음 12:23-33).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혼의 큰 고뇌 속에 계신 것을 본다. 그분의 고뇌는 분명 갈보리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물러섬이 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변함없이 그분의 얼굴을 향하셨다.

그분이 생각 속에 갈보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분명히 갖고 있는 한편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분명하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을 묻지 않고 계셨다. 그분은 이 곳에 의도적으로 오셨으며, 유다에 의해서 배신 당하시고, 체포 되시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1-10).

만약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부터 구원 받으시려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아버지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가? 우리 주께서 여기서 한 번 더 지옥의 공격 아래 계셨다. 사탄은 구속 가운데 그분의 아버지의 은혜에 속한 계획을 성취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의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었다. 사탄은 여자의 씨가 자신의 머리를 으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구원자께서 죄가 되실 예상으로 압도되어서, 이런 혼의 고뇌의 상태 가운데, 그가 그의 일을 끝내기 전에, 그가 십자가에 이르기 전에 죽는 것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두려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은 겻세마네 동산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 하셨다 (히브리서 5:7).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한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시고 사람 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결코 두려움을 알 수 없으셨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두려움을 알지 않으셨다면 우리처럼 모든 점에 있어서 유혹을 받는 사람일 수가 없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구별된 본성들, 신성과 인성은 분명 복음 이야기를 통하여, 특별히 그분의 유혹과 고난과 죽으심을 다루는 그 단락 안에서 분명하다. 여기 겻세마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큰 고뇌의 시험으로부터 풀려나기를 구하신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순종과 단념은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의 뜻을 향한 순종이고 단념이다.

우리 주께서 면제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그 시”는 그분이 세상에 오시려 하였던 그 시가 아니라, 동산에서 이 시간이었다. 그에게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그 잔”은 갈보리에서 그분 위에 부어질 그분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이 아니었다. 여호와와 종이 명확한 계획과 결심으로 받기로 하였던 것이 그 잔이었다.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그 잔은 그분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마실 수 있기 전에 동산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였다.

우리 주의 본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에 대하여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본인가. —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2 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1-24).

이것은 가장 높은 정도의 실질적인 경건과 거룩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상 속의 경건한 행동에 대하여, 그들이 하는 대로, 스스로에게 허풍을 떨고 자랑하게 하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항복하는 것이 경건이다. 경건은 나의 아버지께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보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만을 갈망하며, 그분의 뜻하시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으며, 고통을 즐거움보다 좋아하면서 인내를 갖고 품는다. 아무 것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 것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을 취하는 것처럼 애통과 비탄을 가져오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 그분의 예정하심의 영원한 뜻, 성경 안에서 계시된 그분의 뜻, 그리고 섭리 가운데 성취된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구약의 엘리와 함께 우리는 언제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고 말해야 한다 (사무엘상 3:18).

우리의 치욕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중 가장 최선이라 해도 얼마나 부끄럽고, 변덕스러우며, 게으르고, 죄로 충만한 피조물들인지. 우리는 45-46 절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나태한 무관심 속에 있는 이 사실에 대한 고통스러운 예시를 갖고 있다. —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것의 더욱더 고통스러운 예시를 갖고 있다. 우리는 모두 훨씬 더 자주 기도해야 할 때 잠들며,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 주를 무시하고, 우리가 단단히 잡아야 할 그런 것들을 속히 놓쳐 버린다.

하나님께 난 자는 모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두 가지 전혀 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이고, 싸우는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로마서 7:14-23; 갈라디아서 5:17; 시편 73 편). 영은 준비가 되었고 기꺼이 하려 하지만, 육신은 죄로 충만하고 약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경계하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호전적인 적진에 있는 군인들처럼, 그 안에 악의에 찬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보초를 서야 한다. 우리는 매일 우리 육신에 대항하여 전쟁을 해야 한다. 우리의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전서 5:14-24).

감사 드려라

마가의 이야기 (마가복음 14:41-42)를 읽는다면, 우리 보증으로서 우리 사랑의 구원자의 부동의 결심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 드려야 할 큰 이유가 무엇인지 볼 것이다. —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이 시험은 끝났다. 내가 나의 순종의 역사를 이루었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때가 왔도다.” — 이제 나의 죽음에 대한 약속된 때, 우리 구속의 약속된 때가 왔다. 이제 나는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라고 내게 주신 그 일을 마쳐야 한다. 나는 너희 대신에 죽으려 저리로 가야 한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 아무 것도 우리 구원자를 갈보리로부터 막을 수 없었다. 아무 것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무 것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죽음을 이루시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무 것도 갈보리에서 그분 자신의 보혈로 구속하시려 했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부터 그분을 막을 수 없다!

41 절에 있는 이 마지막 세 마디를 붙잡았는가? — “그만이다! (It is enough!)” 그분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고 하셨다. 그분의 순종이 그만이다. 그분의 피가 그만이다. 그분의 은혜가 그만이다. 그가 그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다.

130 장. 배반—누가복음 22:3-6

“열 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복음 22:3-6).

이 구절들에 포함된 것은 슬프고도 엄중하다. 그것은 모든 위선자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로 충만한 주제이다. 하지만, 그것은 교훈적이고 믿는 죄인들을 위로하는 주제이다.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권적이신 하나님 구원자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의 구속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상 가장 악독한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가롯 유다에 의한 우리 구원자에 대한 배반을 묘사한다.

가롯 유다

“가롯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 첫째, 이 끔찍한 사람, 가롯 유다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신약 성경에는 유다 (Jude, 혹은 Judas)라고 불렸던 네 사람이 있었다.

1. 유다(Jude), 야고보의 형제이고 우리 구원자의 이복 형제인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유다서를 썼다 (마태복음 13:55). 이 사람은 구원자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요한복음 14:22)라고 물었던 유다 였다.

2. 사도행전 9:11 에 언급된, 다메섹에 있는 곧은 길에 살았고,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을 이방인에게 사도가 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 안에서 계시하신 후에 아나니아가 다소의 사울을 만난 집에 있었던, 또 다른 유다(Judas)가 있다.
3. 세 번째 유다(Jude 혹은 Judas 라 한)가 있었는데, 그는 바사바라는 성을 가졌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있는 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사도로 보내졌다 (사도행전 15:22-30).
4. 그리고 여기 가룟 유다, 우리 주의 반역자이고, 밀고자이다. 그의 이름은 유다(Judas)였다. 그의 이름은 유다 였지만, 그는 “살인자”라는 의미의 가룟이란 성이 신성한 섭리로 주어졌다. 이 사람은 그가 절대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에 대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21).

“그 때에”

“(그 때에)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신 그 시간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유월절 이틀 전이었다.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일은 베다니에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있는 동안 일어났다 (마태복음 26:2-17; 마가복음 14:1-11). 사실상, 마가의 이야기는 사탄이 유다의 사악함을 기폭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은 구원자의 장례를 위하여 비싼 향유로 구원자에게 기름 부었던 여자의 헌신이었고, 그녀의 선행에 대한 주의 칭찬이었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 여인과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신 후 즉시, 유다는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마가복음 14:10).

요한은 우리에게 이 사건이 시몬의 집에서 만찬이 끝나기 전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13:2). 그들이 시몬의 집에서 만찬 상에 있는 동안, 주 예수께서 만찬에서 일어나셔서 그분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의 만찬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의 만찬에서 있었다.) 그리고, 구원자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들 가운데 그 끔찍한 일을 행했을 것에 그들이 놀랐을 때, 그분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3:26-27) 라고 하셨다. 비록 주 예수께서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이 그분이 배반자로 유다를 지정하였던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유다는 그분을 배반하려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갔다.” (요한복음 13:30).

베다니에서 만찬에 이어서 즉시,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의 비열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거래를 하고 있던 동안, 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이르렀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다” (누가복음 22:14; 마태복음 26:20; 마가복음 14:17). 우리 구원자께서 율법에서 요구한 대로 그분의 제자들과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 (누가복음 22:15-18). 19-20 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복음 시대에 구원자를 기억하고 상징적으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 주의 만찬의 복음의 규례를 세우셨다 (고린도전서 11:26).

만찬 상에서의 유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말했는데 유다가 주의 만찬이 세워졌을 때 주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보기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1 절과 22 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하기 위한 그의 가증할 거래를 하고 난 후, 유다가 열둘과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처음 지켰다. 주 예수께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고 하셨다. 유다가 얼마나 비열하고, 우둔하고, 마음이 모진 위선자였던가! 분명하게, 그는 오직 그의 계략을 감추기 위하여 왔다. 그러나 거기에 그는 마치 비록 그가 그 성찬의 일부였던 것 같지만, 달콤한 성찬의 축복된 규례를 세우셨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사도들과 함께 앉아 있다!

이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식탁에 울타리를 치도록” 하거나, 그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절대 지키기 않게 하고, 우리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이 떡과 잔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려는 많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다른 믿는 자들을 만찬 상에 오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런 실행은 끔찍하게 악하다.

주의 만찬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라. 믿는 자의 침례처럼, 그것은 예배에 대한 복된 복음의 규례이다. 그리고 침례처럼, 그것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만 지켜져야 할 규례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와 그가 성취하신 것을 알지 않는다면, 당신의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그분에 대한 당신의 필요를 알지 않는다면.”), 당신은 주의 만찬 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규례는 당신을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이 없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만을 당신의 주와 구원자로 신뢰한다면, 그 만찬상은 당신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어떤 믿는 자도 구원자를 기억함 가운데 떡과 잔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는 없다. 사실상, 모든 믿는 자는 구원자를 기억함 가운데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그와 같이 자주 행하도록 특별히 듣는다 (마태복음 26:26-28). 주의 만찬을 지키는 믿는 자의 침례 그 이상의 선택도 아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식탁에 앉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않는 것도 악할 뿐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 누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지 결정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각 사람은 자신을 시험하여야 한다. 당신과, 당신만이 그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은 목사의 책임이나, 교회 장로나 집사의 책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며,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

주 예수께서는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임을 아셨고, 그가 이미 은 삼십에 그분을 배반하려 약속하였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유다에게 세 가지 사항을, 그가 그의 가증할 위선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음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께서 그 사단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막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

“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유다가 “열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들었다 (3 절). 그는 “열 둘 중 하나” (47 절)였다. 그 열 두 사람들은 이제까지 땅 위를 걸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정예 집단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들 “열 둘 중 하나”는 가롯 유다, 흉악한 배역자 유다였다. 주께서 유다를 사도의 직책에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그가 마귀였음을 아셨다 (요한복음 6:70-71). 주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임하셨을 때, 유다는 그들과 함께 위임을 받았다. 우리 구원자께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열두 사람을 보내셨을 때, 유다는 그들 가운데 있었다 (누가복음 9:1-6). 유다가 다른 사도들이 행했던 동일한 기적들을 행

했던 것으로 내게는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들에 의해서 정체가 간파되었을 것이다.

은혜로운 계획들

비록 주 예수께서 유다가 누구였고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보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와 은혜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즉시 인지해야 한다. 유다는 모든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한 확연한 신호로서 세우기 위하여 특별하게 일으켜진 사람이었으며, 내적 은혜가 없는 외적 종교는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라고 모두에게 말한다. 유다는 전도자가 되도록 선택 받았고 심지어 사도가 되도록 선택 받았다. 물을 필요 없이,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바로 그 동일한 가르침을 전하였다. 그러나 유다는 사단이었다. 그는 결코 거듭나지 않았다. 그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믿음에 결코 부름 받지 않았다. 유다는 결코 그리스도의 참여와 하나님의 은혜의 참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외적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고백한 자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니었고 은혜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름 뿐인 사도였다 (하나님의 사자). 베드로는 그가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그들의 사역의 “부분을 얻었던” 자였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1:17). 그는 사도들의 사역의 부분, 단지 외적인 부분 그 이상 얻지 않았다. 그는 사도의 이름과 책무, 의무와 가르침, 명성과 기능을 가졌으나, 그 이상 아무 것도 없다. 그의 마음 속에 아무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혜도 없었고 그 영의 은사도 없었다. 그가 전하는 말을 들은 자들은 차갑고, 메마르고, 공허한 마음의 차갑고, 메마르고, 공허한 메아리를 들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을 채우는 자들이 많은 것이 두렵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안수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의해 안수 받지 않았다. 그들은 재능은 있으나, 은혜로 은사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강력하지만, 그러나 충성되지 않다. 그들의 교리는 심오하고 정확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수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상승시키겠으나, 그러나 당신의 혼을 계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머리를 부풀게 하겠지만, 그러나 당신의 혼을 거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유다 였다. 비록 그가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그의 마지막 날까지, 그의 범죄의 정도가 충만할 때까지, 사도들과 계속 관계를 맺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마귀였으며 마지막까지 마귀로 남았다. 그리고, 그는 “제 곳으로” 갔다 (사도행전 1:25).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절대 놀라거나, 그들이 충성된 사람에게 조차도 들키지 않고 가는 것에 절대 놀라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7:22-23).

해가 없음

유다는 또한, 모든 사탄의 도구와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라 할 지라도 그들의 모든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해치거나, 그분의 백성에게 상처를 주거나, 복음을 방해하지 못할 것임을 영원히 선포하는 지속적인 축복된 빛의 등대로 서 있다. 사도들은 유다가 그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방해 받지 않았다. 제자들은 만찬 상에 그가 있는 것으로 해를 받지 않았다. 우리 구원자께서는 방해 받지 않으셨고, 다만 유다의 배반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분의 결정에 도움을 받으셨다. 사실상, 열두 번째의 참된 사도, 사도 바울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 열둘 가운데 계수되는 것에서 타락한 유다였다.

유다가 사도로 선택하고 사단을 주의 만찬 상에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도록 허락하는 가운데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성도들이 유다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오염되거나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주의 참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하나도 잃은 것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들의 기쁨은 유다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았다.

만약 진실로 주 예수께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드릴 때 그분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만나신다면 (마태복음 18:20), 우리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에게 자신을 숨기려 시도하려 한다면 우리는 손해를 입고 고난받지 않을 것이다 (욥기 1:6).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가 그의 양 떼를 먹이는 곳에서 “양 떼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아가 1:8), 우리 혼은 비록 양 떼 가운데 한 두 마리의 염소가 있거나, 사자가 기다리면서 안자 있을지라도, 그분의 양 떼와 함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만찬을 예비하실 것이며, 우리 머리 위에 그분의 은혜의 기쁨을 부으실 것이고, 우리 잔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밀알과 가라지

그렇다, 우리 구원자께서 유다를 사용하실 지혜롭고 은혜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전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해방되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리고 그분은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밀알과 함께 자랄 것을 아셨다. 염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양 떼들 가운데에서 늘 발견될 것이다. 복음의 그물로 좋은 물고기가 모여들지라도, 잉어들 또한 몰려든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분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귀한 자와 역겨운 자”는 여전히 완전히 구별되며, 그들 사이에 “고정된 큰 격차가 있다.” 가라지는 결코 밀알이 될 수 없다. 염소는 절대로 양떼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나쁜 물고기는 절대로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없다. 여자의 씨와 뱀의 씨는 섞일 수 없다.

입맞춤으로 배반 당함

누가복음 22:47 로 건너 뛰자. 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시다. 그분은 기도를 마치셨다. 그분이 기도에서 일어서셨을 때, 그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45 절).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다 (46 절). 47-54 를 읽어 보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 가니라.”

다수

칼과 창으로 무장한 다수의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유다가 길을 인도하며 유대인들이 있다.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 (사도행전 1:16). 그러나, 왜 그렇게 엄청난 다수의 사람들이 비무장한 한 사람을 체포하려 왔었을까?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는가?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인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분은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 모두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경배 드렸다. 우리는 병사들이 이것을 알았을 것을 아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고 선포하였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5:39).

이 세상의 임금들 가운데 아무도 실제로 그분을 몰랐던 것이 확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데,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안 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8).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분이 공개적으로 “영광의 주”라고 선포하신 것을 알았으며, 그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이 용납되었다 (요한복음 18:4-8). 그리고, 비록 유다가 그분을 배반하기로 정해졌지만, 그는 그분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태는 우리에게 군관들이 주 예수께 그가 입맞춤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을 속히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26:48).

완전한 부패

왜 그분이 그런 예방 조치들을 하였는가? 그 사람의 마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람 그 이상이셨음을 끔찍하게 확신함이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들이 그분을 성의 언덕 위에 던져버릴 것을 찾고 있을 때, 주께서 그분의 대적들의 손에서의 탈출을 보았다 (누가복음 4:29-31). 따라서, 그분은 자신을 묶으라고 하였고 그분을 안전하게 데리고 가라고 하셨다 (마가복음 14:44).

이 사람들, 그들 모두는 그들이 겿세마네에서 구원자를 끌고 갈 때 벌벌 떨었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그날 밤 이 사람이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기에 충분함을 보았고 들었다. 우리 주께서 두려움의 아주 약간의 가책도 없는 그들에게 접근하심으로 주도권을 쥐셨다. 그분은, “내로라”고 선포하셨고, 그들은 그분 앞에서 뒤로 넘어졌다. 그분은 말고의 오른쪽 귀를 땅에서 주어서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의 눈 앞에서 그것을 다시 붙이셨다.

그들은 그들이 다루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알았고, 매우 공포에 떨었을 것이 확실하였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은혜롭게 강요 받지 않는 한, 그들 자신의 사악한 마음과 의지의 악한 결정에 모순되는 행동을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인간 마음의 죽음이고 부패이다. 설령 공포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개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달콤한 체험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마음은 그분 앞에서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머리 숙여야 하고 그분 앞에서 기뻐 춤춰야 한다!

통제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비록 범죄자처럼 묶이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단에 대해서 조차 절대적인 통제 가운데 계셨다. 그분은 성경이 성취될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적의를 지배하고 계셨다. 우리 주권적인 구원자는 이 사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고 계셨다. 그분은 힘으로 잡혔지만,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 또 성경에 따라 정확히 그대로 행하려는 그분 자신의 결정의 힘으로써 그들에 의해 사로 잡히셨다.

성경에 따라서, 그분은 그분과 가까운 사람이고 그분의 친구라 불렸던 자, 그분이 신뢰하였던 자, 그분의 떡을 먹었던 자에 의해 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려 가져야 했다 (시편 41:9). 성경에 따라, 죄를 위한 제물은 묶여야 했다. 따라서, 우리 구원자는 죄인들에 의해 묶이려 자원하여 그분의 손을 내미셨다 (시편 118:27). 이삭이 자원하여 묶이고 제단 위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도 그분 자신의 자원한 의지로 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성취되려 묶이셨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사악한 살기 등등한 사람들의 집단은 반역의 무리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록 그 사실에 대하여 철저하게 의식하지 않지만, 그들은 가시적이고 부인할길이 없이 수백 년전에 시편 2 편에 기록된 것을 성취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시편 2 편의 성취였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께서 특별하게 사도행전 4:24-28 에 있는 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모였나이다.”

대제사장에게 데려감

54 절에서 누가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쟀”라고 말한다. 그들이 동산에서 우리 구원자를 체포하려 왔을 때, 그분을 로마인들에게 끌고 가서, 가짜 재판을 하여, 그분을 죽이는 것이 이 폭도들의 의도였다. 이 군병들은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대제사장을 대신하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분을 처음에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는가?

다시, 비록 그들이 하고 있던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성향에 직접적으로 모순되게 행동하였다. 로마 군병들은 그들이 통치하는 멀리 받은 유대인들을 기분 좋게 하려 어떤 것이든 기꺼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그들의 명령에 직접 불복종 하였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군병들이었다. 총독이 주 예수를 체포하기 위한 명령으로 그들을 내 보내서 그분을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가도록 하였던 것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 내게는 그가 주 예수를 직접 그에게 데려올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분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고 추정하는가? 레위기 1 장을 읽는다면, 죄를 위한 제물은 먼저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는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것과 성경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였다.

그리스도 우리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속죄제, 우리 제물은 모든 제물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묶여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였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 큰 일에 포함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고, 그리고 총독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과 예지하심에 따라, “성경에 따라” 사악한 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갈보리 산으로 끌려 가셨다 (이사야 53:4-12).

“제 곳”

그가 명령을 받았던 것, 그의 비열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욕망하였던 그것을 행했을 때, 이 모질고, 완고한 반역자, 유다, 살인자는 지옥에 있는 그 자신의 곳으로 갔고, 그 자신의 손으로 갔다. 우리는 특별히, “유다는 이를 버리웁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고 듣는다 (마태복음 27:3-5; 사도행전 1:18-25).

유다가 얼마나 끔찍한 죽음을 죽었는지! 그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을 매달아 자살하였다. 그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사도행전 1:18). 얼마나 놀라운 참상인가! 얼마나 정의롭나! 그리고 그는 지옥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갔다. 당신이 감히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해 보라. — 영원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통하여, 유다는 그의 혼의 영원한 고통에 이르기까지, 양심을 저주하므로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끊임 없는 정죄를 견디도록 강요 받았다. 저주 받은 자의 비명들 속에, 이 불은 그의 혼에서 불타며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별레는 결코 죽지 않고, 유다 자신의 양심은 끊임 없이 신음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태어나지 않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태어나지 않게 하실 것을! 나는 영원히 의롭게 저주 받았다! 내가 입맞춤으로 생명과 영광의 주를 배반하였던 그 사람이네!”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장소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이 지정하신 장소로, 지정된 시간에 가셨고, 우리 구원자로서 그분의 약속된 역사를 이루셨고,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며,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던 것은 살인자 유다의 손에 의해서 였다.

우리 자신의 자리

이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결과는 영광스럽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우리 자리를 취하셨으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곧 우리는 그분의 전능한 은혜와 변함 없는 공훈로 마침내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 자신의 자리로 가데 될 것이다!

당신의 자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당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머리 숙이기 거절하면서 당신 자신의 의도적이고, 완강한 반역으로 지옥에 있는 당신 자신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게 될 것인가? 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혜롭게 구원하시며, 그분의 귀한 아들 안에서 생명과 믿음을 당신에게 주시고, 문이신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당신을 달콤하게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곧 그분이 당신을 당신 자신의 자리, 세상의 기초로부터 당신을 위하여 예비된 자리로 데려 가실 것이며, 당신을 과도한 기쁨으로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 당신을 흠없이 제시하실 것이다.

131 장. 한 큰 죄인과 그의 큰 구원자—누가복음 22:54-62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54-62).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타락과 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 위에 반복하여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슬픈 사건의 감동의 역사를 검토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란다. 여기 한 사람의 엄청난 죄인과 그의 위대한 구원자에 대한 엄청나게 교훈적인 기록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다. 그것이 인간에 의해 기록된 종교적인 평범한 책에 지나지 않는다면, 복음 저자들은 절대로 주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그의 주를 세 번 부인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슬프지만, 하나님의 종,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인생 가운데 있는 격려가 되는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락의 단계들

첫째, 우리는 베드로의 엄청난 타락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단계에 의해 선행되었다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그의 엄청난 죄는 덜 악한 자들에 의해 앞섰다. 그의 사망의 단계는 분명히 감동 받은 역사가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에 의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첫째, 베드로는 끔찍한 교만과 자신을 보여 주었다. 비록 다른 모든 사도들이 구원자를 부인하더라도, 베드로는 그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하였다. 그는 주 예수와 함께 감옥이든 죽음이든 따라갈 준비가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하였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잠든 채 발견되었다. 셋째, 베드로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었다.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려 왔을 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의 주를 위하여 용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감하게 싸웠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달아났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자를 따라가는 그를 본다. 그러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다음은 그의 구원자의 대적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무한하고, 변치 않은 은혜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을 본다. 그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의 종들 사이에 앉아서 불을 쬐고, 그들 사이에서 자신을 숨기고, 그가 주의 대적들에 의해서 주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소망하였다. 거기서 그는 경건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이 이제까지 행했던 가장 사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그들의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말을 들으면서 앉아 있었고, 그들이 영광의 주께 대하여 비난에 비난을 던질 때, 그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를 원했다! 마침내,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주 예수를 세 번 부인하였다.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늘 경계하자 (애가 2:15). 이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러운 교훈인가! 얼마나 필요한가! 여우들은 여기서, 그 교활한 짐승처럼 그들의 먹이 감을 잡으려 기다리며 조용히 숨어있는, 우리 안에서 잠재하는 간교하고, 열려 있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죄와 부패들을 상징하고 있다.

여우들은 또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숨기고 있는 교활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상징한다 (예레미야애가 5:18; 에스겔 13:4).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해서 그의 수종 드는 자들을 의의 사역자들로 만드는 것보다 절대로 더 교활하게, 아마도, 절대로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우들이 파괴하려는 포도넝쿨은 주의 백성들, 부드러운 포도를 달고 있는 믿는 자들이다. 부드러운 양심보다 더 부드러운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더 쉽사리 상처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혼의 전쟁에 이 파괴적인 대적들을 대항하도록 경계하기 위한 은혜를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 포도원의 주를 바라보자. 그분의 경계하는 눈과 은혜로운 보호가 없는 우리의 가장 큰 경계심과 가장 불타는 기도가 우리를 이 영리하고 교활한 여우들로부터 우리를 결코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민하게 지각하도록 하자.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이 여우들로부터 지키고 우리 앞에서 그들을 파멸하도록 간구 드리기를 절대로 멈추지 말자.

“주여, 말씀드리오니, 당신의 성소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살아 있도록 보존하시며, 무성한 상황 가운데, 당신의 영의 모든 그 부드러운 은혜를 내 위에 부어주셨으므로, 그로써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열매를 산출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널리 퍼질 것입니다.” (Robert Hawker).

여우들이 포도나무를 망가뜨리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주 예수께서 친히 그분의 포도나무를 지키실 것이므로 그들이 결코 그럴 수 없도록 달콤한 확신을 위하여 우리는 감사 드리기를 절대로 멈추지 말자!

내적 부패

우리가 모두 생각하길 택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나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다. — 어떤 더러운 부패가 우리 마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속에 숨겨져 있고 또 어떤 끔찍한 행위들을 한 순간에 저지르는지를, 주께서 우리 자신의 어더함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모른다. 당신과 나처럼, 베드로는 그가 죄인이었음을 알았다. 그는 그것을 고백하였다. —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나 우리처럼, 베드로는 그가 얼마나 죄로 충만한지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 날밤 대체사장의 집에서 그가 했던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그는 절대로 꿈꾸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당신과 나는 이 사실을 계속하여 깨닫고 있을 필요가 있다. — 우리 안에 없는 악이 이 세상에는 없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심장에서 행하지 않을 악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베드로는 큰 사람이고, 큰 사도이며, 큰 믿는 자이다. 그는 충성되고 용감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사랑했고 신뢰하였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인간이었으며, 은혜로 구원 받은 죄인이었고,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우리 안에 악에 대하여 한계 없는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의 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달려들지 않을 죄의 무모함은 없다. 노아와 룻과 베드로의 타락에 대하여 읽을 때, 주께서 막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을 것을 읽을 뿐이다. 절대로 추정하지 말자. 우리 자신의 힘에 대한 높은 생각 속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타락하였던 다른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아무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음

셋째, 베드로의 타락 이야기는 그 방법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효험 있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로운 방법들이 효험 있게 우리 혼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외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축소하기 위한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그것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것들에 의한 그분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이 사실 일뿐만 아니라, 과거 체험이 현재 악에서 우리 혼을 안전하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동등하게 중요하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도였다. 하지만, 그는 타락 하였다. 베드로는 큰 기적을 보았고 행했다. 하지만, 그는 타락하였다. 베드로는 구원자께 물 위를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타락하였다. 베드로는 변화된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지만, 그는 타락하였다. 베드로는 정말 이제까지 전해졌던 가장 위대한 설교를 들었다 (요한복음 14-16 장). 하지만, 그는 타락했다. 베드로는 주께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타락했다. 베드로는 구원자의 경고를 일깨우게 한 수탉 우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는 하락하는 과정을 고집하면서 타락했다.

이 모든 특별한 공훈들 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탉의 첫 번째 울음이 그의 배신을 그에게 알려 주었지만, 그는 부인을 지속하였다. 여전히, 그가 행하고 있었던 것을 충분히 깨달으면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의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른 아침에 수탉의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읽는가. 우리는 주께서 은혜롭게 그것을 듣게 하는 것을 제외하면, 그분이 베드로가 두 번째 수탉 우는 소리를 듣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다.

베드로는 그분의 구원자의 즉각적인 임재 가운데 있었다. 하지만, 그는 타락하였다! 어떤 은혜로운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하심이 우리 위에 와 우리 안에 없으면 은혜로운 방법이 되지 않는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은혜이다. 우리가 소유한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 사이의 차이는 그들의 행위도 아니고, 그들의 범죄의 정도도 아니고, 그들의 범죄를 악화시키는 환경도 아니며,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빛에 대한 죄를 짓거나 더 고집스럽게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유다의 타락과 베드로의 타락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베드로를 구속하셨지만, 유다는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는 선택하셨지만, 유다는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로 만들어진 차이였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고린도전서 4:7).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의 회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한 가지 때문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데,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베드로가 첫 번째 수탉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경고를 받았을지. 하지만, 심지어 더 크게 사악하게 되었다. 심지어 그가 두 번째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까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볼만한 광경이었는가! 주께서 베드로를 향하셨다. 베드로는 주께 향하지 않았다. 그분은 화가 나고 진저리가 나서 베드로를 바라 보셨던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바라 보셨다. 그 눈길은 부드러움과 동정과 신실함의 눈길이었다. 그런 눈길로, 주 예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타락한 제자의 마음에는 효험이 있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고로.” (예레미야 31:3)…“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요한복음 15:16)…“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요한복음 10:28)…“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브리서 13:5)…“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이사야 43:25)…“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이사야 43:1)…“내 안에서 너의 의가 보이니.”…“나는 너의 힘이라.”…“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말라기 3:6)…“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3)…“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리라.”…“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1-3).

우리 위대한 구원자

우리 사랑의 주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한 구원자인가!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크다.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은혜는 크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크다. 그분의 용서하심은 크다. 그분의 의는 크다. 그분의 속량은 크다. 그분의 지키심은 크다. 그리고 그분의 회복은 크다. — 베드로는 그의 그물과 배로 돌아갔으며, 그가 탕자였음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를 가계 두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마가복음 16:7; 요한복음 21:15-17).

132 장. 시험 받는 통치자—누가복음 22:63-71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누가복음 22:63-71).

우리 주 예수께서 공회가 새벽에 그들의 재판을 열기 위하여 완전히 모이기 전에 한 밤 중에 가이바 앞에 계실 동안, 우리 귀한 구속자께서 극도의 잔인함과 폭력을 받으셨다. 그분의 대적들이 그분을 매우 정죄하기를 원하여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그분이 끌려오자마자, 그들은 모독하면서 그분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유대인 공회가 영광의 주를 정죄하려고 모였다. 그것이 성경의 이 부분에서 묘사된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야수처럼, 혹은 포악한 야만인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렸다.” 그들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사야 53:3) 위에 그들의 최악의 증오를 발산 하였다. 그를 괴롭히는 자들은 그들의 모질고 굳어진 마음 속에 그분을 위한 동정은 없었다. 아무도 그분의 성품을 옹호하거나, 그분의 뜻을 설득하는 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도 그분 편에 서지 않았다. 그분을 동정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겁쟁이들이었는가! 잔혹함은 언제나 비겁의 상징이다. 그들은 동산에서 우리 주께서, “내로라”고 말씀하실 때,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그분을 죄수로 데려가기 위하여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하신 한 마디 말씀에 땅에 엎드렸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세력 안에 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털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그들 앞에 서 계시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괴롭히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잔혹하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그들의 잔혹함에 대한 이 기록조차,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우리의 교사가 되셨고, 우리에게 이 시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여 주시는 성령을 찬양하라.

큰 치욕 가운데 계신 하나님

첫째, 우리 앞에 사도가, “그가 자신을 낮추셨네!”라고 말할 때, 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 구원자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한 그 그림을 생생하게 본다. 크고, 형언할 수 없는 치욕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3-65 절).

그곳에 나사렛 예수, 인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가 서 계시다. 그분을 묘사하려 시도하지 않겠다. 어떤 화가의 붓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어떤 인간의 혀도 그것을 묘사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한한 재주가 있는 말로, 단순함의 수사로, 과장된 것이 조금도 없이 우리 구원자의 치욕에 대한 그림을 그리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둡고, 어두운 밤에 대세자장의 집에서 고난 당하셨던 그분을 볼 눈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분의 무자비한 적병 앞에서, 이음매가 없는 옷을 입으시고, 묶인 채,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둘러 쌓여서, 그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때리는 자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을 보는가? 당신의 시선을 그분께 내려 놓자.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두자. 거기 그가 서 계시니, 우리 구원자시고, 확실한 하나님 중 확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나는 사로 잡혀계신 전능자를 본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해 죄수로 잡혀 계시는가? 그렇다. 그분은 잡혀 계셨다. 그들이 잡고 있는 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람이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로마서 9:5), 하늘과 땅의 창조자, 그분 자신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 그분은 바로 그 순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 (히브리서 1:3) 계셨다. 그분의 약하심 모든 것 가운데 또 그분의 고난 당하심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5).

비록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그들에게 맞고, 모욕을 당했지만, 거룩한 천사들이 그분을 숭배한다. 분명히, 이 안에 어떤 놀라운 것이 있다! 전능자께서 사로 잡히셨다! 창조하든 파괴하든 하실 수 있는 그분은 그분 자신의 뜻의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분 자신 위에 우리 본성을 취하셨으며, 그 본성 안에서 인간의 아주 극단적 잔혹함의 대상으로까지 되실 정도로 낮아지셨다. 얼마나 놀라운 겸손의 낮추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묶이기를 허락하시고, 죄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의해 자신을 죄수로 잡히기를 허락하실 때보다 더 진실로 전능한 분이심을 결코 입증하지 않는다.

우리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악한 사람들에게 사로잡힌 죄수가 되셨고, 그 사악한 자들이 그들 자신의 죄와 범죄로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히심으로 그가 포로를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었다.

인자를 다시 보라. 이 인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분을 변함없이 바라보면, 나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였기” 때문에, 희롱 받은 영광을 본다. 그 사람들은 눈이 멀었고 그분이 그분의 영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광을 그들에게 숨기시며 가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볼 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본다.

무수히 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고 그 안에 그들을 두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한 순간도 살지 못하셨을 타락한 자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조롱 당하셔야 했다는 것은 내게 놀라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거기 그분이 계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거절당하셨으며, 극단적인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취급 받으셨다.

그분의 영광이 조롱 받으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될 수 있었다. — 그렇게 소유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끄찍하게 조롱하였다! 무엇이 죄이고, 허나 하나님의 영광의 조롱은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가, 허나 하나님을 강탈하고 그분의 영광을 그분에게서 강탈하는 사람의 시도는 무엇인가? 나의 구원자를 그렇게 조롱하였던 자들에게 내가 분개하는 동안, 내가 그분의 영광 위에 쌓아 올렸던 모든 조롱으로 인하여 내 자신에게 훨씬 더 분개한다! 아, 내가 얼마나 그분을 조롱하였던가!

그 인자를 다시 보라. 그분에게 고통 주는 자들 앞에 잠잠히 서 계신 나의 구원자를 바라 보면서, 나는 한대 맞은 선하자, 완전하고, 무한하고, 말할 수 없이 선한 자가 맞고, 상처입고, 괴롭힘 당하고, 폭행당하고, 두들겨 맞은 것을 본다. —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롱하고 때리며.” 악한 자를 때리는 것은 정의의 행위이다. 그러나 선한 자를 때리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잠언 17:15). 거기 서 계셨던 축복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혼 안에 영원히 인내하시는 그런 긍휼을 갖고 계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때렸다. 거기서 어떤 물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홍수가 잠기게 할 수 없는 그분의 거룩한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을 태웠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때렸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평강과 친절을 주시려 오셨고, 기쁨과 사랑의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려 오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때렸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 선하고 의로운 분이 사람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맞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그분 안에서 우리 것이 될 때만큼 선한 선한 분은 없었다 (잠언 17:15; 베드로전서 3:18; 고린도후서 5:21). 아 여기 얼마나 큰 선하심이 있는가! — 그분은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4-5). 하지만, 다시 나의 마음이 울부짖지 않을 수 없다. — 얼마나 슬프게도 심지어 그분 자신의 집에서 내가 그분을 때렸던가!

나는 여기에서 다른 것을 본다. 나는 눈이 가려진 전지한 분을 본다. —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물론, 전지한 분은 절대로 눈이 가려질 수 없다. 하지만, 눈이 가려진 인간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왜 우리 구원자께서 이런 분개를 인내하셔야 했나? 이것의 의미가 무엇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인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뻔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하지만, 눈이 가린 전지한 분을 볼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분을 때리신 영광의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때, 민수기 23:21 이 즉각적으로 내 생각 속에 온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공의 가운데 영원히 우리 죄에 눈이 가려지셨고,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그분은 그분을 때렸던 죄인들로서 우리를 결코 보시지 않으신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여호와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느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부정을 보시지 않으신다!

설명할 수 없는 타락

다음으로, 우리 구원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보라. 이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나는 끔찍하지만, 그러나 인성의 형언할 수 없는 타락, 당신과 나의 마음 속의 형언할 수 없는 타락의 분명한 묘사를 본다.

사람의 의지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이야기가 있다. 어떤 바보 (나는 가장 은혜롭게 “어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심지어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하여 말한다. 여기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성전 지기들이 밤이 어둠 속에서 행하고, 명령에 의해 행하지 않고, 율법에 의해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행하지 않고, 다만 그들 자신의 의지의 충동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행했던 것들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의지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본성의 추하고도 한치의 틀림 없이 분명한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그들의 수중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갖고 있다. 극도의 해방과 자유를 가졌을 때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욱하더라.” (64-65 절). 아,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적대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했는가!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반역의 종족이다. 우리는 그분의 전지하심을 무시한다. 우리는 그 삶이 전능하신 분께 대하여 모독과 모욕으로 충만한 인생이다. 타락한 사람은 어떤 야생 동물보다 더 냉혹하게 잔혹하다.

비통 가운데 계신 통치자

하지만, 여기서 나는 다른 것을 본다. 나는 나의 구원자의 비통 가운데 계신 통치자를 본다. 이 모든 사악함 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구원자, 통치 가운데 영광스럽고, 선하심 가운데 놀랍고, 영광 가운데 장엄하신 분이 서 계시다.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다물듯이, 그분은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신다. 그분의 얼굴에 아무런 분노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분의 눈에서 아무런 진노의 번쩍임이 발사되지 않는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품으셨고, 그분의 혼 안에, 신성한 인내, “인내의 하나님”의 바로 그 인내로 품으셨다. 그분의 하늘의 아버지의 뜻과 손에 의해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을 품으신 것을 아시므로, 그분은 인내 가운데 모든 것을 품으셨다. — 그분이 한 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요한복음 7:46).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어떤 본을 그분이 두시는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1-24).

우리 구원자는 순종 가운데 승리하셨다.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므로, 그분의 박해자들은 그분이 분노에 길을 내주도록 만들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의 헌신을 파괴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강요할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하시려 오셨던 모든 것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그분을 막을 수 없었다. 아니, 강한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분의 공훈의 역사의 목적을 이루셨다.

완강한 불신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체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어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이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찌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66-68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지 않도록 결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불신은 의도적이고 완고하였다. 그들은 그들 앞에 분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제시된 것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우리 구원자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셨다.

이는 대부분 사람들의 죄의 뿌리에 놓여 있는 큰 악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에 대하여 미리 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확신시키는 것에 대한 이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8-9).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보다 더 합리적인 것은 없고, 더 믿을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보라. 나는 그분의 영존하는 영광을 우리 구원자로서 자신 있게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본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69-71 절).

우리 구원자는 다니엘의 이상 (다니엘 7:13-14)이 그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셨고, 그로써 그분이 하나님 우리 구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셨다. 이 종교 반역자들은 우리 구원자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확연한 증거인가.

수고 가운데 사랑

인자를 다시 한 번 더 보라. 여기에서 나는 수고 가운데 있는 사랑을 본다. 이 모든 치욕과 고난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그분 앞에 놓여졌던 기쁨과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실 예상 때문에 우리 구원자에 의해서 견뎌졌다. —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갈라디아서 2:20).

모든 믿는 죄인들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취하도록 하자. 당신에게 있어서, 마치 전체 우주 가운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당신에게 있어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비웃음거리의 왕이 되셨고, 이 모든 치욕과 고뇌를 품으셨다. —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대속자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품으셨고, 더 형언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이다. 그분은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품으셨고, 자신을 희생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를 위하여 속량이 되셨다! —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11). —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코 실책으로 알려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분이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죄인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혼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분이 그분의 속량 받은 자들을 영광에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을 때, 그분이 당신에게 만족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은 내게 만족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께 만족하게 될 것이다!

133 장.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누가복음 23:1-46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1-3 절)…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28 절)…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 욕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42-46 절).” (누가복음 23:1-46).

내 생각 앞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 위에 지속적으로 있는 나의 구원자의 구속의 역사와 영광의 장면과 함께 살도록 하며, 하나의 속량 받은 혼을 언제나 넘쳐흐르는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그분이 성취하신 구속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으로 살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다시 갈보리 산으로 가서, 그분 자신의 위대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마음 위에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을 새겨 넣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자. — 우리 앞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이 있는가! —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인가! —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의 장면인가!

우리 주의 치욕

주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 급하게 끌려 가셨고, 그 곳에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모략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그들의 고소가 시기적인 종교주의자들의 고함으로 밖에 아닌 것으로 보였다. 일단 그가 주 예수께서 갈리리 사람이었음을 알았고,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제거하려 하였고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다.

헤롯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서 춤을 추도록 할 수 없었을 때, 그는 그분을 치욕스럽게 조롱하였고 그를 빌라도에게 돌려 보냈다. 그리고 그날, 두 비열한 정치인들이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해서, “예수를 넘겨 주어 저희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다. 빌라도, 헤롯, 대체사장, 유대인 역도, 그리고 군병들은 다만 한심한 꼬마 장난꾸러기들이었고,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었다. 이 구절 안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단 한 가지, 그들이 드러내기로 기록되었고 우리를 대신한 우리 주의 치욕의 큰 것인 한 가지가 있다.

얼마나 비열한 모욕과 조롱을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 분께서 대체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와 헤롯의 궁전에서 견지셨던가! 실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다!” (빌립보서 2:8). 그분은 그분께 당연하게 속한 모든 존엄과 존귀를 스스로 비우셨으며, 그로써 그가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조롱 당하고 그분에 의해 치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에 합당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부패와 대속

13-25 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류의 철저한 부패와 영광의 하나님께 대한 인간 마음의 역겨운 증오심에 대하여 끔찍하고, 잔혹한 모습을 보여 주신다!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자주 비열하고, 이기적인 허약한가! — 빌라도와 헤롯은 그들 자신 말고는 아무 것도 관심이 없었다. 둘 다, 그들의 영역 안에서 거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통치하는 백성 앞에서는 비겁하였고, 그들로부터 인정 받을 순간만 얻으려 하였다. 종교적이고 타락하였고, 유대인이고 이교도들이었던 전체 군중은 성육신 하나님을 죽이고자 안달하였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를 저희 뜻대로 넘겨주었다.” — 이것이 사람의 의지에 대한 어떠한 고발인가!

하지만, 여기에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 있다. 17 절을 읽어보면 — “유월절에 그들에게 한 사람을 풀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는 없음). 하나님의 섭리의 안배로, 우리 주께서 오셔서 성취하려는 모든 것을 보이시려고 기회를 주었던 관습과 한 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람이 우리 앞의 장면에 있었다. 바라바가 풀려나고 주 예수께서 그 대신 죽으셨을 때, 그것은 구원자께서, “이를 보라! 이것이 이 시간에 내가 와서 죄를 범한 죄인들 대신에 그들이 풀려나도록 그들의 대속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을 죽이려 왔던 이유이다!”

울지 마라

누가는 26-31 절에 쓰여진 것들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 기자이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누가복음 23:26-31).

이 여인들이 흐느끼는 것을 보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분의 피를 갈망하는 지옥의 개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들이 바라볼 때, 그 몇 명의 여인들이 흐느끼던 단 몇 명이었던 것은 충격적이다. 하지만, 구원자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분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다.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동정을 갈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기력하게 고난 당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와 자원한 종이셨고, 이제는 그분의 순종의 마지막 일을 행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분은 나라가 그 스스로 위에 쌓이는 심판을 예상하셨으므로, 인정 있는 동정심으로 그분을 죽이려 하였던 나라를 바라 보셨다.

세 사람의 범인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2-33 절).

누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두 명의 다른 범법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2 절). 분명한 표시는 우리 축복의 구속자께서 세 행악자들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누가복음 22:37). —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이사야 53:12). — “그리고 성경이 성취되었으니, 이르기를,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함이라.” (마가복음 15:18 *역주:한글번역본에는 없음). 우리의 보증이고 대표자로서, 그분은 모든 범법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의 범해진 율법과 공의 앞에서 계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17-21).

일곱 가지 천명

그분이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끔찍한 분노로 고난 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으며, 주 예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애착의 기억 속에 언제나 사로잡고 있어야 할 일곱 가지 뚜렷한 천명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이 일곱 가지 말씀에서 전해진 말씀의 산과 수 천의 설교가 있어 왔다. 나는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 이미 언급되었고 기록된 것에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안에서 본 것에 대하여 약간을 당신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소망한다. 이 말씀들은 우리 위대한 하나님 구원자께서 그분의 치욕 가운데 하시고, 그분이 죄인들 대신에 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옥의 세력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진노를 견디시며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다.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곱 가지 말씀에서 나는 아름답게 보여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위격과 역사와 책무를 본다.

용서의 말씀

그 일곱 가지 말씀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34 에서 발견된다.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여기에서 나는 죄를 지은 죄인들의 용서를 탄원하는 그리스도 우리 중보자, 우리 대제사장, 그리고 변호자를 본다. 여기에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고난 당하시고, 사악한 사람들과 함께 고난 당하시고, 사악한 사람으로서 고난 당하시며, 하지만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리고 그 중보자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5).

우리는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5:1). 중보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사람이어야 한다 (히브리서 5:4-5). 중보자는 기도하여야 하고 들음을 얻어야 한다 (히브리서 5:7). 그분은 제물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분 자신, 그분 자신의 생명이고, 그분의 피, 그분의 육신, 그리고 그분의 혼이었다!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드러져야 한다. 위에 우리 구원자께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제단은 그분 자신의 신성의 제단이었다. 그리고 중보자께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부어주실 축복을 갖고 계셔야 한다. 그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민수기 6:24-26).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아무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의 자격을 충족하신다 (요한복음 14:6; 로마서 8:34; 히브리서 7:25; 요한일서 2:1-2).

확신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43 에서 찾아진다. 죽어가는 강도가 외쳤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이고 왕이신 분께서 믿는 죄인에게 말씀하신 구원화 확신의 말씀이 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고난 당하실 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어찌 되었든지 갈보리에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상황의 무기력한 희생이었다고 상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조차, 그분은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의 하나님이셨다. 여기 그가 뜻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자가 계시다 (로마서 9:15). 사람에게 불과한 자는 아무도 결코 열 수 없었던 문을 여시는 은혜의 왕이 계시다. 아무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계시다. 누구의 공이라고 할 수 없는 공훈과 영생을 약속하신 영광의 왕이 계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 2:9).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베드로전서 3:22: 요한복음 5:20-21; 17:2).

다정한 염려의 말씀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우리 주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26-27 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우리 대표자이고 본이신 분의 다정한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는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조차고, 죄의 벌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인 책임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대표자이고 본으로서 우리 구원자는 그분이 죽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조차 일부러 사람으로서 그분의 책임이 주목하게 하셨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 대표자로서 그리고 우리 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셨다. 사람이 행하여 옳은 모든 것을 하셨다. 그분의 할례를 받았다. 그분은 침례를 받으셨다. 그분은 회당에 출석하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였다 (갈라디아서 4:4-5).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는 시간에 우리 구속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그분의 어머니를 다정하게 관심하셨다.

그분은 우리 율법적 대표자로서 모든 의를 충만케 하셨고 (로마서 5:19) 그리고 그분은 의에 대하여 우리의 본으로서 모든 의를 충만케 하셨다 (요한복음 13:13-15; 베드로전서 2:21-24).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배우려 한다면, 우리 세대를 어떻게 섬길지 배우려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 드려야 할 지를 배우려 한다면, 우리는 갈보리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되는지 배운다. 갈보리에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를 보며,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며, 우리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며 (에베소서 5:25-27), 어떻게 주는지를 배운다 (고린도후서 8:9).

하지만, 우리 주의 어머니께 대한 그분의 걱정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나는 그분이, “이제 나를 보라. 그리고 내가 단지 소년이었을 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를 보라, 그리고 내가 아직 너의 태속에 있을 때 네가 불러준 노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복음 1:46-55).

고통의 말씀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46 에서 찾게 된다. — “제 구 시 즘에(오후 3 시, 엄청난 어두움이 세 시간 지속된 후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 나는 우리 대속자 그리스도께서 혼의 고통 가운데 외치시는 것을 본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아버지께 하셨던 성경 안에 기록된 유일한 것이다. 여기서 그분은 인성의 가장 낮은 곳을 취하시고 그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그분의 창조주에 의해 동정 받는 피조물로서 외치신다. 그분의 큰 고통 가운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인 전능하신 인자께서 그분의 아버지의 히브리어나 그분이 성장하여 습득한 헬라어가 아닌 그분의 원래 언어인 수리아 말로 말씀하시며, 그분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 가신다.

그분의 아버지께 한창 순종하실 때, 영광의 주는 그분의 아버지께 의해 버림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버리며 보내는 그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마음을 부순 것을 이제 나무라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무한한 고뇌의 깊음에서 일어난 외침이다. 이 외침을 어떤 인간적 생각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비밀을 어떤 피조물도 간파할 수 없다. Martin Luther 는 이 말씀을 수 시간 동안 학습하고 묵상한 후에, 그의 성경을 덮고, 그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고, “하나님께 버림 받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떤 사람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고 외쳤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기쁘게 부서진 마음으로, 이런 우리 대속자의 가장 큰 비통함에 대한 사실을 기뻐한다.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께 버림 받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한다 (이사야 53:9-11; 요한복음 3:14-16; 로마서 5:6-8; 8:1-4; 고린도후서 5:20-21; 베드로전서 2:24-25; 베드로전서 3:18; 요한일서 4:9-10).

죄가 얼마나 무한히 끔찍하게 악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롭고, 의로우시며 선하신지! 아 나의 혼이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한히 큰가! 거룩한 주 하나님께서 가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얼마나 갈망하고, 뜻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그분은 인애를 기뻐하신다!” (미가 7:18).

큰 필요의 말씀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다섯째 말씀은 요한복음 19:28에서 발견된다. —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분의 큰 필요와 갈망에 대한 우리 구원자의 실질적인 표현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실질적 인성을 본다.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가지 말씀 가운데 가장 짧다. 그러나 그것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다른 여섯 가지만큼 교훈적이다.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 구원자에 관한 이 세 가지 사항들을 보여주려는 것임을 확신한다.

1. 그분의 육신의 갈증 — 몸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열이 나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의 혀가 말리고, 그분이 무릎에 매달려서, 그분은 물을 갈망하셨고, 지옥에 있는 부자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뜨겁고 거룩한 진노의 불을 우리를 대신하여 견디셨다.

2. 그분의 혼의 갈증 —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으므로, 그분은 그분의 혼 안에서 목이 말랐다. —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1), 그분의 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셨다 (시편 22:1-21; 40:11-13; 69:1-20).
3. 그분의 마음의 갈증 — 영광의 주께서 죄가 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누그러지지 않은 진노의 모든 공포를 견디셨던 것은 그가 사람들의 혼에 목마르셨기 때문이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 갈급해 하셨다. 그분은 후에 목마르게 되려 목마르셨다. 주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을 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17:24)라고 그분의 마음이 외치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다.

성취의 말씀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염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28-30).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 얼마나 복되고 승리의 말쑤인가!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안도의 한숨을 외치시지 않았다. 그분은, “마침내, 다 끝났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것들을 갖고 이 세상을 떠난다. 너무 많은 계획들이 끝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소망들이 성취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갈망들이 만족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일들이 끝나지 않았다! 그들이 하고, 보고 체험 하길 원했던 너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위대한 보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려 던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분이 여기 오셔서 하려는 것이 무엇이었나? — 아버지의 뜻을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히브리서 10 장)? “다 이루었다!” —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마태복음 1:21)? “다 이루었다!” — 성경의 모든 예표들과, 약속들과,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 죄를 종식 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분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 영원한 의를 가져오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 영원한 구속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의 마침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율법을 확대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는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다 이룬 보증인 자격에 대한 아버지께 행한 보증의 외침이다. — “다 이루었다!” —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7:4). 여기에서 우리 언약의 보증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말씀하신다, 내 손에 맡기신 일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혼을 구속하였습니다. 모든 양을 속량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찾아야 할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았습니다. 모든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잘 이루어졌으며,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우리의 큰 보증인의 외침이다! — “다 이루었다!” — 진노가 끝났다! — 심판이 끝났다! — 죄가 끝났다! — 의가 이루어졌다! — 구속이 이루어졌다! — 칭의가 이루어졌다! — 성화가 이루어졌다! — 구원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죄인들아, 들어라:
죽어가는 구원자의 외침을 들어라;
“다 이루었다!” 천사들이 노래한다,
지극히 높은 곳의 그리스도의 찬양을 노래하라.
“다 이루었다!” — “다 이루었다!”
땅과 하늘 전체에 말하라!

공의가 이제 구원을 요구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품은 그 혼들을 위하여;
또 찬양과 함께 미소 짓네
속량 받은 자에게 영원히!
은혜와 공휼, 은혜와 공휼이
대가 없이 흘러나오네 끝없는 가게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들어라,
그가 오셔서 행하려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궁핍한 죄인들아, 듣고, 믿어라. —
너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가? —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아, 그렇다, 사실이다!

“다 이루었다!” 모두 끝났다.
예수께서 저주를 마셔 버리셨다!
속량 받은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부인되지 않는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 보증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외친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군가?
누가 우리에게 죄로 벌할 것인가?
우리를 의롭게 한 분은 하나님이니,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름을 외치네, —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라!

안식의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구원자의 마지막 말씀은 누가복음 23:46 에서 발견된다. —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을 갖고 운명하셨다 (시편 31:1-5). 그리스도 우리 안식께서 안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일단 우리 위대한 구속자께서 그분
의 일을 이루시고, 그분은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
셨다.” 그로써 그분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 (히브리서 4:9-11).

여기서 주목하라, 우리 구원자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분이 이제 그 애정 어린 이름으
로 그분의 아버지를 부르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폭풍이 그분의 거룩한 혼을 격렬히 쳤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거의
끝났다. 오직 한 가지 할 것이 있다. 그분은 죽으셔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은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여기를 보라. 나를 보라. 보라,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다. 분노가
사라졌다. 심판이 갔다!” (이사야 12:1-6 을 읽어보라.)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그분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지, 사
탄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께서 이제 사흘
동안 마귀에게 고통 받으시기 위하여 지옥으로 끌려갔다고 헛되이
상상한다. 그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9:12). 그분은 사탄에게 아무
것도 빛지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그분은 지옥의 마귀를 영원히 정
복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그분의 발걸음의 본을 우리에
게 남기시며 그분의 영을 그분의 아버지의 손에 위탁하셨다 (베드
로전서 2:22-24).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마침내, 주권적인 권능 가운데, “그분은 운명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영을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이 인자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 “그분은 운명하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분이 그분의 영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께 오게 되었고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태복음 11:28-30).

134 장. 바라바 — 대속의 그림—누가복음 23:1-33

“1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17 필요하기 때문에 명절에 한 사람을 그들에게 풀어주어야 하였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24 이에 저희의 구하는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1-33).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모든 교훈 가운데, 어떤 것도 대속의 가르침처럼 너무도 절대로 중요한 것은 없다. 곳곳의 사람들이 대속의 속량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죄인의 대속자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막연하다. 그리고 극히 적은 수의 사람이 대속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한다. 누가복음 23:1-33에서 주어진 역사적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본성에 대한 분명한 예시를 본다. 그것은 대속의 희생이고 속량이었다. 결백한 자가 죄지은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죄지은 자가 풀려나야 했다.

배경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바라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사복음서 기자 모두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스라엘의 로마 지배 하에 있던 시기 동안, 낮선 풍습이 주기적으로 행해졌다. 유월절 날에 로마 총독은 죄수 하나를 풀어주었다. 의심할여지 없이,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 권위의 부분으로 자비의 행위로 의도되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것을 그들의 유월절의 축하에 중요한 선물로서 받아들였다. 유대인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 자신이 구원 받은 날로부터, 그들은 그것을 어떤 죄인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섭리의 안배로 속량의 날에 풀려나야 한 이후로, 빌라도는 그가 이제 로마에 있는 그의 상관의 눈에 자신이 타협함이 없이 구원자를 풀어주도록 허락할 기회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둘 가운데 누구를 선호하는지, 악명 높은 범죄자인지 아니면 거룩한 구원자인지 물었다. 주저함이나 의견 충돌 없이, 군중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외쳤다. 그리스도를 풀어주려는 빌라도의 마지막 노력이 실패하였다. — “이에 저희의 구하는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24-25 절).

바라바가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은 특히 그리고 특별히 사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킨다고 제시한다. 다른 사람들은 바라바가 그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 그의 아버지께 응석부리는 아이, 혹은 우리가 말하듯 “그의 아버지의 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바라바는 사랑스런 이름이고,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었다고 추정한다. 확실히, 우리에게 여기서 경고하는 것이 있다. — 과도하게 응석을 부리고, 망쳐진 자녀들은 대부분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고, 그들의 부모에게 슬픔을 주며, 주변 모두에게 저주가 되는 가장 그럴 것 같은 사람이다. 엘리의 두 아들, 압살롬과 바라바의 경우를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응석을 받아주고 버릇없이 키우지 않도록 부모들로서 경고를 받는다.

대속

어찌 되었든지, 바라바는 적어도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절도와 폭력과 살인으로 투옥되었다. 우리는 아마도 그런 아들의 아버지를 꽤 동정할 것이다. 이런 사악한 자가 끌려나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경쟁관계에 놓였다. 그리고 가련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의 불신과 죄 가운데 너무도 마음이 굳었고, 그리스도의 무고한 피에 목이 말랐으므로 그들은 이 추악한 피조물을 하나님 자신의 친구였던 사람보다 선호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 안에는 우리가 처음 보았을 때 깨달았을 것 이상의 가르침이 있다. 죄인을 풀어주고 죄 없는 자를 구속하는 이 행동 가운데, 우리는 대속에 의한 구원의 생생한 예를 갖고 있다. 죄인이 풀려나고 죄 없는 자가 그 대신 사형에 처해진다. 바라바는 살았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본다. 그가 그것을 행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고 그들 대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인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죽기에 마땅하다. 그러나 전능하신 대속자께서 우리 심판에 고난 당하셨다. 영원한 사망은 우리의 몫이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보증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바라바의 위치에 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유죄이고, 사악하며, 정죄 받았고, 갇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6).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로마서 3:26).

두 마리 새

구약에 있는 문둥병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두 마리 새가 사용되었다. 한 마리는 죽였고, 그 피가 수반에 부어졌다. 다른 새는 그 피에 담갔고, 그리고, 진홍색으로 덮인 그 날개들을 가진 채 공중으로 날려 보내며 풀어준다. 그 죽인 새는 그 피가 같보리 산에 뿌려졌던 우리 구원자를 예표 하였다. 그리고 믿음으로…

“피로 가득 찬 샘물,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흘러나오니.”

에 적셔진 모든 혼이 자유롭게 되었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임 당하게 된 구원자에게 그 생명과 자유를 빚졌다. 그것이 대속이다. 그것은 이런 결론에 이른다: 바라바가 죽어야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 죄인인 당신이 멸망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이 죽임 당해야 했다. 보라,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도록 죽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며 바라바 같은 죄인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바라바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만족을 이루신 그런 모든 죄인들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나는 당신이 이 사람 바라바에 대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기 원한다.

범죄자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 사항은 바라바가 많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죄 있는 죄인”이라고 말한다. 바라바는 죄 있는 죄인이었다. 그의 삶은 폭력과 죄의 삶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절도, 폭력, 살인의 죄가 밝혀졌다. 그만큼 그는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걸맞은 대표 인물이다. 우리는 모두 “바라바”라고 불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조상 아담의 아들들이다. 그의 형상, 그의 본성, 그리고 그의 성품이 우리 모두 안에서 반영된다.

바라바처럼, 우리는 모두 반역자들이다. 바라바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혁명가였다. 그것이 반역에 대한 현대적 호칭이다. 그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반역자들이다. 우리는 권위를 싫어한다.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여 반역을 저질렀다. 우리는 반역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교만과 고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항하여 우리 사람의 모든 날들 동안 반역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항하여 죄로 충만한 반역을 행한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처럼 행한다. 사람은 선한 것을 보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반역 가운데 변하지 않고 고집스럽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와 교사들에 대하여 도전하였다. 성인일 때, 우리는 도덕적이고 국가적 권위에 대하여 도전한다. 믿는 자들일 때 조차도,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거룩과 선에 대하여 도전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로마서 7:14, 15, 18).

바라바처럼, 우리는 모두 강도들이다.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창조,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강탈한 것은 아담의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죄로 인간이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 드리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에게서 강탈하였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분의 존귀를 강탈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만드셨던 것을 훔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그분과 관계 없이 그분의 창조를 강탈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원래 창조의 축복,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의 형상, 참 자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생명 그 자체를 강탈하였다. 우리 죄와 반역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텅 비고 공허함 말고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았다. 한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황태자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빈 손의 도적들이다 (에베소서 2:11-12).

하지만, 더 있다. 바라바처럼, 우리는 모두 살인자들이다. 그의 폭동과 강도 짓을 하는 과정에서, 바라바는 살인을 저질렀다. 우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모두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없다. 우리는 모두 우리 마음 속에서 많은 살인을 저질렀다. 시기, 증오, 화, 분노, 악의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의 눈으로 살인과 동등하다 (마태복음 5:21-22).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치명적인 죄의 질병으로 감염시켰다. 죄는 마음의 역병이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내려온 가족의 질병이다. 더한 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대하여 죄가 있다. 그렇다, 우리는 영광의 주를 살해한 죄가 있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어떤 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 역사의 지면 위에 기록된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마음 속에 내주하지 않은 어떤 악행이나, 극악무도한 범죄나, 수치스러운 죄는 없다 (마태복음 15:19). 우리는 모두 “바라바”라 불리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 조상 마귀에 속해 있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들”이다 (에베소서 2:3).

사형 선고 받은 죄수

둘째로, 바라바는 율법의 선고를 받은 죄수였다. 바라바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 선고는 통과되었다. 그는 죽어야 한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던 그날,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바라바가 셋 가운데 가장 지독한 자였으므로 그들 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다. 그를 데려가라. 그의 사형 집행 일까지 감옥에서 그의 손발을 묶어라.

감옥에 있는 바라바를 그려보라. 그는 곧 그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가로써, 끌려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때까지 매달리게 될 것을 예상하였다. 그는 율법의 선고 아래 잡혀 있었다. 그것은 천연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바로 그 상태이다 (요한복음 3:36; 로마서 3:19; 갈라디아서 3:10, 22-23; 에베소서 2:3).

인간의 노예상태는 확실하리만큼 잔혹하고 끔찍하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의 독립과 자유를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나는 내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해 오고 있었던 동일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인간은 노예상태에 있다. 인간은 종교적 전통, 사회적 관습, 집단적 압박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천연적으로 죄에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그 자신의 죄로 충만한 본성과 그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쥬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3:23).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사탄에 의해 사로잡혔다 (디모데전서 2:26). 인간은 천연적으로 모든 종류의 악의 성향이 있다. 우리가 싫어하는 척하는 사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중 누구든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억제하는 은혜뿐이다.

그리스도가 없이, 타락한 사람들은 어둠의 사슬에 매여 있다. 당신의 의지는 범죄의 족쇄로 사로잡혀 있다. 당신은 변하기 위하여 여러 번 결심하였다. 당신의 외적 행위를 약간 개선하는데 성공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의 성격, 당신의 본성, 당신의 의지는 노예상태와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만 죄수를 풀어줄 수 있다! —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36).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 사슬에 매여” 있었다 (시편 107-10-11).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었고, 그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비탄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꺼내셨고 분리 안에 있는 우리의 끈을 끊으셨다 (시편 107:10-14).

타락한 사람에 대한 선고는 확정되어 있고 변할 수 없다. —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4)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형 집행 취소는 없다. 특별사면은 없다. 철회는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천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선고와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죽음을 요구한다. 당신은 가석방 상태에 있지 않다. 당신은 죽음의 행렬 위에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유죄 판결 하신다. 당신 자신의 양심이 그 판결에 동의한다. 판결은 지나갔다. 누락된 유일한 것은 사형 집행의 약속 날짜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조상 아담 안에서 죽었다 (로마서 5:12). 그리고 모든 믿는 죄인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율법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에서 나온 모든 죄인은 율법에 사망하였다.

따라서 바라바 같은 죄인을 위한 소망이 없는 것인가? 모든 죄인은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신실하실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실 길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죄인을 살게 하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의 대가를 치르면서 공휼을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공의가 대속자 안에서 만족하게 될 수 있다면 공휼을 보이실 것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발견하셨으니 죄인들을 위한 소망이 있다 (욥기 33:24).

찾은 대속자

따라서 이 세 번째 사실을 주목하고 기뻐하라. 대속자가 바라바 대신에 죽은 것이 발견되었다. 로마 군병이 와서 바라바의 감옥 문을 열고, 그의 족쇄를 풀어주고, “바라바, 너는 풀려났다. 나사렛 예수가 너 대신 죽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것이 진짜 대속이다. 바라바의 대속으로 고난 받고 죽은 그 한 분이 우리 대속자이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고, 매우 사랑 받는 아들이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고 받으실 유일한 대속자이다 (로마서 3:24-26;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2:24).

죄인의 대속자는 합당한 사람이어야 하고,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꺼이 해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충만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을 짊어진 자는 누구든지 그 자신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한 만족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라, 하나님-사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구원자들. 하나님이니므로 그분은 구속하실 수 있다. 사람이므로 그는 고난 당할 수 있다. 하나님-사람이니므로 그분은 모든 충만의 구속자, 구원할 능력이 있고 기꺼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구속자께서 온전하고 죄가 없어야 한다. — “그는 죄를 알지도 았았으니.” (고린도 후서 5:2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에 고난 당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다! 아,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을 망설임 없이 취하셨다. 그분은 두 강도 사이에서 우리 대신에 그분의 아들을 매다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매우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육신을 장사 지내셨다. 그리고 은혜의 놀라운 이전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우리 의로 만드셨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풀려난 바라바

이제, 마지막 장소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바라바가 풀려났다는 것을 보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바라바 대신 죽으셨다. 따라서 바라바는 죽지 않았다. 여기에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다. —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던 그 모든 자들은 풀려나야 한다.

율법이 나의 대속자를 심판하고 나도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던 아무 혼도 지옥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잘못이 발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흘려질 수 없다. —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사야 53:11). 나는 진짜 대속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던 자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도 대속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해방을 얻으셨다면,
그리고 대가 없이 내 대신 견디심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라:
하나님께서 두 번 요구하실 수 없는 대가는,
첫째 나의 피 흘리시는 보증의 손에서,
또 다시 내 손에서라!

135 장. 갈보리로부터의 공과—누가복음 23:32-43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찌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32-43).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축복의 구원자와 함께 죄와 고통의 그 끔찍한 장면, 공홀과 사랑과 은혜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장면, 예루살렘 성의 바로 바깥으로 다시 가보자. 나는 내 생각의 눈 앞에 그 세 십자가들이 있는 장면, 세 범죄자들, 군병들, 제사장들, 종교적 군중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려 모두 모인 장면을 그려본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흩어져서, 나는 몇몇 흐느끼는 여인들을 보며, 멀리서 한 두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본다. 여기서 바로 그 드러난 것 위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표면 아래 숨겨진 다른 것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의해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점, 사람의 성품에 대한 많은 것, 대속의 큰 나타남,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함 받은 죄의 엄청난 그림, 용서 받지 않은 죄에 대한 슬픈 그림, 멀리 받은 구원자, 받아들여진 구원자, 영원히 타락한 죄인, 그리고 영원히 구원 받은 죄인을 본다. 나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롭게 적용하시고 기뻐하실 기도드릴 몇 가지 공과들을 발견하였다.

1. 하나님에 대한 인간 마음의 증오가 얼마나 깊고, 쓰고, 일반적이고, 혐오스러운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7).

아, 타락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증오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안에서 본다. 우리는 군병과 사람들 안에서 본다. 증오는 빌라도의 심판정을 통하여 반향 하였다. 적의가 헤롯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법정 안에 걸렸다. 시기가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 그 수치스러운 밤에 행해진 모든 말과 행위 뒤에 있는 동기였다. 체포, 채찍질, 조롱, 침 뱉음, 구타, 외침,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누가복음 23:21), 혼드는 멸, 취한 노래, 못 박음, 강도의 폭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철저한 증오의 피부음 뿐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연적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본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가운데 그 마음을 선포하였다. 여기 그 자신을 공개적으로 보이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증오를 무의식적으로 고백하는 타락한 사람이 있다.

십자가를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던 것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에게 그 고삐를 주시고 “네 마음의 느낌을 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리고 목 옆에 하나님을 받으며, 그 것처럼 행했다. 사람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나뉘쳐서, 가증할 쾌감을 갖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죽음 가운데 최악이라고 생각하므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경멸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고 말한다. 따라서, 천연적인 망의 증오가 외치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혐오자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의 증오의 강도를 보여주려 고통도 받는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크게 외침으로, 그의 치욕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영화로워진다.

십자가는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얼굴에서 거짓 종교의 가면을 벗겨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옥의 깊은 원한으로 넘쳐나는 소굴인 인간의 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은 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께 무관심한 것이리라. 그나 내 생각의 모든 것 안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싫어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설명하게 해 보자. 사람의 의도적인 불신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반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가? 모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의 조롱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은 감히 당신의 손을 바라 볼 것인가? 그것은 피가 뚝뚝 떨어지며, 붉게 물들었다! 그것이 누구의 피인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피이다! 피가 당신의 마음 속에서 계속하여 뿌려지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 이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은 아마도 내가 신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아마도, “어떻게 감히 나를 판단하는가!” 라고 외칠 것이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판단하는 것은 십자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다. 그것으로 당신 자신을 판단하기를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의 목적을 해석하고 당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이다.

아, 십자가가 인간의 어떤 계시인가! —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 그리고 그를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가장 충만 히 보이실 때이다. — 사단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사단의 편을 택한 사람. 그렇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인간의 증오의 공개적인 선포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나는 거룩하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2:42)라고 물으셨다. 사람의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복음 23:21)이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손, 사람의 혀 모두가 합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증오하며 소리 지른다. 갈보리 언덕에 있던 사람 안에서 내가 본 모든 것은 증오이고,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증오이며, 삼일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증오이다. 그것이 당신의 불신의 어떠함이다: —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증오 (요한일서 1:7-10; 5:10).

2.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악한 것일지, 만약 죄가 하나님 자신의 피를 취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하늘의 귀한 자의 죽음을 취한다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버림 받은 자로, 범죄자로, 저주 받은 자로 저주 받은 나무에서 영광의 주께서 죽으셔야 할 때 죄가 무엇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야 했나?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악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분의 보좌에 대한 대역죄이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겁탈하고 더럽히고, 전능한 분을 그분의 보좌에서 끌어 내리고, 영원한 자를 살해하려는 시도이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타락한 자의 적개심의 표현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천연적인 마음의 증오심의 표현이다. 죄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우리를 추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죄는 우리 인류의 모독이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를 가져갔다. 죄는 우리를 사망 선고, 영원한 사망 아래 우리를 두었다. 죄는 모든 인류에 대한 소망의 문을 닫는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세속적인 희생도 죄를 없앨 수 없다 (히브리서 10:1-7).

“유대 제단 위에서 죽임 당한
모든 동물의 피가
죄인의 양심에 평강을 주거나,
얼룩을 씻어낼 수 없네.”

어떤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의 죄도 없앨 수 없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죄를 없앨 수 없다.

“내 손의 모든 수고가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성취 할 수 없네;
내 열심이 어떤 쇠약함을 알 수 없었을까,

내 눈물이 영원히 흐를 수 있었을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죄를 위한 모든 것이 속량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가 구원해야 하네, 그리스도만!”

하나님 그분 자신조차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순수하고, 절대적 성품 안에서 죄를 없앨 수 없다. 죄가 없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성육신 하나님, 하나님-사람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없애야 한다. 그러나 그분의 희생은 충분하였다. 그분은 그러나 한 번 죽으셨고, 한 번으로 충분하였다. 그것이 이 말씀의 의미이다. —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26).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신 것과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와 공로와 효험이 있다. 따라서, 그는 단 한 번 죄에 대하여 고난 당했다. 그는 세상의 끝에 죄를 없애시려 한 번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이루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량의 희생으로 죄에 대한 유죄를 없애셨다. 그분은 그분의 고난과 우리 대속자로서의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없애셨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그분이 만족케 하심으로 율법의 벌을 없애셨다. 그분은 사망에 이르는 그분의 순종으로 죄의 결과를 없애셨다. 그분은 새로 태어남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운 능력으로 그분의 백성 안에 있는 죄의 통치를 없애셨다. 그분은 그분의 희생하는 은혜로 죄로 더럽혀진 것을 없애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영광 가운데 죄의 바로 그 존재를 없애실 것이다.

죄를 없애는 이 역사는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 자신의 몸 안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므로 그분에 의해 성취되었다. 그분은 그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깊어지고 가져 가셨다. 이것이 속죄 염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표 가운데 그려졌던 것이다.

주 예수께서 동쪽이 서쪽으로부터 존재하는 한, 그 종말을 완성하고 이름으로써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관여되는 한, 죄를 무효화 하고 말살하셨다. 그분이 우리 빛을 지불하셨을 때, 그분은 하루 안에, 그분 한 분의 희생으로 그것을 취소하셨다. 한 큰 날에, 전체 역사가 이루어졌다 (스가랴 3:9). 우리 죄는 영원히 존재하므로 효험 있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없어졌고, 다시는 찾지 않게 될 것이고 다시는 우리에게 부가될 수 없다 (예레미야 50:20; 로마서 4:8).

“나의 죄여, (아 이 영광스러운 생각의 기쁨이!)

나의 죄여, 일부가 아니라, 그 전체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더이상 그것을 지지 않네. —

주를 찬양하라! 나의 혼에 잘 되었구나!”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한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최대한, 꺼지지 않고, 꺼질 수 없는 사랑을 본다 (요한복음 3:16; 로마서 5:8; 요한일서 3:16; 요한일서 4:9-10). 인간은 이 꺼지지 않는 사랑 위에 홍수를 퍼붓지만, 더욱더 강하게 자란다. 인간의 최상의 적의에 대한 어떤 인내심이고, 그 죄에 대한 어떤 관용인가! —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어떤 사랑이 이와 같았는가? — 너무도 넓고, 너무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가 없고, 너무도 넘쳐흐른다. 죄가 넘치니,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하게 넘쳐흘렀다 (요한복음 13:1; 에베소서 3:14-19). — 아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4. 우리 위대한 하나님으신 구원자의 계획은 불변하게 확정되어 있고, 가차없이 실행되며, 완전하게 집행된다.

우리 구원자께서 한 역사 (마태복음 1:21), 그분께 지명되고 그분의 의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된 역사를 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 (시편 40; 히브리서 10).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하셨던 것처럼 “바로 되게” 성취하시기로 작정되셨다. 그것은 성취될 것이다. 그것은 완료될 것이다. 그분은 사망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은 성취될 것이다 (누가복음 9:30-31).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이 희생될 것인가? 제단이 세워질 것인데, 인간의 악의로 세워질 것이다. 제물이 살육될 것인데, 사람의 증오심으로 살육될 것이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시편 76:10; 사도행전 2:23).

5. 얼마나 기꺼이, 얼마나 열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련하게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는지!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20)라는 생생한 선포이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왜 우리 주 예수께서 저주 받은 나무에 못 박히셨나? 죽어가는 강도를 보고 답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심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

죽어가는 강도는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참된 표본이다. 이 사람은 그의 전 생애 동안 악한 것 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그가 강도였고, 그의 광포한 범죄를 행했던 강도였고, 모독을 계속하였던 강도였고, 심지어 처형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강도였던 것을 제외하고, 아무 것도 모른다 (고린도전서 1:26-31).

왜 임마누엘의 피가 갈보리에서 부어졌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생명의 피를 부으셨다. 여기서 나는 그 피가 그 마음과 생명이 지옥처럼 검은 나 자신과 같은 자의 죄를 씻어내시는 것을 본다.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고 죽으셨나? 그것은 최악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괴수에게 낙원을 열어 주고, 즉시 열어 주기 위함이었다. 고난의 여러 해 이후가 아니라, “오늘”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 주 예수께서 그분의 손 안에서 이 구원 받은 강도와 함께 하늘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얼마나 놀라운 효험이 있는가! — 놀라운 은혜이다! — 놀라운 영광이다! — 놀라운 씻음이다! — 놀라운 치료이다! — 놀라운 공의이다! — 놀라운 축복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옮기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였으므로, 그분은 불타는 정복한 지옥에서 상포처럼 떼어내셨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지옥에 던져 버리셨다. 십자가에 의해 구원 받은 첫 번째 죄인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세워진 후, 비참하게, 당연하게 정죄 받은 강도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회개한 한 죄인 위에 임한 하늘에 있는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다.

6. 얼마나 가까이 사람이 지옥에 있음에도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강도는, 그전처럼, 지옥의 바로 그 낭떠러지 위에 있었다. 그는 구덩이에서 한 걸음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지옥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다. 지옥이 그의 삶이었다. 곧, 지옥이 영원히 그의 몫이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생애의 모든 날을 계속하여 악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생의 바로 마지막 시간에, 그는 주 예수에 대한 모독과 폭언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전능한 공홀로 불에서 빠져 나왔다! —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구원 받았다!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 그를 잡고 낙원에 들어 올렸을 때, 영원한 정죄로 막 들어가려는 참이었다!

아, 여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얼마나 풍성한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인가! 누가 이후에 절망이 필요하겠는가?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이다!

7. 그리스도께 얼마나 가까이 당신이 있지만 아직 영원히 길을 잃

었는지!

다른 강도는 구원 받았던 자만큼 구원자께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멸망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옆에서, 임마누엘의 바로 임재로부터 지옥으로 갔다!

두 사람이 있었다. 모두 강도들이었다. 모두 저주 받았다. 모두 길을 잃었다. 모두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다.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인접한 임재 안에 있다. 한 사람은 영광에 들림 받았다. 한 사람은 천국에 들림 받았다. 다른 사람은 지옥에 던져졌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이 두 가지 사실들을 확신한다. 첫째, 누구든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잘못 뿐이며, 그 자신의 책임이고, 모두 그가 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그 때문에 그가 홀로 영원히 비난을 짊어져야 한다. 둘째, 누구든 구원 받는다면, 누구든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로만이며,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의 결과이고, 그로써 하나님께서만 영원히 찬양 받으셔야 한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 죄는 우리 모두가 본성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다. 물이 마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부패하게 한다. 썩은 샘이 오직 썩은 물을 내듯이, 부패한 마음은 오직 부패를 산출한다. 그것은 사악한 자의 그 쟁기질이 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님께 혐오스러운 행위이고, 심지어 우리의가 그분 보시기에 더러운 누더기라는 뜻이다 (잠언 21:4; 이사야 64:6). 죄는 또한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모두 물처럼 부정함을 마신다 (욥기 15:16). 그리고 죄가 마땅히 받을 것은 사망, 영원한 사망이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진노의 영원한 보응이다. 사망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진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빛을 갚으신다. 한 강도는 그가 자신의 방법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 영생은 범죄한 죄인들에게 빛으로서 오거나, 우리가 행한 어떤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운 은사로 온다. 혼 가운데 영생의 시작인 새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이다. 영생의 성취인 하늘 영광도 또한 하나님의 은사이다. 사망, 지옥, 심판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것들이다. 그러나 은혜와 생명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죄인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위한 죄의 빛을 갚으심으로, 죄를 벌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가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의롭고 공의롭게 만드셨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분의 피와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우리가 이 은사를 받게 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사이고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의 결과이다 (에베소서 2:8; 골로새서 1:12).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의 이유가 아니라, 그 결과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만약 당신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것은 모두 그분의 역사이다. —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요나 2:9)

누가 그 강도보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씀 드리면서, 그는 결국 타락하였다! 경계하라. 외적으로 가까운 것, 종교적 의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함, 침례, 구원자의 살과 피의 상징을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도 구원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 아주 가까이 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구원은 그리스도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8. 그가 다른 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27:42; 마가복음 15:31).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대속자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셔야 했다 (히브리서 10:9-14; 베드로전서 3:18; 1:18-20; 2:24). 이 모든 것의 빛 가운데, 나의 마음이 외친다. —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136 장. “이 일을 보니라”—누가복음 23: 24-49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대로 하기를 언도하고…48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49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누가복음 23:24-49).

성경의 이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시며, 저주 받은 나무 위에 그가 달리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갈릴리로부터 그분을 따랐던 그분의 모든 친지들과 여인들이 우리를 대신하도록 하자. 우리 앞에 놀랍고, 경이로운 기록이 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고난 받으셨던 분을 기억할 때 우리 눈에는 놀랍고 경이롭다. — 우리 앞에 있는 큰 고난 받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에 이제까지 산 유일하게 정말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분이 누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는지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보기에 놀랍고 경이롭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연적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인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 당하였다 (로마서 5:6-8). 그리고 그가 고난 당한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보기에 놀랍고 경이롭다. 그분의 몸과 혼과 영의 큰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짐 진 자로서, 죄로 인하여 고난 받은 사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3)는 사실이었다.

겻세마네에서의 슬픔

그분이 세 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라고 기도하셨을 때, 겻세마네에서 있던 우리 구원자의 비통함을 보았다. 우리 거룩한 구속자께서 피로 젖어 버리게 한 그런 것은 죄가 된다는 생각과 예상에 그분의 거룩한 혼의 충격이었다. 누가는 그것은 이 말로 묘사한다. —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44).

가바다(박석)의 채찍질

우리는 또한 가바다의 채찍질을 보았다. 우리 주께서 가바다라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 흉내 가운데 정죄 받았다 (요한복음 19:13). 거기서 그분은 채찍질 받도록 잔혹하고, 야만적인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은 그분을 일반 재판정에 데려가서, 거기에 우리 구원자를 채찍질 하려 전체 군병 부대인 오백에서 천이 백 명이 모였다. 그들은 그분을 벗겼다. 그들은 로마 채찍으로 그분을 잔혹하게 채찍질 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그들은 그분께 침을 뱉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31; 마가복음 15:20).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형에 대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누가의 감동 받은 이야기가 우리 앞에 있다. 지금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우리 죄로 인하여 그곳에서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경배 드리기를 구하는 존경심으로 채우시기를 바란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은 다음의 것들을 기술하고 있다…

골고다의 살육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33).

마태는,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마태복음 27:33)이라 기록하였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곳”이란 의미이다. 골고다는 갈보리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이 살육의 장소에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었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들은 약간의 흙으로 덮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불렸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골과 뼈가 도처에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

골고다에 있는 살육의 이 장면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의 놀라운 장면이 세 가지 사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첫째, 성경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에 의한 성경의 성취를 여기서 본다. 우리 주께 고통을 주었던 군병들은 돼지들이 금강석에 관심이 없는 것보다 더 성경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던 것을 그대로 행했다 (사도행전 4:27-28; 13:27-29).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살해한 그 사람들조차도 그분의 증인으로 만드셨다.

그분을 조롱하였던 군병들은 그분께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다 (누가복음 23:36-37; 마태복음 27:34). 쓸개와 섞은 식초 (시어지고 썩진 일반 포도주)의 혼합물은 사람의 목숨을 연장하게 하는 혼합물로 생각되었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편 69:21 의 예언을 그들이 성취해야 했기 때문에 군병들에 의해 주어졌다. —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시편 69:21). John Gill 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쓸개가 있는 식초의 이 약은, 그분이 심한 갈증을 느꼈을 때 그분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 주의 고통 당하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분은 이미 동산에서 맛을 보셨으며, 마시려 하고 계셨다.”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 27:34). — 우리 주께서 그 혼합된 것을 마시고자 아니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생각의 위안이나 취함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고난 당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연장할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시려 했고, 오히려 그분의 시간, 시간의 충만함이 이제 와서 기꺼이 죽으시려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하셨다.

마태는 그들이 그분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그분의 옷가지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누었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27:35). 다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이 치욕의 날의 모든 일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 가운데 계셨음을 상기한다. 야만적인 군병들이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말씀하셨던 그들이 할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우리 중의 옷을 나누는 이런 행위는 시편 22:18의 성취였다. — “내 겹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여인들과 그분의 인척들처럼, 마태는 우리에게, “거기 앉아 지키더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27:36). 그분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냉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려 앉았다. 어린 아이가 지렁이를 잔혹하게 불에 던져 꿈틀거리고, 몸부림치며, 죽는 것을 다만 지켜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켜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엄청나게 놀랍게도, 꿈틀거리기도 없고, 몸부림치는 것도 없고,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영혼을 포기하실 때까지 죽지 않으셨다.

우리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분이 그래야 한다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두 강도 사이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또한 주목하라 (이사야 53:12; 누가복음 23:32; 마태복음 27:38). 그것이 당신이 여기에서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 사항이다. 이 두 강도들 역시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특별한 은혜의 장면을 우리에게 준다. 이 강도들 중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지옥의 바로 그 아귀에서 타오르는 횃불처럼 선택되었고, 한편 다른 강도는 바로 그의 죄의 결과로 고난 당하도록 남겨진 것을 내가 당신에게 상기시키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았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성도들과 지옥에서 저주 받은 자들 사이의 유일한 구별은 은혜가 만든 구별이다 (고린도전서 4:7; 15:10; 로마서 9:16).

셋째, 여기 갈보리에서 우리는 타락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은 그것을 스스로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고, 복음의 그 본질을 선포하게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한 표출을 본다. 우리가 들은 것이 없으므로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나약한 빌라도의 증언, 이 사악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유대인들의 증언,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증언들이 하나님께서 그 선택 받은 강도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를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들이 되었다. 이제 그가 들었던 증언을 들어보라.

빌라도는 선포하였다. “이는 예수라” (마태복음 27:37). —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9:19). —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 23:38). — 이 선포는 히브리 종교적 언어로, 그리스 철학적 언어로, 그리고 라틴의 학문적 언어로 되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시작되지 않는 참된 종교는 없고, 참된 철학은 없으며, 참된 학문은 없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사람들은 취하여 춤을 추었고, 임마누엘의 십자가 주변에서 지옥의 축제를 했고, 그들의 모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감동된 사도들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마태복음 27:40). 비록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이 몰랐지만, 그 종교적 의식주의자들은 우리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사실을 선포하였다. 그분은 그분의 육신인 성전을 죽으심 가운데 파괴하셨다. 그분은 삼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조롱하듯이 그들은 외쳤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27:42; 누가복음 23:35).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속자로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셔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하였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마태복음 27:4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셨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나 더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의롭게 되었음을 말씀하신다.

그 후, 그들은 다시 그분을 조롱하였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마태복음 27:43). 불신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들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이 누구이심 이다! 그분은 한 분 영광스러운 위격 안에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분은 마리아의 모태에서 하나님사람이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사람이며, 그분이 나무 위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사람이며,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하나님사람이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므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사람이다.

그리고 가증한 군중이 누가복음 23:35 에서 선포하였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나, 자신은 구원하실 수 없었던 그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 이시다 (시편 89:19; 이사야 42:1; 43:10; 베드로전서 1:3-5).

범죄의 현장

그러나 내가 “이 일들을 보며” 나의 죽어가는 구원자 앞에서 있음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이 있다. 갈보리는 큰 범죄의 현장, 죽어 마땅한 범죄의 현장이다. —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누가복음 23:32). 주 예수께서 이 두 명의 흉악한 행악자들 사이에서, 마치 그분이 셋 중 가장 큰 자였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사야 53:12). 그분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으셨다 (누가복음 22:37).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분은 범죄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되셨음은, 죄를 모르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죄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으셔야 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짊어지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는데 (갈라디아서 3:13), 우리 유죄가 그분의 유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시편 40:12; 69:5).

무한한 사랑의 장소

갈보리는 형언할 수 없고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인내하는 사랑, 자기부인의 사랑, 구원의 사랑, 영존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자의 부서지는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을 들어보라. 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고 기도하신다 (34 절; 요한복음 13:1; 요한일서 3:16; 4:9-10; 로마서 5:6-8; 고린도후서 8:9).

은혜와 구원

“그 된 일을 보고” 내 눈 앞에 죄인들의 구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의 장면을 본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누가복음 23:32-34).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39-43).

그분의 피의 속량 위에, 주 예수께서 그분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사람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얻으셨다. 그분이 얻으신 그 용서는 죽어가는 강도 위에 임한 그분의 은혜에 속한 구원의 운행 가운데 나타났다. 구원자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교훈과 위로로 충만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의 초상을 본다.

구원 전체는 우리 주께서 강도에게 하신 두 마디 말씀 안에서 종결된다 — “나와 함께.” 그는 언약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순종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었고, 이제 낙원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 — “나와 함께”는 강도가 원했던 모든 것이다. — “나와 함께”는 천국이다. — “나와 함께”는 구원이다.

아무도 전능한 공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신 구원자께서 그분이 구원하실 수 있는 자를 기꺼이 구원하신다. 그분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있다. 이 죽어 가는 강도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끗이 씻음 받았고, 한 번의 크고, 단일한 공훈의 치심 가운데 영화롭게 되었다!

이것을 또한 배우자. — 죽으심 가까이 있는 그 성도들은 영광 가까이 있다. 육신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심판과 공훈

“그 된 일을 보고,” 나는 큰 심판과 큰 공훈 모두를 본다.

“때가 제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23:44-45).

모든 땅 위에 어둠이 세 시간 지속된 것은 내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의 선포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자는 큰 어둠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우리 구원자가 없이 죽는다면 어둠은 그들의 영원한 분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공훈에 대한 선포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우리 같은 가련한 죄인들을 위하여 길을 열었다 (히브리서 10:19-22).

성취된 죽음

일단 “이 된 일들을 보니,” 나는 성취된 사망을 본다. —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46). 우리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성취하셨다. 그분은 죽음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분의 성취된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을 가져왔으며,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48 절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회개 가운데, “이 된 일들을 보고” 내 가슴을 친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죽으심은 이 가련한 죄인을 위한 죽음의 죽으심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저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전서 15:54-58).

137 장. 하나는 택함 받고, 다른 하나는 남겨짐— 누가복음 23:39-43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39-43)

그는 그가 지옥에 있을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옥에서 부자가 그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누가복음 16:26). 따라서 그것이 있었고, 그렇게 있을 것이며, 그렇게 있다. 인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양 떼와 염소들, 택정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들과 그분의 증오를 받은 에서들, 긍휼의 질그릇 들과 진노의 질그릇 들이다. 염소들은 결코 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양들은 결코 염소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택정 받은 자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버림받은 자는 결코 택정 받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결코 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에서는 결코 야곱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홀의 질그릇들은 결코 진노의 질그릇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노의 질그릇들은 결코 공홀의 질그릇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구덩이는 영원 가운데 고정되어 있다. 분열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만들어진다. 구별은 영원 가운데 세워졌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두에게 분명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크고 흰 보좌 위에서 심판 가운데 좌정하실 그 큰 날에 분명해질 것이다 (누가복음 17:33-36). 그 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35; 마태복음 24:40). 그 날에 있을 것처럼, 오늘날에도 있다. 사랑의 약속된 시간이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올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 앞에 생생하게 놓여진 이 사실을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에게서 본다. 오직 누가만 이 죽어가는 강도 위에 부여진 우리 구원자의 풍성한 공홀과 구별된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도록 감동을 받았다. 그것은 황금에 기록되어, 자주 이야기 되고, 모두에 의해 기억되기에 합당한 이야기이다.

은혜로 인한 구원

이 이야기에서 분명한 첫 번째 사항은 구원은 모두 행위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이다. 이 죽어가는 강도는 어떤 종류의 가치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어떤 마음의 사전 의향도 없었다. 그는 주께 어떤 경배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규례를 아무 것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침례를 받지 않았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는 교회와 하나가 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보지도 않았다. 그는 주의 만찬을 결코 지키지 않았다.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가 타락한 죄인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였고, 혐오스럽게 치욕적인 그 삶이 사형 선고로 끝나려 하였다. 하지만, 이 가련하고, 사악하며, 타락한 사람은 구원 받았다. 이것 말고는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 —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로마서 9:16; 에베소서 2:5, 8-9; 디도서 3:3-7).

주권적이고, 구별된 은혜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권적이고, 구별된 은혜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다. 분명히, 그것은 이 두 명의 강도 이야기에서 분명하다. 주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다른 행악자들에 대하여 모두 강도죄가 있었고, 정당하게 정죄 받았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영광의 주를 조롱하고 그분께 폭언을 하면서 둘 다 바리새인들과 군병들의 오합지졸 무리에 합세하였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고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다. 강도들 가운데 하나가 구원자를 저주하는 것을 그치고 그분께 공훈을 구하였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외쳤다. 하나는 그분의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모두 똑같이 구원자가 가까이 있었다. 모두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여섯 시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다. 둘 다 격렬하고, 몹시 괴로운 고통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둘 다 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찬가지로 사악한 죄인들이었다. 둘 다 용서가 필요하였다. 하지만, 하나는 그가 살았던 대로, 죄와 교만과 회개함이 없는 가운데 냉혹했던 대로, 믿음 없고 소망이 없이 죽었다. 다른 하나는 회개하였고, 믿었고, 긍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호소하였으며, 구원 받았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는가? 은혜다! 은혜 뿐이다! 참회하는 강도가 주 예수께서 그에게 생명과 믿음을 그분의 전능한 은혜의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참회하게 되었다. 그분은 지옥의 낭떠러지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잡아채서 그를 그분과 함께 그분의 부요하고,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상징으로 천국에 그를 데려가셨다. 그의 회심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설명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26).

어떻게 두 사람들이 같은 설교를, 같은 전도자에게서, 동일한 상황에서 듣고, 한 사람은 회심되었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죄 가운데 죽게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완전히 무관심하였고 다른 하나는 부서지고 머리를 숙일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은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하고, 한편 다른 사람은 모독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사람은 보고 다른 사람은 눈 먼 채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그 질문들에 대해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대답이 있다. —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신다” (출애굽기 11:7; 고린도전서 4:7). 택정하심 가운데, 구속 안에서, 그리고 효험 있는 부르심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 한 분 뿐이다.

시기 적절한 은혜

셋째, 이 죽어가는 강도는 우리에게 은혜가 언제나 때가 있다는 사실의 예를 보여 준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과 관련하여, “그는 시간의 틈새에 딱 맞게 구원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그럴 수 없다. 그는 신성하게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구원 받았다. 그는 다른 어떤 때에 구원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은 때에 구원 받았을 수도 없다.

그에게 있어서 이 때가 “사랑의 때” 그가 부름을 받아야 할 때였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에도 구원 받았을 수 없었다. 고멜과 탕자 아들과 오네시모, 그리고 이 죽어가는 강도에서 예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 각각에 대하여 구원을 위한 약속된 시간이 있다 (갈라디아서 4:4-6). 어떤 자들은 어렸을 때 구원 받는다. 어떤 사람은 생의 한 가운데 구원 받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년기에 구원 받는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 모두는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때에 구원 받는데,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구원자에게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우리 파멸의 완전한 체험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더 나은 시간에 구원 받을 수 없었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존귀하게 하도록, 그가 더 오래 살아서 더 나은 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당신에게 어떤 인간이 더 쓸모 있었던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대신하겠다. 어떤 사람이 선을 위하여 더 영향력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런 축복이 되었는가? 누가 이전에 이 사람보다 옥설을 듣고, 모독을 받고, 비웃음 받은 그의 구속자의 영광을 위하여 더 유익하였던 자가 있었는가?

모든 구원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약속된 때에 구원 받는다. 그리고 각자는 최선의 때에 구원 받는다.

은혜의 방법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하여 내게 충격을 주는 네 번째 사항은 이것이다: — 은혜의 방법은 언제나 분명하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역주: 하나님-KJV)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고 안다. 우리는 죄인들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안다 (베드로전서 1:23-25). 그러나 죽어가는 강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여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음이 없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가? — 아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그가 들었던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상기시켜 주도록 하겠다. 나는 그가 무엇을 들었는지, 혹은 그 전에 들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죽어가는 구원자 옆에 그가 달렸을 때, 그는 다른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었던 것 만큼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보았다. 그는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 받았던 것을 들었다 (마태복음 27:42). 그는 그의 곁에 달려 있는 인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했던 것을 들었다. — “제 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마태복음 27:43). 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가복음 15:31). 아마도 그와 다른 강도가 그분께 폭언을 하였을 바로 그 때일 것인데, 그는 주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친히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다 (누가복음 23:34).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면서 구원자에게 “원하라!” “구원하라!” “구언하라!”고 그 날 사람들이 외치던 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인가! 그는 빌라도의 증언을 읽었다. “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누가복음 23:38; 요한복음 19:19). 그리고 죄인 (바라바) 대신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 대신에 대속자로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다.

믿음의 특징

다섯째, 죽어가는 강도는 진리의 특징, 구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 사람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명시적인 예로서 서 있다 (39-42 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역사하심으로 선택 받고, 언제나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온 그 믿음의 특징들인 일곱 가지 사항들이 있다. 참된 믿음은...

1. 확신의 결과이고, 성령 확신에서 일어난다.
2. 공의를 인정한다. — 율법의 선고, 죄로 인하여 당신을 저주하는 것은 공의롭다는 것에 옳드리며 소유한다. 당신 마음의 교만과 독선을 비난한다.
3. 죄를 고백한다.
4. 그리스도의 거룩을 고백한다. —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5.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서 고백한다.
6. 긍휼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7.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43 절).

이 사람의 믿음은, 그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로서 난 혼에게 주신 그것과 정확히 동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발견되는 믿음의 가장 주목할만한 표현이며, 세상의 역사 안에서 발견되는 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장 주목할만한 믿음이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죽어가고 계시는데 그분을 버렸을 때,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자 하나님, 그의 주와 왕으로서 신뢰하였다!

자원하는 구원자

여섯째, 이 감동받은 이야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기꺼이 구원하시며,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히브리서 7:25)라는 것을 굵은 글자로 선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때에도 어떤 죄인이든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자원하여 구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6:37-40).

가까운 영광

일곱째, 죽어가는 강도의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영광에 가까이 있는지를 말해 준다. 하늘 영광은 아주 가까이 있다! 그 사실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늘은 아주 가까이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 이 새로 태어난 혼, 그 고통에 시달리는 육신 안에 사는 것을 곧 끝내게 될 자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를 천거할 과거의 어떤 행위도 없이, 장래 선함에 대한 가능성도 없이, 모두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하여, 그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오늘”이란 말은 많은 것을 말해 준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집, 이 진흙의 성막이 해체되자마자,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1:23; 고린도후서 4:17-5:9). 그리고 그 복된 상태에서, 하늘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은 무엇 같은가? 보좌 주변에 모인 것을 바라보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느낌과 그들의 행복이 무엇인가? 모두 이 간단한 문장으로 설명된다: —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만약 양 떼가 목자와 함께 있다면, 만약 지체들이 머리와 함께 있다면, 만약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과 함께 있는다면, 만약 신부가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만약 구속 받은 자가 구속자와 함께 있다면, 만약 구원 받은 자가 구원자와 함께 있다면, 모든 것이 좋다.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하늘이 무엇인지 모르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삼마 (Jehovah-shammah),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이다 (에스겔 48:35). 나는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 나는 더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더이상 소유할 수 없다. —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시편 기자가 잘 노래하였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시편 16:11; 17:15; 27:4).

“예수여, 당신은 죄인의 친구요; 그렇게 나는 당신을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의 중심 속에, 아 주여,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은혜로운 순수한 말씀을 기억하라, 갈보리를 기억하라,
당신의 모든 죽음의 신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님께 놀라운 중재자니, 나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서 보좌에 앉으신 동안, 사랑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죄를 인정하며, 불결함을 인정하나, 하지만 당신의 구원은 대
가 없네;
그리고 당신의 모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사랑의 주여, 나를 기억
하소서.

얼마나 버려져 고뇌하든지, 내가 얼마나 억압 받든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 받든지, 당신께서 나를 기억하소서.
또 내가 사망 가운데 눈을 감을 때, 또 노예가 모두 달아나게 도우
소서,
그러니, 아 나의 사랑의 구속자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할 것을 기
도합니다.”

하나는 택함 받고, 다른 하나는 남겨짐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을 때, 얼마나 불쌍하게 그가 그에게 간청하였는지! “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 (창세기 40:14). 그러나 그런 거은 인간의 비열한 배은망덕이며, 모두 헛된 것이었다. 관원장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 있던 요셉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은 거의 궁핍한 혼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왕 중의 왕과 함께 있으면 그렇지 않다. 그는 언제나 가련한 죄인들의 친구이다. 그는 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의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한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두 사람의 저주 받은 죄인들 사이에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달리셨다. 하나는 택함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남겨졌다. 당신과 나는 둘 다에 의해 상징 된다.

구원 받은 강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경이로운 능력을 본다. 애원자로 바뀐 욕하는 자가 있다. 무엇이 변하게 하였나? 모든 독선과 자존심과 자유의지의 모든 교만한 관념은 영원히 멸망한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구별된 은혜를 앙망하라. 한 행악자는 남겨져서 모독함으로 지옥에 갔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경배드림으로 믿음 가운데 죽었다. 그는 전능한 은혜로, 지옥의 아가리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타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장작처럼 간신히 구원 받았다. 당신의 본성이 이 강도처럼 사악하고 절망적인 당신의 상태를 보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혼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은혜 말고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를 찬양할 것이다. 아 나의 혼아, 그리스도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라!

아,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란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외에 구원자는 없으며, 당신에 의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고, 무기력한 죄인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영원히 저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아, 나를 당신과 함께 당신의 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라에 데려가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 믿음을 당신에게 주신다면, 당신은 곧 그 동일한 주,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위에” 공활 가운데 “부요하신”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12).

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가련하고, 궁핍하고, 무기력한 죄인들에게 얼마나 크게 끌리는 분이신가! —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한복음 12:32-33). 임마누엘의 신부의 모든 지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것처럼 외치게 하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 가리라.” (아가 1:4).

138 장. 흑암-갈라진 휘장—누가복음 23:44-45

“때가 제 욱시쫘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누가복음 23:44-45).

우리 앞의 이 두 구절 안에서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우리 구원자의 고통의 마지막 세 시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대속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견디셨던 고통의 마지막 세 시간에 대한 누가의 아주 짧은 이야기를 갖고 있다. 이 감동의 이야기를 존경과 죄에 대하여 부서진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값으로 얻은 죄에 대한 용서에 기뻐함으로, 언제나 읽도록 하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주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모든 지옥에 고난 당하셨던 그분을 알고 경배하기를 구하면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영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세 시간 동안 모든 땅 위에 어둠이 있었음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자연적인 일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 이 경우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행해진 일식이었다. 그것은 선지자 아모스가 예언하였던 일식이었다. —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아모스 8:9).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어두움은 세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세상의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몰랐던 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했다. 그 때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디오니시우스(Dionysius)라 하는 사람은, “신성한 존재가 고난 당하고 있거나, 고난 당하고 있는 자와 함께 고난 당하거나, 세상의 체계가 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이 일식은 한 번에 어둠으로 전 세상을 감싸는 태양의 완전한 일식이었다! 세 시간 동안, 정오에서 세시가 될 때까지, 해는 빛나기를 거부하였다. 그로써 주 하나님께서 생생하고 상징적인 모습 네 가지를 보여 주신다.

1. **저지른 범죄자의 극악무도함** — 비록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고 죽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지 않으셨다 (사도 행전 2:22-23).
2.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흑암과 암흑과 눈멀** — 비록 하나님께서 전에도, 이후에도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듣지 못한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사람들 위에 어떤 감동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에서 비늘을 떼어내시지 않는 한, 선하심 가운데나 심판 가운데에서 모두 섭리의 어떤 행위들도 그분이 보실 수 없다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천연적으로 너무도 눈이 멀었다.
3.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의 공허함과 어두움** — 유대주의는 단순

한 의식주의가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것은 모두 흑암이었다. 그리스도가 없고,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종교는 그것이 아무리 정통적이라고 보이더라도, 흑암이다.

4.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의 거룩한 혼을 엄습하고 에워싼 흑암** — 마태는, “구 시가 되었을” 때, 오후 세 시경에, 저녁 제물을 죽이고 봉헌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저한 본이었으며,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마태복음 27:50; 마가복음 15:37)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분은, 세 시간의 흑암 가운데 침묵하고 계셨으며, 인내를 갖고 그분의 혼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신성한 진노의 느낌과 아버지의 얼굴을 감추시고, 흑암의 능력으로 그분의 싸움 아래, 큰 고뇌 가운데 있는 한 분으로서 큰 소리를 치셨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혼의 고통 가운데, 어둠을 찌르는 그런 큰 소리를 치신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사람으로서, 선택 받은 사람, 기름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친구 위에 부어진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하신다. 사람으로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의해 들림 받고 강해지셨다. 사람으로서,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분께 기도하셨다. 오직 그분은 죄가 없이 온전하게 하셨다. 비록 이제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그 얼굴을 가리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아버지 안의 강함 믿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거나 그분의 버림에 대한 이유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보증께서는 이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계셨다. 그분은 따라서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려 하나님 아버지께 의한 버림받음을 견디셔야 했다.

이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이 받으시는 고난들의 그 혼을 표현하신다. 실로, 지옥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저주받은 자의 모든 울부짖음과 신음들이 죄의 악과 쓴 맛을 표현지 못하는 상태로 무한히 빠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비열한 것인지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위에서 찾으셨을 때, 그분은 진노 가운데 그를 버리셨다! 우리가 이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즉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속량 받았다는 것, 주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 그분은 모든 죄를 벌하셔야 하고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무한하고, 형언할 수 없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즉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외침으로, 그분의 혼의 깊은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이 세상에서든 혹은 장래 올 세상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 받아야 한다.

갈라진 휘장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후에, 주 예수께서 다시 큰 목소리로 외치셨고, “운명하셨다.” (46 절). 우리 주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꺼져가는 생명의 혈떡이는 호흡이 아니었고, 정복한 왕의 승리에 찬 외침이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원하여 그분의 양 떼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내려 놓으셨다. 그분은 자신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그것이 떠나게 하셨다. 그분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그분의 사명은 끝났다. 따라서,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자원하여, 우리 보증으로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을 우리를 위하여 정복하심으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는 것을 본다. 마태는 그의 이야기 안에서 보다 자세하고 좀더 사실적이다. 그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고 기록했다 (마태복음 27:51).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에서, 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이 찢어진 휘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찢어졌는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려보도록 하라. 갈보리 산에서 아주 짧은 거리에 모리아 산이 있고 유대인의 성전이 있다. 그 때는 저녁 제사 시간이었다. 해가 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 어둡게 되었다. 수천 명이 유월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 많은 사람이 아직 갈보리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모두 그 화려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이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의 공허한 의식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그가 성소 안을 거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있을 때, 지성서와 성소를 나누는 성전의 휘장이,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잡고 찢으신 것처럼, 그의 눈 앞에서 둘로 찢어졌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 거만한 제사장의 충격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지성소 안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제사장에 대해서 제외하고, 철저하게 공허하였다! 언약궤는 거기 없었다. 시은좌는 거기 없었다. 비록 성전이 바빌론 유수 이후 재건되었지만, 언약궤와 시은좌는 발견되지 않았고 솔로몬의 성전에 가져오지 않았다.

“느부가넷살에 의해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 안에 다섯 가지 물건이 있었으며, 그것들은 두 번째 성전에 없었고, 바빌론 유수 이후 세워진 성전이였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에 대한 다섯 가지 기념물과 상징들은 거기 있기 원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는 언약궤였다. 다른 것은 놋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내린 불이며, 세 번째는 세키나, 혹은 시은좌 위에 내려 앉은 구름이고, 넷째, 대제사장의 흉배 안에 있는 우림과 둠민이며, 다섯째는 예언의 영이다. 선자지들인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회복의 시간과 바로 직후에 있었지만, 여전히 예언의 영이 말라기와 함께 그쳤고, 주 예수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 때까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J. C. Phipot).

여러 세기 동안, 유대인 제사장들은 유월절 지키는 것을 속였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행위 뒤에 있는 범죄적으로 이기적인 동기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공허하고, 엉터리 종교는 모두에게 드러났다.

갑자기, 비록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땅에서 하늘로,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죽을 운명에서 불멸의 상태로 들림 받고 데려가지며, 그것에 대하여 요한에 의해 그가 그 영 안에 있을 때 기록되어 있다. —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 21:22). — 그 성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

우리는 물질적인 성전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 안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본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제단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의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이며, 우리의 시은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쉼이나 영광이고, 삼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뒤집고, 이 엄청난 장면을 보자. 그것이 무슨 뜻인가?

1. **휘장이 둘로 찢어졌지, 불에 타지 않았다.** — 휘장이 불에 타버렸다면, 우리는 그 그림의 의미를 놓쳤을 것이다. 그분의 죽음에 의해 우리 주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파괴하지 않았다. 그분이 그것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그분의 피에 의해 찢어진 휘장을 통과한다.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피가 뿌려

있다.

2.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아직 서 있는 동안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 바위를 둘로 가르고 무덤을 열었던 지진이 성전을 쳐서 허물었거나 그 벽들을 산산이 부숴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휘장을 찢은 것이 지진이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땅의 자연적인 동요가 휘장을 열어 버렸고, 바깥 마당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모두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되었다.
3.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 — 그것은 떨어져서 조각 나지 않았고, 잘게 찢어지지 않았다. 찢어진 것은 깨끗이 곧았으며,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볼 수 없는 손으로 찢어졌다. 아마도 두 조각으로 이렇게 정확히 갈라진 것은 사망 가운데 그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혼이 분리되는 것을 상징하였다. 아마도 그것은 요한이 그의 이상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땅과 하늘 사이에 큰 문이 내동댕이치며 열린 것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교통의 완전한 화목을 가리킨다 (고린도 후서 5:17-21; 계시록 4:1-2).
4.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 휘장은 사용하다가 닳아버린 것으로 언급할 수 있었을, 옆에서 옆으로, 혹은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며, 아래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버린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사람에게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함이었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이었지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이사야 53:10). 지붕에서 시작하여 바닥에서 끝나면서, 둘로 갈라짐이 완료되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지붕에서 바닥으로, 옛 휘장의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래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까지, 구속 받은 죄인들과 영광의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벽의 하나도, 한 조각도 남은 것이 없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자가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그 자신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를 죄인들의 죄수에게 열고, 우리가 안으로 가까이 들어오게 하신다 (히브리서 4:16).

찢어진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지막임을 선포한다. 그분이 그것을 끝내셨고 성취하셨다. 그분이 그것을 만족시키셨고 온전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며 하나님의 보좌에 공개적으로 다가간다. 휘장의 찢어짐이 마치 성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에 대하여 애도하며 혐오하였던 것처럼 이루어졌다. 성전이, 마치 그 주의 죽으실 때 그 옷을 찢었다. 휘장은 두터운 흑암 가운데 있는 시온좌 위에 그룹들 사이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분의 거처를 취하셨던 주께서 이제 밖으로 나오셨고 그 집을 텅 비게 두셨음을 보여주려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짐은 그리스도의 육신의 찢어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육신의 부서짐을 상징하였으며, 그 육신은 휘장으로 상징되었다 (히브리서 10:20). 휘장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충만한 계시와 복음 가운데 선포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하여, 모든 곳 중 가장 거룩한 곳으로, 하늘 그 자체 안으로, 우리의 선주자로서, 그분 자신의 피로 들어가신 분 그리스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포하시면서 둘로 갈라졌다 (히브리서 10:9-22).

5. **휘장은 유대인 제사장의 임재 가운데 둘로 찢어졌다.** — 그들은 성소 안에 있었고, 휘장 밖에 있었으며, 물론, 직무를 수행하고, 등불을 켜고, 혹은 황금 제단 위에 향을 놓고, 황금 단 위에 진설병을 놓았다. 그들이 휘장이 확고하게 찢어졌음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명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그 거룩한 방의 숨겨진 영광을 보지 않으려고 그들은 눈을 덮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아마도 이사야의 말이 그들의 귀에 울렸을 것이다. —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다.” (이사야 6:5).
6.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참 유월절이신 분이 하나님께 사람이 나오기 위한 길을 여셨음을 선포하도록 그들의 눈 앞에서 휘장은 둘로 찢어졌다.** — 비록 주 하나님께서 직접, “네가 들어오는 것이 괜찮다. 네가 성소의 거룩한 것을 만지는 것과 제물의 피를 응시하는 것과 시은좌에 다가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앉는 것이 더 이상 신성모독이 아니다.”고 선포하셨던 것과 같다. 실로, 우리 궁핍한 혼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곳은 시은좌, 그리스도 예수이다. 그분은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께 손대도록 하셨다 (요한일서 1:1-2:1-2).
7. **휘장은 저녁 제물을 드릴 때 찢어졌다.** — 오후 세 시 경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어린 양은 살육되고 늦 제단 위에 놓여

졌다. 그 피가 뿌려질 바로 그 때, 그것을 태우는 불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으며, 휘장인 둘로 찢어졌다. 제단과 휘장 사이에, 제물과 찢어짐 사이에, 피 뿌림과 장벽의 제거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었다. 그 역사를 이룬 것이 피였다.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문을 열어젖힌 것은 피였으며,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베드로전서 1:19)의 피였다.

8. **휘장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을 그 순간에 정확하게 찢어졌다.** — 그분의 죽으심이 그것을 이루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혼을 위한 하나님의 천국을 열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문을 열었으며 우리를 생명 안으로 데려갔다. 휘장을 찢은 능력이 퍼져 나온 것은 십자가에서였다. 약함과 치욕과 고뇌의 그 곳에서부터 전능한 명령이 나왔다. —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시편 24:7). 골고다에서 우리 구원자의 승리의 외침인, “다 이루었노라.”는 약속된 신호였다. 즉각적인 응답이 휘장의 찢어짐이었다. 우리가 열납 한 제물의 못박힌 손이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는 휘장을 찢었다. 휘장을 찢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9. **휘장이 둘로 찢어졌을 때, 그 위에 수 놓아진 그룹들이 휘장과 함께 찢어졌다.** — 그 그룹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의 교회를 상징하였다. 휘장에 수 놓아졌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의 그림을 본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못 박혔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죽었으며, 장사 지낸바 되었으며, 다시 살았다. 그 찢어진 휘장 안에서 우리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연합과 하나님과 관련한 사도의 가르침의 상징인 성전을 갖고 있다.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20).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있음이니라.” (골로새서 3:3).

10. 찢어진 휘장은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고, 만족케 되었으며, 끝났음을 선포한다. —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4).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1).

우리 주 예수의 부서진 몸과 흘린 피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죄인의 길을 열었다. 이것들은 은혜와 의의 상징들이었다. 휘장이 찢어짐은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의 행위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분의 은혜의 행동이 아니었다. 의가 그것을 행하였다. 의가 돌을 굴러버렸다. 의가 놋쇠 문을 열어 젖혔고, 철장을 산산이 잘라 버렸다. 분리의 장벽이 고결하게 제거 되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은혜로운 입구뿐만 아니라 의로운 입구를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분의 보좌로 은혜롭게 환영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환영하신다!

숫소와 염소의 피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보혈로 하셨다!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라. 그분의 것이 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은 피이다! 그것이 단 한 번 두드리나, 문이 열려 날아간다. 피가 불의 검에 묻자마자, 꺼진다. 한 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시간의 충만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문의 빗장을 여셨다! 그분은 그분의 시은좌를 가난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열어 짓히셨고, 그분의 추방당한 자들을 받으시려 서두르신다!

회장이 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둘로 찢어졌다. 피가 뿌려졌다. 시은좌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의 음성이, 앓아계신 시은좌로부터 나와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들어가게 하신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회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19-22).

따라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공훈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찾도록 하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보증이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다. 길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충만한 확신”에 따른 확신에 찬 담대함 가운데 있으며, 그분만을 우리의 모든 충만의 영광스럽게 효험 있는 구원자로 믿는 것이다. 그런 담대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불신이다.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나오지 않는 것이 추정이다. “악한 양심”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죄인에게 선한 양심과 은혜의 보좌로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당신은, “나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 그렇다, 갈 수 있다! 그 외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당신이 만약에 시은좌 위에 있는 피를 본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당신이 들어 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줄 것이다. 그것을 보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볼 눈을 주셨는가? 그러면 믿음의 충만한 확신 안에서 담대하게 나오라. 삼일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환영한다”고 말씀하신다. 시은좌는 용서의 장소이다. 성소 안으로 들어간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로 나온 어떤 죄인도 거기서 결코 끌려 나올 수 없다.

찢어진 휘장이 다가갈 자유이다. 뿌려진 피가 담대함, 궁핍한 죄인들을 위한 담대함이다. 찢어진 휘장은 음성을 갖고 있다. 피가 음성이다. 그 피는 죄인들에게 용서와 평강과 구원과 영생을 말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히브리서 3:15). 서둘러서 들어가라!

139 장. 우리 구원자의 죽음—누가복음 23:44-49

“때가 제 욱시쫘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누가복음 23:44-49).

저주 받은 나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얼마나 큰 놀라움인가!

두 가지 큰 기적들

우리 앞에 있는 단락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기적들이 우리 구원자의 갈보리에서의 희생에 따른 다고 들었다.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세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라는 사실에 주목할 것을 호소하신다. — “해가 빛을 잃고,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우리 구원자, 참 유월절이신 분께서 여기서 그분의 참 이스라엘을 큰 어둠으로부터 구원하고 계신다. 따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 해가 이집트에서 사흘 동안 어두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을 때 세 시간 동안 어두워졌다.

아무 것도 더 합당하고 알맞은 것은 없다. 죄를 위한 큰 희생이 일 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계셨을 때, 어둠이 땅을 덮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단 번에 이루어졌다.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려 오셨을 때, 그분이 사흘 동안 저주 받은 땅에 어둠을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로써 정죄 받은 율법이 시내 산에서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공포의 산 위에 어둠을 보내셨다. 이제, 율법을 주셨던 분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징벌에 고난 당하시므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갈보리 산에서 해가 세 시간 동안 어둡게 되었다. 그런 기적, 한 낮의 완전한 흑암은 우리 주목을 사로잡을 기적이었다. 그것이 우리를 멈추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 세 시간 동안의 어둠에서, 우리 구속자는 극단적인 힘과 적의를 갖고 어둠의 모든 권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 모두를 좌절하게 하였으며 그들 모두를 손상시켰다.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그것들에 대한 승리를 이룸으로써, 그분의 정사의 마차 위에서 (골로새서 2:13-16), 서그가 정복한 적들과 우리 뒤에 묶여 있는 우리 적들을 끌고 감으로써, 그것들의 공개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로마 정복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4:8; 시편 68:17:20).

다음으로, 우리는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는 것을 읽는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걸려 있는 그 크고 두꺼운 휘장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찢어졌다. 이것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그들의 그 혼을 흔들었을 것이 분명한 기적이었다. 얼마나 교훈적이 기적이 아닌가!

1. 한 때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 놓았던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만족하게 되었으며, 우리 대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종결되었다 (로마서 6:14-15; 7:4; 8:1-4; 10:4; 갈라디아서 3:13, 24-26; 5:1)

“율법에서 자유하니, 아, 기쁜 상태로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범죄로부터 구속하셨네.”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만족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지막이고, 완성이며, 종결이다. 우리는 율법에 따른 언약이 없다.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아래 산다. 우리는 율법에 책임이 없다. 우리 책임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셨던 분께 있다. 우리는 율법의 강제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린도후서 5:14).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어떤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13).

2. 그 휘장의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 되었다. 그리고 휘장의 찢어짐으로,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갈라 놓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다 (에베소서 2:11-22).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3. 이제, 당신과 나와 같은 죄인들은 그분의 모든 영광스러운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 자유롭게 다가가게 되었다 (로마서 4:25-5:11; 히브리서 10:19-22).

이런 것과 같은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목을 일으키고 경고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방법의 일부분이다. 그분은 종종 영원히 매인 죄인들이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이 귀를 막으려고 하더라도 그 음성을 듣도록 하시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신다. 지난 날 동안 여러 번 그렇게 하셨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그렇게 하셨다. 그분이 율법을 시내 산에서 주실 때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은혜의 이 큰 날을 가져 오실 때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다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7-10; 계시록 1:7). 그분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2:26; 이사야 24:23)고 하신다.

구원자의 외침

46 절에서 그가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여야 하는 모든 것을 이루셨으므로,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향한 우리 구원자의 외침을 듣는다. —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우리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어떤 사소한 사람의 죽음과 달리 만든 비밀스러운 것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이다. 그분의 신성과 인간 본성은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가 죽을 것처럼 죽지 않으셨다. 그분이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혹은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어서 죽지 않으셨다. 아니다! 그분은 우리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생명을 자원하여 내려 놓으셨다 (요한복음 10:15-18). 그분은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가 삶 가운데 따라야 할 본을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심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셨다 (베드로전서 2:19-25; 빌립보서 3:7-10).

백부장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7 절). — 이 백부장이 그의 죽어가는 구속자에 의해서 회심하였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의 간증이 더 나아간다: —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54; 마가복음 15:39).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셨음을 고백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였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48 절). — 그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겹을 먹었다.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들의 양심에 괴로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고린도후서 7:10)였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49 절). — 그들은 위험에서 멀리 떨어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셨는데, 그들의 보증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아픈 마음과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여러 날 중 그 큰 날에 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당하는 그들의 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경이로움으로 “이 일들을 보며” 서 있었다. — **구속이 성취되었다!**

“피로 구속 받은 평강의 아들들,
시온의 하나님께 너의 찬양을 올려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은혜로운 승리의 노래가 내게 있네.

갈보리의 경이를 따라가자,
은혜 가운데 확대되는 공의;
자주 빛 시내를 주목하라, 그리고 말하라,
그렇게 나의 죄들이 씻음 받았네.

진노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니,
양갯음이 우리 보증의 머리를 쳤네;
율법의 주장이 충만 히 만족되었네,
예수께서 두려운 빛을 지불하였네.

죄가 홍수 아래로 없어졌으니,
구속자의 피 속에 잠겨졌네,
시온아, 아! 네가 얼마나 복된가,
이제 모든 것들에서 의롭게 되었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John Kent*

140 장. 아리마대의 요셉—누가복음 23:50-56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3:50-56).

어떤 꽃들은 밤에만 핀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바로 그런 꽃이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모두 우리에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하지만, 우리 주의 십자가 형의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느 곳에서도 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성경의 기록이 관련되어 있는 한, 그는 우리 구원자께서 죽으신 바로 직후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 왔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 한 가지 일을 하였고, 그리고 무대를 내려와 잊혀졌다.

이 아리마대의 부자는 유대인 공회의 일원이었으며, 독선적 바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새인들의 그 역도 중 하나였고, 그 끔찍한 유대인 종교 법정에서 주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하지만,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회”하였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19:38). 그가 공회의 일원이었으므로, 또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가 공개적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을 못했으므로, 아리마대 요셉은 종종 간과되거나, 경멸스럽게 바라보게 된다.

우리는 모두 천연적으로 요셉이 두려워하였던 그 자들이 두렵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을 비밀로 감추지 않았을 것이고, 주 예수를 정죄하고 그분의 십자가 형을 외쳤던 어떤 교회나 종교 집단의 일부로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사실상, 우리의 교만하고 독선적인 마음은 이 사람을 한 가지를 제외하고 타락한 위선자로 성급하게 버려버렸을 것이다. —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리마대의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한다 (50-51 절). 이 특정한 곳에서 “선하고”라고 번역된 말은 “준비된”이란 의미이다. “의로운”이라는 말은 “의롭고, 정의롭고, 순수하고, 흠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것이 확실히 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렇지 않은가? 단지 우리가 아주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모든 세상 사람이서 있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하는 분 앞에서 재판관으로 우리 스스로 앉아 있기를 고집하는 것을 상상한다면 그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비록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믿는 자들이거나 믿지 않는 자든, 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회 사람들이든 혹은 거리 사람들이든, 아무도 요셉이 주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다. 교만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가 만약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재판에 회부된다면, 그를 고소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리마대의 요셉은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시간에 있었던 합당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섬김을 위하여 선택 받은 사람이었고, 아주 합당한 시간에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 나는 그의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그의 주와 함께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거절하는 것을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그의 공회의 일원임을 정당화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가 했던 것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하였거나 어딘 다른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말했지만, 어쨌든, 그가 극진히 사랑하였고, 그가 신뢰하였고,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왕이시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 못 박히신 그의 구원자를 보았을 때, 그의 영에 비상한 용기가 일었으며,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의 주의 시신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그가 합당한 장례를 그분께 치러드릴 수 있었다. 다른 자들이 비겁하게 있었을 때, 요셉은 용감하였다. 다른 자들이 스스로 미지근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요셉은 충성되었다. 다른 자들이 그들의 구원자를 부인하였을 때, 요셉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을 그의 구속자이고 주이신 분과 함께 하였음을 밝혔다. 다른 자들이 내켜 하지 않을 때, 요셉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요셉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코 달리 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을 하도록 용기를 얻었다. 밤이 오면, 별이 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타난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두운 밤에 이 별은 밝게 빛난다.

일곱 가지 공과

1.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택하신 자의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제외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부자와 함께 그분의 무덤을 쓰시게 되었다는 (이사야 53:9)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을까? 행악자들과 함께 계수되고 많은 자의 죄를 짊어지셨던 그분이 부자와 함께 그분의 무덤을 쓰셨다.

유대 지도자들이 주의 자리를 부러뜨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갔을 때, 그들은, “우리가 시신을 장사 지내려 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그분의 시신을 장사 지낼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시신들은 독수리들이나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려 한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 시신들은 해로 인하여 그 뼈가 희게 될 때까지 썩도록 노출된 채로 버려졌다. 십자가 형을 받은 중죄인을 장사 지낼 생각이 없었다.

심지어 제자들이 그들의 주를 장사 지내기로 용기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무덤이 없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구원자의 시신을 갈릴리로 갖고 돌아갈 수 없었다.

붉은 암송아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민수기 19 장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결코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식들 중 하나가 있다. 그것에는 붉은 암소의 제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제물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제물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정성 어리고, 뒤엎힌 예표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절대로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민수기 19 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와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떼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 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들찌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레니라.” (민수기 19:1-10).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 의례적으로 정결한 자, 모세의 의식법을 지켜왔던 자, 의식적으로 더러운 얼룩이 그 위에 없는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둘 것이다.” 제사 후에 남겨진 모든 것은 정한 자에 의해 거두어졌다. 그는 “진 밖 정한 곳에 두게” 하였다.

어디가 부정한 곳이었나? 율법 하에서 부정한 곳은 어느 곳이든 시체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진 밖에서 장사되실 필요가 있었다. 그분이 정한 곳에 장사되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장사 지낼 곳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나? 그에 맞추어서 아리마대에서 온 부자 요셉은 가까이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을 갖고 있는 자였다 (누가복음 23:53).

만약 주 예수께서 다른 어떤 시신이 놓여진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다면, 의식법이 범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예비되었고, 아무도 놓여진 곳이 아닌 무덤이 있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한 무덤을 잘라 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무덤이 되어야 하였다. 그가 장사 지낼 그 곳을 예비하였던 그 돌을 잘랐을 때, 그가 이사야 53 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다고 생각지 않았다. —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 53:9).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그가 한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기 다른 것이 있다. 율법은 정한 자가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의식법에 관한 한 아리마대의 요셉보다 더 정한 자가 전 예루살렘에서 발견할 수 없다. 그는 공회의 일원이었고, 엄격하게 율법의 의식들을 지킨 자였다.

아직, 한 가지 사항이 가로놓여 있다. — 요셉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밀한 제자였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그 마음 속에 일어났고, 요셉이 갑자기 매우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담대히 나가서 주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였다.

아직, 문제가 있다. — 정한 사람이 시신을 만지면 그는 불결하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가 즉시 사라졌다. 요셉이 이제 그리스도 그의 유월절이 자신을 위하여 희생되었기 때문에, 의식적인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손을 대려는 시신은 그의 더럽힘이 아니라, 그의 정결함이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그의 더러움 (죄)를 위한 속량을 이루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불결하게 될 수 없었다 (로마서 4:8).

2. 하나님의 성도들의 육신은 존귀하게 다루고 장사 지내도록 해야 한다. —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의 보증으로서 장사되었고, 사망의 흠으로 옮겨졌으며 (시편 22:15), 그로써 그가 그의 부활 가운데 사망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부활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 장사 지낸다. 우리 주 예수께서 제사장처럼 아마포 옷으로 그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장례를 위하여 쌓였으므로, 그분의 소유인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분의 의의 제사장 옷들인, 흰 아마포로 싸서 장사될 것이다 (계시록 19:6-9).

3.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 할 이유를 가질 것이 아니다.

C.H. Spurgeon 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동산에 갈라진 바위 틈 공간은 성도들이 장사되어 누울 하나님의 무덤의 모든 부분을 정결하게 하였다.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살기를 갈망하는 대신,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죽으심과 장사 가운데 그분과 교통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4. 우리 가운데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능력이 없다.

—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은혜가 거기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1).

5.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함이다. — 우리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주신 의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거듭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능력과 효험 있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베드로전서 3:10-12; 베드로후서 1:3-4; 요한일서 3:7-9). 아담의 타락하고 불의한 본성이 천연적인 출생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본성이 새로 태어남 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운데 모든 하나님의 택정한 자에게 나누어졌다.

내가 믿는 자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죄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모습이다. 죄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섞여 있다. 죄는 우리의 가장 선한 생각들을 훼손하며, 우리의 최선의 행위를 더럽히며, 우리의 최선의 말을 부패하게 하며, 우리의 최선의 소망을 더럽힌다. 옛 본성이 거듭남 가운데 변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육신은 언제나 육신이다. 그것은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 그것이 결코 영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부패하고, 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 가운데 죽는다. 믿는 자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공로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 기도와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피의 속량의 공로로만 그분께 의해 받아들여진다 (베드로전서 2:5).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17). 그는 새 본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27). 하나님께 난 모든 자는 그들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갖고 있다 (에베소서 4:24). 이 나누어진 의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보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

6.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그분이 명하셨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때와 그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신다. — 요셉이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행해야 했던 섬김을 하도록 준비시키셨다.

- 7. 안식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쉬는 날이었다.** —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그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쉼으로써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히브리서 4:9).

141 장. 무덤은 비어있지 않았다— 누가복음 24:1-12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 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 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푸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4:1-12).

우리는 종종 “빈 무덤”을 우리 구원자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의 증거로 언급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정확하지 않다. 무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은 실제로 비어 있지 않았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의 안식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분이 아버지의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구속자 안에서 안식하는데, 그분의 역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분의 부활은 거룩하게 분별된 자들을 영원히 보호하셨다는 서약이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부활을 모두 이루셨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 앞에 어떤 안식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 나의 소망인데,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으로 향한 여정을 하고 주께서 누워있는 곳을 보기 때문이다.

단번에 죽으셨음

기억되어야 할 바로 첫 번째 사항은 이것이다. —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로마서 6:10). 따라서, 주 예수께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잠드셨던 곳 주위에 모일 때, 무덤 입구에서 굴러진 바위를 보게 되므로, 우리는 그가 거기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분은 확실하게 한 때 거기 계셨다. —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으며, 장사지낸바 되었다.” 그분은 시신이 묘지에 장사된 죽은 자처럼 죽어 있으셨다. 비록 그가 부패함을 볼 수 없었고, 예정된 때를 넘어 사망의 묶임에 사로 잡힐 수 없었지만, 여전히 그분은 한 때 죽으셨다. 그분의 눈에 빛이 없고, 그의 귀에 소리가 없고, 그의 생각에 생각이 없고, 그의 입에 말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의 심장에 생명의 맥박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단순히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일단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따라서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 죽은 자는 조용한 무덤의 합당한 거주자이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은 지금 거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속량을 받으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유일한 구원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로마서 4:25-5:11).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3-4)라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그리고 셋째 날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무덤에 몇 가지를 남겨 두셨다. 그분이 남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우리에게 의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달콤한 향료

첫째, 주 예수께서 무덤 속에 달콤한 향료를 남기셨다. 그분이 다시 사셨을 때, 그분의 몸이 싸여 있던 그 비싼 향료를 가져가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것들을 남겨 두셨다. 요셉은 약 백 파운드에 이르는 몰약과 침향을 가져왔고, 이 향료의 달콤한 향기가 무덤 속에 남아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무덤은 향수 가게처럼 냄새가 났을 것이다.

영적 의미 가운데 취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생각인가! 우리 주 예수께서 무덤을 달콤한 향기로 채우셨다. 그것은 더이상 부패와

악취가 나는 썩은 냄새가 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다 —

“왜 우리가 이 시신을 무덤으로
가져가기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곳에 예수의 귀한 육신이 누워있고,
오랜 향기를 남겼다.

모든 성도의 무덤을 그가 축복하고
또 모든 침상을 부드럽게 하였네.
어디서 죽어가는 지체들이 안식해야 하는지
그러나 그들의 죽어가는 머리와 함께 가 아닌가?

거기서 그가 사셨으니, 높이 오르시고,
또 우리의 발길을 보여 주셨네.
저 위의 주께로 우리도 또한 날아 가리라
그 큰 부활의 날에.”

땅 아래에서 우리의 육신을 기다리는 그 침상은 이제 비싼 향료로 향기로우며 달콤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우리가 한 때 소유한 가장 참된 친구가 그곳에 그의 거룩한 머리를 눕혔다. 무덤에 온 여인에게 천사가 하였던 첫 마디는, “너희는 무서워 말라.” (마태복음 28:5) 였다. 우리는 결코 무덤에서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서 는 안 된다. 우리 주께서 한 때 그곳에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곳은 아무런 공포가 남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말하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4).

수의

다음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수의를 무덤 속에 남겨 두셨다. 베드로가 묘지에 갔을 때, 그분은 수의들이 잘 개어져 한 쪽에 놓여져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분은 곰팡이가 있는 수의가 아니라 누가가 12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마포”를 남겨두셨다.

그분은 우리 낮은 신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분이 교통하는 상징으로서, 그분이 사망의 옷을 벗어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에 대한 기억으로서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수의를 남겨두셨다. 그분이 그분의 방에서 일어나셨을 때, 그분의 잠옷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망의 육신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 사망의 옷을 남겨두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4:16-18; 5:1-9; 시편 27:13; 17:15; 이사야 57:1-2). “의인이 죽을 찌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 찌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 인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사야 57:1-2).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라. 전장과 전쟁 박물관을 방문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기억으로서, 패배한 대적들과 승리한 전쟁에 대한 기억으로 그런 장소에 걸려 있는 깃발들을 본다. 마찬가지로 구원자께서 사망을 멸하셨던 곳인 무덤 속에 그것이 있다. 거기에 그분의 수의가 사망에 대한 그분의 승리의 상징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랑하셨던 그분을 통하여 정복자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으로 놓여 있었다. —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
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향기 나는 무덤 속에 그 세마 수의를 다시 한번 더 바라보라. 그분
의 의의 상징들로서, 우리 보증으로서 그분이 하늘 영광에 대한 공
로인 그 의, 그분이 우리의 것으로 만드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된 그 의의 상
징으로서 당신의 믿음의 눈 앞에 놓여있지 않은가? (시편 132:7-
9, 계시록 14:4-5 와 19:6-9 를 보라.)

수건

그리고, 요한은 더하여, 베드로가 잘 개어져서 따로 놓여진 “머리
를 찼던 수건”을 보았다 (요한복음 20:6-7). 나는 그 수건이 아직
우리 구원자의 무덤 안에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우리 눈에서 모
든 눈물을 주 하나님께서 닦으시는 손수건이다. 과부와 고아, 홀아
비와 마음이 부서진 아버지,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이 이
손수건을 집어서 그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내는 것을 보자. —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
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레미
야 31:16).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
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
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사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26:19) 그리고 이 똑같은 손수건으로 그분이 우리 눈에서 다른 모든 눈물을 닦아내신다 (계시록 7:17; 21:4).

천사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무덤 안에 다른 것을 남기셨다. 그분은 천사들을 남기셨고 무덤을...

“천사가 사용한 방으로
와서 하늘의 소식을 갖고 가려 함이라.”

천사들은 전에는 무덤 안에 없었지만, 그러나, 부활 때에 그들이 내려왔다. 하나가 돌을 굴렸으며, 다른 자들은 구원자의 육신이 한 때 놓인 곳에 앉아 있었다. 나는 우리 주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무덤에서 천사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을 나는 읽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나사로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혼을 그들의 주의 품 안으로 데리고 간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지키는 영에 의해 지켜지게 될 것이고, 미가엘이 모세의 육신을 부활 때까지 지켰던 것처럼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출구

우리 축복의 구속자에 의해서 무덤에 남겨진 다른 것이 있다. — 출구. 그분은 무덤에서 나오는 열린 통로를 남기셨다. 돌이 굴러졌다. 사망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들에게 있어서 철창이나 문이 없는 감옥이다. 열린 무덤은 하늘에 열려 있는 문이 있음을 내게 말한다.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사망으로부터의 길이다. 사망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서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영적 사망에서 살아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서 2:5).

“어두운 밤으로부터 밝은 빛으로,
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이 나를 올리셨다!”

우리 구원자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굳은 약속이다. 그것으로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 받았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대표되어 사망에서 살아났다. 우리는 첫 번째 부활, 새로 태어남 가운데 그분에 의해서 영적으로 사망에서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그분을 닮은 가운데 일어날 때, 육체적으로 사망에서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강력한 삼손은 기둥들을 뽑았으며 모든 철창들이 있는 무덤의 문을 가져갔다. 열쇠는 사망의 허리 띠에서 가져와 생명의 왕의 손에 쥐어져 있다. 베드로처럼, 천사가 그를 방문하였을 때, 그의 사슬이 떨어졌음을 발견하였고, 철문이 모두 합하여 그 앞에서 열리는 한편,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부활 아픔에 탈출할 준비가 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그분의 안식하는 곳에서 각각, 한 동안 잠을 잘 것이나, 우리는 돌이 굴러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힘센 천사가 큰 돌을 굴러 버렸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끝냈을 때, 그는 돌 위에 앉았다.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으며, 그의 얼굴은 번개와 같았다. 그리고 그가 돌 위에 앉았을 때 그는 사망과 지옥에게, “할 수 있으면 다시 굴러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린 그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빛

우리 살아나신 구원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무덤에 한 가지를 더 남겨 두셨다. 무덤은 완전히 컴컴한 장소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무덤 안에 빛나는 생명과 불멸의 빛을 남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9-1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의 임재와 함께 그것을 빛나게 하셨다. “그분의 사랑의 등잔이 어둠을 통과하는 우리 인도자이다.” 그분은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빛으로 데려 오셨다. 그리고 이제 이제 모든 묘지에 날이 밝도록 세상의 밤을 지키며 타게 될 빛이 있고 그림자가 도망갈 것이며, 부활 새벽 동이 틀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

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린도전서 15:20-23, 35-58)

142 장.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다.”—누가복음 24:13-35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 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

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 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 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누가복음 24:13-35)

여기 계시된 것은 너무도 보배롭고,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도 하늘에 속한 것이라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실로,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에게 설명될 수 없다. 그들이 함께 걸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다. —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을 시작하여, 그분은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풀어주셨다.” Robert Hawker 는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분명하게 하신 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처럼 성경의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배운다.”고 기록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한 계시의 이 장에서 크게 값진 진주이다. 이 두 제자들이 가는 길에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처럼, 그분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책을 열 때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분의 임재와 가르침이 그들 속에 불타는 마음을 주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신성한 책을 읽고 학습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게 하실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 혼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이 읽는 다는 것이다. 성경의 계획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다.

나는 Martin Luther 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는, “성경 안에 십자가를 참고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없다…우리가 아기를 보려고 요람으로만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보려면 성경으로만 가야 한다.”라고 썼다.

Robert Murray M'Cheyne, 전깃불에 대한 꿈을 꾸어 어떤 사람 전에 오래 전에 살았던 그는, Scotland 의 Dundee 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의 회중에게 말했다. “어두운 방에서 책을 읽으려 할 때,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며, 더 많은 빛을 얻기 위하여 그 책을 들고 간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경을 그리스도께 들고 가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성경의 망원경이고, 신성한 계시의 결론이고 본질이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취하면 남은 것은 모서리에 금박을 입히고, 가죽 표지로 쌓인 가공한 나무다.

한 가지 말씀

당신이 이 공과에서 보기를 원하는 한 가지 사항은 이런 사실이다. —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전도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도록 만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책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지식의 열쇠”이다. 열쇠가 없이 금고를 절대 열어 그 부요함을 발견할 수 없다. — 그들은 단지 더듬거린다. 성경은 학문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도덕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역사, 정치, 철학, 혹은 율법에 관한 책이 아니다. 그것은 예언이나 교회 교리나 신학에 관한 책은 더욱 아니다. 이 책은 그분 책(HIM-BOOK)이다. 이 책은 모두 그분(HIM),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 책을 전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그 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며, 이 책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지면은 이 책 안에 없으며, 단 한 면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이 성경의 말씀이고 주제임과 그분이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살아 계신 말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분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이로다.” (요한복음 5:39)라고 하셨다. — “이에 모세와 밋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 복음 24:27, 44-47).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전파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파하는 것과 동의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도행전 20:26-27 에서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2:2 에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썼다. 두 곳에서 모두, 그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주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을 가진 책이며, 그 한 가지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의와 영생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들

구약 성경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부른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들은 우리 구속자에 대하여 말한다. 모든 구약 성경은, “구속자께서 오실 것이다.”고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라고 천명하셨던 그 순간으로부터 (창세기 3:15),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중심 사항이고 인물이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분에 대하여 말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격과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직접 가리켰던 많은 예언적 천명들 가운데 몇 가지가 있다 (창세기 22:13-14; 49:10; 신명기 18:15-18; 시편 2:7-8; 45:6-7; 110:3; 잠언 8:22-23; 아가 1:2-4; 이사야 53:8-11; 미가 5:2; 스가랴 12:10; 말라기 3:1). 율은 그의 구속자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 영광 가운데 그의 육신 가운데 보기를 기대했던 분으로 말했다. 에녹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그의 만민의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세상에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 하였다.

구약 성경의 예표들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들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심을 예시하기 위한 수많은 예표들과 그림들을 주셨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역사들의 예표들은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부르기를 시작할 수 없다. 그러나 단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것들은 아마도 세 가지로 구별된 항목들로 나뉠 것이다.

- **예표적인 사람들** — 아담 (로마서 5:14), 노아 (히브리서 11:7), 멜기세덱 (히브리서 7:1-3), 모세 (신명기 18:15-18), 아론 (히브리서 5:1-5), 여호수아 (히브리서 4:1-9), 보아스 (룻기 2:1; 3:18), 다윗 (사도행전 2:25-36), 솔로몬 (열왕기상 10:1-24).
- **예표적인 사건들** — 노아의 방주 (창세기 6 장), 수풀에 걸린 수양 (창세기 22:8-13), 야곱의 사닥다리 (요한복음 1:51), 낫뱀 (요한복음 3:14-16),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7), 속죄염소 (레위기 16:21), 만나 (요한복음 6:32-33), 내리친 반석 (고린도전서 10:4), 제물의 제단 (히브리서 13:10), 시은좌 (요한일서 2:1-2).
- **예표적인 장소들** — 성막 (요한복음 1:14), 성전 (요한복음 2:18-20), 도피성 (히브리서 6:18).

그 목록은 아주 크게 확장될 수 있다.²⁵ 나는 지시된 의식의 예표

²⁵ 베드로는 사도행전 2 장에서, 스테반은 사도행전 7 장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13 장에서 구약 성경의 전체 역사를 종합하는 설교를 전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의 각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성경의 주제이다! “그분께 선지자들의 모든 증거를 드러라!” 그리고 그분께 모든 사도들의 증거를 드러라. 성경의 각 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한다. 성경 66 권 각각 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된 것을 단 한 가지씩 보여주도록 하겠다. 그리스도는 모든 본문의 주제이고, 각 지면의 주제이며, 성경 안에서 제시된 모든 주제의 말씀이다. 그러나 공간의 제약 때문에 성경의 각 권 안에 있는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가지씩만 보여 주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창세기에서 그는 여자의 씨이다.	출애굽기에서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레위기에서 그는 죄를 위한 속량이다.	민수기에서 그는 놋뱀이다.
신명기에서 그는 도피성이다.	여호수아에서 그는 라합의 붉은 줄이다.
사사기에서 그는 여호와와 천사이다.	룻기에서 그는 우리 동족의 구속자이다.
사무엘상에서 그는 우리 대적들의 살육자이다.	사무엘하에서 그는 은혜로운 왕이다.
열왕기상에서 그는 그의 성전 건축자이다.	열왕기하에서 그는 위대한 선지자이다.
역대상에서 그는 축복의 언약궤이다.	역대하에서 그는 그의 백성의 수호자이다.
에스라에서 그는 그의 백성의 회복자이다.	느헤미야에서 그는 그의 백성을 기억하는 자이다.
에스더에서 그는 그의 백성의 수호자이다.	욥기에서 그는 판결자이다.
시편에서 그는 선한 목자이다.	잠언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전도서에서 그는 지혜의 교사이다.	아가에서 그는 그의 교회의 사랑하는 자이다.
이사야에서 그는 죄인들을 위한 대속자이다.	예레미야에서 그는 우리의 의이신 여호와이다.
예레미야애가에서 그는 우리의 분깃이신 여호와이다.	에스겔에서 그는 여호와와 영광이다.
다니엘에서 그는 메시아 왕이시다.	호세아에서 그는 나의 신랑이신 하나님이다.
요엘에서 그는 그의 백성의 소망이다.	아모스에서 그는 그의 백성의 체이다.
오바오에서 그는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요나에서 그는 주권적 구원자이다.
미가에서 그는 베들레헴의 아기이다.	나훔에서 그는 위대한 자이다.
하박국에서 그는 충성된 자이다.	스바냐에서 그는 전능한 자이다.
학개에서 그는 모든 열방의 갈망이다.	스가랴에서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 열린 샘이다.
말라기에서 그는 의의 태양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다.
마가복음에서 그는 인자이다.	누가복음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들, 안식일, 그리고 구약의 많은 다른 교훈적인 예표들, 우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위격과 역사를 가리키는 모든 것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요한복음에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승천하신 주이다.
로마서에서 그는 우리 구원자 공의의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위로자이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율법의 마침이다.
에베소서에서 그는 효험 있는 구원자이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성도들의 기쁨이다.
골로새서에서 그는 으뜸이 되시는 분이 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는 구원의 소망이 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는 오실 주이다.	디모데전서에서 그는 전도자의 교훈이 다.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영원한 보증이다.	디도서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빌레몬서에서 그는 중재자이다.	히브리서에서 그는 율법의 성취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는 은혜를 주는 자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는 효험 있는 구속자이다.
베드로후서에서 그는 오래 참으시는 주이다.	요한일서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이다.
요한이서에서 그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요한삼서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유다서에서 그는 우리 보증이다.	계시록에서 그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으며, 의롭게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신성한 책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위격에 관련된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책 안에 있는 어떤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안에서 당신이 “모세가 율법 안에서, 또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그분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을 찾도록 하라.” 하나님의 책은 그분에 관한 책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16-17).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교훈과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두 권의 성경, 구약과 신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 두 구별된 부분으로 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된 것을 갖고 있다. 구약 성경은 감추어진 신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은 계시된 구약 성경이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모두 안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것이다. — 그 말씀은 그리스도이다.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마태복음은 그분을 약속의 왕으로서 제시한다. 마가복음은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시한다. 누가복음은 그분을 인자로서 제시한다. 요한복음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제시한다.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구속자께서 오셨음을 말해준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구속자께서 보좌에 오르셨음을 말해준다. 사도행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 기독교 가운데 전해진 단 하나의 주제였음을 보여준다. “전하다,” “전해진,” 그리고 “전하는”이란 말은 서른 일곱 번 사도행전에서 사용된다. 그 말이 사용될 때마다 전해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었음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우리의 기준을 위하여 취해져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전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결론 내려야 한다. 전도자임을 자처하지만 그리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혼을 섬기기 보다 오히려 그들을 파괴한다.

서신들은 구속자의 교훈을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고 설명한다. 타락에 의한 파멸, 피에 의한 구속, 성령에 의한 거듭남은 모든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선택 받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공훈과 사랑과 은혜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계시록은 복음에 의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확실한 승리에 대한 선포이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구속자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한다. — “볼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7).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찌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
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5:9-14).

“보라 어린 양의 영광을
그의 아버지의 보좌 한 가운데 있네.
그의 이름을 위한 새 존귀를 예비하고,
또 알지 못하는 자 앞에서 노래하네.

장로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경배드리게 하라,
교회가 주변에서 앙망하니,
달콤한 향기로 가득한 병을 들고 있고,
또 더 달콤한 소리를 내는 수금을 들고 있네.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이는 그들이 올리는 찬양들이네;
예수께서 우리의 한탄에 친절하시니,
우리의 찬양 듣기를 좋아하심이라.

영원하신 아버지여, 누가 보리요
당신의 비밀한 뜻을?
아들 외에 누가 그 책을 취하며
또 모든 인을 열리요?

그가 당신의 큰 계명을 성취 하시리니,
아들이 그것을 잘함이 당연하니라;

주여, 그의 손에 주권의 열쇠가 있으니
하늘과, 사망과, 지옥의 것이라!

이제 단번에 죽음 당한 어린 양께
끝 없는 축복이 주어지도다;
구원과 영광과 기쁨이 남아 있으니
영원히 당신의 머리 위에라.

당신께서 피로 우리 혼을 구속하셨으니,
간힌 자를 자유하게 하셨네;
우리를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고,
또 우리가 당신과 함께 통치하리라.

본성과 은혜의 세상들이
당신의 권세 아래 노이니라;
그리고 이 지체하는 날들을 재촉하고,
또 약속의 시간을 가져오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
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계시록 19:6).

성경의 전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이 말씀하는 살아계신 말씀이다. 만약 우리가 감동의 책 전체를 그 핵심과 본질로 쥐어 짤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외에 아무 것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 성경의 전체 책과 관련하여,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요한복음 5:39)고 하셨다. 성경을 기록하게 사람들을 감동케 함에 있어서 성경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이 감동의 책이 주어진 유일한 계획이다 (요한복음 16:14). 다른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고 남용하는 것이다.

복음의 계명들

신약 성경 안에서 규정한 경배에 대한 유일한 두 가지 규례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 마음을 초점을 맞추도록 계획되어 있다. 침례는 그분과 함께 상징적인 장례와 부활이다 (로마서 6:3-6). 주의 만찬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구속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역사의 상징적인 기억이다 (고린도전서 11:24-26).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 가운데, 구약 성경의 예표들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그리고 신성한 경배의 규례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읽는다. 믿는 자의 침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0-31).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많은 해 전에 런던에서 회중에게 C. H. Spurgeon 이 전했던 것보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표현으로 더 나은 말을 찾을 수 없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언제나 이 빛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 보시는 것에 대한 거울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거울 안에서 — 사실 이기는 하지만, 어둡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마주하고 보게 될 것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한 축복된 준비가 되는 그런 길 가운데, 투영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다. 이 책은 우리에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포함되어 있고, 사랑으로 향기를 내고 있다. 이 지면들은 우리의 왕의 옷이고 그것들 모두 몰약과 침향과 계피의 향을 낸다. 성경은 예수께서 타신 황금 마차이며,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한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다. 성경은 거룩한 아기, 예수를 감싼 포대기들이다. 그것들을 풀고, 당신의 구원자를 찾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를 공부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할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리스도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리스도를 전하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미국 청교도, Cotton Mather 는 이 지혜롭고 필요한 충고의 말씀으로 그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그 모든 주제들 가운데, 간청하는데, 참 생명의 떡을 잊지 말자. 그러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이 전람하라. 그렇다, 전체 사역에 임하는 문구가, ‘그리스도는 만유시요!’가 되게 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주장하는 각자가, 복음 전도자라고 주장하는 각자가 이 말씀을 유의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될 것인가! 교회가 그 강단이 가득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말고 아무 것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이 바울의 결심이였다 (고린도전서 2:2). 그것이 모든 전도자의 결심이 되어야 한다.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나 언제나 모든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17-25).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사도행전 20:27).

그분이 성경의 단일한 주제이다. 그분이 모든 참된 교훈의 전체이고 본질이다. 그분이 모든 복음 규례의 삶이다. 그분이 모든 참 경배의 비밀 성분이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시은좌이다. 그분이 모든 경건과 순종과 섬김과 헌신의 동기이다. 그분이 하늘 영광의 보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다. 그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이다. 그분이 진리의 계시자이고, 그분이 진리이다. 그분이 생명을 주는 분이 다. 그리고 그분이 생명이다. —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우리가 **신성한 주권**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선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그 죄인들이 어떻게 예정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영원한 구원으로 하신 그분의 선택이다. **완전한 타락**,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제한된 속량**은 그리스도에 의한 효험 있는 구속과 은혜의 성경적 확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가 구원 받을 것이라는 선포이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혹은 효험 있는 부르심은, 선택 받은 자를 그분께 오도록 하는 성령에 의하여 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는 계시이다. **거듭남**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이식하는 것이다. **칭의**는 그분의 모든 구속 받은 자에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성화**는 우리 안에 지어지고, 거듭남 가운데 시작하고, 영화롭게 됨 가운데 완성된 그리스도이다. **인내**는 은혜로 우리 마음을 붙잡고 생명과 믿음 안에 우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이다. **침례**는 믿는 자의 그리스도 안의 믿음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다. 상징적으로 물속 무덤 속에 장례 되고 그분과 함께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우리 대속자로서 구속에 대한 그분의 완성된 역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복된 기억이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온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전도**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외
칠 것을 외쳐라. 그러나 그것은 전도가 아니다!

143 장. 필요성—누가복음 24: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26).

우리 주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 의해 빌라도에게 데려가게 되고, 정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제자들 둘과 이야기 하면서 엠마오 길을 따라 걷고 계시다. 부활하신 구속자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고, 그들은, “우리가 믿었다.”고 말했다 (얼마나 슬픈가! 그들이 그들의 신뢰를 포기하였는가?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았는가?) —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누가복음 24:21). 25 절과 26 절에서 우리 구원자께서 그들에게 준엄한 책망과 복된 가르침의 말씀으로 대답하신다.

여기 그분의 책망의 말씀이 있다. —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5 절). 가장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불신이다. 그리고 그 불신이 그 자신 속에서 발견될 때, 그것은 더 어리석고 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구원자의 엄격한 질책의 말씀이다. 그것을 마음 속에 두도록 하자.

나는 26 절에서 발견되는 가르침의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할 것을 호소하기 원한다. 그것은 두 부분의 질문의 형태로 던져진다. —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주 예수께서 여기서 다시 그들에게 아주 자주 말씀하셨던 것을 강조하시며, 그분이 겐세마네와 박석 (가바다)와 골고다에서 고난 당하셨던 모든 것을 고난 당하시는 것에 대한 긴요하고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그 필요성의 한 방면은 그분이 우리 보증과 대속자와 구원자로서 그 모든 것들에 고난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결코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물을 필요 없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부활의 역사이다. 우리가 그 역사가 포함했던 것을 주시하려 한다면, 우리는 놀라움에 빠진다.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들어가셨던 치욕과 비탄의 형언할 수 없는 깊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게 되고 흔들린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옷을 내려 놓으시고 종의 형태를 그분 위에 입으셔야 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께서 ‘율법 아래 있게’ 되셔야 했던 것은 (갈라디아서 4:4), 우주의 창조자께서 이 세상에 장막을 치시고 ‘그분의 머리 둘 곳이 없으셔야’ 했던 것은 (마태복음 8:20), 유한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세속적인 논리가 우리를 실패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믿고 경배 드린다.” (A. W. Pink)

생명의 보좌로부터 사망의 무덤에까지 이르는 우리 구원자의 여정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추적하고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였던 분이 가난하게 되신 그분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가난함을 통하여 부유하게 될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이로운 것들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구속자의 치욕의 여정 가운데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정해졌음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늘의 귀한자께서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에 고난 당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비통과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끊임없는 치욕과 쓰디쓴 증오와 가혹한 박해였다. 누가 언제 이런 것들처럼 그런 일들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십자가 밑에 서서, 저주 받은 나무에 못 박히고, 자신의 피와 격분한 폭도의 침으로 덮히고, 죄가 되고, 그분의 아버지께 버림 받고 저주받았으나,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손에 의한 일임을 깨달으며, 거룩한 분을 바라볼 때, 나는 존경과 경이로움으로 충만하다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저 건너에,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노라! —
하나님의 성육신 아들을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숨을 내쉬며,
또 그의 피로 범벅이 된.

보라, 자주빛 급류가 흐르는 것을
그의 손과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니,
주홍 물결이 태양을 가리네;
그의 신음이 죽은 자를 깨우네.

떨리는 땅, 어두워지는 하늘,
큰 소리로 진리를 선포하라;
그리고 놀란 백부장과 함께, 외치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질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에 대한 존경으로 놀라면서, 여전히 내가 억누를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근거와 적절한 심판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다. 그 질문은, 왜?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런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렇게 끔찍하게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그를 죽이셨는가?

그것이 나의 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나?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로서 고난 당하셨으며, 그로써 그가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없었나? —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이려 하는 것이었나? 실로 그러하다 (로마서 5:8; 요한일서 3:16; 4:9-10).

“예수, 높은 곳의 그분의 보좌를 떠나시고,
기쁨의 빛난 영역을 떠나셨으며,
또 피 흘리고 죽으시려 세상에 오셨으니,
이제까지 이런 사랑이 있었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게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실 수 있다. 왜 그분의 아들을 죽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당하고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죽어야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 답변만 찾을 수 있다. —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하게 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구원해야 할 필요성은 없었다. 구원은 모두 그분의 은혜에 속한 대가 없는 은사이다. 그러나, 그분의 택정한 자를 타락한 인성의 파멸로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뿐이었다. —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22).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만족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공의의 만족에 대한 필요성과 축복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당신에게 보여 주기 원한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신성한 공의의 만족이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만족을 빼면, 기독교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보다 사람들의 혼에 더이상 가치도 유익도 없다. 죄에 대한 만족이 없이 죄로부터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가르치는 수도 없이 저주 받을 이단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만족에 대한 부인처럼 인간의 손에 어떤 것도 일반적이고 너무나 파괴적인 것은 없다 (히브리서 10:26-29).²⁶

히브리서 2:9-10

아마도 히브리서 2:9-10 은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만족의 필요성을 다른 어떤 하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천명한다.

우리는 그가 예수,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본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신격의 충만 (골로새서 2:9), 은혜의 충만 (요한복음 1:14; 골로새서 1:19), 그리고 구속의 충만 (에베소서 1:7)을 본다.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우리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주 우리 의로서 바라본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바라본다 (고린도전서 1:31). 당신은 그분을 보는가? 만약 그렇다면, 육신과 피가 당신에게 그분을 계시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하셨다.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 천사를 만드셨던 분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 그분은 여자의 씨로 되었고, 사람이 되었으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갈라디아서 4:4-5) 함이었다. 이것이 성육신에 대한 이유이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

²⁶ 히브리서 10:29 에 있는 “부정한(unholy)” 이 의미하는 것은 “공동(common)”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피를 효험 없고, 공로 없이, 공동의 것으로 만드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 죄에 대한 다른 희생은 없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게 되신 이유였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의 고난을 당할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세상 지배자가 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새 종교를 세우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개혁자가 되거나, 혹은 도덕과 미덕의 단순한 예가 되려 오시지 않았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심은 그가 사람들 대신에 죽고 그들을 구속하려 하심이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죽으시려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이 구원받고 살게 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또한 이것을 보는데, 그가 그의 백성 대신 고난 당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빌립보서 2:8-11).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셨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인자께서 이제 만유의 주로서 영광의 관을 쓰셨으며, 모든 존귀를 받으셨다. 하나님-사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분이 이제 그가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세상을 통치하신다 (요한복음 17:2; 로마서 14:9).

이제, 다음 줄을 보라.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 이 선포는, 다른 모든 선포들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빛 가운데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대신하여 기도하기를 거절하였던 자들을 위하여(요한복음 17:9),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과멸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이나 자들을 위하여(로마서 9:22),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그가 감추셨던 자들을 위하여(마태복음 11:20-25) 죽으셨다는 선포인가? 물론 아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속량의 효험을 부인할 자들이 얼마가 있다는 선포일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단순히 좋은 예로서 죽으셨거나, 혹은 단순히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신성한 보증으로서, 사람들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말은 그 문장을 보다 쉽게 읽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런 분명한 이유 없이 우리 번역자들에 의해 더해졌다. 그리스어 본문에 “사람”이라고 번역되어야 할 단어가 이 구절에는 없다. 그 문장은 축어적으로,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각을 위하여,’ 혹은 ‘모두를 위하여,’ 혹은 ‘각자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맥은 사도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언급하고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만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셨던 것은, 그가 영광에 이끌려는 아들들의 모든 자를 위하여 (10 절),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제들 가운데 모든 자를 위하여 (11 절), 교회의 각 지체를 위하여, 그가 찬양하려는 그 한 가운데에서 (12 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려 그에게 주신 자녀들의 각자를 위하여, 육신과 피를 허비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13 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구원하려 붙잡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든 자
를 위해서 (16 절) 였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 당하고 죽으실 만
큼 낮아지게 되셨나?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 그들을 대신한 그분의
치욕과 죽으심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이었나? 10 절을 읽어보라...

“그것이 그가 됴므로 인하고(For it became him).” —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광에 데려가시려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의
자리에 대신하여 고난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성경은 그리스
도의 죽으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마태
복음 16:21; 요한복음 3:14).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도
행전 2:23), 우리 보증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요
한복음 10:17-18), 구약 성경의 예언들에 따라 (마태복음 26:54),
그리고 은혜의 택정하심에 따라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약간을 구원
하리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은 공의의
만족에 의함이며,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였다.

바울이, “**그것이 그가 됴므로**”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께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
성을 구원하려고 그분의 아들을 죽이실 필요가 있었고, 그는 즉시
우리 하나님을 이 말로 설명한다 —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
은 자에게는.”**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의 궁극적이고 첫 번
째 동기이신 분으로서 묘사된다 (로마서 11:36). 모든 것이 그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을 위하여 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분의 본성의 모든 온전함의 영화롭게 하심을 위함이다 (잠언 16:4; 고린도전서 5:18).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 본성 가운데 모든 것, 섭리 가운데 모든 것, 구속 가운데 모든 것,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직접 반복하겠다, —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떤 자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희생을 통한 공의의 만족에 의해서였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 이것은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향한 은혜로운 계획의 암시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 오셨던 자들은 많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속하려 오시기 오래 전에 이미 존재하였다 (갈라디아서 4:4-6).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아들딸이 될 것이다.”고 선포하셨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와 권위를 받았고,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성을 받았다 (요한복음 1:12-13).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됨을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선포되었다. 믿음은 아들들의 양자 명분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바라 본다 (갈라디아서 4:6; 로마서 8:15-16).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수이며, 만만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많은 자. —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속량으로 주셨던 많은 자. — 그분의 피가 죄의 용서를 위하여 뿌려진 많은 자. — 그분의 순종으로 의롭게 된 많은 자. — 많은 저택들이 아버지의 집 안에 예비되어 있는 많은 자.

“하나님은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데 이르기까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을 통하여’ (데살로니가후서 2:13) 선택하셨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방법으로 죽으셨고, 그들은 영원한 기쁨의 약속, 기쁨 그 자체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은혜로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골로새서 1:12) 만드신다.” (John Gill)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가 영광에 이르도록 하신 그 위격은 그리스도, “**저희 구원의 주**”이다. 그가 구원을 책임진 그 한 분, 책임이 있는 그 한 분, 그 팔로만 구원을 성취하셨던 그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주(대장: the Captain)”라고 불려진다.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 방법, 우리 위대한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거나,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방법은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의 온전한 고난과 죽으심에 의해서 였다. 공의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고난을 떠나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었다. —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8-9).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만약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없었다.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였다 (잠언 16:6; 17:15; 로마서 3:24-26; 베드로전서 3:18).

이것이 히브리서 2:9-10 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의 아들들의 약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 안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능하신 분의 계획이고 목적이며 기쁨이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의 심판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모든 것으로 고난 당하고, 우리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으실 필요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만족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지, 그것의 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하나님의 팔로 포용하심 안으로 가는 길을 여는 그분의 죽으심에 의한 공의의 만족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께 화목하게 될 수 없다.

“당신의 마음 속에 두도록 잘 행하였을 체험에 관련한 것들을 당신에게 관찰하게 하도록 하자. 당신이 그리스도의 만족에 대한 관심에 의혹을 갖도록 유혹 받을 때, 이후로 당신에게 소용이 있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것이다. 언제든지 당신이 하나님과 비밀하게 혹은 공개적으로, 당신의 벽장 안에서, 혹은 가정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어떤 규례 아래에, 말씀의 사역이든, 기도이든, 주의 만찬이든 가졌던 것을 믿는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만족이 되신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당신은 그런 교제를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John Gill).

여섯 가지 선언문

여기에 단순히 반박할 수 없고 무시되지 말아야 하는 여섯 가지 선언문이 있다.

1. 모든 사람은 천연적으로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인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 죄인들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되었고 하나님께 대적들이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죄와 대적의 삶은 사망이다.

모든 범죄는 그에 공변된 보응을 받아야 한다 (히브리서 2:2). 모든 죄는 죄인들 안에서든 혹은 죄인의 대속자 안에서든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율법은, 범해졌으며, 죄를 고발하고, 죄인을 정죄하고, 죽음을 요구한다.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율법의 선고는 집행되어야 한다. 율법의 처벌은 사망이다. 그것은 절대로 철폐되거나, 변하거나, 변질되거나, 완화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분의 공의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18:4, 20) 그러나...

2.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 “주께서 인애를 기뻐하신다!” (미가 7:18).

하나님께서 얼마의 구원을 천명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를 구원하시려 오셨다. 구원 받아야 할 얼마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헛되이 될 수 없다 (요한복음 10:16). 모든 선택 받은 죄인 (데살로니가후서 2:13-14), 미리 예정된 모든 아들 (로마서 8:29-30), 언약의 모든 기업 (에베소서 1:3-7), 세상의 기초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아담의 자손은 구원 받아야 한다 (계시록 13:8). 하나님의 택정하신 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3. 공의 만족을 떠나서 어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 (히브리서 9:22).

하나님께서,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을 것이라” (출애굽기 34:7)라고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이심을 나는 안다. 그분은 뜻하신 바를 행하신다! 이 세상의 누구도 나보다 영광스러운 진리를 더 충만 히, 더 자주, 혹은 더 힘차게 선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성과 성품에 반대가 되는 것을 하실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의 선포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디도서 1:2)라고 말할 때 그 주권의 하나님으로부터 강탈할 수 없다. 진리이신 그 분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진리를 주장할 때 그분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권의 하나님을 강탈할 수 없다. — 하나님은 공의의 만족이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공의롭고,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 한다.

4.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나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에 의해서 이다 (요기 34:23; 로마서 3:24-26).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고, 사람은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사람은 죽으셨고 만족하게 하셨다. 두 사실이 공의가 만족하게 될 다른 방법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분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증명한다. 만약 그분의 공의에 모순되지 않으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스런 아들을 죽이실 것인가? 그리고 겐세마네에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것을 입증한다 (마태복음 26:39). 만약 그분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음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고통 받은 아들에게 그분의 혼의 갈망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겠는가?

무엇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

예수의 피 말고는 없네!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을 확대할 수 있나?

예수의 파 말고는 없네!

아, 그 흐름이 보배롭네,

그것이 나를 눈처럼 희게 만드네!
다른 원천은 내가 아는 것이 없네,
예수의 피 말고는 없네!

5. 그리스도의 피로 공의가 만족되었던 죄에 대하여 어떤 죄인을 벌하는 것이 그분의 거룩 안에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 (이사야 53:11; 로마서 8:1-4). 율법은 처벌 받은 중죄인 위에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대가를 하나님께서 두 번 요구하실 수 없으니,
먼저는 나의 피 흘리는 보증의 손에게,
그리고 나서 다시 내게!”

6.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죄인은 선택 받았고, 구속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았고, 영원히 구원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

누가복음 24:26 에서 제시되는 다른 것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속자로서 그분이 고난 받고 죽으심에 의하지 않고는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으며, 그로써 공의가 만족되었고, 의가 오게 되었고,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가 오셔서 구원하시려 했던 백성이 구원 받았다. 그분의 질문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입을 본다. 그가 아버지께 올라가셨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확신으로 의를 확신한다 (요한복음 16:11; 로마서 14:9; 빌립보서 2:8-11).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악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아무 것도 그것을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죄인의 대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엄격함을 보여 준다. 하지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하여 열려 있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가 길이요. 그가 죄에 대하여 만족을 이루셨다. 만약 당신이 그를 신뢰한다면, 만약 당신이 그분 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는 당신의 죄에 대하여 만족을 이루셨다.

우리 하나님의 완전함을 언제나 감탄하고 흠모하자 (시편 85:10-11). 그분의 사랑에 감탄하라. 그분의 공활을 흠모하라. 그분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라. 그분의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진리에 경이로움 가운데 서라. 모든 빛이 그리스도의 만족 가운데 영화롭게 빛난다. —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10).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을 위한 속량을 찾으셨다. 거룩이 그것을 입증하였다. 공의가 그것으로 만족되었다. 진리가 그것을 선포한다. —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가 고난 받았고, 피 흘렸으며, 죽으셨으므로,
지극히 높은 곳의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므로,
그가 의롭게 할 의를 갖고 계시므로,
우리 구원자께서 만족하게 되실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이사야 53:11)

144 장.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누가복음 24:29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누가복음 24:29).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것을 하도록 강권 받으실 수 있나?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든 어떤 일을 하도록 강권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 주 예수께서 엠마오의 길을 이 두 제자들과 함께 걸어 가시면서, 그들이 마을에 가까워지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 (누가복음 24:28). 그분의 발이 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았으나, 그의 마음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아직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강권 하도록 그들을 강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려는 것처럼 행동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원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사례들

성경 안에 이런 종류의 다른 사례들이 있다. 어떤 어두운 밤 제자들이 바다에 있을 때, 끔찍한 폭풍이 일어났다. 그들은 무서워 떨었다. 갑자기, 그들은 바다의 성난 파도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한 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물을 보았다. 여기서처럼, 제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구원자였음을 알지 못했다. 그가 폭풍에 튕겨진 그들의 배에 접근하였을 때, 그분이 그들 바로 옆을 걸어가시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 (마태복음 14:26). 그들의 외침을 듣자마자, 그분은 멈추셨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14:27).

주 예수께서 갈보리로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가시며 그분의 얼굴을 부딪돌처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 자리에 우리 대신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게 되셨고, 아무 것도 그분을 막을 수 없었다. 아무 것도 그분이 그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게 하거나, 그분의 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분이 예리고에서 나가시려 하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38)라고 외치는 가련한 소경인 거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즉시,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 (누가복음 18:40)

다른 경우에, 가난하고, 절망적인 가나 여인이 그분께 와서 외쳤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마태복음 15:22-23). 그분은 마치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셨다. 왜 그 귀가 언제나 슬픈 외침에 열려 있었고, 이 여인에게는 닫혀 있어야 했었는가? 왜 그분은 그 여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나? 그것은 그분이 그녀의 마음을 더 넓게, 그분이 부여 주시려고 하였던 축복을 받기에 충분히 넓게 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종종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는 종종 그분이 우리를 떠나실 것이라든지, 혹은 우리를 떠나셨다거나, 우리가 그분 뒤에서 외치도록 은혜롭게 하실 것처럼 보이게 만드신다! 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바라도록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유하시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우리 친애하는 주께서는 종종 우리가 그분의 공훈에 대한 필요를 알 때까지 그분의 공훈을 거두심으로 우리 사랑을 증명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분은 그분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 (에스겔 36:37)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갈망을 끌어내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으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듣기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분이 브니엘에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다. 기억하라, 여호와와 함께 씨름하였던 자는 야곱이 아니었다. 야곱과 씨름하였던 분은 여호와였다. 그분은 그분의 선택하신 자를 축복하려는 계획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야곱이 그분을 소유하여 할 때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나 야곱은 절대적인 필요 가운데 있었다. 그는 외쳤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26).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아가서에 그분의 택하신 자를 이런 방법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은혜롭게 다루시는 또 다른 놀랍고 교훈적인 사례가 있다 (5:2-16).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적용하실 것을 바라면서, 그 단락을 크게 주의하여 읽기를 촉구한다.²⁷

마찬가지로 여기 누가복음 24 장 안에도 있다. 그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주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그분을 강권하도록 그들을 강권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셨다.” 그리고서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된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29 절).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네;
당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 받네;
당신께서 친히 죄인의 친구이심을 증명하셨네!

종종 이 곳에 모였을 때,
당신께서 당신의 은혜의 상징과 함께 오셨네,
또 당신의 말씀의 전함을 축복하셨네,

²⁷ 아가서의 이 단락(5:2-16)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어서 내 책 *Discovering Christ in the Song of Solomon* 에 있는 나의 해설을 읽기를 권장하며 (Evangelical Press, Darlington, England - 2005), Roger Ellsworth 의 *He is Altogether Lovely* (Evangelical Press, Darlington, England - 1998)과 John Gill 의 *Exposition of the Book of Canticles* (Primitive Baptist Library of Carthage, Illinois - 1980)에 있는 해설들도 함께 읽기를 권한다.

다시 오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마음에 들어 오시고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소서;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사랑하는 평강의 왕이여;
이제 오셔서 각 마음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당신의 집, 당신의 성전, 당신의 보좌!

우리를 죄로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을 막으소서,
우리 정욕을 정복하시고 안에서 통치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우리로 당신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주여!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 그것이 나의 끊임없는 기도이다. 아, 그가 나와 함께 유하시기를, 나의 가족과 유하시기를, 내게 주신 지역 교회 가족과 함께 유하시기를, 또 당신과 유하시기를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지, 왜냐하면 그가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

“저희가 그를 강권하였다”

“저희가 그를 강권하였다.” — 그것이 얼마나 주목할만한 말인가! 여기 “강권하였다”고 번역된 특정한 단어는 매우 강한 말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힘을 사용하여 강요하다”라는 뜻이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다른 한 곳에서만 사용된다. 그것은 사도행전 16:15,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강권하여 그녀의 집에 유하도록 하는 곳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저희가 그를 강권하였다.” — 그 말은 아마도, “그들이 그분을 강제적으로 붙잡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어떤 힘이 영광의 주가 강요 받았을까? 어떻게 그가 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어떤 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떤 것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을까? 제하나님의 모든 책 안에서 우리 앞에 제시된 오직 단 한 가지 그런 힘이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가련하고, 궁핍한 혼의 외침으로 강권 당하셨다. —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그 외침이 그분께서 들어가서 “그들과 유하게” 강권하였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으로 강요 받지 않으셨다. 그 때,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분은 그분의 가련한 제자들로부터 어떤 약속으로 강요 받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에 대한 그들의 필요, 그분만 공급하실 수 있는 그 것에 대하여 그들이 느낀 필요로 강요 받으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렇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분의 대화는 너무도 매혹하는 것이며, 너무도 하늘에 속하고 교훈적이고, 너무 달콤하고 기쁘며, 너무 강력하고 감동을 주며, 그들의 혼에 너무 유익이 되어서 그들은 그분을 그들에게서 떠나 보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께 드리는 말씀이었다. 문 앞에 서서, “불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록 3:20)고 말씀하시며 서 있는 쪽은 주 예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들어오소서, 축복의 주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고 말하는 것은 두 제자들이다. 그리고 그가 야곱을 떠나기 전에 축복하셨듯이, 여기서 그분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으셨다.

그분이 유하셨을 때, 그분과 함께 그분의 축복을 가져오셨다. 그분은 그 집을 그분의 임재의 향기와 그분의 은혜로운 기름의 향기로 채우셨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30 절). 그분은 그들에게 먹을 떡,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축복하셨던 떡을 주셨다 (30 절). 그분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였고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게 하셨다 (31 절). 그분은 그들 마음을 안에서 불타게 하셨다 (32 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이 그분과 떨어질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에게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사례를 따를 은혜를 주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우리 구원자여,
당신의 긍휼이 끊어지게 하지 마소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소서,
또 우리 혼을 평강 가운데 지키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우리 구원자여,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열어 주소서,
우리가 이제나 또 언제나,
여기서 우리 축복의 주를 찾도록.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우리 구원자여,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빛 가운데 인도하소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전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필요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 치료가 필요한 자 만큼 많이 치료하신다 (누가복음 9:11). 그분은 그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방문하시고, 그분이 필요하는 한 오래도록 그들과 함께 유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그분에 대한 필요가 없는 자로부터 떠나신다 (마태복음 19:1). 만일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유하도록 강권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그분께 대한 우리 마음의 필요를 쏟아내야 한다 (욥기 23:4; 이사야 43:26).

구원자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지금은 큰 환란과 압박과 비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세상은 당신이 없으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생명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공허한 곳, 당신 없이, 당신의 음성이나 발걸음 소리가 없는 황량하게 버려진 집일 것입니다. 당신 없이 모든 것은 공허하고 냉냉합니다. 우리 삶을 채우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 집을 밝히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그분 만이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기쁨을 주신다. 아 축복의 구원자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다,” 당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무엇이 거짓을 말하고, 무엇이 우리 미래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지만, 그러나 미래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미래와 그 모든 불확실성 때문에, 당신이 우리 인도자 우리 보호자가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 여정을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방어하고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의의 오른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넘쳐나는 요단 강 건너편으로 데려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아버지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분, 모든 변화와 시험과 비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고 지키실 분이 누구인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를 버리지도 마소서, 아 하나님 우리 구원이시여, 아 피로한 자의 안식이여, 아 어두운 자의 빛이여, 아 타락한 자의 구원자여, 아 슬픈 자의 기쁨이여, 아 무기력한 자의 도움이시여, — 변치 않는 동역자이고 친구이며 형제여, 아 축복의 동족이여, 그와 함께라면 변동도 없고 돌아섬의 그림자도 없으니, —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한 자여, “우리과 함께 거하사이다!” 우리를 그 길에서 인도해 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시며,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연회장 안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위에 당신의 깃발이 사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과 함께 유하사이다.” — 세상의 어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시간의 태양은 언덕 뒤로 질 것이다. 모든 것의 종말이 가까웠다. 주의 날이 임박하였다. 사탄이 격노 가운데 있는 것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기 때문이다.” (계시록 12:12). 악한 자와 유혹하는 자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악해진다. 위험한 때가 왔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세상을 덮었다. 지진과 해일, 회오리 바람과 태풍이 도처에서 사람의 마음을 두려움에 실패하게 만든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시편 11:3). 주 예수를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사이다!”고 외치지 않고서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당신의 모든 긍휼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당신의 모든 힘과 도우심 가운데, 당신의 모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사이다.” — “우리와 함께 거하사이다” 영원히.

“삶의 짧은 날에서 그 가까운 썰물로 속히,
세상의 즐거움이 희미해져 가네; 그 영광이 지나가네!
주면 모든 것 가운데 변화와 쇠퇴를 내가 보네. —
변하지 않으시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유하소서!”

“들어가시니라”

29 절의 마지막 문장에 당신이 주목할 것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 제자들처럼, 아가서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구하는데 있어서 아주 끈질긴 교회를 본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찾았을 때, 그녀는 그가 그녀와 함께 유하기를 강권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필요를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 주시며 우리가 그분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강권하도록 강권하시기를 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란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
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
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찌니라.”
(아가 3:4-5).

우리 구원자께 지속적으로 외침으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강권하도록 하자.

145 장. “내 손을 보라”—누가복음 24:36-53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3:36-53).

우리 주의 제자들이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주 예수께서 장사된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사랑하는 주의 시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았고,” 주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하였다. 즉시, 그들은 주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갖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했을 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듯이 보여 믿지 아니하였다” (11 절).

같은 그 날 두 명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엠마오 길을 따라 걸어 갈 때, 그들은 지난 사흘 동안의 사건에 대하여 대화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들의 생각은 요한복음 13-16 장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와, 요한복음 17 장에 있는 기도와 그분이 그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셨던 주의 만찬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달으려 하며 혼란으로 가득하였다. 그들은 왜 그분이 일반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비록 그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고, 그들은 끄찍하게 혼란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러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며 길을 따라 걸었을 때, 주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 와서 함께 걸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며, 슬퍼하나?” 그리고 글로바가 그분께 왜 그들이 갈광질광하는지를 설명하였다 (18-24 절). 그리고 구원자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말한 바가 어떠한지 그들에게 말하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25-27 절). 그들이 엠마오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그들과 저녁을 드시기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분이 식탁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분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 절)고 말했다.

평강을 명령하심

즉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사도들과 그들의 형제들을 찾았으며 그들에게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했다. 그들이 말할 때, 갑자기, 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고 말씀하셨다 (36 절).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구원자이신가! Robert Hawker 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부활의 실재에 대한 그런 반복된 증거를 그렇게 가져오는 가운데, 나뉘어 졌을 때나 함께 모여 있을 때 모두, 주 예수의 은혜로운 주목을 봄이 진실로 얼마나 축복인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록하였다. 여기 그분이, 단 사흘 전에 아주 치욕스럽게도 그분을 버렸던 자들인, 그분의 제자들 한 가운데 서 계신다. 한 사람은 그분을 세 번 부인하였다. 그들 모두 이전의 행실로 돌아간 겁쟁이들이었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 이 사람들 한 가운데 서 계셨을 때, 질책의 말씀도 없었고, 분노의 기미도 없었고, 심지어 불승인의 표시도 없었다. 차분하게, 사랑스럽게, 은혜롭게, 우리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마치 주께서 무덤에서 육신으로 살아나시고, “너희 죄가 모두 사함 받았다. 나의 피가 그것들을 모두 씻어 버렸다.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고 하시는 것 같다. 우리의 부정함을 지나가고, 우리 죄를 용서하며, 우리 범죄를 숨기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다. 그분은 “공홀 가운데 기뻐하신다.” 그분의 무한한 마음 안에는 죄를 용서하는 무한한 은혜함이 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보다 더 많이 기꺼이 용서하신다.

우리의 모든 영광스럽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그의 타락하고 죄로 충만한 백성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구원자를 두려워 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는 충분하고 용서하시는 공홀이 있다. 그분은, “나는 노함이 없나니”라고 하신다 (이사야 27:4).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구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용서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타락한 자를 회복하신다. 그렇게 대가 없이 사함 받은 우리는 우리 사랑의 구원자를 사랑하여야 하며 우리 마음의 순종을 그분께 기꺼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대가 없이 사함 받은 우리는 우리 형제를 대가 없이 용서할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평강의 왕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온화하게 될 것이며, 점잖고, 친절하며, 동정하고, 용서할 것이다. 용서 받은 죄인들은 용서하는 죄인들이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 한 가운데 서 계셨을 때, 그들은 무서워하였다. 그 때조차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여전히, 그분은 은혜로우셨다. 그분은 부드럽게 자신을 낮추어 그들의 약함과 부정함에 섬기셨다. 그분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말씀하셨다 (38 절). 그분은 당연하게 그들을 꾸짖으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나를 믿기를 거절하며, 심지어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는데도 말인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방법이 아니다. 그분의 자녀를 엄하게 다루시는 대신에,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팔을 부드럽게 펼치시고,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구원자의 손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분의 손은 우리의 의심을 없애고,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우리 주권자

떨면서,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보라. 당신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 앞에 서 계신 그분을 그려보라. 그분은,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이 손은 세상을 만든 손이다. 그것은 우리 주권자 하나님이고 구원자의 손이다.

“대저 여호와와는 크신 하나님이지요, 모든 시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3-6)

우리 구원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손 안에 세상 전체를 소유하셨다. 왜 우리가 두려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가? 주께 대하여 너무도 어려운 것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손을 바라 볼 때 오직 두려워 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8:1-4). 그리스도, 우리 주권적인 주의 손을 보라. 이 손은 세상을 지으신 손이다 (시편 19:1-6).

세상에서 가장 도리에서 벗어나고, 어리석은 철학은 진화에 대한 철학이다. 박식한 명칭이들이 하늘과 땅 중 가장 희귀한 아름다움과 경이와 정확한 질서는 아주 우연하게 진화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지만, 모든 학문과 기술과 교양을 겸비한 그 동일한 사람들이 꿈틀거리는 지렁이나 성가신 하루살이를 만드는 방법을 전혀 해석할 수 없다! 300 년 전에 Thomas Watson 이 했던 비평은 기억할만한 가치가 있다. “창조하기 위해선 무한한 능력이 요구된다. 온 세상이 파괴 하나 만들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분이 가진 것은 세상을 지으신 두 손이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손이 그분의 소유이다 (요한복음 1:1-3; 3:35).

“보좌 위에 앉으신 인자를 보라

하늘과 땅과 지옥 안에서 통치하신다:

그 인자가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며,
그의 보좌가 우리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요한 복음 3:35).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구원자께서 주권적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 Stephen Charnock 은, “하나님과 주권자가 되심은 불가분 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고 통제를 받는다. 만물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자의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주권적 통치는 우리 마음을 통제하여야 하고 만물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주셔야 한다.

완전한 주권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구원자의 손은 우리 혼의 영원한 선을 위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는 손이다 (로마서 8:28).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31)

“시간의 모든 하락하는 궤도 이후로

하나님의 경계의 눈이 둘러보시네,
아, 너무도 지혜롭게 우리 운명을 선택하시는 분께서,
또 우리의 날들을 통제하시는가?

선하니, 그가 주실 때, 비할 데 없이 선하도다!
그가 부인하실 때도 부족함이 없네:

십자가 조차도 그의 주권적 손에서 나오니
변장한 축복들이네.

아무도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의심할 자 없으니,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이,
그의 조금도 틀리지 않고 은혜로운 뜻에
모든 바람은 체념하네.”

우리 보증

“내 손을 보라.” 이 손은 우리 주권적 하나님의 손이다. 그리고 우리 언약의 보증이고 선한 목자의 손이다. 그는 말씀하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27-28).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보증이고, 만족이며, 확신이다. —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분의 손 안에 우리를 두셨다. 그리고 우리 보증이고 우리 선한 목자로서 주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 혼을 위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셨다. 목자만이 양 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한복음 6:37-40). 유다 족속의 사자는 오랜 영원 전부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보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43:9).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혼을 위하여 모든 책임을 그분 위에 두셨다.

우리 대속

“내 손을 보라.” 당신은 그 손을 볼 수 있는가? 이 손은 우리 축복의 대속자의 손이다.

“나는 물 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찢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들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렀나이다.” (시편 22:14-16).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도마와 같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다 (요한복음 20:25). 각자는 직접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대속자의 손에서 그 상처를 본다 (이사야 53:4-6). 당신은 그분의 손에 있는 그 상처를 보는가? 그 손이 당신의 마음에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가?

“보라 그의 손을, 그리고 그 말을 들어라,
‘내가 대가 없이 모두 용서하니,
이 상처들은 이루어진 네 속량을 위함이었으며,
내가 죽으니 네가 살게 될 것이라!’”

나의 영광의 대속자의 손에 있는 상처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공의가 충만히 만족되었고 (갈라디아서 3:13), 나의 죄가 내게서 완전히 제거되었고 (히브리서 9:26),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요한일서 3:16),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요한일서 2:1-2) 확신 한다.

“다섯 곳의 피나는 상처를 입으시니,
갈보리에서 받았네,
상처들이 효험 있는 기도를 쏟아내고,
나를 위하여 강하게 탄원하네.
그를 용서하라, 아 그들이 외침을 용서하라,
아니면 그 속량 받은 죄인이 죽게 하라!”

우리 보증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있는가? 사탄이 때때로 당신의 귀 속에, “너는 침몰하고 있고, 마침내 위선자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며, 곧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고 속삭이는가? 당신은 두려운가? 구원자께서,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이 손은 우리 보증의 손이다. 우리는 이것이 마태복음 14:25-31 에서 아름답게 제시된 것을 본다.

베드로가 이른 아침의 잔잔한 물을 가로 질러 구원자에게 걷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좋았다. 그는 너무 좋게 느꼈다. 그러나 그가 접근하고 있는 폭풍우를 보았을 때, 그는 무서워 했고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외쳤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다.” (마태복음 14:30-31).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삶의 바다 위에 많은 폭풍이 일어난다. 파도가 높이 친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구름이 무겁게 떠 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배가 좌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때, 주 예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으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좋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히브리서 13:5; 이사야 41:10).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모든 때에 그분의 손 안에서 안심되고 안전하다. 그분이 당신을 넘어지는 데서 지키실 것이다.

“인생의 폭풍이 격렬할 때, 내 곁에 있으소서;
세상이 나를 이리저리 흔들 때, 바다 위의 배처럼,
바람과 물을 다스리는 당신께서, 내 곁에 있으소서.

환란의 한 가운데에서, 내 곁에 있으소서;
지옥의 군대가 괴롭힐 때, 또 내 힘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전쟁에 절대 패배 없는 당신께서, 내 곁에 있으소서.

내가 늙어지고 약해질 때, 내 곁에 있으소서;
내 인생이 짐이 될 때, 그리고 차가운 요단 강에 가까이 갈 때,
아 당신 “계곡의 백합화”여, 내 곁에 있으소서.”

우리 위안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두렵고 당신의 생각이 혼란스러운가? 우리 구원자의 점잖은 질책을 들어라. —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을 보라.” (38-39 절). 이는 우리 위안의 손이다. 이는 축복과 위로의 손이다. 50 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라는 말씀을 본다. 그분은 당신과 내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4:1).

구원자의 손을 보라,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지 보라 (마가복음 10:13-16). —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4).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4:8).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달콤한 위안의 말씀이 있다. 우리를 징계하는 그 손은 우리를 축복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손이다. — “불찌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찌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욥기 5:17-18).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위안의 말씀이 여기 있다. 모든 참된 하나님의 종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 —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계시록 1:16, 20).

우리 구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팔을 내미시고,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이 손은 우리 주권자의 손이고, 우리 보증의 손이며, 우리 대속자의 손이며, 우리 보증의 손이고, 우리 위안의 손이다.

그리고 여기 아직 진노의 자녀들인 자들을 위한 말씀이 있다. 죄인들아, 복음의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팔을 당신에게 내미시고,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 손은 우리 구원자의 손이다! —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1). 당신의 혼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라.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는 자들을 그분은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무도 그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충만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손에 긍휼과 그분의 마음 속의 사랑을 갖고 우리 가련하고 궁핍한 혼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을 믿어라. 아,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큰 죄인들의 위대한 구원자시다. 그분은 위대한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당신의 범죄들이 없어지고 당신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손 안에 긍휼이 있고 그분의 명령 안에 은혜가 있다. 그가 가련하고 궁핍한 죄인들에게 그분의 손을 내밀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손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신뢰하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는 떨게 하라. 이 손은 마지막 말에 심판을 집행하실 그분의 손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기록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 하였다 (히브리서 10:31).

대제사장은 다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예표였던 것처럼, 그가 그들 위에 하나님에 의해 명령된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올렸을 때 우리 구원자를 예표 하였다 (민수기 6:22-27).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자, 그 맹세를 이루었던 참나실인, 이스라엘의 참 대제사장, 그리고 참 죄속량의 제물이신 분께서 그분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신다. 그가 그의 백성을 축복하면서, 마치 그의 축복이 영원히 영존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듯,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마노아의 경우에서처럼 (사사기 13:20), 우리 모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향 내음 가운데 승천하셨다.

보라 그의 손을, 그리고 그분께 경배 드려라. 보라 그분의 손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큰 기쁨으로 그분 앞에서 걸어가라. 당신의 뚫린 손은, 아 축복의 구원자여, 새 창조의 도구이고, 모든 축복의 원천이며, 구속과 용서와 은혜와 구원의 상징이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과 영원토록, 감사와 확신된 믿음과 기쁨으로 당신의 손을 바라보게 하소서.

146 장. 다시 사십 —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분— 누가복음 24:36-53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불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3:36-53).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떠했는가가 현재와 미래의 그 사람임을 받아들인다.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끔 틀린다. 사람들은 변하며 변화 받게 된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것은 추정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않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며 변화될 수도 없다. 과거의 그분이 누구였는지가 지금 그 분이고, 영원히 그분일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분은, “나 여호와와는 변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고 선포하신다 (말라기 3:6). “이제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그분 뿐이다 (계시록 1:4, 8).

엠마오 길을 따라서 우리 부활하신 구원자와 함께 걸었던 두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후, 기쁨으로 압도되어서 그들이 왜 엠마오로 갔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 보인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 24:33, 35).

그리고, 36 절에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라는 것을 본다. 제자들이 함께 모였고, 아마도 큰 동일 장소로, 주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가르치셨던 다락방이었을 것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다.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당혹해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 계셨다.” 우리 축복의 구원자께서는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의 성도들과 만나기를 좋아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가장 필요할 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36-53 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구속자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40 일에 대한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그 40 일 동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3-4).

부어진 평강

36-43 절에서 묘사된 그분의 조직된 교회의 한 가운데서 우리 살아나신 주의 첫 번째 나타나심을 보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초대받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환영하였다. 그분은 그들 모두에게 가까운 가운데 서 계셨다. 그분은 그들 한 가운데에서 그들 모두 위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보였다 (36-43 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제 그분의 구속의 축복된 역사를 완료하셨다. 그분은 지성서로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그분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전에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을 때 갖고 계셨던 것과 아주 동일한 성품과 본성 안에서 그분의 제자들 한 가운데에서, 그분의 세상 사역의 날 동안 그들 위에 부여주셨던 바로 그 동일한 축복을 부여주시려고 나타나셨다. 우리 살아나신 구속자께서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인성과 은혜 가운데 동일하시다. —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요한복음 14:27 을 보라)

이 말씀이 주어졌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은 특별히 복되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사흘 전에 그분을 치욕스럽게 버리고 도망갔던 바로 그 동일한 제자들에게 하셨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 어겼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죽기로 준비되었다고 고백한 것을 잊었다. 그들은 “각각 제 곳으로”(요한복음 16:32) 흩어졌고, 그분 홀로 죽으시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심지어 그분을 세 번 부인하였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은 모두 “배역한 자식들” (예레미야 3:22)이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14:4). 따라서,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셨다.” 한 마디의 질책도 언급되지 않는다. 단 하나의 날카로운 책망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다. 평온하고 조용하게 그분은 그들 한 가운데 나타나셨고, 평강을 말씀하셨다. —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가가 없는지! 진실로, 그분의 소유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부정과 범죄와 죄를 지나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그분은 “공홀 가운데 기뻐하신다.” 우리가 사함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꺼이 용서하시며, 우리가 용서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분의 위대하고, 전능하며, 무한한 마음 안에 무한한 용서가 있다. 비록 우리 죄가 진홍색 같았지만, 그분이 눈처럼 희게 만드신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닦아내셨고, 그분의 뒤로 던져 버리셨으며, 바다의 깊이에 그것들을 묻어 버리셨으며, 더이상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비록, 이 가련한 제자들처럼, 우리는 계속하여 발부리가 걸려 넘어지고 있으며, 계속하여 “되돌아간 자녀들”이지만, 그분의 용서는 대가 없고, 충만하고,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용서이다. 그분이 우리 고민하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평강과 용서는 그분이 그들에 말씀하셨던 동일한 평강이다. 그것은 그분의 십자가에 의해 얻어진 평강이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구원자로부터 흐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며,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속량과 절대적인 용서의 평강이다. 그분은 “내가 네 죄를 깨끗하게 하였노라!…내게 분노가 없노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혼에 평강을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궁핍한 죄인들에게 평강을 주신 구원자이다.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충분한 공활이 있고 용서함이 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쇠하여지는 자에게 활기를 주시고, 타락한 자를 회복하시며,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하신다. 그분께 용서함이 있으며, 그로 그가 경외함을 받을 것이다 (시편 130:4).

체험된 평강

그분께서 평강을 말씀하셨지만, 이 가련 혼들은 여전히 그것을 누릴 능력이 없었다. —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37 절). 그리고 우리 축복된 구원자께서 이 가련하고, 근심하는 혼들에게 그분의 성취된 구속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으며, 그로써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확신시키셨으며, 그분이 말씀하셨던 평강을 그들이 체험하도록 하셨다 (38-43 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한 가지이지만,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혼 안에서 평강을 체험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이 주신 평강을 그분의 소유가 체험하도록 하신다. 그분은 단지, “평강을 가져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가 은혜로운 축복된 체험 가운데, 그분을 아는 달콤한 체험 가운데 그분의 평강을 알게 하신다. —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분은, “내 손과 발을 보고…나를 만져 보라.”고 하셨다. 그분은 그들 앞에서 계셨고, 못으로 뚫린 그분의 손을 내미셨고, 못이 지나갔고, 그것에 그분의 몸이 저주 받은 나무에 단단히 고정되셨던, 그분의 상처 입은 발을 가리키셨다. 그리고 그분은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별집)을 드리매…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런 일들로, 주 예수께서 그들의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를 그분의 은혜의 달콤한 체험 가운데 믿음에 의해 개인적으로 우리 구원자께 손으로 만지므로 구속과 용서와 영원한 구원의 달콤한 평강을 누리다 (요한일서 1:1-3).

바로 그 동일한 상처들은, 그것으로 우리 구속자께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끼친 것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성취된 구속과 그분의 부활로 사망을 정복하심에 대하여 확신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영구하고 영원하게 퍼진 상처들이다. 거기에, 우리 전능한 변호자와 위대한 대체사장으로,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죄 속량의 피와 대속의 죽으심의 중보를 탄원하신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렇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 (히브리서 9:24),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12:24). 거기에 그분이 영원히 “죽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5:6) 으로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시온좌 앞에 계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계시므로 그분의 마음 위에 우리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 (출애굽기 28:29-30). 구약의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갈망하였고 바랬던 것이 우리 전능한 변호자의 중재 안에서 결실을 얻었다. 그분은 사망보다 더 강한 그분의 마음의 인치심으로, 그분의 팔 위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제시하였다 (아가 8:6).

영적 불모와 혼의 침체의 시간 가운데 내게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격려인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탄원할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손과 옆구리를 찢으신 분이 있다. —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요한일서 2:1-2).

우리 전능한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이 다시 사셨음을 믿도록 명령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불신을 날카롭게 질책하셨다. 대신에, 큰 긍휼 가운데, 그분은 그들의 필요에 몸을 낮추셨다. 그분은 그들의 약함에 몸을 낮추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엄밀한 의미로 -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나 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엄밀한 의미로 -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38-39 절).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만유 가운데 얼마나 큰 분이 되는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은혜롭게 다루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자.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인내로 인도될 필요가 있으며, 나무라고 거칠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약한 자에게, 우리가 약한 자에게 사역하듯 약하게 되도록 하자 (고린도전서 9:22).

한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36-43 절은 부활 이후 그분의 모인 교회에 우리 주의 첫 번째 출현을 기술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성도들과 모인 그분의 형제들의 한 가운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이 배반당하실 때 그분에게서 도망갔고, 그분이 재판 받을 때 그분을 버리며 매우 부끄럽게 행동하였을 때, 그들 한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분의 교회를 방문하셨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고, 믿지 않았으며,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였고, 그분의 사자들의 증거를 거절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을 절실히 필요로 하였는데,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떼와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함께, 그분의 제자들로서, 그분에 대한 사랑의 기억 가운데 모인다. 그들은 그분의 부재를 슬퍼하였고 그분을 크게 갈망하였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을 증언하였고, 그들이 보았고, 체험하였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가 그들 가운데 없었을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으며, 그들 각각이 그분을 만지도록 허락하셨으며, 그들에게 다시 그분 자신을 증거하셨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과 같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한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소망이 충만하여 바라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성도들의 집회에서 우리 자신이 없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 이 집회에 있지 않았던 한 제자, 참 제자, 참 믿는 자가 있었다. 도마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우리는 왜 그가 없었는지 듣지 못했지만, 그는 거기 없었다 (요한복음 20:24). 아마도 그는 해야 할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불신으로 휩싸여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아주 저조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다: — 그의 구속자가 그의 형제들의 한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거기 없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도마가 이제까지 다른 예배에 빠졌다는 것을 의심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없을 때, 말씀의 사역과 당신 가족과의 교통에서 당신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타난 임재의 축복에서,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먹는 형언할 수 없는 특권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다음 단락에서 (누가복음 24:44-48)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의 요약물을 주셨다. 그분이 육신 가운데 그들과 함께 걸었던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요약하셨

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첫째, 그분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종합하실 때, 주 예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의 의미와 뜻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다. 부활하신 구원자께서 그분이 이전에 계셨던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동일하다. —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4 절).

복음서 이야기를 아주 무심코 읽으면 이 사람들이 구약을 알았던 것을 분명하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지 알았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신성한 섭리로 엮어지고 보존되었는지 알았다. 그들은 그 역사를 알았고 그 글을 알았다. 그러나 그 의미와 그 뜻은, 구원자께서, “너희가 구약에서 읽은 모든 것, 모든 율법, 모든 예언들, 모든 예표들과 의례들, 모든 의식과 제물들, 그리고 모든 시편과 잠언들이 나에 관한 것이다.”고 말씀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하실 때까지, 그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때조차도,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실상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영정 분별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이다. 사람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고, 문법, 고대 성경 역사, 고고학, 철학, 신학, 해석학, 주해와 수사학에 대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여전히 성경에 관해 절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책은 신성한 빛 비춤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는 신성한 계시의 책이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하실 수 있고 그것들을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고린도전서 2:9-15).

출석했다는 것, 그 설교를 들었다는 것, 그 축복의 빛비춤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 같았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떤 순간이어야 했는지! 어떤 경이로움을 그 제자들이 느껴야 했는지! 구원자의 말씀이 얼마나 다르게 들렸어야 하는지!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하늘에 속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은 이제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부활하신 구속자로서 그들의 깨달음을 열도록 다른 세상에서 오심으로 들었다. 이제, 처음으로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제 처음으로 그들은 세상으로 온 그분의 사명의 광대하고, 무한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제, 처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의 구속자, 그들의 주이고 왕이신 그분의 무한한 은혜와 영원한 사랑과 변할 수 없는 공훈의 의미를 알기 시작했다!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은 전에 너무도 많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21; 17:22-23; 20:18-19; 마가복음 8:31-32; 9:31; 10:33-34; 누가복음 18:31-33). 그분은 자신의 죽으심에 대하여 불행한 불운이나, 애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필수성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46 절). 깨달아야 하도록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아무도 이 세 가지 사항을 깨닫지 않은 자는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

1.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 그분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죽음에 내어지셨다 (사도행전 2:23). 그분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영원한 계명에 의해 죽으셨다.
2. 하나님의 사랑스런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였다. —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성취될 수 없었고, 신성한 공의가 결코 만족될 수 없었으며,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없었으며, 하나님은 결코 긍휼을 보이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력한 역경의 유일한 해법이었으며, 그 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대로부터의 질문인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욥기 9:2)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었다. 십자가는 그 매듭을 풀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이사야 45:21)이시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저주 받은 나무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으므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자가 죽으셨으므로, 그로써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의로우시며, 의로운 자”이시다 (로마서 3:26).

죄인들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충만한 확신으로, 영생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대속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한 의로운 자로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그가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던 모든 자가 그분에 의해 하나님께 가게 될 것을 보장한다!

3. 그리스도는 성경에 따라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15:1-3). —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의 뜻으로 죽으셨다. 그분은,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7, 10).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택정하신 자 대신에 우리 대속자로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고린도후서 5:21).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성취하려 의도하셨던 모든 것을 성취하십시오, 영원한 구속을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얻으심으로 대신하여 승리의 죽음을 죽으셨다 (갈라디아서 3:13).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평강이며, 우리의 모든 구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부채의 청산이고, 우리 모든 손실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모든 선택하신 자의 구속이다. —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2).

십자가 위에서 그가 피 흘리시는 것을 보니,
죄의식으로 인하여 자유롭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없앴고,
또 그분의 은혜로 나는 거듭났네.

그가 다시 사실 때 나의 구원자를 보니
나의 믿음을 확신하고, 나의 대적을 물리치네;
내가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것은,
나의 구원자의 무덤을 가리킴으로 인함이라.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찬양하라,
나의 구원자께서 나의 뜻을 그분의 것으로 만드시네;
내가 이제 선을 부인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사시고,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온화한 동정으로 그가 내려 보시니,

또 나를 위하여 정복자의 왕관을 갖고 계시네;
비록 전에는 슬픔과 염려로 압박 받았으나,
내 혼이 살아나고, 더이상 요구하지 않네.

믿음으로 내가 임박한 그날을 보니
그의 임재 가운데 내가 서게 될 때라;
그리고 나의 끝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니,
그분을 보는 곳에, 그가 계시기 때문이라.

회개와 용서

47 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죄속량의 대속자로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죽으시므로 우리가 회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도처에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은 그들이 그분께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구원자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죽으심 덕분에, 회개를 전하라고 명령하시며, 그것은 죄인들이 그분께 돌이키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분의 죄속량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사야 61:1-3; 스가랴 9:11-12).

회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역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역전을 선포한다. 우리를 위하여 성취된 회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회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의 역전이다 (고린도후서 5:17).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신 회개는 죄가 어떻게 경감 받는지에 대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태도의 역전이다.

역전의 이 선포는 죄의 용서의 복된 선포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셨기(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 그분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죄수들은 그들의 감옥에서 내 보내졌다. “그리고 너희,” 그분의 당신의 죄를 없애셨다고 선포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께 돌이키게 된 당신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 절). 모든 구속 받은 죄인은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선교자, 그분의 증인, 그의 구원자의 성취, 그분의 은혜, 그 안에서 발견된 죄에 대한 대가 없는 용서에 대한 그 자신의 증언을 갖고 있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도처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라고 말씀하셨다. Robert Hawker 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예루살렘 죄인들, 그 마음이 그 오순절 날이 가까워 질 때 주권적 은혜로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분의 십자가 형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피를 뿌림 가운데 승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선지자들의 이 살육의 집,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리고 그분 자신도 역시, 예수께서 그분의 죽으심 가운데 첫 번째 공훈의 선포를 하셨을 것이다! 아!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이여! 아!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여, 지식을 초월하네!”

아무도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자는 없다. 아무도 전능한 공훈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자는 없다. 그분이 치료할 수 없는 경우를 치료하시는 것은 우리 위대한 의사의 영광이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가능하다.

영광스러운 마지막

50-53 절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을 한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는 주의 부활에서 사십일 후 그분의 승천으로 이동하면서, 아주 큰 이동을 한다. 여기서 그는 우리에게 단순한 말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우리 구속자의 복되고 승리의 절정을 보여 준다. 우리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부활 영광 가운데 동일한 분이시다 (요한복음 17:5).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 그분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바로 그 행동 가운데 계실 때 그들을 떠나셨다. 구약 성경 안에서 대제사장은 그의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는 그리스도를 예표 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주 예수께서 그것을 명하신다. 우리 위대한 대제사장께서 축복하시는 동안, 그분의 축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듯, 승천하셨다. 그리고, 마노아의 사례에서처럼, 그분은 그분 자신의 희생의 달콤한 향기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경이롭게 행하셨다 (사사기 13:19-20).

주 예수께서 하늘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 자신의 피와 의의 공로 위에, 그리고 우리 혼의 닦이 되시는 우리 선주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우리 변호자로서, 우리의 파멸할 수 없고 영원한 구원과 보증과 축복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며 하늘로 올리우셨다 (로마서 8:32-39).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축복을 받은 후 (그분의 영구하고, 그치지 않으며, 영원한 축복), 주의 구속 받은 자들이 그분께 경배를 드렸으며 큰 기쁨을 갖고 떠났던 것은, 그가 “그들의 깨달음을 여셨기” 때문이었다. 아, 그분이 동일한 것을 당신과 나를 위하여 계속하여 하시기를 바란다! 만약 그분께서 우리 구원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 가운데 자각하는 유익을 주실 것이라면, 우리는 큰 기쁨을 갖고 그분께 경배드릴 것이며 우리 자신의 “아멘”을 그분의 축복된 이름과 역사에 보낼 것이다.

다시 오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10-11).

이 동일하신 예수께서 그분이 오르실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돌아 오실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분은 구약의 유대 대체사장 처럼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고, 그분의 성도를 함께 모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앞으로 오실 것이다 (레위기 9:23; 사도행전 3:21). 그 날을, “영생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회를 기다리며” (유다서 1:21) 기다리자. 그 날이 이르기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그분을 신뢰하고 섬기자.

147 장. 못 박힌 그분의 손—누가복음 24:50-53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3:50-53).

매년 한 번씩, 구약 성경에 있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일반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면서, 그의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 놓고 일반적인 흰 옷과 아마포 바지를 입는다. 그는 제물로 지정된 어린 양을 데리고 가서 죽인다. 그는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홀로 들어갔을 것이다. 거기서 그는 제물의 피를 시은좌 위에 뿌리고, 그것으로 언약궤를 덮었다.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속죄제는, 그렇게 나라의 죄를 덮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시 호화로운 의복, 세마포와 주홍색과 파란색의, 예쁜 소리가 나는 종과 석류가 있는 의복을 입었을 것이다. 그는 번쩍이는 흉패를 입고 그 머리에 제사장 갓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채 나와서, 그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였을 것이다. —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여호와와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찌니
라.” (민수기 6:24-26).

성취된 예표

그 정성들인 의식은, 믿음의 가족 위에 참 제물이기도 하고 참 대
제사장이기도 하였을 오실 그 한 분,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누가복음 24:50-53 에서
아름답게 성취된 그 예표를 본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으로서 그 손을 들어
올리고 그 백성을 축복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우리 구원자께
서 잠시 동안 그분의 영광과 장엄의 의복을 내려 놓으셨고,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덮으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속죄와
속량의 제물로서 육신과 혼과 영을 드렸다. — “오직 자기 피로 영
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12). 그리고 이제 우리 대제사장은 그분이 하늘로 오르셨던 것
처럼 그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분의 손을 들었다. —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이제 누가의 복음서에 대한 우리
학습에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초점을 맞추자.

무덤을 부숨으로써, 우리 주께서 땅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입증하였다. 그분의 부활 후 사람들 가운데 사십 일 동안
기다리면서, 그분은 세상 그 자체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주장하셨
다. 그리고 그분은 공중 권세를 잡은 왕의 통치가 깨졌음을 보여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주시기 위하여 공중으로 승천하셨다. 마침내, 우리 축복의 하나님-사람 중보자로서 완전하고 우주적인 주권적인 그분의 보좌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삼층천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무덤의 가장 아래의 깊은 곳에서 영광의 가장 높은 영역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대한 영역 위의 최고 통치자,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로 통치하신다.

그분의 이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부활 아침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그러나 사십 일 동안 땅 위에 머물렀던 이유가 있으셨다. 우리 주께서 부활 후에 사십 일 동안 이 세상에 남아 계셨던 이유들 가운데 몇 가지를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사십 일 동안 땅을 덮었다. 우리 구원자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계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지금 승리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싸우셨고 승리하셨던 바로 그곳에서 승리의 사십 일을 머무신다. 그러나 그분이 그 사십 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나?

1. 그 사십 일은 모든 인류에게 증거하기에 충분하였기에 그분은 사망에서 참되게 다시 사셨다. 그분은 어떤 종류의 환상이나 유행으로서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실제 사람으로서 무덤에서 나오셨다.
2. 이 시간 동안, 우리 주께서 그분의 제자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오랜 의혹을 제거하셨다. 그분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 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

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39 절).

3. 다시, 그분은 사십 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는데, 그분의 죽으심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들이 몇 가지 마지막 감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직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갖고 계셨으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전에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다.
4.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셨으므로 그분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분의 교회가 따라야 하는 책무를 내리셨을 것이다.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21:15-16).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15-16). 그분은 마지막 명령이 주어지기 전까지 세상에서 떠나시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구원의 전능한 대장께서 그분의 군대를 정렬하셨고, 그들의 계급에 따라 자리를 잡게 하였고, 그들의 행진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전쟁을 향하여 앞으로, 승리를 향하여, 약속이 이 말씀을 갖고 행진할 것을 명령하셨다 —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20).

그리고, 그분이 땅 위의 그분의 군대를 떠나시고, 그분의 보좌를 받으러 올라가셨던 것처럼,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셨다.”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겠는가? 그분 주변에 모인 그분의 사도들과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제자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왔다. 그들 위에 예루살렘, 황량하게 남겨지고 파괴를 기다리는 성과 갈보리라 하는 곳, 사십 일 전에 그가 고난 받고, 피를 흘리고, 우리 대속자로 죽으셨던 곳이 있었다. 바로 앞에 베다니, 그가 사망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큰 기적을 행하셨던 작은 마을인 곳, 환영 받은 손님으로 자주 영접 받았던 그 집,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바로 아래에는 겟세마네 동산, 우리를 위하여 그가 피땀을 흘리면서 사망과 지옥과 씨름 하셨던 곳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날 일어났다고는 듣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찬양을 불렀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인다. 어떤 최종적이고, 개인적인 말씀이 제자들 각각에게 주어졌을 것을 상상해 본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셨고, 야고보를 위로하셨으며, 요한에게 감동을 주셨으며, 도마를 격려하셨다. 어쨌든지 간에, 그분은 그들에게 작별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셨다.”

그분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동안, 그분은 중력의 법칙을 깨셨고 승천하기 시작하셨다. 제자들은 분명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분이 거의 시야에서 사라지실 때까지, 천천히, 장엄하게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깜짝 놀란 제자들은 그들과 그들의 구원자 사이에 있는 구름을 보았고, 주의 몸이 사라졌다. —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9). 누가 그 구름 뒤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겠는가?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혹은 사람의 귀로 듣기에는 너무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 24:7). 하나가 외쳤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시편 24:10). 다른 자가 대답하였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8-10).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그분이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셨다.” 우리 주의 손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들려졌다. 신성한 은혜의 모든 축복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못 박힌 손으로부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흘러내린다. 감람 산 위에 서서, 그분 바로 앞에 있는 그 영광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은혜의 선포로 그분의 사역을 여셨고, 이제 그분의 땅 위에서 마지막 행동은 은혜의 축도이다.

이 들려진 손은 우리 주이고 구속자인 분의 손이다. 그분께서 이 근심하고 두려워 하는 제자들에게, “내 손을 보라” 고 하셨다. 그분이 “그분의 손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위로 받았고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이 손은 주권적인 창조주, 우리 영원한 보증이시고 우리의 축복된 구원자의 손이다. 이 손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였으며,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고, 멸망하는 베드로를 구원하셨고,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셨다. 이 손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었으며 근심하는 제자들을 안심시켰다. 당신이 필요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가운데 있는가? 당신이 근심 가운데 있는가? 당신의 마음이 근심으로 염려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가? 당신의 구원자께서 “내 손을 보라!”고 하신다. 그분의 손이 축복하기 위하여 들려졌다.

이 축복은 전혀 보기 드물지 않다. 우리 주의 손은 언제나 축복하는 손이다. 그분의 세상 삶을 통하여, 축복이 그 손으로부터 계속하여 흘러나왔다. 그분의 세상 사역 동안에, 수천 명이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사복음서는 축복의 사례들로 충만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나왔다. 그분은 선한 일을 하고자 가셨다. 그분의 손이 농부가 그의 씨를 뿌리듯이 축복을 뿌리셨다.

우리 주께서 그분이 그들을 떠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을 축복하시려 그분의 손을 들어 올리셨을 때, 그분이 언제나 하셨던 것을 하실 뿐이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가장 풍성한 축복은 전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분의 예전의 방법의 계속일 뿐이었다. 만약 이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분의 손을 들어 올리셨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공훈의 황금사슬 안에 있는 또 다른 고리일 뿐이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계속하실 것이다. 그분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간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그분은 새로운 권위로 그들을 축복하셨다. 전에는 그들 위에 축복을 내리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제 그분은 축복을 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포하신다! 그분의 희생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속량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축복이 사신 바 되었다. 전에는 우리 구원자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을 탄원하셨다. 이제, 그분은 그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축복할 권한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축복을 부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아무도 우리를 축복할 권한과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축복할 권능을 가진 제사장 (혹은 제사장직 전도자들)인 척하는 모든 자들은 인간의 혼을 속이는 자들이다. 우리 구원자께서 그분의 손을 들어 올리셨을 때, 그분은, “여기를 보라, 내 자녀들아. 모든 축복이 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 손은 우리 중재인, 하나님-사람 중보자의 손이다.

내게 충격을 주는 또 다른 것은 우리 주의 손의 축복이 충만하고 완전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분이 그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구원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는가? 누가는 그분이 한 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그들 위에 임한 축복을 보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를 거의 그려볼 수 있다. 그분은 그분의 팔을 위로 펼치시고 그분의 손을 넓게 여시고, 사람들 위에 흔드셨다. 그런 행동에서 그분은, “보라, 나의 속량 받은 무리들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이제 필요한 모든 것, 너희가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한번 더, 우리 주의 손의 축복은 특별하고, 특이한 축복이었다. — “그가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이것은 특별하고 구별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된 축복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백성을 위함이였다. “공통 은혜”의 가르침은 공통적인 환상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의 축복들은 주의 선택 받은 자를 위하여 보존된 특별한 가족의 축복이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신 분께서 탕자에게 햇볕과 비를 보내시며, 그들은 그런 것의 일시적인 유익을 받는다. 그러나 햇볕과 비조차도 하나님의 택정한 자를 위하여 땅 위에 내려진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소유를 위함이다 (로마서 8:28). “공통 은혜”의 축복으로 사람들이 언급하는 그런 것들은 사악한 자의 정죄에 더해질 뿐일 것이다.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모든 것 가운데 축복 받는다 (신명기 28:1-14). 그러나 사악한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 가운데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8:15-46). 모든 사람이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자 (출애굽기 11:7). 모든 것 가운데 그분은 그분 자신의 택하신 자에게 각별히 구별되게 은혜로우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자신의 양 떼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 놓으셨다. 여기에서 그분은 그분의 구속 받은 자들을 축복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의 피를 부어 주셨던 자들에게서 하나의 축복도 거두실 수 없었고 거두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기도 가운데 구별하셨으며, 그분의 축복 가운데 구별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17:9, 20).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 안에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3-14).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사랑의 손으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의 축복을 뒤집을 수 있는 권세는 하늘에도, 땅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도, 혹은 지옥에도 없다. 하늘로 오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손에서 축복의 유산을 남기셨다. 그분의 손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를 축복할 것이며, 우리가 죽을 때 축복할 것이고, 심판 가운데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그분의 손은 그분의 대적들을 영원한 불 속으로 휘저어 쫓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태복음 25:34)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손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손을 들어올리셨으며,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받았다!

못 박힌 손

우리가 축복을 받은 우리 주의 그 손을 다시 보라. 그 손은 못이 박힌 손이다.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하늘로 오르신 그분을 볼 수 있는가? 나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을 알지 못한다. 아마도 각자는 그들이 가장 잘 기억했던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구별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에 있는 그 구별된 표시를 보았을 것을 확신한다.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실수를 할 수 없다.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못 박히셨던 그 한 분이다. 이 못 박히니 손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못 박힌 손은 우리 주를 구별한다. 그 손이 그분이 누구인지 말해준다. 제자들이 아직 거기에 못 구멍이 있는 그 축복의 손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분이 정말 그들의 주이셨음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구속자를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손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에 못 자국으로 그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영광 가운데에서 조차, 우리 주께서 그분의 십자가 형의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살육 당한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신다. 이 손은 인을 풀고 하나님의 계명의 책을 여신 손이고 (계시록 5:5),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한 손이다 (계시록 10:1-3).

다른 이유로 인하여, 그 못 박힌 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시는 그 축복의 대가를 분명히 보여 준다. 그 손은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아, 그분이 우리를 대가 없이 풍성하게 축복하신다. 그러나 누가 그 은혜의 축복들이 그분께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의 손이 부어주는 은사는 결코 없으나,
그분의 마음에 신임으로 값을 치르게 하네!”

그렇다, 우리는 대가 없이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대가 없이 누리는데 모든 축복이 우리 구속자의 못 박힌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분이 우리 대신에 그 나무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우리는 우리 주의 그 못 박힌 손을 통하여 모든 것을 얻는다. 의가 그 찢린 손 안에 있다. 구속은 그 찢린 손 안에 있다. 용서가 그 찢린 손 안에 있다. 평강이 그 찢린 손 안에 있다.

그분의 못 박힌 손의 손길로, 하나님의 아들은 죄로 병든 혼을 치유하신다. 죄인들은 그 못 박힌 손을 통한 것을 제외하고 어떤 선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이 손은 야곱이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이르는 것을 본 그 사닥다리이다. 그 못 박힌 손은 하늘의 문을 연다. 그 못 박힌 손은 우리 혼을 위한 유일한 피난처이다.

그 못 박힌 손을 보는 것 만으로도 큰 축복이다. 우리는 호기심으로부터 이 육신의 죽을 눈으로 그 손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구속자의 못 박힌 손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축복인가! 그 못 박힌 손을 바라봄으로 우리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게 된다. 그분을 못 박은 것은 우리 죄였다.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안다.

그분의 제자들을 축복하시려 그 못 박힌 손을 들어 올림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다. 그 못 박힌 손을 갖고 하늘에 오르는 죄인의 대속자가 있다.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 위에 은혜로운 축복을 뿌리신다. 구원의 축복은 우리 대속자의 못 박힌 손을 통한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당신 위에 펴시기를 구하라.

주권자의 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은 이제 철저하고 주권적인 통치의 홀을 잡고 있다. 그 손은 홀로 우주의 주권자이신 분의 손이다. 우리는 갈보리를 되돌아 보면 우리 구속 가운데 못 박힌 그 손을 본다. 우리가 감람 산을 돌아보면 우리를 축복하시려 올려진 그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못 박힌 손을 본다. 이제,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못 박힌 손을 본다 (요한복음 17:1-2; 시편 68:17-18; 로마서 14:9).

우리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은 우주 섭리의 홀을 쥐고 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16-17). 모든 사람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지옥의 모든 마귀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모든 행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가 세상을 그 손 안에 갖고 계시네,
그 온 세상을 그 손 안에 갖고 계시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in His hands!”)

왕이신 예수께서 만유에 대한 권세와 지배를 소유하심으로, 그가 대신하여 그분의 손이 못 박혔던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었다.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분 자신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를 위하여 만유를 통치한다 (계시록 1:16; 에베소서 1:19-23). 우리 주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16)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못 자국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모든 백성의 모든 이름을 읽으신다. 그 손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 손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신다. 그 손이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 손이 우리를 흠 없이, 비난할 수 없이, 질책할 수 없이 하늘 안의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 전람하실 것이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부활 아침에 우리는 우리 구속자의 못 박힌 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 것인지! 라헬이 야곱의 손을 붙잡고 있었을 때, 그 손이 그녀에게는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 손은 그녀를 위한 사십 년 간의 사랑 수고의 흔적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속자의 손에서 못 자국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분의 사랑의 수고의 흔적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또한 의의 심판의 홀을 쥐고 있다. 그 손이 모든 그의 대적들을 도말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이 그 큰 날 우리의 유일한 탄원과 유일한 방어로서 잡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구속하기 위하여 뚫리고, 축복하기 위하여 들어 올려지고, 구원하기 위하여 높여진 그 손을 보았는가? —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31). 그 못 박힌 손은 구원할 수 있다. 그 손은 용서로 충만하다. 그 못 박힌 손이 우리가 그분께 경배 드리게 할 것이다. 그 손이 우리가 우리 구원자의 영광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도록 할 것이다. 그 못 박힌 손이 우리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 손이 우리가 인내하게 격려할 것이다. 그 축복의 손, 그 못 박힌 손이 만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할 것이다. —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10).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축복하는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이제 여호와와 기쁨이 되기를 축원한다.

아멘.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

오류! 여기에 표시할 텍스트에 Heading 1 을(를) 적용하려면 [홈] 탭을 사용하십시오.